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058-10

ISSN 1739-2705

6·25戰爭史 9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한민국전도


행정구분도
중 국
러시아연방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함경남도
남포직할시
평양직할시
개성직할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 본
동 해
서 해
남 해

중국
함경북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통화
지린
창진
나진
선봉
청진
무산
혜산
강계
신의주
성신
흥남
동한만
서한만
평안남도
황해도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원산
강원도
춘천
경기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주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한해협
쓰시마섬
제주도
제주
서귀포
일본
동해
남해
황해
범례
축척 1:1,100,000

6·25戰爭史 9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9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서 문



금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6·25전쟁은 5천여 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가장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를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 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유엔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기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 『6·25전쟁사 제9권』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 책에는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 중에 진행된 휴전회담 및 고지쟁탈전을 중심으로 후방지역에서의 공비 토벌작전, 해·공군 작전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사에 대한 재조명사업은 세계 냉전이 종식된 이후 6·25전쟁 당사국들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속속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추진됨으로써 사실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며, 그 결과 6·25전쟁사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출간되는 『6·25전쟁사 제9권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을 통해 국민들이 6·25전쟁 시 우리의 자유수호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이 책이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6·25전쟁 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호국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계속해서 편찬될 6·25전쟁사가 그 분들과 참전자 모두의 분전 상황을 더욱 진솔하게 담아낼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원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애써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군 원로 및 관련학자 여러분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발 간 사



올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참혹함을 초래한 민족사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라는 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 곳에 모으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1967년부터 국내 및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6·25전쟁사 전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03년부터 우리 연구소에서 다시 민족상잔의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발굴된 사료를 반영하여 6·25전쟁사를 재조명하는 연구 편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그 아홉 번째 산물인 『6·25전쟁사 제9권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6·25전쟁사 제9권』에서는 1951년 7월 10일부터 1951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공산군과 유엔군 측의 전쟁지도와 군사작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6·25전쟁은 1951년 7월 10일을 기점으로 휴전회담장에서의 설전(舌戰)과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착된 전선에서의 혈전(血戰)이 함께 진행되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내놓은 전쟁정책과 전략, 전쟁 및 작전지도와 함께 양측의 휴전회담 전략과 방침, 휴전협상의 난항 그리고 전후방지역에서 전개된 고지쟁탈전과 공비토벌작전, 해군과 공군작전 등 전쟁 및 작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25전쟁사 제9권』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한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자료 및 기존 연구성과의 토대위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미국과 소련의 외교 및 군사자료를 비롯하여 2000년 이후 공개된 중국 자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6·25전쟁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존 6·25전쟁사를 새롭게 보완하여 재조명한다는 본 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필진들의 혼신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 출간된 이 책자가 6·25전쟁 당시 우리 정부 및 국민들의 자유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헌신적인 지원, 그리고 국군용사들의 용전분투 등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자가 국내외 전쟁사 연구관계자들에게는 6·25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료 분석과 집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집필진 여러분과 인쇄를 맡아준 국군 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견을 내어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2년 6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최 북 진**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리거나 강조 표시
   『 』: 서명이나 신문매체를 표시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랐다. 문장은 한글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영어 등 원래의 단어를 ( ) 안에 표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명의 경우 과거에 한자로 표기했던 지명들 중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은 한글로 바꾸어 표기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 )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각 장 별로 처음 나오는 고유 명사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5. 본문에 인용된 외국어 자료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로 번역했다. 다만 그 의미상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고유명사나 관용어 등은 그대로 사용했다.

6. 주기(註記)는 후주(後註)로 하여 각 장 끝부분에 수록했다. 본 문의 내용 중에 추가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후주에 수록했다.

7. 집필자는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명기했다.

8. 상황도는 주로 1950년대 1:5만 군사지도를 사용했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수록했다.

9. 북한군과 관련된 용어는 국방부의 '정신교육지침'과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인민군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다. 또한 전쟁 후에 달라진 북한지명은 과거의 지명을 표기하면서 ( ) 안에 현재의 지명을 명시했다.

10.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아울러 인용된 중국어 자료는 간자체와 번자체 모두를 번자체로 통일해 표기했다.

목 차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6·25전쟁 개관 ····· 3
제 2 절 북한의 남침 이후 상황 요약 ····· 5
제 3 절 전쟁상황 및 양측의 전쟁지도 ····· 13
제 4 절 연구범위 및 수록내용 ····· 19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 23

제 1 절 국내외 정세와 전황 ····· 25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 46
제 3 절 유엔군과 미국의 전쟁지도 ····· 56
제 4 절 한국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 ····· 78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95

제 3 장 휴전회담 개시와 협상의 난항 / 109

제 1 절 양측의 휴전협상 방침과 회담의제 채택 ····· 111
제 2 절 군사분계선 협상과 가조인 ····· 147
제 3 절 정전 및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의 ····· 172
제 4 절 전쟁포로에 관한 협상 ····· 183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190

제 4 장 유엔군의 반격과 전선의 교착 / 207

제 1 절 개 요 ····· 209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 218
제 3 절 작전경과 ····· 241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275

제 5 장 유엔군의 하계작전 / 287

제 1 절 개 요 ····· 289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 297
제 3 절 작전경과 및 결과 ····· 330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427

제 6 장 유엔군의 추계 및 동계작전 / 441

제 1 절 개 요 ····· 443
제 2 절 유엔군의 추계작전 ····· 451
제 3 절 유엔군의 동계공세와 공비토벌작전 ····· 542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595

제 7 장 해군작전 / 607

제 1 절 작전 개요 ····· 609
제 2 절 유엔해군 작전 ····· 618
제 3 절 한국해군 작전 ····· 654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670

제 8 장 공군작전 / 685

제 1 절 작전 개요 ····· 687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 698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 734
제 4 절 분석 및 교훈 ····· 792

제 9 장 총 평 / 805

제 1 절 전쟁지도 ····· 807
제 2 절 작전 및 전술 ····· 812
제 3 절 휴전회담 ····· 827
제 4 절 결 론 ····· 834

부 록 / 837

1. 영문약어 ····· 839
2. 연 표 ····· 841

▌참고문헌
▌찾아보기

〈표 목 차〉

〈표 3-1〉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 ····· 126
〈표 3-2〉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 ····· 129
〈표 3-3〉 휴전회담 의제 제3항에 대한 양측의 제안 ····· 174
〈표 3-4〉 유엔군 측 수정안과 공산군 측의 반응 ····· 178
〈표 3-5〉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차이점 ····· 181
〈표 3-6〉 공산군 측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내역 ····· 187
〈표 4-1〉 각 병단별(축선별) 작전책임 부여 ····· 219
〈표 4-2〉 조중연합사령부 지휘관계 ····· 222
〈표 4-3〉 철수작전 기간 중 중공군 지휘체계 ····· 223
〈표 4-4〉 철수작전 기간 중 공산군 전투편성 ····· 223
〈표 4-5〉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 225
〈표 4-6〉 중공군 제3병단 지휘부 편성 ····· 226
〈표 4-7〉 중공군 제19병단 지휘부 편성 ····· 226
〈표 4-8〉 철수작전 기간 중 북한군 지휘관 인적사항 ····· 227
〈표 4-9〉 축선별 주요부대 편성 ····· 234
〈표 4-10〉 미 제1군단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 234
〈표 4-11〉 미 제9군단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 236
〈표 4-12〉 미 제10군단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 237
〈표 4-13〉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 239
〈표 4-14〉 유엔군 예비대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 240
〈표 4-15〉 양구-인제 진격전 부대 배치 ····· 250
〈표 4-16〉 국군 제1군단 공격계획(1951. 5. 26) ····· 253
〈표 4-17〉 미 제1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계획 ····· 257
〈표 4-18〉 미 제9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계획 ····· 259
〈표 4-19〉 신캔자스선 공격을 위한 미 제8군의 부대배치 ····· 265
〈표 5-1〉 조중연합사령부 지휘체계 ····· 300
〈표 5-2〉 북한군 지휘 및 통제계통 ····· 301
〈표 5-3〉 중공군 전투서열 ····· 302
〈표 5-4〉 중공군 지휘부 편성 ····· 304
〈표 5-5〉 중공군 병단별 지휘부 편성 ····· 305
〈표 5-6〉 중공군 군(단)별 지휘부 편성 ····· 306

〈표 5-7〉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 309
〈표 5-8〉 북한군 주요 지휘관 ····· 311
〈표 5-9〉 북한군 주요 지휘관 ····· 311
〈표 5-10〉 공산군 전선정면 배치현황 ····· 313
〈표 5-11〉 북한군 군단별 배치현황 ····· 314
〈표 5-12〉 공산군측 인원 및 장비현황 ····· 315
〈표 5-13〉 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 319
〈표 5-14〉 지역별 주요 부대 배치 ····· 320
〈표 5-15〉 미 제1군단 전투서열 ····· 321
〈표 5-16〉 미 제9군단 전투서열 ····· 323
〈표 5-17〉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 325
〈표 5-18〉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 327
〈표 5-19〉 국군 및 유엔군 인원 및 장비 현황 ····· 329
〈표 5-20〉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31
〈표 5-21〉 전과 및 손실 ····· 338
〈표 5-22〉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39
〈표 5-23〉 전과 및 손실 ····· 347
〈표 5-24〉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50
〈표 5-25〉 전과 및 손실 ····· 362
〈표 5-26〉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64
〈표 5-27〉 전과 및 손실 ····· 375
〈표 5-28〉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77
〈표 5-29〉 전과 및 손실 ····· 383
〈표 5-30〉 전투서열 및 지휘관 ····· 385
〈표 5-31〉 전과 및 손실 ····· 400
〈표 5-32〉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02
〈표 5-33〉 전과 및 손실 ····· 412
〈표 5-34〉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14
〈표 5-35〉 전과 및 손실 ····· 426
〈표 6-1〉 중공군 전투서열 ····· 455
〈표 6-2〉 중공군 지휘부 편성 ····· 457
〈표 6-3〉 중공군 병단별 지휘부 편성 ····· 458
〈표 6-4〉 중공군 제1선 병단별 주요 지휘관 ····· 459
〈표 6-5〉 중공군 군(단)별 지휘부 편성 ····· 460

〈표 6-6〉 해안방어사령부 지휘부 편성 ····· 462
〈표 6-7〉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 463
〈표 6-8〉 북한군 주요 지휘관 ····· 465
〈표 6-9〉 북한군 군단별 주요 지휘관 ····· 465
〈표 6-10〉 공산군 전선정면 배치현황 ····· 467
〈표 6-11〉 공산군 해안방어 배치현황 ····· 468
〈표 6-12〉 북한군 병력(병원)현황 (1951. 10. 20 현재) ····· 468
〈표 6-13〉 북한군 총기류 현황 (1951. 10. 20 현재) ····· 469
〈표 6-14〉 북한군 각종 포 현황 (1951. 10. 20 현재) ····· 469
〈표 6-15〉 북한군 기갑류 현황 (1951. 10. 20 현재) ····· 470
〈표 6-16〉 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 472
〈표 6-17〉 미 제1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 473
〈표 6-18〉 미 제9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 475
〈표 6-19〉 미 제10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 477
〈표 6-20〉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 478
〈표 6-21〉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82
〈표 6-22〉 전과 및 손실 ····· 489
〈표 6-23〉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90
〈표 6-24〉 전과 및 손실 ····· 499
〈표 6-25〉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01
〈표 6-26〉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현황 ····· 517
〈표 6-27〉 작전기간 중 사단의 손실 현황 ····· 517
〈표 6-28〉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43
〈표 6-29〉 전과 및 손실 ····· 547
〈표 6-30〉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48
〈표 6-31〉 전과 및 손실 ····· 558
〈표 6-32〉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59
〈표 6-33〉 전과 및 손실 ····· 569
〈표 6-34〉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70
〈표 6-35〉 제1차 전투 전과 및 손실 ····· 574
〈표 6-36〉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75
〈표 6-37〉 전과 및 손실 ····· 584
〈표 6-38〉 백야전전투사령부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86
〈표 7-1〉 미 극동해군의 지휘체계(1950. 9. 12~전쟁 종료 시까지) ····· 618

〈표 7-2〉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 주요 지휘관 ····· 619
〈표 7-3〉 한국해군 편성 ····· 619
〈표 7-4〉 해상포위작전 결과 ····· 633
〈표 7-5〉 기뢰정보 개요(1951년) ····· 653
〈표 7-6〉 한국해군 제1함대 기구도 ····· 658
〈표 8-1〉 공산군 측 공군 전투부대 현황(1951년 11월말 기준) ····· 692
〈표 8-2〉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1년 12월 기준) ····· 696
〈표 8-3〉 1951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 699
〈표 8-4〉 1951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전력 현황 ····· 700
〈표 8-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1년 7월~12월) ····· 705
〈표 8-6〉 조중연합공군사령부 지휘관계 ····· 724
〈표 8-7〉 중국공군 제3, 4전투비행사단의 전투 활동 ····· 730
〈표 8-8〉 중국공군의 서해 북부도서 점령 지원작전 ····· 733
〈표 8-9〉 1951년 7월~12월 간 비행활동 ····· 741
〈표 8-10〉 1951년 7~12월 중 주·야 비행활동 ····· 742
〈표 8-11〉 1951년 7~12월 중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 742
〈표 8-12〉 1951년 7월~12월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 743
〈표 8-13〉 1951년 7월~12월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 ····· 744
〈표 8-14〉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 간 피·아 항공기 손실 ····· 745
〈표 8-15〉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 ····· 753
〈표 8-16〉 1951년 8월~11월 간 적 대공포로 인한 제5공군 항공기손실 현황 ··· 764
〈표 8-17〉 근접항공지원 비행 현황 ····· 767
〈표 8-18〉 공수작전 현황 ····· 770
〈표 8-19〉 한국공군 지휘관계(1951년 12월 말 기준) ····· 772
〈표 8-20〉 공군의 기지별 항공기 운영 현황(1951년 10월 20일 기준) ····· 773
〈표 8-21〉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비행운영 ····· 777
〈표 8-22〉 작전태세검열 기간 중 비행운영 ····· 781
〈표 8-23〉 서남지구 공비토벌 제1기 작전 비행운영 ····· 784
〈표 8-24〉 서남지구 공비토벌 제2기 작전 비행운영 ····· 784
〈표 8-25〉 강릉전진부대 주요 제대 편성(1951. 9. 28) ····· 787
〈표 8-26〉 강릉전진부대 단독 후방차단작전 ····· 791

〈상황도 목차〉

〈상황도 3-1〉 최초의 휴전회담 장소인 개성(1951. 7. 10) ····· 133
〈상황도 3-2〉 유엔군 측이 제안한 군사분계선(1951. 7. 27) ····· 148
〈상황도 3-3〉 휴전회담 장소가 된 판문점과 중립지대(1951. 10. 22) ····· 162
〈상황도 3-4〉 양측이 합의한 잠정군사분계선(1951. 11. 27) ····· 169
〈상황도 4-1〉 중공군 5월 공세 종료 후 상황 ····· 211
〈상황도 4-2〉 유엔군의 3차 반격작전 ····· 241
〈상황도 4-3〉 국군 및 유엔군의 캔자스선 진격상황 ····· 245
〈상황도 4-4〉 국군 및 유엔군의 와이오밍선 진격상황 ····· 257
〈상황도 4-5〉 국군 및 유엔군의 신캔자스선 진격상황 ····· 265
〈상황도 5-1〉 국군 및 유엔군의 부대전개 상황(1951. 9. 1) ····· 295
〈상황도 5-2〉 924고지 전투(1000고지 쟁탈전) ····· 335
〈상황도 5-3〉 884고지 전투(1951. 8. 18) ····· 342
〈상황도 5-4〉 884고지 전투(1951. 8. 27) ····· 345
〈상황도 5-5〉 피아의 대치상황(1951. 8. 1) ····· 352
〈상황도 5-6〉 피의 능선 공격계획 ····· 368
〈상황도 5-7〉 피의 능선 전투 ····· 371
〈상황도 5-8〉 924고지 및 1026고지 전투(1951. 8. 28) ····· 380
〈상황도 5-9〉 제1차 가칠봉전투 제35연대 작전계획 ····· 393
〈상황도 5-10〉 제1차 백석산전투(1951. 9. 24~9. 27) ····· 406
〈상황도 5-11〉 단장의 능선 제2차 공격계획(1951. 10. 5~10. 3) ····· 424
〈상황도 6-1〉 1951년 10월 피아 전선 배치 상황(1951. 10. 31) ····· 449
〈상황도 6-2〉 제1차 월비산 전투(1951. 10. 12) ····· 485
〈상황도 6-3〉 가칠봉 부근 1052고지 전투 ····· 493
〈상황도 6-4〉 가칠봉 부근 1211고지 전투 ····· 498
〈상황도 6-5〉 어은산 남측지구 공격방향 ····· 509
〈상황도 6-6〉 미 제1군단의 코만도 작전계획 ····· 520
〈상황도 6-7〉 김화-금성 진격작전 ····· 530
〈상황도 6-8〉 금성천-교암산 전투 ····· 538
〈상황도 6-9〉 개리(GARY)선 전격작전 ····· 555
〈상황도 6-10〉 281고지 야간전투 ····· 562
〈상황도 6-11〉 395고지 전투(1951. 11. 5~11. 6) ····· 565
〈상황도 6-12〉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 ····· 573
〈상황도 6-13〉 두메리고지 전투(1951. 12. 18) ····· 577

〈상황도 6-14〉 공비토벌 제2기 작전 ····· 593
〈상황도 7-1〉 동해안에 대한 함포사격의 문제점 ····· 619
〈상황도 7-2〉 함포사격지원 구역 ····· 620
〈상황도 7-3〉 한강주변 시위작전 구역 ····· 621
〈상황도 7-4〉 원산항 요도 ····· 628
〈상황도 7-5〉 항공차단작전 책임구역 ····· 634
〈상황도 7-6〉 나진항의 철도 및 도로망 ····· 637
〈상황도 7-7〉 갑산지역과 동해안의 철도망 ····· 643
〈상황도 7-8〉 송화지구 전투 ····· 664
〈상황도 7-9〉 신미도 작전 요도 ····· 667



제 1 장 총 개요

제 1 절	6 · 25전쟁 개관
제 2 절	북한의 남침 이후 상황 요약
제 3 절	전쟁상황 및 양측의 전쟁지도
제 4 절	연구범위 및 수록 내용

제 1 절 6 · 25전쟁 개관

6·25전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한 전쟁이며,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합의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전개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종전이 아닌 정전 또는 휴전상태로 멈추어졌다.

6·25전쟁은 전쟁이 발발한 후 최초 1년이 전선의 변화가 가장 심한 격동기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교착기였다. 격동기 1년간에는 공산군이 세 차례나 38도선을 넘나들었다. 그 첫 번째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두 번째는 중공군이 평택-삼척 선까지, 세 번째는 중공군이 서울 북방 구파발-강릉 선까지 각각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은 번번이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최초 북한군 남침 시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97일 만에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하고 청천강 이북까지 진출하였으며, 두번째 북한군과 중공군의 남침 시에는 약 90일 만에 이들을 격퇴시키고 38도선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세번째 북한군과 중공군 남침 시에도 약 39일 만에 다시 이들을 38도선 이북으로 축출하여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공산군이 38도선 이남에서 머문 기간은 226일 간이었고,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에서 머문 기간은 76일 간이었다.

6·25전쟁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5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대규모의 무력 충돌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6·25전쟁은 우선 남북한에 엄청난 피해와 변화를 주었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기간에 국군과 유엔군의 인원손실은 77만 6천여 명이나 되었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인원피해도 2백만여 명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남한 100만여 명, 북한 150만여 명 등 250

만여 명이나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그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를 합한 2,500여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여기에다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국가 기간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 손실만도 320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320만여 명의 피난민과 30만여 명의 전쟁미망인, 10만여 명의 전쟁고아 등 사회적 기반을 뿌리 채 뒤흔드는 국가적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사회, 문화적 이질화는 심화되었고 체제경쟁 속에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게 되었다.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 지역의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이 급기야 세계 6대주의 25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동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을 구성한 초강대국들이 이 전쟁에 모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1950년대의 세계사에서 동·서 냉전의 무대에 제물로 바쳐진 희생양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의 구축과 군비경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또한 핵의 위협 속에 치른 제한적, 국지전적 성격 때문에 양 진영이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6·25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시각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즉,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전쟁이었다.”라는 해석에서부터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전쟁이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내전에 강대국이 개입한 전쟁이었다.”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세계공산화 책략의 일환으로 스탈린(Joseph V. Stalin)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金日成)이 일으킨 남침전쟁이자 국제전쟁이었다. 또한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한 국가수호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들이 함께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한 ‘자유수호전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제 2 절 북한의 남침 이후 상황 요약

1.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서울 피탈

북한군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8도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군은 200여 대의 T-34전차를 앞세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군의 방어선을 곳곳에서 돌파하였다. 남침 다음날인 6월 26일 13시경에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함락되었고, 6월 28일 01시경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미아리고개를 넘어서면서 국군은 수도 서울을 불과 3일 만에 북한군에게 내어 주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아리 방어선 후방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하였다는 보고를 접수한 총참모장 채병덕의 명령에 의거하여 국군 공병부대가 6월 28일 0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파하였다. 이로 인해 한강 북쪽에 남아있었던 150만 서울시민들의 피난이 어려워지고 미처 철수하지 못한 국군의 철수로가 차단되어 국군의 전투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이 춘천지역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그들이 수원으로 진출하여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켰다. 또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 국군은 전선에서 삼삼오오로 철수해 오는 병력을 재편성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저지하였다. 이와 같은 국군의 필사적인 노력과 조치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우방 국가들이 지원군을 파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신속하였다.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지체 없이 참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6월 26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38도선 북쪽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28일, 유엔은 권고를 무시한 채 남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군사적인 제재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7월 7일 유엔은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을 창설하였다. 유엔의 결정에 따라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은 유엔의 기치(旗幟) 아래 지원군을 파병하였다. 초대 유엔군사령관에는 미국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임명되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아더 원수는 국군을 지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李承晩)이 대통령은 7월 14일, 맥아더 원수에게 서한을 보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그 사이 일본 동경에 위치해 있던 미국 극동군사령부는 남진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을 한반도에 파병하였다. 그러나 전투 준비가 부족했던 미 제24사단은 오산·평택·천안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금강을 좌우로 연결하는 선으로 후퇴해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전력과 그들의 측방기동 및 후방차단 전술에 밀려 금강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섰다. 이어서 7월 20일에는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을 북한군에게 피탈 당하고 사단장마저 실종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였다.

북한군의 공세는 거침이 없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극동군사령부의 명에 의거 7월 9일 일본에서 대구로 지휘소를 이전시키고 이어서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29독립연대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켰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에서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공간을 내어주

면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연전을 펼치면서 유엔군의 증원을 보장하고 재편성에 의한 전열 재정비와 전투력 복원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7월 말에는 방어에 유리한 낙동강을 연하는 지역까지 철수하였다.

이 무렵 국군과 유엔군이 확보하고 있던 지역은 경북지역 일부와 경남지역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필사의 각오로 최후의 거점인 낙동강 교두보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였다.

3. 낙동강방어선전투

낙동강방어선은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과 동해, 남해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대구 북서쪽 왜관으로부터 남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창녕-마산 진동리에 이르기까지 112km 구간을 담당하고, 왜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낙정리-구미동-청송-영덕을 연하는 138km 구간을 국군이 담당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좌우가 완전하게 연결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매서웠다. 유엔군이 담당하는 마산·왜관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는 다부동·기계·포항 일대의 지역에서는 운명을 건 쌍방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이 되면서 양측의 전투력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국의 지원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유엔군의 전투력이 급속히 향상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군의 전투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군은 가용한 거의 모든 전투력을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다. 전쟁 초기에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던 T-34전차도 겨우 100여 대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공군의 끊임없는 후방차단으로 대부분의 보급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보급도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해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렇지만 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낙동강방어선 곳곳이 돌파되고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담당하고 있던 대구 북서쪽의 왜관·다부동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영천 일대의 상황은 심각하였다. 북한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방어선을 마산-밀양-울산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어 모든 역량을 낙동강방어선에 투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였다.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볼 때 결코 국군과 유엔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북한군이 그 같은 9월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은 전장의 주도권을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 인천상륙작전과 38도선 회복

북한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국군과 유엔군을 낙동강 이남 지역으로 몰아붙이며 최후의 공세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국군과 유엔군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유엔해군과 공군의 후방차단으로 추가적인 증원과 보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던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 막대한 장비 및 물자와 함께 자유우방국들이 파병한 병력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반격작전을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15일을 기해 미 제10군단이 중심이 된 상륙부대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인천의 지형적 불리함을 비롯한 많은 제한요인과 관련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원수의 상륙작전 성공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였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승리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 13개 사단

의 주력은 후방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낙동강방어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자 그 사이에 갇힌 북한군은 붕괴되었다. 남침 이후 국군과 유엔군을 연거푸 격파하며 기세등등했던 북한군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에는 38도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지 불과 15일 만에 전선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켰는데, 이는 최초 유엔이 결의했던 전쟁목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은 남과 북이 합쳐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 역시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부터 추구해 왔던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5. 38도선 돌파와 북진

1950년 10월 1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북진을 시작하였다. 이어 유엔의 북진결의에 따라 10월 9일, 서부지역의 유엔군도 38도선을 돌파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의 모든 역량을 낙동강 일대에 투입했던 북한군은 주력이 붕괴된 후부터 실질적인 저항의지와 능력을 상실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0월 21일, 평양 북쪽 순천에 도달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는 “이날 중으로 순천 북쪽 50㎞ 지점에 위치한 개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명령을 접수한 대대장은 전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전조등을 밝히고 개천으로 향했고 대대는 당일 중으로 개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초산 북쪽의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동부전선에서도 미 제7사단이 혜산진에,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일대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도 해안선을 따라 청진 일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25일 이후 중공군의 기습적인 제1·2차 공세가 전개됨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6.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국군과 유엔군은 30만여 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미처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까지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흥남으로 철수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 간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38도선으로부터 낙동강 선까지 수개의 방어선을 계획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12월 하순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50% 이상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부대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북한군 제3, 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를 위하여 배치하고, 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유사시 평택-원주-삼척선에서 운용하기 위해 예비로 확보하였다.

7.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1950년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을 기해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지향시키고,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조공을 지향시켜,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작전, 즉 제3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 중이던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에서 물러나 서울을 다시 공산군에 내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하였던 평택-삼척을 연결하는 37도선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남침을 계속하여 1월 7일에는 수원-여주-강릉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동안에 입은 전력 손실로 인하여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의 공격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공산군 측의 부대를 격멸하는데 작전의 주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 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중공군의 제4차 공세(1951 2. 11~2. 18)가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군과 유엔군이 서로 맞부딪쳐 횡성(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 측의 공세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3월 15일을 기해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전진을 계속하여 3월 말에는 38도선을 또 다시 회복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엔군은 38도선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명 캔자스선으로 불리는 임진강-영평천-화천저수지-양양을 연결하는 요지를 점령하였고, 중부지역에서는 캔자스선을 발판으로 와이오밍선으로 불리는 철원-금화로 다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이 다섯 번째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때 공산군 측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 규모인 3개 병단 11개 군 35개 사단의 중공군과 북한군을 총동원, 4월(4. 22~30)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에, 5월(5. 16~22)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각각 주공을 지향하여 총공세를 취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의 일부 부대가 중동부 전선에서 하진부리 일대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국군과 유엔군 역시 가용전력을 총동원하여 사력을 다해 공산군의 공세에 대응하였고, 공산군의 공세는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큰 손실을 입고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대규모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5월 말에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중순에는 문산-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에 이르는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휴전협상 테이블에서의 설전과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고착된 전선에서의 소모적인 국지전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제 3 절 전쟁상황 및 양측의 전쟁지도

1. 전쟁상황

6·25전쟁이 개시된 이후 쌍방은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일진일퇴를 거듭한 격동의 1년을 보내고, 다시 형성된 38도선 부근의 새로운 전선에서 상호 대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쌍방이 새로운 방어선에서 대치하게 된 이유는 중공군이 춘계공세에서 입은 치명적인 인명 손실로 인한 급격한 전력의 약화로 공격능력을 상실하였고, 미국 역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유리한 상태에 있었으나 전쟁 이전의 원상상태에서 휴전을 모색한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유엔과 미국의 휴전 제의를 묵살하고 있던 공산군 측이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를 통해 휴전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었으며, 6·25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휴전회담이 개시될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쌍방은 협상이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기간 중의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전투는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전선은 1951년 8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격렬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개성에서는 양측의 대표가 겨우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군사분계선 설정과 비무장지대 설치에 관한 내용

을 협의 중에 있었다. 유엔군 측은 당시 쌍방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쌍방의 의견이 충돌함으로 인하여 회담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군 측이 유엔공군기들이 비무장지대를 폭격하였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하면서 회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공산군 측은 이 회담을 이용하여 시간을 획득하고 그 사이에 전력을 정비할 속셈으로 회담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은 휴전 당시의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안을 관철시키기로 하고, 휴전회담 개시 당시의 방어선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10월 말까지 계속된 이 공격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당시의 대치선에서 평균 10km를 전진하여, 서부전선에서는 판문점-역곡천까지, 중부전선에서는 금성 남방까지, 동부전선에서는 고성 남쪽까지 각각 전선을 밀어 올렸다. 이 전투는 약 3개월간에 걸쳐 10km의 종심지대 내에서 치러졌으며 좁은 공간 내에서 밀도 높은 전투가 전개됨으로써 쌍방 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특히, 해안분지(펀치볼) 부근의 전투에서는 쌍방 간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쌍방 간의 방어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어진지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전투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진지전 형태의 격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공산군 측은 이와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전선에서 다소나마 물러서게 되자, 10월 25일 휴전회담을 재개하여 유엔군 측 안을 수락하고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 외의 의제도 3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쌍방은 1951년 11월 27일 당시의 접촉선(임진강 하구-판문점-상명리-금성-송정-가마우골-신대리-남강)을 연하는 선을 임시휴전선으로 책정하였다.

임시휴전선의 설정으로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고, 곧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쌍방이 그 후 30일 이내에 합의하기로 한 기타 의제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기존에 합의되었던 임시휴전선은 1951년 12월 말을 기해 백지화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2년 전반기까지는 쌍방이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전선은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다시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선은 고착되었고 전장의 상황은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산군과 유엔군 측이 심리적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하게 되었다.

2. 중공군의 전쟁지도 및 군사작전

휴전회담 기간 중 공산군의 전쟁목표는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휴전'이었고 전략목표는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과 그들의 손실된 공세역량 회복을 통한 군사력 우위의 확보'이었다. 이는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목표와는 달리 그 이면에는 공산군 측이 밖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공산군 측에게 휴전은 단지 밖으로 드러난 명분상의 전쟁목표였을 뿐이고, 그들이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를 통한 지구전과 춘계공세에서 입은 전력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공세역량 만회, 전선지역의 방어진지 요새화, 그리고 그들의 열세한 공군력과 화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의도 하에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 임하였고 작전을 지도하여 나갔다.

마오쩌둥은 1951년 6월 중순에 "지구작전(持久作戰)과 평화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쟁지도방침을 결정하면서 이를 수행할 군사전략으로 지구작전과 적극방어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즉, 마오쩌둥은 "조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적극방어의 수단으로 적군[유엔군]의 유생역량을 대량 살상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장비개선과 훈련의 강화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켜 점차 적군과 아군과의 전력대비(戰力對比)를 바꾸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거나 또는 적군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게 한다."는 전쟁지도방침을 택하였다.

중공군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휴전회담으로 인한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방어선을 3중으로 편성하고, 유엔군의 항공폭격이나 지상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유개화(有蓋化) 또는 엄체화(掩體化) 진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중공군은 야포와 고사포 등의 화기와 장비를 전방으로 추진하는데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항공기가 2개월 내로 지원될 것을 고려하여 9월 공세를 목표로 전력의 정비와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휴전회담이 시작된지 불과 10일 밖에 안 된 7월 20일부터 이미 유엔군 전초선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역의 주요 지형지물에 전초저항선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유엔군의 작전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이러한 공산군의 전술적 변화가 종전의 적 방어전술의 관행이나 교리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중공군은 유엔군의 정찰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면서 유엔군의 주요 작전지역에 대한 정찰 및 탐색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공군은 장마로 인한 불량한 기상조건을 이용해 부대를 전방으로 추진·배치하였다. 이러한 중공군의 활동에 대해 유엔군은 중공군이 부대배치의 조정 없이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중공군은 처음부터 휴전회담의 조기 타결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숨은 의도는 휴전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춘계공세에서 입은 전력손실을 신속히 보충하고 나아가 공세역량을 축적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군사적 대공세를 취하거나, 휴전회담장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휴전회담은 그들에게 전력의 복구와 지구전에 의한 승리획득의 한 방편일 뿐 휴전회담의 조기타결 자체가 전략적 목표가 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휴전회담은 시작부터 지연된 반면 공산군의 전력은 점차 강화되었다.

3.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지도 및 군사작전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 및 미국의 전쟁목표는 '명예로운 휴전'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전쟁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엔의 수락과 유엔 기구를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미국이 수립한 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둘째, 38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군을 단계별로 철수하게 한다. 넷째,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건설을 허용한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거나, 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미국은 침략자에 대한 징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휴전회담에서의 토의 주제는 한국과 한국 내의 군사문제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영토적 문제(중국의 유엔가입, 대만문제 등)와 관련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휴전과 관련된 입장은 한국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전쟁당사국인 한국정부는 휴전문제에 대한 정책결정 및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휴전회담은 한국정부 및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진행되었고, 미국은 한국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군 증강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는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미국의 휴전정책과 전략을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유엔군사령부는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략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지상 작전에 대해서는 미 제8군사령관을 통해, 해군작전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을 통해, 그리고 공군작전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을 통해 작전을 지도하였다. 이때 한국군은 각각 미 제8군 및 극동 해·공군의 작전통제를 받았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휴전회담을 전후하여 워

싱턴으로부터 하달 받은 전략지시는 휴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이 통치하게 될 38도선 이남지역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캔자스-와이오밍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제한하였다. 아울러 휴전 이후를 고려하여 북한군의 침략에 맞설 한국군의 건설을 지시하였다. 특히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군의 작전목표도 휴전회담의 타결을 지원하고 유엔군의 방어선을 개선하며 공산군의 공세역량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군의 군사작전도 이러한 제한전쟁전략에 따라 제한된 목표에 대한 작전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전선에서 유엔군의 지상작전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도 이러한 제한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밴플리트 장군도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밴플리트 장군이 야심찬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이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군사작전이 휴전회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처럼 유엔군의 지상에서의 대규모 공격작전은 휴전회담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캔자스-와이오밍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작전목표에 대한 공격작전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 제8군의 주요 작전은 중동부 전선에서 남쪽으로 쳐진 전선의 만곡부를 없애 전선을 정리하고, 서부전선의 병참선을 확보하는데 작전의 목표를 지향하여 실시되었다.

제 4 절 연구범위 및 수록내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1971년에 시작하여 1980년까지 『한국전쟁사』 전 11권을 발간하였고,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한국전쟁』(상·중·하)을 연구 편찬하였다. 그 후 1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다시 6·25전쟁을 재조명하는 '6·25전쟁사 전 11권 연구편찬사업'을 지난 2003년에 시작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6·25전쟁사 제9권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은『6·25전쟁사 제8권 :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에 이어,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휴전회담과 협상의 결렬, 휴전회담 와중에도 계속된 1951년 12월 31일까지의 격렬한 고지쟁탈 및 진지전, 그리고 기간 중에 전개된 해·공군작전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작전의 연속성 및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여 캔자스-와이오밍선으로 진격하는 1951년 5월 20일 이후의 전선 상황을 1개장(제4장)으로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제9권 필진은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 이후에 공개된 미국·소련·중국·북한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전쟁 및 전투사를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에는 전반부에 공산군과 유엔군 측의 전쟁지도, 휴전협상의 시작과 결렬에 대해 수록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엔군의 반격과 전선의 교착, 유엔군의 하계 및 추계·동계공세 등에 대해 양측의 작전 목표, 작전 경과 및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아울러 후반부에 해군 및 공군작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에 수록하였다. 각 장별 수록 내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는 먼저 국내외 정세와 전황을 분석하면서 국제동향과 양측의 휴전회담 수용배경 및 휴전제의, 그리고 한국정부의 휴전반대 입장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전쟁정책과 전략, 전쟁지도 및 전쟁지도 체계, 한국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 그리고 국군을 포함한 양측의 전력증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그 가운데 유엔군과 한국의 전쟁정책 및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외관계문서(FRUS)·국가안전보장회의(NSC)문서·합동참모본부자료(JCS and National Policy)·육군공간사(Truce Tent and Fighting Front)·미 제8군의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 그리고『한국전란 2년지』(국방부 발행)·국내 참전자증언·국내연구성과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공산군의 전쟁지도 및 지도체계, 그리고 휴전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소련의 외교문서인『한국전쟁 관련 비밀외교문서』와 중국의 6·25전쟁 공간사인『抗美援朝戰爭史』(중국 정부 발행)등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 "휴전회담개시와 군사분계선 설정"은 양측의 휴전협상 방침과 협상기조, 의제 선정을 둘러싼 쌍방 간의 공방과 의제 채택, 중립협정위반 사건으로 인한 회담의 중단과 휴회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울러 휴전회담 및 개성에서 판문점으로의 휴전회담 장소 이전, 난항을 겪은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치과정, 그리고 정전 및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합의, 전쟁포로에 관한 협상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관련 자료로는 제2장에서 활용한 주요 자료에 추가하여 『한국전쟁 휴전사』(국방부 발행), 한국측 휴전회담대표의 회고록(백선엽·이형근) 및 참전자 증언과 홍쉐즈(洪學智) 회고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 "유엔군의 반격과 전선의 교착"은 기존의 『한국전쟁사』(1972) 제6권 제45장 "하계공방전"과 『한국전쟁』(1996) 중권 제7장 "전선의 회귀와 교착"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하였다. 특히 최근 공개된 중국측 자료를 참고해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부대 편성과 지휘관 인적사항을 추가했으며, 가평-화천 진격전을 비롯한 유엔군의 반격과 공산군 측의 퇴각 상황 등을 새롭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작전단계별, 주요축선별 전투 내용은 유엔군사령부 및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보고서(Operation Reports),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및 소련군 총참모부의 전투일지 그리고 중국의『抗美援朝戰爭史』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평-지암리-화천저수지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에 대해서는 육군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지암리-파로호 전투』(2010)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작전계획 및 전투경과, 전투결과 등에 관해 새롭게 정리하였다.

제5장 "유엔군의 하계공세"는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전선 상황과 전선정리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주요 전투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참고자료로는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7권(1972) 제47장 "하계작전의 속행"과 『한국전쟁』(1996) 하권 제2장 "군사분계선 협상과 군사상황의 발전" 을 기초로 육군본부의 『육군역사일지 : 전투상보』,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보고서(Operation Reports),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및 소련군 총참모부의 전투일지 그리고 중국의『抗美援朝戰爭史』등을 활용하였다.

제6장 "유엔군의 추계 및 동계공세"는 유엔군 측의 두 차례에 걸친 공세 및 주요 국면별 전투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후방지역에서 백야전투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대비정규전 활동 및 북한지역에서의 유격대 활동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국전쟁사』(1972) 제7권 제42장 "추계작전"으로부터 제50장 "백야전사령부의 공비격멸 작전"과 『한국전쟁』(1996) 하권 제2장 "군사분계선 협상과 군사상황의 발전", 제3장 "군사상황의 소강과 휴전협상의 고착"을 기초로 유엔군 작전보고서와 중국측 자료인 『抗美援朝戰爭史』, 일본에서 발간된『일본의 6·25전쟁연구』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유격대의 활동 및 백야사의 공비토벌 관련 내용은『북한군 빨치산 자료집』과 미 제10군단 작전보고서 등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제7장 "해군작전"은 해당 기간 중에 진행된 미 제1해병사단에 대한 함포지원 사격, 한강주변 시위작전, 상륙위협작전, 원산항 해상포위작전, 항공차단작전, 기뢰전, 송화(松禾)지구 전투 및 동·서·남해 경비작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수록하였다. 연구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한국전쟁사 제7권(1972) 제47장 "하계작

전의 속행” 및 제49장 “동계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한국전쟁 해전사(The Sea War in Korea)』,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및 미 해군 군사사 사령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1차 자료를 비롯한 미 해군자료와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구 소련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제8장 “공군작전”에서는 해당 작전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산군 측(소련, 중국, 북한)과 국군 및 유엔군 측의 공군 작전활동에 대해 상호 균형적인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이때 공산군 측의 작전활동은 소련과 북한공군의 전력증강 및 작전 유형별 비행활동 현황과 함께 1951년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참전한 중국공군의 참전준비와 작전활동에 촛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공산군 측 공군 활동에 대한 기술을 위하여 라주바예프보고서, 제64비행군단 활동보고서, 당대중국공군(當代中國空軍), 항미원조전쟁사(抗美援助戰爭史)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였고, 자료가 제한된 북한공군 활동, 특히 MIG-15 조종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귀순 조종사 노금석 대위의 회고록인 『A MiG-15 to Freedom』(1996)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미국 공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공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력증강 과정 및 작전형태별 비행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한국공군이 실시한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 공비토벌작전, 강릉기지 전진부대의 후방차단 작전활동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를 위해 미 공군역사연구소(Air Force Historical Reserch Agency)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국전 통계자료와 미 공군본부의 ‘일일 정보상황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국공군의 활동은 『한국전쟁사』 제6권(1972) 제45장 제11절 “공군의 단독작전준비와 지리산지구 제1차 지원작전” 등의 기존 자료와 함께 2011년에 새롭게 출간된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을 주로 참고하였다.

제9장 “총평”은 제2장~제8장에 수록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다음 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된 교훈적인 요소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집필 : 김상원)



제 2 장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쟁지도

제 1 절	국내외 정세와 전황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제 3 절	유엔군과 미국의 전쟁지도
제 4 절	한국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국내외 정세와 전황

1. 국제정세의 추이

1) 국제 동향

6·25전쟁은 1951년 7월 10일에 개막된 휴전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휴전회담은 그 자체가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는 또 다른 전쟁", 설전(舌戰)이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선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휴전회담과 전선에서의 전투는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즉, 휴전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고, 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를 반영하듯 1951년 12월 말까지 양측은 휴전협상에 대한 타결을 보지 못하고 해(年)를 넘겼다. 휴전회담의 장기화는 한국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던 자유진영에서는 이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의 장기화가 자칫 전쟁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휴전의 장기화 및 확대를 우려하여 중국에 대한 제재나 한국에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였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더 이상의 군사적·경제적 압력은 영국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치령인 홍콩을 자칫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 인도 등 중립노선을 취하고 있던 중동 국가들도 휴전회담의 조기 타결에 합세하였다.[2]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등 자유진영의 서방국가들은 체제 결속을 강화해 나갔다. 캐나다의 오타와(Ottawa)에서는 1951년 9월 17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12개국 회원들이 모여 상호안보협력을 다짐하면서 이탈리아의 재무장과 그리스 및 터키의 나토 가입을 논의하였다.[3] 또한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공산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첫 시도가 1951년 9월에 있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이었다. 이는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재기를 노리고 있던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4] 대일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강화회의에서 참가국 51개국 중 48개국이 조인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6년간의 연합국의 점령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 재탄생하였다. 미국도 이를 통해 태평양지역에서 반공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5]

하지만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및 안보조약 체결에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인 필리핀·호주·뉴질랜드가 크게 반발하였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자국에 대한 아무런 보장책 없이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은 이들 우방 국가들에 대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앞서 태평양연안 국가와 개별 또는 다자간 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8월 30일에는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을 체결되었고, 9월 1일에는 호주·뉴질랜드·미국 간 상호방위조약인 앤저스(ANZUS)조약이 체결되었다.[6]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참전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과 의료지원국을 파병한 5개국을 포함하여 21개국에 이르렀다.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기 전인 1951년 6월까지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는 15개국이었고,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한 국가는 3개국이었다. 콜롬비아는 1951년 6월 15일에 가장 늦게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하였다. 태국은 1950년 11월에 이미 육군과 해군을 파견한데 이어 1951년 6월 23일에 공군부대를 파견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1951년 6월 22일에, 이탈리아는 1951년 11월 16일에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유엔회원국 중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는 모두 16개에 이르렀고,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한 국가는 모두 5개국에 달하였다. 따라서 1951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한국에 전투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한 국가는 모두 21개국에 달하였다.

특히 휴전회담 기간 중 미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 JCS)는 한반도에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재앙에 가까운 군사적 비상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핵무기 투발훈련'으로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통해 "공산군 측에게 군사적 압력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휴전회담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 SAC)가 한국의 중부전선에서 '허드슨 하버(Hudson Harbor)'라는 암호명으로 1951년 10월 15일까지 '핵무기 모의 투발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미 제8군의 지상 작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7]

이처럼 휴전회담 동안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는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유럽 및 태평양지역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였고, 한반도에서 만일의 군사적 사태에 대비하여 핵무기 투발훈련을 실시하는 치밀함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에서는 휴전회담 기간을 통해 그동안 소진된 군사력을 재건하고 유엔군의 철군을 유도해 한반도의 적화전략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휴전협상을 지도하는 이중성을 나타내었다.

2) 양측의 휴전회담 수용 배경

(1)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 수용 배경

중공군 개입이후 전쟁정책을 놓고 한국정부는 '한반도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정부의 입장은 한국정부와 확연히 달랐다.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이후 유엔군의 37도선으로의 철수와 서울 재탈환, 그리고 춘계공세 이후 38도선 부근에서의 교착상태를 지켜보면서 휴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전면전쟁을 통한 군사적 승리는 막대한 인명손실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고, 한반도로부터 유엔군의 철수는 미국에 대한 자유 우방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1951년 6월까지 78,800명의 인명손실을 보았고,[8] 전쟁비용도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첫 1년 동안의 그것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이었다.[9] 그럼에도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망은 보이지 않았고, 미국의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이는 곧 제1차 세계대전에서처럼 소모전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욱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중국 본토에 대한 폭격을 하게 되면, "자칫 중국의 동맹국인 소련의 참전을 불러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10] 이에 미국은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휴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주적(principal enemy)이 아닌 중국과, 그것도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는데 곤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소련이 조종하고 있는 게임에 미국이 말려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정부는 한국에서의 전쟁을 군사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한 후에 군사적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명예로운 휴전정책(honorable armistice)"을 모색하게 되었다.[11]

또한 유엔군 수뇌부도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정부의 판단과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이 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좁은 지역인 평양-원산 선까지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12] 하지만 당시의 전선인 와이오밍 선(Wyoming line)을 넘어 평양-원산 선까지 진격하는 데에는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유엔군이 평양-원산 선을 확보한 후 이 선에서 휴전을 요구할 경우 전쟁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지역을 상실하게 될 공산군 측이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13]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판단에 따라 휴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미국은 1951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 해임과 춘계공세 이후 "적절한 휴전장치 하에 한국에서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38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의 권위를 회복

하며,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을 증강한다."는 새로운 전쟁목표를 수립하였다.[14]

이에 덧붙여 미국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돌입하거나, 그 적대행위가 주요 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한국에서의 전쟁이 제한전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 민주국가와의 우호 증진에 노력하지만, 이 지역에서 소련의 힘을 감소 및 제거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5]

여기에는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가위신과 대의명분, 그리고 외교적 실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휴전정책에 한국을 제외한 유엔 및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모두 환영하였다.

⑵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수용 배경

한반도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공산군에게 1951년 춘계공세는 전쟁수행 면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중공군은 1950년 10월 25일 한국전에 개입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대공세를 실시하였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유엔군을 쉽게 격파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1951년 중공군 5월 공세는 그들의 군사적 한계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중국은 여섯 차례의 대규모 공세를 통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중공군은 한국전 개입 이후 약 46만 명의 손실을 입었고, 북한군도 개전 이후 56만 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로써 공산군의 손실은 무려 102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16] 그런데 공산군의 입장에서 이런 커다란 손실에 비해 얻은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더욱이 5월 공세를 포함한 여섯 차례의 대규모 공세를 통해 소진된 전투력은 향후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산군은 이전의 대규모 공세와 같은 공격작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전투력도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17] 그나마 공

산군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전쟁이전 상태인 38도선 부근에서 유엔군과 대치하여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서의 화력의 열세는 중공군의 작전뿐만 아니라 전력손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951년 6월 유엔군은 화포 3,560여문, 탱크 1,300여대, 항공기 1,670여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270척 등을 보유한데 비해 공산군은 소량의 전차와 항공기 및 화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성능 또한 유엔군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하였다.[18] 여기에 재래식 통신과 수송수단, 그리고 미국 공군의 후방차단작전에 의한 기간시설의 파괴로 인한 군 수송 및 보급체계의 마비는 작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특히 유엔군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황은 공산군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중국정부는 그들이 발간한 6·25전쟁 공간사(公刊史)에서 이에 대해 비교적 객관성 있게 분석하고 있다. 즉, "적[유엔군]은 쾌속 기동능력과 선진 수송도구를 갖추고 있어 보급도 빨랐고 배치조정 및 공격방어 전환도 빨랐다. 아군[중공군] 화력은 열악하여 저녁에 포위된 적을 섬멸할 수 없었으며 다음날 주간에 적은 공군·포병·탱크 지원 하에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였다. 아군[중공군]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전쟁에 상응하는 군사지식과 고도의 조직력 및 현대화장비를 갖춘 후방근무지원부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19] 이처럼 중공군은 그들이 처한 군사적 상황을 비교적 솔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았다. 첫째는 현재와 같이 불리한 작전을 지속하는 것인데 이는 향후 물자 보급이 더욱 어려우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다. 둘째는 현 상태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셋째는 전면공격을 감행하는 것인데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을 종식시키는 길 뿐이었다.[20]

그렇다고 중국이 불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끝낼 수는 없었다. 중국에게도 명분과 어느 정도의 실리가 필요하였다.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38도선에서의 휴전이었다. 즉,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휴전하

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1951년 6월의 시점에서 볼 때 전선이 날이 갈수록 후퇴할 뿐 진격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휴전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1951년 6월 중순 전쟁의 장기화 및 협상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군사적으로 지구전을 충분히 준비하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준비한다는 화전(和戰)양면정책을 결정하고, 펑더화이에게 "장기전 사상교육, 38도선 부근에서 적극적 방어실시,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휴전협상 개시준비" 등을 지시하였다.[21] 또한 마오쩌둥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김일성(金日成)과 가오강(高崗)으로 하여금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먼저 휴전문제를 제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스탈린에게 "소련정부가 먼저 휴전 요구를 하고 적측이 휴전문제를 제기하면 조선과 중국이 이에 동의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지시하였다.[22]

이에 1951년 6월 13일에 모스크바에서 있은 '조·중·소 회담'에서 스탈린·김일성·가오강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23] 이에 따라 10일 후인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 대표인 말리크(Yakob Malik)가 자유진영에 휴전을 정식으로 제의하였고, 자유진영에서 이를 수락함으로써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마침내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3) 미국 및 소련의 휴전모색과 소련의 휴전제의

한국에서의 명예로운 휴전정책을 결심한 미국정부는 소련의 정책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미국정부는 프랑스 파리주재 미국공사와 모스크바 주재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소련의 의도를 탐색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1951년 5월 중순 경에 프리스턴대학교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연구 중인 대소전문가인 케난(George F. Kennan)을 방문하였다.[24] 애치슨은 소련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Policy Planning Staff: PPS)의 초대 실장

을 역임한 케난을 “미국에서 제일가는 소련문제 전문가로 가장 박식하고 경험이 많은 관리이며 오늘날 미국에서 그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25]

케난을 방문한 자리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국에서 미국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유엔주재 소련대표인 말리크(Yakob Malik)와 접촉하여 휴전에 대한 소련 측의 의도를 탐색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케난은 유엔주재 미국 외교관의 중재로 1951년 6월 1일 뉴욕 근교에 있는 말리크의 숙소를 방문하였다.[26] 여기서 케난은 말리크에게 미국의 의도를 전달하고 소련 측의 의도를 물었으나, 말리크는 한국전쟁에 대한 의제 토의를 피하면서 통상적인 정치선전만을 늘어놓았다. 케난이 보기에 말리크가 그렇게 행동을 한 데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본국[소련]의 비밀 요원들에 의해 도청되거나 녹음되는 것이 두려웠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아야 하는 그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27]

케난과 말리크는 1951년 6월 5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회동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케난은 회담 참가국, 의제, 정전감시위원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말리크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휴전협상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28]

미국정부는 말리크와의 접촉을 통해 소련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련의 의도를 파악한 미국 국무부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휴전협상을 제의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을 때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협상 절차를 암시하는 연설을 하였다. 말리크는 1951년 6월 23일 유엔 라디오가 마련한 특집 방송프로인 ‘평화의 가치(Price of Peace)’라는 연설을 통해 “소련 인민은 그 첫 단계로서 교전상태의 중지와 정전을 위해 38도선에서 상호 철군함으로써 교전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소련인민들은 오늘날의 가장 날카로운 문제인 한국에 있어서의 무력충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를 실현하려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사국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소련인민들은 첫 단계로서 정전과 38도선으로부터 군대를 상호 철수시키는 휴전을 위하여 교전국간의 토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본인은 그와 같은 조치가 확실히 한국에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불할 보상으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다.[29]

말리크의 방송연설에 대해 미 국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인 커크(Alan G. Kirk)를 통해 소련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타진하였다. 이때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Andrei Gromyko)는 아직 중국의 입장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나 양측 군사대표단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영토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휴전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30] 미국 정부는 소련정부의 의도가 나타난 커크 미국대사와 소련 그로미코 간의 대화내용을 기초로 한 성명을 6월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27일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는 소련주재 미국대사 커크의 방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로미코는 휴전은 유엔군 및 한국군 군사대표들과 북한군 및 중공지원군 군사대표들이 교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미코는 휴전은 정전을 포함하고 또한 군사적 문제에 국한하며 어떠한 정치적 내지 영토적 사항도 포함시키지 않을 것과 군사대표들은 교전의 재개를 방지하는 보장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그로미코는 정치적 내지 영토적 해결을 위하여 그 후 어떠한 특별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련정부는 말리크의 성명에 관한 중국정부의 견해는 모른다고 부연하였다…국무부는 한국에 파병한 국가의 대표들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31]

소련의 휴전제의에 대해 같은 전쟁당사국인 중국은 6월 25일에, 북한은 27일에 각각 지지를 표명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유엔군 측은 그 동안 추구해오던 휴전에 의한 한국에서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국내정세의 추이

1) 국내 일반 상황

휴전회담 기간 동안 국내의 상황은 정부의 휴전반대를 비롯한 정치 및 군사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먼저 1951년 12월까지 개최된 휴전회담은 공산군 측의 무성의와 고집으로 일관되면서 군사분계선 협정에 대해서만 합의한 채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통일 없는 휴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무시한 채 휴전회담을 계속 진행시켜 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1951년 초 국내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었던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 등 5명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져 8월 12일 대구 교외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 거창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이 9월 18일 개최되어 관련자 2명에 대한 유죄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1951년 초에 발생하였던 두 건의 군 관련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국방부장관이 경질되었다.

또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1951년 8월 15일 광복절기념연설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 개헌안을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정부 측 개헌안의 부결과 ‘정무관제설치안(政務官制設置案)’에 대한 각 당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여당(與黨) 창당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당은 당내 이해관계로 인해 원외자유당과 원내자유당의 두 개의 당으로 출범하게 되었다.[32]

한편 1951년 10월 25일부터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한일회담은 일본 측의 표리부동한 지연술로 인해 다음해인 1952년 4월 20일에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한국정부에서는 일본과 소련의 ‘맥아더 라인’ 침범을 경계하여 어업구역(漁業區域) 획정을 주장하면서 대마도와 독도 반환에 대한 대일태도를 밝히자,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였다.[33]

또한 휴전회담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후방지역에서 공비들이 준동하자 이를 토벌하여 성과를 얻었다. 지리산 일대의 무장공비들이 도처에 출몰하여 유엔군 및 국군의 전투근무지원 시설을 위협하고 부녀자를 납치하는 등 그 여파가 임시수도인 부산 근교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10월 31일 비밀회의를 열고 국군 정규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단(軍團)급의 백야전전투사령부(白野戰戰鬪司令部)가 편성되어 대대적인 공비토벌을 단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34]

2) 한국정부의 휴전반대 입장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정치적·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휴전회담은 전쟁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지난 1년간의 전쟁으로 한국은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국토와 산업이 마비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이전 상태인 38도선에서 휴전을 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에게 마치 '자살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35]

전쟁발발 이후부터 수없이 북진통일을 외쳤던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국민에게 휴전회담은 배신행위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북진통일을 부르짖었다. 1951년 3월 24일 수도서울을 재탈환한 후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의 불가피성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유엔군은 한만(韓滿) 국경선까지 진격해야 하며 그 이전에는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36]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국회도 1951년 4월 2일에 "38도선에서의 전투정지, 평화교섭, 완충지대 설치" 등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엔과 미국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한만국경선 진격 국민대회"가 연일 개최되어 통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지를 국내외에 전파하였다.[37]

중공군의 춘계공세 이후 38도선 일대에서 전선이 교착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막

후 접촉을 통해 전쟁 이전 상태에서의 휴전을 모색하게 되자 한국정부는 휴전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먼저 국회는 6월 5일 휴전반대 결의를 다시 표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38도선 휴전반대 국민궐기대회"를 통해 국민들의 휴전결사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38]

말리크의 휴전제의가 있은 후인 6월 27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안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공산군 측과의 타협을 완강히 반대하며 전쟁이전상태로의 복구를 거부하였다. 한국정부는 오로지 대한민국 주도하의 남북통일만을 갈망하고 있었다. 1951년 8월에 휴전회담이 일시 중단되자 한국정부는 이를 환영하면서 공산군 측은 병력을 증강시키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휴전회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9월에 휴전조건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중공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북한군을 무장해제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에 국회에 북한대표를 참석시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공산군 측에게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담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39] 그는 공산군 측이 이 회담을 공산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을 모독하고 불신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1951년 10월에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휴전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학생과 국민들을 동원한 휴전반대궐기대회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51년 12월에 부산에서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통일 없이 휴전 없다."라는 표어와 플랜카드를 들고 행한 시가행진이었다.[40] 이는 한국정부의 반대 속에 추진되는 유엔군 주도의 휴전회담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정부와 국민의 공공연한 휴전반대는 한국에서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후 커다란 문제없이 전쟁을 수행하여 왔으나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에서 한국군을 철수시켜 단독으로 북진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41] 이에 휴전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될 미국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를 달랠 수밖에 없

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경제원조, 구호물자 및 전쟁피해에 대한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 등 제한적이었다.[42] 한국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통일은 요원하였다.

3)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과 국방부장관 경질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는 두 차례 열렸다. 제1차 공판은 1951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렸다. 이때 군법회의(재판장 이선근·李瑄根 준장)에서는 김윤근(金潤根) 사령관에게 기소 각하를, 윤익헌(尹益憲) 부사령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다.[43] 이는 이 사건을 경리부정사건으로 취급하여 '국방경비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재판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이 뒤끓으면서 이들을 극형에 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때 거창사건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의 가벼운 처벌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5월 5일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틀 후인 5월 7일에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이기붕(李起鵬)을 임명하였다.

이기붕 장관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육군총참모장 이종찬(李鍾贊) 소장도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국민방위군 사건은 재조사를 받게 되었고, 5월 17일 이기붕 장관은 재수사와 관련하여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이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다."고 국회에 통보하였다.[44]

1951년 6월 10일 육군헌병사령부는 재수사를 마치고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 준장, 부사령관 윤익헌 대령, 재무실장 강석한 중령, 조달과장 박창원 소령, 보급과장 박기환 중령, 군수처장 김 희 대령, 회계과장 장의두 소령, 회계과장 보좌관 노용식 대위, 제15교육대장 박 철 중령, 제27교육대장 임병언 대령, 제10단장 송필수 대령 등 11명에 대해 비상조치법을 적용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고등군법회의로 보냈다. 이때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죄목은 근무태만, 정부재

산 부정처분 횡령, 문서위조, 비상조치령 제3조 5호 위반, 정치관여 등이었다.[45]

그런데 이들 중 군수처장 김 희 대령과 회계과장 장의두 소령은 도피 및 행방불명이었고, 회계과장 보좌관 노용식 대위는 파면 처리된 관계로 제2차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제1차 재판에서 기소각하 처리된 김윤근 사령관을 비롯한 8명이었다. 이 재판의 관할관인 이종찬 육군총참모장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놓고 고심하다가 "기소내용이나 법(法) 적용이 달라 질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을 결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은 '비상사태 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사건'이라는 죄명 하에 비상조치법이 적용되어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재심하기로 하고 후방에 있는 고급장교 중 강직하고 신망 있는 인물들로 재판부를 구성하였다.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 재판장에는 병기감 심언봉(沈彦俸) 준장을 임명되었고, 재판관에는 작전국장 이용문(李龍文) 준장, 감찰감 안춘생(安椿生) 준장, 군수국장 김형일(金炯一) 준장, 법무사 계철순 소령 등이 선정되었다.[46] 재판은 1951년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방위군사령부가 위치한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군사재판에서 김윤근·윤익헌·박기환·강석한·박창원에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47] 사형선고를 받은 5명은 8월 13일 대구(大邱) 교외에서[48] 총살형에 처해졌다.[49] 이로써 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모았던 국민방위군 사건은 일단락 짓게 되었다.

4) 자유당 창당과 정부의 대통령제 개헌안 부결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 등 잇따른 불상사로 국회와 정부 간의 마찰이 날로 첨예화되고 여·야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때 이시영(李始榮) 부통령이 국정의 어지러움을 개탄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국회에서 후임 부통령으로 김성수(金性洙)를 선출하였으나 정국의 불안정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던 공화민정회(共和民政會)가 야당인 민주국민당에 맞서기 위해 신당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8·15광복절기념식을 통해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 개헌안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신당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을 함으로써 신당조직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원외에서는 국민회·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농민조합총연맹이 주축이 되고, 원내에서는 공화민정회가 주축이 되어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신당운동을 펼쳐 나갔다. 하지만 신당의 주도권 문제로 각파 간에 암투가 벌어졌으나 간신히 합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1년 11월 30일 정부가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합동준비위원회도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결렬되었다. 이에 1951년 12월 3일 원내외 양파는 서로 분리하여 원외자유당과 원내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원외자유당(院外自由黨)은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李範奭)을 추대하였고, 원내자유당(院內自由黨)은 중앙위원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이갑성(李甲成)·김동성(金東成)을 선출하였다.[50] 이후 두 개의 자유당은 1952년 말 원내자유당이 해산되면서 하나의 자유당으로 합당되었다.

3. 전선 상황

1) 전방지역 상황과 고지쟁탈전

1951년 6월 유엔군은 한강 하구에서 장단-고랑포-연천-철원-김화-화천-서화-동해안 간성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선은 서부에서 38도선 이남의 옹진과 연안반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부와 동부에서는 38도선 이북으로 20-30km 정도 진출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공산군은 유엔군의 방어선 북쪽의 예성강 하구-토성리-송악산-오리정-평강-등대리-애막동-서화리-사천리-고성 남쪽의 감호를 연하는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때 작전의 주도권은 재 반격 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이 확보하고 있었고, 춘계공세에서 패배한 공산

군은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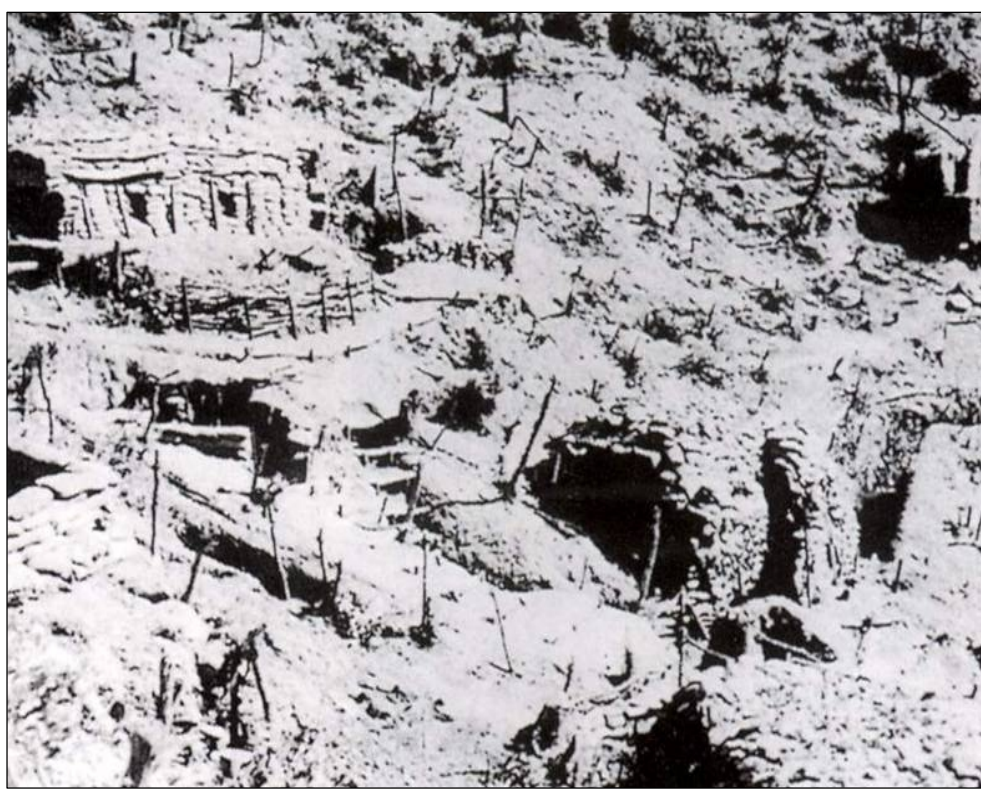
하지만 휴전회담으로 전선은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회담 개최를 위한 성의표시로 1951년 7월 1일에 유엔군 각 부대에게 현 지점에서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따라 유엔군과 국군은 공산군이 전력을 상실한 이때에 북으로 진격할 수 있었음에도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군은 휴전회담 중에도 재정비를 하면서 공격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또한 공산군은 아군의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서 전황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었다. 이에 공산군은 각 전선에서 고지탈환을 위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아군은 적의 진출을 저지하는 수준의 방어전투만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선에서는 포성과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휴전회담 기간인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엔군이 실시한 지상 작전은 하계작전·추계작전·동계작전으로 구분된다. 하계작전은 미 제10군단이 해안분지(펀치볼) 북동쪽 노전평으로부터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을 연하는 선에서 실시한 작전이다. 공산군은 이 공세에 굴복하여 곧 10월 25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재개하였다. 추계작전은 1951년 10월 초순에 시작되어 10월 하순까지 실시된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동해안의 한국군 제1군단은 북한 제6군단을 공략하여 남강 이남의 전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 제10군단은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을 공략하였으며, 미 제9군단은 금성분지를 제압하였고, 미 제1군단은 코만도 작전을 전개하여 제임스타운(Jamestown)선까지 도약하게 되었다. 동계작전은 1951년 11월 초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실시한 작전이다. 이 기간 중에 실시된 월비산 전투와 949전투고지 전투는 아군의 공격에 적이 집요한 저항에 부딪친 전투였으며, 281·395고지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및 두메리 부근 전투는 모두 고지를 확보하려는 공방전이었다.

이처럼 휴전회담 기간 중의 전투는 주로 전선의 만곡부(彎曲部)를 없애는 전선정리와 휴전이후 방어에 유리한 지형 확보, 그리고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투는 먼저 중동부지역에서 전개되었다. 한국 해병대는 1951년 6월에 북한군 제12사단과 제32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도솔산 일대의 24개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한국 해병대는 흥천에서 휴식과 재정비를 한 후 1951년 8월말에 전선에 투입되어 해안분지(펀치볼) 북쪽의 김일성고지와 마오쩌둥(毛澤東) 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유엔군은 공산군이 8월 중순에 일방적으로 휴전회담을 중단하자 중동부전선에서 제한된 공세작전을 재개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해병대는 9월 22일에 양구 북동쪽의 피의능선 상의 고지들을 점령하였고, 미 제2사단도 10월 6일에 양구 북쪽의 문등리(文登里) 지역의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10월부터 경원선 철로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연천과 철원 서쪽의 역곡천 일대의 고지군(高地群)을 공격하여 확보하였다.[51]



1951년 고지쟁탈전의 전형적인 격전지 중의 하나인 단장의 능선 전투 모습

1951년 말까지 고지쟁탈전과 진지전이 계속되었으나 전 전선에 걸친 대규모 공세는 전개되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휴전을 염두에 두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될 무모한 공격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다만 휴전회담에서 상대방을 위압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산군은 전선이 교착되자 중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동굴로 연결시킨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들 동굴방어진지는 유엔군의 항공폭격과 지상포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휴전을 논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투를 치르는 양상이 매일같이 전개되었다.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양측은 혈투(血鬪)를 벌이고 있었다. 군사분계선을 정전협정 조인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양측은 군사적으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양측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하나의 고지 때문에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양측은 휴전을 위해서 더 피열하게 싸우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전선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2) 후방지역 상황과 공비토벌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에서의 군사적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휴전회담장에서는 휴전회담 대표들이 모여 휴전을 위한 토의를 하고 있었고, 전선에서는 치열한 고지쟁탈전과 진지전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후방에서는 공비들이 준동하여 유엔군의 보급로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이곳에서는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는 이들 무장공비들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퇴로가 차단당한 북한군 패잔병들과 기존의 영·호남 지역의 지방공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전투력을 재정비함으로써 유엔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 시설 등을 위협하며 아군의 작전에 피해를 주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3개 사단(제11사단·제8사단·제2사단)을 동원하여 소탕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산악지대로 도주하여 세력을 형성하였다.[52]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위치한 남원의 초등학교에서 미 수석고문관 다즈 중령(왼쪽)과 작전을 협의하고 있는 백선엽 사령관(오른쪽은 군수담당 미 고문관)

1951년 말 이들 공비들에 대한 피해가 심하게 되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공비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후방치안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에게 공비토벌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는 대규모 공비토벌작전이 군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53]

육군본부는 호남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4,000명 정도로 판단하였다. 이들 공비들의 핵심부대는 제81사단·제92사단, 경남도당 사단인 제57사단, 그리고 전북도당 사단이었다. 이들은 제14연대 반란군 출신의 생존자와 인천상륙작전 이후 38도선으로 월북하지 못한 북한 정규군의 낙오병들로 이루어졌다.[54]

이들 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무장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인근 소도시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촌락을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거나 주민을 납치하는 등의 만행을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군 작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도파괴, 군용열차 습격, 무기 및 보급품 등을 약탈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남원의 백야전전투사령부에서 공비토벌작전에 대해 미 고문관 및 참모들에게 상황도를 통해 작전지시를 하고 있는 백선엽 사령관.

특히 이들 공비들은 지리산 부근의 운봉·곡성·하동 등지에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약탈행위를 자행하였고, 남원-구례-순천에 이르는 전라선 철로를 파괴하거나 군용열차를 습격하여 무기와 보급품을 약탈하는 등 후방지역에서의 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들 공비들의 무장활동은 아군의 군사작전에 위협

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반시키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55]

육군본부는 이들 공비들을 섬멸하기 위해 전방에서 2개 사단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위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정부는 사전에 이에 대한 합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동계기간 아군이 공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전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선에서 2개 사단의 차출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산속에 거점을 둔 공비토벌에 가장 유리한 시기는 낙엽이 진 기간이다. 셋째, 국군의 재편성과 함께 이들에 실전경험을 쌓게 하는 후방지역작전은 바람직할 것이다.[56]

그 결과 1951년 11월 25일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게 될 백야전전투사령부(白野戰戰鬪司令部, 이하 백야사로 통일)가 설치되었고, 사령관에 백선엽(白善燁) 육군소장이 임명되었다. 백야사에는 수도사단, 제8사단, 서남지구전투사령부, 경찰부대가 배속되었다.[57] 정부에서는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12월 1일부로 서남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또한 적과의 내통을 막기 위해 작전지역 내의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마을 간의 전화교신을 차단하였다.[58]

백야사의 공비토벌작전은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백야사의 공비토벌작전은 이때부터 다음해인 1952년 4월 14일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제1단계 작전 기간은 12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작전기간 중 백야사는 지리산을 봉쇄하고 공비 1,612명을 사살하고, 1,842명을 포로로 잡았다. 백야사는 12월 14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제2단계 작전을 실시하였다. 백야사는 12월 말까지 공비 4천여 명을 사살하고, 4천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59]

이 작전을 통해 정부는 후방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군은 병참선에 대한 안전을 기하게 되었다. 이후 후방지역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는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정부가 거둔 최대의 성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제 2 절 공산군의 전쟁지도

1.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부와 전쟁수행체계

휴전회담 기간 중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부는 소련의 스탈린을 정점으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이 그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침을 받아 1950년 12월 초에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가 한반도에서의 작전전반을 통제하며 지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전반적인 지도는 전쟁기간 내내 소련의 스탈린이 마오쩌둥 및 김일성과 협의를 한 후 상황에 따른 전략지침을 내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휴전회담 기간 중에도 이러한 전쟁지도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전쟁의 주요 국면별 사안에 따라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에게 직접 전문을 보내 전쟁을 직접 지도하거나, 북한과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대사 및 소련고문단장 편으로 전쟁수행에 대한 전략지침을 하달하는 간접지도 방식도 사용하였다. 이때 스탈린은 그들에게 전문을 발송할 때 그의 실명(實名) 대신 필리포프라는 암호명을 주로 사용하였다.

1951년 7월 휴전회담 개막당시 북한주재 소련대사 겸 군사고문단장은 라주바예프 중장이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의 전쟁지도에 대한 실패책임을 지고 경질된 스티코프 대사의 후임이었다. 스티코프는 8·15광복 이후 북한 정권에 설계자이자 실세였다. 이들 북한주재 소련대사는 김일성을 상대로 스탈린의 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중국주재 소련대사 로시친과 소련군사고문단장 크라소프스키는 마오쩌둥을 상대로 스탈린으로부터 지시받은 전쟁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60]

중국 전쟁지도부의 핵심에는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이가 있었다. 마오

쩌둥은 북한에 파견된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를 통해 작전지도를 포함한 전쟁 전반에 걸쳐 베이징(北京)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었다. 수상과 외상을 겸하고 있는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을 보좌하며 대내외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다.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한 리커눙(李克農)은 휴전회담 기간 중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고 북한으로 파견되어 휴전회담을 현지에서 지휘하였다. 중국군 수뇌부는 마오쩌둥과 함께 대장정을 치르고 항일전 및 국부군(國府軍)과의 전투에서 단련된 인물들이었다. 그 핵심에는 인민해방군총사령관 주더(朱德)가 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수뇌부로는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가 있었다. 그는 1950년 12월 초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의 사령관직도 겸직하고 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 부사령관 겸 후방근무사령관 홍쉐즈(洪學智), 부사령관 겸 제9병단사령관 쑹스룬(宋時輪), 부사령관 겸 제3병단사령관 천경(陳慶), 부사령관 한셴추(韓先楚), 공군사령관 류전(劉震), 철도운수사령관 허진녠(賀晋年), 참모장 셰팡(解方), 제19병단사령관 양더즈(楊得志), 제20병단사령관 양청우(楊成武), 제23병단사령관 동치우(董其武)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61]

북한의 전쟁지도부 및 군사지휘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부수상 겸 외상인 박헌영(朴憲永),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 총참모장 남일(南日), 조중연합사 부사령관 김웅(金雄) 등이 있었다.[62] 특히 김일성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계선 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산군 측의 작전지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휴전회담을 전후한 공산군의 전쟁수행체계를 보면 소련의 스탈린이 전쟁의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면서도 겉으로는 자문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스탈린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가며 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1951년 6월 30일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탈린은 휴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은 물론이고, 휴전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할 것을 유엔군 측에 통보하라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오쩌둥에게 "휴전교섭을 지휘할 사람은 바로 마오쩌둥 자신이다. 우리[소련]는 개별 문제에 대해 조언할

뿐이다. 우리는 김일성과 접촉할 수 없다. 귀하가 직접 김일성과 접촉해야 한다."며 휴전협상의 책임을 마오쩌둥에게 떠 맡겼다. 이러한 기조는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63]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스탈린의 지도를 받았다. 이때 스탈린은 통상 마오쩌둥의 견해에 찬동하였다.[64]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왼쪽)와 마오쩌둥(1951년 북경)

휴전협상 진행과정에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뿐이었고 마오쩌둥은 휴전협상에 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스탈린에게 전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보고이외에도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예프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지시를 내리곤 하였다. 또한 마오쩌둥도 주요 사안마다 스탈린에게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스탈린은 이에 대한 해답을 직접 또는 해당국 주재의 소련대사 및

소련군사고문단장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김일성은 주로 마오쩌둥과 휴전회담 관련 상황을 협의하였고 마오쩌둥은 이를 다시 원문 그대로 스탈린에게 보고하면, 스탈린은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을 통해 발송하였다.

2. 공산군 측의 전략지침과 군사전략

1) 공산군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침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을 앞두고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였다. 휴전회담 장소를 원산항에 정박한 덴마크 병원선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한 유엔군 측의 주장에 38도선 상의 개성을 들고 나온 것도 공산군 측의 전략적 포석에 따른 것이었다. 공산군 측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미리 계산에 넣고 유엔군 측과 밀고 당기는 전략을 구사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추구해 나갔다.

이를 위해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의 핵심멤버인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에 앞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스탈린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엔군 측의 공중폭격과 국지적인 상륙작전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고, 마오쩌둥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유엔군에 비해 낙후된 중공군과 북한군 장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에 임하는 전략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전선을 강화하여 유엔군의 공세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는 회담이 시작되면 병력 및 장비의 전선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제1방위선에 대한 병력을 증강하고 필요한 탄약보급을 완료하도록 조치한다.[65]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이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펑더화이에게 지시하였다.

둘째, 유엔군의 북한지역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에 대비한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는 유엔군이 또 다시 북한 동서해안지역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유엔군이 중국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66] 하지만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유엔군의 북한지역 동서해안에 대한 기습적인 상륙작전이었다.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앞둔 시기인 6월 중순에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에서 "8월에는 대규모 작전이 전개될 것이다. 만약 우리의 후방으로 대규모 상륙작전만 계획되지 않는다면 8월에는 전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67] 이에 공산군 측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중국은 3개 군을 원산에 배치하여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또 다른 3개 군을 유엔군의 서해안 상륙에 대비하도록 조정·배치하였다.[68]

셋째,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는 유엔군에 비해 낙후된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군전력증강 및 지상군에 대한 장비공급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공군력 증강, 60개 사단에 해당하는 장비공급, 소련군사고문단의 파견 등이 핵심이었다.[69] 그러나 1951년에 이것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군력 증강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만이 이루어졌다.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는 마오쩌둥의 공군력 증강 요청에 대해 10월 20일까지 평북 안주 일대에 3개의 비행장을 신설하고 그곳으로 공군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결정하였다.[70] 이처럼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 임하는 전략지침과 군사행동, 그리고 중공군 및 북한군에 대한 전략증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사전 협의를 거쳐 나왔다.

2) 공산군의 지구전 및 공세역량만회 전략

휴전회담을 전후한 공산군 측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를 통한 지구전과 춘계공세에서 입은 전력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공세역량만회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서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 임하였고 작전을 지도하여 나갔다. 마오쩌

둥은 6월 중순에 “지구작전(持久作戰)과 평화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향후 전쟁지도방침을 결정하면서 이를 수행할 군사전략으로 지구작전과 적극방어를 확정지었다.[71]

마오쩌둥은 “조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적극방어의 수단으로 적군[유엔군]의 유생역량을 대량 살상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장비개선과 훈련의 강화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켜 점차 적군과 아군과의 전력대비(戰力對比)를 바꾸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거나 또는 적군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게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72]

모택동의 이러한 전략방침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 당위원회(黨委員會)에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모든 장병에게 장기작전사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빨리 승리하려는 사상을 극복한다.

둘째, 적이 상륙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또 적이 상륙하더라도 아군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38도선으로부터 38.5선 지역을 반드시 굳게 고수한다. 아울러 이 지역에 3개의 방어선을 구축한다.

셋째, 현대적 장비를 보유한 미군을 상대로 아군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견고한 진지구축, 소수병력에 의한 전초진지 방어, 저항과 반격에 의한 적군의 소모적 살상을 실시한다. 또 아군은 방어선을 결코 사수할 필요가 없으며 적을 소모시키고 시간을 쟁취하는데 힘을 쏟는다.

넷째, 매 전역(戰役)마다 미군 1개 대대, 한국군 1개 연대를 섬멸하는 ‘소규모 섬멸전’을 실시한다. 이때 아군은 멀리 진격하지 않고 38도선을 위주로 공격하며 남한강과 소양강을 넘지 않는다. 즉 한강·소양강 이북과 북위 38.5 이남 지역에서 공방전을 반복·실시한다.

다섯째, 적의 후방에서 적군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유격전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유격지대를 편성하여 적의 후방으로 침투시켜 아군 정면의 주력작전을 돕게 한다.[73]

공산군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휴전회담으로 인한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방어선을 3중으로 편성하고, 유엔군의 항공폭격이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유개화(有蓋化) 또는 엄체화(掩體化) 진지를 구축하였다.[74] 또한 공산군은 야포와 고사포 등의 화기와 장비를 전방으로 추진하는데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항공기가 2개월 내로 지원될 것을 고려하여 9월 공세를 목표로 전력의 정비와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공산군은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불과 10일 밖에 안 된 7월 20일 경에는 이미 유엔군 전초선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역의 주요 지형지물에 전초저항선(Outpost Line of Resistance: OPLR)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유엔군의 작전활동을 방해하였다. 유엔군은 이 전술의 변화가 종전의 적 방어전술의 관행이나 교리와는 다른 것으로 전방지역에 병력과 보급품의 증강이 이루어져 공격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징후로 판단하였다. 이후 공산군은 유엔군의 정찰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면서 정찰활동과 유엔군의 주요지역에 대한 탐색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산군은 장마로 인한 불순한 기상조건을 이용해 부대를 전방으로 추진·배치하였다. 이는 공산군이 부대배치의 조정 없이 곧바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으로 유엔군은 판단하였다.

이처럼 공산군 측은 처음부터 휴전회담의 조기 타결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숨은 의도는 휴전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춘계공세에서 입은 전력손실을 신속히 보충하고 나아가 공세역량을 축적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군사적 대공세를 취하거나, 휴전회담장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휴전회담은 그들에게 전력의 복구와 지구전에 의한 승리획득의 한 방편일 뿐 협상의 조기타결이 그 목표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휴전회담은 시작부터 지연된 반면 공산군의 전력은 점차 강화되었다.

3. 공산군 측의 편성과 전력증강 노력

공산군의 전력은 중공군 5개 병단(兵團, army)·19개 군(軍, corps)·55개 사단(師團, division)에 북한군 8개 군단·27개 사단으로 보병사단만 80여개에 달하였다.[75] 이를 병력으로 살펴보면 중공군이 77만 여명, 북한군이 34만 여명으로 총 112만 여명에 이르렀다.[76] 공산군은 이들의 전력을 제1선(전방), 제2선(후방), 전략예비로 구분하여 운용하였다. 제1선에는 중공군 8개 군과 북한군 3개 군단 등 총 11개 군단 33개 사단을 배치하여 전방지역의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제2선에는 중공군 9개 군과 북한군 4개 군단을 곡선-양덕지역과 평양 및 원산을 중심으로 동서해안지역에 배치하여 후방지역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부대들은 전략예비로 북한의 동북지역에 배치해 놓았다.[77]

제1선에는 중공군 제19병단의 제63·제64·제65군과 배속된 제47군이 예성강(토성)-철원(북방)에, 제9병단의 제20·제26·제27군이 평강-김화-북한강(등대리)에 배치되었고, 그 동쪽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는 북한군 제2·제3·제5군단이 배치되어 유엔군과 대치하고 있었다.[78] 특히 이들은 중공군 제47군에서 1개 사단과 북한군 제1군단(예성강 서측지역 방어부대)에서 1개 사단을 차출하여 별도로 개성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79] 이처럼 공산군의 지상 전력은 중공군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중공군은 서부와 중부의 주요 전선을 담당한 반면, 북한군은 동부전선의 산악지역을 담당하였다.

휴전회담 기간 중 마오쩌둥은 지구전을 통해 공산군, 특히 중공군의 현대화(소련의 지원에 의한)를 도모하였다. 그중에서도 그는 공산군의 공군전력 증강에 노력하였다. 공산군은 공군전력 향상을 위해 소련에서 훈련받은 중국 공군과 북한 공군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할 때 스탈린의 방침이었다. 그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할 때 소련 공군으로 하여금 만주를 중심으로 한 북한 후방지역의 작전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면서 중국 공군을 훈련시켜 이들을 전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80] 이에 따라 1951

년 6월 중순 개최된 조·중·소 모스크바 회담 후 스탈린은 한국전선의 중공군을 지원하는데 8개 전투비행사단을 포함해 16개 사단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오쩌둥에게 8개 전투비행사단의 전선배치를 지시하였다.[81] 하지만 훈련에 착수한 지 7-8개월이 지났는데도 투입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스탈린은 훈련책임자인 소련 제64항공군단 군단장 벨로프(Belov) 대장에게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5-6개월 만에 조종사를 양성한 소련의 전례를 들어 질책을 하고 이들 전투비행사단의 전선배치가 급선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82]

이때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북한에 투입할 전투비행사단의 기종을 MIG-9에서 신형인 MIG-15로 교체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스탈린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들 전투기들이 9월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다. 이에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평양 이남지역에 중국공군이 이용할 수 있는 비행장 3개를 건설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중국공군의 한반도 투입에 박차를 가하였다.[83]

한편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60개 사단용 장비공급과 소련군사고문단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다. 펑더화이도 전략과 전술을 담당할 소련군사고문단의 파견을 마오쩌둥을 통해 요청하였다.[84] 마오쩌둥은 1951년 9월 8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소련군사고문단장 크라소프스키와 협의한 결과, 83명의 소련군사고문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 83명의 고문관은 중국지원군사령부에 10명(고문단장 고문관 1명·참모장 고문관 1명·작전·정보·후방임무·통신·군사보도·포병·전차 및 자주포·기술문제 고문관 각 1명), 5개의 병단에 2명씩 10명의 고문관(병단별 사령관 및 참모장 고문관 각 1명·작전고문관 1명), 21개 군에 3명씩 해서 63명의 고문관(군장 겸 참모장·포병·전차 및 자주포 고문관 각 1명)이 필요하였다.[85]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소련군사고문관을 9-10월까지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86] 그러나 스탈린은 "중공군사령부에만 5명의 군사고문관을 파견하고 병단(兵團)과 각 군(軍)에는 고문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87] 또한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한국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공산군의 재무장에 필요한 60개 사단분의 장비에 대해서도 1954년 말에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신을 보내 왔다.[88]

이처럼 휴전회담 기간 중 공산군은 전·후방 및 전략예비로 부대를 편성하면서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서부 및 중부지역에는 주로 중공군을 배치하였고,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중동부 및 동해안 전선의 산악지역에는 북한군을 배치하여 전력의 대칭화(對稱化)를 이루게 하였다. 또한 공산군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동서해안에 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회담이 열리는 개성지역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에서 각각 1개 사단씩을 차출하여 총 2개 사단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상 전력의 강화를 위해 소련에게 60개 사단 분의 장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중공군의 군급 이상의 지휘부에 소련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공산군은 개전이후부터 열세인 공군전력의 증강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전투기 도입과 조종사 훈련을 통해 만회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공산군은 결국 휴전회담 기간을 통해 대규모 공세 때 손실된 그들의 전력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휴전회담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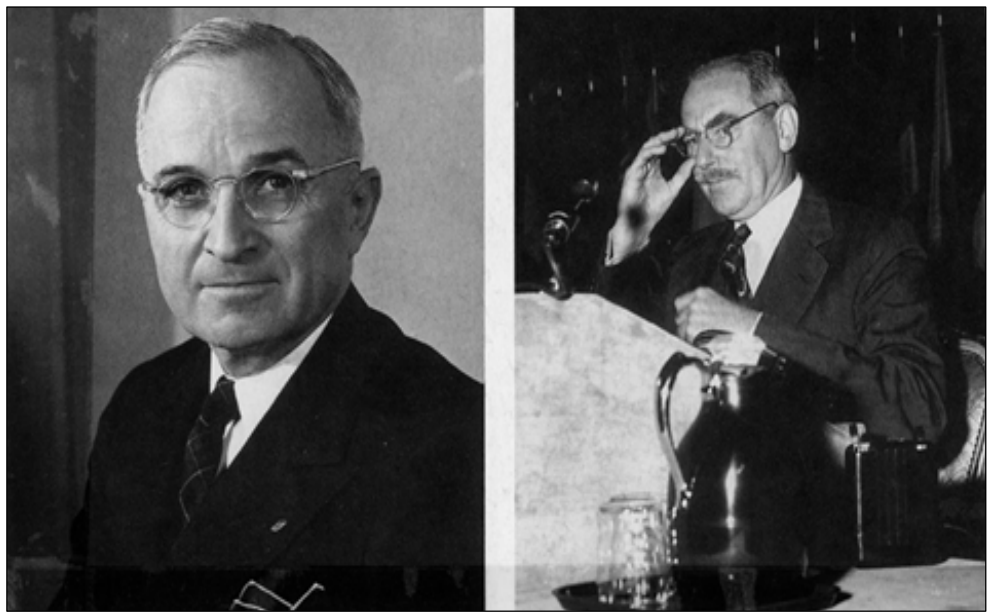
제 3 절 유엔군과 미국의 전쟁지도

1. 유엔 및 미국 전쟁지도부와 전쟁수행체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야기된 6·25전쟁을 '유엔의 도전 및 국제평화에 대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불응하며 계속 남진하자, 유엔과 미국은 이에 대응책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유엔군 회원국에서 파견된 군대를 통해 유엔과 미국의 전쟁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89] 유엔과 미국은 이들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2주 간격으로 유엔군사령부 명의의 보고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런 유엔과 미국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간의 전쟁지도 및 전쟁수행체계는 전쟁 초기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규정되어 운영되었다.

휴전회담 기간 중에도 전쟁초기 이미 한국지원을 결의하였던 유엔과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유엔사무총장에는 전쟁 첫 소식을 보고받고 이를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갈(一喝)했던 트리그브 리(Trygve Lie)가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

미국의 전쟁지도부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1945년 대통령 취임 이후 6년째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수(統帥)하며, 한국전쟁 관련 중요한 정책적·군사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또 6·25이후 유엔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 임명과 이의 운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한국전구(戰區)에서의 전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왼쪽)과 애치슨 국무장관(오른쪽)

미국 전쟁지도부의 정점에 위치한 트루먼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자문하는 기관으로는 1947년에 창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 NSC)가 있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최고의 안보자문기구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장)을 포함하여 부통령(부의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가안보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식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정보국장과 합동참모의장은 고문 겸 옵서버로 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였다. 또한 육·해·공군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도 전쟁의 주요 국면별 사안에 따라 옵서버로 참가하여 자군(自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에 관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책을 건의하여 결심을 받아 이를 미국의 정책으로 발전시켰다.[90]



미 국방장관 마셜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국가정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전쟁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을 마련하며 전쟁을 지도해 나갔다.[91]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식위원으로 전쟁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로는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있었다. 그는 유엔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였다. 또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며 유엔군사령부에 전략지시를 내리는 국방장관에는 제2차세계대전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마셜(George C. Marshall) 원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휴전회담 기간 중인 1951년 9월에 사직하자, 그 후임으로 마셜 밑에서 국방차관으로 있던 러베트(Robert A. Lovett)가 임명되었다. 국방장관 밑에는 각 군 장관들이 있었다. 육군장관에는 페이스(Frank Pace, Jr.), 해군장관에

는 매튜(Francis P. Matthew), 그리고 공군장관에는 핀레터(Thomas K. Finletter)가 있었다.

또한 미국의 군사지휘부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들이 있었다. 이들은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멤버(member)들이었다. 합동참모회의는 군사적 측면을 고려한 전쟁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하였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국방장관이 내린 전략지침을 유엔군사령관에게 하달하였다.[92]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요원들. 왼쪽부터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 브래들리 합참의장, 콜린스 육군참모총장, 셔먼 해군참모총장.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합참의장에는 브래들리(Omar N. Bradley) 원수가 전쟁초기부터 건재를 과시하며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전략지침을 하달하며 전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는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국방장관과의 전략회의에서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군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합동참모회의 구성원들인 각 군 참모총장들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보좌하며 자군(自軍)의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지도하였다.[93] 한국전구에 대한 군사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에는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이 있었다. 그는 전쟁이전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해상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고 있는 해군참모총장에는 셔먼(Forrest F. Sherman) 제독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51년 7월 22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페치텔러(William M. Fetcher) 제독이 휴전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94] 공중작전 및 보급에 대한 작전과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참모총장에는 반데버그(Hoyt S. Vandenberg) 대장이 전쟁초기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전구(韓國戰區)에 대한 작전을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및 미 극동군사령부는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쟁정책과 전략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유엔군사령부와 극동군사령부가 작전수행 간 순수한 작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이 검토한 후에 이를 합동참모회의에 넘겨 처리하였다. 만약 군사적인 문제를 벗어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참모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95] 경우에 따라 미국의 전쟁정책은 유엔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유엔의 전쟁지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쟁수행 체계는 전쟁 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2. 미국의 휴전협상 기본 정책

미국의 휴전정책에 대한 기조는「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48/5」(약칭 NSC 48/5)에 수록되어 있다. NSC 48/5는 1951년 5월 17일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문서로 미국의 한국에서의 휴전정책을 포함한 대한정책을 담고 있다. 미국은 NSC 48/5에서 향후 대한정책(對韓政策)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밝혔다.[96]

미국은 NSC 48/5문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들이 앞으로 수행할 정책목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하나는 당장 처리해야 될 현실적인 '당면목표(a current objective)'로서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먼저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유엔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최종목표(an ultimate objective)'로서 '통일·독립·민주 한국(a unit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의 건설이었다.[97] 이는 1947년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미국과 유엔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한국에 대한 최종목표이었다.

이때 미국은 장기목표 보다는 당장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킬 당면목표, 즉 휴전정책의 실현에 무게를 두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추진하는데 있어 유엔의 수락과 유엔 기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휴전에 대한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둘째, 38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 통치권을 수립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군을 단계별로 철수하게 한다. 넷째,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건설을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거나, 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미국은 침략자에 대한 징벌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하였다.[98] 아울러 미국은 휴전회담에서 토의는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영토적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99] 이처럼 미국은 한국문제를 해결할 당면목표로서 휴전협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휴전정책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휴전정책이 담고 있는 원칙과 조건에 따라 공산군 측과 휴전회담을 추진하였다.

3. 휴전협상 실패에 대비한 미국의 대책

1) 미 합동참모본부의 판단과 건의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1951년 5월 NSC 48/5문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전쟁종식을 위한 휴전정책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으나, 군사적 입장에

서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럴 경우 휴전회담의 실패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판단이 요구되었다. 휴전회담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한 우발계획을 수립하여 1951년 7월 13일에 마셜(George C. Marshall)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첫째, 최대한 빨리 전면전에 대비한 최상의 준비태세를 갖춘다.
둘째, 유엔군사령관에게 현 가용부대의 능력과 안전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시한다.
셋째, 청천강-원산까지 북진하도록 한다.
넷째, 북한지역의 모든 시설에 대한 공격제한을 해제한다. 여기에는 나진과 압록강 댐, 한국 측 수풍발전시설을 포함된다.
다섯째, 한국에서 시작된 공중교전은 한만국경선을 고려하지 않고 추격한다. 그러한 추격은 적기가 착륙한 후에도 계속되며 대응하는 적 대공화기를 무력화한다.
여섯째,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공유격대에 대한 지원과 적 병참선 차단 및 파괴를 적극 지원한다.
일곱째, 일본 자위대의 조직과 훈련, 그리고 장비를 촉진한다.
여덟째, 한국군이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 및 장비시킨다.[100]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휴전회담이 실패할 경우 유엔결의에 의해 한국을 지원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해상봉쇄를 지원하도록 하고, 더 많은 군대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공군이 그들의 군대를 스스로 철수하도록 정치적·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마셜 국방장관에게 건의하였다.[101]

이에 마셜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건의사항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지금 어떠한 의견도 피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102]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건의에 대해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건의사항은 1951년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대한정책에 영향을 주었다.[103]

2)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 판단

미 국무부도 휴전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1951년 8월 18일 수립하여 합동참모본부에 의견을 구하였다. 미 국무부가 합동참모본부에 의뢰한 것은 휴전 후에 개최될 정치회담에 중국과 소련을 참가하는 문제와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였다.[104]

첫째, 휴전결정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비 교전 국가인 중국과 소련의 휴전 후에 있을 정치회담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그 회담은 한국문제에 국한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국방장관도 이 문제에 동의하였다.[105]

둘째, 합동참모본부는 휴전회담의 결렬될 경우 국무부가 다른 유엔 참전국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엔군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제한을 주게 될 것으로 보았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 13일에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조치사항들을 선호하였다.[106]

마셜 국방장관은 국무부의 자문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의견을 국무장관에게 통보하면서 7월 13일자 합동참모본부의 건의사항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공중전에서 즉각 추격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 문제를 검토할 때까지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107]

미 국방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미 국무부는 휴전회담 결렬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해상봉쇄는 그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그 대신 경제봉쇄 또는 금수(禁輸)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108]

한편 미 국무부는 합동참모본부가 국방장관에게 건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휴전회담 실패 시 자유 중국군의 중국 본토 및 한국전선의 투입을 재검토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자유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중국 본토에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109]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1951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영국 외상 모리슨(Herbert Morrison)과 프랑스 외상 슈망(Robert Schuman)과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회동하였다. 이 회담에서 영국은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에 대해 영국정부는 봉쇄는 고사하고 금수조치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110]

3) 미국 전쟁지도부의 휴전실패에 따른 대책 강구

휴전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한 미 합동참모본부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0월 2일에 합동참모본부에 이를 다시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7월 13일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한편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도 9월 23일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엔군사령부 차원의 우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 그는 휴전회담이 결렬되면 원산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그가 우려한 것은 원산상륙작전으로 소련이 전면개입을 하고 핵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휴전회담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전 전선에 걸쳐 전면공세를 펼치면서 원산 또는 다른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공산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유엔군도 1개월에 약 1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의 우발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워싱턴에 요청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10월 12일에 유엔군사령관의 우발계획을 검토하였으나 그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합참의장인 브래들리 장군이 부재중인 데다 유엔군사령관이 건의한 내용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였기 때문이었다.[111]

미 합동참모본부는 휴전회담 결렬에 대비하여 마련한 '1951년 7월 13일 건의사항'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1월 3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수정안에서 미 합동참모본부는 "적에 대한 군사적 압

력을 증가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유엔군사령부의 능력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회담실패에 따라 실시하게 될 군사작전의 시기·성격·규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덧붙여 미 합동참모본부는 청천강-원산에 대한 북진한계선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였다.[112]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수정안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건의하였다. 첫째, 미국은 한국에서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소모해가며 미국의 육·해·공군 부대를 무한정 묶어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휴전회담이 실패하면 군사적 승리를 위한 여론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셋째, 만주나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부합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될 것이다. 넷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국 상황을 재검토하고 휴전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목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113]

미 합동참모본부의 휴전회담 실패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받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를 다시 검토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휴전회담이 실패할 경우 "한국의 통일을 가져올 완전한 군사적 승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지상군과 공군의 실질적인 증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사용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114]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휴전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첫째, 미국은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며 적어도 1952년까지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증원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것은 유럽에 계획된 부대증강을 지연시킬 것이며, 육군의 일반예비(general reserve)를 고갈시키고 미국 군사력의 전개에 기형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다른 유엔참전국들도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전쟁은 유엔에 의해 협조된 노력보다 미국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변질될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군사력의 확대는 그것이 군사적 승리를 가져올지라도 극동지역에서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의 전쟁목표 확대와 보다 큰 군

사력의 운용은 소련과 중국에게 그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비쳐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대결을 유발하게 할 것이다.[115]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휴전을 계속 추구하면서 제한전쟁(a limited war)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힘을 타격할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고, 공산군의 공군력 증강으로 인해 한국에서 유엔군의 안전에 위협받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공군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때는 제한전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제한전쟁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116]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산군 측의 새로운 침략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책은 미국과 동맹국이 공산군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미국과 우방국의 이러한 확고한 결의와 공개적인 표명을 최선의 방책으로 보았던 것이다.[117]

4. 미국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시와 군사전략

1) 미 합참의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전략지시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한국전선에서 유엔군 및 한국에 대해 작전지휘를 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하였다.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전략지시는 1957년 5월 17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NSC 48/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전략지시의 핵심은 한국전쟁에 대한 해결조건으로 휴전을 가져오며, 38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확립하고,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을 철수하게 하며, 한국군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허용하는 것이었다.[118] 이렇듯 미국 전쟁지도부는 휴전으로 전쟁을 종결하는데 있어서 38도선

이남을 확보하고, 한국에서 외국군을 철수하며, 북한의 침략에 맞설 한국군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미 합동참모본부도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5월 31일 유엔군사령관에게 군사작전에 있어서 캔자스-와이오밍 선을 초월하는 작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유엔군사령관에게 화천저수지를 연하는 선 이북지역을 공격할 때에는 그 이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공산군이 그 지역에서 전력을 증강하자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제한사항을 재고한 후 수정한 내용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 유엔군사령관은 지상 작전과 관련하여 귀하의 임무를 지원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며, 적을 계속적으로 교란하는데 필요하거나 바람직스러운 전술작전(tactical operations)을 실시하도록 승인한다. 여기에는 적의 후방지역에 대한 게릴라작전(guerrilla operations), 제한된 상륙 및 공수작전(limited amphibious and airborne operations)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119]

이것은 7월 10일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지시를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하달하였다.[120]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7월 2일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적대행위는 중지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서도 38도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121]

이처럼 휴전회담을 전후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전략지시는 휴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이 통치하게 될 38도선 이남지역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캔자스-와이오밍 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제한하였다. 아울러 휴전 이후를 고려하여 북한군의 침략에 맞설 한국군의 건설을 지시하였다. 특히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2) 유엔군의 제한목표 공격과 후방차단작전

휴전회담 기간 중 워싱턴의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시를 수행할 유엔군사령관 겸 미 극동군사령관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육군 대장이었다. 그는 1951년 4월 맥아더 원수의 전격적인 해임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서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휴전회담을 전후하여 그가 부여받은 임무는 휴전협상을 지도하고, 휴전회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제한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가 워싱턴으로부터 부여받은 작전지역은 캔자스-와이오밍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범위를 벗어날 때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군의 작전목표도 휴전회담의 타결을 지원하고, 유엔군의 방어선을 개선하며, 공산군의 공세역량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군의 군사작전도 이러한 제한전쟁에 따라 제한된 목표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전선에서 유엔군의 지상군사령관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도 이러한 제한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밴플리트 장군도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플리트 장군은 보다 야심찬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9월 1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된 '제압작전계획(Plan Overwhelming)'[122]이었다. 이 계획은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을 섬멸하고, 평양-원산 선까지 점령한다는 것이었다.[123]

하지만 이 계획은 리지웨이 장군이 "휴전회담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대규모 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124] 이 작전은 원산에 상륙작전을 실시함과 동시에 캔자스-와이오밍 선에서 일제히 진격한다는 공격작전계획이었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일권 총참모장은 이 계획이 취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 워싱턴 당국은 북진 당시 소련과 중공을 자극한다하여 맥아더 전략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휴전협상을 위해 밴플리트 작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전략이 억제 당함으로써 북진통일이 좌절되었듯이 밴플리트 작전이 제한됨으로써 이번에는 평양-원산 진격이 좌절되었습니다.[125]

이처럼 유엔군의 지상에서의 대규모 공격작전은 휴전회담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공중공격은 달랐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미 재8군의 지상에서의 제한목표에 대한 공격작전과 달리 유엔공군을 이용하여 적 후방지역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휴전회담이 개시된 직후 공산군이 휴전회담의 개최로 전선이 소강된 틈을 이용하여 보급품과 장비를 전선지역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하고 내린 조치였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전선으로 연결된 북한 내의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여 휴전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 후방차단작전은 스트랭글(Strangle) 작전으로 1951년 8월 18일에 개시되었다. 후방차단작전에는 미 제5공군이 미 극동해군과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126] 하지만 이 작전은 유엔군이 어느 정도 공산군의 보급수송을 차단 또는 지연시켰으나 공산군 측을 휴전협정에 끌어들이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3) 미 제8군사령관의 제한목표 공격작전 개념과 실시

(1) 미 제8군사령관의 제한목표 공격작전 개념과 원칙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공격형의 장군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엔군사령관에게 평양-원산 선에 대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공격계획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위(無爲)로 끝나게 되었다. 이후 밴플리트 장군은 멀리는 워싱턴의 전략지시로부터 가깝게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시에 따라 제한된 공격작전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휴전회담 전후하여 밴플리트 장군의 휘하에 있는 유엔군은 휴전회담 분위기와

이와 관련된 군사작전의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있었다. 이 무렵 공산군은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는데 반해, 유엔군은 주로 정찰활동과 포로획득 등 소극적인 전투 활동을 함으로써 군의 전투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127] 이는 유엔군 장병들이 휴전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데에서 생긴 현상이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적의 공격 시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공산군에게는 혼란을 주면서 유엔군의 전선첨단을 날카롭게 다지는 한편,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는 제한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128]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

이를 위해 밴플리트 장군은 7월 29일 제한목표공격과 종심 깊은 정찰활동을 통해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그들의 배치를 탐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그는 미 제1군단에 대해서는 '철의 삼각지'에 대한 종심 깊은 전투정찰을 실시하게 하였고, 미 제9군단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작전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에 대해서는 대우산을 계속 공격하면서 국군 제1군단과 협조하여 1031고지에서 뻗어 내린 고지군을 확보하도록 하였다.[129] 하지만 2일 후인 7월 31일에 이 명령은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장마 때문이었다. 30년 만의 심한 장마로 시계가 제한되고, 통신이 곤란하며, 도로가 침수되어 부대기동이 어렵고, 이에 따라 포병사격 및 항공지원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이 작전은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대우산을 탈취한 상황에서 중단되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장마가 그치자 8월 18일에 공격작전을 재개하였다. 이때 밴플리트 장군의 작전목적은 유엔군의 방어선 중 남쪽으로 처진 만곡부(彎曲部)를 밀어올려 기복을 없애고, 아군 병참선과 캔자스선 방어에 위협을 주는 지형지물을 탈취하는 데에 있었다. 그는 공세작전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군의 방어선 중에서 가장 취약한 중동부지역의 미 제10군단 전선의 중앙, 즉 해안분지 북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만곡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와 협조된 작전을 통해 국군 제1군단 방어선을 남강까지 추진한다.

둘째, 미 제9군단 정면의 금성분지를 점령하여 철의 삼각지를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함은 물론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확보한다.

셋째, 미 제1군단의 방어선을 10km 정도 추진하여 연천-철원 철로를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철원-김화 철로와 연결시켜 서울-김화 도로는 물론 이 철로를 군병참선으로 이용한다.[130]

이렇듯 미 제8군은 제한목표 공격을 통해 유엔군의 방어선을 개선하고, 와이오밍 선을 캔자스선과 같은 강도로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밴플리트 장군도 7월 24일 미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와이오밍 선에 대한 운용개념을 캔자스선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리는 적이 캔자스 방어선에 도달하기 전에 적의 공격을 분쇄하고 그들을 지연하여 응징하기 위한 전초선으로서 와이오밍 선을 점령하였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방어준비를 보다 잘하게 하여 적이 캔자스선의 아군진지에 도달하면 보다 적은 손실로 적을 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와이오밍 선을 주저항선이나 주전투진지로 계획하지 않았다. 그런데 적의 전면공세가 있을 경우에는 이는 여전히 우리의 방침이다. 하지만 적이 제한공세를 취할 경우 본관은 와이오밍 선에서 적을 저지하거나 적어도 그곳에서 적에게 아주 가혹한 응징을 가하기를 원한다. 적이 와이오밍 선을 공격할 경우 지난 5월 공세 때의 전력으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적을 그곳에서 저지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와이오밍 선에서 전면공격이 아닌 제한된 목표의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131]

또한 밴플리트 장군은 왜 38도선이 군사분계선으로 적합하지 못한 이유와 와이오밍 선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적이 화천지역의 도로망에 접근하게 되며 아군진지의 측방포위를 허용하게 된다.
둘째, 전력(電力)의 근원이며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화천저수지의 통제권을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
셋째, 적이 서울에 너무 근접하여 수도에 대한 기습공격을 허용하게 된다.[132]

미 제8군사령관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중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들은 와이오밍 선에 주력을 배치하고 방어시설을 강화하였다. 또한 캔자스 선에도 예비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중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2) 미 제8군사령관의 제한목표 공격작전 계획과 실행

①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

포복작전은 해안분지(亥安盆地, Punchbowl)를 탈취하기 위한 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미 제10군단의 우익사단과 국군 제1군

단의 좌익사단이 참가하였다. 작전목적은 해안분지 동쪽인 동시에 서화계곡 동측의 884-924-1031고지로 이어지는 '낚시 바늘(J-Ridge)' 형상의 종격실 능선을 탈취하여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남강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까지 밀어 올려 동측방에서 해안분지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이 포복작전과 연계하여 해안분지 서측에서도 미 제2사단으로 하여금 983고지(일명 피의능선)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미 제2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983고지를 공격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군 제7사단이 983고지 서측의 554-883고지를 공격하였다. [133]

② 맹금발톱 및 아파치작전(Operation Talons & Apache)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8월 27일 새로운 공격작전계획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미 제8군 예하 군단장이 참석한 군사령부 작전회의에서 새로운 공격계획인 '맹금(猛禽)발톱작전(operation Talons)'을 9월 5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유엔군의 동부전선 방어선을 최대 24km까지 밀어 올려 만곡부를 없애고, 이 지역에 투입된 적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계획이었다.

첫째, 상륙작전부대를 운용하여 원산을 점령한다.
둘째, 기갑부대로써 해안도로를 따라 원산 남쪽의 적 보급기지를 공격한다.
셋째, 공세작전으로 미 제10군단 정면의 만곡부를 제거한다.[134]

유엔군사령관은 보고를 받으면서 원산지역 작전을 취소하면서 지상 작전만을 승인하였다. 이에 밴플리트 장군은 원래 계획을 축소·조정하여 아파치(Apache)작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8월 29일에 이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하달하였다.[135] 여기에는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 그리고 한국군 제1군단이 참가하게 되었다. 이에 각 군단은 다가오는 작전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부대를 배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피의능선 전투에서 아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밴플리트 장군은 아파치 작전의 규모로 볼 때 더 많은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9월 5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이 작전의 취소를 보고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이 9월 8일 이를 승인함으로써 아파치 작전은 완전히 취소되었다.

③ 소타격작전과 대타격작전(Plan Cudgel & Wrangler)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9월 19일 유엔군사령관에게 또 다시 공격작전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때는 아파치 작전을 취소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밴플리트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한 공격작전은 다음과 같이 두 번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

첫째, '소타격 작전계획(Plan Cudgel)'이다. 이 작전의 목적은 철원-김화 철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전선을 와이오밍 선보다 15km 북쪽으로 추진하고, 이곳에 설치된 적의 주저항선인 전투전초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작전에는 미 제9군단이 주공을 맡고, 좌우 인접의 양개 군단으로 조공을 맡아 적의 예비가 주공정면으로 투입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였다.[136]

둘째, '대타격 작전계획(Plan Wrangler)'이다. 이 작전은 소타격 작전의 후속으로 실시한다. 이 작전의 목적은 중부전선의 병참선을 개선하기 위해 소타격 작전에 의해 확보된 철로를 이용하여 평강-금성-고저 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에는 상륙작전이 포함되었었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은 동해안의 고저에 사단급 규모의 부대를 상륙시키고, 이때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이 동북방으로 진격하여 연결 작전을 통해 지대내의 적을 차단·포위·섬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전계획도 유엔군사령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취소되었다.[137]

④ 특공작전(Commando)과 폴라선(Polar Line) 진격작전

타격작전이 취소된 후 미 군단에 의한 제한된 공격작전이 새로이 계획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이들 작전을 승인함으로써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첫째, 미 제1군단장 오다니엘(John W. O'Daniel) 소장이 주도한 '특공작전

(Operation Commando)'이다. 이 작전의 목적은 군단의 전선을 역곡천 남안까지 10km 추진하여 방어선을 개선하고, 연천-철원 간 철로와 병참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작전은 1951년 10월 3일에 시작되어 10월 하순에 종료되었다.[138]

둘째,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중장이 주도한 '폴라선(Polar Line)' 진격작전이다. 이 작전의 목적은 군단 정면의 방어선을 개선하고, 철원-김화 간 철로와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작전목표는 적의 주요 작전기지인 금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하순까지 금성 남쪽 고지군인 폴라선(Polar Line)을 점령하고 작전을 종료하였다.[139]

⑤ 터치다운작전과 해시계작전(Operation Touchdown & Sundial)

미 제2사단은 10월 중에 터치다운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미 제10군단이 하계작전의 연장선에서 실시한 추계작전 기간에 실시되었다. 미 제2사단은 10월 13일에 단장의 능선과 10월 15일에 1220고지(김일성 능선)을 탈취하였다. 이때 국군 제8사단이 어은산 남쪽지역의 1090고지를 점령하였고, 국군 제5사단이 가칠봉 북방의 1211고지를 점령하였다.[140]

또한 미 제8군은 추계작전의 일환으로 해시계작전(Operation Sundial)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중부지역의 방어선을 철원 서북쪽 송현리에서 평강 북서 1km 지점을 경유하여 금성 동남쪽 4km 지점의 폴라선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동해안에서 북진하는 국군 제1군단과 통천에서 연결하여 지대내의 적을 섬멸하고 새 방어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미 제8군은 이 작전을 11월 1일에 실시할 계획이었다.[141]

그런데 이 작전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이는 1951년 10월 25일 휴전회담이 재개되고, 비무장지대가 설치되면 현 접촉선에서 몇 km씩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많은 피해를 수반할 이 작전을 강행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은 11월 11일에 이 작전을 취소하였다.[142]

5. 유엔군의 편성과 전력증강 노력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군은 한국군 1개 군단 및 10개 사단, 미군 1개 야전군, 3개 군단, 7개 사단, 영국군 2개 여단,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에서 파견된 대대 및 연대규모의 부대들로 구성되었다. 한국군과 미군을 제외한 나머지 유엔회원국 군대 규모는 1개 사단에 해당되었다.

또한 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는 병원시설 및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유엔비회원국인 이탈리아도 1951년 11월에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지원하였다.[143] 이로써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에는 전투파병 16개 국가와 의료지원 5개 국가 등 21개 국가가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한국에 파병된 지상군 병력은 한국군이 273,000명, 미군이 253,000명, 그리고 그 밖의 유엔군이 28,000명으로 총 554,000명에 달하였다.[144] 그 중 미 제1군단이 한강하구-김화, 미 제9군단이 김화(동측)-북한강, 미 제10군단이 북한강(동측)-소양강, 국군 제1군단이 소양강(동측)-동해안(간성) 지역을 담당하여 배치되었다. 하지만 지상군 병력은 공산군에 비해 2대 1로 열세였다.

유엔군 해군은 미국 제7함대(항공모함)을 포함한 극동해군, 한국 해군 함정, 그리고 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타이·콜롬비아 함정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해군은 완전히 파괴되어 해상작전 능력을 상실하였고, 중국과 소련은 해군을 지원하지 않았다.[145] 이로써 유엔군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유엔군 공군은 미 극동공군, 한국공군 비행단, 영국(항공모함)·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타이·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에서 파견된 공군부대로 구성되었다. 유엔공군의 항공기로는 F-51·F-80·F-82·F-84·F-86, 그리고 B-26과 B-29전략폭격기로 구성되었고, 그 중 F-86이 제트전투기로 최신형이었다.[146]

한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한국군 간부

의 질적 향상과 부대훈련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결국 유엔군의 지상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이를 위해 7월 16일 육군총참모장 이종찬 소장을 만나 국군의 교육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147] 이때 그는 한국군 장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50명의 장교를 미국 보병학교(Fort Benning)와 포병학교(Fort Sill)에 유학보내기로 이종찬 총참모장과 합의하였다.[148]

또한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군 훈련소 개선을 위해 제주도 훈련소를 방문하고, 신병 훈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였다. 그는 신병 교육훈련을 위해 1주간의 야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밴플리트 장군은 전방사단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집중강화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7월 하순에 미 제9군단에 야전훈련소(Field Training Center)를 설치한데 이어 각 군단에 야전훈련소를 설치하였다.[149] 그리고 미 제9군단 부군단장인 그로스(Thomas J. Gross) 준장을 야전훈련소(FTC) 소장에 임명하고 한국군 부대훈련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전방의 한국군 사단은 군단예비로 전환될 때 야전훈련소에 전 장병이 입소하여 9주간에 걸쳐 집중훈련을 받았다. 훈련은 개인훈련에서부터 대대훈련까지 실시하였다.[150]

밴플리트 장군의 한국군 강화 및 간부 질적 향상 노력은 유엔군 전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특히 야전훈련소에서 사단별 집중강화훈련을 마친 한국군 부대들은 휴전회담 기간 중 제한목표 공격작전에 투입되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151]

제 4 절 한국정부의 전쟁지도와 전시조치

1. 한국의 전쟁지도부와 전쟁수행 체계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의 전쟁지도부는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전쟁 전반에 대한 지도와 책임을 지는 국방부를 포함한 전시내각(wartime cabinet)이 있었다. 그리고 유엔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을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는 육·해·공군 총참모장으로 구성된 군사지휘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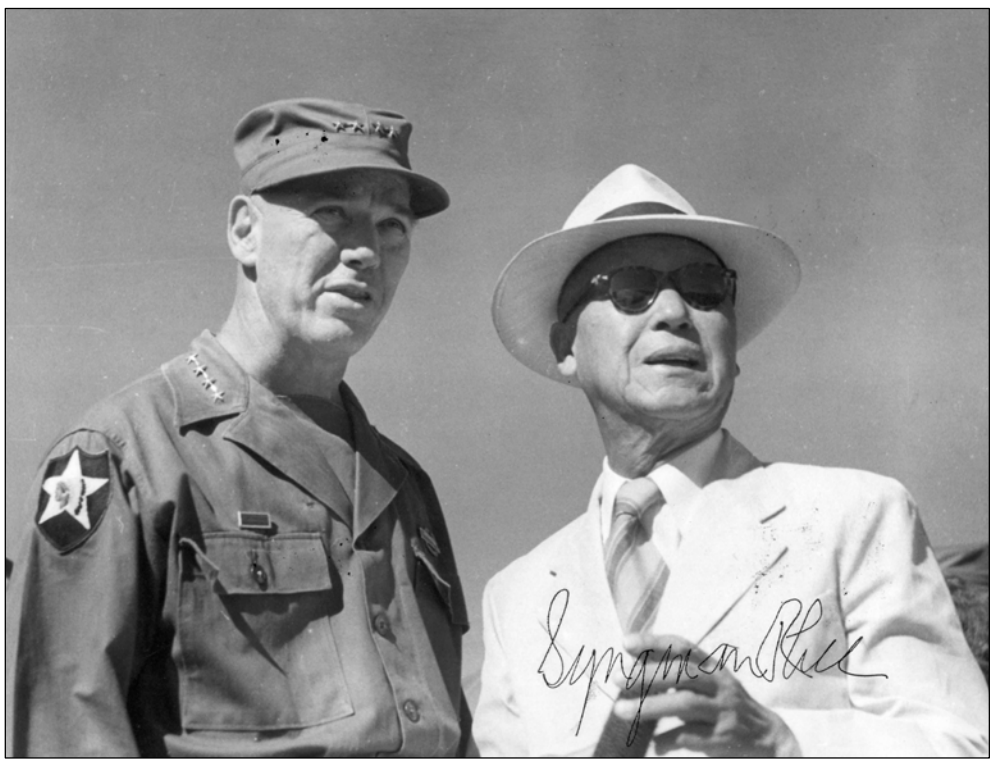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시외교를 비롯하여 전시국정을 총괄하며 지도하였다. 전쟁수행에 대한 전반을 수행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시내각은 전쟁 초기부터 전쟁수행 주체부서인 국방부·내무부·사회부·법무부가 전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것은 전쟁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휴전회담을 전후하여 전시내각 및 군 수뇌부에 변동이 있었다. 이는 1951년 초에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문책인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4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부·내무부·법무부 등 사건과 관련 있는 장관들에게 사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5월 27일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이 해임되고 그 후임에 이기붕(李起鵬)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이 무렵 이시영(李始榮) 부통령이 그 직을 사임하였다. 그는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 결국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5월 8일 김성수(金性洙)를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건 및 거창사건으로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인 정일권 중장이 그 직에서 해임되었다. 정일권 장군은 6월 23일에 해임되고, 그 후임에 이종찬(李鍾贊) 준장이 소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이

때 정일권 장군이 육해·공군총사령관 직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정일권 장군이 육군총참모장에서 해임될 무렵 국방부차관이던 장경근(張暻根)도 교체되었다. 후임에는 김일환(金一煥) 장군이 임명되었다.[152]



이승만 대통령(오른쪽)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왼쪽)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의 전쟁지도부 및 군사지휘부는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부통령 김성수, 국방부장관 이기붕, 국방부차관 김일환, 육군총참모장 이종찬 소장, 해군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소장, 공군총참모장 김정렬(金貞烈) 소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1군단장은 백선엽 육군소장이 보직되어 있었다.[153] 그 당시 한국군은 제2군단과 제3군단이 해체되고, 제1군단만 남아 있었다.

한국의 전쟁지도부는 미국 및 유엔과 상호 협조체제 하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물론 전쟁수행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하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점령지역에 대한 책임권한을 놓고 미국 및 유엔과 한국정부 간에 이견이 대립되었으나,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다. 군사작전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주도하게 되자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한국군이 유엔군 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상대역은 주한미국대사였으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었다. 주한미국대사는 외교정책에 관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협의를 하였고,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8군사령관이 상대역이 되어 현안문제를 협의하거나 해결해 나갔다.

특히 미국은 전쟁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 문제나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육·해·공군장관 및 참모총장 또는 국무부 관료들을 한국에 보내 해결하였다. 이때 미국의 고위 관료 및 장성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경무대로 예방하고 이곳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순수한 작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의 책임 하에 대부분 수행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38도선 돌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국의 지상군(육군·해병대)은 미 지상구성군사령부 격인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한국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통제를, 그리고 한국 공군은 미 제5공군사령관 및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작전지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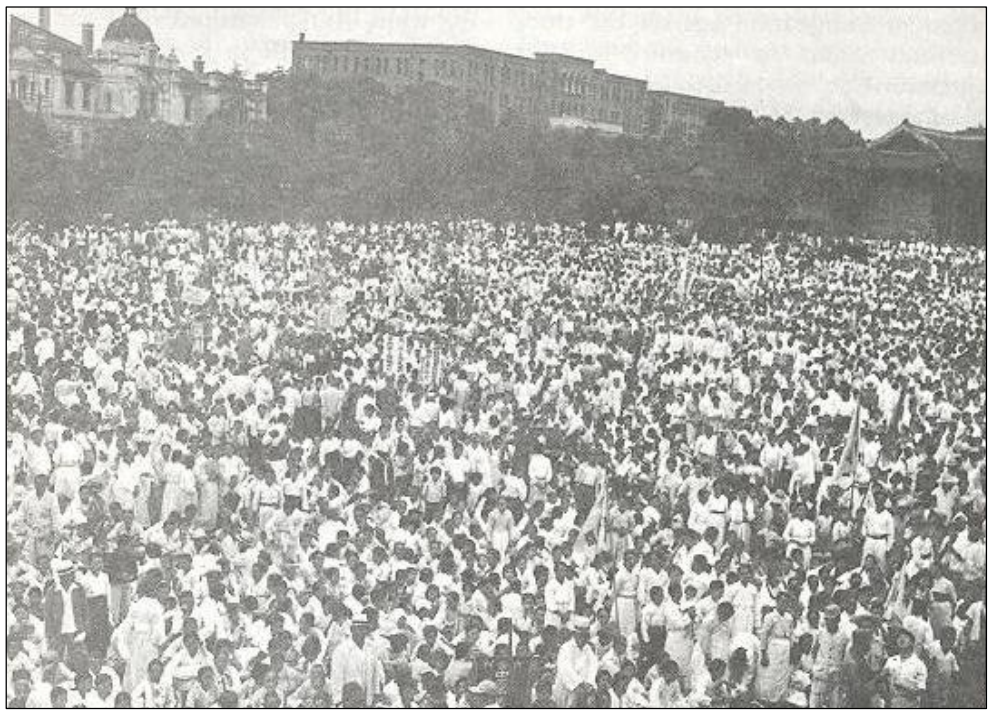
1951년 7월 휴전회담 개시부터 12월 말까지 유엔군사령관은 리지웨이 대장이었고 미 제8군사령관은 밴플리트 대장(1951년 8월 1일 대장 진급)이었다.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전쟁초기부터 있었던 조이(Charles Turner Joy) 중장으로 그는 휴전회담 때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로 활약하였다.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1951년 6월 10일 취임한 웨이랜드(Otto P. Weyland) 중장이었다. 한국군과 미군 및 유엔군 간의 이러한 전쟁수행체계는 전쟁 기간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국군 수뇌부, 특히 육군은 휴전회담에 즈음하여 그 지휘의 폭이 좁아졌다. 육군본부는 1951년 중공군 5월 공세 이전까지는 미 제8군사령부를 통해 국군 군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국군 제3군단의 작전 실패로 인해 한국의 육군본부는 작전지휘 계선 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현리전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하고 배속된 국군 사단들을 국군 제1군단 및 미군 군단에 배속시켰다. 또한 전방의 국군 군단 및 사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육군본부의 전방지휘소도 이때 폐지되었다.[154] 이때부터 한국의 육군본부는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인사·군수·훈련 임무만 수행하게 되었고, 미 제8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직접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반해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자 국군 수뇌부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국군통수권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반대 속에 유엔군 측 한국 휴전회담 대표로 참석하게 된 장성들은 난처한 입장에서 휴전회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군 수뇌부도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에 대한 철저한 비밀과 통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정부와 국회의 휴전반대 그리고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 군 수뇌부가 느꼈던 고민과 입장을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 한국정부와 국회의 휴전반대

휴전회담은 한국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통일이 보장되지 않은 휴전은 한국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에 온 국민이 휴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이어린 학생,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였다.



휴전반대운동을 위해 운집한 서울시민들

6·25전쟁 발발 이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38도선 폐지와 압록강·두만강으로의 진격을 외치며 통일한국을 추구하였다. “다시는 국토가 분단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이 당시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1951년 5월 춘계공세 이후부터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에는 전쟁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휴전회담을 위한 막후 접촉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북진에 의한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며 휴전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한국 국회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국회는 1951년 6월 5일 휴전반대결의를 통해 중공군의 침략행위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의 완전한 자주통일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휴전에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38도선 휴전반대 국민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국민들은 “공산침략자들에게 재침의 시간과 기회를 주려는 휴전에 결사반대한다.”며 절규하였다.[155] 이승

만 대통령도 6월 8일 38도선에서의 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휴전반대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휴전회담은 한국정부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시화되어 가고 있었다.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는 휴전제의를 발표하였고, 이에 중국과 북한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주시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휴전안 반대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성명서에서 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한국 국민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게 되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향후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통일 없는 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나아가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공산주의 책략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서 내용이다.

> 어느 인위적 경계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분할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평화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고 간에 남북 전 국민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침략자가 한국의 어느 일부라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놓아주는 제안은 결국 이 나라에 대한 모욕이 되고 말 것이다. 소련의 지도자들이 지금 평화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무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와서 양면외교를 통해 가지고 완수해 보려는 것이다.
> …도대체 언제부터 소련지도자들은 그렇게 세계평화를 갈망하여 온 것인가? 그들이 남한을 자기네들 판도 속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그들은 평화를 구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국민을 학살하고 우리 국토를 파괴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보장하려는 노력이었던가?
> …공산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로 철퇴할 것을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비로소 유엔이 선언한 제 목적에 합치되는 평화 교섭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부는 정의와 영구한 평화가 한국에 수립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정의에 의하여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싸움이 빨리 끝나서 우리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 적의 계략에 빠져 결국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전 한국민은 민족통일을 원하고 있다. 남한 사람에 못지않게 38도선 이북에 사는 한국 남녀들은 하나의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 밑에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5년 동안 우리의 국토를 분할하여 온 인위적인 경계선을 또 다시 건설하려는 여하한 제안도 결국 우리 전 한국민은 깊은 실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해결을 지으려 하면 반드시 한국민에 대한 공산침략이 장차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주어야 한다.

셋째, 한국민은 그들이 민주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표를, 즉 한국정부를 통하여 화평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협의를 받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말리크의 제안은 이러한 조건에 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속한 평화라는 허황한 약속에 속아 가지고 결국 더욱 무서운 전쟁의 서곡이 되어 버릴 어느 평화제안도 수락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156]

또한 한국 국회도 6월 29일에 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157] 국회도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38도선 정전을 절대 반대한다. 다만 공산제국 침략군의 전면적 무장해제와 또한 압록강·두만강 국경 밖으로 철퇴를 실시한 후 국토통일을 완수하고 한국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확약하는 조건 이외에는 우리는 고려할 여지가 없음을 재 성명한다.[158]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휴전반대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한국정부는 6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 측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등 휴전회담이 확실시되자, 휴전회담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정부는 "휴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를 명확

히 할 시기가 온 줄로 생각한다. 우리는 구태여 휴전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전의 조건을 명시하여 공산주의의 모략과 술책에 빠질 위험을 제거하려 한다." 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휴전 5개 조건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중공군은 한국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만주로 완전히 철수하되 북한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에 손상을 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괴뢰군은 무장을 해제하여야 한다.
셋째, 유엔은 제3국이 북한 공산당에게 군사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원조치 못하도록 방지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정식 대표가 한국 문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토의하거나 고려하는 어떠한 국제적 회의 혹은 회합에도 참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범하는 어떠한 안이나 행동도 적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다.[159]

또한 이승만 대통령도 7월 3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휴전회담을 반대하는 전문을 발송하며 '휴전불가'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하지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의 휴전회담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계속되었다. 미국과 유엔군은 이 시점에서 휴전반대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를 달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7월 10일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휴전회담 경위에 대해 보고한데 이어 7월 16일에는 휴전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160]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리지웨이 장군이 비무장지대의 기초로서 군사분계선 설치에 대해 설명하자, "북한군의 해·공군이 고갈되었는데 압록강·두만강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면박하였다. 그럼에도 리지웨이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진작전은 유엔군의 대규모 병력증강과 함께 보급상의 문제가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38도선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휴전은 공산군을 도울 것이며 이로써 제3차 세계대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진작전은 공산군을 패배시켜 소련과 중공 간의 간격을 벌리고 소련 위성제국을 동요시켜 세계대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북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61]

하지만 휴전회담이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0일 '휴전수락 4대원칙'을 내세우며 유엔군과 공산군 측을 모두 압박하였다. 그는 중공군 철퇴, 북한군 무장해제, 유엔감시하의 북한지역 선거실시, 휴전회담의 시간적 제한 등 공산군 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한국이 원치 않는 휴전회담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 국군 수뇌부의 휴전에 대한 입장과 고민

휴전회담은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에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 주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군 작전의 통일과 편의를 위해 국군을 유엔군사령관 지휘 하에 들어가는 통수권 차원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과 함께 공산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이 한국의 국가이익과는 반대되는 휴전정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문제는 달라졌다. 이때 유엔군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하는 군 수뇌부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대대적으로 휴전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휴전회담 추진상황을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국군으로서는 휴전회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군 수뇌부는 휴전회담 초기 진행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휴전회담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인 김종면(金宗勉) 준장은 휴전회담 초기 군 수뇌부의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우리 육본이나 국방부는 휴전회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외신을 통해 군사정전회담이 열린다는 정도만 알았지 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로부터의 정식통보도 없었고 더구나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협상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외무부에 연락해 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깜깜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직접 당사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162]

유엔군 측 한국군 대표로 지명되어 휴전회담에 참석했던 백선엽 장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백선엽 장군은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의 한국군 대표로 휴전회담에 참가해야 되는 자신의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7월 6일에 이종찬 참모총장한테서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 대통령을 만나 뵈라는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때 국군 제1군단장으로 동부전선에서 춘계공세에 패배한 적에 대해 추격전을 지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엔군 측에서 나를 휴전회담 대표의 일원으로 지명해서 육본에 차출을 요청한 모양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 대통령을 뵈었더니 "지금 우리는 통일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데 유엔군 측에서 휴전회담을 한다고 당신을 대표로 보내달라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결사반대니까 알아서 잘해봐."라면서 상기된 표정을 지으십디다.
이것 큰일 났다는 생각에서 가슴이 두근거린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163]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정부가 표면적으로 휴전회담 자체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 입장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는 한국군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유엔군 측에서는 휴전회담에 대한 중요 정보가 한국 측에 사전에 누설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군 수뇌부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한국군 수뇌부도 휴전회담 진행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수뇌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얼마나 보안대책을 강구하였던지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도 휴전회담 진행상황에 대

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상황을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김종면 장군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7월 10일에 이기붕 국방부장관과 이종찬 육군 총참모장,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 김정렬 공군 참모총장을 모시고 장성환(張盛煥) 공군 대령이 조종하는 C-46수송기를 타고 대구로부터 서울로 올라왔어요. 유엔 측 휴전 대표로 선임된 백선엽(白善燁) 소장을 만나서 내용을 좀 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내리니 국방장관 일행이 타고 갈 차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익흥(李益興) 서울시경찰국장이 마중 나와서 미 고문관 차를 빌려 타고 시내로 들어갔지요. 점심을 먹고 곧장 미 제8군사령부로 밴플리트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백선엽 장군의 거처를 물었더니 그것은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휴전회담에 관한 소식이나 좀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도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요. 정말 기가 막힙디다.
> 우리 뒤에는 국내 기자들이 쫓아와 기다리고 있는데 미 제8군사령부에 와도 이 지경이니 앞일이 난감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밴플리트 장군도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휴전회담은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워싱턴 지시를 받고 직접 진행시켰고 미 제8군사령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으니 모를 수밖에요.[164]

국군 수뇌부가 휴전회담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의 대기 장소인 문산의 베이스캠프로 무작정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는 장면은 흡사 무슨 첩보영화를 보는 것 같다. 간신히 백선엽 장군을 만나 휴전회담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했으나 백선엽 장군도 휴전회담 자체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도 한국군 장성이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당시 정황에 대해 김종면 정보국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 아무튼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허탕을 치고 인사동으로 와서 어느 민가에 숙소를 정하고 여장을 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안 떠오르는데 한참 궁리 끝에 나 혼자 문산의 유엔군 휴전회담 대표단 숙소인 '베이스캠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

다. 이기붕 장관과 3군 총참모장에게 말씀드리고, 대북첩보부대(HID) 서울분실장 김동석(金東石) 소령에게 지프에 별판을 달아가지고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통제구역인 문산 베이스캠프를 향해 달렸습니다. 미군 헌병 보초들이 별판을 보고 그랬는지 베이스캠프로 달려가는 내 지프를 막지 않더군요. 베이스캠프에서 백선엽 장군을 만났더니 백장군은 나를 보자 아주 반가와 하면서 얼싸안아요. 나는 지금 서울에서 국방장관과 3군 총참모장이 휴전회담 진행상황을 알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지요.
백선엽 장군은 모든 일을 비밀로 붙이기로 되어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면서 "조이 수석대표와 상의해 볼 테니 내일 다시 올 수 없겠느냐?"고 해요. 백 장군의 표정에는 괴로운 입장이 완연합디다. 틈바구니에서 어지간히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165]

육군본부 정보국장인 김종면 장군은 베이스캠프를 장군의 신분을 이용하여 어렵게 방문한 후 그곳에서 백선엽 장군을 만나 그의 기지(奇智)로 휴전회담 진행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백선엽 장군은 조이 수석대표를 설득하여 공식 브리핑 형태로 휴전회담을 한국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군 수뇌부가 알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백선엽 장군에게 남다른 애국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종면 정보국장은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마치 소설의 한 대목을 연상하듯 증언하고 있다.

7월 11일에 다시 베이스캠프로 갔더니 이번에는 미군 대령이 회담 진행에 관한 브리핑을 해줍디다. 통역은 이수영 중령이 맡아 했어요. 아마 이것이 한국정부가 유엔군 측으로부터 휴전회담에 관해 받은 최초의 정식브리핑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수영 중령과 브리핑 내용을 번역해서 타이프를 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이기붕 장관과 3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하고는 국내 기자들에게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래서 7월 11일부터는 국내신문에 휴전회담에 관한 경과와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백 장군은 자신이 휴전회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수석대표를 설득해서 공식으로 브리핑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격으로 몹시 답답할 때 이렇게 대충이나마 휴전회담 내용을 알고 또한 보도채널을 확보하게 된 것은 백 장군의 주선(周旋)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매일 같이 베이스캠프에 들어가 휴전회담 진행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왔어요.[166]

휴전회담 대표로 참석했던 백선엽 장군에게는 휴전회담에 참석하면서부터 남다른 고민이 생겼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휴전회담 대표로 선정된 것도 곤란한 상황인데 휴전회담 대표가 되어 경무대로 인사하러 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막연히 “잘해봐!”라는 구두명령만 받았지 정식 서면으로 된 발령이나 신임장을 받지 못하였다.[167]

그러한 어정쩡한 입장에서 그는 7월 10일 휴전회담 본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조이 수석대표에게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고하였다. 백 장군은 첫날 회의 분위기를 보니 몹시 굴욕적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칫하다가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백장군의 회담 불참통보를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전화로 즉각 보고하였다. 다음날 리지웨이 장군이 문산(汶山)에 와서 백 장군을 불러 “ 잘 협조해 달라면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려 서면으로 된 신임장을 얻도록 하겠다.”고 하였다.[168]



평화촌 휴전회담 장소로 한국의 휴전회담 대표인 백선엽 장군을 방문한 이기붕 국방부장관 일행 (우로부터 백선엽 장군, 이기붕 장관, 김정렬 공군총참모장, 이수영 중령, 김종면 육본 정보국장)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즉각 이루어졌다. 7월 13일 이기붕 국방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신임장을 가지고 문산에 왔다. 이렇게 해서 백선엽 장군은 정상적으로 휴전회담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회담장에서 싸우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게 되었다.[169]

이렇듯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엔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 수뇌부는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에 있었다. 또한 유엔군 측 한국군 대표로 참석했던 백선엽 소장의 고충도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전회담은 한국정부의 반대와 전선에서의 전투와는 별도로 계속 진행되었다.

4. 국군의 편성과 전력 증강 노력

휴전회담을 전후하여 국군은 적의 공세에 대비해서 전선배치에 중점을 두었고, 이와 병행하여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 육군은 1개 군단(제1군단) 및 10개 보병사단이 있었다. 보병사단으로는 수도 사단을 비롯하여 제1·2·3·5·6·7·8·9·11사단이었다. 사단에는 105밀리 포병 1개 대대가 사단을 일반지원하고 있었다. 한국군 지상 전력은 북한군에 비해 열세였다.

한국정부는 1951년 4월부터 육군을 20개 사단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미국에 한국군 증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군 5월 공세에서 국군 제3군단의 붕괴와 해체로 인해 한국군 전투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특히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한국군 확장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25만 명을 선을 주장하였다.[170] 이는 1950년 10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한국군은 총병력 25만 명에 10개 사단을 한국 육군으로 인가해야 한다."고 워싱턴에 건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10개

사단이면 전후(戰後)의 치안과 침략을 격퇴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이와 같은 '한국군 10개 사단에 25만 명 병력'은 1950년 11월 초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171]

이후 한국정부는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자 휴전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육군의 증강을 다시 강조하였으나 미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의 확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현 10개 사단의 한국 육군을 적절히 훈련시켜 장비하고 지도하면 차후 공산군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추가적인 전비지출을 감당할 상황이 아니다.

셋째, 미국은 나토(NATO)의 군사적 소요에 대한 지원공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일본 자위대의 창설을 추진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172]

따라서 한국정부가 요청한 20개 사단에 대한 증강계획은 1952년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한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에 의해 1953년에 가서야 실현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미 극동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한국 육군의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155밀리 포병대대 3개 대대 창설을 지원하였다. 이때 창설된 155밀리 포병부대는 제99·98·97포병대대였다. 이들 부대는 1951년 9월 5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창설되었다.[173] 또한 10월 5일에는 한국 육군에 2개의 전차중대를 최초로 창설하기도 하였다. 이때 창설된 전차중대는 제51·52전차중대였다.[174]

한국 해군은 1950년 8월 16일 창설된 제1함대 체제를 휴전회담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해병대도 제1연대 및 제5대대 체제를 유지하며 동부전선과 김포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 공군은 1951년 8월 1일을 기하여 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한데 이어 정찰비행전대를 제2정찰비행전대로 개칭하였다. 특히 공군은 12월말까지 1개 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F-51 20대를 포함한 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병력도 5,406명으로 증원시키는 등 전력증강을 위해 노력하였다.[175]

특히 1951년 8월에는 공군의 발전의 발전을 위해 미 군사고문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비록 미국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고, 미 극동군 내에서 조치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이로 인해 전투능력의 향상을 기하게 되었다. 한국 공군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비롯하여 서해지구, 원산지구, 사리원(沙里院) 지구 작전 등에 독자적인 출격을 하게 된 것도 이에 기인하고 있었다.[176]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의 지시로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국군 모습.

특히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관 및 미 제8군사령관의 지휘관심과 배려로 한국군 장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군 장교를 미국 보병학교와 포병학교에 유학을 보내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150명의 한국군 보병장교와 100명의 포병장교가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24주간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177]

또한 한국군 장교 후보생에 대한 교육과정도 기존의 18주에서 24주로 늘려 장교양성 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은 한국의 군사교육기관에 보다 많은 미 군사고문관을 파견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군 사단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야전훈련소(FTC)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집중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178] 한국군 증강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휴전회담 개막 이후에 이루어졌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휴전회담의 배경과 의미

1) 정치적 배경과 의미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한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전쟁행위의 즉각 중지와 그 군대의 38도선이북으로의 철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남침하였다. 이것은 곧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한 국제평화의 파괴행위로서 유엔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북한 전역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소련은 뒤늦게 38도선에서의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안은 유엔에서 곧 부결되었다. 이와는 달리 유엔의 결의에 의해 유엔군이 한만국경으로 진출하게 되자 1950년 10월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되어 공산군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수차례에 걸친 휴전제의를 묵살하고 유엔군을 압박하였다.

이에 유엔 총회는 1951년 2월에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자유 세계국가들에게 침략자의 응징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중국은 유엔의 결의를 거부하는 대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당시의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중국의 유엔가입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유엔군과 국군의 효과적인 저지로 37도선에서 더 이상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공격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이후 중공군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재 반격에 의해서 철수함으로써 3월 말에 양측은 대략 38도선에서 전선을 형성하게 되

었다. 전장의 주도권을 상실한 중공군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1951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 공세를 단행하였다. 중공군은 4월에 서부전선에 주공을 지향시켜 서울 점령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5월에 다시 중동부전선에서 대공세를 취하였으나 유엔군에게 저지·격멸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무리한 공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공군은 전투력을 상실함으로써 상당 기간에 걸친 전투력의 정비 없이는 방어 작전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공산군 측은 한국전쟁에서 군사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급기야는 미국과 유엔의 요구에 응하는 형식으로 휴전협상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

2) 군사적 배경과 의의

휴전회담은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공군은 1951년 4월과 5월에 대공세를 전개하였으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중공군은 이 공세를 통해 유엔군을 서울 이남으로 구축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공산군이 이 공세에 동원한 병력은 중공군이 60여만 명에 이르렀고, 북한군도 7개 사단을 투입하였다.

중공군은 인해전술을 전개하여 유엔군 전선을 돌파하였으나 돌파구 확장에 실패하였다. 여기에는 중공군의 작전지속능력과 보급능력이 문제로 작용하였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화력 및 기동력에 의해 더 이상의 돌파구를 확장하지 못하고 중지하게 되었다. 기동력이 떨어진 중공군은 4-5일 간의 작전을 위해 보통 1주일 이상 보급준비를 해야 하였다. 중공군은 공세를 취한 후 4-5일만 지나면 다시 싸울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중공군의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중공군이 단행한 1951년 4월과 5월의 대공세였다. 중공군은 공세 초기에는 무서운 기세로 유엔군을 압박하였으나 승세를 타지 못하고 전투력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유엔군에 의해 강요된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공군은 이들 공세를 통해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막을 수 없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저지한 것은 결국 유엔군의 화력이었다. 인해와 화력의 대결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엔군은 지상포·공군·함포 등 삼위일체의 화망으로 적의 인해전술을 막아냈다.

중공군의 춘계공세 실패는 전쟁을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게 만들었다. 공세의 실패로 인한 군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공산군의 입장을 대리하여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는 1951년 6월 23일에 자유세계에 휴전회담을 제의하게 되었다. 이는 전쟁에서의 군사적 한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2. 휴전회담과 고지쟁탈전의 배경과 의미

휴전회담은 설전(舌戰)과 혈전(血戰)이라는 새로운 전쟁양상을 가져왔다. 휴전회담을 통해 양측은 서로 당면문제 해결 또는 휴전 후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일면 협상 또는 일면 전투'를 병행하였다. 양측은 자신들의 휴전회담 전략에 따라 회담 중지와 전선에서의 전투를 적절히 구사하며 상대방을 회유 또는 압박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도 휴전회담 개최를 위한 성의 표시로서 7월 1일 유엔군 산하의 각 부대에 현 지점에서의 정지명령을 내렸다. 유엔군과 국군은 공산군이 전력을 잃고 쇠잔한 이때 북으로 진격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명령에 따라 북진하지 않았다. 반면 공산군은 휴전회담을 통해 전력증강을 도모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정비를 하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이후 공산군은 전선 각처에서 고지탈환을 위한 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휴전회담 기간 동안 공산군은 표면상으로는 휴전회담에 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병력과 군수품을 계속 전선에 집결시키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들은 이 기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전력을 정비하고 전투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전선에서는 유엔군의 포격 및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동굴진지를 비롯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유엔군은 38도선 이남을 확보하되 청천강-원산 선 이북으로의 진격이 제한되는 공격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제한된 공격작전을 통해 남쪽으로 쳐진 전선의 만곡부를 없애고 전후 유리한 방어진지를 획득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원산상륙이 포함된 대규모 공세작전은 계획단계에서 모두 취소되었다. 따라서 전선은 캔자스-와이오밍 선을 확보에 유리한 고지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다. 유엔군의 이러한 제한전쟁은 결과적으로는 6·25전쟁을 2년간이나 더 연장시켰고 전투는 제한된 지역에서 전개되는 진지전 및 고지쟁탈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휴전회담장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전선에서는 피를 흘리는 전투가 연일 벌어졌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양측은 서로 물고 물리는 혈투를 벌였다. 군사분계선이 휴전협정 조인 당시의 접촉선으로 확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양측은 휴전 후 보다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얻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3. 양측의 전쟁지도와 전쟁수행체계

1)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와 전쟁수행체계

1951년 7월 휴전회담이후부터 12월 말까지 공산군 측 전쟁지도부는 소련의 스탈린을 정점으로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그 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북한에서는 1950년 12월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쟁의 전반적인 지도는 여전히 소련의 스탈린이 마오쩌둥과 김일성과 협의를 한 후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사안에 따라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에게 직접 전문을 통해 전쟁을 지도하는가 하면 북한과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대사를 통해 전쟁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휴전협상에 따른 공산군의 전쟁수행체계를 보면 소련의 스탈린은 자문형식을 취하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김일성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휴전협상 진행과정에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뿐이었다.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휴전회담 관련 상황을 협의하였고 마오쩌둥은 이를 원문 그대로 스탈린에게 보고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시할 때도 있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의견이 있으면 스탈린에게 이를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때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견해에 주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보고이외에도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예프로부터 한국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판단하에 지시를 내렸다. 마오쩌둥도 주요 사안마다 스탈린에게 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스탈린은 직접 또는 해당국 주재의 소련대사를 통해 이를 전달하였다.

2) 유엔 및 미국의 전쟁지도와 전쟁수행체계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과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유엔사무총장에는 전쟁 첫 소식을 보고받고 이를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갈했던 트리그브 리(Trygve Lie)였다. 미국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었다.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1945년 대통령 취임 이후 6년째로서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과 책임을 함께 지고 있었다. 그는 6·25이후 유엔으로부터 유엔군사령부의 구성과 이의 운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한국전역에서의 모든 전쟁사항을 지도하고 있었다.

6·25전쟁을 수행하고 지도하는 미국의 전쟁지도부 및 군사지휘부의 구성원으로는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는 애치슨(Dean G. Acheson)이 있었

다. 전쟁수행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며 유엔군사령부에 전략지시를 내리는 국방장관에는 제2차세계대전시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마셜 원수가 휴전회담 기간 중인 1951년 9월 사직하고 후임에는 국방차관으로 재직하던 러베트가 임명되었다. 국방장관 밑에는 각 군 장관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육군장관에는 페이스, 해군장관에는 매튜, 공군장관에는 핀레터가 있었다.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합참의장에는 브래들리 원수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며 전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인 육군참모총장에는 콜린스 대장, 해군참모총장에는 셔먼 제독이 1951년 7월 22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그 후임에 페치텔러 대장이 휴전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공군참모총장에는 반데버그 대장이 전쟁 발발 이전부터 콜린스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합동참모회의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장관이 내린 전략지침과 명령을 해당 전구의 통합군사령관에게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전구에 대한 작전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유엔군사령부 및 미 극동군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전쟁정책과 전략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유엔군사령부와 극동군사령부가 작전수행 간 순수한 작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이 검토를 한 후에 이를 합동참모회의에 넘겨 처리하였다. 만약 군사적인 문제를 벗어날 경우에는 관련 행정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참모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경우에 따라 미국의 전쟁정책은 유엔을 통해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유엔의 전쟁지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쟁수행 체계는 전쟁 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3) 한국의 전쟁지도와 전쟁수행체계

휴전회담이 개시될 무렵 한국 전쟁지도부 및 군사지휘부는 국군통수권자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부통령에 김성수, 국방부장관에 이기붕, 국방부차관에 김일환, 육군총참모장에 이종찬 소장, 해군총참모장에 손원일 소장, 공군총참모장에 김정렬 소장이었다. 그리고 제1군단장은 백선엽 육군소장이 있었다. 휴전회담 기

간 중에는 국군은 제1군단만 있었다.

한국의 전쟁지도부는 미국 및 유엔과 상호 협조체제 하에서 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물론 전쟁수행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점령지역에 대한 관할 책임권을 놓고 미국 및 유엔과 한국정부 간에 이견이 대립되었으나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 나갔다. 군사작전에 있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유엔군에 의해 한반도 작전이 가시화되자 대한민국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이후 한국군은 유엔군의 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상대역은 주한미국대사였으나, 군사적으로는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었다. 주한미국대사는 외교정책에 관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협의하였고,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8군사령관이 상대역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지상군(육군·해병대)은 미 지상구성군사령부 격인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그리고 공군은 미 제5공군사령관 및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았다. 한국군과 미군 및 유엔군 간의 이러한 전쟁수행체계는 전쟁 기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보였다.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휴전을 적극 추진한데 반해, 우리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자 국군으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국군통수권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의 반대 속에 유엔군 측 한국 휴전회담 대표로 참석하게 된 장성들은 난처한 입장에서 휴전회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군 수뇌부도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에 대한 철저한 비밀과 통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휴전회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집필 : 남정옥)

주(註)

1)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p.129-132.

2) 로버트 T. 올리버 저, 박일영 역,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이승만과 한미관계』, 계명사, 1990, 435쪽.

3)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1953, A64-A65쪽.

4)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A59-A61쪽;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220-224.

5)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A66쪽.

6) Thomas G. Paterson, J. Garry Clifford, and Kenneth J. Hagan,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1900 to Present* (Lexington, Massachusetts Toronto: D. C. Heath and Company, 1988), p.48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사 연표, 1945-1990』, 1994, 106-107쪽;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2002, 574쪽.

7) Memo for General Bradley, General Vandenberg, and Admiral Sherman by General Collins, sub.; Military Effectiveness and Desirability of Employing Atomic Weapons Tactically in Korea, July 2, 1951, RG218, CCS 383.21 Korea(3-19-45), sec., 51, NA; Message to Commander-in-Chief, the Far East Command, and Commanding General, Strategic Air Command, Commander-in-Chief, the Pacific, Selected Records Relating to the Korean War, DoD, Truman Papers, truman Library;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963쪽에서 재인용.

8) James F. Schnabel, *U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70), p.405.

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 세경사, 1991, 170-171쪽.

10) "Memorandum of Conversation in Development of State by D. Rusk"(Feb. 6, 1951), in FRUS, 1951(Washington D.C.: GPO, 1983), Vol. Ⅶ, Part 1, p.155.

11)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7, 941쪽.

12)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p.187;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400.

13)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401-402.

1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One(이하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One으로 통일)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217.

1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One, p.218.

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이하 *FRUS*로 통일), 1951, Vol. Ⅶ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p.456.

17)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 170쪽.

1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

史』, 169쪽.

1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 164-167쪽.

20)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 172쪽.

21)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 172-173쪽.

22)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944쪽.

23) 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이하 소련극비외교문서로 약칭), 4권, 116, 120쪽;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944-945쪽.

24)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942쪽.

25) *FRUS*, 1951, Vol.Ⅶ, Part 1, p.406; Thomas G. Paterson, J. Garry Clifford, and Kenneth J. Hagan, *American Foreign Policy*, p.480.

26)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942쪽.

27) *FRUS*, 1951, Vol.Ⅶ, Part 1, p.484.

28) *FRUS*, 1951, Vol.Ⅶ, Part 1, pp.537-538; George F. Kennan, *Memoirs, Ⅱ, 1950-63* (Boston, T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2), pp.36-37;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London: W. W. norton & Company, 1969), pp.532-533.

29) "Mr. Malik's Speech," in *FRUS*, 1951, Vol.Ⅶ, Part 1, pp.546-5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22-23쪽.

30) *FRUS*, 1951, Vol.Ⅶ, Part 1, pp.553-554, 560.

31) *FRUS*, 1951, Vol.Ⅶ, Part 1, pp.553-5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3-24쪽.

32)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A33쪽.

33)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A33쪽.

34)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A45-A46쪽.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1쪽.

36) 대한민국 공보처,『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953, 49-51쪽.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25-27쪽.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8쪽.

39)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 214.

40)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214-215.

41)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15.

42)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15.

43) 동아일보사,『비화 제1공화국』제2권, 홍우출판사, pp. 233-234. 윤익헌(징역 3년 6개월), 강석한(4개월), 김희(파면), 장희두(파면), 박기운(파면), 노용식(파면), 제15교육대 박철(6개월), 이성경(파면), 제27교육대 임병언(3년), 김사연(파면), 송재동(파면), 심언국(파면), 송재동(파면), 정원래(파면), 홍종명

(무죄), 이성순(파면), 김종철(무죄).

44)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 천일』 상, 1984, 203쪽.

45) 김세중, 「국민방위군 사건」, 97쪽.

46) 1951년 7월 5일 제2차 국민방위군 사건을 맡은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대구 동인국민학교)의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 육군 준장 심언봉(병기감), 법무사 육군 대령 계철순, 심판관 육군 준장 김형일(군수국장), 심판관 육군 준장 정진완, 심판관 육군 준장 안춘생(감찰감), 심판관 육군 대령 이용문, 심판관 육군 대령 박병권, 검찰관 육군 중령 김태청, 검찰관 육군 소령 김동섭. 검찰관 육군 대위 양태동, 검찰관 검사 윤기구, 검찰관 검사 서병균, 변호인 육군 소령 조승각, 관할관은 당시 육군총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종찬이다.

47) 현재 확인된 재심 군법회의 관련 문서는 2건이다. 육군본부 법무감실 소장, 「피고인 김윤근 등의 국민방위군사건 판결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National Defense Corps Trial」,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59, 2001. 795-800쪽. 전자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비상사태하 법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사건"이라는 죄목으로 된 5쪽짜리 판결문이다. 후자는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에 관한 내용을 1951년 9월 5일부로 주한미대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보고한 내용이다.

48) 당시 지명은 경북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벌리산 골짜기이고, 현재는 대구광역시 남구 송현동 벌리산이다.

49) 『동아일보』, 1951. 8. 13.

50) 국방부, 『국방사』 2, 1987, 34-35쪽.

51)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82-102.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83쪽.

53) 백선엽, 『군과 나』, 1989, 대륙연구소출판부, 221쪽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84쪽.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43쪽.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43쪽.

57)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3호(1951.11.25.)

58)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82.

59)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182-183.

60) 외무부 역, 『한국전쟁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3-146쪽;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269-306쪽.

6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569-572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 抗美援朝戰史』, 세경사, 1991, 348-353쪽.

6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 抗美援朝戰史』, 348-353쪽.

63)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87쪽.

64)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304쪽.

65) 소련군 참모본부 제2총국 제21412호 암호전보(1951. 7. 13);「마오쩌둥이 펑더화이·고강·김일성에게 보낸 전문(1951. 7. 3)」,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87-289쪽.

66)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71쪽.

67)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79-280쪽.

68) 「마오쩌둥이 펑더화이·고강·김일성에게 보낸 전문(1951. 7. 3)」,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88쪽.

69)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75쪽.

70) 소련군 참모본부 제2총국 제4757호 암호전보(1951. 8. 17);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89쪽.

7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항미원조전사』, 172쪽.

7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항미원조전사』, 172-173쪽.

7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항미원조전사』, 173-175쪽.

74) 유엔군은 공산군의 엄체호를 8인치포로 파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7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 179쪽, 348-353쪽;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정기정보보고』 4권,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5, pp.429-430. 중공군 편성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 북한군은 『한국전쟁사료 정기정보보고』를 참조하였다.

7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 169쪽. 미국 공간사(*Truce Tent Fighting Front*)에는 중공군 248,100명, 북한군 211,100명으로 기술하고 있고, 「정기정보보고」(1951.7.1.)에도 중공군 231,950명, 북한군 226,803명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중공군의 공간사(『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의 기록을 참조하였다.

7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 174, 179쪽,

7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 부도 12.

7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항미원조전사』, 179쪽.

8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8쪽.

81) 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4권, 116쪽.

82) 외무부, 『소련극비외교문서』, 4권, 118쪽.

83) 외무부, 『소련극비외교문서』, 4권, 118, 123쪽.

84)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77쪽.

85)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90쪽.

86)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90쪽.

87)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93-294쪽.

88)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296-297쪽.

89) 6·25전쟁 발발 이후 유엔과 미국의 최초 전쟁목표는 '전쟁이전상태의 회복'이었으나,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에는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통일한국 정책, 즉 '통한정책(統韓政策)'이었다. 그러나 중공군 개입 이후 및 1951년 중공군 춘계공세 이후에는 당면정책으로 '명예로운 휴전정책'을 취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정책'을 추구하였다.

90) 남정옥,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학술정보, 2010, 53쪽.

91) 남정옥,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54쪽.

92) 남정옥,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60쪽.

93)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53.

94) 남정옥, 『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61쪽.

95)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55.

9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One, p.217.

9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One, p.218.

9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One, p.218.

9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One(이하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One으로 통일)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5.

10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35-36.

101) US Memorandum, JCS to Secretary of Defense, “United States Courses of Action in Korea,” 13 Jul 1951, (der from JCS 1776/240), CCS 383.21 Korea(3-19-45) Sec 53.

102) Memo, Secretary of Defense to President, 18 Jul 1951, same file, Sec 54.

10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6.

104) (TS) Dept of State, WTM T-10, "Washington Foreign Ministers' Meeting, Tripartite and British Talks, UN Action in Korea in Case of an Armistice," 18 Aug 1951, Encl B to JCS 1776/247, 29 Aug 1951, CCS 383.21 Korea(3-19-45) Sec 61; (TS) Dept of State, WTM T-10-1, "Washington Foreign Ministers' Meetin g…UN Action in Korea in Case of an Armistice," 18 Aug 1951, Encl B to JCS 1776/246, 247, 27 Aug 1951, CCS 383.21 Korea(3-19-45) sec 60.

10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6.

10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6.

107) JCS 1776/249, 7 September 1951.

10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7.

10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7.

11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7.

11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38-39.

11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9.

11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39-40.

11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40.

11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40.

11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40-41.

11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41.

11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9.
119) US Message, CINCFE 65529 to JCS, 22 Jun 1951.
120) US Message, JCS 95977 to CINCFE, 10 Jul 1951.
12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7.
12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0.
123) 정일권,『정일권 회고록』, 402쪽.
12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80-81.
125)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402-403쪽.
12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05-106.
12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1.
12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81.
129) EUSK., Command Report, July 1951, pp.69, 81.
13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99-100쪽.
131) EUSK., Command Report, July 1951, p.72.
13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01쪽.
133) EUSAK, Command Report, August, 1951, pp.62-66.
134) EUSAK, Command Report, August, 1951, pp.79-80.
135) EUSAK, Command Report, August, 1951, pp.47-48.
136) EUSAK,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4.
13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97-99.
13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98-103, 226
13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02-103.
14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92-94, 96-97.
14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75-176.
142) EUSAK, Command Report, November, 1951, pp.4-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75-176.
14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5쪽.
144) EUSA,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983, p.82.
14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7-8쪽.
14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8쪽.
147) EUSK., Command Report, July 1951, p.64.
148) EUSK., Command Report, July 1951, p.64; Robert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p.180.
149) Robert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p.181.
15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209-210.
151) EUSK., Command Report, July 1951, p.64.

152) 국방군사연구소,『국방사연표, 1945-1990』, 101-103쪽.
153) 국방군사연구소,『국방사연표, 1945-1990』, 749-756쪽.
154)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193쪽.
1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28쪽.
1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28-30쪽.
157) 육군본부, 『판문점』상, 1972, 40쪽.
1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0쪽.
1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0-31쪽; 육군본부, 『판문점』상, 1972, 43-44쪽.
160) *FRUS*, 1951, Vol.Ⅶ, Part 1, pp.694-695.
161) 육군본부, 『판문점』상, 127-128쪽.
162)「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김종면 장군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1987, 222쪽.
163) 「당시 유엔군측 한국군 대표 백선엽 소장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223쪽.
164)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김종면 장군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222쪽.
165)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김종면 장군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222쪽.
166)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장 김종면 장군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223쪽.
167) 「당시 유엔군측 한국군 대표 백선엽 소장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223쪽.
168) 「당시 유엔군측 한국군 대표 백선엽 소장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224쪽.
169) 「당시 유엔군측 한국군 대표 백선엽 소장 증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 종군기자』2, 224쪽.
170) 국방부,『국방사』2, 1987, 335쪽.
17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62-63.
17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210-211.
173) 국방부,『국방사』2, 1987, 340쪽.
174) 국방부,『국방사』2, 343쪽.
175) 국방부,『국방사』2, 384-385쪽..
176) 국방부, 『한국전란2년지』, A57쪽.
17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63.
17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65-66.



제 3 장 휴전회담 개시와 협상의 난항

제 1 절	양측의 휴전협상 방침과 회담의제 채택
제 2 절	군사분계선 협상과 기조인
제 3 절	정전 및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의
제 4 절	전쟁포로에 관한 협상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양측의 휴전협상 방침과 회담의제 채택

1. 양측의 휴전협상 방침과 전략

1) 유엔군 측의 휴전협상 기본방침

휴전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는 소련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Jacob Malik)가 1951년 6월 23일 유엔이 후원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평화의 가치(Price of Peace)'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한국전쟁(the Korean War)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휴전협상을 언급하면서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1] 즉, 그는 방송연설에서 "소련 인민은 한국에서의 무력충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교전국은 38도선으로부터 상호 군대의 철수를 가능하게 할 '정전(cease-fire)과 휴전(armistice)'[2]에 목표를 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3]

최초 말리크의 연설을 들은 미국 정부는 그 발언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목표로서 '전쟁이전 상태'에서 휴전을 함으로써 평화를 회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련과의 막후 접촉을 통해 그들의 의도를 타진하고 있었다. 이때 말리크의 휴전협상 제의가 발표되자 미국으로서는 말리크의 연설 내용이 소련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소련의 진의는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소련주재 미국대사 커크(Alan G. Kirk)에게 소련 정부와 접촉하여 이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4]

주소 미국대사 커크는 1951년 6월 27일에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Andrei A. Gromyko)를 방문하여 말리크가 소련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커크 대사와의 회동에서 그로미코 차관은 “전쟁 교전당사국의 군사대표가 군사문제에 국한하여 휴전을 결행해야 할 것이며, 정치나 영토적인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정전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5] 또한 그로미코 차관은 ‘정전과 휴전’의 차이점을 묻는 커크 대사의 질문에 “정전은 잠정적 군사휴전의 일부이며, 휴전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휴전에 관한 잠정적 협정은 군사적 문제에 국한해야 하며 정치 및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6]

이를 통해 미국은 말리크의 연설 내용이 소련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한데 이어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소련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미 국무부는 회담을 군사적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유엔대사들도 한 결 같이 협상에 찬성하였다.[7]

한편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1951년 6월 1일에 “대략 38도선에 연한 휴전은 만일 그것이 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과 7월의 결의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8]

말리크의 연설이 소련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분위기와 소련의 의도를 고려하여 군사적 수준에서 회담을 갖기로 하고,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사령관에게 휴전회담을 제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다.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낼 휴전회담 제의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담긴 내용이 미 합동참모본부 국장 데이비스(Arthur C. Davis) 제독과 국무부의 존슨(U. Alexis Johnson)에 의해 작성되어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 승인을 거쳐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1951년 6월 29일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에게 보내졌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이를 1951년 6월 30일 08시에 라디오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9]

> 공산군사령관에게
> 유엔군사령관으로서 나는 다음 사항을 귀하에게 전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나는 귀하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모든 무력행동을 중지하게 할 휴전(armistice)에 대한

토의를 하고 이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장을 하기 위하여 회담을 원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한 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귀하로부터 접수하는 대로 우리 측 대표를 지명할 준비를 할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 대표가 귀측의 대표와 만날 수 있는 날짜도 제의할 것이다. 나는 그러한 회의가 원산항에 정박 중인 덴마크병원선(Danish hospital ship)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제의한다.[10]
유엔군사령관 미 육군대장 M. B. 리지웨이

한편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는 6월 29일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회담 제의를 지시하면서 공산군 측과의 회담을 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지침(general policy)'을 작성하여 하달하였다. 일반지침은 먼저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마셜(George C. Marshall) 국방장관·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의장의 검토를 거쳐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6월 29일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하달되었다.[11]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리지웨이 장군에게 하달된 휴전협상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과 같다.

휴전협상 일반지침(General Policy)

a. 이 휴전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관심은 NSC48/5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적대행위의 중지(a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an assurance against the resumption of fighting),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 확보(the protection of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forces)에 있다.
b. 우리는 소련과 중공(Communist China)이 합리적이며 수락할 수 있는 휴전준비(armistice arrangements)에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한국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럼으로 휴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c. 귀관과 '공산군사령관(commander of opposing forces)'과의 협상은 군사적 문제

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귀관은 특히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 관한 토의나, 유엔에서의 타이완 및 중국의 의석(seat)과 같이 한국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정부차원(government level)에서 다루어져야 한다.[12]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하달된 휴전회담에 관한 일반지침은 미국 워싱턴에서 몇 개월에 거쳐 조심스럽게 발전시켜 온 것이었다. 특히 일반지침은 향후 2년 동안 휴전회담을 함에 있어 유엔군사령관이 준수해야 될 기본방침의 근간(根幹) 역할을 하였다.[13]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이 관철해야 될 '최저 기본입장(the minimum United States position)'을 하달하였다.[14] 이것은 일반지침과 함께 유엔군 측 대표단이 준수해야 할 휴전협상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휴전협상 최저 기본입장(the minimum United States position)

a.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에 엄격히 국한되어야 하고 어떤 정치나 영토적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b. 다른 협정에 의해 대치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c. 관계되는 지휘관들에게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모든 군사작전을 중지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모든 지상군은 진지에 잔류하든가 혹은 후방지역으로 철수하도록 요구하되, 비무장지대 전방에 있는 부대는 반드시 그 후방지역 진지로 이동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 유엔군사령관과 공산군사령관에 의해 임명된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가 휴전협정 조항의 시행과 준수에 관한 감시를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 위원회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감시소조(teams of observers)는 자유롭고 제한 없이 한반도 모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가능한 지원과 협력이 주어져야 한다.
e. 관계 지휘관들에게 휴전 기간 중 공중, 지상 또는 해상 부대나 인원의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사력의 한국으로의 도입을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1:1

기준(a man-for-man basis)'으로 부대나 개인의 교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 관계 지휘관들에게 휴전이 발효될 당시에 한국에 있는 전쟁 장비와 물자의 수준을 증강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장비와 물자는 건강과 복지유지에 필요한 보급품과 그 위원회에 의거 인가될 수도 있는 보급품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또 그러한 보급품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차량, 선박, 항공기도 포함하지 않는다.[15]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협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specific details)'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휴전협상 세부지침(specific details)

a. 군사정전위원회는 게릴라를 포함하여 모든 군대가 휴전조항, 조건 및 세부사항을 합의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유엔군사령관과 공산군사령관에 의해 지명된 동수의 유능한 보좌역을 가지되, 그 수는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b. 휴전협정은 그 위원회가 조직되고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된 후에 발효되어야 한다.

c. 비무장지대는 20마일 폭은 되어야 하며 이는 휴전협정이 합의될 당시의 쌍방의 진지에 기초를 두고, 유엔군사령관과 공산군사령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협상 목적으로 귀관은 최초 공산군이 모든 전선에서 20마일 또는 그 이상 철수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한다. 만일, 거래 목적상 유엔군도 어느 정도의 철수에 동의해야 함이 필요하다면, 귀관은 현재의 강력한 진지와 임무 수행능력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리고 귀관은 다만 휴전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옹진과 연안반도가 계속 공산군 측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에 동의해도 좋다.

d. 휴전협정은 한국의 모든 적대적인 지상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통제 하의 지역을 존중해야 한다.

e. 휴전협정은 모든 적대적인 해군부대에 적용되어야 한다. 해군 부대들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연안으로부터 3마일까지의 육상지역을 존중해야 한다.

f. 휴전협정은 모든 적대적인 공군부대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비무장지대 상공과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 상공의 공역을 존중해야 한다.

g. 군사정전위원회에 의거 승인된 특수임무에 필요한 차량, 해군 단위부대 및 항공기는 상기 d항, e항 및 f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h. 전쟁포로는'1:1 기준(a one-for-one basis)'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포로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제적십자의 대표는 모든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허가되어야 한다.

i. 게릴라를 포함하여 최초 비무장지대 전방에 있는 '조직된 단체(organized bodies)'들은 후방으로 이동하거나 그들의 '본대 지역(area of their own main forces)'로 철수해야 한다.[16]

이와 같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하달한 미국의 휴전협상에 대한 기본방침 및 세부지침들을 종합하여 볼 때 휴전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휴전의 근본목적은 적대행위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유엔군의 안전확보이다.

둘째, 휴전협상은 정치적 문제를 제외한 한국에서의 전쟁해결과 관련된 순수한 군사적 문제로 국한한다.

셋째,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와 이 지역에서의 모든 부대 철수, 한국에서 군사력 증강금지, 휴전협정 준수를 감시할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넷째, 전쟁포로는 1:1 원칙에 의해 교환한다.

다섯째, 비록 휴전목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하였지만 옹진반도와 연안지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협상시작단계에서부터 서부전선의 옹진반도와 연안지역을 포기할 생각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휴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휘해야 될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은 대단히 어려움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이 제시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마저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담을 파기해서는 안 되며, 유엔군사령부의 신의를 의문시하게 되는 국제적 여론을 유발하게 될 속임수를 쓰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도 전달하였다.[17]

2) 공산군 측의 휴전협상 기본전략

유엔군 측이 휴전방침을 구체화하고 휴전회담을 제의할 무렵 공산군 측에서는 휴전협상을 위한 전략수립에 분주하였다. 이는 공산군 측이 1951년 6월 30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휴전회담 제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다. 그 당시 북한과 소련 및 중공은 휴전회담을 진행할 것과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하고 철군한다는 것 이외에는 휴전회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였다.

즉, 공산군 측은 휴전협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협상 장소는 어디로 정할 것인지,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휴전 내용과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협상을 위한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구체적 논의와 이에 대한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제일 답답한 것은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1951년 6월 29일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 전문을 보내 자문을 구하였다. 즉, 그는 6월 28일 워싱턴 발로 보도된 "리지웨이 장군이 미 국방부의 명령을 받는 즉시 북한군 지도자들과의 회담에 들어갈 것이며, 이에 관한 통보는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UPI 통신의 발표를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만일 리지웨이가 회담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스탈린에게 요청하였다.[18]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이 보낸 전문을 중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돌려보냈다.

김일성의 통보대로 다음날인 6월 30일에 리지웨이 장군이 휴전회담을 제의하자, 마오쩌둥(毛澤東)은 6월 30일 15시에 스탈린에게 휴전회담 개시일을 7월 15일, 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통보하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김일성에게 직접 휴전협상에 관한 지침을 내려 줄 것을 바라는 전문을 보냈다.

필리포프 동지에게
휴전에 관한 귀하의 전문을 받았습니다. 적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오늘 군사행동 중지에 대한 회담을 위하여 원산항에 있는 덴마크 함정에서 양측 대표들이 만나자

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군사행동이 중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귀하께 알려 드립니다. 이를 검토하여 회신을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김일성 동지에게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일성 동지는 7월 2일 또는 3일에는 리지웨이에게 회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신에서 그는 군사행동중지에 대한 양측 대표간의 회담진행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회담시간, 장소 및 참석자 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협상장소로 리지웨이는 원산 항구를 제시했습니다. 원산이 요새화된 북한 해군기지이고 적이 그곳에 상륙작전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원산에서의 협상에 동의하는 것은 불리할 것 같습니다.38도 선상에 있는 해주에서의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지요?
3. 협상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 측 대표들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함으로 협상개시 일을 7월 15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4.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하가 직접 김일성 동지와 연락하면서 개별적으로 회담에 관한 지침을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본인에게도 그에 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9]

- 1951. 6. 30. 마오쩌둥 -

마오쩌둥의 전문을 접수한 스탈린은 같은 날인 6월 30일에 북경 주재 소련군사고문단장 크라소프스키를 통해 “회담은 마오쩌둥이 주도할 것이며 김일성에게도 마오쩌둥이 직접 연락하라. 소련은 다만 조언을 하겠다.”는 내용의 전문을 마오쩌둥에게 보냈다. 또한 스탈린은 이 전문에서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낼 전문내용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냈다.

북경 크라스프스키에게, 마오쩌둥에게 전달 바람

휴전에 관한 귀하의 전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양측 대표가 만나 휴전협상을 하자는 리지웨이의 제안에 대해 즉시 라디오를 통해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보는 북한인민군사령관과 중국의용군사령관, 즉 김일성 동지와 펑더화이 동지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공의용군사령관의 서명이 없을 경우, 미국은 북한 측만의 서명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산지역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을 회담 장소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반대하여야 합니다. 회담이 38도 선상의 개성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가 휴전문제를 주도할 수 있으며 미국은 회담 장소에 대하여 양보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지웨이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회신하기 바랍니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휴전에 관해 6월 28일자 귀하의 성명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는 군사행동 중지와 휴전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귀측의 대표들과 만나는 데에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협상 장소로 개성을 제시합니다. 귀측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측 대표들은 귀측의 대표들과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회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공의용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

귀하는 귀하의 전문에서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휴전협상을 지도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필요한 일입니다. 지도는 귀하, 즉 마오쩌둥 동지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개별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김일성과 직접적인 연락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은 귀하가 취하시기 바랍니다.[20]

- 1951. 6. 30 필리포프[스탈린] -

다음날인 7월 1일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자신의 휴전회담 대표단 임명안과 대표단장이 회담에서 언급할 휴전조건에 관하여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을 통해 이를 통고하고, 이에 대한 스탈린의 조언을 구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송하였다.

쉬테멘코 동지에게
보고드림.

1. 협상을 위한 회담에 관해 보내어질 김일성의 회신문안을 외무성을 통해 받았음. 회신은 1951년 7월 2일 또는 3일에 송부되어야 할 것 같음. 모스크바의

긴급동의가 필요함.

2. 북한 측 대표는 인민군 총참모장 남일, 외무성 차관 박정주와 중국의용군 대표 등 3명으로 구성되었음
3. 남일은 하기 사항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됨.
   a. 전투행위와 사격 중지 시간
   b. 군대의 38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5-10km이상 철수
   c. 사격 중지와 동시에 38도 선상의 항공기 비행 중지
   d. 한국지역으로부터의 해군 철수와 봉쇄 해제
   e. 한국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두 달 동안에 실시
   f. 전쟁 포로 교환 및 피랍된 시민의 귀환

김일성 동지는 필리포프 동지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음. 지시바람.[21]

- 1951. 7. 1 라주바예프 -

이의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7월 2일 전문을 통해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예프에게 “김일성의 제안에 대해 마오쩌둥이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김일성에게 북한정부는 중국정부와 논의하여 중국과 합동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22]

이에 마오쩌둥은 7월 3일 중국 측의 휴전협상전략 기본원칙을 스탈린에게 보내며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때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보고함.

1. 쌍방이 동시에 전투중지 명령을 내릴 것
2. 쌍방 병력은 38도선을 따라 10마일씩 밖으로 철수할 것. 38도선 기준 10마일 이내에는 완충지대 설치.
3. 쌍방은 조선외부로부터 무기 및 병력을 반입을 통한 무력증강 행위를 중지할 것.
4.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
5. 전쟁포로송환 : 적들은 일대일 교환을 제의할 것이나 우리는 모든 포로의 일괄교환을 고수해야 함. 그러나 적은 북한군 포로 숫자가 우리보다 많음. 북한 포로 중에는 한국군 출신 포로도 포함되어 있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큼.

그 밖의 몇 가지 문제 :

1. 모든 외국 군대는 일정한 기한 내(예를 들어 3-4개월 내)에 철수.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2. 피난민들을 수개월내 원래의 거주지로 귀환조치.[23]

마오쩌둥의 전문을 접한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제기한 전투행위 중지와 38도선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먼저 제기하지 말고, 만약 미국 측이 먼저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면 유엔은 전쟁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대신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포로송환 문제, 외국군 철수 및 피난민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지시하는 전문을 보냈다.[24]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제시한 협상의 기본 틀을 수용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마오쩌둥의 휴전협상 안에 대해 스탈린이 지시한 휴전협상에 대한 내용들은 향후 공산군 측의 휴전협상 기본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공산군 측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및 김일성 간 전문교환을 통해 휴전회담 전략에 대해 합의를 본 다음, 7월 1일 북경방송을 통해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의 휴전제의를 수락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평화회담에 관한 6월 30일자 귀하의 성명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는 군사행동 중지와 평화회담을 위하여 귀측의 대표들과 만나는데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협상 장소로서 38도 선상의 개성을 제시합니다. 귀측이 동의한다면 우리 측 대표들은 귀측의 대표들과 1951년 7월 10일과 15일 사이에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25]

- 북한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의용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

이는 스탈린이 6월 30일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내용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공산군 측은 스탈린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스탈린이 보낸 회신 전문이 발표되기까지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에 임하는 것도 모두 스탈린

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스탈린은 단지 휴전협상을 주도하는 책임을 마오쩌둥에게 부여하는 대신 자신은 철저히 그 막후에서 휴전협상을 지도하고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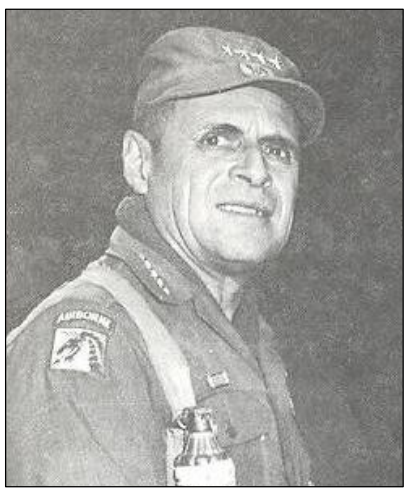
2. 양측의 휴전협상 지도체계와 휴전회담 대표단

1)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 지도체계와 휴전회담 대표단 구성

유엔군 측에서 휴전회담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었다. 여기서 미국은 전쟁 당사국인 한국정부를 배제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에 대해서도 휴전회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회담에 임하면서 유엔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안보리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2주일 간격으로 미 합동참모본부와 국무부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휴전에 임하면서 유엔법률고문 펠러(Abraham Feller)를 통해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상에 관한 착수 및 수행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미국 정부는 유엔법률고문(UN legal advisor)인 펠러를 통해 "협상이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되고 최종결과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는 한 미국은 유엔의 추가 승인 없이도 정전(cease-fire) 또는 휴전(armistice)을 결말지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에게 통보하였다.[26] 유엔은 미국정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휴전협상에서 미국의 결정권을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엔군 측의 휴전협상 지도체계를 살펴보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 대통령-국무부 및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관-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는 단일 지도체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미 제8군사령관은 완전히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도체계에 포함된 유엔군사

령관도 비록 휴전회담의 '지도라인(directive line)'에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휴전회담 전략 및 정책 수립단계에서 제외된 점으로 볼 때 그의 역할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

그렇다면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회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워싱턴은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은 워싱턴의 대변자 역할 또는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자 또는 자문 역할로 제한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회담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군사문제에 관하여 미 합동참모본부로 보낼 건의사항과 유엔군 측 대표단에게 내릴 지시와 훈령을 준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 중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이것이 전부였다. 이를 위해 그는 문산(汶山)에 유엔군 측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이곳을 방문하거나 도쿄(東京)의 유엔군사령부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조이(C. Turner Joy) 제독과 무전으로 휴전회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엔군 측 문산 기지에는 유엔군사령부 및 워싱턴의 휴전회담을 위한 전방지휘소장격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운용단(JSPOG :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27] 단장인 라이트(Edwin K. Wright) 육군준장이 상주하며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을 지원하고 있었다.[28]

이처럼 유엔군 측 휴전회담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워싱턴의 중앙통제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워싱턴에서는 휴전회담의 기본방침부터 세부적인 지침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고 지도하였다. 예를 들면 성명서를 포함하여 휴전회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워싱턴의 관리들과 협조하지 않고 그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매 휴전회담 때마다 유엔군사령관은 회의록의 사본을 포함하여 휴전회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추가조치에 대한

건의사항을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로 전송하면 워싱턴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국무부와 국방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었다.[29]

그 과정에서 유엔군사령이나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이 발표하는 성명서의 문안까지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승인이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트루먼 대통령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극동군사령관이나 휴전회담 대표이 발표하는 성명서의 문안까지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30] 이를 위해 워싱턴과 유엔군사령부 간에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선이 설치되었다. 도쿄에서 발신되거나 수신되는 메시지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 휴전회담이 끝나면 그 보고서가 통상 회의 종료 4-8시간이면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긴급 시에는 2시간 내에 수신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31]



휴전회담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유엔군측 휴전회담 대표단(왼쪽부터 크레이기 소장, 백선엽 소장, 수석대표 조이 제독, 호데스 소장, 버크 제독)

이에 따라 유엔군 측 휴전회담은 미국 주도하에 한국과 유엔 참전 16개국을 배제시킨 채 워싱턴에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직접 휴전회담을 통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회담 대표단 구성과 임명도 미국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엔군 측 휴전회담 수석대표에는 극동해군 사령관 조이(C. Turner Joy) 해군중장이 임명되었다. 그 밖의 휴전회담 대표로는 미국 육·해·공군 장성을 대표로 임명된데 이어 한국군 장성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미 육군 소장 호데스(Henry I. Hodes), 미 해군 소장 버크(Arleigh A. Burke), 미 공군 소장 크레이기(Laurence C. Craigie), 그리고 한국군 육군 소장 백선엽(白善燁)이었다.[32]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 개시부터 1952년 5월 22일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조이 제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 참전 경험이 많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석대표를 겸직하였다. 육군 대표인 호데스 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유럽전선에서 보병연대를 지휘하였던 역전의 용사였다. 그는 1951년 12월 17일 페렌버그(Claude B. Ferenbaugh) 육군 소장으로 교체되었다. 해군 대표인 버크 제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고속으로 구축함을 다룸으로써 '31노트 버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유명하였다. 휴전대표로 선정할 당시 그는 미 극동해군의 참모부장이었다. 그는 1951년 12월 11일 리비(Ruthven E. Libby) 소장과 교대하였다. 공군 대표인 크레이기 소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전투비행단을 지휘하였고, 휴전대표로 임명될 당시에는 미 극동공군 부사령관이었다. 그는 1951년 11월 27일 터너(Howard M. Turner) 소장과 교대하였다. 한국군을 대표하여 휴전회담 대표가 된 백선엽 육군 소장은 휴전회담 대표로 임명될 당시 한국군 제1군단장이었다. 그는 군단장 신분으로 휴전회담에 참석하였다. 그는 1951년 10월 24일 이형근(李亨根) 육군 소장과 교대하였다. 그 당시 그는 교육총감부(현 교육사령부) 총감으로 있었다. 1951년 말까지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33]

구 분		이 름	보직 기간
미군	수석 대표	조이(C. Turner Joy) 해군 중장	1951.7.10-1952.5.22
	육군 대표	호데스(Henry I. Hodes) 육군 소장	1951.7.10-1951.12.17
		페렌버그(Claude B. Ferenbaugh) 육군 소장	1951.12.17-1952.2.26
	해군 대표	버크(Arleigh A. Burke) 해군 소장	1951.7.10-1951.12.11
		리비(Ruthven E. Libby) 해군 소장	1951.12.11-1952.6.23
	공군 대표	크레이기(Laurence C. Craigie) 공군 소장	1951.7.10-1951.11.27
		터너(Howard M. Turner) 공군 소장	1951.11.27-1952.7.5
한국군 대표		백선엽(白善燁) 육군 소장	1951.7.10-1951.10.24
		이형근(李亨根) 육군 소장	1951.10.24-1952.2.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석대표인 조이 제독을 제외하고는 1951년 말까지 한국군 대표를 비롯하여 미국의 육·해·공군 등 각 대표들이 모두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지도체계와 휴전회담 대표단 구성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주도권은 형식상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스탈린에게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지도체계의 최상층부에는 스탈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스탈린은 휴전회담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공산권의 이익을 고려하며 휴전회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스탈린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철저히 마오쩌둥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집무를 보고 있는 모습

이에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의견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개진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받는 정도였다. 따라서 공산군 측 휴전회담의 지도체계는 스탈린-마오쩌둥(때때로 김일성 의견 반영)-리커눙(李克農)-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여기서 중국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제외되었다. 그는 필요시 휴전회담에 대한 의견만을 개진하였다.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위해 휴전회담장이 있는 개성에 전방지휘부를 설치하여 휴전회담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나갔다. 이를 위해 마오쩌둥은 자신의 휴전회담 전략을 충실히 수행할 협상전문가를 전방지휘부로 파견하여 운용하였다. 마오쩌둥은 협상전문가인 외교부 부부장 리커눙(李克農)[34]과 그의 보좌관인 치관화(喬冠華)[35]를 북한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실무진도 함께 파견하였는데, 이들로는 하버드(Harvard)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푸산(浦山),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사의 딩밍(丁明)과 선지앤투(沈建圖)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선 상황과 휴전회담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급장교가 이들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1951년 7월 6일 북한으로 들어왔다.[36] 이처럼 마오쩌둥은 준비과정에서부터 휴전회담에 철저히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저우언라이(周恩來)였다. 그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에게 보내는 마오쩌둥의 전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리커눙에게 내리는 지시 초안을 대부분 작성하여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37] 마오쩌둥은 회담의 진전에 따라 수시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정기적으로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마오쩌둥은 공산군 측의 협상원칙이나 기준, 상위의 전략문제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탈린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고 시행하였다. 휴전회담 진행 과정에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그 내용을 스탈린에게 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마오쩌둥에게 있었다.[38]

그렇지만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 휴전회담 대표단을 구성할 때 형식적이나마 북한 측을 배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공산군 측 수석대표에는 북한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인 남일(南日)이 김일성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다. 최초 김일성은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를 추천했으나 중공군 수뇌부에서 사령관이 회담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제1부사령관인 덩화(鄧華)가 나가게 되었다.[39] 이외에도 휴전회담 대표에는 북한군에서 2명, 중공군에서 2명씩으로 구성되었다. 북한군에서는 총참모부 정찰국장 이상조(李相朝) 육군 소장, 북한군 제1군단 참모장 장평산(張平山)이 임명되었고, 중공군에서는 중공군 제1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 상장, 중공군 북동군관구 선전주임 셰팡(解方) 소장이 펑더화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다.[40]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도 휴전회담 기간 중 교체가 있었다. 수석대표인 남일과 북한 측 대표인 이상조는 정전협정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인 장평산은 1951년 10월 24일 정두환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중국 측 대표인 덩화도 1951년 10월 24일 비엔창우(邊昌武)와 교체되었고, 셰팡은 1953년 4월 26일 차이청원(柴成文)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1951년 12월말까지 교체된 공산군 측 대표로는 북한의 장평산을 비롯하여 중국의 덩화와 셰팡이었다. 1951년 말까지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41]

구 분	이 름	직책 및 계급	보직 기간
수석 대표	남 일(南 日)	북한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	1951.7.10-1953.7.27
북한군 대표	이상조(李相朝)	총참모부 정찰국장	1951.7.10-1953.7.27
	장평산(張平山)	북한군 제1군단 참모장	1951.12.17-1951.10.24
	정두환(鄭斗煥)	북한군 육군 소장	1951.10.24-1952.4.28
중공군 대표	떵 화(鄧 華)	중공군 제1부사령관	1951.7.10-1951.10.24
	비엔창우(邊昌武)	중공군 중장	1951.10.24-1953.4.26
	세 팡(解 方)	중공군 참모장	1951.7.10-1953.4.26



휴전회담장인 내봉장(來鳳莊) 앞뜰에 선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 왼쪽부터 중공군 대표 세팡(解方), 덩화(鄧華),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표 이상조와 장평산)

이처럼 공산군 측 휴전회담 지도체계는 스탈린-마오쩌둥-리커눙-휴전회담 대표로 연결되었으나 마오쩌둥이 마련한 지도체계의 상층부에는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있었고, 스탈린과 펑더화이는 자문역이었다.[42] 하지만 마오쩌둥이 김일성과 협의는 하였지만 휴전회담의 지도체계의 중요한 연결 고리는 마오쩌둥과 리커눙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었다. 따라서 공산군 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북한의 남일(南日)이나 김일성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지도체계와 대표단 구성을 볼 때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측이 모두 전쟁당사국인 남북한을 제쳐두고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공산군을 대표하는 중국이 휴전회담을 주도하였고, 이를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그들이 내세운 지도체계를 지켜나갔다는 점이다. 또한 휴전회담 대표 구성에 있어서 유엔군 측은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구성된데 비해, 공산군 측은 북한을 배려하는 흔적을 남겼다. 즉, 공산군 측은 수석대표를 북한 측에서 임명하고 전체 대표 수도 북한이 1명 더 많이 배정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선전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었고, 휴전회담장에서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3. 휴전회담의 개막과 양측의 휴전협상 기조

1) 예비회담과 안전조치

1951년 6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의 휴전회담 제의에 공산군 측이 김일성과 펑더화이의 공동명의로 수락하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7월 3일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공산군 측 사령관(김일성·펑더화이)도 다음날인 7월 4일 리지웨이 장군의 제의에 동의함으로써 양측은 휴전회담에 앞서 예비회담을 갖게 되었다.

예비회담은 1951년 7월 8일 개성 광문동(光文洞)의 민가로 6·25전쟁 발발 이전

에는 다방으로 사용했던 곳에서 열렸다. 예비회담에는 양측 모두 중령 및 대령급 연락장교들이 참석하였다. 이는 양측에서 3인으로 구성도는 연락장교의 계급을 대령이하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유엔군 측에서는 미 공군의 키니(Andrew J. Kinney) 대령, 미 해병의 머레이(James C. Murrey) 대령, 한국 육군의 이수영(李壽榮) 중령이었고,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의 장춘산(張春山) 대좌와 김일파(金一波) 중좌, 그리고 중공군의 차이청원(柴成文) 중좌이었다.[43] 공산군 측은 연락장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북한군에서는 동원국장인 김창만 소장을 장춘산 대좌로 둔갑시켜 내보냈고, 중공군에서는 시군무(柴軍武)를 중좌 계급을 붙여 차이청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내보냈다.[44]



유엔군측 휴전회담 연락장교단. 왼쪽부터 머레이 대령, 키니 대령, 이수영 중령, 언더우드 중위, 중공군 우(Kenneth Wu) 준위

또한 양측의 통역관은 각각 3인씩 임명되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미 해군의 언더우드 형제, 즉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C. Underwood) 중위와 리차드(Richard C. Underwood) 중위, 그리고 미 육군의 우(Kenneth Wu) 준위였다.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의 설정식(薛貞植) 소좌와 도유호(都宥浩) 소좌, 중공군의 삐즈랑(畢致浪) 소좌였다.[45]

연락장교단은 먼저 휴전회담 대표들의 명단을 상호 교환하고, 회담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합의사항

· 제1회 본회담 일시 : 1951년 7월 10일 11:00

· 회담 장소 : 개성 고려동 내봉장(來鳳莊)

· 도로경비 및 보수책임 : 공산군 측, 개성-판문점
유엔군 측, 문산-판문점

② 안전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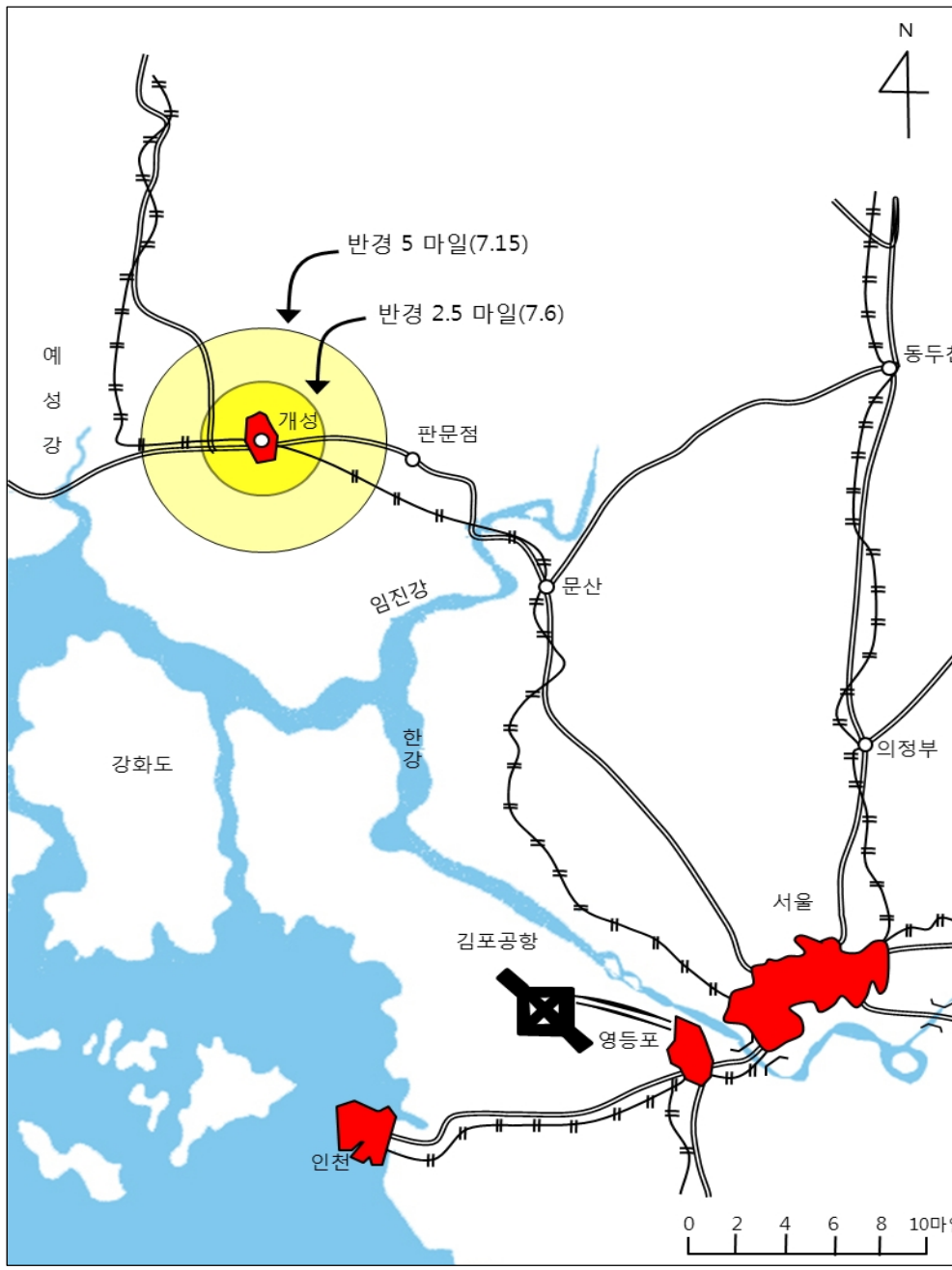
공산군 측 회담요원 수송차량, 평양-사리원-개성 도로 이동 간 백기 부착

유엔군 측 회담요원 수송차량, 문산-판문점-개성 도로 이동 간 백기 부착

유엔군 측 회담대표 외 수행요원, 백색완장 착용

이에 앞서 7월 6일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회담 대표들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공산군 측 대표가 개성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개성을 반경 2.5마일 범위로 중립지대로 간주한다고 공산군 측에 통보함으로써 회담 간 개성이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회담에서 도로경비책임구역 협의 시 유엔군 측은 당초 개성 남대문 로터리를 양측의 경계점으로 주장하였으나 공산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쌍방 접촉선 부근의 판문점으로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상황도 3-1〉 최초의 휴전회담 장소인 개성(1951. 7. 10)





최초의 휴전회담 장소인 개성 내봉장(來鳳莊) 내의 모습



휴전회담장인 개성 내봉장의 다른 모습

당시 개성은 피아 어느 쪽도 점령하지 않은 전선 사이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접촉선이 대체로 판문점 부근이란 점을 고려할 때, 공산군 측 진지로부터 근접되어 있었음으로 그들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보 또는 합의된 안전조치의 결과로 개성은 사실상 공산군 측의 영역에 들어가고 판문점이 피아의 경계지역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유엔군 측은 그 장소가 정치적·심리적으로 적에게 큰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군 측의 제의를 수용하여 이곳을 회담장소로 양보함으로써 군사적으로도 큰 이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양측의 휴전협상 기조와 의제 제안

휴전회담은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성 내봉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수석대표로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해군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8군 참모부장 호데스(Henry I. Hodes) 육군 소장, 미 극동공군부사령관 크레이기(Laurence C. Craigie) 공군 소장, 미 극동해군 참모부장 버크(Arleigh A. Burke) 해군소장, 한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 육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 총참모장 남일 육군 대장을 비롯하여 대표로 북한군 정찰국장 이상조(李相朝) 육군 소장, 북한군 제1군단 참모장 장평산(張平山) 육군 소장, 중공지원군 제1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 중공지원군 참모장 셰팡(解方) 등이었다.

대표단 구성의 특징은 유엔군 측이 순전히 군 지휘관 및 참모요원으로 구성된데 비하여 공산군 측은 정치경력을 지닌 군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산군 측에서는 휴전회담의 실질적 권한을 중공의 덩화가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일이 수석대표 직을 맡았다는 것이다.[46]

휴전회담은 상호 신임장을 교환한 후 쌍방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로서 시작되었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인사말에 이어 군사상황에 중점을 둔 기조연설을 하였다.



개성의 휴전회담장으로 헬기를 타고 출발하는 유엔군측 휴전회담 대표를 환송하는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1951. 7. 10)

조이 제독은 "휴전회담 중에도 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투는 계속된다."고 전제하고, "전쟁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휴전협정을 마련하고, 한국과 관련이 없는 군사문제나 정치·경제적 문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조이 제독의 기조연설 중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47]

"휴전을 위한 제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쌍방의 승인을 받은 정전위원회가 실제로 그 임무를 개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쌍방의 합의를 본 중립지대를 제외한 한반도의 전 지역에서 전투는 계속될 것이다. 유엔군 대표단은 공산군 대표들과 전쟁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전쟁중지를 위한 휴전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오로지 이런 목적을 위해 회담에 임할 것이며, 이런 문제와 관련된 한국 내에서의 군사문제만을 논의할 것이다. 그 밖의 여하한 종류의 경제적·정치적 문제, 그리고 한국과 관련이 없는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48]

조이 제독에 이어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쌍방의 적대 군사행동 중지, 38도선으로의 철수, 빠른 시일 내의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였다. 그의 기존발언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합의를 기초로 양측은 모든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중지하도록 동시에 명령해야 할 것이다. 육군은 상대방에 대한 침공·습격·정찰을 중지하며, 해군은 상대방에 대한 함포사격·봉쇄·정찰을 중지하고, 공군은 상대방에 대한 폭격과 정찰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양측의 정전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전쟁의 불꽃을 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38도선을 군사적 경계선으로 확정하고 양측의 무장군은 동시에 38도선으로부터 10km 철수해야 하며 이를 일정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양측이 철수한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규정하며, 양측의 무장부대를 주둔시키거나 또는 여하한 군사적 행동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즉,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포로교환에 대한 회담을 즉각 진행하여 각국 포로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외국 군대가 철수한다면 조선전쟁의 중지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기본적으로 보장받게 된다.‘조선인민·중국인민·소련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모두 조선전쟁을 중지하며 평화적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열렬히 요구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여 전체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희망한다.[49]

남일의 발언이 끝나자 중공군 대표 덩화는 “남일이 제시한 3개 항이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휴전의 기초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지지발언을 하였다. 조이 제독도 공산군 측의 기조발언 후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군사문제만을 논의하자.”고 제의하면서 공산군 측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공산군 측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50] 이에 조이 제독은 유엔군사령부에서 마련한 9개 항의 휴전회담 의제를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① 회의의제의 채택
②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위한 장소와 그들의 권한
③ 한국에만 관계되는 순수한 군사사항 문제로 제한
④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무력행위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적대행위 및 무력행위의 중지
⑤ 한국을 횡단하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협정
⑥ 군사정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기능
⑦ 군사정전위원회 예하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군사감시단의 한국 내에서의 감시원칙에 대한 협정
⑧ 군사감시단의 구성과 기능
⑨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51]

조이 제독이 회담의제를 내놓자 공산군 측은 그들의 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휴전협정일지라도 38도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조이 제독은 남일의 주장은 군사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주제들로 회담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공박하면서, 지금은 의제에 대한 구체적 토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 공산군 측이 자신의 안을 제시할 때라고 반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남일은 계속 유엔군 측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그 내용이 '길고 중복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제2항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은 포로조항과 관련됨으로 제9항 협의 시 논의할 수 있다. 제3항 '한국에만 관련되는 순수한 군사사항 토의로 제한'은 휴전회담은 군사문제에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불필요하다. 제4항 '적대행위 중지'와 제5항 '비무장지대 설치' 문제는 구체적이지 못함으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제6·7·8항 '군사정전위원회'와 '군사감시구의 구성'은 부수적인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제9항 '전쟁 포로'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52]

남일은 계속해서 유엔군 측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반박한 다음 그 대안으로 5개 항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안이 '보다 간결하고 더 적합하며 순서대로 토의'할 주제라고 발언하였다. 남일이 대안으로 제시한 5개 항은 다음과 같

다. ①회의 의제의 채택. ②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적대행위 중지의 기본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 설치. ③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 철수. ④한국에서의 정전 및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⑤휴전에 따른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이었다.[53]

조이 제독은 남일의 제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38도선을 분계선으로 하는 제의는 수용할 수 없으며, 외국군 철수는 정치적인 문제임으로 휴전이 성립된 후에 토의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공산군 측 제안의 핵심인 제2·3항에 대해 적절한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54]

이렇듯 첫날의 휴전회담은 양측이 서로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나서 의제를 제안하고 상대편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부적절성과 자신들 의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회담이 끝난 후 문산에 설치된 유엔군 측 휴전회담 전진기지인 '평화의 천막촌'에서 유엔군 측 기자들은 회담이 6주내는 타결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회담이 진행되면서 속단이었음을 그들은 곧 알게 되었다.

회담 2일째인 7월 11일 회담에서도 양측은 별다른 소득 없이 논쟁만을 되풀이하였다. 유엔군 측은 국제적십자사가 포로수용소를 방문해야 되며, 이를 위해 포로수용소 위치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공산군 측은 이 문제는 휴전과는 관련이 없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 문제만을 다루는 본 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또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도 양측은 결론 없는 논쟁만을 거듭하였다. 유엔군 측은 "38도선은 현 군사상황과 아무 의미도 없는 '가상적인 선(imaginary line)'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하였다. 이에 공산군 측은 "38도선은 전쟁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휴전은 이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대응하였다. 외국군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유엔군 측이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자, 공산군 측은 "외국군의 철수 없이 어떻게 휴전이 보장될 수 있는가?"라며 이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의 우선순위로 정전(cease-fire), 38도선의 군사분계선, 외국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였다.[55] 이는 공산군 측이 기조연설에서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었다. 결국 이들 문제를 놓고 양측은 지루한 설전(舌戰)을 벌이게 되었다.

4. 휴전회담장의 중립과 보도진 출입통제 갈등

휴전회담은 양측의 합의대로 개성의 내봉장에서 열렸다. 그렇지만 휴전회담이 열리는 개성 지역은 공산군 측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다. 공산군 측은 회담 첫날부터 회담장에 대한 중립을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담을 취재할 유엔군 측 기자들에 대한 출입도 통제하고 나섰다. 즉, 공산군 측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휴전회담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였다.

휴전회담 첫날부터 공산군 측은 유엔군 휴전회담 대표들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탑승한 차량에 백기를 달았음에도 판문점에서 적 초병의 통제를 받았고 개성에 도착해서는 적 무장경비병의 감시 하에 회담장으로 이동해야 하였다. 공산군 측 보도진은 이러한 광경을 사진기로 찍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승자(勝者)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또한 유엔군 측 연락요원들도 회담장 내에서 행동의 제재를 받아 임무수행이 지연되었다. 이에 유엔군 측 대표단은 공산군 측에 항의하였으나 이것이 시정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렸다. 공산군 측은 회의실 내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승자처럼 남쪽을 향해 높은 의자에 앉았고, 유엔군 측은 북쪽을 향해 낮은 의자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였다. 또 유엔군 측이 회의탁자 위에 유엔기를 놓자 공산군 측은 유엔기 보다 높은 기를 갖다 놓은 신경전을 벌였다.[56]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을 취재하려는 유엔군 측 보도진에 대해서 통제를 하였다. 공산군 측은 그들의 기자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하면서도 유엔군 측에 대해서는 이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 측 기자들은 회의실 안에까

지 들어와 자신들의 선전용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일방적인 보도활동을 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가 이것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항의하면서 유엔군 측도 20여명의 기자단을 대동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 수석대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확답을 피하였다.[57]



휴전회담장으로 들어가려는 유엔군 측 종군기자들을 저지하는 공산군(1951. 7. 12)

회담 두 번째 날인 7월 11일에 유엔군 측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거론하자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 대표단의 차량에 대해서는 문산에서 출발할 때 이를 통고해 주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 취재기자단 에 대해 공산군 측은 "의제에 대해 아직 합의도 못하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58] 이에 조이 제독은 "내일도 기자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판문점에서 문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언제쯤 기자들의 참석 하에 회담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자를 내일(7월 12일) 오전 7시 30분까지 알려 달라."고 통보하였다.[59] 이제 유엔군

측 기자단의 출입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회담을 지연시키느냐는 공산군 측의 몫이 되었다. 유엔군 측 대표단 차량은 다음날인 7월 12일 7시 30분에 기자 20명을 태우고 문산을 출발하여 개성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판문점의 공산군 초소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자 유엔군 측 대표단은 9시 30분까지 기다린 후 별다른 조치가 없자 문산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조이 제독은 연락장교를 통해 남일에게, "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자를 포함해 본관이 선정한 인원을 태운 수송대가 회담장에 입장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회의에 복귀하겠다."고 통고하였다.[60]

이에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기자단 문제로 유엔군 측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휴전회담은 시작한 지 유엔군 측 기자단 출입문제로 인해 3일 만에 중단되었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는 7월 13일에 공산군 측에 "개성 및 개성-문산 도로를 중립지대화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는 "개성을 반경 5마일 범위로 중립지대로 만들고, 개성-문산 간 도로에는 일체의 무장 병력을 두지 말 것이며, 중립지대에서 활동할 회담대표단의 수를 150명 범위 내에서 양측의 사령관이 필요한 만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휴전회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였다.[61]

다음날인 7월 14일에 공산군 측은 리지웨이 장군이 전날 요구한 사항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공산군 측은 국제여론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평양방송을 통해 "휴전회담장의 중립화에 동의하면서 유엔군 측의 기자단 20명의 출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보도하였다. 공산군 측은 이 내용을 방송으로 보도한 후 7월 15일에 연락장교를 통해 유엔군 측에 전달하였다.[62]

그 결과 7월 15일에 양측 대표들은 그들의 기자단을 대동한 가운데 회담을 재개하였다. 이때 20명의 유엔군 측 기자단 속에 한국기자는 1명뿐이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휴전과 휴전회담 자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하였다는 것이 공산군 측의 설명이었다. 특히 이날 유엔군 측은 전날 유엔군사령관이 발표한

회담장 중립화와 안전조치에 대해 3개항을 요구하자 공산군 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63]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이 공산군 측에게 제의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에 반경 5마일의 중립지대를 설치한다. 여기서 판문점의 동쪽 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립지대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중립지대로부터 헌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원과 이 기능을 위해 필요한 무장요원을 제외한 무장부대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회담 장소는 회의실을 중심으로 반경 1/2마일로 규정한다. 모든 무장요원은 회담 장소에서 철수해야 한다. 셋째, 판문점으로부터 회담 장소까지 주도로(main road)에는 무장경계병을 배치하지 않는다. 유엔군 측 대표단은 주간에 사전통고 없이 제한을 받지 않고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 개시 후 5일 만에 휴전회담 지역을 중립화시키고 취재기자단의 출입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로써 휴전회담은 3일간의 휴회를 마치고 이날부터 다시 휴전회담 의제 토의에 들어갔다.

5. 의제 선정 공방과 채택

휴전회담은 7월 15일에 다시 재개되어 앞으로 다룰 의제 선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서 군사적인 문제만을 다룰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은 회담 첫날 제의한 9개항의 의제 중 3항(한국에만 관계되는 순수한 군사사항 토의)을 삭제하고 2항(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은 9항(전쟁포로에 관한 협의)에서 함께 다루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엔군 측이 제의한 의제는 7개 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38도선 문제와 외국군의 철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이날 회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갔다.

7월 16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7개 항의 의제 중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감시

기구 사항을 3항에 통합시켜 4개 항으로 축소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64] 첫째, 의제의 채택. 둘째, 비무장지대 설치. 셋째, 적대행위와 무력행위 재발방지를 보장할 정전 및 휴전에 관한 구체적 협정. 즉, ①군사정전위원회 구성·권한· 기능. ②군사감시단 구성·권한·기능. 넷째,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등이다.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회의 의제 선정에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공산군 측이 주장한 외국군 철수문제가 남아 있었다.[65]

공산군 측은 7월 17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의 3항(군사정전위원회와 감시기구)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다음날 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엔군 측이 제의한 4개 항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회담 의제에 '외국군의 철수' 항을 넣을 것을 고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7월 19일 회담에서 "전쟁은 여행이 아니며 부대는 관광객이 아니다. 정전명령이 하달되고 휴전이 성립되었는데도 부대를 그 자리에 둔다면 그 의도는 그 부대들로 하여금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도록 하려는데 있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였다.[66]

공산군 측의 외국군 철수 주장에 대해 미 국무장관 애치슨도 유엔군 측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7월 19일 공산군 측의 주장에 반대하고 유엔군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그는 "외국군(유엔군)의 철수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군사적인 문제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쟁거리는 아니다. 유엔군은 해당국 정부가 유엔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들의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것이다. 유엔군은 침략을 구축하고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유엔군은 휴전이 발효되더라도 진정한 평화가 수립되고 한국 국민이 침략의 위협에서 벗어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즉, 유엔군의 철수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간에 휴전회담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휴전 후에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7]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발언 다음날인 7월 20일에는 유엔참전 16개국이 지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1일에는 한국정부도 미 국무장관의 성명을 지지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공산군 측은 7월 25일 열린 회담에서 외국군 철수문제를 회담의제에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유엔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공산군 측은 비로소 한발 물러나 '외국군 철수' 대신에 제5항에 '쌍방의 관계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는 의제를 추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공산군 측이 휴전 후에 제5항을 통해 외국군 철수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즉, 양측의 대표단이 4개 항에 합의하고 제5항을 토의할 때, "휴전 후 일정기간 내에 전쟁 관련 쌍방 관계국 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다음 휴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공산군 측은 여기에 근거하여 정전협정 조인 후 외국군 철수를 위한 별도의 정치회담을 갖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공산군 측의 의도는 남일의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 …지금 우리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가장 중요한 희망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휴전성립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군의 철수문제는 그 해결을 별도의 회담에서 다루도록 남겨두자는 귀측의 견해에 동의한다.…외국군의 철수문제와 우리가 실현하려는 정전 및 휴전과의 뿌리 깊은 연관성과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여러 외국 병사들의 휴전 후 평화로운 삶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소망에 비추어…이미 합의한 4개 항의 의제 외에 제5항 '쌍방의 관계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4개 항을 토의하고 구체적 합의를 얻어낸 후 우리는 쌍방의 관계국 정부가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일정기간 내에 쌍방의 고위급 대표회담을 열어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문제를 협상하도록 건의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와 우리들이 이 의제 토의 시에 내놓으려고 준비 중인 건의 내용은 휴전협상에 관한 우리 소망의 조기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보장에 관한 희망을 더 높일 것이다. 우리는 유엔군 측 대표단이 이 제안에 틀림없이 동의하리라고 믿는다.[68]

남일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 측은 "철수협의 자체는 휴전 후의 과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7월 26일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제의한 제5항을 수락하였다. 이로써 양측은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시작한지 16일 만에 회담의제 5개 항에 합

의를 보게 되었다.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이 합의한 휴전회담 의제 5개 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담 의제의 채택
②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 설정
③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의 수행을 감독할 기관의 구성·권한 및 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정전과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정
④ 포로에 관한 협정
⑤ 쌍방의 관계 정부에 대한 건의[69]

이처럼 양측이 회담의제에는 합의하였지만 그 타결과정은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였다. 또한 휴전회담장의 중립화와 기자단의 출입 등 상호 호혜평등의 조건에 합의하였으나 공산군 측이 이를 준수할지는 의문이었다. 특히 회담의제에 38도선과 외국군 철수라는 용어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의제를 놓고 협상할 때 공산군 측이 다시 거론할 것은 명백하였다. 한편 유엔군 측이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포로협상 의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양보하였으나, 공산군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였다.

제 2 절 군사분계선 협상과 가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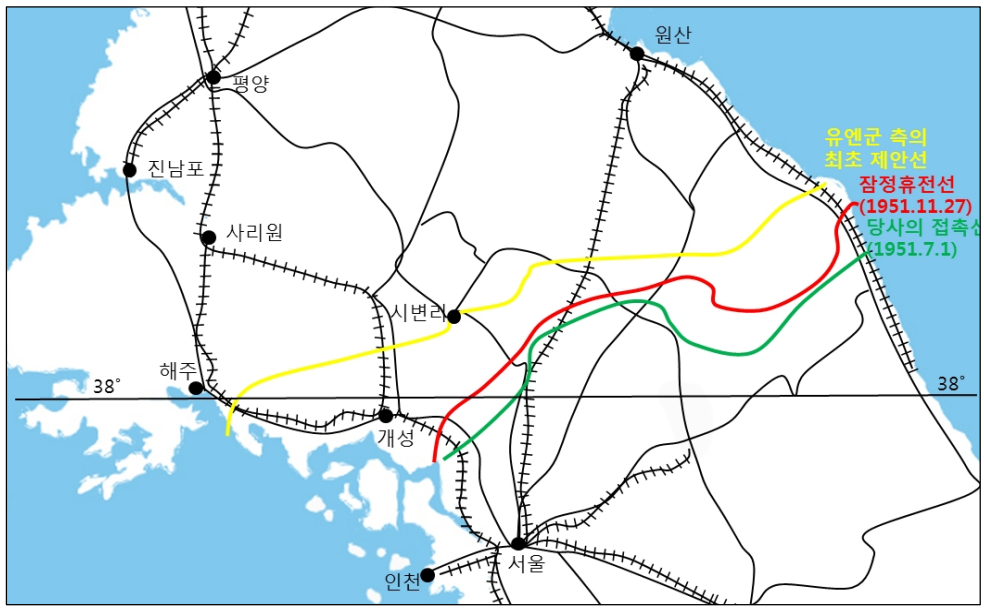
1. 군사분계선 협상

1) 38도선과 접촉선 대립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26일 의제에 합의를 본 후 비로소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합의된 5개 항의 의제 중 제1항(의제의 채택)은 이미 합의가 되었음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제2항인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놓고 7월 26일부터 양측은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먼저 공산군 측 수석대표인 남일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는 "38도선은 전쟁 이전부터 이미 모든 나라가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으로 그 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쌍방이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으니 전쟁 전 현상의 복귀로 인하여 어느 쪽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그는 "비무장지대는 38도선을 따라 20km 폭으로 하되 그 이내에는 군대를 두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부대의 재정리와 영토의 재조정은 공평하며 정당하다."고 발언하였다.[70]

이에 유엔군 측의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다음날인 7월 27일에 "휴전선을 38도선보다는 현 전선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공산군과 유엔군이 지난 13개월간의 전쟁 동안 적어도 '4번'[71]이나 38도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이 사실만으로도 그 선은 군사분계선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효과적인 비무장지대는 실제적 군사상황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하지 정치적 목적의 고려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휴전에서 38도선과 같은 가상의 지리적인 선은 하등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하였다.[72]

〈상황도 3-2〉 유엔군 측이 제안한 군사분계선(1951. 7. 27)



조이 제독은 공산군 측이 제시한 '38도선의 군사분계선' 설치를 반박하면서 이에 대한 '유엔군 측 안(案)'을 내놓았다. 그는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상·해상·공중의 전투력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군은 지상에서는 한정된 진지를 점령하고 있지만 전 해상을 통제하고 있고 전 영공에 걸쳐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으로 공산군 측 휴전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의 해군과 공군의 활동이 제한될 때 이동의 자유를 획득하고 재건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공산군 측은 휴전을 통해 유엔군 측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으로 지상에서 양보를 하여 이를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제의하였다.[73]

조이 제독은 공산군 대표에게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상군 진지 북쪽으로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를 그린 지도를 제시하였다. 이 최초의 제안은 유엔군 측이 확보하려고 예상한 선 보다 훨씬 더 북상시킨 것이었다. 이 제안은 총체적 군사력을 각 구성군 군사력으로 분리하고 각 군사력의 가치를 협상에 적용하려는 기발한 방법이었다.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남일은 7월 28일에 "유엔군 측의 제안은 가소롭다. 군사력이란 각 군의 통합된 힘이다. 유엔군 전선은 지상군·해군·공군의 유효전력이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 전선은 가변적이지만 38도선은 현 상황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음으로 군사분계선으로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4]

조이 제독은 "남일의 발언이 무례하다."고 공박한 다음, "지상 작전의 발전이 전쟁의 상황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단 한 명의 미군병사가 본토를 밟지 않았는데도 패망하였다."라며 유엔군 측의 제안을 옹호하였다. 이에 남일은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다는 조이 제독의 주장에 대해 "누구나 알다시피 일본을 굴복시킨 것은 조선인민의 투쟁, 중국 인민의 전쟁 그리고 소련의 저항이었다. 소련이 참전하여 일본을 분쇄할 때까지 미국은 3년 동안이나 승리 없이 대일전을 치르지 않았느냐? 이 역사적 사실을 가볍게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75]

이에 조이 제독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추구하지 않고, 대신 휴전이 되면 공산군 측이 얻게 될 추가적 이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공산군 측은 도로, 교량, 철교를 보수할 수 있고, 그들 병력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으며, 도시와 시설을 재건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76] 그럼에도 공산군 측은 조이 제독의 주장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38도선만을 주장하면서 회의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

2) 중립협정 위반사건과 휴전회담의 중단

휴전회담이 군사분계선 설치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공산군 측이 회담장의 중립협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제19차 회담이 열리는 8월 4일 점심시간에 완전무장한 중공군 1개 중대가 회담장 내의 유엔군 측 대표단이 머무는 건물 가까이로 지나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소총, 권총, 수류탄, 자동화기,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는 양측이 7월 24일에 합의한 회담지역 중립협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회담장 1/2마일 반경 이내에는 어떤 무장병력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개성으로부터 5마일내의 지역에 주둔하는 병력은 권총만을 휴대하도록 규정하였다.[77]

조이 제독은 이날 오후 회담에서 유엔군 측 보도진이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이를 엄중히 항의한데 이어 다음날인 8월 5일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 사령관인 김일성과 펑더화이에게 "중립협정 위반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받을 때까지 유엔군 대표단은 공산군 측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통보하였다.[78] 조이 제독도 다시 공산군 측 수석대표에게 "유엔군 측 대표단은 새로운 통고가 있을 때까지 유엔군 전선 내에 머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79]

이에 대한 공산군 측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부대는 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대이며 실수로 그 지역을 통과하였다. 재발방지를 위한 지시를 하달하였다."는 것이다. 조이 제독은 이 회답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리지웨이 장군은 양측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다음 회담 때까지 중립지대 전 지역에 대해 완전히 조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되, 만일 공산군 측이 이를 거부하면 중립지대 위반사건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휴전회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생각까지 하였다.[80] 즉, 리지웨이 장군은 이 사건이 유엔군 측 대표단을 위협하기 위해 공산군 측이 교묘히 계획하였거나, 혹은 단순한 부주의나 군기이완에 기인된 것 중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엔군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8월 6일 아침에 공산군 측은 두 번째 메시지를 한글·영어·일어로 방송하였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이 그와 같은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에 의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또 경비대가 중립협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니 유엔군 측 대표단이 개성 회담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81] 리지웨이 장군은 공산군 측의 해명을 거부하기로 하고 워싱턴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워싱턴에서는 적이 이미 유엔군 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8월 7일에 '우발적이고 사소한 사건'이라는 표현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이 개성지역의 완전 중립화를 보장하는 조건부로 휴전회담의 재개를 수락한다는 전문을 보냈다. 다음날인 8월 9일에 공산군 측이 이를 받아들여 회담을 재개하자고 응신 함에 따라 이 사건은 발생 5일 만에 일단락 짓게 되었다.[82]

그런데 이날(8월 9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그들 대표단의 보급차량인 트럭 1대가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중 8월 7일 15:00시에 시변리 부근에서 유엔 공군기의 기총소사를 받아 파손되었다고 조이 수석대표에게 항의하였다. 이 차량은 협정대로 차체를 하얀 천(白布)으로 덮고 백기를 단 대표단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이 협정을 위반하고 사격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이 제독은 남일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첫째, 통행시간과 경로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시변리는 평양-개성 주보급로 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으로 도리어 대표단 이외의 목적으로 백색표지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 상황을 24시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통보함으로써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였다. 조이 제독의 이러한 반박에 남일은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였다.[83]

3) 회담의제 타결책의 제안과 합동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공산군 측에 의해 야기되었던 중립협정 위반사건이 마무리되자 제20차 휴전회담이 8월 10일에 재개되었다. 조이 제독은 먼저 그동안 정체되었던 휴전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의제 제2항(군사분계선 설치)에 대한 유엔군 측의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에 대한 토의나 고려는 이미 끝났다."고 통보하고, "현실적인 군사상황에 기초하여 군사분계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까지 일반적 사항으로만 제안되었던 비무장지대를 조정하기 위한 토의를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84]

이에 남일은 토의의 제한에 즉각 항의하고 난 후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이 제독을 노려보았다. 이후 양측 대표는 서로의 얼굴을 노려보는 '침묵의 회담'이 2시간 11분이나 계속되었다.[85] 이는 공산군 측이 38도선 이외의 어떠한 선도 아직 군사분계선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조이 제독이 침묵을 깨고 새로운 타개책을 제의하였다. 그는 의제 제2항(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가 당장 어려우므로 일단 보류하고, 제3항(휴전실

현을 위한 세부 협정)에 대해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일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공산군 측은 장광설(長廣舌) 또는 침묵으로 회담의 진행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고 있었다.

휴전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리지웨이 장군은 워싱턴에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공산군 측에 그들의 주장을 바꾸도록 72시간을 주되 변화가 없으면 회담의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리지웨이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싱턴에서는 "현재는 회담결렬을 놓고 최후통첩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회담이 결렬되려면 공산군 측이 그 책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워싱턴에서는 "38도선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스크바와 북경이 그들의 입장을 변경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협상을 질질 끄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임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착과 인내 그리고 불굴의 노력과 확고부동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86] 그 결과 휴전회담이 결렬될 위기는 모면하였다.

그러나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속개된 회담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제안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합리성을 내세우는 지루한 회담이 계속 이어졌다. 공산군 측 수석대표인 남일은 "진리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치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는 또 유엔군이 주장한 지상에서의 보상요구를 어리석고 오만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태도가 오히려 융통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어느 쪽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Pravda)지가 "조선 인민들은 개성 휴전회담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놓고 거래를 하려는 미 약탈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산군 측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유엔군 측은 "군사분계선은 현 전선과 전반적인 군사상황을 기초로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지상에서의 보상 개념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87]

이처럼 휴전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되자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유엔군 측은 8월 15일(제25차 본회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양측에서 1명의 대표단과 2명의 보좌관으로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양측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제2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안에 대해 대표의 수를 2명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군 측 대표에는 북한의 이상조와 중국의 세팡이 임명되었고, 유엔군 측에서는 미국의 호데스 소장과 버크 제독이 임명되었다.[88] 합동분과위원회가 건의안을 만드는 동안 본회담은 휴회되었다.

군사분계선 설치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합동분과위원회가 8월 17일 개최되었다. 이후 군사분계선 설치 문제는 급진전을 보였다. 8월 18일 회의에서 공산군 측은 그들의 38도선 주장을 수정한 안(案)과 지도를 제시하였다. 공산군 측이 제시한 안은 동부에서는 38도선 북측으로 4km, 서부에서는 남쪽으로 4km를 지나는 선이었다.[89] 이는 공산군 측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38도선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었다.

이에 유엔군 측의 호데스 대표는 8월 19일 회의에서 "토의 목적 상 모든 해군과 공군력의 효과는 현 전선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공산군 측은 이를 반기며 유엔군 측이 새로운 안을 내놓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이를 눈친 챈 유엔군 측에서는 공산군 측에게 그들의 새로운 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공산군 측은 38도선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발언을 하였다. 즉, 그들은 "만일 유엔군 측이 보상의 개념을 포기한다면 현 전선에 따르는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90] 그런데 공산군 측이 이러한 태도변화를 보이게 된 데에는 8월 18일부터 개시된 유엔군의 하계공세가 크게 작용하였다.

양측이 맨 처음 그들이 제안한 군사분계선 설치 안에 대한 조정에 동의하자 이에 고무된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비무장지대 설치문제를 내놓았다. 즉, 그는 공산군 측이 '전선의 일반선(general area of the battle line)' 보다는 '접촉선(line of contact)'에 관한 토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접촉선을 중심으로 4km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안을 미국 정부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91]

그러나 공산군 측이 중립협정 위반사건을 유엔군 측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휴전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였다. 이에 휴전회담은 8월 22일 제6차 합동분과위원회를 끝으로 8월 23일부터 2개월 동안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 중립협정 위반에 대한 날조와 비난

휴전회담 개시 이후 공산군 측은 중립협정 위반을 날조하여 유엔군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중립협정은 휴전회담장 통제규칙에 대한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군 측 주장에 의해 1950년 7월 15일에 양측 합의하에 체결된 것이다. 이는 휴전회담 장소인 개성이 공산군 통제 하에 있는 관계로 최초 유엔군 측 기자단의 출입이 거부되고 휴전회담 대표들의 출입과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따른 조치였다.

중립협정의 핵심은 "개성 중심에서 반경 5마일의 중립지대를 설정하고 양측은 이 지역 내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헌병기능을 수행하는 병력 이외는 모두 철수하고, 회담장을 중심으로 반경 1/2마일 이내에는 어떤 무장병력도 두지 않는다. 또 유엔군 측 대표단은 주간에 판문점-개성 도로를 공산군 측에 사전 통고 없이도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엔군 측은 7월 8일 예비회담에서 "개성으로 출입하는 공산군 측 대표단 차량은 백색 십자 표지를 하고 시간과 경로를 유엔군 측에 사전통고하면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었다.[92]

그러나 공산군 측은 중립협정에 합의한 다음날인 7월 16일에 유엔군 병사들이 판문점을 향해 사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부상자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중립지역 내의 무장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유엔군 측은 최초의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명백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산군 측도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93]

공산군 측은 7월 21일 "유엔군 항공기가 황주와 사리원에서 백색기를 부착한 대표단의 보급차량에 기총소사를 하였다."고 유엔군 측에 항의하였다. 유엔군 측

은 “이 차량 대열의 이동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94]

이 두 사건은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공산군 측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8월 4일에 중공군 1개 중대가 회담지역을 침범한데 대한 유엔군 측의 강력한 항의가 있은 뒤 공산군 측은 마치 이를 만회할 심산인 듯 중립협정 위반 사건을 날조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공산군 측은 “8월 7일에 전날 유엔 항공기가 시변리에서 백색기를 부착한 보급트럭을 공격했고, 8월 13일에는 판문점 교량 부근에서 40명의 유엔군 부대가 교량을 봉쇄하고 비무장 공산군에게 사격을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은 전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고가 없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그 때 그 곳에 유엔군 부대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다.[95]

이처럼 사건이 빈발하자 양측의 연락 장교들은 중립협정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고 있을 때 중립지역에서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8월 19일 중립지역인 송곡리(판문점 서쪽 1km 지점의 중립지역)에서 중공군 헌병소대가 순찰 도중에 습격을 받아 소대장이 사망하고 소대원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산군 측은 즉각 유엔군 측이 중립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유엔군 측의 조사결과 그 시간에 송곡리 근처에 유엔군 부대는 없었다. 그런데 민간인 목격자에 의하면 “중공군을 기습한 대원들 중에는 민간복장을 하고 있었고 전에도 이곳에 나타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듣었다. 이에 유엔군 측에서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유격대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였다.[96] 하지만 공산군 측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사건을 그들의 선전공세에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공산군 측은 또 다시 “유엔군 항공기가 8월 23일 23시 20분에 개성 회담장을 폭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에서는 연락장교인 키니(Andrew J. Kinney) 대령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97] 조사 결과 그곳에는 몇 개의 작은 구덩이만 있었고, 폭탄 파편이라고 공산군 측이 주장한 것도 항공기의 기름 탱크와 엔진 덮개의 일부분이었다. 더욱이 공산군 측에서는 폭탄 중 하나는 네이팜탄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어느 곳에도 네이팜탄에 의해 땅이 그을린 흔적은 없었다. 이에 키니 대령은 조사를 끝마친 후 모든

것은 터무니없는 조작(nonsense)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공산군 측 연락장교는 "이 시간 이후 모든 회담을 취소한다."고 반박하였다.[98]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공산군 측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유엔군 측의 조사에 의하면 공산군 측이 회담을 연기하기 위해 사건을 교묘히 조작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그 때 그 곳의 상공에는 유엔공군기가 1대도 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목격하였다는 적의 병사에 의하면 "유엔 항공기가 폭격할 때 신호등을 켜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엔 항공기가 폭격할 때 취하는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셋째, 폭격에 의해 파여 있는 구덩이는 항공폭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았다.[99] 폭 60cm, 깊이 30cm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수류탄과 같은 폭발물을 땅에 묻어 폭발시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100] 또한 공산군 측이 그 증거물을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수거하기 위해 서두르는 점이나 연락장교가 회담을 취소한다는 발언은 격에 어울리지 석연치 않은 행위들이었다.

김일성과 펑더화이는 8월 24일 11시에 리지웨이 장군에게 "유엔군 항공기가 공산군 측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개성 중립지역을 고의적으로 폭격하였다."고 항의하고, "휴전회담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안락장교를 통해 보내왔다.[101]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다음날인 8월 25일 "날조된 사건에 대한 공산군 측의 항의는 회답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공산군 측이 중단시킨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면 대표를 파견하겠다."고 응수하였다.[102]

이때 리지웨이 장군은 공산군 측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첫째, 공산군 측은 회담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그들의 선전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회담의 연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8월 4일 중공군의 회담장 침범사건 이후 수세에 몰려 있었다. 둘째, 공산군 측은 그들의 38도선 주장이 합동분과위원회에서도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단계의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려면 회담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다. 셋째, 공산군 측은 협상을 결렬시키되 그 책임을 유엔군 측에게 덮어씌울 구실이 필요하였다. 넷째, 공산군 측은 당시 미·일 평화회담 및 소련의

평화공세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미국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소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회담을 지연시키려 하였다.[103]

이로써 공산군 측에 의한 중립협정 위반 사건의 날조와 이에 대한 비난이 거듭된 끝에 결국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에 휴전회담을 중단한다고 통보함으로써 8월 24일부터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3. 회담 중단과 재개 노력

공산군 측은 휴회 기간에도 중립협정 위반 사건들을 계속 날조하여 유엔군 측에 항의하는 일을 되풀이하였다. 공산군 측은 "8월 29일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 중립지역에 조명탄을 투하했고, 30일에는 유엔군 부대가 판문점 교량 너머로 사격하여 공산군 순찰대를 공격했으며, 9월 1일에는 유엔군 항공기가 두 번째로 개성을 폭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때마다 "유엔군 측은 현장 조사 후 어떠한 유엔군 항공기도 결코 그러한 사건을 범한 일이 없으며 지상사건에 관해서는 아마 유격대원의 소행일수도 있다."고 해명하였다.[104]

이에 리지웨이 장군과 조이 제독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예상되는 공산군 측에 의한 조작극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휴전회담 장소를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국 정부도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 장소 이전에 대한 건의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휴전회담 재개의 절대적 필요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105]

그런데 9월 2일 공산군 측은 또 다시 "유엔군 항공기 1대가 9월 1일 03:00에 개성 중립지역 상공에 나타나 폭격하였는데 조사결과 2개의 폭탄이 남일의 숙소에서 불과 500-600m 떨어진 곳에 투하되었다."고 유엔군 측에 항의하였다. 또한 "유엔군 항공기가 개성 중립지역 상공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 동안 25쇼티(sorties)나 공격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다음의 항의서한을 보내왔다.

> 귀측은 8월 23일부터 9월 1일간에 야기된 중대한 도발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고 책임 있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개성 중립협정을 위반하는 그와 같은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 결과로 개성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106]

이에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9월 6일자로 김일성과 펑더화이에게 "유엔군 부대는 중립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공산군 측의 주장은 고의적으로 날조된 허위사건이며, 개성에서 회담을 계속하면 이러한 사건으로 회담이 지연됨으로 새로운 회담장소 선정을 위한 연락장교 회의를 지체 없이 판문점에서 열자."고 통보하였다. 서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본관은 귀하가 보낸 1951년 9월 1일부의 전문을 9월 2일에 접수하였다. 그것은 아직도 사실의 근거 없이 유엔군의 성의를 비난하는 또 하나의 허위 항의에 불과하다. 귀하가 지적한 사건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고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건이다. 본관의 휘하부대는 본관이나 또는 본관의 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협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 판명되었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럼으로 만약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유엔군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과 허위적인 증거를 날조하기 위해서 귀하의 군대가 감행한 것이라 추측하는 바이다.
> …지난 몇 주일간에 발생한 사건들은 본관과 전 세계에 회담장소인 개성에서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면 귀측이 가일층 회담을 방해하고 협정에 도달하는 기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8월 23일에 성명한 휴전회담의 중단을 철회한다면 본관은 방해 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회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지체 없이 판문점 다리에서 연락장교회의를 열어 토의할 것을 제의한다.[107]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 장소 이전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하고, 공산군 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유엔군 측에 의한 명백한 중립협정 위반사건이었다. 9월 10일에 유엔군 항공기 1대가 항로 착오로 개성 상공으로 진입하여 기총소사를 하였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는 없었으나 공산군 측은 이를 정식으로 항의하였다. 조사결과 조이 제독은 다음날 위반행위를 솔직히 시인하면서 사과 서한을 발송하였다.[108]

이에 공산군 측은 9월 12일 김일성과 펑더화이 공동으로 “우리는 이제 귀측이 부단히 발생하고 있는 중립협정 위반을 신속히 종결하고 아측(我側)에서 항의한 수많은 도발사항을 즉각 처리할 것을 재차 요망한다. 회담은 오직 그와 같은 정상적이며 평등한 기초 위에서만이 재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귀측은 협상지연과 방해 및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서한을 보내 왔다.[109] 이는 결과적으로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사령관은 휴회상태에 있는 회담을 재개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휴전회담 장소 변경은 잠시 접어두고 9월 17일에 회담재개를 위한 토의를 위해 연락장교회의를 판문점에서 열 것을 공산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110] 이로부터 2일 후인 9월 19일에 공산군 측은 김일성과 펑더화이의 공동 명의로 “미해결 위반사건으로 인해 협상의 진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의 대표가 지체 없이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또한 그들은 “유엔군사령관이 제의한 회담재개를 위한 조건의 토의”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전술한 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고 개성지역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설치를 제의한다. 이를 위한 개성회담 일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장교회의를 갖자.”고 제의하였다.[111]

공산군 측이 보낸 온 답변은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그는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 재개를 위한 토의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본회담에서 미결된 조작사건의 처리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을 보고, 회담재개 조건은 본회담에서가 아니라 연락장교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9월 23일에 “공산군 측이 주장하는 개성 중립지역 위반사건 문제는 끝났으며 휴전회담을 이유 없이 중단한 책임은 공산군 측에 있다.”고 밝히고, “양측이 회담 재개를 위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토의하기 위해 연락장교회의를 9월 24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하였다.[112]

공산군 측은 유엔군사령관의 이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양측은 회담중단 1개월만인 1951년 9월 24일 판문점에서 연락장교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양측 연락장교는 회담지연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설전만을 벌임으로써 합의점

을 찾지 못하였다. 즉, 공산군 측은 개성 본회담 재개 일시 문제만을 토의하자고 고집하였고,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이 중단됨이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제 조건의 토의를 하자고 맞섰다. 연락장교회의마저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리지웨이 장군은 9월 27일 김일성과 펑더화이에게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송현리(松峴里) 부근 양측 전선의 중간지점으로 옮길 것."을 제의하였다.[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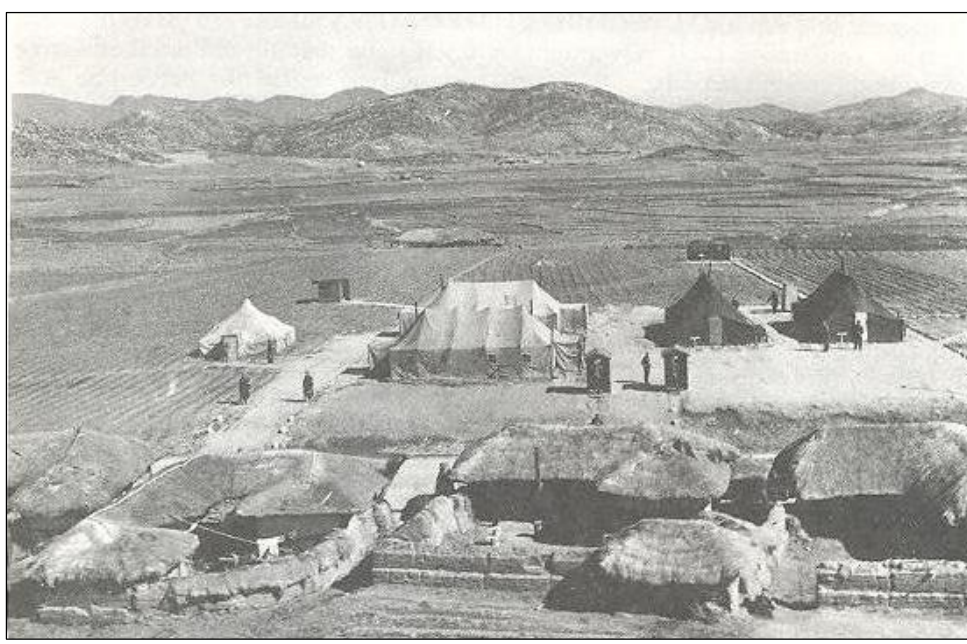
그러나 공산군 측은 10월 3일에 "회담장소의 변경 제의를 거부하고 계속 개성에서 회담을 갖되 개성의 중립을 엄격히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자."는 회신을 보내왔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 장소가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전략적 이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회담 장소 이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10월 4일 공산군 측에 보낸 메시지에서 "공산군 측이 먼저 양측 전선의 중간지점에 휴전회담을 선정하고 본관이 수락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에서 양측 대표단이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 측은 10월 7일 유엔군사령관에게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板門店)으로 옮기되 중립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회담장을 공동방호 책임 하에 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보내왔다.[114] 리지웨이 장군은 10월 8일 공산군 측 제안에 동의하는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휴전회담장을 다시 개성에서 가까운 판문점으로 정함으로써 개성이 적의 점령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양측의 합의로 1951년 10월 10일 판문점에 설치된 천막에서 연락장교회의를 개최하고 휴전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처음부터 난항에 부딪쳤다. 공산군 측에서는 본 회담 재개 일자만을 토의하고 개성 중립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반경 5마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유엔군 측에서는 회담 재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토의하고 개성 중립지역의 크기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10월 12일 유엔군 항공기(F-80)가 개성지역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 중 1대가 기총소사를 함으로써 연락장교회의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15]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연락장교들은 타협과 절충을 통해 그 합의점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10월 22일에 회담재개의 조건을 규정한 기본협정과 양해사항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기본협정으로는 첫째, 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명명한다. 둘째, 회담장은 반경 1,000야드 크기로 제한한다. 셋째, 회담장에서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한다. 넷째, 회담장내의 헌병요원은 쌍방 각각 회담 시에는 장교 2명과 사병 15명, 그 외의 경우에는 장교 1명, 사병 5명으로 제한한다. 헌병은 오직 소화기, 즉 소총 및 카빈만을 휴대한다. 다섯째, 양측 대표단은 자유로이 회담장으로 출입하고 자유로이 회담장 내에서 이동한다. 여섯째, 시설은 연락장교들이 협정한 대로 준비한다. 즉, 공산군 측은 회의용 천막을 설치하고 유엔군 측은 마루깔기, 난방, 조명을 담당한다. 이외에 양측은 각각 자신들의 시설을 준비한다. 일곱째, 중립지역은 개성과 문산은 반경 3마일

로 제한하고 개성-문산도로는 양쪽 각각 200m로 한다. 여덟째, 회담 재개 일시는 연락장교 간의 합의로 정한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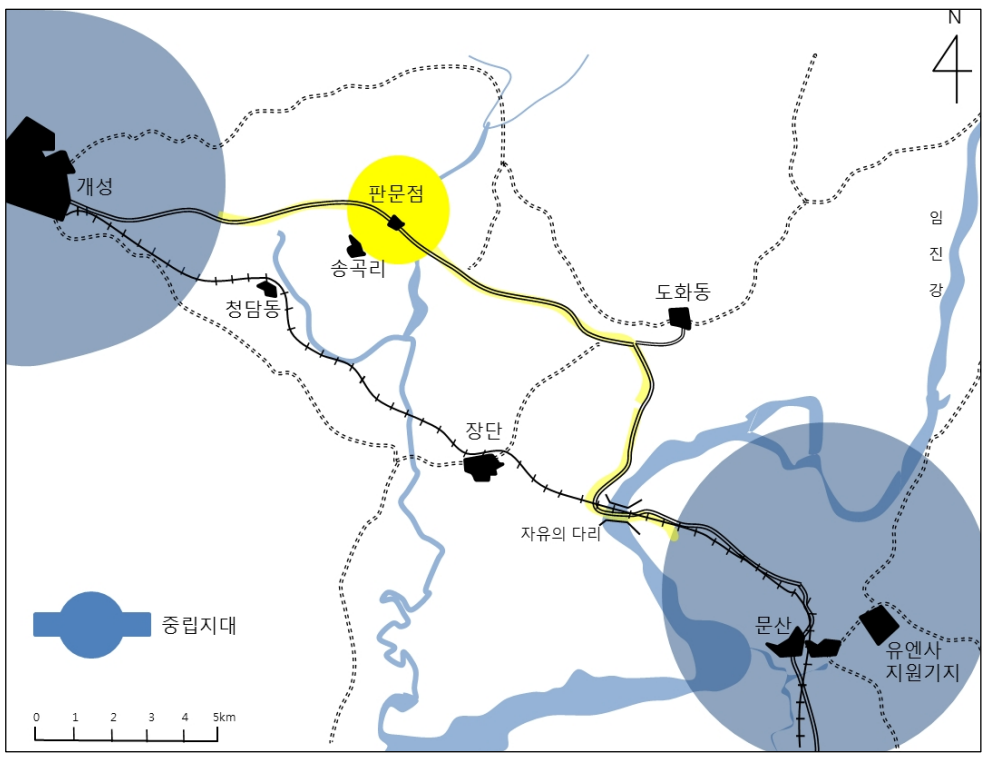


판문점에 위치한 휴전회담 천막

또한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엔군 측은 유엔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중립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와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 비정규군이나

게릴라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군 측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부가하여 공역(空域)에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에 탐조등과 방공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117]

〈상황도 3-3〉 휴전회담 장소가 된 판문점과 중립지대(1951. 10. 22)



이처럼 양측은 1951년 10월 22일에 휴전회담 장소 이전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회담장소의 명칭을 판문점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양측은 휴전회담 장소의 위치를 판문점 길 남쪽에 있는 네 채의 초가집을 중심으로 반경 1,000야드의 크기로 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휴전회담 장소로 선정된 판문점의 원래 이름은 '널문리'였다. 널문리란 널빤지로 만든 문짝마을이란 뜻이다. 그러나 널문리는 회담의 공용어(한글·중국어·영어) 가운데 중국어로 표기할 수가 없어 이

를 한자음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판문점(板門店)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널문리라는 평범한 농촌마을이 '판문점'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18]

판문점은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와 개풍군 봉동면 발송리의 경계지점에 있었다.[119]

휴전회담 수석대표가 이 협정에 비준을 한 다음 24일까지 판문점에 천막을 설치하고 25일부터 본회담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결국 공산군 측은 스스로 협상을 결렬한지 만 2개월 만에 다시 휴전회담장으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회담장소를 개성 보다 남쪽의 판문점으로 옮기는데 동의함으로써 차후 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 설정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유엔군도 휴회 기간 중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될 것에 대비하여 공세작전을 통해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방어선을 개선하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4. 잠정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타결

1) 접촉선 기본원칙 합의

유엔군과 공산군의 양측이 합의한 대로 1951년 10월 25일 판문점에 설치된 대형 천막에서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날 오전 회담에서는 교체된 휴전회담 대표들에 대한 소개와 연락장교들이 작성한 안전협정(Security Arrangement)의 위반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이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연락장교 공동사무소 설치에 대해 합의하였다. 오후 회담에서는 회담의제 제2항 군사분계선 토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본회담 대신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로 전환되었다.[120] 이날 교체된 휴전회담 대표는 공산군 측에서 덩화의 후임인 변창무(邊昌武)와 장춘산의 후임인 정두환(鄭斗煥)이었고, 유엔군 측에서 한국군의 백선엽 장군 후임인 이형근(李亨根) 소장이었다.[121]

10월 25일 오후 재개된 합동분과위원회의 양측 대표들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새로운 안을 상대방이 먼저 내놓을 것을 은근히 바랬다. 이에 유엔군 측에서 준비된 군사분계선 안을 먼저 내놓았다. 유엔군 측이 지도에 표시하여 제시한 군사분계선은 다음과 같다.

"서쪽의 예성강 하구로부터 강을 따라 12.8km 지점에 이르러서 동북방으로 커브를 돌고, 다시 동쪽으로 곡선을 그려 개성 북방 6.4km을 지나 구화리를 경유하여 동북방으로 평강 남쪽 6.4km 지점, 화천저수지 북쪽 약 24km 지점을 지나 동해안의 고성 동남쪽 18.4km 지점에 이르는 선"이었다.[122]

합동분과위원회 유엔군 측 대표인 호데스(Henry I. Hodes) 소장은 이는 현 전선에 기초한 것이나 양측의 방어선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유엔군은 금성지역과 동해안에서 철수하고 공산군 측은 개성지역에서 그만큼 철수할 것을 예상하여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다음날인 10월 26일 유엔군 측의 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안을 지도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부로부터 옹진반도를 횡단하여 철운동 남서쪽, 점공리 서쪽, 원동리 남서쪽에서 동해안의 초도리에 이르는 선"이었다.[123]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에게 방어가 불가능한 옹진과 연안반도를 양보하는 대신 중부 및 중동부지역의 전략지대인 철원·금화·피의능선을 비롯하여 단장의 능선·해안분지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엔군 측은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약 100마일에 걸쳐 최대 15마일까지 철수해야 될 상황이었다. 특히 서부지역도 개성을 완전히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 측도 공산군 측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양측은 다시 군사분계선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개성지역 처리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개성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유엔군에게 개성은 서울에

이르는 적의 접근로를 방어하는데 필수적이었고, 공산군에게 개성은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될 서울 공격의 발판기지였다. 이처럼 개성은 군사적으로 피아의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고, 역사적으로도 고려왕조의 도읍지로서 한국인에게 미치는 정치적·심리적 영향도 컸다. 또한 전쟁 이전 개성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도 이의 수복을 강조하였고, 한국군 휴전회담 대표도 이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이형근 소장을 휴전회담 대표로 내보내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성을 꼭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개성은 우리의 고도이며, 인삼과 쌀의 명산지일세. 설사 동부전선의 일부를 주더라도 개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4]

한발 더 나가 호데스 장군은 개성에서 적의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개성에서 회담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유엔군은 이를 벌써 점령하였을 것이다. 유엔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연안 도서에서 철수하기 때문에 공산군도 개성을 양보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주장하였다.[125]

그러나 공산군 측은 그들이 내놓은 안을 고집할 뿐이었다. 공산군 측은 10월 31일에 "접촉선에 기초한 4km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안"을 다시 제시하면서, 이것이 최선·최종의 제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그들의 최초 안을 포기한 대신 유엔군 측이 제안한 접촉선 안을 수용하면서 개성 지역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전략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을 약간 조정하였다. 새로 조정된 유엔군 측 안에는 개성과 송악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를 주시하고 있던 유엔군사령관은 11월 2일 대표단에게 차선책으로 개성을 중립지역에 포함시켜 협상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개성을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결국 유엔군 측은 개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4일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과 휴전회담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당시의 전선에 기초하여 약간의 조정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은 공산군 측이 38도선 안을 포기하고, 유엔군 측이 해·공군력의 보상 주장을 양보한 선에서 결정되었다. 즉, 군사분계선은 실제 전선인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개성은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2) 접촉선의 기본시기 논쟁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제안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 4km 비무장지대 설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11월 5일 합동분과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인 호데스 소장을 통해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유엔군 측이 내놓은 타협안이다.

> 유엔군 측은 접촉선에 중심을 둔 4km 비무장지대 원칙을 수락하지만 협상 중에도 전투를 계속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음으로 그것은 휴전 조인시의 실제 접촉선으로 해야 한다.
> 따라서 의제 제2항에 대한 최종 합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휴전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가 합의에 도달하여 이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
> 유엔군 측은 합의된 군사분계선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참모장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서 다른 의제 토의로 넘어가자.[126]

그러나 공산군 측은 의제 제2항은 지금 합의되어야 하며 군사분계선을 다른 의제 토의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문제를 휴전이 조인될 때까지 미루는 것은 합의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그들은 현재의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7] 이에 호데스 장군은 "현재의 접촉선은 휴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조이 제독도 "공산군 측이 이번에 작업하는 군사분계선을 잠정적인 합의가 아니라 영구적인 합의로 만들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협상은 다시 난항에 부딪치게 되었다.[128]

결국 양측은 군사분계선을 접촉선으로 하고, 비무장지대는 이를 기준하여 4km

폭으로 설치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을 확정짓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공산군 측은 협상 당시의 접촉선을 주장하고, 유엔군 측은 휴전 조인시의 접촉선을 주장하였다. 현재의 접촉선으로 확정되면 공산군 측은 개성지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협상할 수 있었다. 이는 유엔군 측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 조인시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었다.[129]

그런데 미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에서는 리지웨이 장군의 휴전전략을 지지할 수만 없게 되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휴전회담에서 개성 문제와 접촉선의 군사분계선 결정시점과 같은 구체적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인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산군 측이 38도선 주장을 양보하였는데 유엔군 측이 사소한 문제로 회담을 지연시킨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공산군 측이 군사분계선에 대해 양보를 하였는데,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 그들이 다시 38도선을 주장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였다.[130]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수락하되 다른 의제들이 '1개월 또는 그 정도' 내에 타결이 안 되면 군사분계선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방침에 대해 국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11월 13일 유엔군사령관에게 군사분계선 타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였다.[131]

그러나 리지웨이 장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이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현 접촉선을 수락한다면 앞으로 회담에서 공산군 측의 비타협적 행동으로 의해 명예로운 휴전을 획득할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다음날인 11월 14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 장군에게 "공산군 측의 제안에 유예기간을 1개월로 제의하여 동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협상대표들에게 전달하였다.[132]

이러한 점에서 워싱턴과 현지의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과의 생각이 달랐다. 워싱턴에서는 협상의 조기타결을 원했고,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의 치밀한 협상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워싱턴에서는 공산군 측의 안은 캔자스

(Kansas) 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엔군 측의 입장을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와이오밍(Wyoming) 선의 방호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양보로 보지 않았다. 또한 워싱턴에서는 나머지 회담의제 타결기간을 1개월로 시한을 정함으로써 공산군 측으로 하여금 회담을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보았다.[133]

이에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은 회담이 다시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제 제2항의 조기 타결을 위해 11월 17일 공산군 측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휴전 시까지 적대행위는 계속된다는 합의사항을 재확인한다.
둘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현 접촉선을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잠정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씩 2개의 선을 잠정비무장지대의 남북경계선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셋째, 상기 잠정 군사분계선과 잠정비무장지대는 본회담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 후 30일내 휴전협정이 서명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데 동의한다.
넷째, 휴전협정이 30일내에 조인되지 못하면 분과위원들이 공동으로 당시의 접촉선을 결정하고, 이를 새로운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한다.[134]

이에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안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1개월이 만료된 후에라도 다른 의제가 타결될 때까지 그 선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135] 유엔군 측은 이를 일축하였다. 하지만 양측은 결국 11월 23일 합동분과위원회는 유엔군 측의 새로운 안을 본회담에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3)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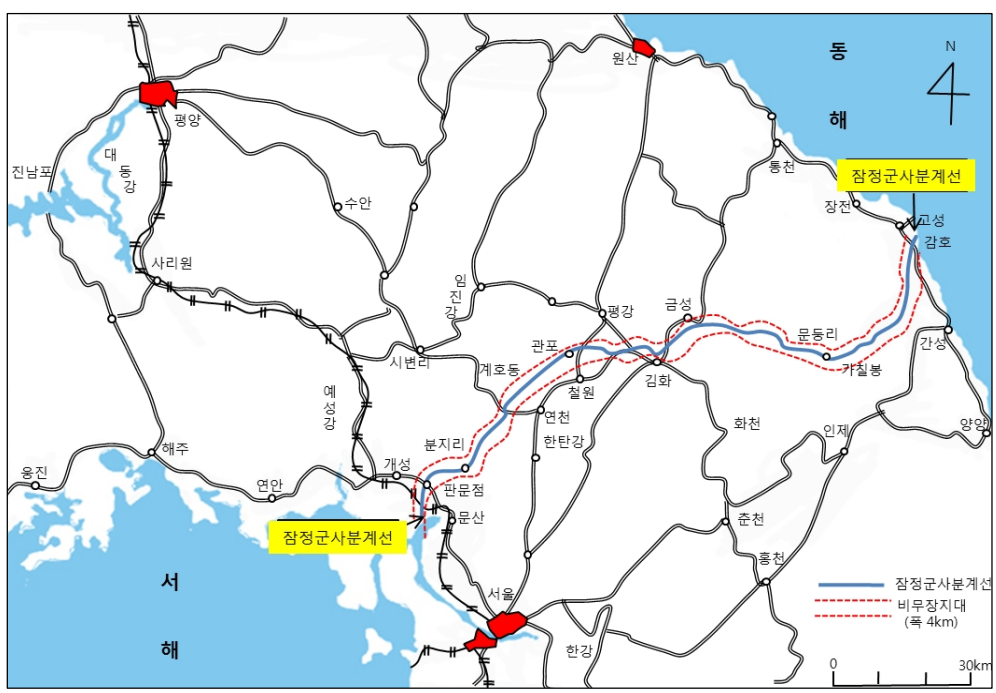
합동분과위원회는 1951년 11월 23일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에 대해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참모장교들은 이날부터 실제의 ‘지상접촉선(地上接觸線)’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합동분과위원들은 의제 2항에 대해 본회의에 제시할 건의사항을 작성하였다.

첫째, 양측은 쌍방 간의 실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휴전협정에 명시된 시간에 이 선으로부터 2km씩 철수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는 원칙을 수락한다.

둘째, 상기 제1항에 기술된 원칙에 따라 합동분과위원회는 즉시 현재의 접촉선을 결정하고, 이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중간선으로 확정한다. 양측 대표단이 상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과 정확한 위치를 본회담에서 승인한 이후 30일이나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쌍방 간 실제 접촉에서 발생되는 어떤 변화에도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셋째, 휴전협정 조인 시까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양측 대표단이 상기 제2항에서 결정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과 정확한 위치를 본회담에서 승인 후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 분과위원들은 쌍방 간 실제 접촉선에서 발생된 변화에 따라 상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휴전협정 조인직전에 수정해야 한다. 수정된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 조인직전의 쌍방 간 접촉선과 꼭 일치해야 하고 휴전 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야 한다.[136]

〈상황도 3-4〉 양측이 합의한 잠정군사분계선(1951. 11. 27)





잠정 군사분계선을 긋고 있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실무장교. 왼쪽은 미군 연락장교 머레이 대령

이에 따라 양측의 참모장교들은 접촉선의 결정 작업을 1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5일에 완료하였다. 그들은 접촉선을 2세트(set)의 지도에 표시하고, 양측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접촉선 협정은 끝났다. 이때 양측 참모장교들이 작성한 군사분계선은 다음과 같다.

동해안 남강 하구 남쪽 3마일 지점에서 출발, 감호의 중심지를 지나 서쪽으로 뻗어 월비산 동남쪽 0.5마일 지점에 도달, 여기서 남쪽으로 덕산리·신대리·사비리·신흥리·놀목을 지나 소양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한다.

다시 서쪽으로 꾸부러진 분계선은 소양강 2.5마일 지점에서 소양강과 갈리어 서남쪽으로 향하면서 가칠봉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서쪽 사태리·건화리에 이르러 북쪽 송정으로 연결된다.

서쪽으로 뻗은 이 선은 어운리 바로 북쪽에서 북한강을 건너 다시 서쪽으로 금성천변의 금성을 지나 서쪽으로 계속하여 김화 서북쪽 금곡리에서 한탄강을 건너 서

쪽으로 이어 상가산·관포동·산명리를 거쳐서 서남쪽 송현에 닿는다.
송현에서 북쪽으로 역곡천을 건너 같은 방향으로 송현리를 지나 계호동에서 임진강으로 여기서 다시 기곡리·청정리를 등을 지나 16마일 서쪽으로 뻗친 분계선은 판문점 비무장지대의 동쪽 끝으로 이른다.
그리고 여기서 급커브를 꺾어 남쪽으로 내려와 문산리 바로 서쪽 7마일 지점인 임진강 하구에서 멈춘다.[137]

양측 참모장교들이 작성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안이 드디어 합동분과위원회를 거쳐 본회담에서 확정되었다. 1951년 11월 27일 본회담에서 양측 대표들이 의제 제2항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난항을 거듭하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안이 확정되었다. 군사분계선은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남강 하구 남쪽 감호까지 237km에 달하였고 비무장지대는 이를 중심선으로 남북 각 2km씩 4km의 폭으로 결정되었다. 회담의제 제2항은 1951년 7월 26일 휴전회담 의제가 타결된 날부터 만 4개월만인 11월 27일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접촉선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기준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으나, 개성을 휴전회담장과 중립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적측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138]

개성 확보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당시 유엔군 측 한국군 휴전회담 대표인 이형근 소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개성 탈환' 밀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수석대표 조이 제독과 설전을 벌이게 되었다. 조이 제독이 개성을 놓고 "전투에서 빼앗긴 곳을 어떻게 테이블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군인이라면 응당 알아야 할 상식 아닙니까. 10년을 교섭해도 적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유엔군은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단념하세요."라고 말하자, 이형근 소장은 차마 대통령의 명령이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귀하가 그렇게 나온다 해도 개성을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탈환작전의 강행도 불사하겠습니다."라고 반박하였다.[139] 결국 개성지역은 유엔군 측의 협상전략에 따라 포기되었다. 유엔군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군 측은 절대 개성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면 휴전회담 자체가 결렬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140]

제 3 절 정전 및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의

1. 양측의 협상기조와 제안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은 1951년 11월 27일 잠정 군사분계선에 합의함으로써 의제 제2항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30일 시한부 조건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즉, 양측은 의제 제2항을 처리하면서 만일 30일 이내에 나머지 의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11월 27일에 승인된 군사분계선은 무효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머지 의제 세 개는 감시방법을 포함한 휴전의 세부사항(의제 제3항), 전쟁 포로 처리(의제 제4항), 쌍방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의제 제5항)이었다.[141]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은 회담의제 제3항을 처리하기 위해 1951 11월 27일 휴전협상 테이블에서 만났다.[142] 이때 공산군 측의 수석대표인 남일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 제3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다.

첫째, 휴전이 조인되자마자 모든 적대행위는 중지한다.
둘째, 양측의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 조인 후 3일 내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다.
셋째, 양측의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 조인 후 5일 이내에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상대방의 후방·연안도서·해역으로부터 철수한다. 만약 이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철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지연사유가 없을 경우에 상대측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그러한 무장인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넷째, 양측의 모든 무장부대는 비무장지대로 진입할 수 없으며 비무장지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다섯째, 양측은 휴전협정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감독하기 위해 공동책임을 질 정전위원회를 구성할 동수(同數)의 인원을 임명한다.[143]

이에 대해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조이 제독은 “양측이 적대행위 재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의제 제3항의 내용을 공산군 측에게 상기시키면서 ‘사격중지, 감독기관의 구성과 기능 및 권한’이 근본적인 고려사항임을 지적하고 다음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144]

첫째, 정전은 휴전협정 조인 후 24시간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종류의 부대도 이를 준수한다.

둘째, 휴전협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에서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공동감시기구를 설치한다.

셋째, 휴전협정 조인 후 어느 일방도 병력·보급·장비 및 시설의 증강을 하지 않는다.

넷째, 군사정전위원회는 감시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 감시소조로서 전 한국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다섯째, 양측의 군대는 지상군·공군·해군이든 정규군·비정규군이든 상대방이 통제하는 영토에서 철수한다.

여섯째, 비무장지대에는 양측이 특별히 합의하는 것 이외에는 무장부대를 두지 않는다.

일곱째, 양측의 군사지휘관은 휴전협정 조항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해당지역을 관리한다.[145]

이렇듯 유엔군 측이 제시한 안은 대체로 공산군 측의 5개 원칙을 망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의 안에는 유엔군 측이 제시하고 있는 “휴전실현을 위한 적대행위의 재발방지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유엔군 측이 제시한 안에는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③항의 군사력의 증강 금지’와 ‘④항의 군사정전위원회의 자유로운 감시기능’이 있었다. 또한 유엔군 측이 제시한 ‘⑤항(모든 군대의 상대방의 관할지역에서 철수)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유엔군 측은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 후방지역의 특정 연안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군대의 철수에 예외를 두고자 하였다.[146] 휴전회담 의제 제3항에 대한 양측이 제시한 안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휴전회담 의제 제3항에 대한 양측의 제안[147]

유엔군 측 제안	공산군 측 제안
① 휴전협정 조인 후 24시간 내 효력발생, 모든 부대가 이를 준수	① 휴전협정 조인 일부터 모든 적대행위 중지
② 양측 동수의 인원으로써 공동감독기관 설치	⑤ 공동감독책임을 질정전위원회를 구성할 동수의 인원 임명
③ 휴전 조인 후 군사력의 증강금지	
④ 군사정전위원회의 자유로운 감시기능 보장	
⑤ 모든 군대는 상대방의 관할지역에서 철수	③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 조인 후 5일 이내 상대방의 후방·연안도서·해역으로부터 철수
⑥ 합의된 지역 외에는 비무장지대에 무장부대 주둔 금지	② 휴전협정 조인 후 3일 이내 모든 무장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철수
⑦ 양측 군사지휘관은 비무장지대의 해당지역을 각각 관리	④ 무장부대의 비무장지대 출입금지, 군사행동 금지

유엔군 측 견해가 제시된 후 휴전회담의 양측 대표들은 상대방의 제의사항을 검토하였다. 남일은 유엔군 측의 부대·보급품·장비 및 시설증가에 대한 제한과 감시반이 전 한국을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148] 공산군 측은 11월 28일 회담에서 "한국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한국문제를 최종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시설복구 특히 비행장 복구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수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149]

유엔군 측은 이를 반박하며 공산군 측이 외국군의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공산군 측의 5개 항은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평화에 이르는 교량(bridge to peace)'으로서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엔군 측은 7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군사력의 증강 금지는 유엔군사령부가 추구하는 휴전협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150]

이로써 양측이 제3항을 놓고 벌이는 주장은 명백해졌다. 즉, 공산군 측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유엔군의 '군사력 증강 금지 및 이를 감시하는 권한'으로 압축되었다. 유엔군 측이 주장하는 군사시설의 증강 반대는 공산군 측의 비행장 건설

또는 복구를 의미하였다. 이는 유엔군 측이 휴전기간 중에도 제공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151] 이에 따라 의제 제3항은 유엔군 측이 제시한 ③항(군사력의 증강 금지)와 ④항(군사정전위원회의 자유로운 감시 기능)가 중요한 협상의제로 부상하였다.

2. 군사력 증강 금지와 감시 권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의제 제3항을 놓고 벌인 쟁점의 핵심은 군사력 증강 문제였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면서 북한 내에 비행장을 증설함으로써 휴전기간 중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1주일 동안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대측의 제안을 반대하는 팽팽한 설전만을 거듭하였다.

특히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제안이 북한의 재건과 복구를 방해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to interven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비행장만이 이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되며, 도로와 철로 그리고 기타 시설은 복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152]

그러한 가운데 1951년 12월 3일 공산군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하였다. 공산군 측은 1주일 전에 그들이 제안한 5개 원칙에 추가로 2개 항을 제안하였다. 공산군 측이 추가로 제시한 2개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정치회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확고한 군사휴전(military armistice)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체의 병력이나 장비 도입을 금지한다.

둘째, 군사정전위원회는 별도로 비무장지대외의 출입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중립국감시기구를 설치하며, 중립국감시기구 구성을 위해 한국전쟁에 중립적인 국가의 대표들을 초청하는 것에 협의한다.[153]

공산군 측이 추가한 두 가지 제안의 핵심은 일체의 병력 및 장비 도입 불가와 중립국감시기구 설치 및 이를 감시할 중립국 대표를 초청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제안은 유엔군 측이 제시한 군사력 증강금지 제한 보다 한 발 앞선 것이었고, 중립국감시기구 문제도 공산군 측이 미리 선정해 놓은 기본 제안 중의 하나였다.[154]

하지만 공산군 측의 이러한 제안으로 유엔군 측은 수세에 놓이게 되었다. 모든 부대와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나 중립국 감시기구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체의 병력 및 무기도입·교체를 금한다는 것은 병력의 봉충은 일 대 일 기준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동기를 파악하고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을 공산군 측에 제의하였다.[155] 공산군 측은 그들이 제안한 7개 원칙을 먼저 수락하면 유엔군 측 안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회답하였다.

12월 4일 공산군 측은 의제 제3항에 대한 토의를 분과위원회로 넘기자는 유엔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12월 4일 오후 분과위원회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인원교체도 할 수 없고, 장비의 보충도 금지하며, 시설복구는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156]

또한 공산군 측은 12월 5일 개최된 분과위원회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비무장지대로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중립국 자격이 있는 국가는 한반도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은 국가들로, 이를테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에 부가해서 스위스도 중립국이 될 수 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도 유엔군 측에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도 중립국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157]

이에 유엔군 측은 12월 6일에 제3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양측에서 제기된 내용과 쟁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내놓았다. 즉,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제안한 7개 조항을 수정하여 8개 항으로 된 수정안을 공산군 측에 제시하였다.

첫째, 양측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군대(육·해·공)는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둘째, 양측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군대는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72시간 이내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하여야 한다. 단, 양측이 합의 한 경찰 성격을 띤 부대는 철수하지 않는다.

셋째, 휴전협정 제 조항의 수행 및 준수를 감독할 책임을 담당할, 유엔군사령관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지명된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넷째, 군사정전위원회는,

㉮ 동 위원회에 속하는 합동감시반을 포함하여 양측 대표가 상호합의에 따라 전 한반도에 걸쳐 모든 출입항과 교통 중심지를 감시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주요 교통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

㉯ 전 한반도에 대한 합동공중감시와 사진정찰의 권한을 가진다.

㉰ 비무장지대에 대한 완전한 합동감시의 권한을 가진다.

다섯째, 양측은 휴전협정 발효 당시의 한국에 존재하는 부대, 인원, 전투장비, 군사시설 또는 물자의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여섯째, 휴전협정 발효 후 72시간 이내에 양측은 그 통제 하에 있는 육·해·공군을 상대방의 통제지역으로부터 철수시킨다.

일곱째, 양측은 휴전협정의 제 조항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비무장지대의 자기 측 지역을 관리한다.

여덟째, 휴전협정 후 군사정전위원회가 조직되고, 인원이 배치되며 부여된 기능을 발휘할 준비가 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158]

유엔군 측이 최초 제안한 것과 비교하면, 군사정전위원회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이 추가하면서 이전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한 것뿐이었다. 즉, 유엔군 측의 수정안 핵심은 공산군 측의 중립국감시기구 구성을 거부하고, 양측 교전당사국으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합동감시권한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엔군 측은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산군 측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공산군 측의 용어와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유엔군 측 수정안은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

다. 하지만 ⑥항(제한사항)과 ⑦항(감시조항)은 유엔군 측 입장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⑦항에서는 자유사찰을 철회하고 새로이 공중사찰을 포함하였을 뿐이다.[159]

그러나 공산군 측은 제한사항과 감시조항을 놓고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중립국 참가문제와 연안 도서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담을 요구하며 이를 공박하였다. 다음 표는 유엔군 측의 수정안과 공산군 측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표 3-4〉 유엔군 측 수정안과 공산군 측의 반응[160]

유엔군 측 수정안	공산군 측의 반응
① 모든 군대는 휴전협정 효력이후 24시간 이내 모든 적대행위 중지.	1. 수락
②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 효력이후 72시간 내 비무장지대에서 철수	2. 수락
③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 효력이후 5일 이내상대방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철수	3. 유엔군은 모든 연안 도서에서 철수
④ 비무장지대에서 무장부대 진입 및 군사적 행위 금지	4. 수락
⑤ 휴전협정의 이행 감독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구성할 동수의 인원 지명	5. 합의
⑥ 휴전협정 발효 시 보유 이상의 부대·인원·장비 증가 금지 및 군사시설 재건·복구 금지 (제한조항)	6. 반대(발효후 인원·부대·물자 금지. 군사시설의 재건복구 제한은 내정간섭)
⑦ ㉮ 군사정정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은 한국 전역의 병참선과 상호 동의한 육·해·공의 통관 항(港) 및 통신 센터 감시 권한. ㉯ 군사정전위원회는 전 한반도 상공의 공중관찰과 사진정찰 권리. ㉰ 군사정전위원회의 비무장지대 감시 권리 (감시조항)	7. 중립국 감시기구의 설치와 정전위원회와의 구분 미언급. 후방지역에서 중립국 감시반은 통관항만 감시. 공중사찰은 내정간섭. 감시당하는 휴전반대
⑧ 군사정전위원회는 동위원회가 조직되고 인원이 구성되어 부여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낼 때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8. 합의

3. 양측의 주요 쟁점과 견해 차이

양측은 1951년 12월 7일까지 계속된 협상과정에서 의제 제3항의 문제점을 4개로 줄여 나갔다. ①새로운 부대의 도입금지(예를 들면, 그 금지가 보충병의 도입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②시설 특히 비행장 건설. ③근해도서의 지휘. ④감시반 구성(공산군 측이 원하는 대로 중립국으로 구성할는지 아니면 유엔군 측이 희망하는 대로 교전 당사국 공동대표로 구성할는지) 및 이들과 군사정전위원회와의 관계 등이었다.[161]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에 이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였다. 워싱턴에서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미 합참을 통해 4개 항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 지시사항은 12월 7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고 12월 1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리지웨이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첫째, 병력 보충과 교대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
둘째, 시설을 복구하는 문제는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으나 비행장에 관한 문제가 휴전을 성립시키는데 최후의 장애가 된다면, 반드시 워싱턴의 승인을 거쳐 입장을 수정해야 한다.
셋째, 군사분계선 이북 도서에서 철수하는 문제와 중립국 감시소조 구성에 동의한다.
넷째, 중립국의 선별은 반드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중립국감시소조는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162]

워싱턴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유엔군 측은 12월 12일 의제 제3항의 미결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계선 북방 연안의 도서와 영해로부터 유엔군 측이 철수하고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중립국이 감시반에 인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에 동의한다.
반면 공산군 측은 인원의 교체와 장비보충을 허용하고 중립국 감시반을 군사정전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비행장의 건설과 북구를 금지하는 유엔군 측 주장은 변함이 없다."[163]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공산군 측이 병력교체에 월 5,000명 선을 허용하는 등 중립국 감시기구 운용에도 다소의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12월 중순까지 양측은 여전히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지상 및 공중감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이러한 상황에 난감하였다. 잠정 군사분계선 협정 체결 시에 규정한 30일 마감 시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의제 제3항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의제는 협상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워싱턴에 보고하고 지침을 요망하였다. 이때 워싱턴에서는 휴전 후 정치회담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휴전이 유일한 합의사항(협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워싱턴에서는 12월 19일 비행장의 건설과 복구문제, 공중감시, 인원교체와 장비 보충, 중립국 감시반, 임시휴전기간 연장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첫째, 비행장의 건설과 복구 : 장기적인 면에서 모든 비행장 복구의 완전한 금지는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제트기용을 제외한 비행장의 재건 및 유지는 허용한다.

둘째, 공중감시 : 바람직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최종 입장에서 비록 지상감시가 없는 곳일지라도 양보해야 한다.

셋째,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 적절한 인원교체를 승인하든가, 전체적인 병력 수준이 휴전이 유효할 당시의 수준보다 증가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으며 장비보충은 증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완강히 주장해야 한다.

넷째, 중립국 감시반 : 주요 출입항에 주재하며, 필요시에는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임시휴전기한(12월 27일)이 다 되어도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제의하거나 동의해야 한다.[164]

유엔군 측은 30일간의 기한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훈령을 받은 다음날인 12월 20일 의제 제3항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 참모장교회의[165]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휴전기한이 끝나는 1951년 12월 27일에 그

동안 참모장교회의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진 결과 의제 제3항에 대한 쟁점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아직도 중요한 사항이 미결로 남았다. 남은 문제는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문제, 지상 및 공중감시, 비행장 건설 및 복구문제였다.

인원교체와 장비문제에 대해서 유엔군 측은 휴전 발효 시의 수준에서 제한 없이 인원교체와 장비의 보충보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공산군 측은 휴전 발효 후 인원의 교체는 일부 허용하되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보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지상 및 공중감시문제에 대해서 유엔군 측은 지상감시는 출입항과 주요 교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실시하며 공중감시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공산군 측은 지상감시는 한정된 출입항에서만 실시하며 공중감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비행장 건설 및 복구문제에 대해서 유엔군 측은 휴전의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비행장을 현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비행장 재건을 막겠다는 것이었고, 공산군 측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양측의 견해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차이점[166]

미해결 사항	양측의 주장	
	유엔군 측	공산군 측
① 인원교체와 장비보충	1. 휴전발효 시 수준에서 제한 없이 인원교체와 장비 보충보급 실시	휴전 후 인원교체 월간 5천명 이내로 정전위원회 승인 필요, 장비보충 불가
② 지상 및 공중 감시	1. 지상감시는 출입항과 주요 교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실시 2. 감시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둠	1. 지상감시는 한정 출입항에서만 실시 2. 공중감시 불필요 3. 감시기구 별도 운용
③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휴전보장 위해 양측은 비행장을 현 상태 유지	비행장 건설 및 복구제한은 내정간섭

잠정 군사분계선의 30일 임시휴전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제3항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비행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공산군 측은 비행장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유엔군 측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휴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한요소로서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잠정 군사분계선 타결 시 양측이 합의한 30일 임시휴전기한이 지난 12월 29일 유엔군 측은 비행장 문제에 대해 공산군 측이 양보하면 공중감시에 대한 요구조건을 철회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산군 측은 이 제의를 표현상의 양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은 공중감시, 도서의 지위, 감시기구 및 조사반의 성격, 비행장의 복구문제에서 중요한 양보를 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 대표가 "비행장 복구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변경하기를 기대한다면 공산군 측 대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늙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공산군 측 대표는 "그러면 여기 앉아서 늙을 것"이라고 응수하였다.[167]

제 4 절 전쟁포로에 관한 협상

1. 제네바 협약에 나타난 포로송환의 문제점

1951년 11월 하순까지 판문점에서 토의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제 제4항의 포로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에서 포로송환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는 1929년에 체결되고 1949년 8월 12일 수정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the Geneva Convention)"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주요 당사국인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서명하였고, 한국정부와 북한도 전쟁발발 직후에 제네바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168]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1950년 7월 4일 북한당국에 "자신의 부대에 의해 포획된 북한군들은 문명국가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방송하였다. 이어서 그는 "나는 북한을 위하여 이 원칙에서 벗어나든가,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명령하는 어떤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책임지고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169]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의 이러한 '포로관련 선언을 승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1950년 7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협정의 서명국가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선언하고, "제네바협약의 조건들(conditions)을 준수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로부터 8일후인 1950년 7월 13일 북한외상 박헌영(朴憲永)은 "국제적십자사(the International of the Red Cross: ICRC)에 의해 자극받아 북한은 제네바협약의 서명국은 아니지만 포로처리에 있어 그 규정들(rules)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170]

이처럼 양측이 인정한 제네바협약 제118조를 보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항

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천 명의 전쟁포로를 오랫동안 '노예적 노동자수용소(slave labor camps)'에 수용한 공산주의자들의 반인류적 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171] 또한 제네바협약 제7조에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전쟁포로는 본 협약에서 부여한 그들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포로협상 과정에서 공산군 측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와 제7조를 근거로 포로송환을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은 건국 이래 포로에 관해서는 자원송환과 포로 자신에게 귀환할 선택권을 주었다. 미국은 독립전쟁이 끝난 후 체결된 1783년 파리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포로는 석방되어야 한다."를 적용하여 수 천 명에 달하는 영국과 독일군 포로를 그들의 자유의사에 맡겨 석방하였다. 이에 따라 석방된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후 소련이 그들의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독일과 일본군 포로들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함으로써 전쟁포로 취급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에서는 전쟁포로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을 마련한 목적은 소련이 자행한 것과 같은 잔인한 포로취급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직 신속한 포로 송환만이 인도적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172]

그러나 제네바협약에서는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포로 중에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 귀국을 거부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귀국을 원치 않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기 나라의 정치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3국을 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1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바로 이것이 의제 제4항을 토의하는데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공산군 측은 이를 최대로 이용하며 유엔군 측을 압박하였다.

2. 포로교환에 대한 양측의 주장

의제 제4항(포로교환 처리)에 대한 회담은 1951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토의할 제4의제 분과위원회의 양측 대표는 각각 2명이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리비(R. E. Libby)와 히크맨(G. W. Hickman)이었고, 공산군 측에서는 이상조(李相朝)와 차이청원(柴成文)이었다.

포로처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달랐다. 공산군 측은 모든 포로의 일관교환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모든 포로의 전원송환, 즉 무조건 송환과 강제송환을 의미하였다. 반면 유엔군 측은 일대일(1:1) 교환과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51년 6월 30일 휴전회담 직전 미 합동참모본부가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하달한 포로협상과 관련한 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있었다.[174]

포로협상을 위한 분과회의 첫날부터 공산군 측은 한 가지 원칙만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로를 휴전협정 조인 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75] 반면에 유엔군 측은 포로를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조기 포로교환이 바람직하다는 원칙하에 회담의 첫 단계로 전체 포로 명단의 교환,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다.[176]

포로교환 협상은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할 것으로 여겨졌다. 양측이 서로 인정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의 모든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공산군 포로가 송환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국군으로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북한군에 강제 편입되어 다시 국군에 포로가 된 자와 중공군 포로 중 중국 국부군 출신이 각자 대한민국과 자유중국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포로 심문과정에서 나타났다. 포로 심문 도중 한 포로가 "우리들은 북한군의 포로가 된 국군이며 강제로 북한군의 전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북한에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177]

이에 유엔군 측에서는 송환을 원하는 포로만 송환시키는 자원송환 원칙을 관철시키되, 공산군 측에 억류된 모든 유엔군 포로를 안전하게 귀환시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일대일(1:1) 교환방식'을 추진하였다. 반면, 공산군 측은 제네바협약에 명시된 표면상의 문구에 기초하여 모든 포로의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전체 대 전체(all-for-all) 교환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178]

12월 11일 분과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은 전체포로의 성명(국별 명단), 포로수용소의 위치, 포로수용소별 인원 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수용소 출입허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할 것을 공산군 측에 요청하였다.[179]

이에 공산군 측은 다음날인 12월 12일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양측은 현재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를 석방한다는 원칙을 확정한다.
> 둘째, 휴전협정 조인 후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양측은 단계적으로 각자 수용하고 있는 전체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완료하기로 정하며, 중상을 입은 포로는 첫 단계로 석방하고 송환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 셋째, 양측이 포로를 교환하는 장소를 판문점과 개성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
> 넷째, 정전위원회에 양측이 각각 동수의 인원을 파견해 포로송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술한 협의에 따라 전체포로의 교환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 다섯째, 상술한 각 항은 양측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후 양측은 현재의 전체 전쟁포로 명단을 즉각 교환한다.[180]

이처럼 공산군 측은 전체 전쟁포로 석방원칙 확정, 정전협정 조인 후 최단 시일 내에 포로전원의 석방과 송환 완료, 포로교환 장소로 판문점과 개성 선택, 양측 동수로 포로송환위원회 설치,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합의가 되어야 포로명부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즉, 공산군 측은 포로전원 송환이라는 자신들의 포로송환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다른 사항을 토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담은 일주일 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양측은 결국 1주일이 지난 12월 18일에 공산군 측이 "포로명부를 교환하자."고 양보함에 따라 포로명부를 교환하게 되었다.[181]

3. 포로명부 교환이후 포로협상의 난항

양측이 포로명부 교환에 합의한 후 공산군 측이 보내 온 포로명단은 유엔군 측을 실망시켰다. 이는 유엔군 측이 예상했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 것이었다.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에 제출한 포로명단을 보면, 국군 포로 7,142명과 유엔군 포로 4,417명(미군 3,198명 포함)을 포함하여 11,559명이었다.[182] 이는 전쟁초기에 북한측이 발표한 포로가 65,000명이었고, 국군과 유엔군 측이 추정한 실종자만 해도 국군 88,000명, 미군 11,500명이었다. 그런데 단지 110명의 명단만이 1950년 가을에 공산군 측에 의해 제네바 주재 국제적십자사에 통보되었고, 이들 중 44명만이 이번 공산군 측이 제출한 명단에 들어 있었다.[183]

〈표 3-6〉 공산군 측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내역[184]

국 가	인 원	국 가	인 원(명)
한 국	7,142	호 주	6
미 국	3,198	남아공	4
영 국	919	일 본	3
터 키	234	캐나다	1
필리핀	40	그리스	1
프랑스	10	네덜란드	1
계 : 11,559명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에게 건내 준 포로명단은 총 132,474명이었다. 그 중 북한인 95,531명, 중국인 20,700명, 전 남한인 16,243명이었다. 공산군 측도 유엔군이 제출한 명단에 불만이었다. 그들은 실종자를 188,000명으로 추산하였는데 132,474

명만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4일간의 휴회를 마치고 12월 22일 개최된 합동분과위원회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제출한 한 명부에서 44,259명이 부족하고, 다른 명부에서 1,456명이 부족하다."며 항의하였다.[185]

이에 대해 유엔군 측에서는 "남한 출신의 많은 민간인이 전쟁 중 잘못 생포되었거나 공산군 측에 강제 입대당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속하는 포로 중 귀측에 자원입대한 자들을 제외하고 37,000명이 민간인 수용자로 재분류되었고, 그 밖에 16,000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도 민간인으로 판명되면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산군 측에 전달하였다.[186] 한국정부도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된 국군을 모두 석방해야 하고, 강제로 편입된 민간인 포로를 돌려보내서는 안 되며, 납치당한 민간인은 모두 복귀해야 한다."고 유엔군 측에 통보하였다.[187]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해명을 듣고 즉각 항의하였다. 공산군 측은 "포로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라 포로가 복무했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네바협약 제4조에는 "실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도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공산군 측의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188]

유엔군 측은 이를 회피하면서 포로명단 교환을 통해 밝혀진 공산군 측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유엔군 측은 다음의 3가지에 대해 공산군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공산군 측이 억류하고 있는 11,000여명과 유엔군 측이 억류하고 있는 132,000여명을 교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의제 제3항을 토의할 때 귀측은 휴전성립 후에 군사력 증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포로에 대한 전체교환을 하게 되면 귀측은 10개 사단에 해당하는 인원이 증가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초기 귀측이 발표한 포로가 65,000명이었는데 포로명부를 보면 국군 포로가 불과 7,000여명만 등재된 이유는 무엇인가?[189]

한편 공산군 측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12월 21일 요청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북한포로수용소 방문 허가에 대해 "우리는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공산군 측은

“포로에 대하여 가장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입장을 변호하였다.

이처럼 포로교환 협상을 놓고 양측의 논쟁은 계속되었다. 12월 24일 양측은 회담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유엔군 측은 “귀측은 억류하고 있는 포로 전원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공산군 측은 “포로명부에 있는 인원이 적은 것은 포로들을 재교육시켜 전선에서 석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하였다. 또 다시 유엔군 측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177명만이 귀환했는가? 이는 귀측이 국군 포로들을 강제로 공산군에 입대시킨 증거이다.”라고 추궁하자, 공산군 측은 “지원자만을 입대시켰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190]

그러한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한적이긴 하나 포로들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공산군 측은 병상포로들의 교환을 거부하면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포로로 억류 중인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191]

하지만 포로교환에 대한 논쟁은 끊이질 않았다. 1951년 크리스마스에도 회담은 계속되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그 다음날인 12월 26일 양측의 설전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의 ‘전체 대 전체(all-for-all)’ 교환방식을 ‘사기이며 정직하지 못한(fraudulent and dishonest)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유엔군 측의 입장에서 공산군 포로 130,000명과 유엔군 포로 11,000여명을 맞바꾸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이에 공산군 측도 유엔군 측이 국제적십자사로 통보한 보고서에서 누락된 한국 주민 44,000명을 송환할 것을 주장하며, 12월 18일 그들에게 건네 준 명단과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192]

1951년 12월 말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은 포로처리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회담 기간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은 공산군 측이었다. 잠정 군사분계선 타결 이후 보장받은 30일간의 임시 휴전기간은 공산군 측에게 군비증강의 기회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공산군 측은 춘계공세 이후 소진된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짐으로써 공세작전도 펼칠 수 있는 전열을 갖추게 되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양측의 휴전회담 전략과 의미

1)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 전략과 의미

휴전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유엔사무총장의 1951년 6월 1일 발언에서 읽을 수 있다.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6월 1일 성명에서 “대략 38도선에 연한 휴전은 만일 그것이 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과 7월의 결의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한 유엔대사들도 모두 회담에 찬성하였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유엔의 분위기와 소련의 의도를 고려하여 군사적 수준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에 대한 일반지침으로 “휴전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관심은 한국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 확보에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 장군에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은 대단히 어려움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 마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담을 파기해서는 안 되며, 유엔군사령부의 신의를 의문시하게 되는 국제적 여론을 유발할 어떤 속임수를 쓰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아울러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관철해야 할 기본입장(최저 양보선)과 주장해야 할 세부지침을 하달하였다. 이것은 유엔군 측이 따라야 할 협상 기본방침이자 휴전회담 전략이었다. 기본 요지는 이 회담은 순수하게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로 제한하고 정치나 영토적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옹진반도와 연안지역이 휴전목적이라면 공산군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전쟁 이전 현상에서 평화를 회복할 경우, 군사상 이 지역이 방어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취약하여 방어선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군 측은 서부전선에서의 영토의 손실을 동부전선에서 보상할 만큼 북상해 있었고, 휴전 시 경계선은 38도선이 아니라 양측의 접촉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성을 포함한 옹진·연안지역의 포기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상·해상·공중 방위에 직접적 위협요인이 되었고, 후일 휴전상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무기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그 위협은 더욱 더 가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군의 휴전회담 전략은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공권과 제해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상태에서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도서들까지 포함하였다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 협상시 유엔군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었는데 이 점을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2)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전략과 의미

공산군 측은 스탈린이 휴전회담 전반을 조정·통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마오쩌둥이 회담을 주도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스탈린은 남침전쟁 계획을 주도하고 전쟁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전회담 전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나갔다. 스탈린은 휴전회담에 임하면서도 휴전회담장소로부터 회담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 전략방침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공산군 측이 전략방침으로 내세운 것으로는 전투행위와 사격중지 시간, 양측 군대의 38도선을 중심으로 5-10km이상 철수, 사격중지와 38도선에서의 항공기 비행중지, 해군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2개월에 걸친 외국군 철수, 전쟁포로 교환 및 피랍된 시민 귀환 등이었다. 이것을 뒤에서 조종·통합한 것은 역시 스탈린이었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 임하는 전략방침을 결정한 후에는 서두르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여기에는 휴전회담 장소를 비롯하여 군사분계선 선정에서 유엔군에게 유리한 제공권과 제해권을 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산군은 전략적 이익을 챙기면서 전술에서 양보를 하는 휴전회담 전략을 채택하였다.

2. 양측의 휴전협상 지도체계와 특징

1) 공산군 측 휴전회담 지도체계와 대표단 구성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지도체계의 최상층부에는 스탈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스탈린은 휴전회담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공산권의 이익을 고려하며 휴전회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스탈린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철저히 마오쩌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의견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개진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받는 정도였다. 따라서 공산군 측 휴전회담의 지도체계는 스탈린-마오쩌둥(때때로 김일성 의견 반영)-리커눙(李克農)-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여기서 중국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제외되었다. 그는 필요시 휴전회담에 대한 의견만을 개진하였다.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위해 휴전회담장이 있는 개성에 전방지휘부를 설치하여 휴전회담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나갔다. 이를 위해 마오쩌둥은 자신의 휴전회담 전략을 충실히 수행할 협상전문가를 전방지휘부로 파견하여 운용하였다. 마오쩌둥은 협상전문가인 외교부 부부장 리커눙(李克農)과 그의 보좌관인 치관화(喬冠華)를 북한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실무진도 함께 파견하였는데, 이들로는 하버드(Harvard)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푸산(浦山),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사의 딩밍(丁明)과 선지앤투(沈建圖)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선 상황과 휴전회담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급장교가 이들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1951년 7월 6일 북한으로 들어왔다.

휴전회담 기간 중 마오쩌둥은 공산군 측의 협상원칙이나 기준, 상위의 전략문제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탈린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고 시행하였다. 휴전회담 진행 과정에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그 내용을 스탈린에게 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마오쩌둥에게 있었다.

이처럼 공산군 측 휴전회담 지도체계는 스탈린-마오쩌둥-리커눙-휴전회담 대표로 연결되었으나 마오쩌둥이 마련한 지도체계의 상층부에는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있었고, 스탈린과 펑더화이는 자문역이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김일성과 협의는 하였지만 휴전회담의 지도체계의 중요한 연결 고리는 마오쩌둥과 리커눙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었다. 따라서 공산군 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북한의 남일(南日)이나 김일성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2) 유엔군 측 휴전회담 지도체계와 대표단 구성

유엔군 측의 휴전협상 지도체계는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 즉, 미국 대통령-국무부 및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관-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는 단일 지도체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미 제8군사령관은 완전히 제외되었다. 특히 지도체계에 포함된 유엔군사령관도 비록 휴전회담의 '지도라인(directive line)'에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휴전회담 전략 및 정책 수립단계에서 제외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은 워싱턴의 대변자 또는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자 또는 자문 역할이었다.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회담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군사문제에 관하여 미 합동참모본부로 보낼 건의사항과 유엔군 측 대표단에 대한 지시와 훈련의 전달을 위하여 실제적 준비와 지원을 책임지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 중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이것

이 전부였다. 이를 위해 그는 문산(汶山)에 유엔군 측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이곳을 방문하거나 도쿄(東京)의 유엔군사령부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조이(C. Turner Joy) 제독과 무전으로 휴전회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엔군 측 문산 기지에는 유엔군사령부 및 위싱턴의 휴전회담을 위한 전방지휘소장 격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운용단(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단장인 라이트(Edwin K. Wright) 육군준장이 상주하며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엔군 측 휴전회담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워싱턴의 중앙통제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워싱턴에서는 휴전회담의 기본방침부터 세부적인 지침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고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 휴전회담은 미국 주도하에 한국과 유엔 참전 16개국을 배제시킨 채 워싱턴에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직접 휴전회담을 통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회담 대표단 구성과 임명도 미국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3) 양측 휴전회담 대표단 구성의 특징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지도체계와 대표단 구성을 볼 때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측이 모두 전쟁당사국인 남북한을 제쳐두고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공산군을 대표하는 중국이 휴전회담을 주도하였고, 이를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그들이 내세운 지도체계를 지켜나갔다는 점이다.

또한 휴전회담 대표 구성에 있어서 유엔군 측은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구성된데 비해, 공산군 측은 북한을 배려하는 흔적을 남겼다. 즉, 공산군 측은 수석대표를 북한 측에서 임명하고 전체 대표 수도 북한이 1명 더 많이 배정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선전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었고, 휴전회담장에서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미리 짜여 진 각본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최초 김일성은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를 추천했으나 중공군 수뇌부에서 사령관이 회담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제1부사령관인 덩화(鄧華)가 나가게 되었다.

3.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장소 선정 전략

휴전회담을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개성과 판문점으로 정해짐으로써 유엔군 측과 한국은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지역이 휴전회담 장소로 되면서 회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역이 중립지역으로 변화면서 이후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 북진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개성은 결국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후 북한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최초 휴전회담 문제가 오고갈 때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회담 장소로 원산에 정박하여 있던 덴마크 병원선에서의 회담개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마오쩌둥이 휴전회담 장소로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던 개성을 고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군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후 휴전회담 장소가 비록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겼다고는 하나 거리상으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엔군 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휴전회담 장소가 개성으로 판문점으로 바뀐 것은 휴전회담 중 미 공군기가 회담지역을 통과하면서 기총사격을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유엔군 측이 사과하고 공산군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양측은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는 개성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던 문산 지역일대까지도 회담지역으로 설정하고 중립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립지역 침범으로 중단되었던 회담이 1950년 10월 25일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유엔군 측이 안전보장에 공평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서 중립지역에 속한 판문점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김에 따라 현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경우

개성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성은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38도선 이남의 역사적인 도시를 차지하려는 공산군 측이나 이를 되찾으려는 유엔군 측 모두에게 개성은 전쟁의 승리를 말해주는 상징적 존재였다. 그러나 참전국들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회담을 빨라 끝내야 했던 유엔군 측은 결국 개성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 후 유엔군과 한국은 서울에 이르는 접근로상의 개성을 잃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전략적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집필 : 남정옥)

주(註)

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이하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로 통일)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2.

2) 이 두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정전(cease-fire 또는 truce)은 군사적인 목적을 두고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한 적대행위의 중지를 의미한다. 휴전(armistice)은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한 적대행위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휴전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정전을 통해 전쟁과정의 적대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이서항, 「유엔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Lee Book(리북), 2004, 57쪽; Yoram, Dinstein, "Armistice", in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3(New York: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82), pp.31-34.

3)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이하 *FRUS*), 1951, Vol. Ⅶ, Korea and China, Part 1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pp.546-54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21.

4)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3, 133-135쪽; *FRUS*, 1951, Vol.Ⅶ, Part 1, pp.553-56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2.

5)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3, 133-135쪽; *FRUS*, 1951, Vol.Ⅶ, Part 1, pp.553-56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2.

6)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3, 133-135쪽; *FRUS,* 1951, Vol.Ⅶ, Part 1, pp.553-56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2.

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2.

8) *New York Times*, 2 Jun 5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1; James Barros, *Trygve Lie and the Cold War*,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9, p.305.

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3; 육군본부, 『판문점』상, 41쪽.

10) Message JCS 95174 to CINCEF, 28 Jun 51; *FRUS*, 1951, Vol. Ⅶ, Korea and China, Part 1p.47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3

11)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45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4.

12) Message JCS 95354 to CINCUNC(personal for Ridgway), 30 Jun 5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4.

1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4.

1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5.

1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5.

16) Message JCS 95354 to CINCUNC(personal for Ridgway), 30 Jun 5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5-6.

1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4.

18)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6쪽.

19)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7쪽.

20)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8쪽.

21)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9쪽.

22)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 3, 140쪽.

23)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7.3., 沈志華 편,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대만: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叢刊(48), 853-854쪽;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36-37쪽 재인용.

24)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7.3., 沈志華 편,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대만: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叢刊(48), 855쪽; 김보영,「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37쪽 재인용.

25) *FRUS*, 1951, Vol.Ⅶ, Part 1, p.60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2005, 76쪽.

26)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 16;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 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 184.

27) 합동전력계획 및 작전운용단(JSPOG)은 1949년 8월 20일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에 의해 설치되었다. JSPOG는 극동군사령부의 육·해·공군 고급장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무는 전구작전 차원의 수준 높은 기획(planning)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6·25전쟁 시 JSPOG는 유엔군사령부의 주요기획부서(principal planning agency)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7.

2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15.

2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 15.

3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 16;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 459.

3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 16.

3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 6.

3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1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전사편찬위원회, 1989, 397쪽;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홍인표 역,『중국이 본 한국전쟁』, 273쪽.

34) 리커눙은 1928년 이래 중국 외교부 제1부부장 겸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 정보부장이었다.

35) 치관화는 국제문제에 발고 재기발랄한 외교부 정책위원회 부회장 겸 국제신문국장이었다.

3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184쪽.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권, 92쪽.

38)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39쪽.

39)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중국해방군문예출판사, 1991, 홍인표 역,『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1992, 273쪽.

40)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홍인표 역,『중국이 본 한국전쟁』, 273쪽.

4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23;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98쪽;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홍인표 역,『중국이 본 한국전쟁』, 273쪽.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권, 82쪽.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98-399쪽.

44) 시성문, 『판문점 담판』(북경: 해방군출판사, 1989), 130-131쪽;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34쪽.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398-399쪽.

4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7, 23.

47) *FRUS*, 1951, Vol.Ⅶ, Part 1, p.649.

48) *FRUS*, 1951, Vol.Ⅶ, Part 1, p.649.

49) *FRUS*, 1951, Vol.Ⅶ, Part 1, p.650.

50) *FRUS*, 1951, Vol.Ⅶ, Part 1, pp.652-653.

51) *FRUS*, 1951, Vol.Ⅶ, Part 1, pp.652-653.

5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24.

53) *FRUS*, 1951, Vol.Ⅶ, Part 1, p.653.

54) *FRUS*, 1951, Vol.Ⅶ, Part 1, p.653.

55) *FRUS*, 1951, Vol.Ⅶ, Part 1, pp.660-661.

5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21.

57) *FRUS*, 1951, Vol.Ⅶ, Part 1, p.65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24.

58) *FRUS*, 1951, Vol.Ⅶ, Part 1, pp.660-66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27.

5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27; Vatcher Jr., *Panmunjom,* p.36.

60) Vatcher Jr., *Panmunjom*, p.35.

61) *FRUS*, 1951, Vol.Ⅶ, Part 1, pp.672-673. 이는 방송 후 연락장교를 통하여 공산군 측에 직접 전달되었다.

62) Vatcher Jr., *Panmunjom*, p.35.

63) *FRUS*, 1951, Vol.Ⅶ, Part 1, p.685.

6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29.

6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0.

6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0.

67) *FRUS*, 1951, Vol.Ⅶ, Part 1, p.706.

68) *FRUS*, 1951, Vol.Ⅶ, Part 1, p.727.

69) Vatcher Jr., *Panmunjom,* p.43.

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87-88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72쪽.

71) 38도선의 4번 횡단은 1차(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 2차(신정공세), 3·차(1951년 4월 및 5월 공세) 등이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88쪽.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88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73쪽.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88쪽.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89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73쪽.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89쪽.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89-90쪽.

7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7.

78) 육군본부, 『판문점』상, 88쪽.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91-92쪽.

80)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 19.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92-93쪽.

8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Part Two, p. 19.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94-97쪽.

84) *FRUS*, 1951, Vol.Ⅶ, Part 1, p.80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8.

85) *FRUS*, 1951, Vol.Ⅶ, Part 1, p.801.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98쪽.

8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9.

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98-101쪽.
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1쪽.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3쪽.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3-104쪽.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4쪽.
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4-105쪽.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5쪽.
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5쪽.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6쪽.
97) *FRUS*, 1951, Vol.Ⅶ, Part 1, p.848.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6쪽.
9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2-43.
100) *FRUS*, 1951, Vol.Ⅶ, Part 1, p.848.
1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7쪽.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7-108쪽.
10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3.
1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9쪽.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09쪽.
106) *FRUS*, 1951, Vol.Ⅶ, Part 1, pp.873-875.
107) *FRUS*, 1951, Vol.Ⅶ, Part 1, pp.884-885.
10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5.
109) *FRUS*, 1951, Vol.Ⅶ, Part 1, pp.906-910.
110) 육군본부, 『판문점』 상, 107쪽; 리지웨이 장군 서한(1951. 9. 17).
111) *FRUS*, 1951, Vol.Ⅶ, Part 1, pp.923-924; 육군본부, 『판문점』 상, 107-108쪽.
112) 육군본부, 『판문점』 상, 108쪽.
113) *FRUS*, 1951, Vol.Ⅶ, Part 1, p.965.
114)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p.73.
11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46.
116) *FRUS*, 1951, Vol.Ⅶ, Part 1, pp.1059-1060;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pp.74-7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0.
117) *FRUS*, 1951, Vol.Ⅶ, Part 1, pp.1059-1060;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pp.74-7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50.
1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28쪽; 육군본부, 『판문점』 상, 123쪽.
1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28쪽.
120) *FRUS*, 1951, Vol.Ⅶ, Part 1, pp.1061.

121) 백선엽,『군과 나』, 215쪽;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69-70쪽.

1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29쪽; 육군본부, 『판문점』 상, 127쪽.

1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29쪽; 육군본부, 『판문점』 상, 127-128쪽.

124)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70쪽.

125) Vatcher Jr., *Panmunjom*, p.3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15.

126) Vatcher Jr., *Panmunjom*, pp.82-83.

127) Summary of Proceedings, Eighteenth Session, 12th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국사편찬위원회 편,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221-243쪽.

12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212쪽.

12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213쪽.

13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213쪽.

13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30.

13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30.

13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214쪽.

134) FRUS, 1951, Vol.Ⅶ, Part 1, p.1147.

13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215쪽.

136) Vatcher Jr., *Panmunjom*, p.85.

137) 육군본부, 『판문점』 상, 131쪽.

13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218쪽.

139)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70-72쪽.

14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218쪽.

14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46.

142) 이 회기 중에 크레이기 공군소장이 터너(Howard M. Turner) 공군소장으로 교체되었다.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23.

143) *FRUS*, 1951, Vol.Ⅶ, Part 1, p.118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49.

144) *FRUS*, 1951, Vol.Ⅶ, Part 1, p.1188.

145)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 49-50.

14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0.

147) *FRUS*, 1951, Vol.Ⅶ, Part 1, pp.1187-118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 49-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

회, 『한국전쟁 휴전사』, 150쪽.

14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23-124.

14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0.

150) Transcript of Proceedings, Twenty-ninth Session, 28, Nov 5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24.

15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24.

15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24.

153) *FRUS*, 1951, Vol.Ⅶ, Part 1, p.122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0.

154)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118쪽.

15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25.

15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25.

1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57-158쪽.

158) Transcript of Proceedings, Third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3,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6, Enclosure (1) Meeting of Staff Officers to Determine Contact Line, Held at Pan Mun Jom, 6 December 1951, 『남북한 관계사료집』 4권, 45-62쪽.

159)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287쪽.

160)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 287쪽.

16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1.

16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 51-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59쪽.

163) Transcript of Proceedings, Ninth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3,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12,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3 Summary Proceedings Pan Mun Jom Meetings Session 1 (4 December 1951) through Session 71 (19 April 1952),『남북한관계사료집』4권, 169-191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59쪽.

164) *FRUS*, 1951, Vol.Ⅶ, pp.1377-138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3.

165)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제3의제의 문안을 실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참모장교회의가 1951년 12월 20일부터 1952년 4월 7일까지 열렸다.

1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65쪽.

16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5.

16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35-13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9.

16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5.

170) William L. White, *The Captives of Korea*, 1957, pp.6-7, 26-2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8.

17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35-13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59.

172)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35-136.

1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2쪽.

17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 58-5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35-136.

175) Transcript of Proceedings, First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4,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11,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4 Summary Proceedings Pan Mun Jom Meetings Session 1 (11 December 1951) through Session 71 (15 March 1952),『남북한관계사료집』5권, 3-18쪽.

176)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 68-69.

177) 육군본부 역, 『한국전쟁』10권, 196쪽.

178)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 68-69.

1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2쪽.

180) Transcript of Proceedings, Second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4,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12,『남북한관계사료집』5권, 169-191쪽.

18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1.

18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70.

18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1;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70.

184)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5쪽. 일본인은 후에 미국 국적으로 판명되었다.

18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1.

18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70.

18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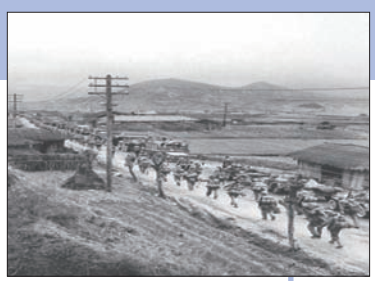
1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6쪽.

18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7쪽.

190) 여기서 지원자를 입대시킨 것은 '자원송환'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에 유엔군 측은 자신들이 억류중인 공산 포로들에 대해 자원 송환시킬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7쪽.

1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78쪽.

192)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Part Two, pp. 70-71.



제4장 유엔군의 반격과 전선의 교착

제1절	개 요
제2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제3절	작전경과
제4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개 요

1. 전장상황 요약

제4장 '유엔군의 반격 및 전선의 교착'은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한 후 반격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한 지역에서 국지전에 돌입할 때까지의 작전 및 전투상황을 다루고 있다. 기간 중 국군과 유엔군은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서울 북방-마석-용문산-홍천-하진부리-대관령-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한 후 5월 23일 반격으로 전환, 가평-화천 진격전 등을 전개하면서 공산군측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 후 국군과 유엔군은 진격을 계속하여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거진 북방을 연하는 지역 일대까지 진출한 후 6월 15일 이후부터 공산군과 서로 마주 보면서 장기적인 국지전에 돌입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전략과 작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략적인 차원에서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25전쟁의 발발부터 춘계공세에 이르기까지 밀고 밀리는 격전을 치룬 결과 유엔군과 공산군은 쌍방 모두 어느 일방의 결정적인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감내할 수 없는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무한정한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공군과 이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동시에 자유진영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공산군 또한 유엔군의 한반도 축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세작전을 단행하였지만, 화력과 기동력의 열세로 인하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병력보충과 물자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산군은 자발적인 철수를 결정하였고 국군과 유엔군도 제한적인 군사작전만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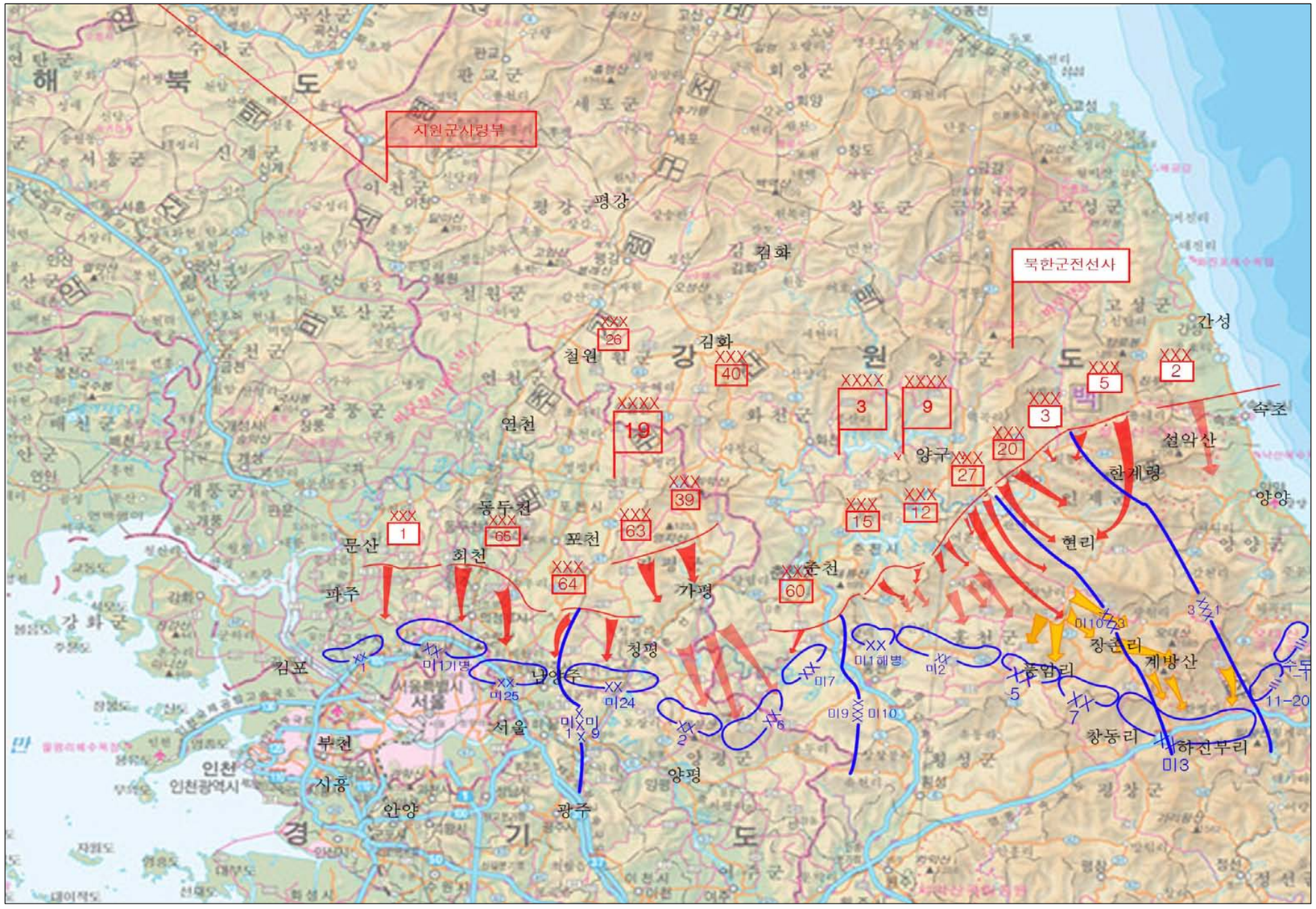
황은 전쟁발발 1년 만에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가 정전협상을 제의하고 유엔군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후 전장상황은 휴전협상 테이블에서 설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휴전협상에서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착된 전선에서의 국지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으로 작전적 차원의 요약이다. 공산군은 1951년 4월 22일에 시작된 제5차 1단계 공세(4월 공세)에 이어 5월 16일을 기해 제5차 2단계 공세(5월 공세)를 실시하였다. '춘계공세'라고도 일컬어지는 공산군의 제5차 공세는 중공군이 참전한 이래 최대 병력을 동원한 공세로서, 참가한 병력이 중공군 3개 병단(11개 군, 35개 사단)과 북한군 4개 군단(12개 사단) 약 50만 여명에 이르렀다. 이 때 공산군은 4월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에, 5월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각각 주공을 지향하고 가용 전력을 집중하여 총공세를 실시하였다.

5월 공세에서 공산군은 현리 일대에 종심 약 60㎞에 달하는 거대한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한 때 하진부리-대관령 일대까지 진출하기도 했으나, 5월 20일을 전후하여 공산군 주력부대의 공세활동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공세작전을 펼친 5일 동안 공산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작전과 강력한 포격 및 항공폭격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5월 공세의 주력부대였던 중공군 제12군과 제15군이 큰 손실을 입어 더 이상 공세작전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공산군의 공세는 서울 북방(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으며,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5월 21일을 기해 공격 중지를 결정하고 모든 예하부대에 신속하게 후퇴하도록 명령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자 즉시 공세로 전환하여 5월 23일을 기해 제3차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캔자스선, 와이오밍선, 신캔자스선 등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단계별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5월 말에 다시 38도선을 돌파하고, 6월 중순에는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거진을 연결하는 주요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과 유엔군 간의 접촉선이 개략적으로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하게 형성되었으며, 양측은 이 선을 따라 대치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진지전 및 고지쟁탈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상황도 4-1> 중공군 5월 공세 종료 후 상황



2. 작전지역의 특징

1951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에 걸쳐 펼쳐진 유엔군의 제3차 반격에 이은 진지전은 개략적으로 남쪽의 서울 북방-마석-홍천-하진부리-대관령-강릉을 연하는 선으로부터 북쪽의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거진 일대를 연하는 선의 이남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역으로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고서저의 지세를 보이고 있다. 작전기간 중 기온은 최저 3.3℃에서 최고 27℃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기온은 쌍방의 작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작전지역은 전반적으로 공자에게 불리하고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작전지역의 특징을 국군과 유엔군의 군단 책임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부지역

서부 작전지역은 좌측의 김포반도와 1번 국도인 개성-문산-서울 축선, 시변리-동두천-의정부에 이르는 축선 그리고 3번 국도인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 및 철원-포천-의정부 축선을 주 축선으로 하는 지역이다. 작전지역의 특징을 주요 도로망, 도시 및 마을, 고지군 및 하천, 기상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철도 및 도로망으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와 동측의 광덕산 고지군과 중앙의 고대산, 금학산 고지군 사이에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가 남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다. 아울러 개성에서 적성-법원리-벽제에 이르는 도로와 함께 횡적 도로망으로 문산-법원리-의정부에 이르는 도로를 비롯하여 문산-동두천-포천, 문산-전곡-운천, 문산-연천-철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의 기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도로 이외의 지역은 고지 또는 논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차 및 차량의 기동이 어려웠다.

주요 도시 및 마을은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부터 개성, 문산, 서울과 중앙지역에 3번 도로를 따라 연천, 동두천, 의정부가 그리고 우측지역의 철원, 포천 등이

위치해 있었으며, 이 도시들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다. 작전지역 중에서 평강일대는 철원축선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으로 공산군이 공격준비와 전방증원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요충지역이었다.

주요 고지로는 북쪽 지역에는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개성 고지군을 비롯하여 파평산과 감악산, 고대산, 금학산, 오성산 등이 위치해 있었고, 후방지역의 주요 고지로는 월롱산과 서울북방의 고지군이 있었으며 우측지역에 종으로 발달한 광덕산맥이 위치해 있었다. 이들 고지군은 피아의 기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감제관측에 유리한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주요 하천으로는 지역의 좌측에 한강이, 북쪽에 예성강과 임진강이 그리고 지역의 우측에 한탄강과 역곡천, 남대천 등이 종횡으로 흐르고 있어 피아의 기동에 제한을 주고 있었다. 이 지역의 당시 기온은 약 5~26℃ 정도로 피아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아침 안개와 강우가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다.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좌측의 광덕산맥으로부터 우측의 원주-홍천-춘천-화천을 연하는 선의 우측 산악지대까지를 연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대내의 주요 도로망으로는 평강에서 김화와 화천을 거쳐 춘천에 이르는 5번 도로를 중심으로 금성-화천-가평을 연결하는 7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 간 46번 도로 그리고 후방지역에 횡으로 서울-양평-홍천을 연결하는 44번 도로 등이 발달해 있었다. 지역내의 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으로는 전방의 화천, 춘천, 가평과 함께 후방지역에 양평, 홍천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지대내의 주요 고지군으로는 먼저 좌측에서 종으로 발달해 있는 광덕산맥이 인원과 차량의 횡적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전방에 위치한 대성산과 적근산을 비롯하여 종심 및 후방지역에 화악산, 용문산 등이 위치해 있었다. 이들 고지군들은 피아의 기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적을 관측하는데 유리한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방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천으로는 전방지역에 남대천과 금성천이 횡으로 흐르고 있고 작전지역의 중

앙에 위치한 북한강과 소양강, 그리고 화천댐이 피아의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개략적으로 4~27℃ 정도였고, 작전지역의 전방과 후방지역 간에는 1~3℃의 기온차가 있었으며 산악지대에서는 일교차가 심하였다. 작전지역의 기온은 쌍방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중동부지역

중동부지역은 좌로는 원주-홍천-춘천-화천을 연하는 선의 우측 산악지대로부터 우측의 태백산맥 서측까지의 작전지역을 의미한다. 책임지역 내 도로망은 간성-인제-홍천-서울을 연하는 44번 도로가 북동쪽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이어져 작전지역을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었고, 인제-현리-홍천간의 451번 도로가 있었으며 서울-원주-하진부리-강릉을 연결하는 6번 도로가 남에서 동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가 굴곡과 함께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악의 단차로여서 차량 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지역 내의 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으로는 소양강변에 위치한 인제를 중심으로 북서쪽 5km 지점에 양구, 북동쪽 7km 지점에 원통, 남동쪽 20km 지점에 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현리 남동쪽 약 25km 지점에 창촌, 창촌 남동쪽 25km 지점에 하진부리가 있었으며, 하진부리 동쪽 15km 지점에 횡계리가 있었다. 주요 고지로는 전방의 대암산, 대우산, 향로봉 등을 중심으로 중앙지역의 오대산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1,000m 이상의 고지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로 계곡은 협소하고 경사도는 60°에 달하였다. 책임지역 내 주요 고지는 직경 15~30cm 정도의 소나무와 잡목 그리고 잡초와 칡넝쿨 등이 뒤섞여 우거져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였다. 수목이 울창한데다 1951년 당시에는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아 병력과 장비 모두 기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책임지역 내 하천의 유속은 빠르고, 강우시 하천의 깊이와 폭은 불시에 증가하였다. 주요 하천인 소양강은 양측의 기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하폭이 50~100m, 수심이 1~2m인 부평리-남전리-인제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도섭이 가능하였다. 내린천은

창촌-현리-인제 지역에서는 하폭이 30~80m, 수심은 1~1.5m로 역시 도섭이 가능하였다. 이 지역의 춘계 날씨는 대체로 청명하고, 평균기온은 14℃정도이며 최고기온은 23.9℃, 최저기온은 5.1℃ 정도로서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고 산악의 고지와 평지의 기온차이는 평균 3~4℃ 분포를 보였다.

4) 동해안지역

동해안 지역은 강릉으로부터 간성 북방까지의 태백산맥과 그 동측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서고동저의 지세를 갖고 있다. 즉, 동부는 해안 및 150m 내외의 구릉지역이고, 서부는 태백산맥을 연하여 심한 기복 및 1,000m 내외의 고지군으로 인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강릉-주문진- 간성-고성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고 해안선 역시 굴곡이 많지 않아 단조로운 형상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해안선 서쪽 20~30㎞에서 동해안과 평행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이 북한지역의 황룡산에서 시작하여 향로봉, 설악산, 오대산, 석병산 등의 고지군을 형성하면서 작전지역을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분할하고 있어 동서간의 교통을 크게 제한하였다. 지역 내에는 남강, 북천, 양양 남대천, 연곡천, 강릉 남대천 등의 하천과 함께 화진포, 송지호, 청초호, 영랑호, 경포호 등의 호수가 산재해 있었다.

지역 내의 주요 작전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7번 도로가 종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횡적으로 양양-인제간 도로, 간성-인제간 도로, 강릉-평창-원주간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고 있었다. 이 도로들은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 지세마저 험준하여 기갑부대의 기동을 크게 제한하였으며, 특히 진부령과 대관령은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상의 주요 목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특히 해안과 인접한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지역 내에는 해안선과 연한 동해안 도로가 유일한 기동로였다. 그러나 이 도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향한 크고 작은 하천에 의해 잘리고 교량이 많아 군사적으로 큰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지역 내의 하계기간 중 날씨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해안선 지역에서는 돌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계 기온은 최저 2.6℃에서 최고 20.6℃이며 주야간 온도차가 커 안개 일수가 많았다.

이렇듯 동해안 축선은 횡격실 능선의 발달, 종적 도로망의 제한, 협소한 기동공간 등으로 인해 게릴라와 같은 소규모 병력의 은밀한 침투에는 유리하나 대부대 기동은 불리하였으며, 피아간에 관측 및 사계도 크게 제한되었다. 따라서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특히 해상과 산악지역을 통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 및 상륙에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목표 및 기도

1951년 2월에 실시된 제4차 공세(일명 '2월 공세') 이후 부대의 재편성과 본토로부터의 추가 증원으로 전력을 재정비한 중공군은 유엔군의 한반도 축출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제5차 공세(일명 '춘계공세')를 단행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춘계공세에서 공산군과 유엔군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병력과 화력을 각각 내세움으로써 전장상황은 중공군의 인해전술(人海戰術)과 유엔군의 화해전술(火海戰術)이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1)]

이 과정에서 중공군 지도부는 우세한 병력만으로는 유엔군의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압도할 수 없고, 특히 제한적인 군수지원능력을 전쟁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장상황을 고려해 5월 공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2)]

① 7일분의 휴대식량을 전투 중에 소모 및 손실할 경우 현지보충이 불가능하다.
② 한 달간 지속된 두 차례의 공세로 병력이 피곤한 상태이다.
③ 과도하게 신장된 전선으로 인해 식량과 탄약의 보급이 어렵다.
④ 우기로 접어들면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호수 및 늪지와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후방간의 교통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⑤ 이번 공세에서 미군 섬멸에 실패함으로써 이들의 북진반격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상과 같은 전장 상황판단 결과를 근거로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아군의 계속된 전진은 적을 소멸하기 쉽지 않고, 어려움만 가중된다. 따라서 주요 부대들

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주력을 정비 보충한 후 기회를 보아 적을 섬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장기작전을 준비해 미군을 섬멸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지구작전(持久作戰)'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작전계획

새로운 작전방침('지구작전')을 채택하고 공세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공산군 지도부는 병력의 휴식 및 정비(재편성 및 전투력 복원)를 위해 위천리-연천-삭령-문혜리-산양리-양구-원통을 연하는 선 이북 지역으로 주요 부대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5월 21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때 명령에 제시된 철수 개시 시간은 5월 23일 저녁이었다.

<표 4-1> 각 병단별(축선별) 작전책임 부여

구 분	제19병단	제3병단	제9병단	북한군 전선사령부
주력부대 휴식 및 정비 지역	위천리-연천 이북 지역	철원-김화지구	김화-산양리-화천 북쪽지역	양구-인제-양양선 이북지역
공격저지 지역	의정부-청평천과 동두천-포천-기산리선 사이 지역	가평-춘천선과 화천 이북 산악지역	소양강과 화천호 일대	어론리-현리-서림리선 이남 지역
철수엄호 부대	제65군	제60군	제27군 예하 1개 사단	제2,3,5군단 예하 각 1개 사단

* 비고 : 북한군 제1군단은 개성지구에서 휴식 및 재편성, 파주 이남에서 적 저지

① 중공군 제19병단 주력은 위천리-연천 이북에서 휴식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때 1개 군은 의정부-청평천과 동두천-포천-기산리를 연결하는 선 사이에서 적을 저지한다. 북한군 제1군단 주력은 개성지구에서 휴식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때 군단의 일부 부대는 파주 이남에서 적을 저지한다.

② 중공군 제3병단 주력은 철원-김화지구에서 휴식 및 정비를 실시하고, 가평-춘천선과 화천 이북 산악지구에서 적을 저지한다. 이때 제3병단과 제19병단의 경계선은 기산리, 문암리, 한탄천을 연하는 선으로 하되 그 서쪽은 제19병단이, 동쪽은 제3병단이 담당한다

③ 중공군 제9병단 주력은 김화-산양리-화천 북쪽지구에서 휴식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때 1개 사단은 소양강과 화천호 일대에서 적을 저지한다. 제9병단과 제3병단의 경계선은 신연강, 지암리, 백적산, 대성산, 금화를 연하는 선으로 하되, 그 서쪽은 제3병단이, 동쪽은 제9병단이 담당한다.

④ 북한군 전선사령부 소속 주력은 양구-인제-양양 선 이북에서 휴식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때 1~2개 사단은 어론리-현리-서림리를 연결하는 선 이남에서 적을 저지한다.[3)]

동시에 조중연합사령부는 중공군 주력부대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각 병단의 엄호임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확정 하달하였다.

① 중공군 제19병단의 철수를 위해 제65군은 의정부-청평천과 연천-문암리 간에서 축차 방어로 15~20일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

② 중공군 제3병단의 철수를 위해 제60군은 자일리-백적산과 가평-춘천 간 및 화천 서남 산악지구에서 축차방어를 실시하고, 제12군과 제15군 예하의 각 1개 연대는 현 위치에서 부상병 후송을 엄호한다.

③ 중공군 제9병단의 철수를 위해 제27군 예하의 1개 사단은 자은리-가리산-평촌리-상의리-지촌리-화천호-석지곡-대동리 선에서 적을 저지함으로써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

④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제2군단과 제5군단의 철수를 위해 제5군단 예하 1개 사단이 어론리에서 소양강까지, 제2군단 예하 1개 사단이 현리에서 가리봉-한석산까지, 제3군단 예하 1개 사단이 서림리에서 각각 5월 말까지 축차적으로 적을 저지한다.[4)]

조중연합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각 병단은 철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먼저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제20군 및 제27군은 화천저수지 동쪽을 돌아 퇴각한 후 서쪽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공군 제20군이 선두로 퇴각하

여 화천과 화천저수지 사이에 진지를 구축하고, 제27군이 제20군의 엄호 하에 하진부리에서 빠져나와 제20군 후방에 집결하도록 계획했다. 이때 후위를 맡은 북한군은 화천저수지 동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공군 제3병단은 제9병단에 배속되어 있던 제12군을 재배속 받은 후, 화천저수지 서쪽으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60군에게 17번 도로를 이용한 기동방어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제12군과 제15군이 화천을 지나 철의 삼각지대로 철수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강 서쪽에 위치해 있던 중공군 제19병단에 대해서는 미 제1군단 및 미 제9군단과의 접촉을 회피하면서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임진강의 상류지점과 철의 삼각지 일대로 후퇴하여 휴식 및 정비를 하도록 계획하였다.[5)]

공산군측은 앞에서 제시된 조중연합사령부의 작전명령(철수계획)과 각 병단별 작전계획에 따라 5월 21일을 전후하여 각 부대별로 공격을 중지하고 부대배치를 조정한 다음 이동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어 5월 23일에 중공군과 북한군 주력이 북으로의 철수를 단행하였고, 엄호임무를 담당한 부대들 또한 사전에 지정되어 있었던 방어진지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1) 지휘관계

1951년 5월 23일을 기해 이루어진 공산군측의 철수 및 배치조정에 따라 전장의 상황은 그동안 전개되었던 치열한 쌍방 간의 공방전이 아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공산군측의 철수작전과 유엔군측의 추격작전 형태로 변모하였다. 즉, 공산군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정된 선까지 철수하고, 유엔군은 이를 추격하는 양상의 작전이 전개되었다. 춘계공세 후 곧바로 철수작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공산군측의 지휘관계는 큰 틀에서 5월 공세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전투편성에서는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다.

한반도 내의 모든 작전 범위와 전선 활동은 조중연합사령부가 통일적으로 지휘함으로써 북한군 및 유격부대, 중공군에 대한 지휘통제가 지속적으로 일원화되었

다.[6] 이 때 조중연합사령부의 모든 명령은 북한군 최고사령부와 중공지원군사령부를 경유하여 예하 부대에 하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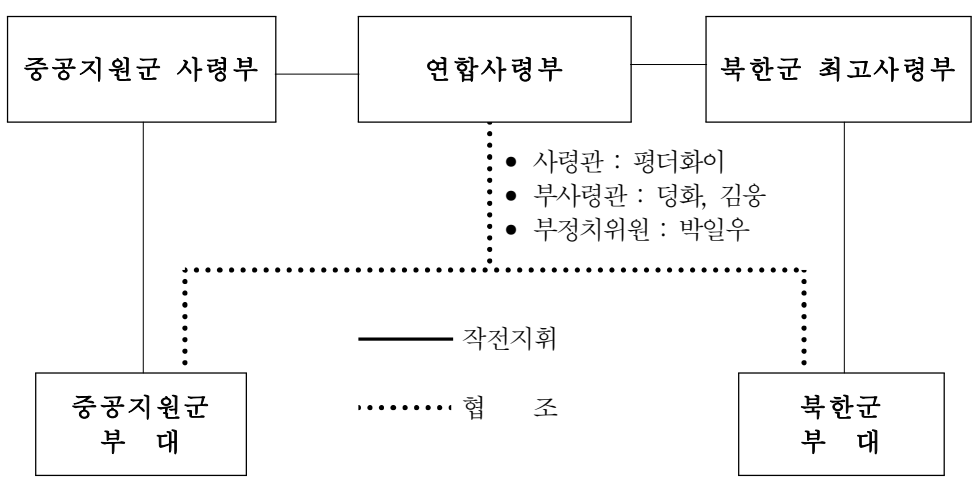
중공군의 경우 조중연합사령관 겸 중공지원군사령관인 펑더화이가 각 병단을, 그리고 각 병단사령관이 예하의 각 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북한군은 북한군 최고사령부 예하의 전선사령부가 모든 철수작전을 지휘하는 가운데 예하 각 군단에 대한 지휘 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4월 공세시 중공군 제19병단의 작전지휘를 받았던 북한군 제1군단이 5월 공세 때 북한군 전선사령부 직속부대로 원복한 후 철수작전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전선사령부 직속부대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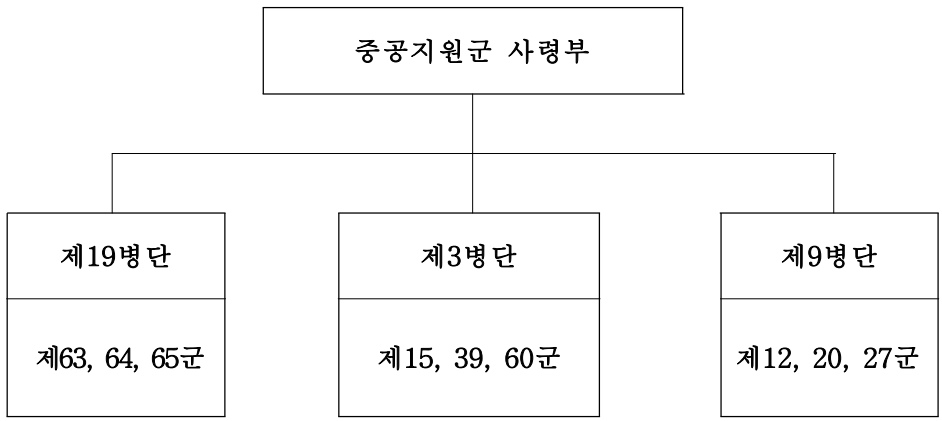
한편 조중연합사령부와 북한정부 간에는 조중연합사령부가 작전과 관련된 모든 교통수단(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과 유무선 통신, 식량조달, 인적 및 물적 동원 등의 업무를 지휘하고 북한정부는 후방에서 전방지원을 위한 동원, 보충훈련, 지방행정 회복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형태로 업무를 분장하였다.[7]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와 중공지원군사령부의 각 병단별 예하 부대 편성은 <표 4-2>와 <표 4-3>과 같다.

<표 4-2> 조중연합사령부 지휘관계



<표 4-3> 철수작전 기간 중 중공군 지휘체계



(2) 전투편성

유엔군의 반격과 함께 단행된 공산군측의 철수작전에는 5월 공세에 투입되었던 중공군 3개 병단 9개 군과 북한군 4개 군단이 참가하였다. 3각 편제개념에 입각한 중공군 각 병단의 주요 부대편성을 보면, 중공군 제9병단은 제20군과 제27군 그리고 제12군으로 편성되었다. 병단 예하의 제20군과 제27군은 각각 4개 사단을, 그리고 제3병단에서 배속된 제12군은 3개 사단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제20군은 제58·제59·제60·제89사단을, 제27군은 제79·제80·제81·제94사단을, 제12군은 제31·제34·제35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

<표 4-4> 철수작전 기간 중 공산군 전투편성

병 단	군 (군단)		사 단	비 고
제9병단	중공군	제20군	제58, 59, 60, 89사단	
		제27군	제79, 80, 81, 94사단	
		제12군	제31, 34, 35사단	

	북한군	제2군단	제2, 13, 27사단	
		제5군단	제6, 12, 32사단	
		제3군단	제1, 15, 45사단	
제3병단	중공군	제15군	제29, 44, 45사단	
		제60군	제179, 180, 181사단	
		제39군	제115, 116, 117사단	
제19병단	중공군	제63군	제187, 188, 189사단	
		제64군	제190, 191, 192사단	
		제65군	제193, 194, 195사단	
	* 북한군 제1군단(제8, 19, 47사단) : 4월 공세 종료 후 전선사령부로 복귀			

제3병단 또한 예하에 제15군과 제60군 그리고 제13병단으로부터 배속된 제39군을 두었으며, 각 군은 예하에 각각 3개 사단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 중 제15군은 제29·제44·제45사단을, 제60군은 제179·제180·제181사단을, 그리고 제39군은 제115·제116·제117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 제19병단은 예하에 제63군과 제64군 그리고 제65군을 두었으며, 각 군은 예하에 각각 3개 사단을 편성하였다. 제63군은 제187·제188·제189사단을, 제64군은 제190·제191·제192사단을, 그리고 제65군은 제193·제194·제195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다.

조중연합작전체계의 한 축이었던 북한군은 5월 공세 당시와 마찬가지로 4개 군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각 군단은 3각 편제개념에 따라 예하에 3개 사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제8·제19·제47사단을, 제2군단은 제2·제13·제27사단을, 제3군단은 제1·제15·제45사단을, 그리고 제5군단은 제6·제12·제32사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8)]

한편 철수작전기간 중의 공산군측 주요 지휘관은 조중연합사령부의 경우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를 비롯하여 중공군측 부사령관 덩화 그리고 북한군측

부사령관 김웅, 부정치위원 북한의 박일우 등으로서 5월 공세 당시와 변동이 없었다. 중공지원군사령부도 5월 공세 시와 마찬가지로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와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 그리고 부사령관 홍쉐즈와 한센추, 참모장 세팡, 정치부 주임 두핑으로 편성되었다. 5월 공세의 주공을 담당했던 제9병단사령부의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쑹스룬이었고, 예하의 각 군장은 제20군장 겸 정치위원 장이샹, 제27군장 펑더칭, 제12군장 쩡사오산이었며, 각 군의 지휘부는 다음의 <표 4-5>와 같다.

<표 4-5>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20군	제27군	제12군
군 장	장이샹(張翼翔)	펑더칭(彭德清)	쩡사오산(曾紹山)
부군장	랴오정궈(廖政國)	잔다난(담大南)	샤오잉인(蕭永銀)
참 모 장	위빙후이(兪炳輝)	리위안(李元)	샤오잉인(蕭永銀)
정치위원	장이샹(張翼翔)	쩡루칭(曾如淸)	-
부정치위원	탄요우밍(譚右銘)	-	리전(李震)
정치부주임	추샹톈(邱相田)	장원비(張文碧)	리카이샹(李開湘)

5월 공세시 중공군의 조공 임무를 수행했던 제3병단사령부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전경을 중심으로 제15군장 친지웨이와 제60군장 웨이제, 제39군장 우신촨이 각각 군을 지휘하였다. 각 군의 지휘부는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 중공군 제3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15군	제60군	제39군
군 장	친지웨이(秦基偉)	웨이제(韋杰)	우신촨(吳信泉)
부군장	저우파톈(周發田)	차위성(查玉升)	우궈장(吳國璋)
참 모 장	장윈위(張蘊鈺)	덩스준(鄧仕俊)	장제청(張竭誠)
정치위원	구징성(谷景生)	위안쯔친(袁子欽)	리쉐싼(李雪山)
부정치위원	-	-	허다쩡(賀大增)
정치부주임	처민차오(車敏樵)	리저푸(李哲夫)	스잉(石瑛)

5월 공세시 주공을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제19병단사령부는 병단사령관 양더즈의 예하에 제63군장 푸충비, 제64군장 쩡쓰위, 그리고 제65군장 샤오잉탕이 각 군장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각 군의 지휘부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표 4-7> 중공군 제19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63군	제64군	제65군
군 장	푸충비(傅崇碧)	쩡쓰위(曾思玉)	샤오잉탕(簫應棠)
부군장	-	탕쯔안(唐子安)	-
참 모 장	두위화(杜瑜華)	마웨이화(馬衛華)	루안핑(阮平)
정치위원	롱다오취안(龍道權)	왕자오(王昭)	왕다오방(王道邦)
부정치위원	황전탕(黃振裳)	-	-
정치부주임	황전탕(黃振裳)	위안페이줴(袁佩爵)	전이구이(陳宜貴)

한편 공산군측의 철수작전 기간 중의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최고사령관(총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민족보위상 겸 부사령관인 최용건, 총참모장 남일 상장, 전선사령관 김웅 상장 등 이었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장들은 제1군단장 이권무 상장, 제2군단장 최현 상장, 제3군단장 유경수 상장, 제5군단장 방호산 상장 등이었다.[9)]

<표4-8> 철수작전 기간 중 북한군 지휘관 인적사항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대장	최용건(崔鏞健)	민족보위상 겸임
	참모장	상장	남 일(南 日)	
전선사령부	사령관	상장	김 웅(金 雄)	
	참모장	소장	최 광(崔 洸)	
제1군단	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2군단	군단장	상장	최 현(崔 賢)	총참모부 예비
제3군단	군단장	상장	유경수(柳京洙)	
제5군단	군단장	상장	방호산(方虎山)	
제4군단	군단장	소장	박종덕(朴鍾德)	예비 및 지원부대
제6군단	군단장	상장	최용진(崔勇鎭)	
제7군단	군단장	상장	이영호(李永鎬)	

2. 유엔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목표 및 기도

1950년 7월에 이루어진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국은 유엔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유엔군측의 전쟁수행을 주도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당시에 이미 중·소와의 전면전쟁을 회피한다는 정책기조 하에 군사적인 승리를 단념하고 있었다.[10] 1951년 4월 5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한국문제는 군사작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세계의 긴장이 완화될 때 비로소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협될 수 있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주한 유엔군은 그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 군사행동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군을 증강시켜 유엔군 임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하였다. 이에 미 정책당국은 5월 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격퇴한 이후의 작전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5월 16일, 휴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인 <아시아에서 미국의 목표, 정책, 행동방침(NSC 48/5)>를 채택하고 다음날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1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5월 17일 새롭게 확정된 미국의 대한정책은 기본적으로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6·25전쟁의 목표를 둘로 구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최종목표로서 한반도에 통일·독립·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문제는 군사적 수단과는 별도로 정치적 수단에 의거해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면목표로서 전쟁의 해결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추구하되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하며,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38도선까지 미칠 수 있도록 경계선을 그 북쪽에 설정하고 이러한 당면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하여 응징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물리친 직후부터 전전상태의 회복이라는 정책기조 위에서 중공군에게 제한된 범위의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휴전협상에 응하도록 촉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진격작전을 계속하여 공산군측에게 보다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공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제한된 범위의 반격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대한정책에 근거해 미 합참은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진행중이던 1951년 6월 1일 리지웨이 장군에게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재규정하여 하달하였다.[11)]

> 귀하는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휘하의 부대안전과 더불어 최소한 아래와 같은 한국전쟁의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지리적 경계선과 그 인접 해역 내에서 작전하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인원 및 물자에 최대한의 손실을 가한다.
>
> ①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
> ② 행정이나 군사적 방위를 둘 다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38도선 이남이 아닌 곳에 위치한 북방 경계선 남쪽의 전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한다.
>
> ③ 한국에서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를 가능하게 한다.
>
> ④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충분한 전력 증강을 허용한다.

이로써 유엔군사령관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의 영토와 그 인접해역 내에서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해·공군작전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권한이 만주, 소련 혹은 압록강의 발전시설에 대한 작전 실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국경선 부근에서의 작전제한은 작전을 위한 접근 범위를 종전의 24㎞에서 19.2㎞까지 허용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 그리고 지상군의 작전한계는 대체로 화천저수지를 지나는 38도선 북쪽 약 10㎞의 일반적인 선으로 기술되었다.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미 합참의 6월 1일자 지시는 유엔군이 캔자스선과 와이오

밍선에 도달하였을 때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의 목표와 범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전에 하달한 것과 유사한 것이었지만, 작전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당국이 이후 군사작전의 중점을 적대행위를 협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새롭게 설정된 미국의 대한정책과 관련하여 당시 한국의 육군 총참모장이었던 정일권(丁一權) 장군은 "유엔군의 작전제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 전쟁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되었음은 물론이고, 현지 군사령관에게 이 지시가 하달된 것도 사후에 알게 됨으로써 일국의 총참모장으로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12] 특히 이 결정이 있은 직후인 1951년 6월 8일 미 국방장관 마셜(George C. Marshall)이 도쿄를 경유, 대구의 미 제8군사령관을 방문하고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조도 없이 귀국하였는데, 아마도 이때 마샬 장관이 미 제8군사령관에게 유엔군측의 새로운 대한정책에 관해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장관 이기붕(李起鵬)과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을 경무대(부산)로 불러 진노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국의 수많은 정부 요인들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이처럼 무례한 일은 없었다. 이는 미국의 전쟁수행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중략… 우리가 지금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을 업수이 보거나 배신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장관은 국회와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우리의 전쟁수행 결의를 국내외에 반영하도록 하고, 총참모장은 장병들의 북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작전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였다.[13]

2) 작전계획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절정에 도달한 5월 18일, 강원도 인제 남쪽의 풍암리로

진출한 중공군이 미 제2사단에 압력을 가하고, 동시에 중공군의 선두 부대들이 국군이 방어 중인 속사리-하진부리 방향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유엔군의 방어선 중에서 중동부전선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당시 춘천 서쪽의 중서부전선에도 중공군 4개 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 지역에서는 중공군이 일부 부대로 소규모의 양공작전만 펼칠 뿐 뚜렷한 공격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전황을 분석한 유엔군사령관은 5월 18일 중동부전선에 집중된 적의 공격 기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미 제8군사령관에게 서부전선에서 철의 삼각지로 이어지는 적의 주요 병참선을 위협할 수 있도록 2개 사단 규모로 철원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14]

미 제1 및 제9군단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유엔군사령관은 다음날(19일)의 전선 정찰을 통해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전선이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일(18일)의 명령을 정정하여 미 제8군사령관에게 공격범위를 전 전선으로 확대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15] 이때 미 제8군사령관도 적이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내륙 깊숙이 진출하고 있으나, 수일 내에 병참선이 신장되고 산악지형으로 인해 군수지원에 제한을 받아 중공군의 공격이 지체되거나 정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회에 신속히 공격을 개시하여 적 후방의 병참선을 차단하면 적을 '긴자루' 모양의 함정에 빠뜨려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16]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먼저 제1단계 목표인 문산-가평-춘천을 연하는 토페카(Topeka)선을 점령한 후 신속히 제2단계 작전으로 전환하여 교통의 요지로 '긴자루'의 목 부분에 해당되는 포천-철원 축선상의 영평 부근과 춘천-김화 축선상의 화천 부근을 점령하고, 목을 조르듯 지대 내에 갇힌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격멸한다는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17] 데토네이트 작전(Operation Detonate)[18]으로 불

린 이 계획은 미 제9군단을 주공으로 전선 전반에 걸쳐 공격을 하는 것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① 미 제1군단은 조공으로서 임진강 한탄강 부근의 캔자스선을 향해 북쪽으로 공격한다. 군단의 주임무는 미 제9군단의 왼쪽 측면을 방호하는 것이다.
② 미 제9군단은 주공으로서 춘천과 화천으로의 과감한 공격을 실시한다. 미 제24사단과 미 제7사단, 국군 제6사단, 국군 제2사단이 공격을 실시하여 가평 북방에서 합류한다. 영연방 제28여단은 미 제24사단을 증원한다.
③ 미 제10군단은 미 제9군단의 공세 초기에는 한계령을 고수하다가 2-3일 후에 공격을 실시한다.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1) 지휘관계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격퇴하고 재반격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유엔군의 지휘관계 중 상부구조에는 1951년 5월 25일을 기해 한국군 제3군단이 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 및 극동군사령부가 미 제8군을 비롯해 미 극동해군과 극동공군, 주일군수사령부 등에 대한 작전지휘 및 통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중 지상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받은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 소속의 미 지상군 부대는 물론이고 국군과 미 군사고문단에 대한 지휘를 관장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주요 부대로는 미 제1군단·미 제9군단·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있었다. 해상작전을 지휘하는 극동해군사령관은 유엔 소속의 해상병력을 예속시킨 미 제7함대를 지휘하였고, 공군작전을 지휘하는 극동공군사령관은 유엔 소속의 공군부대를 예속시킨 미 제5공군과 전략공군사령부를 지휘하였다.[20]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부는 유엔군사령관 및 극동군사령관인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51. 4. 11~'52. 5. 12)[21]을 중심으로 미 제8군사령관은 밴플리

트(James A. Van Fleet) 중장('51. 4. 14~'53. 2. 10, '51. 8. 1.부 대장 진급)이었고, 극동공군사령관은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49. 4. 26~'51. 5. 21),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중장('51. 5. 21~'51. 6. 10), 웨이랜드(Otto P. Weyland) 대장('51. 6. 10~'53. 3. 31) 등 3명이, 극동해군사령관은 조이(C. Turner Joy) 중장('49. 8. 27~'51. 5. 21)과 브리스코(Robert C. Briscoe) 중장('51. 6. 4~'54. 4. 2)이 각각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군단의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관계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군 제3군단이 해체되면서 기존 제3군단 예하부대였던 국군 제9사단이 미 제10군단으로, 국군 제3사단이 국군 제1군단으로 지휘관계가 전환되었다. 또한 미 제8군의 예비로서 하진부리 일대에서 중공군의 돌파구 확장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미 제3사단이 미 제10군단으로 전환되고 새롭게 국군 제8사단이 미 제8군의 예비가 되어 미 제10군단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후 유엔군의 재반격이 진행 중이던 5월 29일을 기해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은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미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었다.

⑵ 전투편성 및 주요지휘관

유엔군측 각 군단의 전투편성과 주요 지휘관 인적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부전선의 개성-문산 축선에서 반격을 실시한 미 제1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 및 미 제25사단, 영국군 제29여단 및 영연방 제28여단, 그리고 국군 제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제5·제7·제8기병연대를, 미 제25사단은 제24·제27·제35연대와 필리핀 제10전투대대가 배속된 제65연대전투단 및 터키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영국군 제29여단은 3개의 영연방 국가의 대대와 함께 벨지움대대 및 국군 제5해병대대를, 영연방 제28여단은 보더스 연대 제1대대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의 대대들로 편성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를 각각 예하에 두었다.[22]

<표 4-9> 축선별 주요부대 편성

축선	서 부	중서부	중동부	동 부
군단	미1군단	미9군단	미10군단	한국군1군단
사단	미1기병/25사단, 영국군 제29 여단, 영연방 제28여단, 국군1사단	미7/24사단, 국군2/6사단	미2/3/1해병사단 미187공정연대, 국군5/7/9사단	국군3사단 수도사단, 11사단

* 비고 : 국군 제8사단(미 제8군 예비, 미 제10군단지역에 배치), 국군 제9사단/미 제3사단(미 제10군단에서 미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 5월 29일 부)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밀번 소장과 참모장 브런트 준장, 미 제1기병사단장 팔머 소장, 미 제25사단장 브래들리 소장, 국군 제1사단장 강문봉 준장, 영국군 제29여단장 브로디 준장, 터키 여단장 야지치 준장, 영연방 제28여단장 테일러준장이었다. 미 제1군단의 전투서열은 다음의 <표 4-10>과 같다.

<표 4-10> 미 제1군단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8군	사령관	중장	James A. Van Fleet	
	부사령관	중장	John B. Coulter	
	참모장	소장	Henry I. Hodes	
미 제1군단	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부군단장	소장	Terrell G. Holliday	
	참모장	준장	Rinaldo Van Brunt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제5연대장	대령	Irving Lehrfeld	
	제7연대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연대장	대령	Eugean J. Field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J. Sladen Bradley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소장	강문봉(姜文奉)	
	제11연대장	대령	문형태(文亨泰)	
	제12연대장	중령	김한주(金漢柱)	대리
	제15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영국군 제29여단	여단장	준장	Thomas Brodie	
영연방 제28여단	여단장	준장	G. Taylor	
터키 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미제25사단 배속
벨지움대대	대대장	중령	B. E. M. Crahay	영제29여단 배속
필리핀 제10대대	대대장	중령	Dionisio Ojeda	미제25사단 배속
국군 제5해병대대	대대장	중령	김종기	영제29여단 배속

계속해서 중부전선의 철원-동두천 축선에서 반격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7사단 및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7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미 제24사단은 제5·제19·제21연대를 각각 예속하고 있었다. 또한 국군 제2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국군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예하에 두었다.[23)]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호지 중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피플로 준장, 미 제7사단장 페렌버그 소장, 미 제24사단장 브라이언 소장, 그리고 국군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과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이었다. 미 제9군단의 전투서열은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미 제9군단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William H. Hoge	
	부군단장	준장	William L. Mitchell	
	참모장	준장	George B. Peplo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페렌버그(Claude B. Ferenbaugh)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5연대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영국군 제27여단	여단장	준장	B. A. Burke	미제24사단 배속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함병선(咸炳善)	
	제17연대장	대령	이정석(李貞錫)	
	제31연대장	대령	신동우(申東雨)	
	제32연대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차문호(車文鎬)	
		중령	송대후(宋大厚)	1951. 5. 25부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한편 중동부전선의 춘천-홍천 축선에서 반격을 실시한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및 미 제3사단,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 국군 제9사단, 그리고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0군단의 예하 부대 중에서 미 제2사단은 제9·제23·제38연대와 함께 프랑스대대 및 네덜란드대대를, 미 제3사단은 제7·제15·제65연대를, 미 제1해병사단은 제1·제5·제7해병연대와 아울러 한국해병 제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국군 제7사단은 제3·제5·제8연대를, 국군 제9사단은 제28·제29·제30연대를 각각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있었다.[24]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거스리 준장, 미 제2사단장 러프너 소장, 미 제3사단장 소울 소장, 미 제1해병사단장 토마스 소장, 그리고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과 국군 제7사단장 김형일 준장,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 국국 제9사단장 최석 준장,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장 보웬 준장과 영연방 제27여단장 버크 준장 등이었다. 미 제10군단의 전투서열은 다음의 <표 4-12>과 같다.

<표 4-12> 미 제10군단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참모장	준장	John S. Guthrie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Clark L. Ruffner	
	제9연대장	대령	Edwin J. Messinger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Gerald C. Thomas	
	제1연대장	대령	Francis M. McAlister	
		대령	Wilburt S. Brown	1951. 5. 19부
	제5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제27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35연대장	대령	김익렬(金益烈)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국군 제7사단	사단장	준장	김형일(金炯一)	
		대령	김용배(金容培)	1951. 5. 26부
	제3연대장	대령	정 진(鄭 震)	
	제5연대장	대령	조성화(趙成華)	
	제8연대장	대령	이현진(李賢進)	
		중령	최주종(崔周鐘)	1951. 6. 19부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마지막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반격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국군 제3사단, 국군 수도사단과 국군 제11사단으로 이루어졌다. 국군 제1군단 예

하의 제3사단은 제18·제22·제23연대를, 수도사단은 제1·제26연대 및 제1기갑연대를,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예하에 두었다.[25]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백선엽 소장을 비롯하여 부군단장 장창국 준장, 참모장 최홍희 준장,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 제11사단장 최덕신 준장 등이었다. 국군 제1군단의 전투서열은 다음의 <표 4-13>과 같다.

<표 4-13>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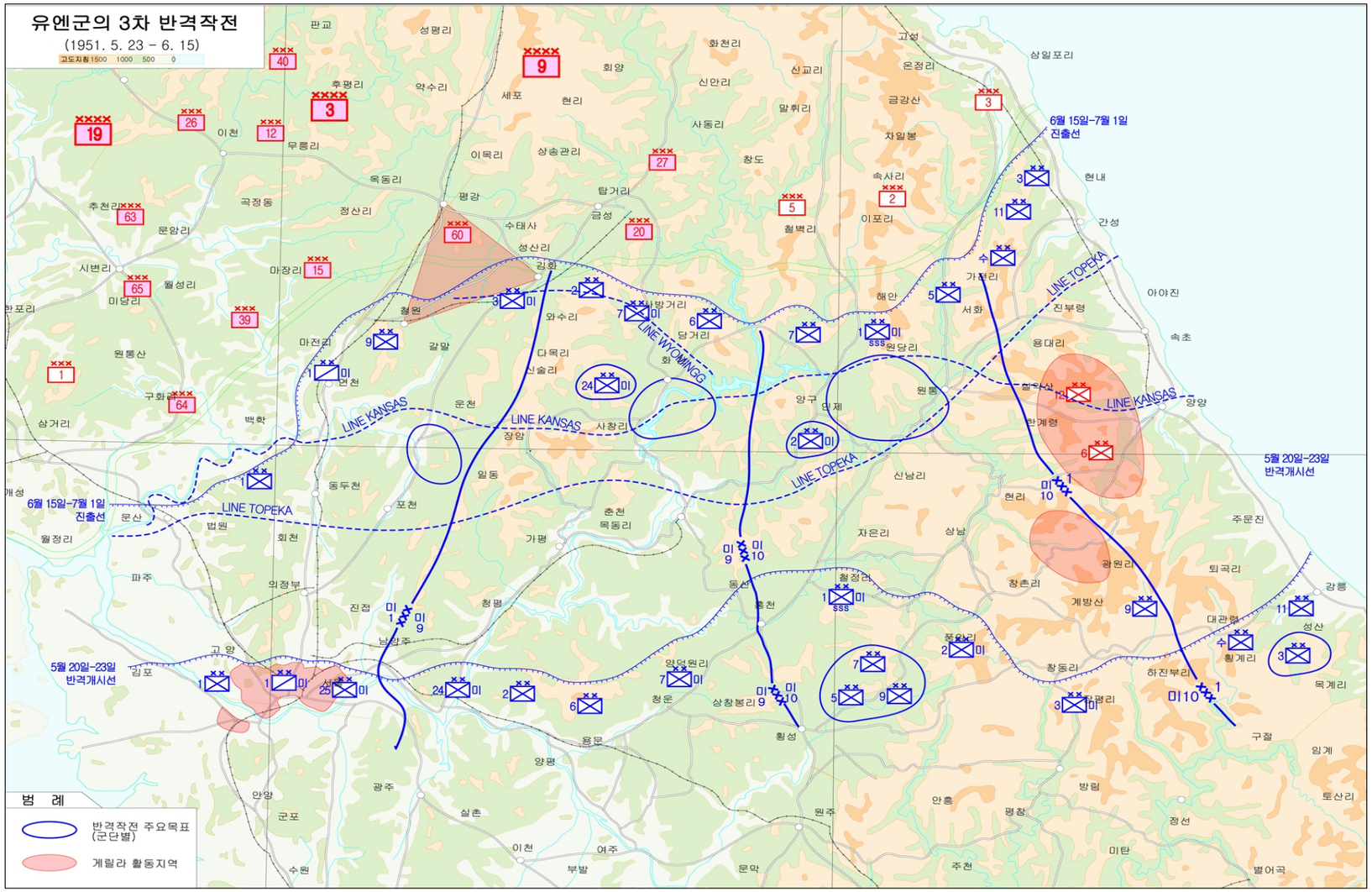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부군단장	준장	장창국(張昌國)	
	참모장	준장	최홍희(崔泓熙)	
제3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鐘五)	
		대령	백남권(白南權)	1951. 5. 23부
	제18연대장	대령	유양수(柳陽洙)	
	제22연대장	대령	장춘권(張春權)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대령	한 신(韓 信)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徐廷哲)	
	제1기갑연대장	대령	이 용(李 龍)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최덕신(崔德新)	
		준장	오덕준(吳德俊)	1951. 5. 23부
	제9연대장	대령	오익경(吳益慶)	
	제13연대장	대령	최석용(崔錫鏞)	
	제20연대장	대령	박원근(朴元根)	

한편 미 제8군의 예비부대는 미 제10군단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 제8사단을 비롯하여 캐나다 제25보병여단, 에티오피아대대 등이 있었다. 국군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고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은 예하에 3개 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예비부대로는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태백산전투사령부가 있었다. 태백산전투사령부는 3개 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26] 미 제8군 및 한국군 육군본부 예비대의 주요 지휘관은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 캐나다 제25보병 여단장 로킹험 준장이었고 태백산전투사령관은 이성가 준장이었다. 미 제8군 및 한국군 육군본부 예비대의 전투서열은 아래 제시된 <표 4-14>와 같다.

<표 4-14> 유엔군 예비대 전투서열(1951. 5. 22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캐나다 제25보병여단	여단장	준장	J. M. Rockingham	미 제8군 예비
에티오피아 대대	대대장	중령	Teshome Irgetu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한국 육본 예비
	제10연대장	대령	권태순(權泰順)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21연대장	대령	하갑청(河甲淸)	
		중령	전부일(全富一)	1951. 5. 30부
태백산 전투사령부	사령관	준장	이성가(李成佳)	

<상황도 4-2> 유엔군의 3차 반격작전



※ 비고 : 육군본부, 『6·25 전쟁사 부도』(대전 : 육군대학, 2007), 174쪽을 참조하여 재작성.

제 3 절 작전경과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서울 북방-마석-홍천-하진부리-대관령-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한 국군과 유엔군은 5월 19일에 하달된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을 근거로 미 제8군사령관이 수립한 작전계획에 따라 5월 20일 이후부터 전 전선에 걸친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미 제8군이 설정한 작전목표는 먼저 제1단계로 문산-가평-춘천을 연하는 토페카(Topeka)선을 점령하고, 신속히 제2단계 작전으로 전환하여 포천-철원 축선상의 영평 부근과 춘천-김화 축선상의 화천 부근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27]

이 계획에 따라 토페카선을 점령할 중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은 적의 주력부대와 예비대가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그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5월 20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도 양구-인제를 목표로 5월 23일에 반격을 시작하였고, 동해안 축선의 국군 제1군단 역시 양양을 목표로 5월 26일을 기해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춘계공세가 시작된 이후 지속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 38도선을 향해 일제히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먼저 캔자스선까지 진출한 다음 와이오밍선과 신캔자스선을 차례로 확보함으로써 6월 15일 경에는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향로봉-거진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진출선에서 공산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군과 유엔군의 제3차 반격작전 경과를 크게 작전단계별(캔자스선, 와이오밍선, 신캔자스선 진출) 및 주요 축선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캔자스선으로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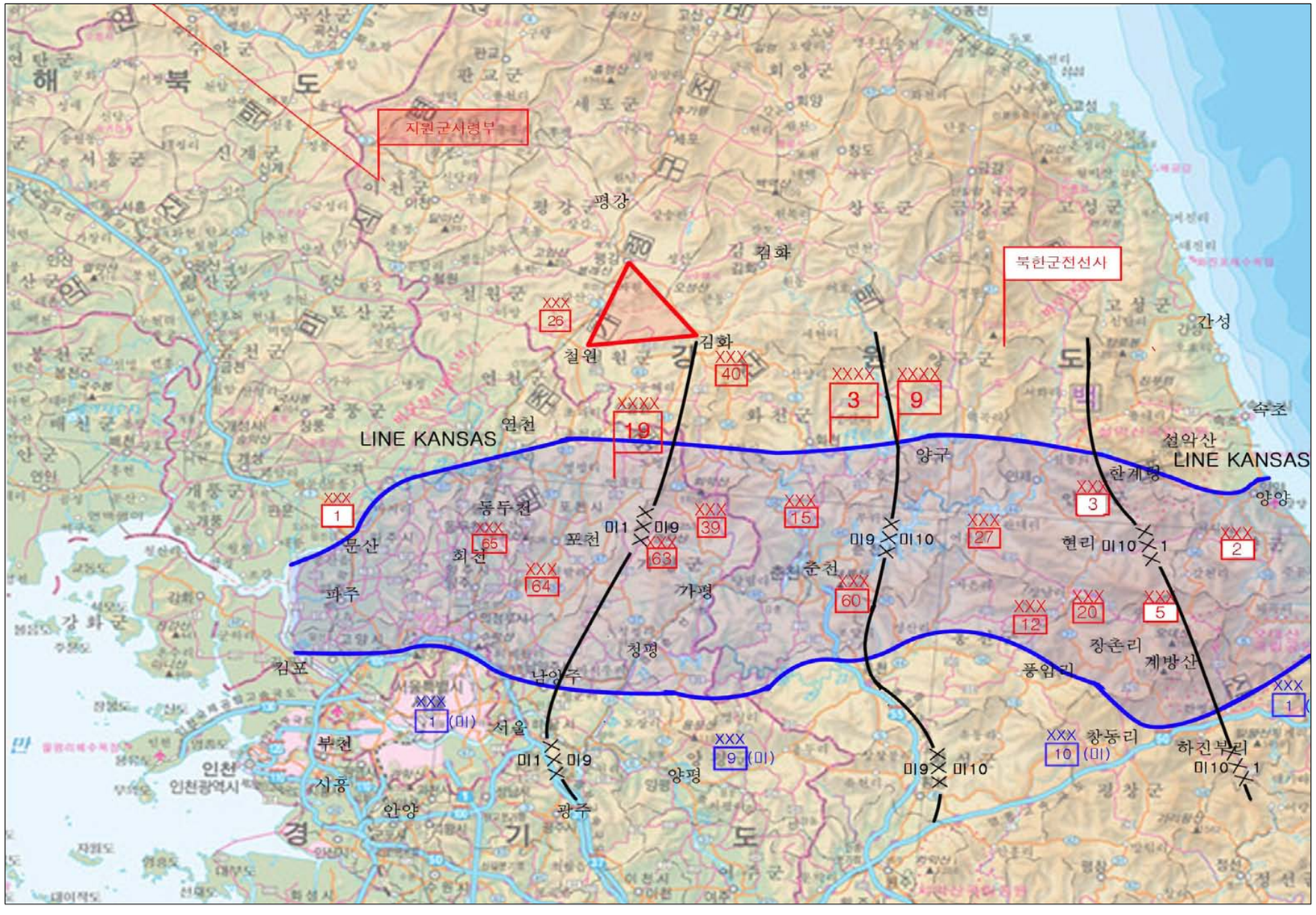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에 나선 국군과 유엔군은 먼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한 캔자스선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문산-포천을 연하는 토페카선을 점령한 다음 캔자스선 상의 영평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군 제1사단을 문산 축선에, 미 제1기병사단을 동두천 축선에, 그리고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배속)을 포천 축선에 각각 투입하여 5월 20일을 기해 3개 사단 병진으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이 날 중서부 전선의 미 제9군단도 포천-춘천에 이르는 토페카선을 목표로 좌로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2사단으로 하여금 적의 주보급로인 홍천-인제-간성을 연결하는 도로상의 요지인 양구와 인제를 점령하도록 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미 제3사단 으로 홍천-인제를 연결하는 도로의 남쪽에 포위된 적을 격멸하는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5월 23일을 기해 반격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동해안축선의 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 소장도 대관령 전투에서 격전을 치룬 수도사단을 정비한 다음 좌전방 산악지대에 수도사단, 우전방 동해안에 제11사단을 배치하여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국군 제3군단에서 배속이 전환된 제3사단을 군단의 예비로 운용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5월 26일을 기해 대관령과 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1) 임진강-영평 진격전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의 좌전방 공격사단인 국군 제1사단은 5월 20일 토페카선 상의 문산을 1단계 목표로 서울 북방의 행주와 구파발을 연하는 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먼저 동거리-내화산을 제1차 목표로 선정하고 원당리 일대에서 정찰기지를 확보 중인 제15연대의 엄호 하에 삼송리-봉일천-동거리를 연하는 도로의 좌측에 제11연대, 우측에 제12연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상황도 4-3> 국군 및 유엔군의 캔자스선 진격상황



공격이 시작된 이후인 5월 20일 오후 무렵 국군 제1사단장 강문봉 준장은 제12연대 정면의 적 전투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제12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단의 예비인 제15연대를 작전지역의 중앙에 투입하였다.[28] 그리고 제15연대는 적의 의표를 찌르는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자정 무렵에 사단의 공격목표인 동거리와 내화산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우인접 미 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연대도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적의 측방 기습공격을 우려하여 추격을 중지하고 내화산-명봉산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29]

이날 저녁 전투상황을 분석한 국군 제1사단장은 이번 기회에 사단정면의 북한군 제1군단 예하 부대들의 임진강 도하를 차단하여 지대 내에서 이 부대들을 격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에 앞서 5월 21일 해가 질 무렵에 북한군이 먼저 국군 제1사단의 정면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이후 국군 제1사단의 좌전방에 배치된 제11연대는 북한군을 격퇴한 후 공격으로 전환하였지만, 우전방의 제15연대는 북한군의 박격포를 비롯한 중화기 사격과 이날 따라 종일 내린 비로 인해 문산천 도섭이 어렵게 되어[30] 문산천을 도하하여 북한군을 공격하는데 실패하였다.

다음날(22일) 제11연대와 제15연대는 전날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동이 틀 무렵 공격을 재개하였다. 공격결과 이 부대들은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과 우천으로 인해 북한군의 주력을 격멸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군단의 공격제대 중 가장 먼저 토페카선을 점령하였다.

한편 미 제1군단의 중앙지역과 우전방에서 각각 공격을 시작한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5사단은 1단계 작전목표인 토페카선을 비교적 순조롭게 확보하였으나 캔자스선을 확보하기 위한 2단계 작전 간에는 공격 초기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기습적인 역습을 받아 의외로 공격이 부진하였다.[31]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은 군단의 제2단계 작전의 결정적 목표인 영평을 공격할 우전방 사단인 미 제25사단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캐나다 제25여단을 미 제25사단에 재배속하였다.[32]

군단의 제2단계 작전 준비를 완료한 미 제1군단장은 미 제25사단에 5월 24일 공격을 재개하여 북쪽의 캔자스선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군단장의 명

령에 따라 공격의 선봉에 나선 미 제25사단은 돌빈 특수임무부대(T. F. Dolvin)를 편성하여 25일 영평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실시되기 전에 중공군이 먼저 38도선 북쪽으로 철수함으로 인해 최초 계획한 중공군 주력부대(제19병단 예하 부대인 제65군 등)의 격멸에는 실패하였다.[33]

한편 국군 제1사단도 사단정면의 캔자스선인 임진강을 목표로 5월 24일에 공격을 재개하여 문산 북방 임진강변의 진지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아울러 27일을 전후하여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이 임진강-전곡까지, 우전방 미 제25사단 주력 역시 전곡-영평의 캔자스선까지 각각 진출하는데 성공하자 군단장은 예하부대에 추격작전을 종료하고 캔자스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1군단은 이번 작전에서 공산군 주력부대 격멸에는 실패하였지만, 영평 일대를 점령하고 중공군 제65군을 한탄강 이북지역으로 몰아냄으로써 동두천 남쪽의 칠봉산-해룡산을 연하는 선에 저지진지를 구축하여 15~20일 동안 유엔군측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했던 공산군측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34]

2) 가평-화천 진격전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도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좌인접 미 제1군단과 같이 1단계 작전으로 먼저 문산-포천-가평-춘천을 연하는 토페카선의 우측 책임지역을 점령하고 계속적인 2단계 공격을 통해 캔자스선 상의 요충지인 화천을 점령한다는 계획 하에 좌로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5월 20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후 군단장 호지소장은 적의 저항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의 진출이 저조하자 사단장들에게 이번 작전의 승패가 신속한 기동에 좌우됨을 특별하게 강조하였다.[35]

이런 상황에서 미 제9군단은 미 제10군단의 전투정면을 축소하기 위한 미 제8군의 조치에 따라 5월 21일을 기해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이었던 우전방 홍천 부근 지역을 인수받아 군단의 작전지역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군단장은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책임지역을 인수한 우전방의 미 제7사단을 홍천-화천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화천저수지 서쪽을 공격하게 하고, 중앙의 국군 제6사단을 계관산-북배산-지암

리 방향으로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군단장은 좌전방으로 진출중인 미 제24사단에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가평을 공격하고, 국군 제2사단에게 미 제24사단의 가평 진출을 엄호한 후 좌인접 미 제1군단과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여 대보리 일대에서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25사단과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군단은 이와 같은 계획에 의거 5월 24일 07시에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36]

공격이 개시된 이후 미 제9군단장은 가평-춘천을 연결하는 토페카선과 군단의 최종 목표인 화천을 신속히 점령하기 위하여 군단의 주공인 미 제7사단에 춘천까지 기계화부대를 투입하여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7사단장 페렌버그 소장은 우선 제7수색중대와 전차 1개 소대, 공병 1개 분대로 하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Hazel)를 편성한 다음, 춘천을 정찰하고 복귀하도록 명령하였다.[37]

하젤 특수임무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중공군 제60군의 1개 연대규모가 춘천 남쪽의 고지군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특수임무부대는 오후 늦게 춘천에 도착하였고, 시가지 및 주변고지 일대에서 무방비 상태로 후퇴중인 중공군을 공격하여 다수를 살상하거나 생포하였다. 이 무렵 미 제7사단장이 특수임무부대를 순시하기 위해 전방으로 이동 중 중공군 매복부대에 걸려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춘천까지 진출했던 특수임무부대는 저녁 무렵 원대복귀한 후 5월 25일 아침에 사단의 예비부대로 재배치되었다.[38]

군단은 5월 25일 아침에 실시한 항공정찰결과를 토대로 오전부터 강력한 야포사격과 공중공격을 통해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 미 제7사단이 제17연대를 기동화하여 춘천으로 진출시킴으로써 제17연대는 군단의 공격을 선도하는 추격부대가 되었다. 이때 국군 제2사단의 엄호 하에 가평으로 진출한 미 제24사단 제21연대는 미 제7사단 제17연대와 지암리에서 연결하기 위하여 가평-지암리 도로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6사단도 5월 25일에 가평-춘천 사이의 산악지대를 따라 지암리-화천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제2연대와 제7연대가 적의 방어거점인 계관산-북배산을 연하는 고지군을 공격하는 동안 제19연대로 하여금 우회기동으로 북배산 후방으로 진출,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39]

이 때 전황을 분석한 미 제9군단장은 중공군이 통과할 군단의 최종목표인 화천

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을 조기에 점령, 적의 퇴로를 봉쇄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의 중앙으로 진출중인 국군 제6사단의 예하부대 중 제19연대는 계속하여 지암리를 서쪽에서 공격하고, 사단의 주력은 미 제7사단과 함께 화천저수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춘천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40] 이후 공격의 선봉에 나선 미 제24사단의 제21연대와 미 제7사단의 제17연대는 26일 오전에 지암리에서 합류하였고,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의 제19연대도 지암리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이들 3개 연대는 춘천-화천 도로와 가평-지암리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 진출선으로 형성된 삼각형 모양의 우리 속에 중공군을 몰아넣는데 성공하였다.

포위망 내의 중공군은 5월 27일 아침부터 대대 규모로 나뉘어 포위망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퇴로를 봉쇄한 아군에 의해 대부분 격멸되었다. 이후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북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후속하는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와 증원된 미 제24사단 제5연대가 합동으로 포위망 내의 잔적 소탕작전을 펼친 결과 2,000여 명의 중공군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제5연대가 마지막 소탕작전을 펼치는 동안 미 제9군단 정면의 중공군이 대규모 집단을 이루어 투항하였는데, 하루에 3만 8천여 명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투항하기도 하였다.[41] 이로 인해 중공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7사단의 제17연대가 적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5월 28일 14시에 마침내 화천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격은 중공군 제60군 예하 1개 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저지되었다. 이 무렵 지암리를 공격 중 화천저수지 남쪽으로 이동한 국군 제6사단(제19연대 결)도 공격을 개시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구만리발전소(현 화천수력발전소)-병풍산을 연하는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군단 좌측의 국군 제2사단과 미 제 24사단 역시 캔자스선 북쪽 약 10㎞ 지역의 군단 통제선인 버지니아선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미 제9군단의 좌전방사단인 국군 제2사단은 5월 23일 청평호 북쪽의 174고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쳐 이를 격퇴한 여세를 몰아 적의 방어거점인 호명산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단의 전선조정계획에 따라 군단의 좌전방부대인 영국군 제27여단으로부터 현리-원흥리-개주산 지역을 인수받아 운

악산을 공격하였으나 공격이 부진하였다.[42] 그러나 특공대를 투입한 순차적 공격을 통해 사단이 운악산을 점령하면서 중공군은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어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사단은 적을 추격하여 5월 28일 석룡산-백적산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함으로써 최초 계획하였던 캔자스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평-가평을 연결하는 도로상의 감제고지인 174고지를 공격하던 국군 제2사단 예하 제31연대 제1중대 제2소대는 적 2개 중대를 개활지로 유인하여 격멸시킴으로써 국군 최초로 미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기도 하였다.[43] 그리고 이러한 국군 제2사단의 공격 성공은 군단의 주공부대로서 사단의 우측에서 공격을 실시한 미 제24사단이 가평지역으로 진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로써 미 제9군단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된 가평-화천 진격전을 통해 군단의 작전목표를 달성(캔자스선 확보)하고 차후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미 제9군단이 실시한 이번 작전의 결정적인 전투는 화천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과 춘천-화천 간 도로, 춘천-사창리 간 도로, 사창리-화천 간 도로 그리고 가평에서 사창리에 이르는 도로변 일대에 집중되었다. 이 축선이 이번 반격작전의 승부처가 되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의 포위망 내에서 탈출하지 못한 중공군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중공군 전사에는 "중공군 제180사단은 1951년 5월 27일 아침 화악산 우측의 매봉을 점령하였으나 적이 매봉 북쪽의 사창리-화천선을 사전에 점령함으로써 사단이 적에 의해 포위되었다. 이때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동요되고 주저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투력을 집중하여 적의 배치 간격을 돌파하지 않고 분산 돌파를 채택함에 따라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44] 실제로 이 작전에서 중공군 제180사단은 완전 포위되어 와해되었다.

미 제9군단은 금번 작전에서 군단의 최종목표(화천) 점령이 지연되어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올라오는 중공군을 완전 포위하지는 못하였지만, 5월 28일 이후 마지막 3일 간의 전과를 포함하여 반격작전 기간 중 총 62,00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다.[45] 그러나 군단도 341명 전사, 2,011명 부상, 그리고 195명이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46]

미 제9군단이 실시한 가평-화천 진격전이 갖는 의미는 크게 상급부대 작전에 기여한 점과 전투승리의 결정적 요인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미 제9군단의 작전결과는 미 제8군이 와이오밍선 점령을 위한 파일드라이버(Pile Driver Operation) 작전을 시행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고, 인접 군단의 성공적인 전투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유엔군의 작전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이 가평-화천 진격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술적 요인으로는 임무형 지휘, 부대특성과 지형을 활용한 작전계획 작성, 신속한 작전템포, 적시 적절한 통합화력 운용과 효과적인 전술심리전 등을 제시할 수 있다.[47]

3) 양구-인제 진격전

미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전선에서 한 때 속사리-하진부리-대관령 일대까지 진출했던 중공군의 공격이 미 제8군의 예비인 미 제3사단과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의 효과적인 방어작전으로 저지되는 등 5월 22일을 전후하여 전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자 공세작전으로의 전환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에 신속히 소양강 선으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지대 내 적을 포위함과 동시에 적의 증원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표 4-15> 양구-인제 진격전 부대 배치

축선	좌전방	우전방	후방지역	예비
부대	미제1해병사단	미제2사단 (제187공정연대 전투단)	미제3사단	군단예비:국군 제5,7,9사단 미 제8군예비: 국군 제8사단
진출 지역	한계-인제 간 도로 서쪽	한계-인제 간 도로 동쪽	운두령 (최초)	
공격 방향	양구	인제	창촌 (차후)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 2개 사단으로 적의 주보급로인 홍천-인제-간성을 연결하는 도로상의 요지인 양구와 인제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또 다른 1개 사단으로 홍천-인제를 연결하는 도로의 남쪽에 포위된 적을 격멸하는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48] 이 계획에 의거 미 제1해병사단은 한계-인제 간 도로의 서쪽으로 진출하여 양구를, 미 제2사단은 한계-인제 간 도로의 동쪽으로 진출하여 인제를, 미 제3사단은 운두령을 점령한 다음 계속해서 속사리-현리 간 도로와 하배제-양양 간 도로의 교차점 부근인 창촌을 각각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국군 제5사단과 제7사단, 제9사단은 군단예비가 되었으며 미 제8군의 예비인 국군 제8사단도 군단의 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미 제10군단 예하의 모든 공격제대들은 5월 23일 08시를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이 개시된 이후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공격제대들의 신속한 전방진출을 지시받은 미 제10군단장은 미 제2사단에 전차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소양강변의 음양리 교량을 조기에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장은 게르하르트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Gerhardt)를 편성한 다음, 이 특수임무부대에게 한계-인제 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공격하여 음양리 교량을 점령함으로써 중공군 제27군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게르하르트 특수임무부대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중공군 제27군 예하 일부 부대의(1개 사단 규모)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당시 상황을 중공군의 전사에는 "5월 24일 적이 소양강 도하장인 부평리, 구만리를 점령하고 퇴로를 차단하여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27군은 부평리 남쪽 홍천-인제 간의 도로 양측 고지에서 고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군은 최초 소양강을 이용하여 적을 저지하려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9]

중공군 제27군 예하 일부 부대의 퇴로를 차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을 추격한 미 제2사단은 5월 25일 제23연대가 소양강 북쪽에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제38연대는 공격이 지연되어 현리 부근까지 밖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가 소양강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그동안 미 제2사단의 일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온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동해안의 간성 점령을 목표로 하는 베이커 특수임무부

대(T. F Baker)에 참가하기 위해 음양리 남쪽에 집결, 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이 시기에 현리와 인제 사이에는 북한군 부대들과 낙오병들이 꽉 차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은 미 제1해병사단에 신속히 양구를 점령하고, 미 제2사단도 인제를 점령하는 동시에 군단 예비부대로 베이커 부대를 편성한 다음 신속히 간성을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미 제3사단에게는 국군 제1군단 정면의 적을 포위공격하기 위하여 찰리 특수임무부대(T. F. Charlie)를 편성하여 하배재에서 양양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공격하도록 할 계획이었다.[50]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의 양구 점령과 미 제2사단의 인제 및 간성 점령은 산악지형을 이용한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미 제3사단의 양양 방면으로의 공격도 사단이 공격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미 국군 제1군단이 양양 일대까지 진출함으로 인해 취소되었다.[51]

결과적으로 미 제10군단은 재반격작전의 초기단계에서 공산군측의 주요 부대들에게 심대한 손상을 주었다. 그러나 군단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철수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철수로 상의 요지인 양구-인제 지역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공산군을 섬멸하기 위한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중공군의 탈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국군 제1군단의 동해안 지역 캔자스선 확보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은 중서부 및 중동부전선의 미 군단들이 캔자스선 진출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인 5월 25일까지 하진부리로 진출한 북한군 제12사단 및 중공군 제27군의 일부 부대들과 대관령 일대에서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도 캔자스선을 목표로 반격작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52]

군단장 백선엽 소장은 대관령전투에서 격전을 치룬 수도사단을 일부 정비한 다음 1단계로 매복산-가잔리-인구리를 연하는 선을 목표로 좌전방 산악지대에 수도사단, 우전방 동해안에 제11사단으로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국군 제3군단에서 배

속이 전환된 제3사단을 아직 부대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군단예비로 지정하여 송계리에서 신속히 부대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표 4-16> 국군 제1군단 공격계획(1951. 5. 26)

축 선	좌전방	우전방	예 비
진출지역	산악지역	동해안	제3사단 (송계리)
부대	수도사단	제11사단	

군단의 계획에 의거 공격제대들은 5월 26일 06시에 하진부리-대관령-강릉을 연결하는 국도변에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 대관령 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중공군 제9병단 제27군과 북한군 제12사단 등이 전의를 상실한 채 퇴로차단을 우려하여 서둘러 후방(오대산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었다.[53]

군단은 퇴각하는 공산군을 추격, 먼저 수도사단이 소규모 패잔병들의 기습적인 저항과 험준한 태백준령을 극복하면서 큰 전투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공격을 실시하여 매봉산과 복용산으로 진출한 후 설악산 방향으로 계속 공격하였다. 그리고 제11사단은 동해안을 따라 3개 연대 병진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중앙에서 공격한 제13연대가 주문진 부근에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는 특별한 북한군의 저항이 없어 좌우측의 제9연대와 제20연대가 5월 27일에 캔자스선의 동쪽 끝 지점인 양양에 도달함으로써 미 제8군사령관이 의도한 캔자스선 확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캔자스선으로의 반격작전을 통해 중공군 제180사단을 섬멸하는 등 공산군측에게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가하고 캔자스선 재확보라는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

2. 와이오밍(Wyoming)선 확보

국군과 유엔군은 5월 20일 이후 실시된 1차 반격작전을 통해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한 캔자스선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캔자스선의 요새화와 방어종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의 북쪽에 있는 방어에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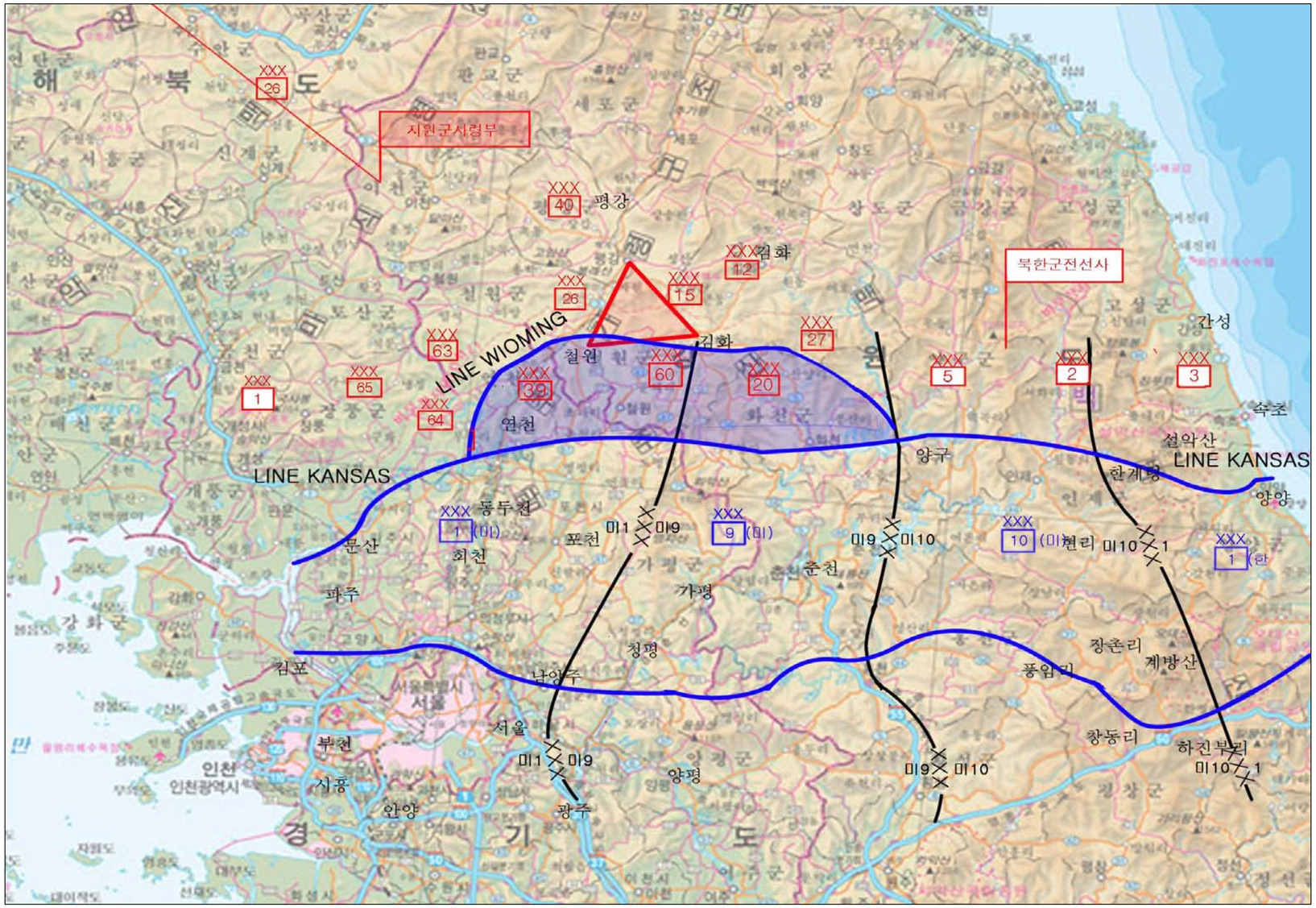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은 5월 말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여 캔자스선과 함께 이중(二重) 방어선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철의 삼각지대가 공산군 공세의 근원지이므로 이곳이 적의 수중에 들어 있는 한 캔자스선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캔자스선에 대한 공산군의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철의 삼각지대에서 화천저수지와 춘천으로 향하는 공산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와이오밍선까지 진격하는 제한된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54] 그리고 이 작전의 명칭을 '말뚝을 박듯이 전선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로 파일드라이버 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이 무렵 공산군도 주요 부대들이 38도선 북쪽으로 철수를 완료한 후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이 제한된 공격으로 전환되었음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예비대를 투입함은 물론 철수하던 패잔병들을 집결시켜 캔자스선 북쪽에서 방어진지를 보강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공산군과 유엔군은 철의 삼각지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1) 철원-김화 진격전

미 제8군사령관은 와이오밍선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작전의 중점을 미 제1군단의 책임지역인 철원과 김화지구를 봉쇄하는데 두고,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을 5월 29일부로 미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하는 등 제1군단의 전투력을 강화시켰다.[55]

<상황도 4-4> 국군 및 유엔군의 와이오밍선 진격상황



<표 4-17> 미 제1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계획

부대	국군 제1사단	미제1기병사단 (영연방제28여단 배속)	국군 제9사단	미제3사단	미제25사단 (터키여단 배속)
배치 지역	임진강 남쪽	전곡 남쪽	영평 북쪽	운천 남쪽	도평리
공격 방향	임진강 북쪽	전곡-연천-임진강	향로봉-지장봉-고대산	운천-평강 도로	도평-금성 도로
목표	군단 좌측방 엄호	임진강	고대산	철원	김화

* 비고 : 미 제3사단과 국군 제9사단, 미 제10군단에서 미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 (1951년 5월 29일 부)

이에 따라 미 제1군단은 전선을 일부 조정하여 국군 제1사단을 임진강 남쪽에, 미 제1기병사단(영연방 제28여단 배속)을 전곡 남쪽에, 국군 제9사단을 영평 북쪽의 누대리에, 미 제3사단을 운천 남쪽에,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배속)을 도평리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군단의 주력부대들은 6월 3일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 북쪽에서 강력한 정찰활동으로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는 동안 좌전방 미 제1기병사단이 전곡-연천 도로를 따라 북서쪽의 임진강을, 중앙의 국군 제9사단이 향로봉-지장봉을 연하는 산악을 따라 고대산을, 미 제3사단이 운천-평강 도로를 따라 철원을,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이 도평-금성 도로를 따라 김화를 향해 각각 공격을 시작하였다.[56]

군단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이후 좌전방의 국군 제1사단은 비교적 미약한 적의 저항을 제압하고 임진강 북쪽지역까지 진출하여 군단 좌측방에 대한 엄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사단의 우측 부대로 전곡-연천간 도로를 따라 공격을 실시한 미 제1기병사단 역시 적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전곡 북서쪽 지역의 임진강 일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군단 책임지역의 중앙과 우전방

지역에서는 공격제대가 공격을 개시한 이후 적의 완강한 저항과 더불어 기상마저 악화됨에 따라 첫날부터 공격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이들 공격부대 중에서 먼저 국군 제9사단은 영평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향로봉과 지장봉을 차례로 점령한 다음 최종목표인 고대산을 탈취 확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단에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군 제9사단장 최석 준장은 먼저 제28연대로 하여금 향로봉과 지장봉을 점령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사단의 주력부대인 나머지 2개 연대를 병진으로 공격시켜 최종 목표인 고대산을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예하부대에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우전방 제28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과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공격 첫날부터 악전고투하기도 하였으나 공격개시 5일 만인 6월 7일 고대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향로봉과 지장봉을 정면과 양측방으로 포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9사단이 6월 9일 고대산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을 재개하자 적은 지장봉 북쪽의 402고지와 638고지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단은 정면의 중공군(65군 예하 165사단)과 작전을 개시한 이후 최대 규모의 결전을 펼쳤다.

그런데 국군 제9사단이 고대산 확보를 목표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을 때 국군 제9사단의 우인접에서 공격중이던 미 제3사단 제7연대는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6월 11일에 가서야 신흥동 일대에서 국군 제9사단의 제28연대와 연결할 수 있었다. 이후 미 제3사단 제7연대와의 연결에 성공한 국군 제9사단의 제28연대는 지체 없이 미 제3사단 제7연대와 병진공격을 속개하여 경미한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최종 목표인 고대산을 점령함으로써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였다.[57]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국군 제9사단이 전개한 고대산 전투의 결과 사단은 중공군 900여명을 사살하고 26명을 생포하는 등의 전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사단 역시 158명이 전사 또는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58]

한편 국군 제9사단의 우인접에서 공격을 실시한 미 제3사단과 미 제25사단은 공격을 개시한 6월 3일 이후 8일까지 적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다소 고전하였다. 그러나 적의 저항을 극복하고 9일부터 적을 추격한 결과 이들 두 개 사단

(미 제3사단과 제25사단)도 6월 11일에 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의 좌반부(左半部)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59]

그리고 군단의 예하 사단들이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자 미 제1군단장은 6월 13일 전차와 보병으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평강 일대를 정찰하는 등 이 선(와이오밍선)에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부대를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2) 대성산-취봉 진격전

5월 30일을 전후하여 캔자스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미 제9군단은 좌에서 우로 국군 제2사단, 미 제24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6사단을 배치하여 진지강화 및 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후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공격을 재개하여 와이오밍선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접수한 미 제9군단장은 3개 사단으로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1개 사단을 군단예비로 확보하기로 결심하였다.[60] 이는 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정면인 김화에서 화천저수지에 이르는 작전지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으로 기동공간이 제한됨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좌전방 국군 제2사단은 김화 동쪽의 도로를, 중앙의 미 제7사단은 적근산 남쪽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를 목표로, 그리고 우전방 국군 제6사단은 화천저수지 북쪽에서 주변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취봉(鷲峯)을 향해 각각 공격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미 제24사단은 군단예비가 되어 사창리 부근에 집결하였다.

<표 4-18> 미 제9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계획

지역	좌전방	중앙	우전방	예비
부대	국군 제2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24사단 : 사창리 부근 집결
공격 방향	김화 동쪽 도로 통제 감제고지	적근산 남쪽 도로 통제 감제고지	화천저수지 북쪽 도로 감제(취봉)	

이후 6월 5일을 기해 미 제9군단이 와오밍선을 목표로 각 사단별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좌인접 미 제1군단의 공격상황과 유사하게 첫날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먼저 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국군 제2사단은 제31연대가 사창리-다목리-김화에 이르는 계곡 통로 좌측의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 능선을, 제17연대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로부터 두류산 부근 진지를 인수받아 사창리-다목리-김화에 이르는 계곡 통로의 우측 능선을 따라 공격을 실시하였다. 사단이 2개 연대 병진으로 공격을 전개하던 중에 사단장 함병선 준장은 이틀 동안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친 제31연대를 예비로 전환하고 제32연대를 좌전방에 투입하였다. 이후 사단이 공격을 계속한 결과 제32연대가 6월 10일 먼저 육단리 부근의 와이오밍선을 점령한데 이어 제17연대도 6월 11일 대성산을 확보하고 김화-화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진출함으로써 사단 전체가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였다.[61]

한편 군단의 중앙에서 공격을 담당한 미 제7사단은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사단의 우전방 제31연대 작전지역의 일부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주력부대들이 적근산 남쪽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를 목표로 화천-김화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공격을 실시하였다.[62] 그 결과, 공격제대는 6월 9일 다목리 동쪽 고지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6월 10일에 와이오밍선인 마현리-사방거리를 연하는 도로변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군단의 공격제대 중 가장 치열한 격전을 치룬 부대는 우전방에서 공격을 실시한 국군 제6사단이었다.[63] 군단으로부터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작전지역이 북한강 서쪽의 산악지대임을 감안하여 좌전방 제7연대는 백암산에서 화천으로 뻗어 내린 643고지-887고지-992고지-취봉 방향으로 공격하고, 우전방 제19연대는 화천저수지 북쪽의 감제고지인 일산(1190고지)과 재안산(1030고지)을 점령하여 제7연대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명령하였다.[64] 이때 국군 제6사단의 정면에는 중공군 제20군이 취봉(△989) 일대에 3개 연대규모를 투입하여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산과 재안산 일대에는

3면이 북한강으로 에워싸여 있어 적정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65] 이에 따라 사단의 주공 임무를 부여 받은 제7연대장은 정면 돌파보다는 측방을 이용한 포위공격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6월 5일 13시에 643고지를 향해 양측방으로 포위공격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공격초기에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돈좌되는 듯하였으나, 연대의 제1중대가 적의 후방으로 진출하면서부터 포위를 우려한 적이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연대는 643고지를 탈취하였다. 이후 공격의 발판을 마련한 제7연대는 지형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887고지를 공격하여 일시 고지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리한 지형과 기상여건 하에서 적의 역습을 받아 고지에서 물러나야만 하였다. 이 무렵 제7연대의 우인접에서 공격을 실시한 제19연대가 재안산을 점령, 적의 좌측방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리고 6월 9일 기상이 호전되자 제7연대는 3개 대대를 투입하여 좌우측방과 정면의 3면에서 887고지를 향한 포위공격을 재개하여 887고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공격개시 6일째인 6월 10일 05시부터 제7연대는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 하에 3개 대대 병진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지형상의 불리를 극복하고 연대규모의 적을 격퇴하면서 화천저수지 북쪽 도로를 감제할 수 취봉 일대를 점령하였다.[66] 이후 이번 전투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적은 5~7㎞ 후방의 백암산으로 퇴각하였고 국군 제6사단은 와이오밍선까지 진출하였다.

이처럼 미 제9군단은 공격초기에는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과 지형상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공격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일부 사단 간 작전지역을 조정하는 등의 작전적 조치와 함께 지형의 특성을 활용한 전술적 기동(측방 및 배후 침투 등), 장병들의 강력한 전투의지 등을 통해 군단의 모든 전방부대들이 와이오밍선까지 진출하는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9군단은 6월 10일을 전후하여 김화 동쪽 와이오밍선의 우반부(右半部) 전체를 확보하게 되었고, 미 제8군 역시 전곡-철원-김화-화천저수지에 이르는 와이오밍선 전체를 확보한 후 방어진지 강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3. 신캔자스선으로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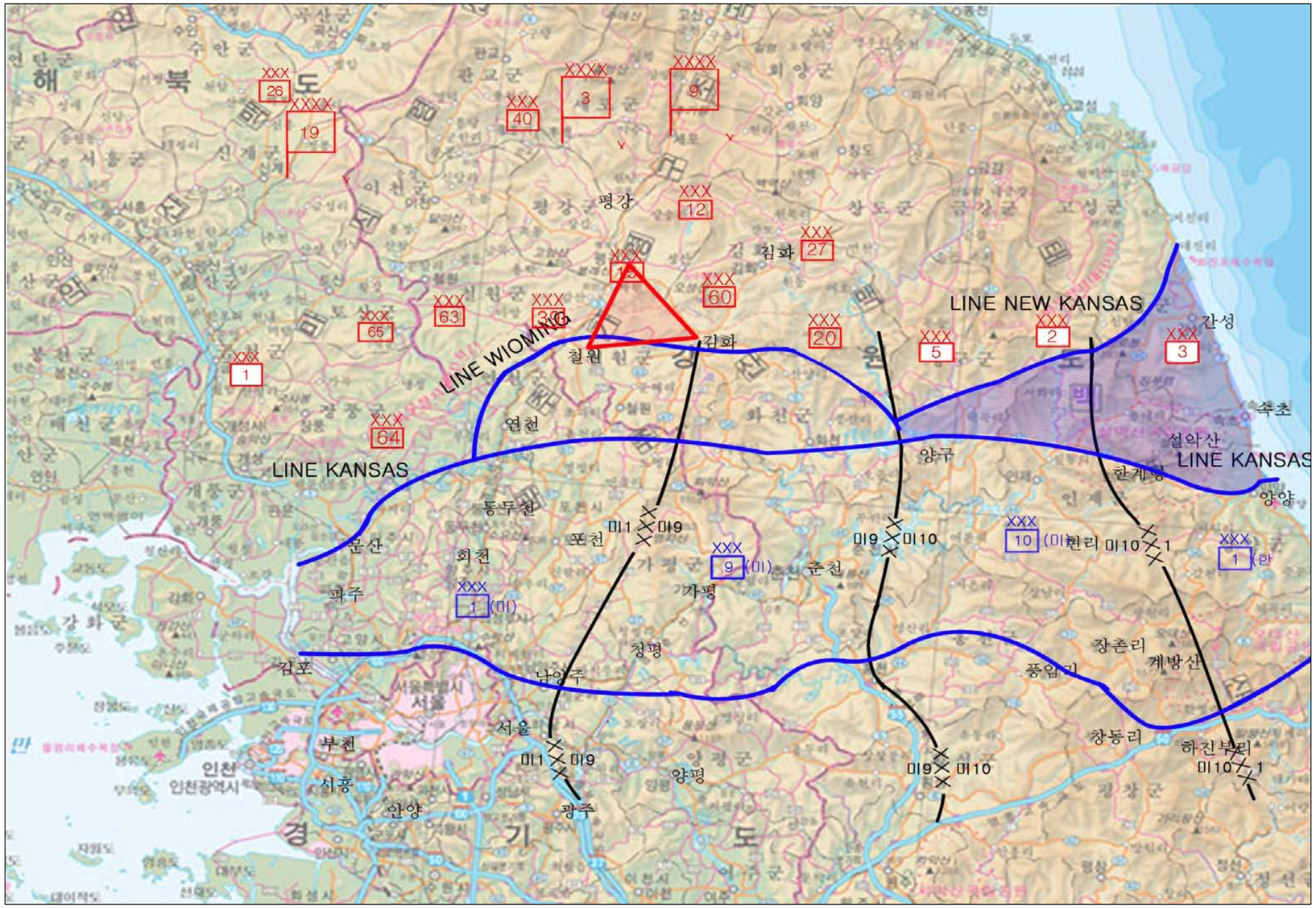
앞서(캔자스선 진출 : 양구-인제 진격전)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부전선에 집중된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속사리 및 하진부리 일대에서 저지한 미 제10군단은 신속히 소양강 선으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지대 내의 적을 포위함과 동시에 적의 증원을 저지하라는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때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 2개 사단(미 제1해병사단, 미 제2사단)으로 적의 주보급로인 홍천-인제-간성을 연결하는 도로상의 요지인 양구와 인제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또 다른 1개 사단(미 제3사단)으로 홍천-인제를 연결하는 도로의 남쪽에 포위된 적을 격멸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5월 23일 08시를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67]

공격을 개시한 이후 군단은 적극적인 특수임무부대 운용 등을 통해 적에게 심대한 손상을 주기도 하였지만 군단 정면의 적의 저항이 완강할 뿐만 아니라 지형마저 험준하여 중공군과 북한군이 철수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철수로상의 요지인 양구-인제 지역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미 제10군단은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등 중서부전선의 유엔군 부대들이 캔자스선을 확보한데 이어 계속해서 와이오밍선 공격을 준비하고,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도 속초 및 간성 일대까지 진출해 있을 무렵인 5월 말경에도 화천저수지 남쪽-양구일대-소양강 동쪽을 연하는 선까지 밖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68]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8군사령관은 캔자스선에 이어 와이오밍선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의 중점을 미 제1군단의 책임지역인 철원과 김화지구를 봉쇄하는 데에 두고,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을 5월 29일부로 미 제1군단에 배속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은 전선의 부대배치를 일부 조정하여 군단의 좌전방 화천저수지 남쪽에 군단의 예비인 국군 제7사단을, 군단의 중앙 지역인 양구 일대에는 미 제1해병사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우전방인 소양강 동쪽은 국군 제5사단이 미 제2사단으로부터 인제-원통 일대의 진지를 인수받아 새롭게 작전책임을 지도록 조치하였다.[69]

<상황도 4-5> 국군 및 유엔군의 신캔자스선 진격상황



미 제10군단의 전선 정비가 완료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간성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중동부 및 동부전선의 부대들이 24번 도로(홍천-인제-간성)를 주보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에서 캔자스선을 이 도로의 북쪽에 위치한 화천저수지-해안분지(펀치볼) 남쪽-향로봉-거진을 연결하는 선으로 조정하여 신캔자스선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파일드라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으로 하여금 이 선(신캔자스선)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10군단의 공격이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24번 도로를 주보급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성 항구로부터도 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작전은 도로망이 결핍된 동부전선의 군수지원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전이 되었다.[70] 뿐만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에서 적을 공격하는데 있어 작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해안분지(펀치볼)를 통제하게 되는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전이었다.

<표 4-19> 신캔자스선 공격을 위한 미 제8군의 부대배치

축선	좌전방	중	우전방	동해안
배치 지역	화천저수지 남쪽	양구일대	소양강 동쪽	동해안 간성 일대
부대	국군 제7사단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1해병연대)	국군 제5사단 (미제2사단)	국군 제1군단
공격 방향	화천저수지 북쪽 군량현	양구 북쪽 해안분지	원통북방 서화리	거진, 향로봉 일대

* 비고 : 군단예비(국군 제9사단, 미 제2사단, 미 제3사단), 미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 (국군 제9사단/미 제3사단, 5월 29일 부)

위와 같은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방침에 따라 미 제10군단의 예하부대 중 국군 제7사단은 화천저수지 북쪽의 군량현을, 미 제1해병사단은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와 함께 양구 북쪽의 해안분지를,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은 원통 북방의 서화리 일대를 향해 각각 공격을 실시하게 되었다.[71] 이로써 이번에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부대들이 주축이 되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신캔자스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미 제10군단의 우측 지역인 동해안 축선에서는 국군 제1군단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신캔자스선을 확보하기 위한 미 제10군단의 4개 축선별 공격작전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군량현 전투

미 제10군단의 예하 부대 중에서 화천저수지 북쪽의 군량현을 향해 공격을 실시하게 된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의 5월 공세 시 많은 피해를 입고, 군단예비가 되어 하안홍리 일대에서 재편성에 주력하던 중 군단 좌전방 사단으로 다시 전선에 복귀하였다. 전선으로 복귀한 이후 사단은 화천저수지 남쪽의 캔자스선상에서 방어태세를 강화하던 중, 6월 6일 군단으로부터 신캔자스선 상의 마석봉-504고지-757고지를 확보한 후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에 강력한 정찰거점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72]

작전지역을 분석한 국군 제7사단장은 화천저수지로 유입되는 북한강 동쪽의 작전지역이 험준한 고지일 뿐만 아니라 기동공간이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먼저 제5연대만을 공격제대로 투입, 신캔자스선을 점령하고 이후 제3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 일대를 확보한 다음 정찰거점을 설치하기로 결심하고 예하 연대에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5연대는 6월 7일 오전 내평리에서 공격대기지점인 양구 남쪽의 가창촌 부근으로 이동하여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공격준

비의 일환으로 연대장 김상봉 중령이 양구 북쪽의 함춘리(含春里) 부근에서 참모들과 적진을 관측하던 중 적의 집중포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포격으로 인해 연대장과 장교 2명, 사병 16명이 부상을 입어 후송되고, 후임 연대장으로 김용배(金龍培) 중령이 부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연대장의 교체로 인하여 연대의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였으나 제5연대의 전 장병들은 심기일전하여 계획대로 6월 8일 제1대대가 마석봉을, 제3대대가 504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73] 그리고 제2대대와 제3대대가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연대는 최종 목표인 757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인 제2대대까지 투입, 공격을 실시하였다.

한편 제5연대가 신캔자스선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사단의 주공으로 투입된 제3연대는 6월 10일 군량현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연대는 미 제1해병사단의 근접 항공지원과 155mm 곡사포의 지원사격이 종료된 6월 10일 09시를 기해 사단의 최종 목표인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7사단의 예하 부대들이 사단의 공격목표인 주요 고지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인 6월 10일 13시경에 미 제10군단장이 사단을 방문하여 사단의 작전상황을 시찰한 후 국군 제7사단의 화력을 증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7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 예하 제1해병연대가 대전차포를 비롯한 주요 화력을 국군 제7사단에 추가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국 제7사단의 예하 부대들은 미 제1해병사단의 추가적인 근접 항공지원[74]과 155mm 곡사포 화력지원에도 불구하고 주요 목표인 마석봉-504고지-757고지와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 등을 탈취할 수 없었다.

이에 제3연대 제1대대장은 2개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야간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6월 10일 21시에 특공조의 함성을 신호로 대대가 총공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근접전투를 전개한 끝에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에 마석봉을 탈취, 확보하였다.[75]

이후 국군 제7사단은 6월 12일에 공격을 재개하여 먼저 제3연대가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추격하여 백석산(1142고지)으로 연결되는 능선의 발판인 917고지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제5연대도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7사단은 군단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캔자스선 상의 마석봉-504고지-757고지를 확보한 후 백석산 남쪽의 주요 고지에 정찰거점을 설치하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었다.

2) 도솔산 전투

신캔자스선[76] 확보를 목표로 파일드라이버 작전을 진행 중이던 미 제10군단의 좌전방 사단인 국군 제7사단이 군량현 전투를 개시한 1950년 6월 8일경 군단의 중앙 지역에 배치된 미 제1해병사단도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방침에 따라 양구 북쪽의 해안분지를 최종 목표로 양구 북쪽에 위치한 대암산을 향해 공격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국군 제1해병연대는 양구 남쪽의 원동계곡에서 사단의 예비가 되어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었다.

한편 군단의 좌전방사단인 국군 제7사단의 공격이 차질을 빚게 되자 미 제10군단장은 미 제1해병사단으로 하여금 국군 제7사단에 화력의 일부를 증원토록 하는 동시에 예하 사단의 책임지역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지역이 소양강 서쪽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미 제1해병사단이 대암산-도솔산-대우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험준한 지형과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공격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장은 공격 초기부터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미 제5해병연대를 소양강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대신 국군 제1해병연대를 미 제5해병연대 작전지역에 투입하였다.[77]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투입된 국군 제1해병연대는 대암산을 목표로 6월 9일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공격이 여의치 못하여 예비부대까지 투입하였으나 다음날까지 부대기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78] 이에 따라 연대장은 6월 10일 긴급 작전회의를 개최하여 야간공격을 결정하였으며,[79] 연대 전 장병들은 6월 11일 02시에 무조명 무지원하에 또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공격을 실시한 결과 공격제대가 공격개시 3시간 만인 6월 11일 05시에 적이 난공불락

의 요새라고 호언하면서 대암산 전방에 구축한 주저항선상의 적 진지들을 점령하였다. 이후 연대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전개하여 경미한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대암산을 좌우로 연하는 신캔자스선까지 진출, 우인접 부대인 미 제5해병연대와 연결하였다.

국군 제1해병연대가 신캔자스선상의 대암산을 점령하자 6월 14일 미 제1해병사단장은 국군 제1해병연대에 공격을 계속하여 해안분지를 남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도솔산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 미 제1해병사단장은 국군 제1해병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 제1해병연대의 좌측에 미 제7해병연대를 투입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장으로부터 명령을 접수한 국군 제1해병연대장은 연대 예하 제3대대를 제1제대로 투입하여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제1대대를 후속부대로 제2대대를 예비로 각각 운용하여 도솔산 일대를 확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도솔산 일대에는 북한군 제12사단 예하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저항하고 있었다.[80]

공격준비를 완료한 국군 제1해병연대 예하 제3대대가 6월 17일에 공격을 개시하자 북한군은 증강된 포병화력의 지원하에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두더지처럼 교통호를 구축하면서 적진으로 접근한 후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6월 19일 새벽 마침내 도솔산을 점령하였다.[81] 이어서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1대대가 제3대대를 초월하여 도솔산에서 좌측으로 뻗어 내린 능선으로 진출하여 미 제7해병연대로부터 목표고지의 일부를 인계 받음으로써 국군 제1해병연대는 도솔산 일대를 완전히 탈취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1해병연대는 적 사살 2,263명, 생포 42명과 중기관총, 박격포, 개인화기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희생도 커 전사 123명, 부상 582명의 손실을 입었다.[82]

결과적으로 국군 제1해병연대는 연대 전 장병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신캔자스선상의 대암산은 물론이고 그 북쪽에 위치한 도솔산 일대까지 확보하였다. 이로써 미 제1해병사단은 펀치볼을 남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3) 서화리 전투

국군 제5사단은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군단의 예비부대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군단의 신캔자스선 확보를 위한 작전계획에 따라 미 제2사단으로부터 인제-원통 일대의 진지를 인수받아 새롭게 작전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은 군단의 우전방 부대로서 소양강 동쪽에 배치되어, 원통 북방 서화리 일대의 후덕리-981고지-산두곡산(△1,019)을 연하는 신캔자스선을 향해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83]

사단은 2개 연대 병진으로 6월 4일을 기해 좌전방 제27연대가 서화리-인제 간 도로 우측의 명당산-피양동-서화리-987고지 방향으로, 우전방 제36연대가 향로봉 산맥 서쪽의 1242고지-1122고지-산두곡산 방향으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의 전방 연대들이 공격을 진행중에 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좌전방 연대인 제27연대의 정면에서 아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던 적의 일부 부대가 사단의 좌인접 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 예하 미 제5해병연대 정면의 적을 증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5사단장은 사단의 예비인 제35연대로 하여금 일부 병력으로 적진 후방의 서화리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사단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시작한 제35연대의 일부 부대가 정면의 적과 서화리 쟁탈전을 펼치는 동안 제27연대는 명당산에서 연이틀 계속해서 적의 선제 기습공격을 받았으나 포병화력을 지원받아 치열한 격전 끝에 이를 격퇴시켰다.[84] 이후에도 제27연대가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명당산 북쪽으로 연결된 752고지 및 851고지에서 고지쟁탈전만 펼쳤을 뿐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공격에 진전이 없었다.

6월 10일경 미 제10군단장은 이미 신캔자스선으로 진출한 좌우인접 부대들과 국군 제5사단 간에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군 제5사단의 공격을 독촉하였고, 국군 제5사단장도 제27연대에 중간목표인 851고지를, 제35연대에 천도리를, 제36연대에 1122고지를 각각 필승의 각오로 탈취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제5사단의 공격제대들은 이날(6월 10일)도 적의 진지

를 돌파할 수 없었으며, 제27연대 제3대대만이 851고지를 점령하였다.[85] 사단은 계속해서 다음날인 6월 11일에도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6월 13일에, 851고지를 점령하여 중간목표를 확보한 제27연대를 사단 예비로 전환하고 공격을 계속중인 제35연대와 제36연대에 신속하게 신캔자스선을 점령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6월 14일 제35연대는 적의 후방거점인 서화리 부근으로 진출하여 신캔자스선 진출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후 부대를 재정비한 공격제대(제35연대, 제36연대)들은 6월 17일 마지막 일전을 각오하고 적과 치열한 근접전투를 펼쳐 1,122고지를 포함하여 사단의 최종목표인 서화리 일대의 후덕리-981고지-산두곡산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5사단은 6월 4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14일간의 격전 끝에 신캔자스선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며,[86] 이때부터 미 제10군단도 좌·우 인접 군단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신캔자스선에서 진지강화와 재편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4) 국군 제1군단의 양양-간성 진격전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대관령 일대에서 저지하고 5월 26일 06시에 경강국도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국군 제1군단은 5월 27일을 기해 양양까지 진출함으로써 조기에 캔자스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군단은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공격을 계속하였다.

군단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이던 5월 28일경 군단장 백선엽 소장은 설악산 일대에 1개 연대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격책임지역을 일부 조정하여 제11사단이 설악산 일대를, 수도사단이 강력한 적의 저항이 예상되는 동해안의 간성을, 그리고 재편성을 완료한 제3사단 예하의 제18연대가 설악산 남쪽의 가라피-마산리 일대를 각각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87]

군단의 조정된 계획에 따라 5월 29일 미명을 기해 수도사단의 제1연대는 간성 서북쪽 504고지를, 우전방 제1기갑연대는 간성을, 제11사단의 제20연대는 신선봉을 그리고 제3사단 제18연대는 가라피를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공격을 실시한 결과 이번 공격작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가 예상외로 4시간도 못된 09시경에 간성을 점령하였고 나머지 부대들의 진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88]

군단의 작전이 종료될 무렵 미 제8군사령관은 5월 30일을 기하여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서쪽으로 10㎞ 이동시켜 1098고지-매봉산-당정곡-안산-가리봉을 연하는 선으로 조정하고, 국군 제1군단으로 하여금 협조점인 당정곡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89]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을 접수한 국군 제1군단장은 예하 사단의 책임지역을 일부 조정하여 수도사단에 향로봉산맥을 연한 방어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제11사단에 간성 및 설악산 일대에 대한 방어책임을, 제3사단에 마산리—가라피를 연하는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각각 부여하였다.

국군 제1군단장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먼저 접적이 경미한 간성 서북쪽의 제1기갑연대 진지를 제11사단 예하 제13연대에 인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예하 연대들이 칠절봉, 원봉, 매봉산을 비롯한 주요 고지와 서북쪽의 향로봉산맥을 각각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90]

이무렵 국군 제11사단장은 제13연대를 간성에, 제20연대를 용대리-미시령 도로의 남쪽 고지에, 제9연대를 설악산 서쪽의 능선에 배치하여 각각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군 제3사단장은 제18연대를 마산리-가리피 도로 남쪽의 감제고지에 배치하고 나머지 연대를 예비로 운용하였다. 이때 국군 제1군단의 적극적인 진출에 따라 국군 제1군단과 군단의 좌인접 부대로 공격중이던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5사단 사이에 부채꼴 모양의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국군 제1군단은 적의 측방공격에 대비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진지강화에 주력하였다.

5) 국군 제1군단의 향로봉 방어 전투

1951년 5월 말 향로봉산맥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당정곡-칠절봉에, 제1기갑연대를 원봉 정면에, 제26연대를 향로봉-건봉령에 각각

배치한 후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지공사에 주력하면서 전방지역에 대한 위력수색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인접에는 제11사단이 간성 북쪽의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었고, 좌인접에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5사단이 인제-원통 선에서 신캔자스선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91] 이때 전방의 북한군 제13사단은 서화리-산두곡산 일대에 강력한 진지를 편성하고 중동부전선에서 후퇴하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13사단이 철수중이던 북한군 및 중공군과 합세하여 국군 제5사단과 향로봉 산맥으로 진출한 수도사단으로부터의 포위공격 위협에 직면하자 증원 병력을 투입, 측방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후 수도사단 예하 제1연대는 6월 4일 09시부터 1개 대대규모의 적과 매봉산 및 칠절봉 일대에서 오전 내내 치열한 격전을 펼쳐 이를 격퇴하였으나, 제1기갑연대는 적의 계속된 증원병력 투입으로 인해 전초진지를 포기하고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1군단장은 주저항선의 방어태세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대 배치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제11사단 예하 제9연대가 간성 북쪽에 배치되고, 제20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제1연대의 당정곡-매봉산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군단은 당정곡-향로봉-건봉령-거진을 연하는 신캔자스선의 주저항선에 좌로부터 수도사단 예하 제20, 제1, 제1기갑, 제26연대와 제11사단 예하 제13, 제9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주저항선의 방어를 보강하였다.[92]

수도사단이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6월 8일 09시 30분경 적의 곡사포와 박격포 사격이 향로봉과 그 북쪽의 1079고지로 집중되었고, 잠시 후 적 1개 대대규모가 안개를 이용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방어중인 1079고지로 접근하였다. 이때부터 쌍방은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이게 되었다.[93] 그리고 6월 9일과 10일에도 적의 공격이 향로봉 부근으로 계속되었으나 제1기갑연대는 그때마다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그 후에도 수도사단은 6월 12일까지 공격을 계속하여 총 열흘 동안에 걸친 격전을 치룬 결과 향로봉은 물론 적의 거점이었던 산두곡산과 향로봉 서쪽의 940고지 마저 수중에 넣게 되었

다. 이와 같이 향로봉과 1079고지 일대 전투에서 8차에 걸쳐 적의 반격을 격퇴한 국군 수도사단 장병들의 용감성은 유엔에까지 보고되기도 하였다.[94]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은 5월 26일 강릉지역에서 반격을 시작, 캔자스선을 확보한데 이어 정지함이 없이 공격을 계속하여 총 18일 만에 신캔자스선을 확보하고 향로봉산맥을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 제8군도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향로봉-거진 북방을 연결하는 방어선에서 장기간에 걸친 진지전 및 고지쟁탈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중공군의 춘계공세와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에 이어 단행된 반격작전(캔자스선-와이오밍선-신캔자스선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의 진출)이 갖는 성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군과 유엔군 쌍방 간의 정면대결이 아닌 유엔군측의 일방적인 공세와 퇴로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공산군측의 사력을 다한 철수작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군은 각 병단별로 철수 후 정비지역을 지정하고 저지 및 엄호부대를 운용하여 철수 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단계별 통제선을 설정하여 특수임무부대를 운용하고, 중동부지역에서 적이 과도할 정도로 종심 깊게 진출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적인 목 차단을 통한 적 주력의 격멸을 기도하였다. 작전결과 공산군은 중공군 제180사단을 비롯한 일부 부대가 화천저수지(파로호) 일대 등에서 심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부대들이 계획된 지역으로 철수하여 차후 작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국군과 유엔군은 작전적 요충지역 선점이 지연됨으로써 대포위를 통해 적 주력의 퇴로를 차단, 이를 격멸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최초에 목표로 선정한 지역까지 진출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작전적 목표는 달성하였다.

둘째, 국군과 유엔군이 실시한 반격은 공산군을 휴전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엔군이 계획하여 시행한 제한작전이었다는 점이다. 즉 유엔군의 반격은 공산군의 제4차 공세가 실패로 종결된 1951년 4월 초에 미 행정부가 채택한 “적절한 휴전 장치하에 전쟁을 종결하고 전쟁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전선이 교착

될 경우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정한 지역(선)까지만 진출하도록 작전의 범위를 한정한 상태로 진행된 제한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계획하고 있었던 5월 20일 경에 이미 공산군의 공격기세가 한계에 달한 사실을 유엔군측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작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전선 상황은 중동부전선에서는 속사리-하진부리까지 진출한 중공군이 퇴로차단 위협에 직면하여 아군의 공격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철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었고, 기타 축선에서도 조중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전 부대들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측이 미 제3사단과 제187공정연대전투단, 국군 제8사단, 국군 제9사단 등을 미 제8군의 예비로 전환하여 작게는 청평-가평-춘천-화천 축선으로, 크게는 의정부-포천-철원-김화 축선으로 신속하게 기동시키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은 이와는 반대로 최초에는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을 철원-김화 축선으로 신속히 진출시켜 중공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구상하였다가 오히려 이를 변경,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격을 실시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엔군측의 제한작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안은 이른바 '고저(庫低)상륙작전계획'의 취소이다. 1951년 6월 중순 경 전선의 상황은 임진강-철원-금화-거진에 이르는 선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때 국군 제1군단은 국군과 유엔군 중에서 가장 최전방까지 진출해 있는 부대이었으나, 유엔군이 원산 앞 바다까지 제해권은 물론 제공권까지 장악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동부전선에서는 더 큰 전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즈음 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 장군은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으로부터 새로운 작전계획을 접수하였다. 그것이 바로 '고저상륙작전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 제16군단 예하 2개 사단을 원산 남쪽 고저에 상륙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3개 군단이 참가하여 경원선 이남 지역에서 포위된 북한군 주력을 격멸, 북위 39도선까지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격계획 역시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취소되었다.[95]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사례는 유엔군의 작전목표가 일정한 선까지 공격은

계속하되 대규모 작전은 피한다는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쟁양상이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교착된 전선에서의 지구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곧바로 진행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공산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면서 성공함으로써 공산군과 유엔군 간의 접촉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회귀하였다. 그 결과, 전쟁양상은 그동안 진행된 쌍방 간의 열전에서 벗어나 교착된 전선에서의 지루한 진지전과 휴전협상 테이블에서의 설전이 함께 진행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넷째, 국군과 유엔군이 실시한 이번 반격작전에서 미 제9군단이 이룩한 캔자스 선 점령, 특히 가평-화천 진격전의 성공이 갖는 의미와 작전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미 제9군단은 금번 작전에서 군단의 최종목표(화천) 점령이 다소 지연되어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올라오는 중공군을 완전 포위하여 섬멸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반격작전 기간 중 총 62,00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미 제9군단의 작전결과는 미 제8군이 와이오밍 선 점령을 위한 파일드라이버 작전을 시행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고, 인접 군단의 성공적인 전투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유엔군의 작전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이 가평-화천 진격전에서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임무형 지휘, 부대특성과 지형을 활용한 작전계획 작성, 신속한 작전템포, 적시적절한 통합화력 운용과 효과적인 전술심리전 등의 전술적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섯째, 전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국군 제1군단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미 해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이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국군 제1군단이 동해안 지역에서 작전을 진행하는 기간에 동해상에는 미 제7함대(사령관 해롤드 마틴 중장) 소속의 제5순양함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 소장이 지휘하는 이 함대는 순양함 로스엔젤레스호를 기함으로 미 해군의 순양함 및 구축함에 캐나다 해군 구축함 두 척이 가세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미주리, 뉴

저지, 아이다호 등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전함들이 가담해 교대로 함포사격을 지원하기도 하였다.[96] 미 해군의 적극적인 함포사격 지원은 국군 제1군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군 제1군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그의 회고록『군과 나』에서 "자신과 미 제5순양함대 사령관 알레이 버크 소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모진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전 작전기간 중 미 해군의 함포사격 지원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압도적인 화력의 우세 아래 마음 놓고 작전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97]

여섯째 동해안 축선에서 진행된 국군 제1군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국군 제1군단 정면에 배치된 적의 저항은 비교적 미약하였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군 제1군단은 순수하게 국군 사단만으로 편성된 취약점을 극복하고 인접 미 제10군단에 비해 조기에 전방으로 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군단은 인접군단 정면에 배치된 적의 측방을 위협하고, 특히 동해안의 양항인 간성 일대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측의 해상을 통한 내륙으로의 군수물자 수송을 보장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은 물론이고 미 제8군의 작전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의 작전성공은 결과적으로 적과의 접촉선을 가장 북쪽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고 그 성과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2. 작전의 결과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저지하고 곧바로 진행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은 유엔군의 퇴로차단 기도와 퇴로차단으로 인한 주요부대의 궤멸을 방지하기 위한 공산군측의 철수노력의 대결이었다. 이 작전으로 중공군은 전쟁참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당분간 더 이상의 대규모 공세를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측으로서는 최초에 계획한 단계별 저지선을 이용한 지연전의 실패와 이로 인한 일부 부대의 심대한 병력피해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주력부대들이 최초 의도했던 지역으로 철수하여 정비 및 휴식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이어진 교착된 전선에서의 진지전에 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작전에서 중공군측은 중동부전선에서의 부분적인 전술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전적 목표 달성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전기간 중 국군과 유엔군은 전 전선에서의 일제 반격을 개시한 이후 단계별 통제선의 효율적인 설정과 융통성 있는 부대 운용 등을 통해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간성 북방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여 새로운 접촉선에서 공산군측과 대치하게 됨으로써 최초에 의도한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 제9군단의 가평-화천 진격전과 미 제10군단의 군량현 전투 등을 통해 화천 및 파로호 일대에서만 약 2만 5천 명이 넘는 공산군측 피해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그들이 반격작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1단계 작전(캔자스선 확보)의 작전적 요충지(적을 주머니 속에 가둘 수 있는 양쪽의 목)인 영평과 화천 일대를 조기 점령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중공군에 대한 대포위를 통해서 '긴 자루' 내에 적의 주력을 가두어 격멸하겠다는 전술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의 춘계공세에 이어 이루어진 유엔군의 재반격을 통해 공산군은 일부 심대한 병력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초 의도했던 계획대로 후방지역으로 철수하여 정비 및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크게 4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 단계적인 반격을 실시하여 유엔군이 1951년 3월말경에 한국전쟁의 휴전선으로 구상하고 진출하였던 캔자스선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말뚝을 박는다"는 뜻의 파일 드라이버 작전을 구사해, 중서부 전선에서는 캔자스선의 북방 10~20km를 연하는 선에 캔자스선의 전초선으로 선정한 와이오밍선까지, 중동부 및 동해안 축선에서는 화천-해안분지(펀치볼)-향로봉-간성을 연하는 신캔자스선을 각각 확보함으로써 최초에 설정한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새로운 접촉선에서 정책 및 작전적 차원에서의 공산군측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은 쌍방의 정비기간을 거쳐 휴전협상 테이

블에서의 설전과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교착된 전선에서의 밀고 밀리는 군사작전으로 연결되어 휴전 시 까지 2년 이상 지속되었다.

(집필자 : 김상원)

주(註)

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594쪽.

2)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005, 520~521쪽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中共軍의 韓國戰爭史 : 抗美援朝戰史』, 세경사, 1991, 152쪽.

3)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23~524쪽.

4) 위의 책, 525~526쪽.

5) 육군본부, 『유엔군 3차 반격작전 시 지암리-파로호 전투』, 2011, 33쪽.

6) 김일성과 펑더화이는 양국군 간의 통일된 지휘체계의 미비로 야기되는 혼란을 인식하고 작전의 통합과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1950년 12월 초 양국 장교들로 구성된 '조중연합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7] , 2010, 401쪽.

7) 육군본부,『6·25전쟁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 2011, 159쪽.

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 572쪽.

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572쪽 ;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1951. 8. 15)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175~177쪽, 185~191쪽.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1987, 140~142쪽.

1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p. 490.

12)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 전쟁과 휴전』, 광명출판사, 1996, 398~399쪽.

13) 위의 책, 398~399쪽.

14)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 465.

15)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1992, 510쪽.

16) 위의 책, 511쪽.

1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p. 465.

18) 중공군의 제5차 1단계 공세가 종료된 후 미 제8군사령관이 공산군의 통신소와 보급로를 공격하여 차후에 예상되는 공산군의 공격준비를 방해하기 위해 5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계획하였다가 중공군의 제5단계 2차 공세 징후와 관련하여 5월 11일 취소하였다. 이후 미 제8군사령관이 기존의 작전구상에 리지웨이 장군의 반격작전 지침을 추가하여 계획을 완성, 5월 19일 17시 28분에 각 군단에 하달하였다(IX Corps, IX Corps Command Report, 1951, EUSAK Message Order GX-5-3172, GX-5-3190, 육군본부, 『유엔군 3차 반격작전 시 지암리-파로호 전투』, 2011, 29쪽 재인용).

19)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Annapolis : Naval Institude Press, 2003), pp. 885-886, 육군본부, 위의 책, 28~29쪽 재인용.

20) HQS, United States Forces, Korea, The US Military Experiences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 CHO, SJS, HQS, USFK/EUSA, 1983, p. 83.

21) 리지웨이 사령관의 부임 당시 계급은 육군 중장이었으나, 1951년 5월 11일부로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22)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 1-2.

23)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 2.

24)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 2-3.

25)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 3-4.

26) GHQ,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from 0001k to 2400k, 16 May 1951, pp. 3-4.

27)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65.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297쪽.

29) 위의 책, 299쪽.

30) 위의 책, 302쪽.

31) UNC. GHQ. G-3 Operations Report, 24 May 1951.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0권, 271쪽.

33)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518쪽.

34) 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57쪽.

35)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472쪽.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339쪽.

37)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519쪽.

38) 위의 책, 525쪽.

39)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6집, 1957, 62쪽.

40)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526쪽.

41) 위의 책, 527쪽.

42) 국군 제2사단, 『노도부대사』, 1995, 182쪽.

43) 위의 책, 184쪽.

44) 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58~159쪽.

45) 미 제9군단의 작전성과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이 작전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화천저수지를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뜻으로 파로호(破虜湖)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다(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 전쟁과 평화』, 322쪽).

46)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480쪽.

47) 육군본부, 『유엔군 3차 반격작전 시 지암리-파로호 전투』, 2011, 120쪽.

48)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513쪽.

49) 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56쪽.
50)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532쪽.
51) 위의 책, 534쪽.
52) 백선엽, 『군과 나』, 192쪽.
5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23집, 1987, 185쪽.
54)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534쪽.
55) 위의 책, 486쪽.
56) 위의 책, 541쪽.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472~473쪽.
58)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6권, 68쪽 ; 보병 제9사단, 『백마부대사』 제1집, 1982, 126~145쪽.
59) 모스맨 저, 육군본부 역, 『밀물과 썰물』, 541쪽.
60) 위의 책, 541쪽.
6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23권, 446쪽.
62) 위의 책, 423~424쪽.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449쪽.
64) 위의 책, 449쪽
65) 위의 책, 450쪽.
66) 위의 책, 457~458쪽.
67) 위의 책, 513쪽.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389쪽.
69) 위의 책, 389쪽.
70) 이 당시 유엔군측의 보급품은 주로 묵호, 삼척, 주문진 등 3개 항구를 통해 해상으로 운반되어 대관령을 넘어 미 제10군단을 비롯한 중동부 전선의 유엔군측 부대로 수송되고 있었다. 따라서 간성-인제-홍천 간 도로가 확보되면 외길에 의존하는 중동부전선 유엔군 부대들의 보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수 있었다.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390~391쪽.
72) 위의 책, 425쪽.
73) 위의 책, 430-431쪽.
74) 미 해병사단은 자체 항공단을 편제상에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륙작전 시 긴밀한 항공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435쪽.
76) 간성에서 인제-홍천에 이르는 24번도로 이북의 화천저수지-펀치볼(해안분지) 남쪽-향로봉-거진을 연결하는 선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621쪽.
78) 국방군사연구소, 『도솔산 전투』, 1993, 99쪽.
79) 위의 책, 133쪽.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251쪽.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641쪽.
82) 해병대사령부,『해병전투사』 제1권, 1953, 101쪽.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391쪽.
84) 위의 책, 399쪽.
85) 앞의 책, 405쪽.
86) 위의 책, 418쪽.
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23권, 1987, 231쪽.
88) 위의 책, 219쪽.
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6권, 279쪽.
90) 위의 책, 286쪽.
9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23권, 293쪽.
92) 위의 책, 407쪽.
93)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6권, 113쪽.
94) 수도사단, 『맹호사』, 1980, 208쪽.
95) 백선엽, 『군과 나』,도서출판 시대정신, 2010, 232-233쪽.
96) 위의 책, 2010, 233쪽.
97) 위의 책, 237쪽.



제5장 유엔군의 하계작전

제1절	개 요
제2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제3절	작전경과 및 결과
제4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개 요

1. 전선상황 요약

유엔군의 하계공세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공산군의 5월 공세를 격파하고 캔자스(Kansas)-와이오밍(Wyoming) 선으로 진격한 후 휴전회담의 거론으로 인해 전선이 교착된 가운데 고지쟁탈전으로 이행되는 1951년 8월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된 공세작전이다.

1951년 6월초, 동부전선의 제1군단은 선봉인 수도사단 기갑연대가 간성을 탈환한 후 이어 서쪽으로 진격하여 새로운 캔자스 선을 확보하였다. 또한 원통(元通)-양구(楊口) 선에서 공격을 재개한 중동부의 미 제10군단은 6월 중순 제1군단과 연계하여 새로운 캔자스 선을 확보한 다음 해안분지(펀치볼, Punch Bowl)를 중심으로 방어거점을 형성한 적과 대치한 채 위력수색을 계속하였다.

한편 5월말에 캔자스 선을 이미 점령한 중서부의 미 제9군단은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해 와이오밍 선을 거쳐 어민(Ermine) 선으로 진격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부의 미 제1군단 또한 5월말에 캔자스 선을 점령하고 6월 중순에 철의 삼각지 저변에 이르러 수색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국의 불확전주의(不擴戰主義)에 입각한 정전양략(政戰兩略)상의 제한으로 인해 전선이 캔자스-와이오밍 선에서 고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현 전선에서 포병화력권 내에 전진진지를 확보하고 위력수색을 감행토록 하는 한편 각 군단에 노무사단을 배속하여 캔자스선 상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Malik)가 휴전을 제안함에 따라 전황은 더욱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아군은 예비공사만 실시하였던 와이오밍 선에 캔자스 선과 동일한 진지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캔자스선 보호에 목적을 두었던 와이오밍 선이 주

저항선으로 간주되는 전략개념의 변경을 초래하였다. 공산군 또한 전황의 침체에 편승하여 보급장비 및 병력을 보충하는 한편 진지의 축성공사에 주력하였는데, 춘계공세에서의 패전경험을 토대로 대포병호와 거점방어진지에 중점을 두었다.

전선이 교착된 채, 별다른 격전 없이 피아의 진지공사가 일단락된 1951년 7월 중순경 유엔군사령부는 장기간에 걸친 전황의 침체로 인해 저하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공산군의 방어능력을 시험하여 계속적인 충격으로 그들의 공세기도를 분쇄한다는 전략적인 목적 아래 주저항선 전방의 감제점을 탈취하기 위한 제한공격을 실시하도록 미 제8군에 지시하였다. 이는 군사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공산측에 휴전회담의 조기타결을 강요한다는 정략적인 의도가 내포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산측의 작위적인 불성실로 인해 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황도 답보상태가 거듭되었고, 서부전선이 임진강 남안에서 교착된 채 중동부 산악지대와 금성 일대에서는 유혈로 점철되는 고지쟁탈전이 본격화되었다.

2. 작전지역의 특징

유엔군의 하계작전은 주로 임진강-문산-전곡-철원-화천-양구-간성을 연하는 선의 남북지역이 주 무대였다. 한반도의 중앙지역인 이 지역의 지형적 특징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은 완경사를 이루는 비대칭적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구조이다. 작전이 진행된 기간 중 8월의 기상조건은 7월 하순에 시작된 장마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폭우로 인한 홍수가 동반되었으나, 9월에 접어들며 비교적 청명한 날씨를 유지하였다. 대략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작전지역은 전반적으로 공자(攻者)에게 불리하고 방자(防者)에게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서부지역

김포반도로부터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서(以西)지역을 아우르는 서부지역은 대체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과 비옥한 충적토, 간석지, 갯벌, 해안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임진강 북쪽의 개성 고지군과 임진강 남쪽의 파평산과 감악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하천은 경기 북부를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예성강과 마식령 부근에서 발원하여 파주를 지나 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임진강, 강원도 및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서해안으로 접어드는 한강이 있다.[1)]

지역 내의 주요 도시는 개성과 문산, 적성, 연천, 전곡 등으로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철로와 도로망이 종횡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주요 철로와 도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와 함께 개성-문산-서울을 잇는 1번 도로, 연천-동두천-의정부를 연결하는 3번 국도가 남북으로 그리고 문산-법원리-동두천을 잇는 도로가 동서로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의 기동이 가능하였다.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북태평양의 고기압과 장마전선의 형성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 고온다습(高溫多濕)하고, 개략적으로 26~30℃의 기온을 나타내 피아의 작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서부지역은 습지와 하천, 갯벌 등의 천연장애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나 종횡으로 발달된 도로망과 비교적 낮은 고지사이로 발달된 개활지는 공격에 유리하였고, 특히 서울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동(以東)으로부터 북한강 서안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지세는 고지대의 경우 표고 400~800m의 고지군과 계곡이 어우러져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한 반면 논과 밭이 산재한 저지대는 표고 100~200m의 기복이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지로 철원-김화평야가 대표적이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철원-김화평야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서방산과 효성산, 오성산, 교암산 등이, 그리고 남쪽에는 대성산, 적근산, 백암산, 금학산, 고대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강과 하천은 연천 남부를 흘러 임진강과 합류하는 한탄강과 평강지역에서 발원하여 395고지를 남쪽으로 감돌아 다시 서쪽으로 흐르는 역곡천, 그리고 금성 북방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북한강과 합류하는 금성천 등이 있다.[2] 지역 내에는 평강과 김화, 철원, 포천 등의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는 서울-원산 간 3번 도로와 포천-의정부를 잇는 43번 도로 등이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한편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서부지역과 비슷하여 당시의 기온이 개략적으로 27~30℃이고, 지역 내 편차는 1~3℃의 기온차가 있었으며 산악지대에서는 일교차가 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종적으로 발달된 고지군 사이에 비교적 양호한 다수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연계가 불리한 반면 기계화부대의 운용에는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3) 중동부지역

중동부지역은 북한강 동안으로부터 태백산맥 북부지역을 아우르며,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표고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협소한 계곡과 경사도가 높은 이 지역의 주요 고지는 어은산과 삼각산, 가칠봉과 백석산, 대우산과 대암산 등으로서, 직경 15~20cm 정도의 소나무와 잡목 그리고 잡초와 칡덩굴 등이 뒤섞여 우거져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이다. 주요 강과 하천은 북한강 상류가 동북쪽에서 서남 방향으로 흐르며, 문등리 계곡을 따라 흐르는 수입천과 사태리 계곡의 소하천, 그리고 군량천 등이 화천저수지나 소양호로 흘러드는데,[3] 하천의 유속이 빠를 뿐 아니라 강우시에는 하천의 깊이와 폭이 불시에 증가한다.

작전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인제와 원통 그리고 양구와 화천 등이고,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간성-인제-홍천-서울 간 44번 도로가 동서로, 화천-춘천-홍천 간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 간 46번 도로 그리고 인제-현리-홍천을 잇는 451번 도로가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는 굴곡과 함께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악 단차로여서 차량 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작전기간 중 지역의 기상조건은 산악지대의 지세적인 특징과 내륙인 관계로 한서의 차가 심해 겨울철은 몹시 춥고 여름엔 더우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연평균 12.3℃이고, 최고와 최저 기온은 37℃~영하 32℃이다. 8월의 기상은 장마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으나, 9월엔 비교적 청명하였다.[4)]

결론적으로, 중동부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을 비롯한 각종 천연장애물이 산재해 있고, 종적 및 횡적인 도로망이 제한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격에 불리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4) 동해안지역

태백산맥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동해안지역은 서부의 경우 태백산맥에 연하여 표고 1,000~1,700m의 높은 산지가 주 능선을 이룬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동부해안지대는 모래해안이 주를 이루며 내륙은 150m 이하의 구릉과 야산이 동해와 접하고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북쪽의 적벽산과 월비산, 351고지 등과 남쪽의 고황봉과 339고지, 향로봉과 건봉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주요 하천은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은 남강이 있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 신탄리 부근에서 다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성 근처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강폭은 평균 60~80m이나 수폭은 대략 20m 내외이며, 유속은 초속 1.8m로 기갑 및 차량부대의 기동을 제한하지만 도보부대의 도섭은 가능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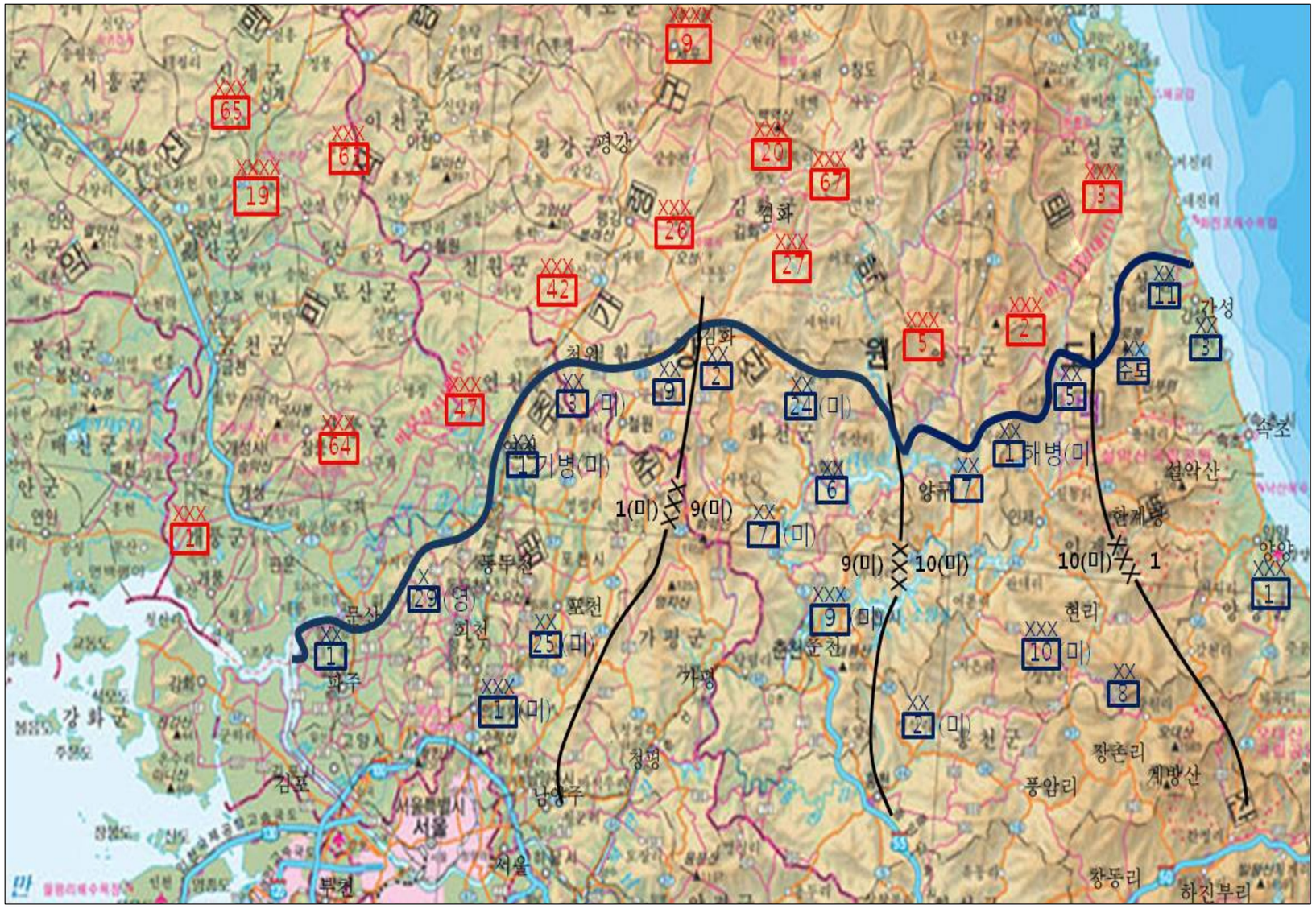
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고성과 통천 그리고 간성과 거진 등이며, 도로망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7번 도로와 강정-남강-사기점을 잇는 7002번 도로가 있다. 동해안 일대는 비교적 개활한 지형으로 도로망이 다소 발달되어 있으나, 내륙쪽은 험준한 지세로 인해 인마의 통행이 가능한 산간소로 밖에 없고 우마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어 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5)]

작전기간 중 이 지역의 기상조건은 여름철의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가끔 흐린 날씨와 비로 인해 주간에는 시계에 제한을 받았다. 특히 새벽에는 동해안 특유의 짙은 안개가 발생하여 지상관측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간헐적으로 항공 및 포병지원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온은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으로 겨울엔 포근하고 여름에 시원하였다.

결론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발달된 횡격실 능선과 종적 도로망의 제한, 협소한 기동공간 등으로 인해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특히 해상과 산악지역을 통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 및 상륙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상황도 5-1> 1951년 7월 피아 전선 배치 상황(1951.7.10)



제 2 절 양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휴전회담을 앞둔 중공 지휘부는 전쟁의 종결은 적군, 즉 국군과 유엔군의 유생역량을 대량으로 섬멸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동안에 행해진 여러 차례의 공세를 통해 장비의 열세에 따른 효율적인 작전능력의 제한으로 대규모의 섬멸전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쟁의 장기성에 기초하여 지구(持久)작전을 전쟁지도 방침으로 채택하였다.

이들은 지구작전과 평화회담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군사투쟁과 정치투쟁의 병행을 견지하는 한편 군사작전면에서 지구작전과 적극방어의 전략방침을 확정하였다. 다시 말해,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극방어의 수단으로 적의 유생역량을 대량 살상하며, 적극적인 장비개선과 훈련강화로 전투능력을 증대시켜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6]

2) 작전 계획

중공군은 이미 정해진 지구작전과 적극방어의 전략방침에 따라 휴전회담 개시 이후 방어진지의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반격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8월 중순까지 완성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개시하면 반격을 즉각 실시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였다.[7] 이에 따라 중공군 지휘부는 지구작전과 적극방어의 전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전 장병에게 장기작전사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빨리 승리하려는 사상을 극복한다.

② 기동에 용이하고 보급의 한계를 감소시키며, 유엔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38~38.5도선 지역을 고수하고 3개의 방어선을 구축한다.

③ 미군의 전력을 감안하여 작전방식을 운동방어(運動防禦)와 반격이 서로 결합된 시소게임형식으로 하며, 적극방어와 단축돌격(短縮突擊)으로 확정한다.[8]

④ 작전지도면에서는 소규모 섬멸전으로 대규모 섬멸전을 지향하고, 전역(戰域)을 한강 및 소양강 이북과 38.5도선 이남지역에서 공방전을 반복 실시한다. 전술면에서는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야 하고, 전술 분할포위를 전역 분할포위와 결합시키는 것에 유념해야 하며, 제2제대 및 예비대를 확보함으로써 전과를 확장시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⑤ 2~3개월 내에 대규모의 반격공세를 실시하지 않는다. 휴전협상이 개시되면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준비를 하고, 미국이 현재의 점령지역을 고수하면 8월에 반격을 실시한다. 대 상륙방어와 보급상황을 고려하여 18개 군을 양분하여 윤번작전을 실시한다.

제1선의 9개 군은 정면전선을 담당하고, 제2선의 9개 군은 동서해안과 양덕 및 곡산지역에 배치되어 정비 및 훈련을 실시하며 적의 상륙작전에 대비한다. 다른 2개 군을 조선반도 동북지역에 배치해 전략예비대로 한다.

제1선과 제2선의 부대는 2~3개월 주기로 교대하며, 손실이 많아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부대는 새로운 부대로 대치하고 귀국시킨다. 이러한 대치 및 교대방식으로 장기전에 부응한다.

적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적을 분산 및 견제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에서 약간의 병력을 차출하여 유격지대를 조직(지원군 4개 중대, 조선인민군 2개 중대)하여 적의 후방 깊이 침투시키며, 전략 및 전역적으로 정면의 주력작전을 지원한다.

⑥ 병력의 적시 보충과 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 당 3,000명 규모의 보충연대와 교도연대를 각각 보유하고, 중국내에서 동원되는 신병도 기본적인 전술 및 기술훈련을 거쳐 부대에 보충 배치토록 한다.

⑦ 전술장비의 개선과 포병을 강화하고, 기갑부대와 공군의 건설에 주력하여 공군의 9월 출동을 준비한다. 제23병단을 조선에 투입하고, 제50군 제149사단은 비행장 건설임무를 담당한다.

⑧ 후방건설의 강화와 보급수송의 개선을 위해 후방철도와 도로를 연해 대량의 은폐창고를 건설하여 전쟁물자를 비축한다. 희천-맹산-양덕 간 도로와 가려주-세포리, 창도리-법동리-회양의 횡도로를 보수하여 적이 원산에 상륙하여 동부전선의 교통선을 차단할 경우 물자수송을 보장하게 한다. 9)

이러한 전략방침에 따라 북한군의 계획은 담당한 방어정면 즉, 전선동부와 동해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구-말휘리 간, 인제-이포리 간의 도로 방향에 역량과 기제를 집중 배치하고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으로 적의 공세를 방어전면에서 격파함으로써 적을 대량적으로 격멸하고 확보한 계선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10)

앞서의 전략방침과 구상에 따라 중공군 지휘부와 연합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각급 부대의 기본적인 배치를 실시하였다.

제1제대는 중공군 8개 군단으로 편성한다. 제19병단의 3개 군단은 철원-임진강 서쪽 간의 유엔군을 견제하고, 철원-의정부 간 도로차단으로 철원 이남 유엔군의 증원을 저지한다. 제47군단과 제42군단은 철원지역의 미군 제3선을 집중 포위한다. 제19병단의 제26군단과 제20병단의 2개 군단은 당면의 적을 견제할 일부 여력을 제외한 주력을 집중하여 돌파한 후 김화 동쪽과 서쪽 지역의 미 제25사단과 국군 제2사단을 섬멸한다.

제2제대는 제3병단의 3개 군단과 제38군단 및 제40군단의 총 5개 군단으로 편성한다. 이들은 공세가 개시되면 지정된 지점으로 이동하여 상황에 따라 작전에 투입되어 전과를 확대한다. 북한군 4개 군단은 북한강 동쪽부터 동해안의 지역을 양분하여 중공군을 지원한다.11)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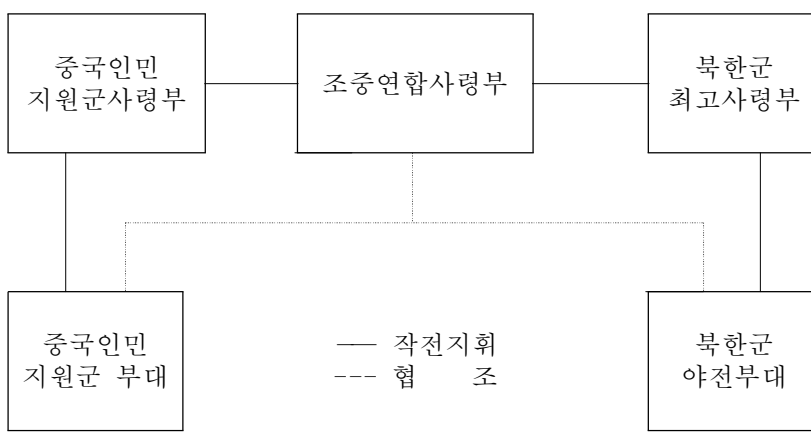
(1) 지휘체계

'항미원조인민지원군(抗美援朝人民志願軍)'이란 명칭으로 변경해 입북한 중공군은 그 모체인 제13병단사령부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시에 따라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이하 중공군사령부라 한다)'로 전환하였다. 작전기간 중

지원군사령부는 예하에 3개 사령부(후방근무·공군·전방철도운송사령부)와 3개 지휘소(포병·공병·장갑병지휘소), 그리고 5개 병단(제3·제9·제19·제20·제23 병단)과 6개 직할 군을 편성하였고, 이들은 지원군총사령관의 지휘 및 통제하에 있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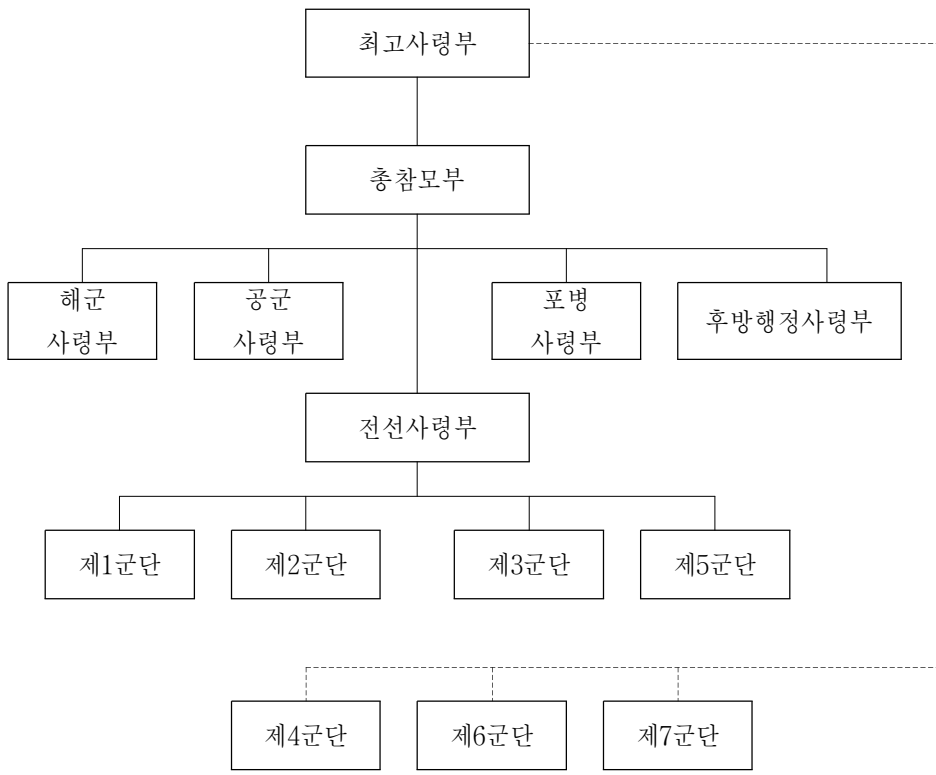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국경 안의 모든 작전과 이에 관계되는 업무를 통일 지휘하기 위해 1950년 12월초 '조중연합사령부'를 편성하고 중공군은 물론 북한군 및 모든 유격부대들을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하에 두었다.[13] 따라서 모든 작전은 이 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는 중공군 각 병단과 북한군 전선사령부에 대한, 그리고 각 병단사령관은 예하의 각 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표 5-1> 조중연합사령부 지휘체계



한편 북한군은 전쟁 전반을 지휘 및 통제하는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를 설치하고,[14] 예하의 전선사령부를 비롯한 해군사령부 및 공군사령부와 포병사령부, 그리고 후방행정사령부 등을 관장하였다.[15] 그러나 전선작전의 총괄을 담당한 전선사령부의 작전에 관한 지휘 및 통제는 연합지휘체인 조중연합사령부에 있었다.

<표 5-2> 북한군 지휘 및 통제계통



제1선에 배치된 4개 군단 다시 말해, 제1・제2・제3・제5군단은 전선사령부, 그리고 해안 등 후방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4・제6・제7군단의 3개 군단은 최고사령부의 직할로 직접적인 지휘 및 통제를 받았다.[16]

⑵ 전투편성

공산군의 전투편성은 대체로 3각 개념에 입각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먼저 중공군은 3개 사단으로 편성된 군단급 부대인 군(軍)이 작전의 기본단위이고, 전투단위는 3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로 편성된 연대급 부대인 단(團)이었다. 일반적으로, 보병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포병대대, 박격포대대, 공병중대, 수색중대, 경비

중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구성되었으며, 장교 1,500여 명을 포함한 10,000~12,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다. 또한 주로 병단에 배속되어 운용된 포병사단은 3개 포병연대와 고사포대대, 공병대대, 경비대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고, 1,100여 명의 장교를 포함한 9,0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57~155㎜ 곡사포 108문과 37㎜ 고사포 12문을 편제하고 있었다.

작전기간 중 중공군사령부는 제3병단과 제9병단, 제19병단과 제20병단, 그리고 제23병단과 함께 중공군사령부로 전환된 제13병단을 관장하고 있었다. 병단별 편성을 보면, 후방지역 특히 서해안 방어임무를 담당한 중공군사령부 직할(제13병단)은 제38·제39·제40·제42·제50군과 제19병단에 배속된 제47군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공군의 총 예비대임무를 담당한 제3병단은 제12·제15·제60군으로, 서부전선을 담당한 제19병단은 제63·제64·제65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중동부전선을 담당한 제9병단과 제20병단은 제20·제26·제27군과 제67·제68군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 내 비행장 건설임무를 담당한 제23병단은 제36군과 제37군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각 군은 예하에 3개의 사단을 편성하였는데, 각 군의 사단 편성은 <표 5-3>과 같다.

<표 5-3> 중공군 전투서열

병 단	군(군단)	사 단	비 고
중공군 사령부 직할	제38군	제112·제113·제114사단	
	제39군	제115·제116·제117사단	
	제40군	제118·제119·제120사단	
	제42군	제124·제125·제126사단	
	제47군	제139·제140·제141사단	제19병단 예속
	제50군	제148·제149·제150사단	

제3병단	제12군	제31・제34・제35사단	중공군 총예비대
	제15군	제29・제44・제45사단	
	제60군	제179・제180・제181사단	
제9병단	제20군	제58・제59・제60사단	
	제26군	제76・제77・제78사단	
	제27군	제79・제80・제81사단	
제19병단	제63군	제187・제188・제189사단	
	제64군	제190・제191・제192사단	
	제65군	제193・제194・제195사단	
제20병단	제67군	제199・제200・제201사단	
	제68군	제202・제203・제204사단	
제23병단	제36군	제106・제107사단	태주・박천 지역 비행장 건설
	제37군	제109・제110사단	

한편 중공군사령부는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펑더화이(彭德懷)를 비롯하여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와 부사령관 천겅(陳賡), 쑹스룬(宋時輪), 홍쉐즈(洪學智), 한셴추(韓先楚), 그리고 참모장인 셰팡(解方)과 정치부주임인 두핑(杜平) 등이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예하 사령부 및 지휘소의 주요 지휘관은 중공군사령부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가 후방근무사령관을 겸임하였고, 공군사령관 류전(劉震), 전방철도운수사령관 허친녠(賀晉年), 포병지휘소 주임 쾅위민(匡裕民), 공병지휘소 주임 천젱펑(陳正峰), 장갑병지휘소 주임 황후시안(黃鵠顯) 등으로서,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 5-4> 중공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중공군사령부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덩화(鄧華)	부정치위원 겸임
		천경(陳賡)	
		쑹스런(宋時輪)	
		홍쉐즈(洪學智)	
		한센추(韓先楚)	
	참모장	세팡(解方)	
후방근무사령부	사령관	홍쉐즈(洪學智)	지원군부사령관 겸직
	정치위원	저우춘췐(周純全)	
공군사령부	사령관	류전(劉震)	
	참모장	션치쉬엔(沈啓賢)	
철도운수사령부	사령관	허친넨(賀晉年)	
	정치위원	장밍웬(張明遠)	
포병지휘소	주임	쾅위민(匡裕民)	
공병지휘소	주임	천정펑(陳正峰)	
장갑병지휘소	주임	황후시안(黃鶴顯)	전차 제1사단장 겸직

각 병단의 장은 제3병단장 천경(陳賡), 제9병단장 쑹스런(宋時輪), 제19병단장 양더즈(楊得志), 제20병단장 양청우(楊成武), 그리고 제23병단장 동지우(董其武)이며, 이 밖의 주요 지휘관은 <표 5-5>와 같다.

<표 5-5> 중공군 병단별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제3병단사령부	사령관	천경(陳賡)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왕진산(王近山)	
	참모장	왕윈루이(王蘊瑞)	
제9병단사령부	사령관	쑹스런(宋時輪)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타오용(陶勇)	
	참모장	탄젠(覃健)	
제19병단사령부	사령관	양더즈(楊得志)	
	부사령관	게얀춘(葛晏春)	
	참모장	쩡웨이산(鄭維山)	부사령관 겸임
	정치위원	리즈민(李志民)	
제20병단사령부	사령관	양청우(楊成武)	
	참모장	샤오원쥬(蕭文玖)	
	정치위원	장난셩(張南生)	
제23병단사령부	사령관	동지우(董其武)	
	부사령관	볜장우(邊章伍)	
	정치위원	가오커린(高克林)	

각 병단 예하 군단별 주요 지휘관을 살펴보면, 제3병단은 제12군장 쩡사오산과 참모장 샤오용인, 제15군장 친지웨이와 정치위원 구징성 그리고 제60군장 웨이제와 정치위원 위안쯔친이고, 제9병단은 제20군장 장이샹과 참모장 위빙후이, 제26군장 장런추와 정치위원 리야오원 그리고 제27군장 펑더칭과 정치위원 쩡루칭 등이다. 또한 제19병단은 제63군장 환충삐와 정치위원 룽다오췌, 제64군장 쩡쓰위와 정

치위원 왕자오 그리고 제65군장 샤오잉탕과 왕다오방 등이고, 제20병단은 제67군장 리샹과 정치위원 쾅풍자오, 제68군장 천팡런과 정치위원 리청뤼이며, 그리고 제23병단은 제36군장 왕지안예와 정치위원 강지안민, 제37군장 장시젠과 정치위원 슈아이롱 등이다. 중공군사령부 직할은 제38군장 량싱차오와 정치위원 류시유안, 제39군장 우신촨과 정치위원 리쉐샨, 제40군장 원위청과 정치위원 위안성핑, 제42군장 우루이린과 저우뺘오, 제47군장 카오리화이와 정치위원 리런린, 제50군장 쩡쩨쉥과 정치위원 쉬원례 등이다. 각 군의 지휘부는 다음의 <표 5-6>과 같다.

<표 5-6> 중공군 군(단)별 지휘부 편성

병 단	군(군단)	직 책	성 명	비 고
제3병단	제12군	군 장	쩡사오산(曾紹山)	
		참 모 장	샤오용인(蕭永銀)	부군장 겸임
	제15군	군 장	친지웨이(秦基偉)	
		참 모 장	장윈위(張蘊鈺)	
		정치위원	구징성(谷景生)	
	제60군	군 장	웨이제(韋杰)	
		참 모 장	덩스준(鄧仕俊)	
		정치위원	위안쯔친(袁子欽)	
제9병단	제20군	군 장	장이샹(張翼翔)	정치위원 겸임
		참 모 장	위빙후이(兪炳輝)	
	제26군	군 장	장런추(張仁初)	
		참 모 장	펑딩란(馮鼎蘭)	
		정치위원	리야오원(李耀文)	
	제27군	군 장	펑더칭(彭德淸)	
		참 모 장	리위안(李元)	
		정치위원	쩡루칭(曾如淸)	

제13병단	제38군	군 장	량싱차오(梁興初)	
		참 모 장	왕량타이(王良太)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류시유안(劉西元)	
	제39군	군 장	우신촨(吳信泉)	
		참 모 장	장제청(張竭誠)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리쉐싼(李雪三)	
	제40군	군 장	원위청(溫玉成)	
		참 모 장	덩웨(鄧岳)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위안성핑(袁升平)	
	제42군	군 장	우루이린(吳瑞林)	
		참 모 장	랴오중푸(廖仲符)	
		정치위원	저우뺘오(周彪)	
	제47군	군 장	카오리화이(曹里懷)	
		정치위원	리런린(李人林)	
	제50군	군 장	쩡쩌셩(曾澤生)	
		참 모 장	쉬싱(舒行)	
		정치위원	쉬원례(徐文烈)	
제19병단	제63군	군 장	촨충삐(傅崇碧)	
		참 모 장	두위화(杜瑜華)	
		정치위원	롱다오췐(龍道權)	
	제64군	군 장	쩡쓰위(曾思玉)	
		참 모 장	마웨이화(馬衛華)	
		정치위원	왕자오(王昭)	

	제65군	군 장	샤오잉탕(簫應棠)	
		참 모 장	루안핑(阮平)	
		정치위원	왕다오방(王道邦)	
제20병단	제67군	군 장	리샹(李湘)	
		참 모 장	류슈(劉蘇)	
		정치위원	쾅풍자오(曠伏兆)	
	제68군	군 장	천팡런(陳坊仁)	
		참 모 장	숭쉐페이(宋學飛)	
		정치위원	리청루이(李呈瑞)	
제23병단	제36군	군 장	왕지안예(王建業)	대리
		참 모 장	비안제지(變折啓)	
		정치위원	강지안민(康建民)	
	제37군	군 장	장시젠(張世珍)	
		참 모 장	핑지(憑梓)	
		정치위원	슈아이롱(帥榮)	

북한군의 전투편성을 보면, 주전술 기본단위부대인 군단은 독립통신대대, 독립공병대대, 독립차량운송대대, 군단 예비연대, 교육연대, 군관 예비대대, 2~3개 야전이동병원과 군단보급기지로 편성되었다. 전투부대인 제1・제2・제3・제5군단은 예하에 3개 보병사단을 두었고, 제4군단은 3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 및 육전여단을, 제6군단은 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 및 육전여단을, 그리고 제7군단은 4개 보병사단과 2개 육전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보병사단은 3개 보병과 1개 포병연대, 대전차포・고사포・통신・공병・의무대대, 정찰・수송중대, 그리고 후방부로 구성되었고, 기계화사단은 2개 전차연대와 1개 포병연대, 산악포병대대와 기술보장대대, 기타 부대로 편성되었다. 여단

은 6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120㎜ 박격포대대, 공병대대와 통신대대, 기관총중대와 정찰중대, 의무중대와 수송중대, 그리고 후방부로 편성되었다.[17]

북한군 군단은 최고사령부 직할의 3개 군단과 전선사령부 예하의 4개 군단 등 7개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최고사령부 직할인 제4군단은 제4·제5·제10보병사단과 제105기계화사단 및 제26육전여단으로, 제6군단은 제9·제18보병사단과 제17기계화사단 및 제23육전여단으로, 그리고 제7군단은 제3·제7·제37·제46보병사단과 제24·제63육전여단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또한 전선사령부 예하의 제1군단은 제8·제19·제47보병사단으로, 제2군단은 제2·제13·제27보병사단으로, 제3군단은 제1·제15·제45보병사단으로, 그리고 제5군단은 제6·제12·제32보병사단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각 군단별 편성은 다음의 <표 5-7>과 같다.[18]

<표 5-7>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구 분	군 단	사 단	연 대
최고 사령부	제4군단	제4보병사단	제5·제16·제18보병연대, 제4포병연대
		제5보병사단	제10·제11·제12보병연대, 제5포병연대
		제10보병사단	제25·제27·제29보병연대, 제?포병연대
		제105기계화사단	제1·제2·제3전차연대, 훈련연대
		제26육전여단	
	제6군단	제9보병사단	제85·제86·제87보병연대, 제9포병연대
		제17기계화사단	제33·제34보병연대, 제35전차연대
		제18보병사단	제20·제22·제24보병연대, 제?포병연대
		제23육전여단	

	제7군단	제3보병사단	제7 · 제8 · 제9보병연대, 제3포병연대
		제7보병사단	제51 · 제53 · 제54보병연대, 제7포병연대
		제37보병사단	제74 · 제75 · 제76보병연대, 제31포병연대
		제46보병사단	제93 · 제94 · 제95보병연대, 제66포병연대
		제24육전여단	
		제63육전여단	
전선 사령부	제1군단	제8보병사단	제81 · 제82 · 제83보병연대, 제8포병연대
		제19보병사단	제36 · 제37 · 제38연대, 제?포병연대
		제47보병사단	제113 · 제123 · 제124보병연대, 제35포병연대
	제2군단	제2보병사단	제4 · 제6 · 제17보병연대, 제2포병연대
		제13보병사단	제19 · 제21 · 제23보병연대, 제13포병연대
		제27보병사단	제172 · 제173 · 제174보병연대, 제25포병연대
	제3군단	제1보병사단	제2 · 제3 · 제14보병연대, 제1포병연대
		제15보병사단	제45 · 제48 · 제50보병연대, 제15포병연대
		제45보병사단	제89 · 제90 · 제91보병연대, 제51포병연대
	제5군단	제6보병사단	제1 · 제13 · 제15보병연대, 제6포병연대
		제12보병사단	제30 · 제31 · 제32보병연대, 제12포병연대
		제32보병사단	제39 · 제40 · 제41보병연대, 제?포병연대

한편 작전기간 중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총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민족보위상 겸 부사령관 최용건, 총참모장 남일 상장,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웅 상장, 후방행정사령관 최홍갑 중장 등으로 다음의 <표 5-8>과 같다.

<표 5-8>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총사령관	원수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부원수	최용건(崔庸健)	민족보위상 겸임
총참모부	총참모장	상장	남 일(南 一)	
	사령관	상장	김 웅(金 雄)	
전선사령부	참모장	중장	최 광(崔 洸)	
포병사령부	사령관	-	-	
후방행정 사령부	사령관	중장	최홍갑(崔弘甲)	

그리고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 이권무, 제2군단장 최현, 제3군단장 유경수, 제4군단장 박정덕, 제5군단장 방호산, 제6군단장 최용진, 제7군단장 이영호 중장이며, 각 군단 예하의 사단장과 여단장은 <표 5-9>와 같다.[19]

<표 5-9>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중장	이권무(李權武)	전선사령부 예속
	제8사단장	소장	김봉문(金奉文)	
	제19사단장	소장	김창봉(金昌鳳)	
	제47사단장	소장	임 해(林 海)	
제2군단	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2사단장	소장	이철용(李喆用)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제27사단장	소장	조 관(趙 寬)	

제3군단	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1사단장	소장	정 범(鄭 範)	
	제15사단장	소장	주 연(朱 燕)	
	제45사단장	소장	지병학(池炳學)	
제5군단	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6사단장	소장	최봉준(崔鳳俊)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32사단장	소장	김대홍(金大弘)	
제4군단	군단장	중장	박정덕(朴正德)	최고사령부 직할
	제4사단장	소장	송덕만(宋德萬)	
	제5사단장	소장	이덕원(李德原)	
	제10사단장	소장	이방남(李芳南)	
	제105기계화사단장	소장	강주필(강주필)	
	제26육전여단장	소장	이채윤(이채윤)	
제6군단	군단장	중장	최용진(崔勇鎭)	
	제9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제17기계화사단장	소장	정철우(鄭哲宇)	
	제18사단장	소장	임한식(임한식)	
	제23육전여단장	소장	오백룡(吳百龍)	
제7군단	군단장	중장	이영호(李永鎬)	
	제3사단장	소장	김태련(김태련)	
	제7사단장	소장	이익성(李益成)	
	제37사단장	소장	전 우(全 宇)	
	제46사단장	소장	이 명(이 明)	
	제24육전여단장	소장	채문철(채문철)	
	제63육전여단장	소장	-	

4) 전투력 수준

작전기간 중 북한지역에는 72개 보병사단과 2개 기계화사단 그리고 4개 해병여단 등 78개 전투사단 및 여단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3개 곡사포사단, 1개 대전차사단, 2개 대전차포병사단, 4개 고사포사단, 독립 곡사포연대, 독립 박격포연대, 12개 고사포병연대, 3개 고사포병대대, 4개 독립전차대대 및 2개 독립전차중대가 배치되었다.[20]

전선정면에 대한 공산군의 병력 전개는 예성강 하구로부터 북한강 서안에 이르는 지역은 중공군 제19병단과 제9병단 예하의 5개 군이 담당하였다. 군단별 배치현황은 서쪽으로부터 제64군, 제47군, 제42군, 제26군, 제27군 순이었다. 그리고 북한강 동안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지역은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의 3개 군단이 담당하였으며, 제1선에 6개 사단이 그리고 제2선에 3개 사단이 배치되었다. 군단별 배치현황은 우측(서쪽)으로부터 제5군단, 제2군단, 제3군단 순이었고, 제5군단은 수동리~문등리에, 제2군단은 임담리~산골에 그리고 제3군단은 산골~고성·패천에 각각 전개되었다.[21]

<표 5-10> 공산군 전선정면 배치현황

중공군					북한군		
예성강 하구~북한강 서안					북한강 동안~동해안		
제19병단		중공군 사령부	제9병단		전선사령부		
제64군	제47군	제42군	제26군	제27군	제5군단	제2군단	제3군단
제190사단 제191사단 제192사단	제139사단 제140사단 제141사단	제124사단 제125사단 제126사단	제76사단 제77사단 제78사단	제79사단 제80사단 제81사단	제6사단 제12사단 제32사단	제2사단 제13사단 제27사단	제1사단 제15사단 제45사단

제4군단은 진남포를 중심으로 안주에서 남포에 이르는 청천강 지대의 방어를 담당하며, 유엔군 해병대 및 공정부대의 침투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6군단도 마찬가지로 진남포에서 연안에 이르는 서해안의 방어가 주 임무였다. 제7군단은 동해안의 통천(通川)에서 이원(利原)에 이르는 지역에서 유엔군 해병대 및 공정부대의 침투를 저지하고, 성진과 청진지역을 방어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22]

<표 5-11> 북한군 군단별 배치현황

구 분	군 단	부여 임무	담당 지역
전선사령부	제1군단	서부전선 방어	연안 지역
	제2군단	동부전선 방어	임담리 ~ 산골
	제3군단	동부전선 방어	산골 ~ 고성·패천
	제5군단	동부전선 방어	수동리 ~ 문등리
최고사령부	제4군단	서해안 방어	안주 ~ 남포
	제6군단	서해안 방어	남포 ~ 연안
	제7군단	동해안 방어	통천 ~ 이원

한편 작전기간 중 연합사령부 예하의 중공군과 북한군의 전체 병력은 중공군 94만 8천여 명과 북한군 39만 3천여 명 등 총 134만 1천여 명이었고, 이 중 제일선에 배치된 직접적인 병력은 42만 3천여 명이었다.[23] 또한 공산군이 보유한 장비 및 무기는 각종 야포 1,980문과 박격포 2,980여 문, 대전차포와 고사포 각각 1,000여 문이었고, 전차 및 자주포 360여 문을 운용하고 있었다.[24] 중공군과 북한군의 인원 및 장비 현황은 <표 5-12>와 같다.

<표 5-12> 공산군측 인원 및 장비현황

구 분	중공군	북한군	총 계	비 고
병 력(명)	948,299	393,014	1,341,313	
야 포(문)	1,249	731	1,980	
박 격 포(문)	1,664/73	1,248	2,912/73	
대전차포(문)	498	537	1,035	
고 사 포(문)	750	278	1,028	
전차/자주포(대)	118	243	361	
항 공 기(대)	452	136	588	전투기 318대

이들의 전투력 수준에서 포병은 병력과 사격통제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훈련부족으로 인해 산악지역에서의 화력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갑의 운용에 있어서도 기갑병의 경험이 일천한데다 전차의 엔진과 자주포의 설비가 초보단계였으며, 예비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정비부품의 적시 및 적량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보급면에서 이들은 수송수단의 절대 부족은 물론 보급로에 대한 유엔공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해 적시 조달이 힘들어져 보급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25]

2. 유엔군측의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휴전회담이 시작될 무렵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유엔군측은 캔자스선과

와이오밍선의 방어력을 강화하여 공산군의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면서 휴전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여러 종류의 전략을 수립하고 우발작전계획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실시된 작전은 휴전협상의 타결을 지원하고 아군의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공산군의 공세 역량축적을 거부하기 위한 균형파괴에 중점을 둔 제한목표공격작전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7월 초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의 지시에 따라 조건이 충족될 경우 9월 1일을 기해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을 섬멸하고 평양-원산 선까지 점령하는 대공격작전계획인 제압작전(Plan Overwhelming)계획을 수립하였다.[26] 밴플리트 장군은 적의 전력에 현저한 약점이 노출되거나 북으로 철수할 경우 미 제8군의 임무가 현 전선에서 방어가 아니라 공격작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전력이 미 제8군을 지원할 경우 이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리지웨이 사령관은 7월 10일에 발표된 합참의 주요 지상작전에 대한 사전승인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휴전협상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원활한 협상의 진전을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27] 이 작전은 원산에서의 상륙작전과 더불어 캔자스-와이오밍선에서 일제히 진격하려는 계획으로, 유엔군이 중공군의 침략을 격퇴한 후 수립한 전면공격 작전계획이었다.

작전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밴플리트 사령관은 양측의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제한된 공격작전을 구상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은 소강상태를 이용한 전력증강을 획책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엔군은 적정수집에의 한계와 훈련의 비효율성 등 휴전협상이 성공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한 작전활동의 소극적 전개로 전투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이었다.[28] 이에 따라 밴플리트 사령관은 공산군에 혼란을 주는 반면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제한목표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1951년 7월 29일 밴플리트 사령관은 제한목표공격과 종심 깊은 정찰활동을 통해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방어선을 돌파하여 적의 배치를 탐색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

하였다. 이에 따른 각 군단별 작전중점은 ① 미 제1군단은 기전리 부근의 고지군에 대한 종심 깊은 정찰과 철의 삼각지에 대한 종심 깊은 전투정찰의 실시, ② 미 제9군단은 현행 작전의 유지, ③ 미 제10군단은 대우산에 대한 공격유지와 우인접 국군 제1군단과의 협조 아래 1031고지 일대의 고지군에 대한 확보임무를 부여하였다.[29]

2) 작전 계획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휴전회담의 전개로 나타나는 상황 즉, 수세에 밀렸던 공산군이 전선의 소강기를 이용해 전력을 증강하는 반면 국군과 유엔군은 포로획득의 실패로 인한 적정파악의 미흡, 전의 고양과 활력회복에 한계를 보인 훈련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전투 효율의 저조를 극복하기 방안을 강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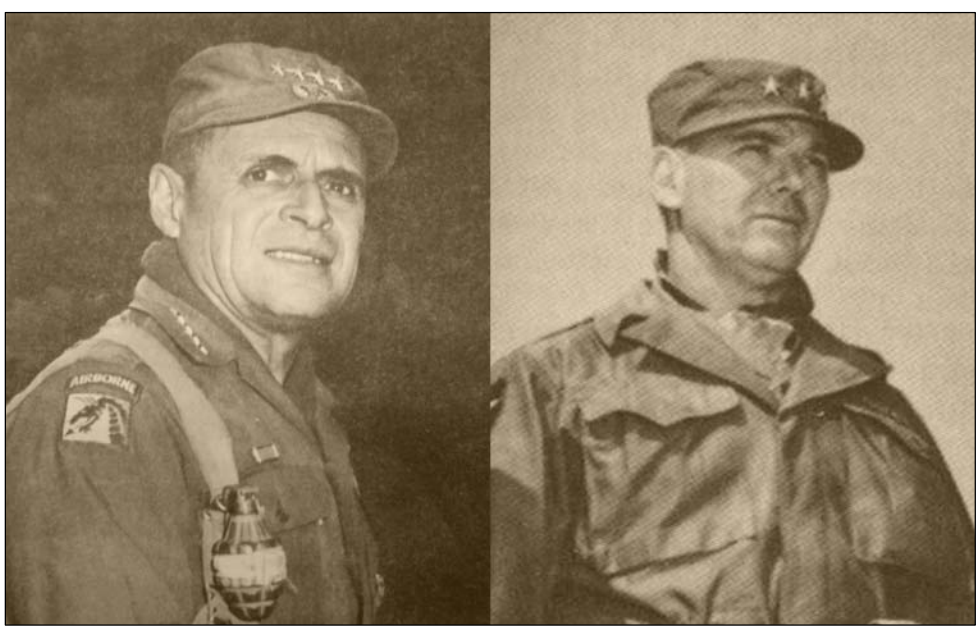
이는 공산군에게는 혼란을 주는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첨단을 날카롭게 다지며, 특히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표공격작전이었다. 미 제8군의 방어선 개선을 위한 기본전략은 방어선 남쪽으로 처진 만곡부를 밀어 올려 기복이 없도록 고르고 아군 병참선과 캔자스선 방어에 위협을 주는 지형지물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30]

① 군의 방어선 중에서 가장 취약한 중동부지역 미 제10군단 전선의 중앙, 해안분지(펀치볼) 북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만곡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와 협조된 작전을 통해 국군 제1군단 방어선을 남강까지 추진한다.
② 미 제9군단 정면의 금성분지를 점령하여 철의 삼각지를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고,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확보한다.
③ 미 제1군단의 방어선을 10㎞ 정도 추진하여 연천-철원 철로를 확보하고, 이를 철원-김화 철로와 연결시켜 서울-김화 도로는 물론 이 철로를 군 병참선으로 이용한다.

이와 아울러 밴플리트 사령관은 방어선 개념, 특히 와이오밍선에 대한 방어개념을 재정립하고 캔자스선과 같은 강도로 축성을 지시함으로써, ① 적의 제한목

표공격은 와이오밍선에서 저지하고, ② 전면공격은 와이오밍선에서 혹독한 응징을 가한 후 캔자스선에서 방어하는 방침을 규정하였다.[31]

1951년 8월 중순 장마가 그치고 기상조건이 호전되면서 밴플리트 사령관은 중단되었던 제한공격작전을 속개하기 위한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의 실시를 명령하였다. 이 작전은 해안분지(펀치볼)에 대한 공격에 앞서 해안분지(펀치볼)와 서화계곡 동쪽의 884고지-924고지-1031고지로 이어진 '낚시 바늘(J Ridge)' 형상의 종격실 능선을 점령하여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해안분지(펀치볼) 동쪽 전선을 남강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까지 밀어 올려 동쪽에서 해안분지(펀치볼)를 압박하는 작전이었다. 1951년 8월 18일에 개시된 포복작전은 미 제10군단의 우익사단인 국군 제8사단과 국군 제1군단의 좌익사단인 수도사단이 협조하여 실시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왼쪽)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

미 제8군사령관은 이와 연계하여 해안분지(펀치볼) 서쪽에서도 미 제2사단이 983고지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983고지 공격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미 제10군단 좌익인 국군 제7사단도 983고지 서쪽의 554고지-883고지 공격작전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포복작전은 해안분지(펀치볼) 북쪽 능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우익뿐만 아니라 좌익의 고지군까지 확대되었다.[32]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유엔군의 주요 지휘관은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 그리고 극동해군사령관 브리스코(Robert C. Briscoe) 중장과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및 전투서열은 <표 5-13>과 같다.[33]

<표 5-13> 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Matthew B. Ridgway	
	부사령관	중장	Doyle O. Hickey	
	참모장	중장	Doyle O. Hickey	
미 제8군사령부	사령관	중장	James A. Van Fleet	
		대장	James A. Van Fleet	1951. 8. 1부
	부사령관	중장	John B. Coulter	
	참모장	소장	Henry I. Hodes	
극동해군사령부	사령관	중장	Robert C. Briscoe	
극동공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는 미 제8군사령부는 예하에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제10군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의 4개 군단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 중 서부전선의 한강 하구로부터 김화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3·제25보병사단, 영국군 제29여단과 국군 제1·9사단, 그리고 수원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13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예하에 제5·제7·제8기병연대와 배속된 영국군 제28여단 및 캐나다 제25여단, 그리스대대 및 타일랜드대대를 두었다. 미 제3보병사단은 제7·제15·제65연대와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를, 미 제25사단은 제24·제27·제35연대와 배속된 터키 제1여단을, 그리고 영국군 제29여단은 배속된 벨지움대대를 각각 예하에 두었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를, 그리고 국군 제9사단은 제28·제29·제30연대를 각각 예하에 두었다.[34]

<표 5-14> 지역별 주요 부대 배치

축선	서부지역	중서부지역	중동부지역	동부지역
지역	한강 하구~김화	김화~북한강	북한강~소양강	소양강~동해안
군단	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미 제10군단	국군 제1군단
사단	미 제1기병사단 미 제3사단 미 제25사단 영 제29여단 한 제1사단 한 제9사단	미 제7사단 미 제24사단 한 제2사단 한 제6사단	미 제1해병사단 미 제2사단 한 제5사단 한 제7사단 한 제8사단	수도사단 제3사단 제11사단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밀번(Frank W. Milburn) 중장과 후임인 오다니엘(John W. O'Daniel) 중장, 부군단장 할리데이(Terrell G. Holliday) 소

장, 참모장 반 브런트(Rinaldo Van Brunt) 준장을 비롯하여 미 제1기병사단장 팔머(Charles D. Palmer) 소장, 미 제3보병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 미 제25사단장 브래들리(J. Sladen Bradley) 소장, 영국군 제29여단장 브로디(Thomas Brodie) 준장, 국군 제1사단장 박임항 준장, 제9사단장 최석 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의 미 제1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15>와 같다.

<표 5-15> 미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군단	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중장	John W. O'Daniel	1951. 7. 19부
	참모장	준장	Rinaldo Van Brunt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소장	Thomas L. Harrold	1951. 7. 17부
	제5연대장	대령	Irving Lehrfeld	
	제7연대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연대장	대령	Eugean J. Field	
	영 제28여단장	준장	B. A. Burke	배속부대
	캐 제25여단장		J. M. Rockingham	배속부대
	그리스대대장	중령	Arboutzis Dionysios	배속부대
		중령	Apiliopoulis Kyriakos	1951. 8. 5부
	타일랜드대대장	중령	Kriengkrai Attananta	배속부대
		중령	Prayauth Nuckakankul	1951. 8. 5부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필 제10대대장	중령	Dionisio Ojeda	배속부대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J. Sladen Bradley	
	제24연대장	소장	Ira P. Swift	1951. 7. 14부
	제27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35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터키 제1여단장	대령	Henry G. Fishir	
영 제29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벨지움대대장	준장	Thomas Brodie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중령	B. E. M. Crahay	배속부대
		소장	강문봉(姜文奉)	
	제11연대장	준장	박임항(朴林恒)	1951. 7. 4부
		대령	문형태(文亨泰)	
	제12연대장	중령	김영석(金永錫)	
		중령	정영홍(鄭永洪)	1951. 9. 1부
	제15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대령	김진위(金振暐)	1951. 7. 15부
	제5해병대대장	대위	이봉출(李鳳出)	배속부대

국군 제9사단	사단장	준장	최 석(崔 錫)	
		준장	박병권(朴炳權)	1951. 8. 15부
	제28연대장	대령	이창정(李昌禎)	
	제29연대장	중령	박응규(朴應奎)	
	제30연대장	대령	김황목(金煌穆)	
		대령	최영규(崔英圭)	1951. 9. 1부
국군제13경비대대	대대장	중령	-	

중서부전선의 김화로부터 북한강 서안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7보병사단과 미 제24보병사단, 국군 제2·제6사단과 제15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7사단은 예하에 제17·제31·제32연대를, 미 제24보병사단은 제5·제19·제21보병연대를 두었다. 또한 국군 제2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국군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호지(William H. Hoge) 중장과 부군단장 미첼(William L. Mitchell) 준장, 참모장 피플로(George B. Peploe) 준장을 비롯하여 미 제7사단장 페렌버그(Claude B. Ferenbaugh) 소장, 미 제24사단장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소장, 국군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과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의 미 제9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16>과 같다.

<표 5-16> 미 제9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William H. Hoge	

	부군단장	준장	William L. Mitchell	
	참모장	준장	George B. Peplo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Claude B. Ferenbaugh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5연대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함병선(咸炳善)	
	제17연대장	대령	손희선(孫熙善)	
		대령	은석표(殷碩杓)	1951. 9. 18부
	제31연대장	대령	조원영(趙原英)	
	제32연대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대령	김용순(金容珣)	1951. 8. 29부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송대후(宋大厚)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국군 제15경비대대	대대장	중령	-	

중동부전선의 북한강 동안으로부터 소양강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부여받은 미 제10군단은 미 제2보병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5·제7·제8사단과 제12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2사단은 예하에 제9·제23·제38연대와 배속된 프랑스대대 및 네덜란드대대를 두었으며, 미 제1해병사단은 제1·제5·제7·제11해병연대와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를 두었다. 또한 국군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국군 제7사단은 제3·제5·제8연대를,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알몬드(Edward M. Almond) 중장과 후임인 바이어스(Clovis E. Byers) 소장, 참모장 거스리(John S. Guthrie) 준장을 비롯하여 미 제2사단장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 미 제1해병사단장 토마스(Gerald C. Thomas) 소장,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과 제7사단장 김용배 준장, 그리고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의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17>과 같다.[35]

<표 5-17> 미 제10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중장	Edward M. Almond	
		소장	Clovis E. Byers	1951. 7. 15부
	참모장	준장	John S. Guthrie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Clark L. Ruffner	
		소장	Robert N. Young	1951. 9. 20부
	제9연대장	대령	John M. Lynch	
	제23연대장	대령	James Y. Adams	
	제38연대장	대령	Frank T. Mildren	
	프랑스대대	대령	Ralph Monclar	배속부대
	네덜란드대대	중령	W. D. H. Eekhout	배속부대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Gerald C. Thomas	
	제1연대장	대령	Wilburt S. Brown	
	제5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제11연대장	대령	Joseph L. Winecoff	
	한국해병 제1연대장	대령	김동하(金東河)	배속부대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제27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35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국군 제7사단	사단장	준장	김용배(金容培)	
		준장	이성가(李成佳)	1951. 9. 1부
	제3연대장	대령	정 진(鄭 震)	
	제5연대장	대령	하갑청(河甲淸)	1951. 7. 12부
		중령	채명신(蔡命新)	1951. 9. 1부
	제8연대장	중령	최주종(崔周鐘)	
		대령	김기동(金基東)	1951. 9. 1부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이춘경(李春景)	
		대령	정 강(鄭 剛)	1951. 9. 24부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全富一)	

소양강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동부전선의 방어정면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제11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수도사단은 제1·제1기갑·제26연대를, 제3사단은 제18·제22·제23연대를, 그리고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예하에 각각 두었다.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백선엽 소장과 부군단장 장창국 준장, 참모장 최홍희 준장을 비롯하여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 제3사단장 백남권 준장 그리고 제11사단장 오덕준 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 국군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5-18>과 같다.

<표 5-18>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부군단장	준장	장창국(張昌國)	
	참모장	준장	최홍희(崔泓熙)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대령	한 신(韓 信)	
		중령	고광도(高光道)	1951. 7. 23부
		중령	송호림(宋虎林)	1951. 9. 1부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徐廷哲)	
	제1기갑연대장	대령	이 용(李 龍)	
제3사단	사단장	준장	백남권(白南權)	
	제18연대장	대령	유양수(柳陽洙)	
		대령	김덕준(金德俊)	1951. 8. 28부

	제22연대장	대령	장춘권(張春權)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오덕준(吳德俊)	
	제9연대장	대령	오익경(吳益慶)	
		대령	김안일(金安一)	1951. 7. 14부
	제13연대장	대령	최석용(崔錫鏞)	
	제20연대장	대령	박원근(朴元根)	

4) 전투력 수준

재반격을 통해 서부지역의 한강 어구에서 장단-고랑포-연천-철원-김화-화천-서화를 거쳐 동해안의 간성에 이르는 진출선을 확보한 유엔군의 전력은 국군 1개 군단 10개 사단과 미군 3개 군단 7개 사단이 지상군의 주력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외에 영국군 2개 여단과 대대 및 연대규모의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터키·태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부대가 참전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전력은 1개 사단규모였다.

국군 및 유엔군의 지상병력은 총 55만 4천 5백명으로서, 국군 26만 5백여 명과 미군 25만 3천여 명, 그리고 기타 유엔군 2만 8천여 명과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예속된 카튜사(KATUSA) 만 2천 7백여 명이었다.[36] 또한 국군과 유엔군이 보유한 장비는 야포 880문, 박격포 1,150문, 대전차포 800문, 고사포 400문, 전차 및 자주포 820대, 항공기 1,585대 등으로 다음의 <표 5-19>와 같으며,[37] 작전기간 중 지상군 전력은 병력면에선 대체로 공산군이 국군과 유엔군에 비해 2:1로 우세하였고, 화력면에선 국군과 유엔군이 우세하였다.[38]

<표 5-19> 국군 및 유엔군 인원 및 장비 현황

구 분	미 군	국 군	유엔군	합 계
병 력(명)	253,000	273,000	28,000	554,000
야 포(문)	500	300	80	880
박격포(문)	400	700	56	1,156
대전차포(문)	600	150	48	798
고사포(문)	400	-	-	400
전차/자주포(대)	700	-	120	820
항공기(대)	1,495	-	100	1,585

사단 당 병력 수는 미군 16,000명과 국군 10,180명이고, 평균작전 밀도는 사단 당 8㎞로서 병력 및 장비면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은 평균 6㎞인 철원 및 북한강 지역이었다. 그리고 병력의 전개상황을 보면, 미군은 전투장비의 위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방어선을 점령 방어하였고, 국군은 미군과의 간격과 지형적으로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을 담당하였다.[39]

제 3 절 작전경과 및 결과

1. 해안분지(펀치볼) 공격준비와 포복작전

1) 924고지 전투 (1951년 8월 18일∽8월 23일)

(1) 전투 개요

군단의 좌일선으로 캔자스선 진격전에 나서 간성-향로봉(香爐峯) 선을 확보한 수도사단은 중동부와의 전선균형을 위한 군단의 계획에 따라 진격을 중지하고 향로봉을 중심으로 한 남북선상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향로봉-원봉(圓峯) 일대에 제1기갑연대를, 향로봉-원봉 북쪽 3~5㎞ 일대에 제26연대를, 향로봉 남쪽의 칠철봉(七鐵峯)-매봉(梅峯) 일대에 제1연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 무렵의 전국(戰局)은 7월 이후 거론된 휴전회담의 진전으로 전선은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나, 공산군은 이 기회를 틈타 전력보강에 주력하여 상당한 전력을 갖추었다. 특히, 동부전선에서는 캔자스선을 감제하는 해안분지(펀치볼) 일대에 6개 사단의 병력과 각종 포화를 집중시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함은 물론 향후의 일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아군은 적이 장악한 제고점을 선제공격으로 격파, 장악하여 그들의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려 하였다. 그 일환으로 군단은 해안분지(펀치볼) 동벽 일대의 924고지-751고지를 목표로 정한 후 수도사단에 1951년 7월 27일 08시를 기해 이 목표를 공격토록 하였다. 군단의 명령을 받은 사단장은 제1연대와 기갑연대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때 닥친 큰 장마로 인해 진격을 보류하였다.

8월 중순 장마가 그치면서 군단으로부터 목표에 대한 공격재개 명령을 받은 사단장은 예비대로 전력을 보강한 제26연대를 투입하여 8월 18일 06시를 기해 공격

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단의 우측에서는 제11사단이 884고지-591고지를, 좌측에서는 제8사단이 1031고지를 각각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5-20>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준장	장창국(張昌國)	대리
	수도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徐廷哲)	
	제1대대장	소령	윤병준(尹炳埈)	
	제2대대장	소령	박기순(朴基淳)	
	제3대대장	소령	박노권(朴魯權)	
			한영조(韓榮助)	1951. 8. 21부
	제1연대장	중령	고광도(高光道)	
	제1대대장	소령	함용익(咸鎔翼)	
		대위	윤종호(尹鐘浩)	1951. 8. 9부
	제2대대장	대위	이종록(李鐘錄)	
	제3대대장	소령	박찬긍(朴贊兢)	
	제10포병대대장	중령	방경원(房景源)	
북한군	제2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제19연대	대좌	이종산(李鐘山)	
	제1대대장	중좌	박창임(朴昌任)	
	제2대대장	중좌	최만길(崔滿吉)	
	제3대대장	중좌	-	
	제21연대	대좌	-	인접부대

당시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2군단 제13사단으로 예하의 제19연대가 924고지를, 제21연대가 751고지를 고수하고 있었으며, 서북쪽의 무명고지에 예비대가 증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40] 또한 우인접 제11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45사단과 좌인접 제8사단과 대치중인 북한군 제2사단이 사단의 작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군 제13사단은 5월 공세 당시 전력상의 손실이 없어 대체로 양호한 전력을 유지하였는데, 전투병력 약 5,500명과 연대 당 박격포 8문,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 24정을 보유하였고, 야포 1개 대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단의 공격목표인 924고지-751고지는 아군에게는 해안분지(펀치볼) 공략의 교두보였으나, 방자인 적에게는 천연의 요충이었다. 특히 주봉인 924고지는 아군 진지의 관측이 용이하여 캔자스선을 감제하는 관측소의 역할이 가능하였다. 또한 전투정면은 60~70도의 급경사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이면서 수목이 거의 없는 독산으로서 전진에 상당한 애로점으로 작용하였다.

(2) 전투 경과

군단장 대리인 장창국 준장은 8월 17일 해안분지(펀치볼) 동서벽 일대의 적 제고점을 탈취하기 위해 "8월 18일 0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다음 목표 "C"(924고지-751고지)를 점령하고 적 후방을 수색하면서 그 보급시설을 파괴하라"는 작전명령을 수도사단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장은 제26연대를 공격 제대로 하고 제1연대의 1개 대대가 이를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41]

① 제26연대는 목표 "C"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한 다음 우인접 제9연대와 연계하면서 453번 도로까지 약진하여 이를 확보하라.
② 제1연대는 1개 대대를 8월 17일 24시까지 941고지에 집결, 대기시키고 별도 명령에 따라 924고지 서북쪽을 연하여 진격함으로써 제26연대를 지원토록 하라.
③ 공격간 사단 포병은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④ 작전기간 중 요청에 따라 함포 및 공중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공격개시는 8월 18일로 예정한다.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26연대장은 8월 18일 06시를 기해 제3대대가 우일선으로 751고지를, 제2대대가 좌일선으로 924고지를 병진공격하고, 제1대대가 이를 지원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42]

연대 작전명령에 따라 제3대대는 부여된 시간에 목표인 751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제11중대와 제9중대를 좌우 일선에, 제10중대를 예비로 공격에 돌입하였다.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대대는 751고지 동남쪽 500m까지 진출하여 좌우 양면에서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포위망을 압축하며 돌진하던 대대는 751고지 서측 기슭으로 진출하던 제9중대가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적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다. 완강한 적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대대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점차 중대의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고 혈전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전략을 보강한 후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심하고 부대의 복귀를 지시하였다.[43]

아군의 공격에 맞서 적의 방어태세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다음날인 8월 19일 제26연대는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3대대는 751고지의 북사면까지 진출하였으나, 고지를 사수하려는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일몰시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진출선에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44]

한편 924고지의 점령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도 8월 18일 정해진 시간에 제5중대를 우일선에, 제7중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45] 목표 고지 전면에 진출한 이들은 10시 30분 2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후속하던 제6중대까지 고지 동쪽으로 우회시켜 3면에서 포위공격을 감행하였음에도 적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치열한 공방전만 계속되자, 대대장은 제5중대에 정면 육박돌격을 명령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시된 대대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면서 적의 진지 일부가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포착한 대대는 총공격을 감행하여 진지 안의 적을 몰아내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고지 점령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제2대대에 924고지 측후방의 765고지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였다. 대대는 여세를 몰아 765고지 전방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나, 때마침 내린 폭우와 고지 중간에 위치한 적 중화기의 집중사격으로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이런 상황을 간파한 2개 대대규모의 적이 역습을 가해옴

에 따라 대대는 대대 OP가 있는 709고지로 철수하여 차후 공격에 대비하였다.[46]

다음날 대대는 배속된 제1대대의 제2, 제3중대와 함께 924고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지 사수를 위해 계속 병력을 증원하는 적과의 격전이 지속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장은 연대장의 승인 하에 대대를 복귀시키고 전력을 정비하였다.[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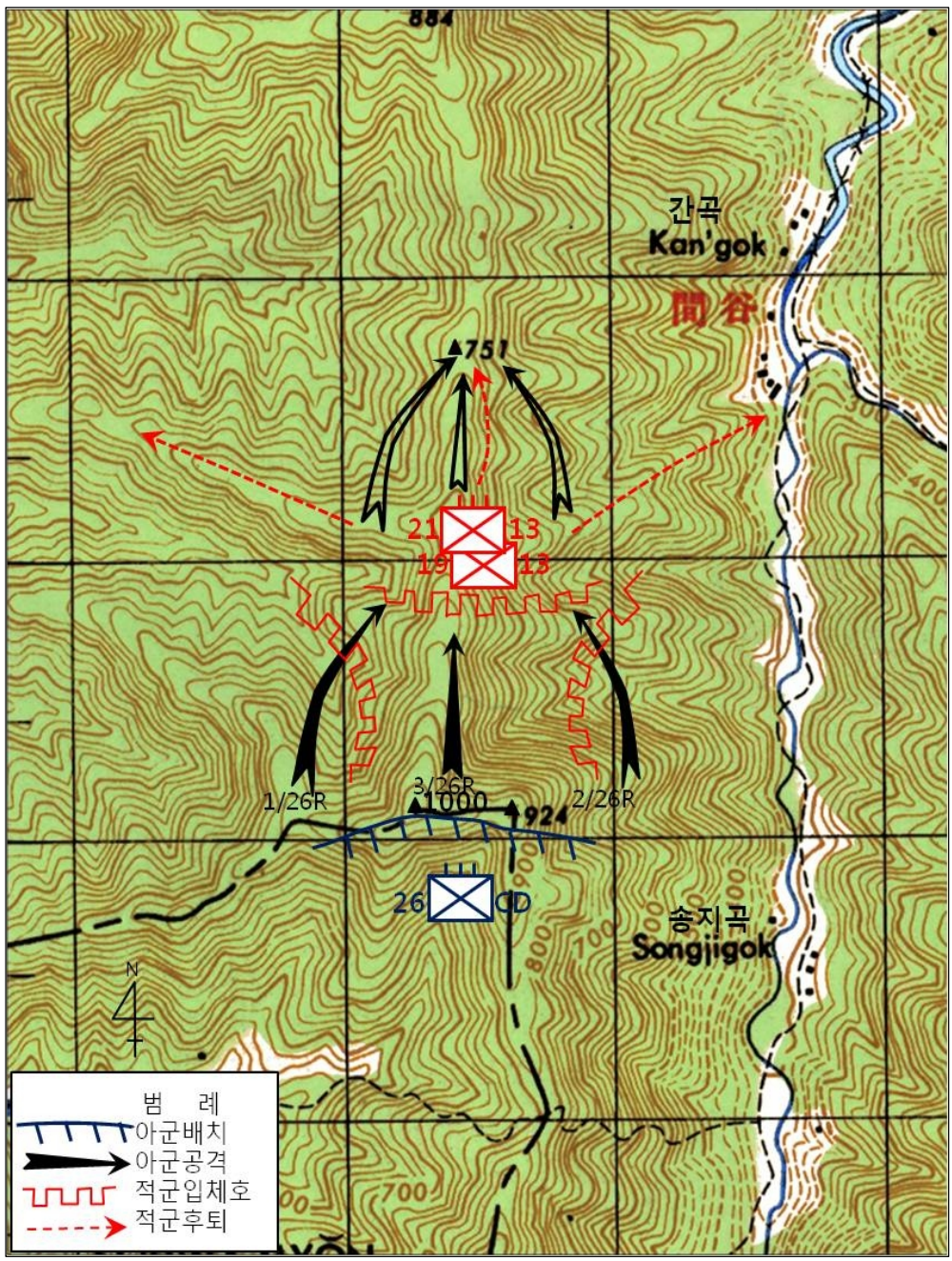
완강한 적의 저항에 직면한 연대장은 예하의 모든 병력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8월 20일 연대 예비인 제1대대에 924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동시에 제2대대는 924고지를 좌측방으로 우회하여 협공한 다음 751고지를, 그리고 제3대대는 연대특공대와 함께 751고지 북쪽의 1000고지를 공격토록 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주력을 전방으로 전진시켜 제2대대의 지원 병력과 협동으로 924고지를 공격, 5회에 걸친 격렬한 백병전 끝에 적을 물리치고 18시 30분경 고지를 다시 탈환하였다.

제2대대는 제1대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하다 제1대대가 924고지를 점령하자 적의 전진진지인 765고지의 서측 후면을 공격하고 예비대가 924고지를 초월하는 즉시 정면공격을 실시토록 하였다. 대대는 집요하게 저항하는 적과 일몰시까지 공방전을 펼치다 연대의 조명사격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힘입은 돌격으로 적의 거점을 분쇄할 수 있었다.[48]

제3대대는 1000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주력을 좌우로 전개시키고 배속된 특공대를 서쪽 경사면으로 우회시켜 적을 공격토록 하였다. 목표를 향해 진격하던 선봉중대가 적의 집중포화로 진로가 차단되자, 대대장은 병력을 진두지휘하며 육탄돌격하여 적을 물리치고 진지로 복귀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8월 21일 924고지를 빼앗긴 북한군 제13사단이 이포리에 있던 예하의 제21연대를 924고지 일대로 증원 배치하자, 아군은 보포와 공지협동작전으로 적을 공격하였다. 924고지를 장악한 제1대대는 765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08시에 일제히 진격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전선에 투입된 적 제21연대 예하 1개 대대의 집중사격으로 진격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대는 특공대를 우회시켜 기습공격을 가하는 한편 돌출부에 대한 정면공격으로 이를 타개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49]

<상황도 5-2> 924고지 전투(1000고지 쟁탈전)



제2대대는 전날 탈취한 765고지 중간에서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특히 예하의 제6중대는 3개소의 적 기관총진지를 파괴함으로써 제1대대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제3대대는 이날 08시에 후임 대대장의 진두지휘 아래 목표인 1000고지를 향해 진격하였다. 대대의 진격에 적은 증원된 제21연대의 주력과 합세하여 고지 방어에 주력함으로써 피아간에 격전이 온종일 거듭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공격을 중지시키고 924고지 부근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18시 경 대대는 924고지 동쪽 계곡으로 이동하여 차후명령을 기다리며 전열을 정비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이날 밤 연대 CP에서 관계 참모들을 소집하여 작전회의를 열고 1000고지에 대한 공격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8월 22일 10시에 전 대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한다. 제3대대가 중앙을, 제2대대가 우일선을, 제1대대가 좌일선으로 진격하여 목표 고지의 양측 후미를 장악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50]

8월 22일 연대는 공지 양면의 집중지원을 받으며 적진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목표 고지 정면을 담당한 제3대대는 험준한 산악과 협곡을 뚫고 정오 무렵 고지의 중간지점에 진출하여 1개 대대규모의 적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끊임없는 공방전이 계속되자, 대대장은 결사대를 편성한 후 진두지휘하며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대원들도 수류탄을 투척하며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강력한 적의 기관총진지를 파괴할 수 있었다. 특공대의 활약에 힘을 얻은 대대는 4시간 30분에 걸친 혈전 끝에 마침내 목표한 고지를 점령하였다.[51]

연대의 우일선인 제2대대는 11시 30분 경 1000고지의 동사면 중간까지 진출하여 전진거점에서 집중사격을 가하는 적과 교전하였다. 이에 대대는 측면 기습에 이은 전면공격으로 적을 제압하고 사단포병의 지원 아래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적은 유개화된 엄체호 속에서 강력히 저항함으로써 혼전이 계속되었다. 이 무렵 제3대대 특공대가 1000고지 정상에 돌입하자, 대대는 이에 호응하여 적을 격멸하고 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연대의 좌일선으로 1000고지의 좌측방에 대한 탈취임무를 부여받은 제1대대도 10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765고지 서사면을 따라 진격한 대대는 13시 경 돌

격대기선에 진출한 후 전진거점의 적마저 격퇴한 후 정상으로 돌진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의 정상 돌입과 호응하여 완강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목표를 탈취하였다.

한편 1031고지를 초월하여 제26연대의 공격을 측면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연대 제3대대는 8월 20일 18시 30분에 1031고지 동쪽의 진지를 출발하여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21시 경 905고지 서사면 부근에 진출하였다.[52] 다음날 05시에 제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좌인접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진격하였다. 대대는 924고지 서남 능선에서 우회 및 반격을 기도하는 1개 중대규모의 적을 포위하여 섬멸한 후 18시 10분에 924고지 동측 능선에서 제26연대 제3중대와 연계하였다.

계획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탈취한 제26연대는 8월 23일 08시에 "제26연대는 13시를 기해 제1기갑연대와 진지를 서로 교대하고 신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전력을 정비하는 즉시 제1연대와 연계하면서 위력수색을 전개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았다. 13시에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진출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선두로 축차 이동하였고, 이로써 6일 동안 전개한 924고지전투를 종료하였다.[53]

⑶ 전투 결과

제26연대가 북한군 제2군단 제13사단의 주력을 격파하고 924고지-1000고지-751고지를 점령 확보한 것은 캔자스선의 적의 위협을 제거함은 물론 적의 제고점을 탈취하여 해안분지(펀치볼) 동벽의 포위태세를 갖추려는 미 제8군의 작전개념을 완수한 것이었다. 제1기갑연대와 진지를 교대한 제26연대는 8월 23일 20시에 부대배치를 완료하고, 사단의 우일선 연대로 향로봉 동북쪽의 산두곡산(山頭谷山)을 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반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북한군 제13사단은 8월 24일과 25일 단대호 미상의 제2군단 직할부대와 교대한 후 철수하였고, 전선에 새로 투입된 적은 9월까지 대포병진지와 거점방어진지 등 축성공사에 주력하였다.

이번 전투 중 연대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5-21>과 같다.[54]

<표 5-21> 전과 및 손실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기관총	다발총	소총	수류탄	실탄		
645	7	18	48	66	8,910	6,000	47	418

2) 884고지 전투 (1951년 8월 18일 ∽ 8월 27일)

(1) 전투 개요

캔자스선 진격전에서 군단의 우일선을 담당하여 거진리(巨津里)-건봉령(乾鳳嶺)선을 확보한 제11사단은 전선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진격을 멈추고 진출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태백산맥의 준령 중 향로봉산맥을 가로질러 향로봉(△1293) 북쪽의 1079고지로부터 건봉령에 이르는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사단은 제20연대가 향로봉 북쪽 1079고지, 제13연대가 건봉령을 중심으로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제9연대가 703고지와 건봉산 서측에 전진진지를 편성하여 전초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

이 무렵의 전국(戰局)은 7월 이후 거론된 휴전회담의 진전으로 전선은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나, 공산군은 이 기회를 틈타 전력보강에 주력하여 상당한 전력을 갖추었다. 특히 동부전선에서는 캔자스선을 감제하는 해안분지(펀치볼) 일대에 6개 사단의 병력과 각종 포화를 집중시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함은 물론 향후의 일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아군은 적이 장악한 제고점을 선제공격으로 격파, 장악하여 그들의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려 하였다. 군단은 해안분지(펀치볼) 동벽 일대의 884고지-591고지와 924고지-751고지를 목표로 정한 후 제11사단과 수도사단에 이들 목표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11사단은 예정된 공격개시일인 8월 27일에 맞추어 공격준비를 완료하였으나, 30여 년만의 큰 장마로 인해 공격은 일단 보류되었다.

<표 5-22>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제11사단장	준장	오덕준(吳德俊)	
	제9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제1대대장	소령	정용철(鄭庸喆)	
		소령	김용림(金用琳)	1951. 8. 21부
	제2대대장	소령	임영호(林永鎬)	
	특공중대장	중위	김형남(金炯南)	
	제20연대장	대령	박원근(朴元根)	
	제1대대장	소령	이동근(李東根)	
	제2대대장	소령	이승준(李承俊)	
	제3대대장	소령	최형록(崔亨祿)	
	특공중대장	중위	오세호(吳世湖)	
	제20포병대대장	중령	심학인(沈鶴仁)	
북한군	제3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45사단장	소장	지병학(池炳學)	
	제2연대장	대좌	최동광(崔同廣)	
	제2대대장	중좌	연명순(연명순)	

한편 사단의 방어정면에는 이포리(伊布里)에 CP를 둔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45사단이 위치하였으며, 이 중 884고지 일대에는 제2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55] 북한군은 약 2개월에 걸쳐 진전에 지뢰와 철조망을 설치하는가 하면 고지 정상에는 유개호와 엄체호 등의 진지를 구축하여 거점화하였다. 또한 서북쪽 1.5㎞에 있

는 사천리(沙泉里)에 예비대를 두고 증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56]

북한군 제45사단의 전력은 그동안의 전력강화책으로 인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6,500명 내외의 전투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각 연대에 82㎜ 박격포 6문과 60㎜ 박격포 8문을 비롯하여 75㎜ 직사포 8문과 중기관총 5정, 경기관총 15정, 다발총 등을 보유하고 122㎜ 야포 1개 대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제11사단은 대체로 연대 T/O 및 T/E를 유지하고 있었다.[57]

884고지는 남강 남쪽에 위치하여 사단의 주저항선을 깊숙이 들여다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보급로인 고성-사천리-원통에 이르는 453번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였다. 또한 아군이 확보한다면 적을 남강 북쪽으로 구축하여 남강과 그 대안을 깊숙이 감제할 수 있는 주요 지형지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지는 군이 계획하고 있는 해안분지(펀치볼) 포위작전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낚시바늘 능선의 머리 부분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피아간 작전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형지물이었다.[58]

(2) 전투 경과

제11사단장은 1951년 8월 16일 "제11사단은 8월 18일 0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다음 목표 B(△884-△591)를 점령하고 적 후방을 수색하면서 그 보급시설을 파괴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을 받았다.[59] 이에 따라 사단장은 현 전선을 방어하면서 제9연대로써 884고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수립 하달하였다.[60]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서 8월 18일 06시를 기해 목표 "B"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그 부근의 고지군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9연대는 현 진지에서 약진하여 목표 "B"를 탈취하라. 목표를 탈취하면 지체없이 약진하여 601고지를 확보하라.
③ 제13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제9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라.
④ 제20연대는 우인접 제13연대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20포병대대는 공격간 제9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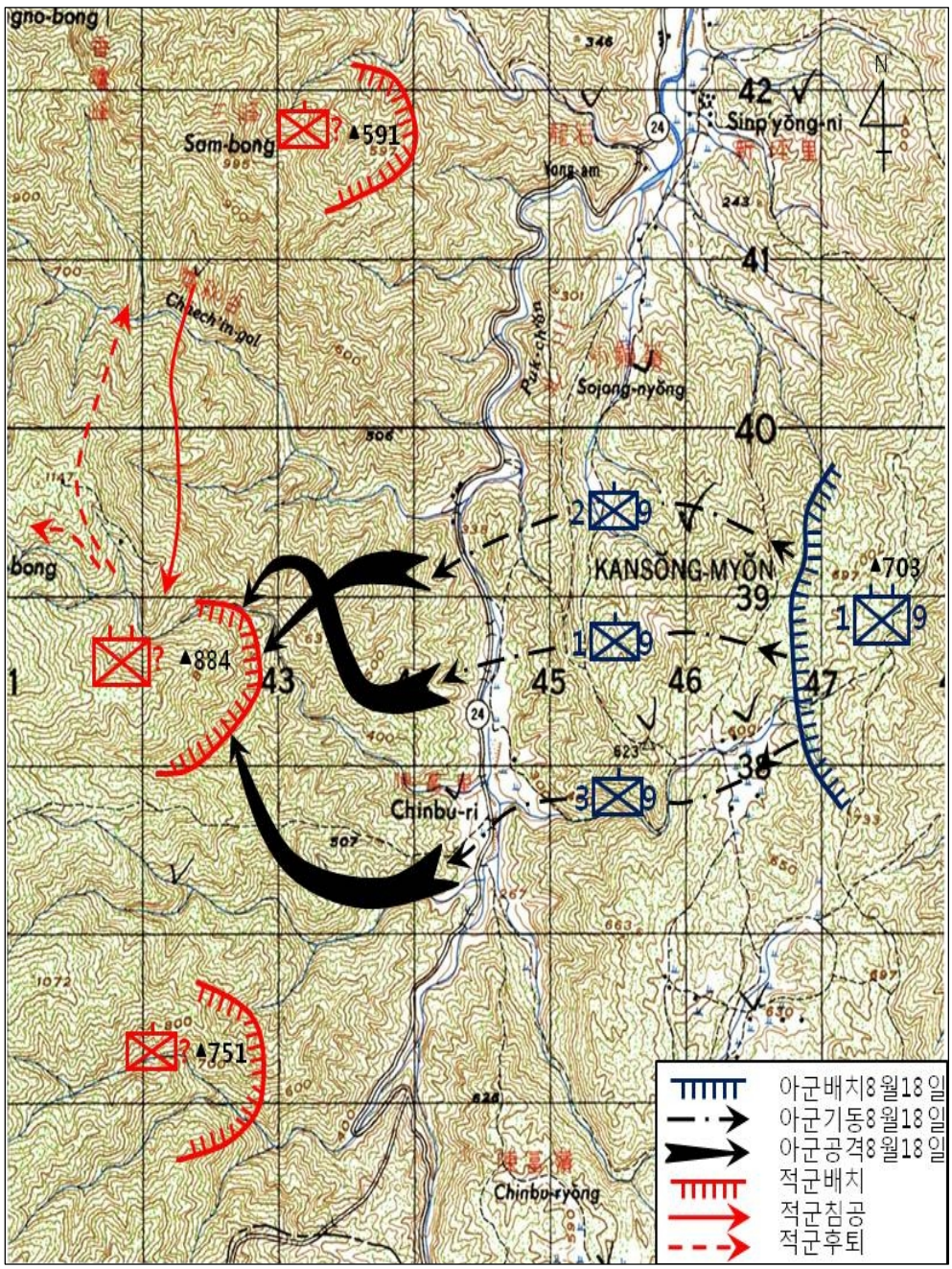
⑥ 공병대대는 기간 중의 폭우로 인하여 파손된 주보급로를 보수한 다음 적의 예상접근로 상에 가용한 모든 장애물을 설치하라.
⑦ 요청에 따라 함포 및 공중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⑧ 작전기간 중 미 제10군단의 155㎜포 1개 중대가 화력 증원할 것이다.
⑨ 협조지시 :
각 연대는 인접부대와의 연락을 긴밀히 유지하라. 특히 전투지경선의 허극을 보전하라. 제13, 제20연대 양 연대는 계속 부단히 수색전을 전개하여 적의 동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라.
⑩ 사단 CP는 광산리(廣山里)에 위치한다.』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9연대장은 "703고지에 추진 배치된 제1대대는 884고지를 탈취한 후 일부 병력으로 전방의 601고지를 점령하고, 연대특공대는 591고지를 점령하여 사단의 임무를 완수한다." 그리고 "제2대대는 현 진지를 강화하면서 명에 따라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며, 제3대대는 연대예비로서 측후방에 대한 경계와 아울러 공격제대가 목표를 탈취하면 이를 인수한다"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61]

제9연대는 사단 포병 및 동해안으로부터 유엔해군의 함포지원을 받으며 8월 18일 06시에 남강 지류를 건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는 884고지의 동측에서 제1중대를 중앙으로, 나머지 중대를 고지 좌우로 전개하여 3면에서 공격하였다. 그러나 지형의 경사가 심할 뿐 아니라 적이 견고하게 구축한 진지에서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전진이 부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의 제1중대가 우측으로 우회하여 적의 좌측방 능선으로 육박, 수류탄을 투척하며 백병전을 전개하자 적이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대대가 일제히 적진으로 돌입하였고, 12시 경 마침내 884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62] 사단이 전략상 전술목표이기도 한 884고지를 탈취하자, 이를 주시하고 있던 군단장 백선엽 소장과 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 총참모장 이종찬(李鍾贊) 중장은 사단의 전공을 치하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날 좌인접의 수도사단이 924고지마저 점령하자 군 지도부는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상황도 5-3> 884고지 전투(1951.8.18)



유엔해군의 함포사격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던 적은 884고지 주변의 591고지와 602고지, 그리고 751고지 부근에서 역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연대는 증원부대를 급파하여 884고지 주변의 잔적을 몰아내고 방어진지를 견고히 구축하려 했지만, 사단 및 연대 방어 정면이 넓어 부대차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증원부대를 적시에 투입할 수 없었다. 여기에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오후부터 몰아치기 시작하자, 제1대대는 시계와 사계가 극히 제한된 악조건 하에서 방어를 하게 되었다.[63]

대대가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사주방어태세를 갖추자, 주변 고지로 물러났던 적은 일몰 직후에 포격과 동시에 3개 제대로 무리를 지어 역습을 가해왔다. 대대는 전력을 다해 응전하였으나, 적의 파상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후사면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대대장은 고지 중턱에서 병력을 수습하며 재공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연대특공대는 제1대대보다 2㎞ 북쪽에 위치한 591고지를 공격하였다. 특공대는 지원사격을 받으며 적의 저항을 극복하고 돌격을 3차례나 실시하였으나, 결국 목표 점령에 실패하고 원위치로 철수하였다.

다음날인 8월 19일 미명에 제1대대는 884고지 남쪽의 간곡(間谷) 부근으로 철수한 후 포병 및 항공지원 사격으로 적진을 강타한 후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목표를 향해 진출하던 대대는 08시 30분 경 전날 격전을 벌였던 고지 8부 능선에서 다시 대대규모의 적과 격돌하였다. 우전방의 제2중대가 선봉으로 적진에 돌입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고지 정상으로 뛰어올라 육박전을 감행하였다. 좌전방의 제3중대 또한 협공을 개시하자 적은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대대가 이틈을 이용해 고지를 완전히 탈환함으로써 두 번째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64]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적 217명을 사살하고 12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기관총 5정과 소총 60정, 수류탄 117발을 획득하는 전과를 거둔 반면 33명이 전사하고 76명이 부상하는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65]

이후 대대는 3개 중대로 사주 방어진지를 구축하며 재편성에 착수했으나, 기상과 지형 그리고 보급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폭풍우로 인해 유개진지의 구축이 어려웠고, 시계 불량으로 적진 탐색과 상황 파악이 용이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향로봉산맥을 넘어 보급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탄약과 식량 보급이 부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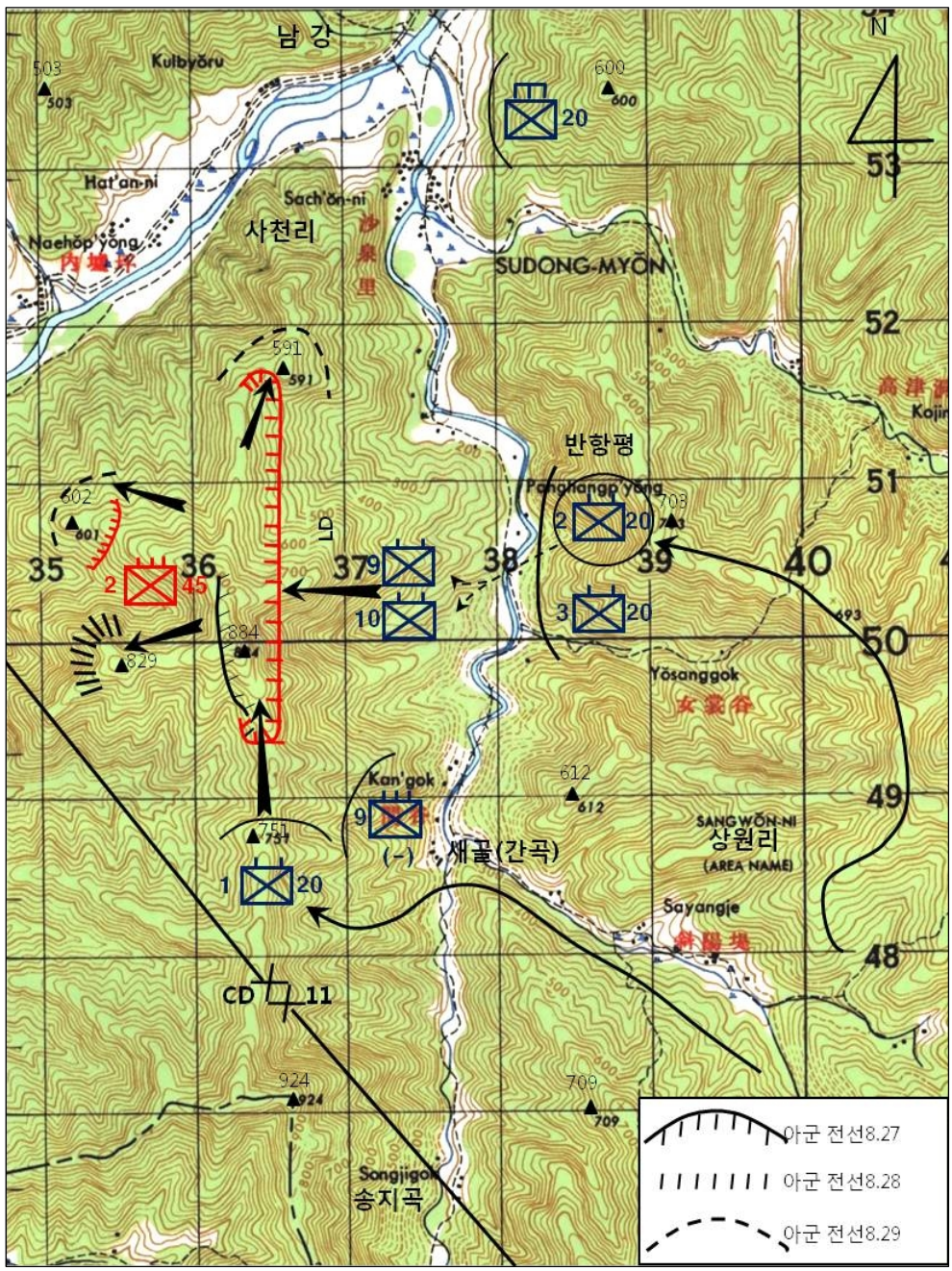
8월 21일 대대는 884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 근거지를 탈취하기 위해 서쪽으로 1㎞ 떨어진 602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오 무렵부터 602고지와 남쪽의 751고지로부터 적의 역습을 받고 9시간에 걸쳐 결전을 치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탄약이 바닥나고 대대장을 비롯한 제2, 3중대장이 부상을 입는 등 전투병력 중 1/3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결국, 20시 20분 경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 좌익의 제2중대 진지가 와해되면서 대대는 고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66] 대대는 간곡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대대 관측소를 703고지로 이동하였다.

다음날인 8월 22일 연대장은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의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현 진지에서 적을 견제하고, 건봉산 서쪽의 전진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2대대는 제1대대를 증원하며, 제3대대는 600고지와 703고지의 전진진지를 계속 고수하도록 하였다.[67]

제2대대는 건봉산 서쪽에서 철야 강행군으로 703고지에 도착한 후 23일 아침 남강 지류에 도달하였으나, 그동안 내린 호우로 강물이 범람하여 도보로 건널 수가 없었다. 사단 공병의 지원 아래 가교를 설치하고 도하장비를 급조하여 22시 무렵에서야 비로소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장병들은 2일간의 철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제2대대는 24일 여명에 3개 중대가 일제히 884고지를 공격하였고, 09시 30분 경 제1대대와 합세하여 양개 대대 병진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들은 항공지원을 받으며 적진까지 육박하였으나, 적의 저항 또한 집요하여 돌파구를 열지 못한 채 격전을 반복하였다. 야간으로 접어들어 우일선의 제1대대 제3중대가 병력의 일부를 우회시켜 적의 측후방을 급습한 틈을 타 사각을 이용하여 적진으로 돌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개 대대가 일제히 돌격하여 저항하는 적을 격멸하고 세 번째로 884고지를 점령하고 재편성에 들어갔다.

<상황도 5-4> 884고지 전투(1951.8.27)



다음날 04시 경 2개 대대규모의 적이 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격전을 계속한 끝에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양 대대는 고지의 후사면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들은 간곡 부근으로 철수하여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부대를 수습하였다. 이와 같이 제9연대가 3번이나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번번이 적의 역습에 피탈되고 많은 손실이 발생하자, 사단장은 제9연대를 대신하여 제20연대에 임무를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68]

① 제20연대는 8월 26일 15시에 현 진지를 출발하여 간곡 부근으로 약진함과 동시에 전력을 정비한 다음 8월 27일 06시를 기해 목표 "B"를 탈취하라.
② 제9연대는 제20연대가 공격대기지점에 진출함과 동시에 제20연대의 진지로 전진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부대정비에 전력하면서 좌일선인 제13연대와 연계를 유지하라.
③ 제13연대는 현 진지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20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라.

새로운 명령을 받은 제20연대장은 8월 26일 주저항선의 제3대대를 703고지로 이동시켜 동측에서 884고지의 동측 배면을 공격하고, 제1대대를 751고지로 추진시켜 884고지의 서측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703고지에서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884고지를 탈취하면 602고지와 591고지를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연대관측소를 1079고지에 설치하였다.[69]

8월 26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각각 공격출발 진지로 이동한 제20연대는 사단포병 제20대대와 군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6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적의 집중되는 방어사격과 탄막사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한 걸음씩 전진하여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고지의 북반부를 탈환하였다. 대대는 이날 전투에서 14명의 적을 사살하고 포로 6명을 획득하였으며, 기관총 13정과 각종 소총 23정을 노획한 반면 인명손실은 전사 23명과 부상 64명이었다.[70]

751고지에서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가 일련의 종격실 능선을 타고 8부 능선까지 진출하자, 적은 수류탄을 고지 아래로 굴리며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적진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대대장의 계속된 돌진 명령에 따라 제3중대가

30m 전방까지 육박해 함성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자 진지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대가 일제히 돌진하여 30분에 걸친 격전 끝에 884고지를 탈환하였다. 아군이 고지를 네 번째 점령한 후 예비인 제2대대가 8월 29일 602고지와 591고지를 점령함으로써 884고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71]

⑶ 전투 결과

고지를 피탈한 북한군은 다음날부터 9월 초까지 역습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아군 제20연대가 이를 격퇴하고 목표 "B"인 884고지-591고지를 고수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은 캔자스선 상의 위협을 제거하고 전초선을 남강 남쪽의 884고지-591고지-600고지-작은 까치봉까지 추진하여 방어선을 개선함으로써 군단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수도사단이 8월 23일에 924고지-751고지를 점령하고 8월 27일 제11사단이 884고지-591고지를 탈취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은 군 계획에 따라 해안분지(펀치볼) 공격을 위해 실시한 해안분지(펀치볼) 동측 능선에 대한 점령임무를 완수하였다. 이번 전투 중 사단의 종합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5-23>과 같다.[72]

<표 5-23>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 과							손 실		
	사살	포로	노 획					전사	부상	실종
			소총	다발총	기관총	수류탄	실탄			
제9연대	500	17	61	43	10	617	5,000	2/63	20/302	1/43
제20연대	752	14	101	39	12	1,047		2/58	8/170	
계	1,252	31	162	82	22	1,664	5,000	4/121	28/472	1/43

2. 해안분지(펀치볼) 확보작전

1) 노전평 전투 (1951년 8월 9일 ∽ 9월 18일)

(1) 전투 개요

노전평(蘆田坪) 전투는 1951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중동부전선인 강원도 인제군 서화계곡의 노전평 부근에서 불리한 상황의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해 국군 제8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2사단 및 제13사단과 제3군단 예하 제15사단 및 제45사단과 3차에 걸쳐 전개한 고지쟁탈전이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 개최를 전후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캔자스-와이오밍선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휴전회담을 주시하였다. 이때 미 제10군단은 중동부전선에서 화천저수지-두밀령(杜密嶺)-해안분지(펀치볼) 남쪽능선-산머리곡산을 잇는 새로운 캔자스선을 확보하고 있었다. 미 제10군단의 우전방 부대인 국군 제8사단은 돈평-고성재까지 진출하여 서쪽의 미 제2사단과 동쪽의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협조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의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한 공산군은 전선의 정비와 전력강화에 주력하는 반면에 유엔군은 휴전을 갈망하는 심리로 은연 중 전투를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전선이 남쪽으로 만곡(彎曲)된 불리한 상황의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적인 공세작전을 계획하였다. 작전의 중점은 공산군이 해안분지(펀치볼) 주변의 고지군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전선이 가장 남으로 원호(圓弧)를 그리고 있는 미 제10군단 지역에 있었다.

7월 하순부터 실시된 군단의 전선 밀어 올리기 작전은 장마로 인해 중단하였고, 장마가 그치는 8월 중순에 속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은 8월 16일에 좌전방의 국군 제7사단에 554고지를, 중앙의 미 제2사단에 피의 능선을, 그리고 우전방의 국군 제8사단에 1031고지와 965고지를 8월 18일을 기해 각각

공격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1031고지-965고지의 공격에 앞서 발판이 되는 445고지-562고지-785고지-1010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제16연대 제3대대가 445고지를, 전차공격대대가 562고지와 785고지를, 그리고 제10연대 제3대대가 1010고지를 8월 9일 05시를 기해 일제히 공격하였다. 공격제대는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 제2사단과 제13사단의 전초부대를 격퇴하고 8월 9일 전차대대가 562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 다음날엔 나머지 목표들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의 역습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중 785고지와 1010고지를 일시 빼앗기고 물러났던 전차공격대대와 제10연대 제1대대는 전열을 수습하여 피탈된 고지들을 다시 탈환함으로써 6일에 걸친 고지쟁탈전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이어 사단은 1031고지-965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제10연대를 주공으로 1031고지를, 그리고 제21연대 제3대대를 조공으로 965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0연대의 주력은 8월 18일 0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여 오후에 1010고지를 탈환한데 이어 적 제13사단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8월 20일 1031고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4일에 걸쳐 965고지를 공격한 제21연대 제3대대는 북한군 제2사단의 집요한 저항으로 목표 탈환에 실패하고 임무를 제16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였다. 8월 22일 공격을 개시한 제2대대는 다음날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으나, 적의 야간 역습에 밀려 일시 철수하였다. 8월 24일 오전에 공격을 재개한 제2대대는 사단수색중대의 도움으로 965고지를 탈환함으로써 제2차전을 종료하였다.

사단이 두 차례의 공격전투를 통해 전선을 약 2㎞ 북상시킨 후 전선의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군의 부대교대가 실시되어 제3군단 제15사단이 새로이 854고지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에 국군 제8사단은 854고지의 확보를 계획하였고, 제16연대가 목표고지 전방의 고지들을 점령하자 9월 10일을 기해 3개 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을 동해안의 미 해군으로부터 함포지원으로 극복하면서 9월 18일 854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제3차전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73]

한편 작전기간 중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은 다음의 <표 5-24>와 같다.[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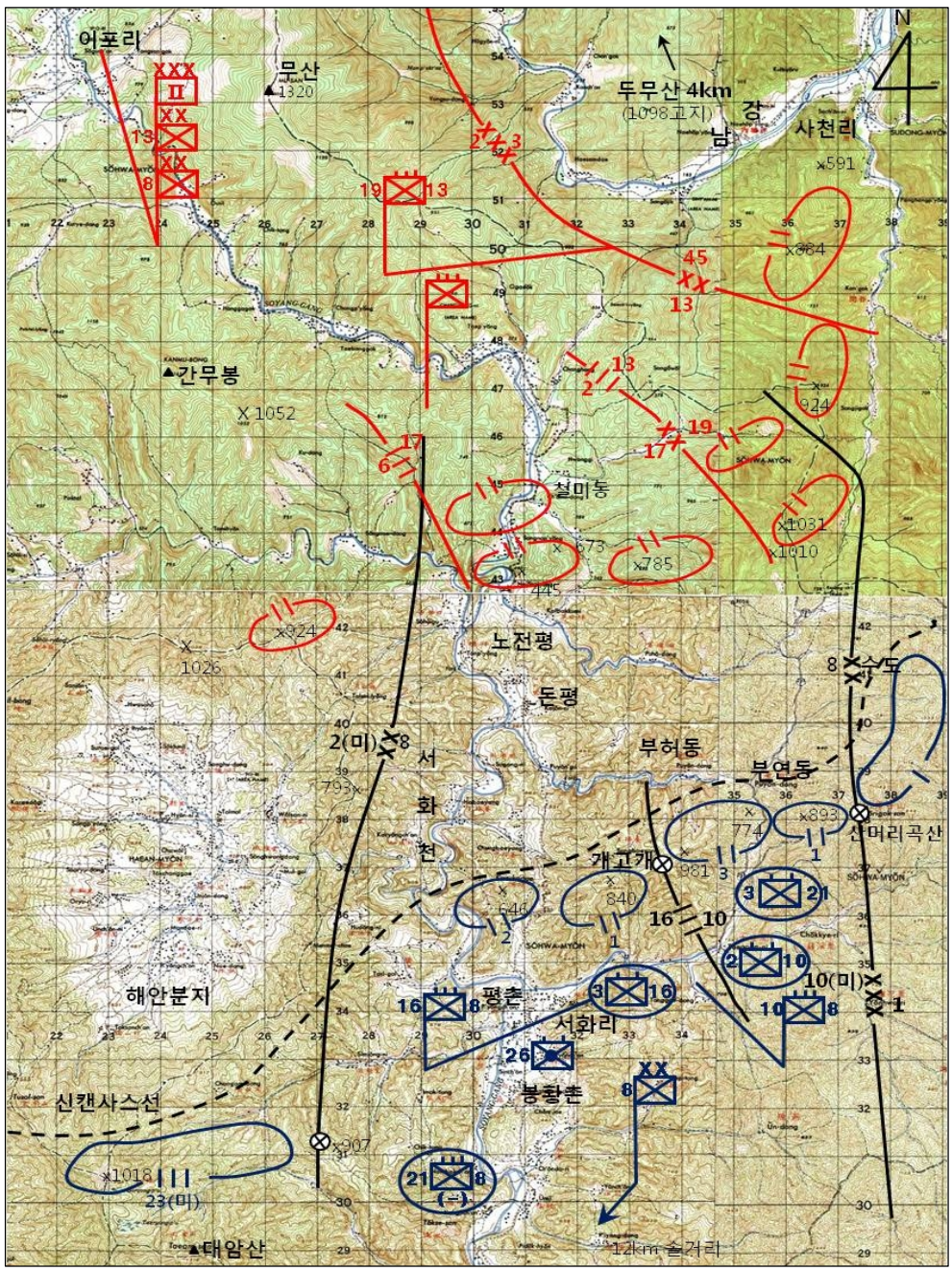
<표 5-24>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8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참모장	대령	이세호(李世鎬)	
	제10연대장	대령	이춘경(李春景)	
	제1대대장	중령	박치옥(朴致玉)	
	제2대대장	소령	김 광(金 光)	
	제3대대장	소령	최명도(崔明道)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1대대장	소령	박해식(朴海軾)	
	제2대대장	소령	한병갑(韓炳甲)	
	제3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全富一)	
	제1대대장	소령	임창모(林昌模)	
	제2대대장	소령	김 철(金 徹)	
	제3대대장	소령	맹보영(孟寶永)	
	대전차공격대대장	중령	박서권(朴瑞權)	1951.9.1부 진급
	제26야전포병단장	중령	홍창표(洪昌杓)	

북한군	제2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2사단장	소장	이철용(李喆用)	제1차전
	제4연대장	중좌	최수현(崔守顯)	
	제6연대장	중좌	김익현(金益鉉)	
	제17연대장	중좌	김관대(金寬大)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제2차전
	제19연대장	중좌	김병철(金炳喆)	
	제21연대장	중좌	이승준(李承俊)	
	제27연대장	중좌	태병렬(太炳烈)	
	제3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3차전
	제1사단장	소장	정 범(鄭 範)	
	제15사단장	소장	주 연(朱 燕)	
	제1연대장	중좌	조창호(趙昌浩)	
	제2연대장	중좌	홍일남(洪一男)	
	제3연대장	중좌	안창극(安昌極)	

태백산맥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의 기후는 일기변화가 심한 산악기후의 특성을 지녀 연교차 및 일교차가 극심하다.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으며 연평균 1,057㎜를 보이며, 겨울철엔 강설량이 많고 적설기간도 길다. 기온은 연평균 9.7℃이고 최저와 최고 기온은 39℃와 -30℃이다. 또한 저지대는 소하천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는 물론 여름철 강우시에는 운해가 형성된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적 정파악과 표적관측, 항공지원 등에 많은 지장을 주어 방어에 유리한 반면 공격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75]

<상황도 5-5> 피아의 대치상황(1951.8.1)



태백산맥 이서의 서화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전평 일대는 대체로 500~1,100m의 높은 고지들과 협소한 계곡으로 이루어져 지형의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하다. 지역을 관통하는 서화계곡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2개의 능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 능선의 좌측에는 해안분지(펀치볼)가 자리하고, 동쪽에는 향로봉산맥이 남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지역 내의 도로망은 서화계곡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가 서화를 거쳐 원통으로 이어지고, 동서로 연결된 도로는 종격실 능선의 발달로 인해 2~3개의 소로만이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76]

⑵ 전투 경과

(가) 제1차 전투 (1951. 8. 9 ~ 8. 14)

서화 부근의 사지목이로부터 산두곡산(△1090)까지의 신캔자스선을 방어하고 있던 제8사단은 노전평 부근의 445고지-1031고지에 방어선을 형성한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2사단 제17연대 및 제13사단 제19연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군단 작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단의 임무가 965고지-1031고지 점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고지의 공격에 용이한 지형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사단 자체의 작전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하달하였다.[77]

① 사단은 A, B, C 목표지점 일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 확보하고 차기작전을 용이하게 하며 MY선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1개 대대병력으로 8월 9일 15시까지 A목표를 공격 점령하고 인접부대 공격을 지원하여 적의 우측방 기능을 제압하라.
③ 제16연대는 1개 대대병력을 8월 8일 20시까지 가전리 북쪽 1㎞에 추진시켜, 8월 9일 15시까지 목표 C를 약취하라. 2개 대대는 C목표 공격부대에 대한 엄호사격을 실시하라.
④ 제21연대는 사단 예비로써 주저항선을 계속 방어하라. 그리고 8월 8일 12시까지 81㎜ 박격포 1개 소대를 대전차공격대대에 배속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8월 8일 20시까지 "개고개"를 경유 부허동에 집결하고 8월 9일 15시까지 B목표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 확보하라.
⑥ 제26포병단은 공격부대를 직접 지원하라. 81㎜ 및 60㎜박격포 각 1문에 500발 이상의 포탄을 확보하고 결과를 사단에 보고하라.
⑦ 통신중대는 제16연대 제2대대 제5, 제6중대에 사단 중계대로부터 각각 1회선을 설치하고 제16연대 CP에는 사단 임시 중계대를 설치하라.
⑧ 각 부대는 SOP에 의거한 대공포판 표식 등 통신신호 규정을 엄수하며 진지 점령 후에는 재편 및 사주방어를 조속히 실시하고 가급적 많은 포로를 획득하라.

명령에 따라 1개 대대씩을 차출한 제16연대와 제10연대는 이들을 대전차공격대대와 함께 사단전초선인 가전리(加田里)-부허동(富虛洞)-고성재로 추진한 후 적의 전초진지인 노전평의 445고지-785고지-1010고지 선을 선점하기 위해 8월 9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A목표인 1031고지와 무명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10연대 제3대대는 제26포병단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06시를 기해 작전에 돌입하였다. 대대는 좌일선 부대가 적의 지뢰지대를 뚫고 17시 경 무명고지 1㎞ 전방까지 진출하였으나, 우일선 부대는 15시 30분에 1031고지 4㎞ 전방까지 도달하고도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선에서 사주방어에 들어갔다. C목표인 445고지-무명고지의 공격을 담당한 제16연대 제3대대는 05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를 향해 전진하던 중 적의 치열한 저항에 걸려 20시에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B목표인 562고지-785고지의 공격임무를 맡은 대전차공격대대는 785고지를 우회하여 고지 뒤편의 중턱까지 진출한 후 방어로 전환하였다.[78]

다음날인 8월 10일 각 연대는 공격을 재개하여 부여된 목표를 향해 전진하였다. 제10연대 제3대대는 목표 고지 중턱까지 진출하여 대대규모의 적을 수십 차례의 육박전으로 격퇴하고 15시에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6연대 제3대대는 445고지를 점령하고 계속하여 목표 중의 하나인 만두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저지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진출선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785고지의 확보에 나선 대전차공격대대는 제6중대장이 진두지휘한 돌격대의 활동

에 힘입어 18시 40분에 적을 몰아내고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79] 이후 제10연대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는 2차에 걸친 적의 역습을 격퇴하고 무명고지와 785고지를 고수하면서 다음 공격을 위한 탄약보충과 부대 재정비를 실시하였다.

송곳고지와 만두고지를 공격한 제16연대 제3대대는 8월 13일 08시 30분에 강력한 포병지원을 받으며 총공세를 단행하여 돌격전 끝에 송곳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 만두고지마저 확보함으로써 사단으로부터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다. 또한 대전차공격대대는 전날 적의 반격으로 상실했던 785고지를 재반격을 통해 탈환한 후 제21연대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그러나 제10연대 제3대대의 임무를 인수한 제1대대는 부대 교대간의 취약점을 간파한 적의 주간 역습에 고지를 피탈하였으나, 다음날인 8월 14일 제2중대를 주공으로 여러 차례 돌격을 실시한 끝에 간단없는 포격지원으로 이들을 격퇴하고 고지를 재탈환하였다.[80] 이후 사단은 이들 고지에 전초를 설치하는 한편 제21연대를 캔자스선의 중앙에 투입하여 주저항선의 방어력도 강화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포복작전계획 상의 낚시 바늘 능선 하단 고리부분을 확보하고 줄기에 해당하는 1031고지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사단은 1,229명의 적을 사살하고 36명을 사로잡았으며, 중기 3정과 경기 9정, 그리고 SMG 1정 및 BAR 2정, 다발총 63정과 소총 152정, 수류탄 1,336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5명의 장교와 123명의 사병이 전사하고 485명이 부상하였으며,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81]

(나) 제2차 전투 (1951. 8. 8 ~ 8. 24)

북한군 제2사단과 제7사단이 사단 정면에 경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제1차 전투에서 상실한 445고지-785고지-무명고지 등을 탈환하려는 정황이 파악되자, 미 제10군단장은 8월 6일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하달하였다.[82]

① 제8사단은 1031고지와 965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캔자스선을 더욱 강화 확보하면서 적의 침투에 대비하라.

② 기간 중 캔자스선 방어에 있어서는 D-2일에 사단에 배속 예정된 제5사단의 1개 연대를 종합지휘하라.
③ D일 H시는 1951년 8월 18일 06시이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작전계획을 숙의한 후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공세로 이전하였다.[83]

① 사단은 1031고지 및 965고지를 공격 점령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8월 16일 24시까지 캔자스선 상의 주진지 방어임무를 제5사단 제27연대에 인계하라. 8월 17일 08시까지 연대 주력을 부연동 4㎞ 북쪽에 집결한 다음 8월 18일 06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1031고지를 점령 확보하라. 배속된 제27연대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되 이 연대를 전투에 가입시에는 사전승인을 요한다.
③ 제16연대는 현 전선에서 사단 예비로서 차후 명령을 대기하라.
④ 제21연대는 현 전선에서 1개 대대병력으로 8월 18일 06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를 점령하라.
⑤ 배속부대인 제5사단 제27연대는 2개 대대로써 8월 16일 24시까지 제10연대의 주진지 방어임무를 현지에서 인수하고 1개 대대를 제10연대에 배속하라.
⑥ 대전차공격대대는 8월 20일 08시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동일 16시까지 중배양(中培養) 부근에 이동 집결한 다음 차후명령을 대기하라.
⑦ 공병대대는 목표고지를 점령과 동시에 장애물 설치작업에 임하라.
⑧ 제26포병단은 공격간 각 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⑨ 통신대는 연대 CP에 사단 임시 중계대를 설치하고 사단 중계대간에 일회선을 증설하라.

한편 사단의 공격목표인 1031고지는 북으로 남강에 이르기까지 924고지-884고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격실 능선에서 가장 높아 주변을 감제하는 중요한 지형지물이었다. 또한 965고지는 1031고지에서 서로 뻗은 능선상의 고지로 철미동(撤尾洞) 일대의 소양강 상류계곡을 직접 감제하는 고지였다. 이중 1031고지는 북한군 제13사단 제19연대가, 965고지는 제2사단 제17연대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84]

사단장은 사단의 주 임무인 1031고지 점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제10연대에 부여하기로 하고 배속된 제27연대(-)에 제10연대가 점령한 주저항선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지형을 고려하여 965고지는 중앙의 제21연대가 1개 대대로써 탈취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군 포복작전의 본 작전인 965고지와 1031고지 공격작전이 8월 18일 06시를 기해 포병지원사격 하에 개시되었다.[85]

1031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10연대는 이날 제3대대가 고성재에서 주공, 제2대대가 1056고지에서 조공, 그리고 제1대대를 예비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공격초일 제9중대를 선두로 1031고지를 공격하던 다음날 제9중대와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가 동측방으로 기동하고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정면에서 공격하여 돌격선까지 진출하였다. 조공인 제2대대도 제1차 전투에서 탈취하였다가 작전상 물러났던 1010고지를 재점령하고 1031고지 서측의 950고지를 공격하였다.

지뢰지대와 적의 방어사격을 극복하고 힘들게 돌격선으로 진출한 양 대대는 돌격을 감행하고 육박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적의 진내로 진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공격 3일째인 8월 20일 줄기차게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제3대대는 제10중대가 정면으로, 나머지 중대가 좌우 측방으로 전개한 후 3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여 진내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적을 물리치고 1031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적의 역습로 차단을 위해 1031고지-965고지 능선으로 우회한 제2대대도 1031고지 서측 1㎞ 지점의 950고지를 점령하였다.[86] 양 대대는 이날 밤부터 다음날까지 계속된 적의 역습을 격퇴하였다.

한편 중앙의 제21연대 제3대대는 경계진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785고지에서 8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각각 1개 중대씩을 투입하여 965고지를 공격하였으나 험준한 지형과 적의 집중 화력으로 8부 능선에서 급편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8월 20일 대대는 2개 중대로 병진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돌격과정에서 또다시 실패하였다.[87] 그것은 고지 직후방의 엄폐진지에 대기하고 있던 적의 예비 병력이 아군의 돌격이 시작되자 일제히 뛰어나와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

대대는 다음날에도 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집중 화력에 막혀 많은 손실만

을 입은 채 연대 명령에 따라 785고지로 철수하였다. 사단장은 이 대대를 좌전방 연대인 제16연대에 배속시켜 전초선 방어임무를 제16연대가 맡도록 하고 제21연대 제3대대는 공격작전에만 전념하도록 조치하였다.

제16연대장은 제21연대 제3대대가 목표를 점령하지 못한 채 손실만 늘어나자 8월 21일 공격부대를 제16연대 제2대대로 교체하였다.[88] 이때는 1031고지를 이미 탈취한 후였기 때문에 제16연대도 다음날 공격에선 사단의 화력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제10연대의 1개 대대가 1031고지로부터 965고지로 측방공격을 하도록 협조하였다.

적이 설치한 무수한 지뢰를 제거하고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의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던 제16연대 제2대대는 다음날인 8월 23일 아침 제10연대 제1대대의 측방지원 공격을 받으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대대는 비가 내려 항공지원도 받지 못한 가운데 정면과 좌우로 전개한 3개 중대가 좁은 기동공간과 기암절벽 사이를 포복으로 기어올라 적진에 돌입하여 치열한 백병전을 펼친 끝에 14시 40분에 마침내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적의 역습에 고지는 다시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다음날에 대대는 사단 수색중대를 배속 받고 제10연대 제1대대의 측방지원공격을 받으며 재공격에 나서 적이 '김일성 고지'라 칭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시한 965고지를 점령하였다.[89]

사단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개된 제2차 전투에서 북한군 2개 연대를 격퇴시키고 1031고지와 965고지를 탈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둔 사단의 전과는 적 사살 938명과 포로 57명이고, 노획 장비는 중기 및 경기 각각 11정과 38정, BAR 3정, 다발총과 장총 각각 124정과 302정, 수류탄 10,893발이었다. 그러나 전사 90명과 부상 536명, 실종 17명의 인명손실도 발생하였다.[90]

이번 전투에서 사단이 1031고지를 확보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은 낚시바늘 능선상의 군단목표 점령임무를 완수하였다. 이로써 철미동까지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상 해안분지(펀치볼) 동측 가장자리 능선상의 적은 지탱이 어려워졌다. 이후 사단은 1031고지와 965고지를 '대통령 고지'와 '밴플리트 고지'로 각각 명명하였다.

(다) 제3차 전투(1951. 9. 10 ~ 9. 18)

제2차 전투 후 사단이 965고지-1031고지 선에 전진진지를 구축하며 캔자스선 중심을 확대한 반면 적은 패배한 북한군 제2사단과 제13사단 대신 제15사단을 투입하여 802고지-85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북한군 제15사단의 거점인 854고지 및 무명고지를 점령하여 군단의 우측을 위협하는 적을 제거하는 동시에 차기 공세에 유리한 전진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단에 상신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9월 6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군단 작전지시 제229호를 하달하였다.[91]

① 제8사단은 854고지 및 무명고지 일대를 사단 작전계획대로 9월 10일까지 점령하되 H시를 결정하여 보고하라.
② 작전기간 중에는 미 제1해병사단이 화력을 지원할 것이므로 양 사단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라.

이에 따라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고 공세로 이전하였다.[92]

① 사단은 854고지를 점령하여 차기작전에 대비한 전진진지로 확보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578고지를 경유하여 854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10연대는 2개 대대를 병력으로 현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1개 대대병력으로 제21연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854고지 측방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④ 제16연대는 2개 대대로 제21연대의 진지를 인수 방어하고, 1개 대대를 785고지에 대기시켜 별명에 따라 제21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D-1일 12시부로 제16연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⑥ 공병대대는 D-1 12시까지 각 연대에 1개 소대를 배속하여 주로 전진로 개척에 임하도록 하라.
⑦ 통신중대는 각 연대 CP와 사단 전방CP, 그리고 후방 CP간에 D-1일 09시까지 유선을 가설하고 유선에는 1,000m 간격으로 표식을 부하라.
⑧ D일 H시는 9월 10일 06시이며, 공격간 사단전방 CP는 서화리 북방 1㎞에 위치한다.

사단의 주요 공격목표인 854고지는 소양강과 남강 지류의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 감제지형으로 사단 방어선을 남강 남쪽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지가 해안분지(펀치볼) 북동쪽을 감제하고 있어 그 일대에서 작전중인 우군부대의 동측방을 방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주요 고지였다.[93]

한편 이 전투가 전개되기에 앞서 8월말까지 '낚시바늘 능선'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국군 제1군단이 1031고지 북쪽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924고지와 884고지를 점령함에 따라 사단은 884고지 남쪽지역까지 부대를 추진하여 854고지를 남쪽과 동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작전을 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751고지-924고지-1031고지-965고지-695고지-592고지를 연하는 능선에 제10연대, 제21연대, 제16연대 주력을 배치하고 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

사단은 계획대로 9월 10일 06시를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의 목표는 854고지의 공격거점인 771고지와 그 서쪽의 589고지를 점령 확보한 후 이들 고지를 연하는 능선 일대의 적을 격파하고 578고지까지 진출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 854고지 측후방의 적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94]

주공인 제21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중간목표인 578고지를, 그리고 제2대대가 854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965고지로부터 578고지 좌측으로 진격하였고, 제3대대는 924고지에서 578고지로 연하는 능선을 따라 진격하여 13시에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924고지로부터 854고지를 향해 진격을 개시한 제2대대는 계속하여 적과 교전을 전개하던 중 일몰로 인해 진지를 급편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95]

조공인 제10연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 1개 중대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751고지로부터 무명고지를 향해 진격하여 854고지 북쪽의 무명고지 기슭까지 진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선에서 급편방어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16연대는 제1대대가 771고지를, 제2대대가 589고지에 진출하였다.[96]

전날 진출선에서 급편방어에 들어갔던 제21연대는 다음날인 9월 11일 공격을 재개하여 854고지 중턱까지 접근하였으나, 일몰 무렵 적의 강력한 역습으로 578

고지로 철수하였다. 제10연대는 제2대대가 전날에 이어 공격을 재개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무명고지를 점령하였고, 제16연대도 우회한 병력의 돌진으로 목표인 무명고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1개 연대로는 목표 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3개 연대를 집중하기로 결심하였다. 9월 12일 주공인 제21연대는 항공지원과 동해안의 제77 및 제95기동함대의 함포지원 아래 제1대대와 제2대대의 병진으로 정면공격을 단행하여 고지 중턱까지 진출하였다.[97]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각각 1개 대대를 투입하여 854고지에 대한 측방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이날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나 차후공격을 준비하였다.

9월 13일과 14일의 공격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어 각 연대는 8~9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지만, 적 자동화기의 화망을 뚫지 못해 더 이상은 진출할 수 없었다. 9월 15일 사단은 연일 계속된 공방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제21연대를 대신하여 제16연대를 주공으로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포로진술에 의하면, 북한군도 이 고지 전투에 이른바 '영웅' 칭호를 받은 자들을 많이 투입하며 고수에 사력을 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98]

9월 16일 계속된 공격에서 주공인 제16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악전고투 끝에 854고지의 정상 6개 봉우리 중 동남쪽의 1개를 점령하였으나, 곧 이은 적의 역습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측에서 공격한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854고지의 우측에서 로켓포와 무반동총으로 적의 화력을 제압하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정상의 동측 봉우리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99]

다음날 제16연대는 새로 배속된 대전차공격대대를 공격에 참가시켜 공격을 재개하여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적이 배사면에 구축한 진지에서 수류탄전을 펼치며 전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제10연대는 전날에 확보한 봉우리를 발판으로 무반동총으로 적진을 강타하는 한편 연막차장을 실시하면서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19시에 854고지의 주봉을 점령하였다. 9월 18일 사단은 제21연대가 3개 대대를 모두 투입하여 서남쪽의 3개 봉우리를, 그리고 제10연대가 북쪽 봉우리를 확보함으로써 854고지를 완전 점령하였다.[100]

(3) 전투 결과

사단은 이번 제3차 전투에서 2,157명의 적을 사살하고 163명을 포로로 하는 대전과를 올렸으나, 322명의 전사자와 1,443명의 부상자 그리고 115명이 실종되는 인명손실도 발생하였다.[101]

제8사단은 3차에 걸친 노전평 전투를 통해 군단이 의도한 '낚시 바늘'능선의 줄기와 갈구리에 해당하는 목표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854고지를 확보함으로써 방어선을 남강 남쪽까지 추진함은 물론 이를 통해 해안분지(펀치볼)를 공격하는 군단 주공부대의 작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서화계곡의 도로망 확보라는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였다.

3차에 걸친 전투에서 사단이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5-25>와 같다.

<표 5-25> 전과 및 손실

구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실종
			기관총	BAR	다발총	소총	수류탄			
1차	1,229	36	13	2	63	152	1,336	128	485	2
2차	938	57	49	3	124	302	10,893	90	536	17
3차	2,157	163						322	1,443	115
계	4,324	256	62	5	187	454	12,229	540	2,464	124

2) 피의 능선 전투 (1951년 8월 18일 ~ 9월 7일)

(1) 전투 개요

피의 능선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캔자스-와이오밍 선으로 진출한 후 주저항

선 전방의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양구 북방의 983고지-940고지-773고지를 연하는 능선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12사단 및 제27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1개 연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북한군은 1개 사단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피의 능선(Bloody Ridge)'이라 불려졌다.

캔자스선 진격작전을 완료한 제5사단이 제8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군단예비로 후방경계를 담당하며 재편성과 부대훈련에 착수할 무렵, 휴전회담은 의제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공산군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전선정비와 전력강화에 주력하였으나, 유엔군은 휴전에 대한 기대로 전투를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조속한 회담의 타개를 위해 제한적인 공세작전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951년 7월 하순부터 실시된 이 공격작전은 전방에 수색거점을 확보한 채 장마로 인해 중단되었다. 8월 중순 장마가 그치자, 밴플리트 사령관은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스 소장에게 미루었던 작전을 재개하여 미 제2사단이 점령한 캔자스선 진지를 감제하며 위협을 주는 983고지를 비롯한 940고지-773고지를 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군이 자력으로 전투력을 개발하고 전승의 경험을 통해 필승의 신념을 갖게 하기 위해 한국군에게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102]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은 군단 예비인 국군 제5사단의 1개 연대를 미 제2사단에 배속하고 983고지 일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103] 8월 16일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는 08시 부로 미 제2사단에 배속과 동시에 '피의 능선'으로 불리는 983고지-940고지-773고지 연봉에 대한 공격에 돌입하였다.

한편 이 무렵 공산군은 군단 정면에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2사단과 제27사단, 그리고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과 제32사단을 집결시켜 요충인 해안분지(펀치볼) 일대를 장악하고 기회를 틈타 공세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983고지 일대에는 제12사단 제1연대와 제27사단 제14연대가 배치되었고, 제1연대는 주

거점인 983고지를 그리고 제14연대는 940고지와 773고지를 각각 고수하고 있었다.

이들은 105㎜ 야포 25문의 직접 지원을 받으며, 각 연대는 6문의 82㎜ 박격포와 24정의 각종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진전에 4,000~5,000개로 추정되는 상자형 지뢰를 매설하고 아군의 포격에도 지탱할 수 있는 위장진지를 포함한 수백 개의 엄체호를 구축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27사단은 제2군단의 예비로서 아군의 반격에 의한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아 비교적 좋은 전투력을 보유하였고, 또한 북한군 제12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재편성 후 새로이 투입됨으로써 사기와 전투력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는 현리 부근에서 재편성과 부대교육을 실시하던 중 사단의 명령에 따라 8월 16일 정오 무렵 덕곡리(德谷里)에 집결을 완료하였다.[104] 이어 연대 CP를 아래덕골에 개설하고 제2대대를 임당리(林塘里)에, 제3대대를 학력골에, 그리고 제1대대를 지석리(支石里)에 각각 전개하였다.

연대가 담당한 전투지역은 우로는 양구-월운리(月雲里)-비아리(比雅里)를 연하는 도로와 좌로는 양구-장평리(長坪里)-살애비-이목정(梨木亭)에 이르는 제31번 도로를 아우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측에는 미 제38연대, 좌측에는 제7사단 제3연대가, 후방에는 미 제9연대가 임당리-덕곡리 일대에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군단 포병 2개 대대를 비롯한 총 7개의 포병대대와 미 제72전차대대 B중대가 연대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작전기간 중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은 다음의 <표 5-26>과 같다.[105]

<표 5-26>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5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제1대대장	소령	손개동(孫介同)	
	제2대대장	중령	조시형(趙始衡)	
	제3대대장	소령	이규승(李圭昇)	
	제7사단장	준장	김형일(金炯一)	인접부대
	제3연대장	대령	정 진(鄭 震)	
미 군	제2사단장	소장	Clark L. Ruffner	
		준장	Thomas E. Deshazo	1951.9.1부(대리)
	제9연대장	대령	John M. Lynch	
	제1대대장	-	-	
	제2대대장	-	-	
	제3대대장	소령	John I. Griswald	
	제38연대장	대령	John C. Coughlin	인접부대
북한군	제2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27사단장	소장	조 관(趙 寬)	
	제7연대장	중좌	이필칠(李必喆)	
	제14연대장	중좌	최기석(崔基錫)	
	제32연대장	중좌	이원선(李元善)	
	제5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1연대장	-	-	

작전지역 내 983고지-940고지-773고지는 동서로 연한 연봉으로 일대가 횡격실을 이루어 적에게는 천연적인 요충이었고, 특히 주봉인 983고지는 일대를 감제하

여 양쪽의 도로를 제압하는 중요 지형이었다. 940고지-773고지 남쪽 능선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였으나, 983고지 정면은 급경사의 단애를 이루어 공격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성한 수림과 장마 후의 청명하지 않은 기상조건은 관측과 시계가 불량하여 포병과 항공지원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8월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던 반면 9월과 10월은 비교적 청명한 날씨가 이어졌다. 기온은 남동풍이 다소 불어 8월에는 18~30℃로서 평균 27℃였고, 9~10월은 평균 15~20℃였다.[106]

(2) 전투 경과

(가) 제1차 전투 (1951. 8. 18 ~ 8. 22)

미 제2사단장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은 중요성을 강조한 군단장의 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34호의 하달과 함께 새로 배속된 제5사단 제36연대에 983고지-940고지-770고지에 대한 공격의 중책을 부여하였다.[107]

① 한국군 제36연대는 D일 H시를 기해 목표 T(△983)-U(△940)-V(△773)를 공격, 이를 탈취한다.
② 공격간 군단포병 및 사단포병은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③ 요청에 따라 미 제72전차대대 B중대는 연대를 지원할 것이다.
④ D일 H시는 8월 18일 06:30이다.

이에 따라 연대장 황엽 대령은 정면에서 적을 급습하여 일거에 목표 T-U-V를 탈취하기로 결심하고 제2대대를 우일선으로 하여 목표 U-V를, 제3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목표 T를 각각 공격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8]

① 연대는 18일 06:30을 기해 목표 T-U-V를 공격, 이를 탈취한 다음 목표 A-B-C를 계속 공격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목표 U-V를 탈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목표 C(비아리 서쪽 무명고지)를 공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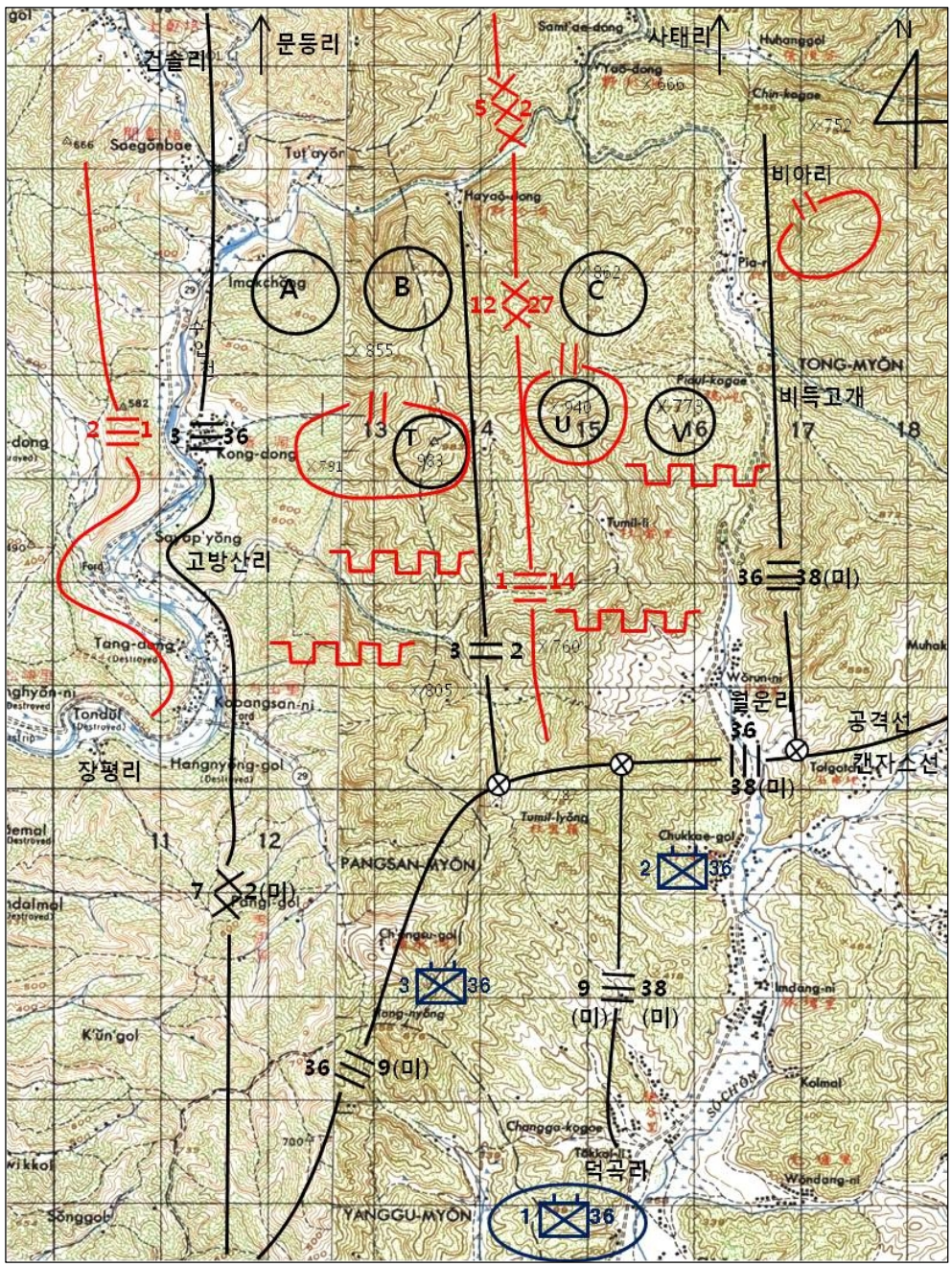
③ 제3대대는 목표 T를 탈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목표 A(이목정 동남쪽 무명고지)와 B(778고지)를 공격하라.
④ 제1대대는 최초 연대예비로서 두밀령(杜密嶺)에 위치하여 차후명령을 대기하라.
⑤ 통신대는 사단 및 제2사단과의 무선을 유지하고 연대 CP와 각 대대CP간에 2개선의 유선을 가설하라.
⑥ 공격간 각 대대는 요청에 의하여 포병, 항공 및 기갑부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연대CP는 속칭 아래덕골에, OP는 두밀령에 위치한다.

산발적인 교란사격만을 거듭하던 7개 포병대대가 8월 18일 126문의 야포를 집중하여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자, 06시 30분에 제36연대는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적진으로 향하였다. 이때 우전방의 제2대대는 940고지와 773고지가, 좌전방의 제3대대는 983고지가 목표였다.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부여된 목표를 향해 기동을 시작하여 적의 전진거점을 격파하고 고지 5~7부 능선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적의 치열한 포격에 노출되었고, 적진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지뢰지대에 들어서 연이어 지뢰가 폭발하였다. 더욱이 적이 엄체호에서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공격제대는 진출선에 급편진지를 점령한 후 지원화력을 요청하며 적의 지원사격을 차단하고 적진을 강타하는 한편 접근로 상의 지뢰지대 통로개척작업을 계속하였다.[109] 이날 야간에 실시된 지원포격에는 공격정면 4㎞에 200문의 포가 동원됨으로써 ㎞당 50문의 밀집지원 양상을 보여주었다. 철야로 계속된 포병의 파괴사격으로 고지의 지형은 많이 변모하였다.

다음날 공격제대는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여명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는 포격으로 노출된 적의 경계진지를 제압하며 파괴된 지뢰지대를 통과하여 적진에 접근하였으나, 적은 수류탄을 투척하고 화력을 집중하며 저항하였다. 이처럼 대대는 유리한 지형에서 우세한 병력으로 저항하는 적을 격파하지 못하고 차폐점에 급편진지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 또한 미 전차소대의 측방 엄호를 받으며 983고지의 8부 능선까지 돌진하였으나, 적의 진지로부터 집중된 치열한 사격으로 세 차례에 걸친 돌격에도 불구하고 진출선에서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110]

<상황도 5-6> 피의 능선 공격계획



이틀에 걸친 공격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연대장은 일거에 목표를 탈취하기가 어렵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측의 940고지와 773고지를 집중 공격하여 먼저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연대예비인 제1대대는 제2대대장의 지휘하에 제2대대를 증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양 대대장의 협의하에 이들은 2개 중대씩 조를 편성하여 중앙의 제5중대와 제7중대는 940고지를, 좌측의 제1중대와 제3중대는 747고지를, 그리고 우측의 제2중대와 제5중대는 773고지를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중대는 미 제72전차대대 B중대 1개 소대와 보전조를 편성한 후 비아리 계곡으로 진출하여 비득고개 일대에 773고지를 공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제5중대 특공대는 제2중대가 확보한 비득고개 방면으로 우회한 후 773고지 뒤쪽으로 접근하여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하며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5중대 주력과 제2중대가 동쪽과 정면에서 돌격에 가담하자 의표를 질린 적은 산발적으로 저항하며 도주함으로써 8월 20일 02시에 마침내 773고지를 점령하였다.[111]

대대장은 여세를 몰아 940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제6중대에 목표고지 동남쪽을, 그리고 제1중대에 서남쪽 능선으로 협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6중대는 후속하는 제7중대와 측방에서 지원하는 제2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773고지를 우회하여 적의 측방을 공격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9부 능선까지 진출한 중대는 적의 집중사격으로 격전을 거듭하던 중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차폐점에 급편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서남쪽 능선으로 공격을 개시한 제1중대도 제3중대의 지원 아래 940고지-983고지의 연봉인 무명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적의 반격으로 물러나고 말았다.[112]

전날의 공격에서 중간목표인 731고지를 점령한 제3대대는 이날 예비인 제11중대를 우측방으로 투입하여 6부 능선의 무명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적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았다.

8월 21일 저녁 제2대대장은 773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제5중대를 제외한 5개 중대로 남쪽과 남서쪽 그리고 남동쪽 능선의 세 방향에서 940고지를 동시에 공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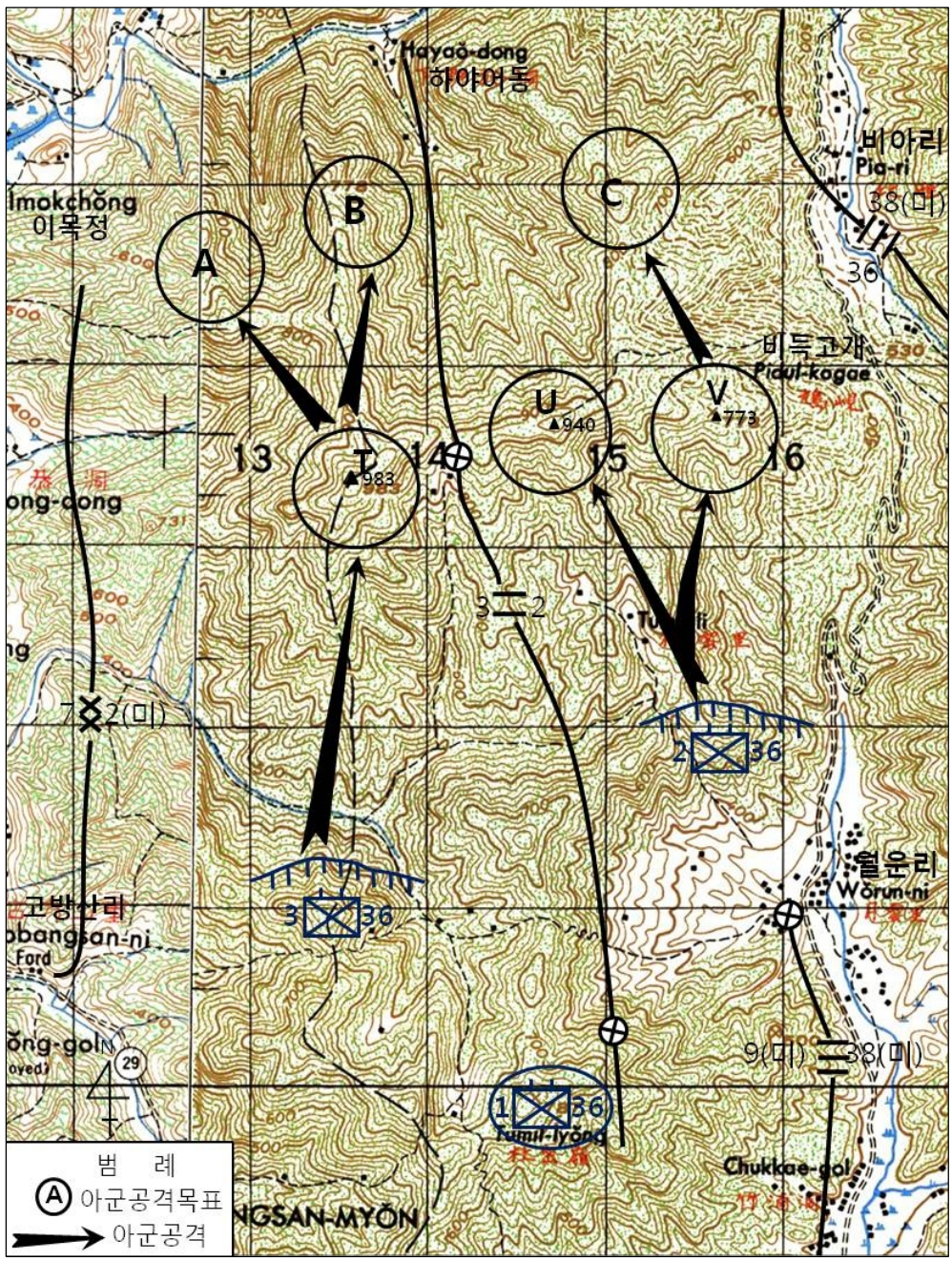
였다. 주공인 제6중대는 제7중대의 지원 아래 남쪽 능선을 통해 적진으로 돌진하였으나, 병력이 우세한 적이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피아간에 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조공부대들이 일시에 쇄도하면서 적은 동요하였고, 돌진을 계속한 제6중대는 20시에 940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113]



피아의 포격으로 초토화된 피의 능선 상의 983고지

한편 제3대대는 이날도 대대예비까지 투입하여 3개 중대 병진으로 주봉인 983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에 걸려 돌격선까지 진출도 하지 못한 채 진출선에서 급편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11중대는 제2대대가 이미 점령한 940고지 쪽으로 우회하여 날이 밝을 무렵 940고지와 983고지 사이의 무명고지를 점령한 후 은밀하게 983고지 뒤쪽으로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상황도 5-7> 피의 능선 전투



포병 지원사격과 사격 연신이 반복되자, 적은 전방에 대한 방어사격을 가할 뿐 급경사이고 사각지대인 고지 뒤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사이 중대는 2개 분대를 투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중대장은 이들에게 돌격을 지시하면서 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 총을 쏘지 말고 기도비닉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이 전면에서 공격하는 중대 주력에 집중하는 사이 고지 뒤편의 병력이 선봉으로 고지 정상에 올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자, 이 소리에 놀란 적은 측방으로 도주하기 바빴다.

이와 같이 제11중대는 별다른 피해 없이 제3대대가 공격을 개시한지 5일 만인 8월 22일 11시30분에 목표 T인 983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하였다. 이어 제11중대도 합세하여 전과를 확대하며 목표고지 1㎞ 북쪽의 855고지마저 확보하였다.[114] 제3대대는 고지 정상에서 재편성을 실시하였고, 이로서 제36연대는 피의 능선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연대는 제3대대를 983고지, 제2대대를 940고지, 제1대대를 773고지에 재배치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여 진지를 강화하였다.

자정 무렵 적은 고지를 3면으로 포위하고 역습을 개시하였으나,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지원을 받아 이를 격퇴하였다. 연대는 8월 24일과 25일 확보한 진지를 강화하고 적의 역습발판을 제거하기 위해 피의 능선 북단에 있는 3개의 고지를 점령하려 계획하였으나, 이미 많은 병력손실로 인해 불가능하였다.

한편 군단예비인 제6사단 제13연대의 증원을 받은 적은 8월 26일 02시를 기해 983고지를 3면에서 포위하고 공격을 가해왔다.[115] 제3대대는 사주방어로 전환하여 정상으로 물러서며 육박전으로 저항하였으나, 계속된 적의 파상공세를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983고지에서 물러난 제3대대는 월운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고지를 탈환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983고지 좌측으로 미군이 투입되었으므로 제3대대는 제2대대를 증원하여 940고지를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983고지는 8월 26일 오후에 적의 수중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고, 제36연대는 940고지와 773고지만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이 악화되자, 미 제2사단장은 11시에 피의 능선 남쪽에서 캔자스선을 방어하고 있던 예하의 제9연대장에게 제36연대를 지원하고, 제36연대장과 협조하여 983고지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116] 이에 따라 미 제9연대장은 이날

밤 예하의 제2대대를 940고지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습을 준비하고 있던 미 제2대대(-1)는 8월 27일 아침에 적의 역습을 받았다. 적은 773고지의 제1대대를 공격하면서 983고지와 전방의 양 방향에서 940고지를 향해 공격을 가하였다.[117]

미 제9연대 제2대대(-)는 제36연대가 적의 역습을 격퇴한 후 오후에 983고지의 탈환작전에 돌입하였다.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983고지 공격에 나선 미 제9연대 제2대대(-)는 몇 차례의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피해자 속출하자 다시 940고지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군은 이날 밤 계속된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해 940고지와 773고지까지 빼앗김으로써 피의 능선을 점령한지 5일 만에 모두를 상실하였다.

(나) 제2차 전투(1951. 8. 28 ~ 9. 5)

미 제2사단장은 피탈당한 피의 능선을 되찾기 위해 8월 27일 국군 제5사단장에게 전력이 약화된 제36연대를 대신하여 제35연대와 임무를 교대할 것을 요청하였다.[118] 그리고 미 제9연대와 제35연대는 8월 28일 09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여 940고지와 773고지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에 나선 제35연대는 역습을 통해 773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야간에 감행된 적의 역습으로 고지를 피탈하였다. 연대는 다음날 낮에 재공격을 실시하여 고지탈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날 먼저 940고지를 공격한 미 제9연대는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119]

이에 군단장은 8월 28일 작전확대방침에 따라 군단 예비인 국군 제5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120] 이를 계기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의 작전상황은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이것은 피의 능선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피의 능선 서측에서는 국군 제7사단이 9월 2일에 901고지와 554고지를 탈취하였으며, 동측에서는 해안분지(펀치볼) 남쪽에 투입된 국군 제5사단이 9월 3일 가칠봉 동북쪽 서희령을 점령하고 미 제38연대로부터 가칠봉을 인수한 후 그 서북쪽 1211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무렵 미 제2사단은 제9연대 동측에서 대우산을 확보하고 있던 제38연대가 가칠봉을 점령하고 국군 제5사단에 인계한 후 피의 능선 후방, 진고개의 666고지와 752고지를 장악함으로써 비아리-사태리 계곡으로부터 적의 증원을 차단하였

다. 또한 제9연대 서측에는 제23연대가 투입되어 9월 5일 983고지 북쪽이며 두타연 남쪽의 855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문등리 방면에서 피의 능선 방향으로의 증원로를 완전 차단하였다.

좌우측에서 우군이 전선을 피의 능선 후방까지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미 제9연대의 공격도 계속되어 9월 3일 빼앗긴 773고지를 먼저 탈환한 후 다음날에는 940고지를, 그리고 9월 5일에는 983고지마저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121] 940고지와 983고지의 탈환은 아군이 고지에 올라섰을 때, 적은 이미 철수하고 없어 무혈점령이 가능하였다. 이는 적이 그간의 전투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전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의 고지 좌우측 요지인 두타연과 진고개 일대가 피탈됨으로써 병력의 증원은 고사하고 포위의 위험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9월 3~5일 밤 사이에 적이 철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22]



피의 능선 전투 전적비

이와 같이 1951년 8월 18일부터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와 미 제2사단 제9연대가 연이어 투입되어 전개한 피의 능선(△983-△940-△773) 전투는 인접부대가 적에게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속개되어 9월 5일 제9연대가 983고지를 재점령함으로써 18일 간의 혈전 끝에 종료되었다.

⑶ 전투 결과

이 전투는 이미 전선이 교착된 후 3개월 동안에 강력하게 편성된 진지에 대한 공격이었고, 적도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로 인명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항함으로써 피아간 전의의 대결장이 되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고지전투에서 아군의 손실은 전사 326명, 전상 2,032명, 실종 414명 등 총 2,722명으로 1개 연대에 상당하는 규모였다. 이중 국군 제36연대의 피해는 전사 132명, 전상 916명, 실종 122명으로 총 1,070명이었다.[123] 따라서 이 전투에서 미군의 손실이 국군의 손실보다 더 컸다. 적의 손실은 15,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124]

<표 5-27> 전과 및 손실

전 과	손 실		
살 상	전 사	전 상	실 종
15,000(추정)	326	2,032	414

3) 924고지 및 1026고지 전투(1951년 8월 31일 ∽ 9월 3일)

⑴ 전투 개요

924고지 및 1026고지 전투는 6·25전쟁이 교착전 단계로 접어든 직후에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1해병연대가 양구 북방의 해안분지(펀치볼)를 확보하기 위해 가전리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제1사단을 격퇴하고 헤이스선(Hays Line)으로 진출한 공격전투의 일부로써, 국군 제1해병연대는 1951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해안분지(펀치볼) 북쪽의 일명 '김일성고지'와 '모택동고지'인 924고지와 1026고지

를 성공적으로 점령하였다.

1951년 8월 말 미 제2사단이 피의 능선 전투에서 목표 점령에 실패하고 고전을 계속하자 군단장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분석 결과, 적의 전력을 이곳에 집중하도록 허용한 것이 그 원인이라 평가한 군단장은 병력 증원을 차단함과 아울러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군단 전역으로 작전을 확대하여 적을 압박하기로 결정하였다.[125]

군단은 정면 약 10㎞ 북쪽의 박달고개-가칠봉(加七峰)-서희동-성내동에 이르는 해안분지(펀치볼) 북측 고지군에 연하여 작전통제선(Hays Line)을 설정한 후 예비인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5사단을 전방으로 투입하고 사단별 공격목표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은 해안분지(펀치볼)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였고,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이 각각 좌우에서 병행 공격을 맡았다.

미 제1해병사단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명령을 받고 홍천에서 평촌(坪村)으로 이동하여 미 제2사단과 국군 제8사단의 방어지역 일부를 인수, 만대리(萬垈里)로부터 평촌까지 해안분지(펀치볼) 남쪽의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였다. 사단은 8월 30일까지 국군 제1해병연대와 미 제7해병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 연대를 예비로 확보한 채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국군 제1해병연대는 해안분지(펀치볼) 남쪽 능선에 제1대대와 제2대대를 배치하고 제3대대를 예비로 하였는데, 이때 연대에 부여된 임무는 월산령(月山嶺) 서북방의 924고지-1016고지-1065고지 일대의 점령이었다. 이 지역은 해안분지(펀치볼) 확보를 위한 전술적 요지로써 이를 점령할 경우 해안분지(펀치볼)를 완전 장악하여 적의 본거지인 내금강까지 제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중동부전선을 북방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126]

한편 연대와 마주하고 있는 적은 북한군 제2군단과 교대한 제3군단 예하의 제1사단 제3연대로서, 1,600여 명의 병력을 924고지와 1026고지 및 그 후방지역에 1개 대대씩을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82㎜ 박격포 8문과 중기 및 경기 각 6정 및 20정, 대전차총 6정 등을 보유하였고, 그리고 휴전회담기간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화기진지를 종심 깊게 배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127]

<표 5-28>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해병 제1연대장	대령	김대식(金大植)	
		중령	김동하(金東河)	1951.9.1.부 대리
	제1대대장	소령	김종식(金鍾植)	
	제1중대장	중위	한정룡(韓禎龍)	
	제2중대장	중위	이응덕(李應德)	
	제3중대장	중위	이영호(李永虎)	
	화기중대장	중위	이기덕(李基德)	
	제2대대장	소령	김병호(金秉鎬)	
	제5중대장	중위	이동용(李東用)	
	제6중대장	중위	박종무(朴鍾武)	
	제7중대장	중위	신현옥(申鉉玉)	
	화기중대장	중위	박정모(朴正模)	
	제3대대장	소령	김윤근(金潤根)	
	제9중대장	중위	강복구(姜福求)	
	제10중대장	중위	허 홍(許 泓)	
	제11중대장	중위	육동욱(陸東旭)	
	화기중대장	중위	박이직(朴利稷)	
북한군	제3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1사단장	소장	정 범(鄭 範)	
	제3연대장	대좌	이희제(이희제)	
	제14연대장	대좌	고기한(고기한)	

⑵ 전투 경과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스 소장은 해안분지(펀치볼) 북쪽 횡격실 능선상의 1026고지 및 924고지와 해안분지(펀치볼) 북동쪽의 702고지 및 660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미 제1해병사단에 부여하였다.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은 국군 제1해병연대와 미 제7해병연대에 이들 고지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다. 사단으로부터 목표 3인 1026고지와 924고지의 점령임무를 부여받은 국군 제1해병연대장 김대식 대령은 8월 30일 해안분지(펀치볼) 남단의 방어진지 인수를 완료한 직후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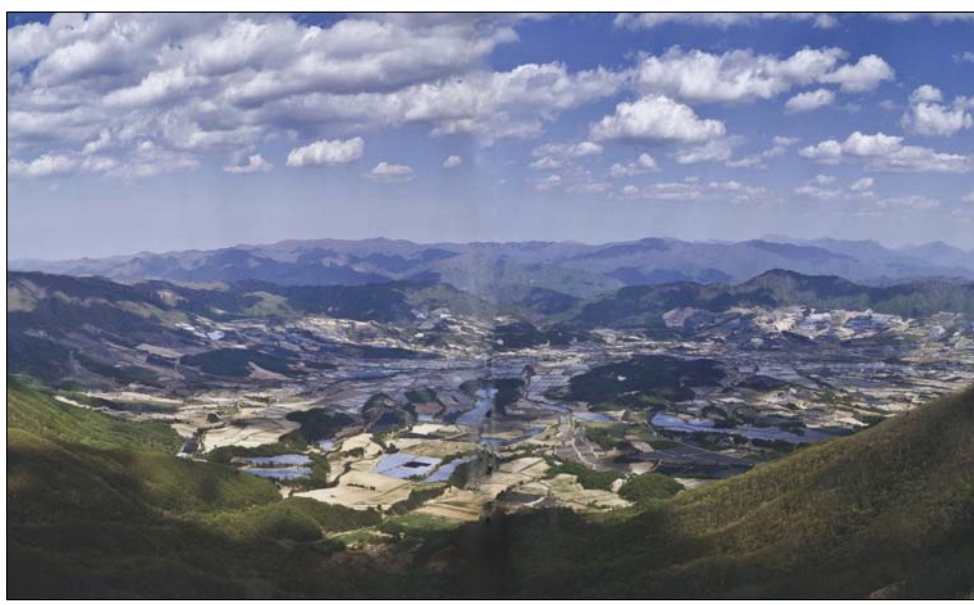
① 연대는 8월 31일 06시를 기해 목표 3을 공격 점령한다.
② 제3대대는 924고지를 공격 점령하고 제1대대의 전진을 지원하라.
③ 제1대대는 1026고지를 공격 점령하라.
④ 75㎜ 대전차포소대는 924고지와 1026고지 공격을 직접 지원하라.
⑤ 공격부대는 8월 30일 19시 20분까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하라.

기동로가 해안분지(펀치볼) 동쪽의 가장자리 능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연대장은 제3대대가 공격을 선도하여 924고지를 점령하고, 후속하는 제1대대가 1026고지를 공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공격개시 전날에 목표고지와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793고지에 진출하여 월산령에 전초중대를 배치하고 다음날에 있을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제1대대도 캔자스선의 방어임무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793고지의 좌측으로 진출하였다.

924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8월 31일 05시에 793고지를 출발한 제3대대는 월산령에서 전초중대와 합세한 후 08시 30분을 기해 주공인 제11중대가 정면을, 조공인 제9중대가 우측으로 우회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129] 공격부대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이루며 924고지 전방 1㎞ 지점의 중간고지를 점령하였으나, 고지 전면에 매설된 지뢰지대와 지형의 불리로 더 이상의 진격이 어렵게 되자, 공격을 중단하고 16시 30분에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793고지의 좌측에서 공격에 나선 제1대대는 09

시 10분에 월산령의 공격개시선에 도착하여 제3대대를 지원하던 중 공격이 교착되자 제3대대와 함께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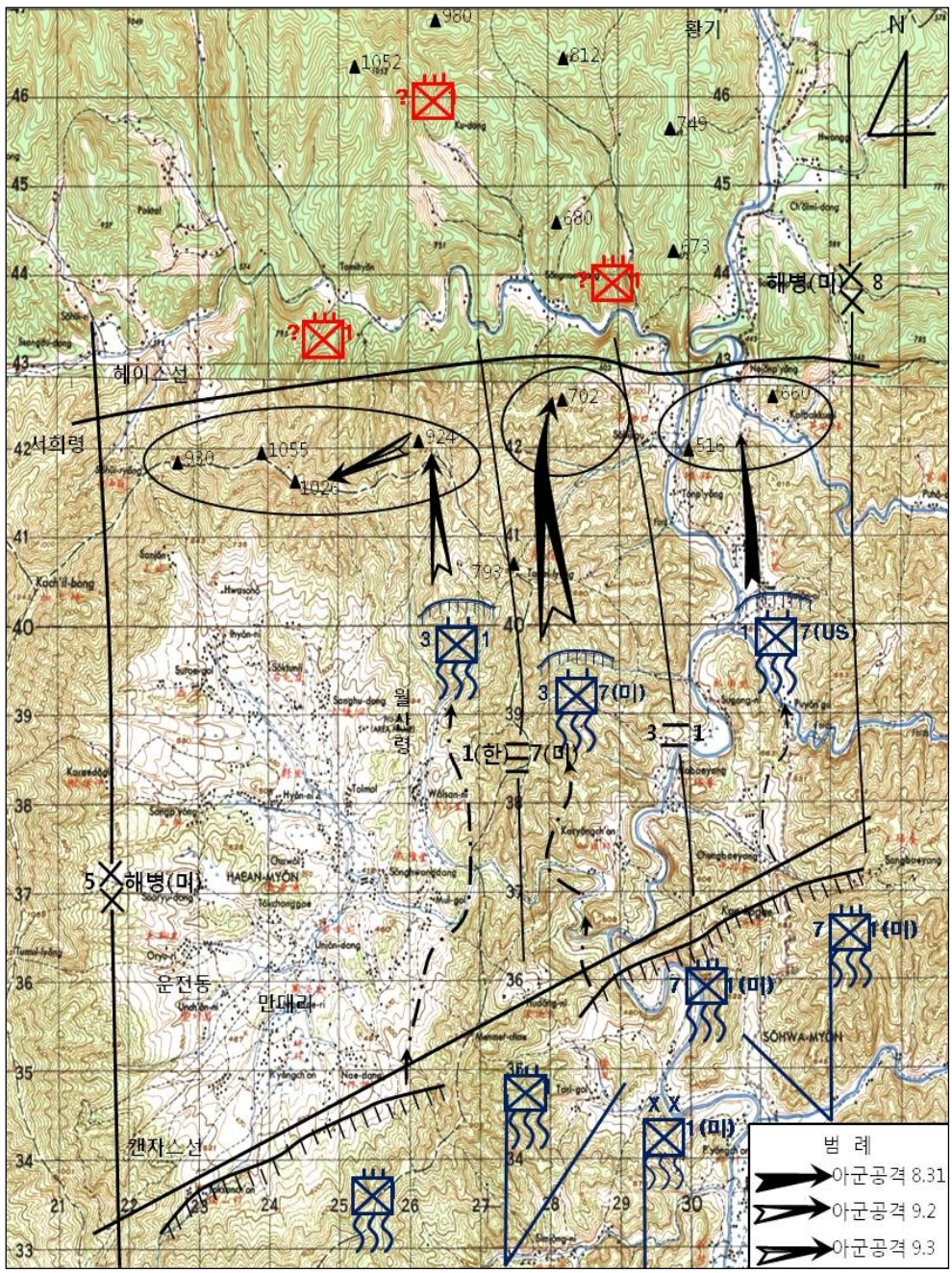
한편 우전방의 미 제7해병연대는 2개 대대 병진으로 공격하되 좌측의 제3대대는 해안분지(펀치볼) 동쪽 가장자리 능선을 따라 702고지를 점령하고, 우측의 제1대대는 소양강 계곡 도로를 따라 516고지와 660고지를 점령하는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8월 31일 공격에 나선 미 제7해병연대는 제3대대가 702고지 공격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과 매설된 많은 지뢰로 인해 공격이 교착되었으나, 제1대대는 목표인 516고지와 660고지를 점령하였다.



해안분지(펀치볼)의 전경

다음날 미 제7해병연대 제3대대는 09시에 702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집요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한 후 진전으로 접근하여 백병전을 펼친 끝에 10시 55분에 702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9월 2일 702고지 전방의 602고지마저 점령함으로써 사단목표를 모두 점령하였다.[130]

<상황도 5-8> 924고지 및 1026고지 전투(1951.8.28)



이와 같이 우측의 미 제7해병연대가 부여된 목표고지를 성공적으로 탈취하자, 국군 제1해병연대는 924고지에 대한 정면공격 대신 우측의 미 제7해병연대 지역으로 우회하여 측후방에서 기습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1일 국군 제3해병대대는 미 해병연대와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924고지 동북방 1㎞ 지점의 능선 일대에 도달하여 10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131] 그러나 예상외로 적의 측방방어와 저항이 완강해 격전을 거듭하였고, 사상자가 속출하여 공격이 일시 교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장은 월산령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1대대 제1중대를 차출하여 정면공격 중인 제10중대를 초월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항공기와 야포의 지원 아래 공격을 개시한 제1중대는 924고지 전방 100m 지점까지 접근하였으나, 적의 집중사격과 매설된 지뢰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때 중대 특공대가 최초로 등장한 화염방사기로 적의 진지를 공격하자, 중대가 일제히 적진으로 돌격하여 20시30분에 924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은 중대는 적의 역습을 저지하지 못하고 후방으로 후퇴하였다.[132]

목표고지에 대한 점령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국군 제1해병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공격을 독려하였다.[133]

① 연대는 재편성하는 즉시 목표 3에 대하여 계속 공격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지정된 전투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되 2개 중대규모로써 924고지를 공격 점령하도록 하라.
③ 제3대대는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1개 중대로 하여 제1대대와 협조하여 924고지를 공격하도록 하라.
④ 제2대대는 캔자스선의 방어임무를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에 인계하고 9월 2일 05시에 출발하여 755고지 부근에 집결하라.

미 제1해병사단장의 조치에 따라 캔자스선의 방어임무를 미 제5해병연대에 인계한 국군 제2해병대대는 목표고지에 대한 공격에 임하였다. 9월 2일 제3대대 제9중대와 제1대대 제3중대는 항공 및 포병사격의 지원을 받으며 지뢰지대를 돌파하고 돌격을 감행하여 12시 30분에 마침내 924고지를 점령하였다. 적은 지원사격에

많은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날 제1중대의 공격에 많은 손실을 입어 전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대대는 새로이 투입된 제2대대에 924고지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예비로 전환하여 월산령에서 재편성에 들어갔다. 924고지에서 1026고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제2대대는 15시에 연대의 명령에 따라 목표고지 전방의 980고지를 야포 및 박격포의 지원 아래 공격하여 18시 30분에 점령하였다. 이날 20시에 연대장은 1026고지를 공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34]

① 제2대대는 9월 3일 04시에 1026고지를 공격 점령후 목표 3의 좌단부를 확보하라.
② 제1대대의 924고지에서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고 연대의 우익을 방호하라.
③ 제3대대는 예비대로서 월산령에 위치하여 연대 측후방을 경계하고 연대 보급로를 확보하라.

그러나 9월 3일 미 제1해병사단장은 한국 해병의 1026고지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924고지를 미 제7해병연대에 포함되도록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1026고지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제2대대는 이날 새벽에 980고지를 상실한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퇴한 다음 08시에 1026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주공인 제7중대를 정면으로 진격시키고, 조공인 제6중대는 우측능선을 따라 우회시켰다.[135]

항공 및 포병의 지원사격 하에 공격을 개시한 대대는 격전 끝에 목표 100m 전방까지 접근하였으나, 여기서부터는 적의 기관총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희생자가 속출할 뿐 더 이상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전방중대를 후속하던 제5중대가 투입되어 제2소대 소총수가 포복으로 접근, 수류탄을 기관총진지에 투척하여 이를 잠재웠다. 그리고 돌격소대를 진두지휘하던 제1소대장 손진천(孫晋天) 소위가 50여 개의 수류탄 파편상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돌격을 지시하자, 이에 자극이 된 소대원이 일제히 돌진하고 중대원이 이에 합세하여 목표인 1026고지를 13시 45분에 점령하였다.[136] 제2대대는 도주하는 적을 근접 추격하여 700m 북쪽의 1055고지까지 탈취함으로써 연대목표 점령을 완료하였다.

⑶ 전투 결과

한국 해병과 미 해병은 이 전투를 통해 해안분지(펀치볼) 북쪽과 동쪽의 고지군을 탈취하고 해안분지(펀치볼)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 후 해안분지(펀치볼) 북쪽에 주진지를 편성했던 북한군 제1사단은 간무봉(看霧峰)으로 후퇴하여 괴멸된 제3연대를 예비로 전환하고 제14연대를 간무봉에서 동측으로 뻗은 1052고지-812고지-749고지에 전개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미 제1해병사단은 9월 8일에 하달된 9월의 제한공격지침에 따라 간무봉에서 사단 정면으로 뻗은 능선상의 749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작전을 재개하였다. 이는 간무봉 일대의 적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해안분지(펀치볼)에 대한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한 후 약 1주일간의 부대정비를 실시한 다음 9월 11일부터 공격작전을 실시하여 9월 20일까지 격전 끝에 749고지를 점령하고 해안분지(펀치볼) 북쪽 5㎞ 지점의 812고지까지 탈취하였다. 사단은 812고지의 점령으로 작전목표를 달성하고 해안분지(펀치볼)를 완전히 확보한 후 해안분지(펀치볼)작전을 종료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한국 제1해병연대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5-29>와 같다.[137]

<표 5-29> 전과 및 손실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중기	경기	BAR	다발총	장총		
382	44	9	17	2	21	96	103	388

4) 가칠봉지구 전투(1951년 9월 4일 ~ 10월 14일)

(1) 전투 개요

가칠봉지구 전투는 휴전회담으로 인해 전선이 교착된 후 국군과 유엔군이 주저항선 전방의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국군 제5사단이 1951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양구 북방의 가칠봉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27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은 제26포병대대의 지원 아래 북한군을 격퇴하고 초전에 목표를 탈취하였으나, 북한군의 역습으로 40여 일 간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5사단은 가칠봉을 확보한 후 군단 통제선인 헤이스 선으로 진출하여 해안분지(펀치볼) 북서쪽의 주요 고지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북한군은 쌍두령 방면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미 제1군단장 바이어스 소장은 1951년 8월 27일 북한군이 국군 제5사단이 점령 중인 피의 능선을 탈취하자, 미 제2사단 제9연대에 즉각적인 반격을 지시하였다. 또한 군단 예비인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5사단을 캔자스선에 배치하여 각 사단의 전투정면을 조정하면서 해안분지(펀치볼)를 석권하여 적을 몰아내고 헤이스선(성남동-서희봉-가칠봉-박달치)을 확보하려는 작전을 감행하였다.[138] 이는 해안분지(펀치볼) 동벽의 1031고지를 확보한 국군 제8사단과 전선을 정제하고 피의 능선을 공격하는 미 제2사단의 동쪽을 엄호하는 한편 나아가 사태리(沙汰里)에 이르는 작전로를 장악하여 피의 능선 북쪽의 고지군에 거점을 둔 적을 압박하려는 포석이었다.

국군 제5사단은 제35연대를 좌일선, 제27연대를 우일선으로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도솔산-만대리 선의 해안분지(펀치볼) 남쪽을 인수하고 피의 능선 전투를 치른 제36연대는 창리에 예비로 두어 재편성을 서둘렀다. 제27연대는 캔자스선의 방어임무를 제35연대에 인계하고 헤이스선 상의 목표(가칠봉 동북쪽 능선-서희령)을 점령하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8월 31일 06시를 기해 기동을 개시하였다.[139]

연대는 좌인접의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의 협조 하에 해안분지(펀치볼) 서단 고지들을 횡단하며 중간목표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9월 3일 사단목표인 가칠봉 동북쪽 능선과 서희령(西希嶺)을 점령하였다. 다음날 사단은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정면이 서측으로 2㎞ 확대되어 미 제38연대로부터 가칠봉(△1243)을 인계받고 아울러 그 서북 1.3㎞ 지점의 1211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해안분지(펀치볼)는 북한군 제2군단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8사단과 국군 제1군단이 '낚시 바늘 능선(J Ridge)'을 공격하며 해안분지(펀치볼) 동벽을 위협하자 이곳을 그들 제3군단에 인계하고 제2군단은 서벽의 방어에 주력하였다. 이 중 국군 제5사단의 전방에는 북한군 제27사단 제32연대가 전개하고 있었으나, 미 제38연대와 국군 제27연대의 진격에 큰 타격을 입고 물러나고 제7연대가 1211고지에 투입되어 새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북한군은 대부분이 강제 징집된 20세 미만의 학생층과 30세 이상의 농민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공격정면의 제7연대는 병력이 750명이고 122㎜ 유탄포 5문과 82㎜ 및 61㎜ 박격포 각 15문과 18문, 75㎜ 직사포 4문, 그리고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 각 18정과 25정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주력인 제14연대와 제32연대의 중화기와 사단 및 군단포 36문이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140] 양측의 전투서열 및 주요 지휘관은 다음의 <표 5-30>과 같다.

<표 5-30>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5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제27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1대대장	소령	이남주(李南周)	
		소령	박상일(朴相一)	1951. 9. 23부
	제2대대장	소령	성영환(成泳煥)	
	제3대대장	소령	김춘집(金椿集)	

	제35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1대대장	소령	최승욱(崔乘旭)	
	제2대대장	소령	정인순(鄭仁淳)	
	제3대대장	소령	이창득(李昌得)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제1대대장	대위	이인덕(李寅德)	
	제2대대장	소령	최동안(崔東安)	
	제3대대장	소령	이규승(李圭昇)	
	대전차공격대대장	소령	손개동(孫介同)	
	사단수색중대장	소령	박달인(朴達仁)	
	제26포병대대장	중령	홍창표(洪昌杓)	배속부대
	제5야전공병대대장	소령	홍석주(洪錫疇)	
북한군	제2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2사단장	소장	이철용(李喆用)	
	제4연대장	중좌	최수현(崔守顯)	
	제6연대장	중좌	김익현(金益鉉)	
	제17연대장	중좌	김관대(金寬大)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제19연대장	대좌	김병철(金炳喆)	
	제27사단장	소장	조 관(趙 寬)	
	제7연대장	중좌	이필철(李必喆)	
	제14연대장	중좌	최기석(崔基錫)	
	제32연대장	중좌	이원선(李元善)	

사단의 공격목표 1211고지는 대우산-가칠봉-매봉(△1290)을 잇는 능선 상의 한 봉우리로서 가칠봉에서 큰 계곡 건너 서북방에 우뚝 솟은 감제고지이다. 이 고지는 사단방어선을 완전히 감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의 능선과 그 북방 931고지 동측방에 위협이 되는 고지였다.

⑵ 전투 경과

(가) 제1차전(1951. 9. 5 ~ 9. 16)

사단장으로부터 1211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27연대장 유의준 대령은 다음과 같은 연대 작전지시 제8호를 하달하였다.[141]

① 연대는 Hays선을 확보하면서 1211고지를 공격 탈취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우일선으로 서희령-가칠봉 동쪽 능선에 이르는 Hays선을 방어하라.
③ 제3대대는 9월 5일 08시를 기해 1211고지를 공격 탈취하라.
④ 제1대대는 9월 4일 12시까지 가칠봉의 미 제38연대 진지를 인수하고 좌일선으로 Hays선 진지를 확보하라.
⑤ 연대 CP는 지석리(支石里)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27연대는 가칠봉-서희령에 배치된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지원하에 예비인 제3대대가 9월 5일 08시에 1211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제35연대가 캔자스선 진지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예비인 제36연대는 골말까지 진출하여 전방연대를 지원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제27연대의 공격이 견고한 거점을 형성한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전이 없자, 다음날 사단장은 캔자스선의 제35연대 제2대대로 제27연대의 후방을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142]

사단은 이날 군단지시에 의해 전투지경선이 확대되자, 제35연대(-1)를 헤이스선으로 진출시켜 제27연대를 증원 공격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43]

① 사단은 전투지경선의 변경에 따라 일부 병력을 재전개하고 1211고지를 계속 공격하여 탈취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제3대대의 공격임무를 즉시 해제하고 헤이스선의 진지를 제35연대에 인계한 다음 D일 H시를 기하여 공격을 재개하라.
③ 제35연대는 1개 대대를 캔자스선에 두고 9월 7일 11시까지 가칠봉으로 진출하는 즉시 제27연대의 진지를 인수한 다음 그 이서까지 확장된 전투지경선 내의 헤이스선을 확보하라.1개 대대로 D일 H시를 기해 제27연대 공격에 협조토록 하라.
④ 제36연대는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⑤ D일 H시는 후달한다.
⑥ 전투지경선의 변경은 9월 7일 12시부로 발효한다.
⑦ 사단 CP는 야촌리(野村里)에 위치한다.

명령에 따라 제35연대가 가칠봉으로 진출하자, 제27연대와 제35연대 제2대대는 좌우로 전개하여 헤이스선 진지를 강화하고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9월 8일 15시경 전진진지를 점령한 제35연대 제2대대 정면에 대대규모의 적이 반격을 가해와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격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사단장은 1211고지 일대의 적을 일거에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제27연대 1개 대대로 1211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144]



가칠봉(능선상의 최고봉) 정상의 표지석

9월 9일 05시 부대배치 조정과 공격준비를 완료한 사단은 목표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145] 연대장의 작전명령에 따라 공격 제대로 선정된 제27연대 제2대대는 제5중대와 제6중대를 1211고지 동북쪽 능선으로 우회시켰다. 적의 경계진지를 격파하며 9부 능선까지 진출한 공격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정지되었으나, 제6중대의 지원 아래 돌격을 감행하여 16시 15분에 1211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어 제2대대는 제35연대 제1대대의 지원 아래 1211고지 서북 방면으로 적을 추격하였으나, 오히려 역습부대에 포위되어 파상공세에 처하였다. 양 대대는 이런 전황을 파악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포위망을 돌파하며 철수를 단행하여 1211고지에 급편진지를 편성하려 했으나, 적의 계속된 공세에 밀려 서남쪽 능선과 가칠봉으로 복귀하여 부대를 수습하였다.[146]

이날 북한군은 제27사단 제7연대마저 1211고지에서 패주하자 제13사단 제23연대가 임무교대를 위해 투입되면서 제5사단 공격부대를 밀어붙였다. 제5사단장은 이러한 새로운 적의 출현에 대비해 캔자스선을 방어중인 제35연대 1개 대대도 그 임무를 사단예비인 제36연대 1개 대대에 인계한 후 헤이스선으로 추진하여 이 선의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가칠봉 부근의 제27연대 및 제35연대에 사단공병 1개 중대씩을 배속하여 단시일 내에 방어진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강조하였다.[147]

이와 같이 국군 제5사단이 연대를 재배치하고 가칠봉 부근의 진지를 강화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9월 13일에 북한군 제13사단과 교체해 투입된 제2사단은 제17연대를 1052고지-1211고지에 방어편성하는 한편 제4연대는 매봉에, 제6연대는 서희리에 각각 배치해 종심을 강화하며 1211고지 부근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48]

사단장은 적의 방어진지가 더 굳어지기 전에 이를 점령할 결심을 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하달하였다.[149]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1211고지를 공격하여 탈취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9월 15일 12시까지 현임무를 제35연대에 인계하고, 9월 16일 04시를 기해 1211고지를 공격 탈취하라.
③ 제35연대는 9월 15일 12시까지 제27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사단지경 내의 Hays선 진지전역을 방어하라.
④ 제36연대는 9월 15일 12시까지 1개 대대를 두밀(△1053)로 이동한 다음 대기토록 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9월 16일 03시 이후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사단CP는 야촌리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제27연대는 가칠봉선의 우반부 방어책임을 제35연대에 인계하고 3개 대대로 1211고지를 탈취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제27연대는 제1대대로 1211고지 서북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한 후 대대를 예비로 하는 다음과 같은 기동계획을 세우고 예하에 하달하였다.[150]

① 연대는 9월 16일 04시를 기해 1211고지를 공격하여 탈취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1211고지 북쪽으로 우회하여 무명고지(△1211 서북쪽 0.8㎞)를 탈취한 다음 계속 1211고지를 공격하여 탈취하라.
③ 제2대대는 무명고지(△1211 동쪽 0.7㎞)를 탈취한 다음 동쪽과 남쪽에서 1211고지를 협공하여 탈취하라.
④ 제3대대는 가칠봉에 집결하여 공격대대의 지원태세를 갖추라.

(나) 제2차전(1951. 9. 16 ~ 9. 22)

제27연대는 상기의 명령대로 9월 16일 04시를 기해 공격준비사격의 연신과 동시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1211고지 북쪽 능선을 따라 고지 중턱에 도달할 무렵 적의 치열한 사격으로 전진이 중단되었고, 무명고지 B를 공격한 제2대대도 3차에 걸친 돌격을 실시하였음에도 점령에 실패하고 가칠봉-서희령 선으로 복귀하였다.

이처럼 공격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사단장은 지금까지 공격을 담당한 제27연대를 제36연대 제3대대와 함께 헤이스선을 방어하도록 하고, 제35연대를 새로

운 공격부대로 하여 목표를 탈취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51] 이에 따라 제35연대장은 9월 17일 12시를 기해 제2대대에 공격개시를 명령하였다.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지원을 받은 제2대대는 1개 중대는 무명고지 B를, 대대 주력은 1211고지 주봉을 동시에 공격하였으나, 치열한 적의 기관총 교차사격으로 실패하고 원위치 하였다.

다음날인 9월 18일 제1대대가 무명고지 B로, 제2대대가 1211고지 남쪽에서 제3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몇 차례의 돌격까지 실시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이날 야간에 돌격대로 차출된 제3대대의 1개 중대가 1211고지와 무명고지 B 사이로 진출하여 1211고지 동측방을 기습함과 동시에 양 대대가 1211고지로 세 번째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152]

지금까지 2개 연대가 교대로 공격을 펼쳤으나 돌파구를 열지 못하자 사단장은 사단예비인 제36연대를 공격작전에 투입할 복안하에 부대의 재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제35연대가 계속 1211고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제36연대가 전방으로 추진되어 제27연대로부터 헤이스선 방어임무를 인수하고 제27연대는 캔자스선으로 철수하여 이 선 방어와 더불어 부대 재편성을 실시하였다.[153]

제35연대는 이날도 제1대대와 제2대대가 무명고지 B와 1211고지를 기습했으나, 적의 저항에 막혀 급편진지를 편성하는 등 전날의 양상을 반복하였다. 사단장은 사단이 보유한 105㎜ 야포나 57㎜ 및 75㎜ 무반동총으로도 적의 거점이 파괴되지 않는가 하면 수류탄 투척에 의존하는 공격방식으로도 손실만 속출할 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단장에게 항공폭격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전폭기 3개 편대가 목표상공에 출현하여 화산폭발을 연상시키는 폭격을 가하였다.

이어서 사기충천한 제2대대가 1211고지를 공격하여 적진에 도달,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지형지물을 교묘히 이용한 적의 거점은 항공폭격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일제히 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돌격은 저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명고지 B를 공격한 제1대대도 상황은 제2대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154]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단장은 헤이스선으로 진출한 제36연대 주력을 투입하여

1211고지 일원을 협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동계획을 하달하였다.[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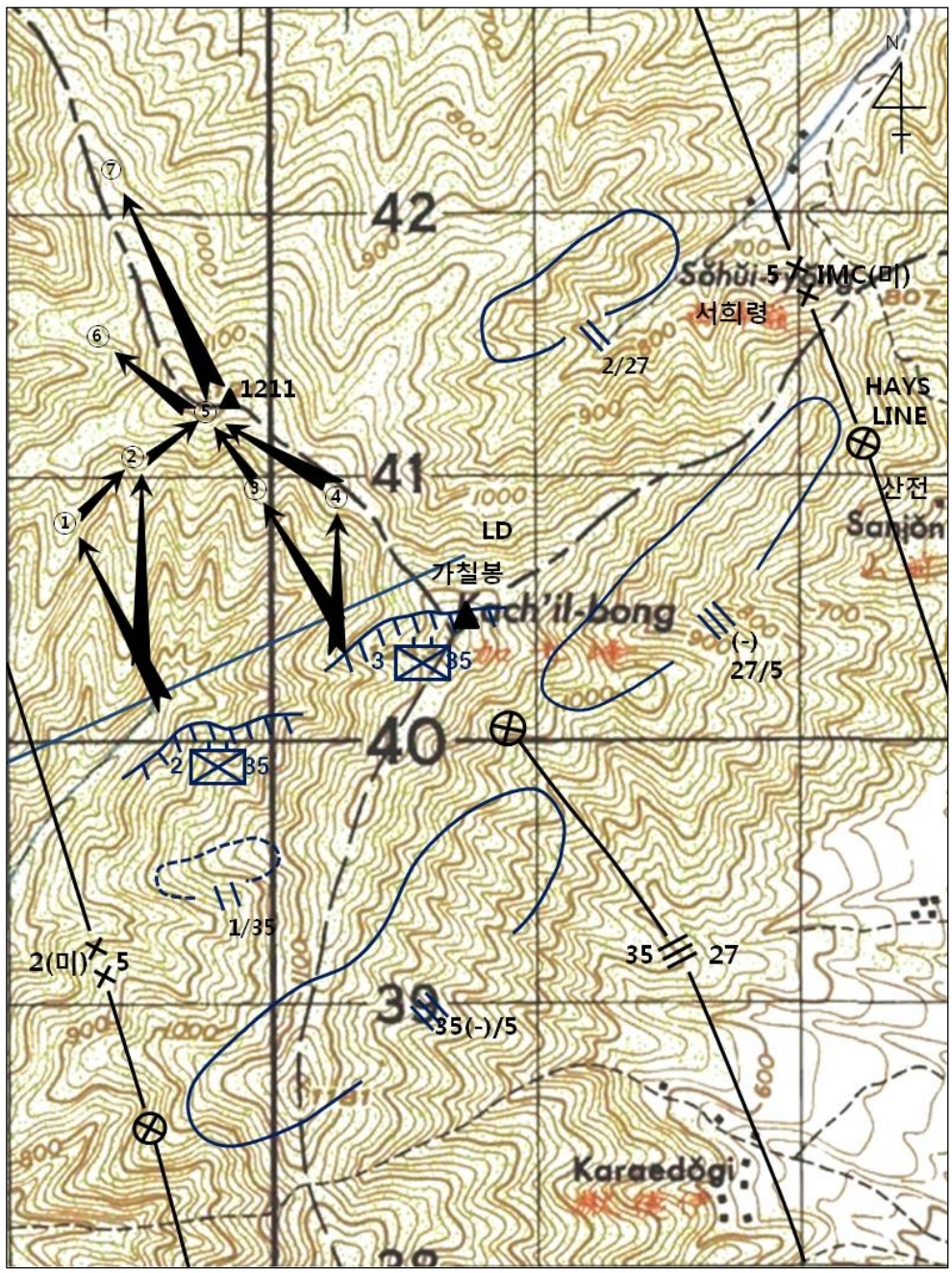
① 사단은 1211고지를 계속 공격 탈취하려 한다.
② 제36연대는 1개 대대로써 가칠봉 이서의 헤이스선 진지를 확보하라. 9월 20일 04시를 기해 2개 대대로써 가칠봉 동북쪽으로 우회, 1211고지를 공격하라.
③ 제35연대는 계속 1211고지를 공격하라.
④ 제27연대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⑤ 공병대대는 9월 20일 04시에 행동을 개시하여 제35연대 정면의 적의 특화점을 파괴하여 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⑥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⑦ 사단CP는 야촌리에 위치한다.

9월 20일 04시에 제35연대는 고지 남쪽에서, 제36연대(-)는 동북쪽으로 우회하여 적진을 공격하였다. 제35연대는 제1대대의 지원 아래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좌우 일선으로 하여 돌격을 실시했으나 적의 화망을 뚫는데 실패하였고, 제36연대는 제1대대가 1211고지 북쪽 능선으로 우회하여 무명고지 C를 점령한 후 목표고지를, 제2대대가 가칠봉 동쪽 능선으로 우회하여 1211고지-무명고지 B간의 안부를 탈취한 후 목표고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156] 그러나 다음날까지 계속된 제36연대의 공격도 1211고지 북쪽 능선으로 우회하거나 안부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한편 이날 제35연대는 공격제대를 교대하여 제2대대가 1211고지를, 제1대대가 무명고지 B를 공격했으며, 제3대대는 목표고지 서남쪽 능선으로 기동하던 중 우군의 오폭세례를 입어가면서 주공인 제2대대를 지원했으나, 결국 이날의 공격도 허사였다.

사단장은 9월 22일 군단장의 작전지도에 따라 1211고지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헤이스선의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전력을 보강하여 재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부대배치를 조정하였다.[157] 이에 따라 캔자스선의 제27연대(-1)가 다시 우일선으로 추진되어 좌일선의 제36연대와 함께 2개 연대로 헤이스선을 방어하였으며, 제35연대는 다음날 운천리(雲川里)에 집결하여 부대 재편에 착수하였다.

<상황도 5-9> 제1차 가칠봉전투 제35연대 작전계획



(다) 제3차전(1951. 9. 28 ~ 10. 3)

사단이 부대를 재편성하며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9월 26일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방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군단의 지휘초점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때 군단장은 이 원인 중의 하나인 동측방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제5사단장에게 조속히 1211고지를 탈취하도록 요청하였다.[158]

제5사단장은 약 5일간의 부대정비를 완료한 후 사단예비인 제35연대로 9월 28일 10시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59]

① 사단은 9월 28일 10시를 기해 1211고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35연대는 1211고지를 일거에 탈취하라.
③ 제27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하라. 단, 명령에 따라 일부 병력으로 제35연대를 증원할 준비를 갖추라.
④ 제36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에 배속중인 57㎜, 75㎜ 무반동총은 9월 27일 16시부로 제35연대에 배속 변경한다.
⑥ 제27, 제36연대의 전 중화기는 제35연대에 화력 증원하라.
⑦ 제26포병대대는 제35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⑧ 사단CP는 야촌리에 위치한다.

공격에 앞서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항공지원과 군단포병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였고, 공격개시 1시간 전에 6개 편대의 전폭기가 30분 동안 1211고지 일원을 폭격하였다. 이어 군단포병과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제35연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5연대는 이미 1211고지 일원에 대한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어 고지를 중심으로 서남, 동남, 서북 능선의 고지군에 모두 7개의 목표번호를 부여하였다. 공격제대인 좌전방의 제2대대는 서남쪽 능선을 따라 1211고지를 탈취한 후 서북쪽 능선을 점령하고, 우전방의 제3대대는 동남쪽 능선을 따라 1211고지를 점령한 후 서북쪽 능

선을 확보하여 적의 역습을 차단한다는 기동계획 하에 전진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예비인 제1대대는 제2대대 뒤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160]

가로놓인 계곡을 넘어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각각 서남 및 동남능선을 공격하였으나, 적의 저항을 극복하는데 실패하고 다시 전폭기의 공중지원을 받는 한편 제1대대와 제27연대 제2대대까지 좌우 전방대대의 공격에 가담하였지만 돌파구를 여는데 실패하였다. 다음날인 9월 29일에 연대는 제1대대를 서남능선에 투입하고 제2대대를 서측으로 돌려 3개 대대로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지원화력을 최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특공대도 투입하며 대대장이 진두지휘를 하였으나, 역시 적의 기관총 및 수류탄 공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대의 공격은 일시적으로 서남능선의 무명고지 A를 점령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진척이 없었다.[161]

9월 30일에도 01시부터 제2대대가 서남능선으로, 제3대대가 동남능선으로 야간공격을 시작하여 한때 목표고지에서 불과 300~400m 떨어진 봉우리를 점령했으나, 역시 최종목표 공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날 생포한 포로의 진술로 이곳에 배치된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는 전력이 약화되어 다음날 1290고지의 제4연대와 교대할 예정임이 밝혀졌다.[162]

한편 제35연대의 공격이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사단장은 적의 부대교대를 이용하여 일거에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지시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163]

① 사단은 목표인 1211고지를 계속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36연대는 2개 대대로 제35연대 우익에서 1211고지를 공격하라.
③ 제35연대는 사단 좌일선으로서 1052고지로부터의 적의 측방화력을 견제하면서 무명고지(△1211 서북쪽 0.5㎞)를 공격하라.
④ 제27연대는 1개 대대로 무명고지(△1211 동쪽 0.7㎞)를 공격한 다음 1211고지를 공략하라.
⑤ 공격간 각 연대는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라.
⑥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단, 제36연대에 화력의 우선권을 부여하라.
⑦ 사단CP는 야촌리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35연대는 연대 좌일선으로서 1개 대대로 1052고지로부터의 적의 측방위협을 견제하면서 2개 대대로 1211고지 서북능선 상의 무명고지 C를 공격하고, 제36연대는 사단 우일선으로서 1개 대대로 헤이스선을 방어하고 2개 대대로 제35연대 우측에서 1211고지를 공격하며, 제27연대는 1개 대대로 1211고지 동남능선 상의 무명고지 B를 점령한 다음 제36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게 되었다.

제36연대는 제3대대가 서남능선의 중복을 타고, 제2대대는 제27연대의 무명고지 B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다가 상황을 보아 동측능선을 타고 1211고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10월 1일 11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가칠봉 서측 계곡을 횡단하여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우 일선인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적의 주 거점을 우회 돌진하여 표고 1,100m까지 도달했을 때, 적으로부터 치열한 측방사격을 받았다. 위협이 거세지자 대대장은 포병엄호사격을 실시한 다음 제9중대와 제10중대로 양 측방을 견제 엄호하면서 제11중대를 정면으로 투입하였다. 제11중대가 중대장의 진두지휘로 적진 50m까지 진출하자 적의 기관총사격과 수류탄 공격이 난무하였다.

중대는 돌격을 감행하여 적의 취약거점을 격파한 후 우회하여 수류탄 공격을 실시하였고, 뒤쪽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적은 산발적인 저항만을 유지할 뿐 당황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중대는 거점방어를 위해 형성한 적의 특화점을 격파하고 17시 40분 경 고지를 점령하였다. 곧이어 제9중대와 제10중대도 고지로 올라와 잔적을 소탕하고 재편성을 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164]

이날 제35연대도 1211고지 서남능선을 점령한 후 제36연대의 1211고지 공격으로 적진이 혼란해진 틈을 이용해 북서능선의 무명고지 C도 점령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07시 자욱한 안개 속으로 밀려온 적의 역습에 1211고지의 아군은 방어진이 돌파되면서 포위되기 시작하자, 제36연대 제3대대가 철수함으로서 어렵게 탈취한 1211고지를 적에게 다시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165] 그리고 제36연대를 비롯한 사단이 재탈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이러한 때인 10월 3일 사단이 좌인접 미 제38연대의 책임지역을 인수하면서 작전지역이 확대되자 공격을 일단 중단하고 부대배치를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5연대는 좌일선으로서 미 제38연대 지역을 포함한 박달고개-가칠봉 남쪽 능선까지의 헤이스선을 점령하여 841고지-1052고지의 적과 대치하였다. 제27연대는 우일선으로서 가칠봉 서남능선-서희령까지 점령지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제36연대는 사단 중앙의 가칠봉 부근에 집결하여 이를 방어하면서 그 남쪽에서 재편성에 돌입하였다.[166]



연대장과 참모들이 가칠봉에서 작전을 숙의하고 있는 모습

(라) 제4차전(10. 8～10. 9)

공격작전을 일시 중단하고 확장된 헤이스선 방어에 주력하던 사단은 적이 파괴된 1211고지의 진지를 보수하면서 국군 복장을 한 정찰대를 대우산까지 침투시켜 아군 병사를 납치해가는 등 정찰활동을 강화하자, 제36연대가 우전방 진지를 모두 담당하고 제27연대가 1211고지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67]

① 사단은 9월 8일 05시를 기해 121고지를 공격 탈취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목표 1(△1211 동쪽 0.7㎞)를 공격 탈취하라.
③ 제36연대는 1개 대대로 목표 3(△1211 동북쪽 능선 일대)을 공격 탈취하여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35연대는 1개 대대로 목표 4(△1211 서남쪽 능선 일대)를 공격, 탈취하여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57㎜ 및 75㎜ 무반동총은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⑥ 제26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단, 화력의 우선권은 제27연대에 있다.
⑦ 사단CP는 속칭 골말(임당리 동남쪽 2㎞)에 위치한다.

공격에 앞서 제27연대장은 제1대대는 동북쪽으로 우회 공격하는 제36연대 제2대대와 협동하여 목표 1을 탈취하고, 제3대대는 1211고지의 서남능선으로 공격하는 제35연대 제2대대의 엄호 하에 목표 2를 정면공격하며, 제2대대는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다 제1대대가 목표 1을 탈취하는 즉시 초월하여 1211고지의 동쪽 능선으로 돌진하여 제3대대와 같이 1211고지를 협격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10월 8일 05시를 기해 연대는 가칠봉 서쪽 능선에 전개한 후 제26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과 무반동총의 일제사격에 이어 공격을 개시하였다. 목표 1을 향해 돌진한 우일선의 제1대대는 적선 50m 전방에 도달했을 때, 적의 교차사격으로 전진이 저지되자 병력이 축차로 투입되어 파상공격을 실시하였다. 적진 가까이에 접근한 대대는 수류탄공격에 이은 백병전으로 적을 격퇴하고 07시 30분에 목표 1을 탈취하였다.

가칠봉 서남쪽 계곡을 건넌 좌일선의 제3대대는 1211고지 서남능선을 공격하는 제35연대 제2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1211고지 남쪽 능선으로 돌진하였다. 적은 포병화력으로 이를 저지하였으나, 인접지역이 공격을 받게 되어 화력이 분산되었다. 대대는 이때 적의 취약거점을 공격하여 격파한 후 주 거점을 우회하여 정상으로 치달아 백병전을 실시하였고, 마침내 06시 15분에 목표인 1211고지를 세 번째로 점령하였다.[168]

그러나 동남능선을 공격한 제1대대나 이를 초월한 제2대대는 중도에서 저지되어

1211고지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제3대대는 목표만 점령했을 뿐 주변의 적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포격을 집중하면서 물러났던 적 제4연대 주력이 그들 제2사단 제17연대의 지원 아래 역습을 가해왔다. 제27연대 제3대대는 고지 정상주위에서 사주방어로 전환하여 포병지원사격을 요청하며 저항하였으나 사상자가 늘어나고 탄약이 떨어져 더 이상 적의 파상공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연대장은 제1대대와 제2대대를 투입하여 고지 동쪽 능선의 적진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자 21시에 제3대대의 후퇴를 명령하였다. 대대는 적의 추격을 저지하는 한편 포위망을 돌파하며 남쪽 능선으로 후퇴하여 가칠봉 서남능선에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제27연대를 주공으로 한 일제 공격이 결과적으로 실패함에 따라 사단장은 공격작전을 일시 중지하고 헤이스선 진지를 강화한 후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심하였다.[169] 이에 따라 사단은 제35연대를 좌일선, 제36연대를 우일선, 그리고 제27연대 1개 대대를 중앙으로 헤이스선 방어를 강화하며 제27연대 주력은 가칠봉 남쪽에서 재편성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⑶ 전투 결과

제5사단은 1951년 9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대별로 또는 3개 연대로서 1211고지를 공격하여 세 번씩이나 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때마다 적의 역습에 이를 상실하고 결국 10월 14일 단장의 능선 전투가 종결될 무렵 그 동측의 841고지를 점령하면서 가칠봉 부근 전투를 종결하였다. 비록 1211고지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제5사단은 끈질긴 전투로 박달고개-가칠봉-서희령 전선을 굳게 지켜 해안분지(펀치볼)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과 아울러 단장의 능선 전투에도 동측방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함으로서 크게 기여하였다.

제5사단은 10월 20일에 40일간이나 교전과 혈전을 벌인 이 전선을 국군 제3사단에 인계하고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사단이 이 전선에 교대로 투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군 제5사단이 확보한 941고지-가칠봉-서희령 선이 최전방 전선이 되었다. 이번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5-31>과 같다.[170]

<표 5-31> 전과 및 손실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전상	실종
		기관총	다발총	소총	기관단총			
1,102	250	6	82	63	3	23/699	120/4,131	1/436

5) 백석산 전투(1951년 9월 24일 ~ 10월 1일)

(1) 전투 개요

백석산(白石山)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이 백석산에 배치된 북한군 제32사단과 제12사단을 격퇴하기 위해 1951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2차에 걸쳐 전개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제16포병대대와 미 제96포병대대 A포대의 지원을 받으며 백석산의 북한군 제32사단을 공격하여 격퇴하고 주봉인 1124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적의 역습을 받고 4일간의 공방전 끝에 고지를 피탈하자, 국군 제8사단이 임무를 교대하여 2일간의 재공격으로 백석산 일대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탈환하였다.

미 제2사단장은 '단장의 능선'에 대한 공격의 답보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문등리(文登里) 계곡 서쪽의 1024고지를 공격하여 적의 병력 분산을 강요하는 계획을 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은 백석산(△1142)에 배치된 적을 격퇴하지 않는 한 그들의 병력분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9월 22일 국군 제7사단에 목표 A(백석산)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다.[171]

이 무렵 제7사단은 제3연대를 우일선, 제8연대를 중앙일선 그리고 제5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양구 서북방 파로호 남쪽 캔자스선과 그 북측 신캔자스선을 제5

연대와 제8연대가 방어하는 한편 제3연대는 그 북쪽의 전초선(Badge Line)을 점령하고 있었다. 사단의 제16포병대대는 1개 연대에 1개 포대씩으로 직접 지원하였고, 2개 포대는 장평리에, 1개 포대는 현리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사단 정면에 대한 일반지원은 미 제96야전포병대대 A포대가 담당하였다.

제7사단의 병력은 약 9,100명이고, 105㎜ 곡사포 18문과 81㎜ 및 60㎜ 박격포 52문과 84문, 4.2인치 박격포 6문, 3.5인치 및 2.36인치 로켓포 10문과 30문, 75㎜ 및 57㎜ 무반동총 각 2정, 중기 및 경기 38정과 126정 등을 보유하였다.[172]

한편 백석산을 공격 점령한 제7사단이 4일 만에 이를 다시 피탈함에 따라 3차에 걸친 노전평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8사단이 재탈환임무를 인수하였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양구 북방의 하우망(下牛望)으로 이동한 제8사단은 주공임무를 담당한 제10연대를 1024고지에, 제16연대를 883고지에 그리고 제21연대를 917고지에 전개하였다. 제8사단의 병력은 약 10,000명이고, 기관포 63문, 60㎜ 및 81㎜ 박격포 89문 및 61문, 2.36인치 및 3.5인치 로켓포 79문과 10문, 57㎜ 및 75㎜ 무반동총 각 8문씩을 보유하였다.[173]

반면 대치중인 적은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32사단과 제12사단으로서 제32사단은 백석산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883고지-901고지-554고지에 구축한 강력한 방어진지를 근거로 남쪽 고지에 전초부대를 추진하며 정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의 가용병력은 약 3,500명으로 추정되었고, 연대 당 120㎜ 박격포 2문과 76㎜ 및 45㎜ 직사포 각 3문, 고사기관총 4정을, 그리고 대대 당 82㎜ 박격포 5문과 반전차포 7문, 중기 및 경기 3정과 9정을 보유하였다.[174]

국군 제7사단의 공격으로 전투수행 능력을 상실한 제32사단과 교대한 제12사단은 1220고지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정면에 제1연대를, 좌우측에 제2연대와 제3연대를 배치하여 백석산을 기점으로 1088고지-1220고지-953고지 능선에 종심 깊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의 병력은 약 2,700명이고, 백석산에 배치된 제1연대는 중기 및 경기 12정과 9정, 무반동총 6정, 각종 박격포 20문 등을 장비하였다.[175]

백석산 전투에 관련된 양측의 전투서열 및 주요 지휘관은 <표 5-32>와 같다.

<표 5-32>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7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제3연대장	대령	정 진(鄭 震)	
	제1대대장	소령	이종택(李鍾宅)	
	제2대대장	대위	최기종(崔基宗)	
	제3대대장	소령	조원재(趙元哉)	
	제8연대장	대령	김기동(金基東)	
	제1대대장	소령	성형갑(成炯甲)	
		소령	강순형(姜順馨)	1951. 9. 24부
	제2대대장	소령	임춘발(林春勃)	
	제3대대장	소령	송인규(宋寅奎)	
	대전차공격대대장	중령	박주용(朴周用)	
	제7공병대대장	소령	김이덕(金利德)	
	제16포병대대장	중령	문재준(文在駿)	
	제8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정 강(鄭 剛)	
	제1대대장	소령	차만석(車萬石)	
	제2대대장	소령	김 광(金 光)	
	제3대대장	대위	김두성(金斗星)	대리
	대전차공격대대장	소령	박서권(朴瑞權)	
	연대수색중대장	중위	이기남(李技南)	

북한군	제5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32사단장	소장	김대홍(金大弘)	
	제39연대장	중좌	서정백(徐正白)	
	제40연대장	중좌	김창현(金昌絃)	
	제41연대장	중좌	오장환(吳長煥)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30연대장	-	-	
	제31연단장	-	-	
	제32연대장	-	-	

한편 작전지역인 영서지방의 기후는 산악지대와 내륙에 의한 대륙성 기후이다. 양구 지방의 기온은 연평균 섭씨 12.3℃로서 기온차는 섭씨 37℃~-32℃이고, 강우량은 연평균 1,200㎜로서 7~9월의 홍수기에 집중되었다. 8~9월의 기상은 때때로 비가 내렸으나, 9~10월은 비교적 청명하였다.

백석산 일대는 60도 안팎의 심한 경사를 이룬 표고 800~1,300m의 고지군과 협소한 계곡으로 이루어져 지형의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하다.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은 어은산과 1220고지를 비롯하여 백석산-883고지-917고지와 서쪽의 892고지-1065고지, 그리고 남동쪽의 1024고지-901고지-554고지 등이 있다. 또한 주요 하천은 문등리와 사태리 계곡에서 시작된 소하천들이 남서쪽으로 흘러 고방산리-송현리-장평리-낭구미-오미리 등을 우회하여 화천저수지로 유입되는 수입천이 있다. 도로망은 지세의 영향으로 매우 빈약하고 겨우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로서, 양구-고방산리-문등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양구-성골령-고방산리 간 도로가 있다.[176]

이와 같이 작전지역 내의 기복이 심한 지세와 울창한 삼림은 관측과 사계를 제한하였고, 빈약한 도로망과 하천들은 보급수송은 물론 부대기동 및 전차운용에 영향을 미쳐 공자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2) 전투 경과

(가) 제1차 전투(1951. 9. 24 ~ 9. 27)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스 소장은 883고지 전투를 수행한 국군 제7사단이 재정비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9월 20일에 제8사단과 임무를 교대한 후 군단예비로 전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8사단에도 노전평 부근의 방어선을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하고 9월 23일까지 인수준비를 완료하도록 조치하였다.[177]

이 무렵 군단의 전황은 미 제2사단이 수행중인 단장의 능선 공격이 지지부진하고 전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군단장은 미 제2사단장의 계획을 토대로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국군 제7사단에 제8사단과의 교대를 취소하고 즉각 백석산(△1142)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백석산은 지대 내에서 가장 높은 고지로서 화천저수지는 물론 '단장의 능선'까지 감제관측이 가능하며, 만일 이를 탈취할 경우 적은 어은산(△1277) 남쪽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지역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형지물이었다.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군단장으로부터 백석산 공격에 관한 구두명령을 받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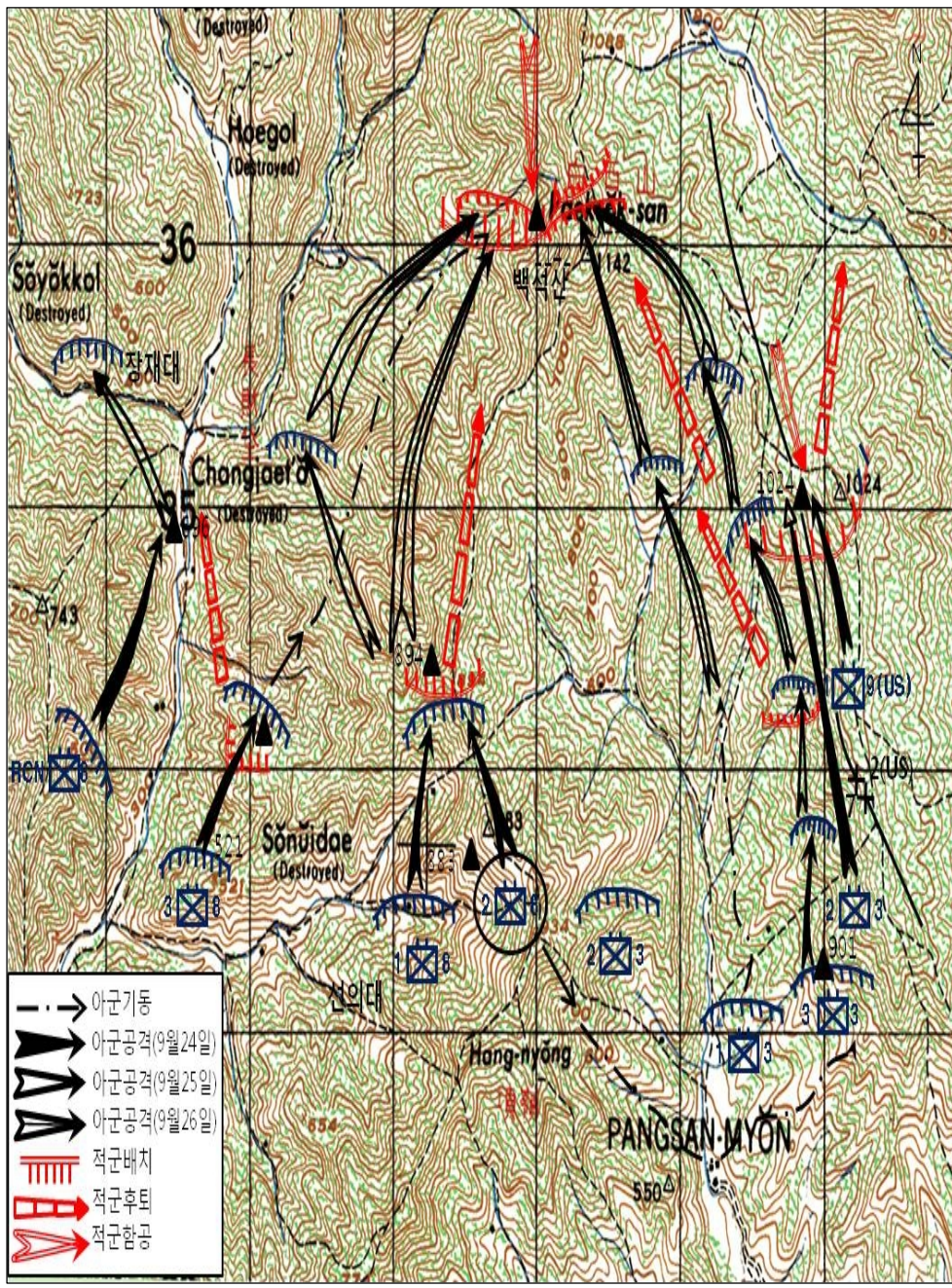
① 사단은 9월 24일 06시를 기해 목표 A(백석산)를 공격하려 한다.
② 제8연대는 894고지(△883 북쪽 0.7㎞) 부근의 적을 격퇴한 다음 서북쪽 능선을 따라 A를 목표로 공격하라. 책임지역 내의 천미리(天尾里)-장재대(長財垈) 이서를 9월 23일 16시까지 제5연대에 인계하라.
③ 제3연대는 현 진지를 확보하면서 제8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5연대(대전차공격대대 배속)는 현 임무(좌일선)를 계속 수행하라. 9월 23일 16시까지 천미리-장재대 도로 좌측의 제8연대 담당지역을 인수하라. 제8연대의 공격간에 동 연대의 책임지역에 대한 경계를 요한다.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9월 23일 14시부로 제5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이에 앞서 현 임무(사단지휘소 및 신병교육대 경계)를 제103중박격포중대에 인계함을 요한다. 9월 23일 12시부로 무반동총 각 1개 반(75㎜ 및 57㎜ 무반동총 1정)으로써 제3연대와 제8연대를 지원하라.

⑥ 제103중박격포중대는 9월 23일 14시까지 죽리에 집결하여 사단지휘소 및 신병교육대의 경계에 임하라. 단, 연락장교를 13시까지 대전차공격대대에 파견함을 요한다.
⑦ 제16포병대대는 제3연대와 제8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단, 군단 지원포병과의 협조를 요한다. 사단 정면에 대한 일반지원은 미 제96포병대대 A포대가 담당할 것이다.
⑧ 제7공병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⑨ 통신중대는 현 통신축선을 계속 확보하라. 현 SOI를 준용한다.
⑩ 지휘소는 죽리에 위치한다.

사단은 9월 24일 제8연대와 제3연대를 좌우 일선으로 하여 백석산 공격에 돌입하였다. 제8연대장 김기동 대령은 공격 전날 정오를 기해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79]

① 연대는 A를 목표로 공격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현 진지(△521)를 9월 22일 20시까지 제3대대에 인계하고 선의대(仙儀垈) 부근에 집결하여 894고지(△883 북쪽 0.7㎞)를 공격 점령한 다음 별도의 명령에 따라 동북쪽 능선으로 목표 A를 공략하라.
③ 제2대대는 9월 22일 22시까지 현 진지를 제5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883고지에 집결하여 제1대대의 894고지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3대대는 9월 22일 22시까지 제1대대로부터 521고지를 인수하여 무명고지Ⓐ(△521 서북쪽 1.3㎞)를 공격 점령한 다음 별도의 명령에 따라 목표 A를 공격하라.
⑤ 수색중대는 9월 22일 18시까지 장재대 남쪽의 공격 대기선으로 진출하여 696고지(무명고지Ⓐ 서북쪽 0.6㎞)를 점령한 다음 별도의 명령에 따라 목표 A를 공격하라.
⑥ 공격개시 일시는 9월 24일 06시이며, 공격개시선은 선의대-521고지-696고지 서남쪽 기슭 400m 능선이다.
⑦ 공격개시 이후 전방전투지휘소를 917고지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황도 5-10> 제1차 백석산전투(1951.9.24~9.27)



연대는 제1대대를 선두로 883고지 북측 약 800m 지점에 있는 연대의 중간목표인 894고지를 공격하였다. 목표고지의 서남쪽을 공격한 대대는 고지에 견고한 진지를 마련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중대규모의 적에 막혀 일몰 무렵 진지를 급편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다음날 06시에 공격을 재개한 대대의 공격마저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대장은 특공대원을 선발하여 적의 화력거점에 대한 특공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81㎜ 박격포의 엄호를 받으며 절벽을 기어올라 수류탄으로 적의 화기진지를 파괴하였고, 동시에 대대의 돌격이 감행되어 백병전 끝에 894고지를 점령하였다.

제1대대의 521고지를 인수한 제3대대는 9월 24일 06시에 무명고지Ⓐ를 2개 중대 병진으로 공격하였다. 대대는 1개 중대가 정면을 공격하는 동안 고지를 우회한 또 다른 중대가 적의 배후를 기습하여 목표를 탈취하였다. 또한 연대수색중대도 696고지를 공격하여 치열한 공방전 끝에 고지점령에 성공하였다.

한편 우일선의 제3연대장은 1024고지를 동쪽에서 공격하는 미 제2사단 제9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1024고지에서 남쪽으로 뻗어 901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공격할 것을 제3대대에 명령하였다.[180] 901고지 북쪽 무명고지㉮의 공략에 나선 대대는 1시간 만에 이를 점령하였다. 다음날인 9월 25일 제3대대는 동측에서 미 제2사단의 1024고지 공격에 호응하며 전진하여 이 고지를 탈취할 무렵에 서측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대대는 진지를 재편성하던 중 아군의 심한 포격을 피해 호 속에 숨어 있던 군관 1명과 사병 8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181]

9월 26일 사단은 제3연대와 제8연대로 백석산 주봉에 대한 공격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때 사단은 군단장으로부터 9월 28일부로 제8사단과 현 임무를 교대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어서 기간 내에 고지를 탈환하고 명예롭게 작전지역을 인계한다는 결의로 공격작전을 전개하였다.[182]

제3연대는 우일선인 제3대대가 11시에 중간목표인 무명고지㉱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여 백석산 남쪽 정면을 공격중인 제1대대의 엄호 아래 1,000m지점까지 도달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901고지-1024고지 능선의 서쪽 기슭으로 전진하여 중간목표인 무명고지㉰를

점령한 후 제3대대를 초월하여 백석산 남동쪽 500m 지점의 900능선마저 점령하고 백석산 정상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적의 포격에 900능선으로 물러나 진지를 점령하고 역습에 대비하였다.

제8연대는 제2대대를 선두로 894고지에서 공격을 속개하여 항공폭격과 포병지원을 받으며 적의 중심진지를 축차적으로 격파하고 16시경 정상의 2개 봉우리 중 남쪽의 봉우리를 탈취하였다. 다음 단계로 마지막 북쪽의 봉우리를 공격하던 중 제3연대를 화력 지원하던 미군 전차소대의 직격탄이 공격대열에 작렬하여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공격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이를 간파한 듯 곧 적의 역습이 이어졌고 대대는 남쪽의 봉우리만 유지한 채 야간방어로 들어갔다.

9월 27일 사단은 백석산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중 새벽녘에 적으로부터 선제적인 역습을 받았다. 적은 단장의 능선에서 교대된 후 그들의 제32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투입된 제12사단 소속 부대들이었다. 1088고지의 능선을 타고 내려온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8연대는 확보하고 있던 백석산 남쪽 봉우리를 상실하였고, 이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역공을 펼쳤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3연대도 1005고지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우전방 제3대대가 격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183] 그러나 우인접 미 제2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1024고지를 빼앗겨 연대의 우측방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연대는 즉각 연대예비인 제2대대를 투입하여 이를 탈환한 다음 미군에게 인계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백석산 공격임무를 9월 28일 12시부로 제8사단에 인계하고 육본예비로 전환되어 야전훈련소에 입소하였다.

제7사단은 8월 18일부터 군단공격작전의 일익을 맡아 주공인 미 제2사단의 피의 능선과 단장의 능선 전투에 조공으로 지원하면서, 송현리-송정동으로부터 40일간의 공격작전을 펼친 끝에 백석산까지 진출하는 전공을 세웠다. 사단이 백석산의 우반부까지 탈취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아군 전차의 오포격도 원인의 하나였지만, 최종 목표공격에서 제3연대와 제8연대간의 협조가 미흡하였고, 또한 적의 역습에 대한 대응조치의 강구도 미흡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밖에 앞서의 전투에서 발생된 손실로 전투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부대 교대임무를 미리 하달함으로서 전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 제2차 전투(1951. 9. 30 ~ 10. 1)

군단지시에 따라 노전평 부근의 작전지역을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한 제8사단은 1951년 9월 28일 제7사단으로부터 백석산 공격임무를 인수하였다. 사단은 예하 연대를 북한강의 물어구로부터 문등리 계곡의 궁골까지 전선에 배치하고 제10연대로 백석산을 공격할 복안 하에 백석산과 이에 이르는 양측 능선 접근로를 제10연대에 포함시켰다. 사단장은 백석산을 단시일 내에 점령하고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84]

① 사단은 군단명령에 의하여 1951년 9월 29일 12시부로 제7사단 제3연대 및 제8연대의 배속을 해제하여 원대복귀 시키는 동시에 계속 1142고지를 공격 점령하려 한다.
② 제10연대
  ㉮ 제3연대 및 제8연대의 임무를 1951년 9월 29일 11:40까지 인수하라.
  ㉯ 제16연대의 중박격포중대 및 대전차공격대대의 75㎜ 무반동총소대가 도착되는 즉시 통합 지휘하라.
  ㉰ 1951년 9월 30일 07시부터 공격 개시하여 1142고지를 점령 확보하라.

주공임무를 부여받은 제10연대장은 제1대대를 주공으로 우일선에, 제2대대를 조공으로 좌일선에, 그리고 제3대대를 연대예비로 각각 배치하였다. 제1대대는 9월 28일 05시에 진지를 인수하여 주공방향인 좌측 능선에, 제2대대는 같은 날 11시 55분에 조공방향인 우측능선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는 1024고지-901고지에 연대예비로 현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연대 및 제16연대 중포중대를 비롯한 각종 중화기중대가 백석산 남쪽과 1024고지 서측사면 7부 능선에서 공격제대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다.[185] 이날 제7사단과 대치하고 있던 북한군 제32사단 역시 그간의 피해로 인해 물러가고 제12사단이 새로 투입되었다.[186]

공격개시일인 9월 30일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연신됨과 동시에 주공인 제1대대는 목표고지의 서남능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적의 방어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폐물을 이용하여 가파른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 09시 경에는 선두의 2개 중대가 일제히 돌격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몇 차례의 돌격을 반복하며 적진의 일각을 돌파하고 발판을 마련했으나, 적의 감제관측 사격에 이를 지탱하지 못하고 수류탄 투척거리 밖으로 밀려나 급편방어에 들어갔다.[187]

조공으로 동남능선을 따라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주공에 비해 기동로의 경사는 완만하였으나, 백석산 우측 봉우리로부터 완전 감제되어 공격개시와 동시에 적의 집중포격을 받았다. 대대는 주공을 엄호하기 위해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를 우측의 고지로 진출시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려 했으나, 화기 거점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적의 저항으로 여의치 않았다. 연대장은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 11시 30분에 현 진출선에서 사주방어를 지시하는 한편 각 대대에 100명씩 배속된 노무자들을 이용하여 탄약과 식량을 보급하였다.

다음날인 10월 1일 새벽공격을 결심한 연대장은 돌격지원포격과 공군의 근접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주공인 제1대대의 전방지역으로 나아가 소대장 이상 간부들에게 백석산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날 중으로 목표물을 점령하도록 독려하였다.[188] 연대장의 현지지도를 받은 제1대대는 이른 아침의 안개를 은폐로 삼아 재공격하였고, 3시간의 혈전 끝에 돌격선에 도달하였다. 이때 안개가 걷힌 상공에 우군 전투기 1개 편대가 출현하여 백석산 주봉을 비롯한 일대의 적의 진지를 네이팜탄 및 기총소사로 강타하였다. 대대는 이 기회를 틈타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여 백석산의 주봉을 점령하였다.[189]

그러나 우측 봉우리를 공격하는 제2대대는 여전히 백석산 바로 우측 1050고지의 적을 제압하지 못해 공격이 저지되었다. 이와 같이 제2대대의 공격을 저지한 적은 제1대대에 의해 밀려난 적과 합세하여 백석산 주봉에 역습을 가해왔고, 제1대대는 이를 격퇴하지 못해 다시 8부 능선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책임을 느낀 제2대대가 재공격을 감행하여 우측 봉우리의 9부 능선에 도달하자, 좌측방의 위협을 직감한 적은 그들의 방어 2선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그간 재편성을 완료한

제1대대가 재공격에 나서 11시 55분에 백석산 주봉을 완전 장악하였다. 이때 지원사격이 연신되고 고지 뒷면에 대한 공중폭격이 감행되는 가운데 제2대대도 돌격을 감행하여 우측 봉우리를 점령하였다.[190]



백석산지구 전투 전적비

⑶ 전투 결과

제8사단은 제7사단으로부터 전선을 인수한 후 2일간의 공격에서 백석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극심한 타격을 입고 1050고지 방면으로 물러난 북한군의 2차에 걸친 역습을 격퇴하고 어은산까지의 고지군을 목표로 하는 차기 공격작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석산의 점령은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이 전선을 캔자스 방어선으로부터 10㎞ 추진하여 군 및 군단의 작전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적의 주방어선이 최소한 5~10㎞ 북쪽의 1220고지와 어은산(△1277)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측의 단장의 능선과 문등리 계곡의 감제가 가능하여 주공 사단의 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번 백석산 전투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5-33>과 같다.[191]

<표 5-33>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실종
			대공 기관포	기관총	다발총	소총	수류탄			
제7사단	740	75	1	8	46	73	1,098	45	250	1
제8사단	111	28		6	17			50	243	
계	851	103	1	14	63	73	1,098	95	493	1

6) 단장의 능선 전투(1951년 9월 13일 ~ 10월 13일)

(1) 전투 개요

단장의 능선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프랑스대대가 양구 북방의 894고지-931고지-851고지를 잇는 일명, 단장의 능선에 배치된 북한군 제6사단과 제12사단을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차에 걸친 공격으로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30만 발에 달하는 포격지원과 항공근접지원 아래 1개월 동안 끈질긴 공격을 펼쳐 결국 단장의 능선을 확보함으로써 가칠봉과 백석산 사이의 돌출된 전선을 조정할 수 있었다. 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북한군 2개 사단은 지혜산 방면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미 제2사단은 군단이 중점을 둔 '피의 능선'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에 이어 예하의 제9연대를 투입하고 제23연대와 제38연대로 측면 지원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9월 5일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후 사단은 미 제8군의 제한공세 방침과 군단의 명령에 따라 피의 능선 북쪽에 위치한 894고지-931고지-851고지로 이어진 능선, 일명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192]

단장의 능선은 3개의 봉우리가 종으로 연결된 능선으로서 남쪽에서 공격한다면 3개의 목표를 차례로 공격해야 되는 지형이었다. 그럼에도 사단이 이를 확보해야 할 전략적인 이유는 첫째, 문등리와 사태리 계곡의 작전로를 장악할 수 있고, 둘째, 지역내 적의 작전 중심지인 문등리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셋째, 이 능선으로부터 캔자스 방어선이 감제 관측됨으로써 초래되는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으며, 넷째, 전선의 만곡부 제거라는 당초의 군단작전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적을 어은산(△1277)-매봉(△1290)-간무봉(△1358) 선까지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93]



단장의 능선의 주봉인 931고지

단장의 능선 중 894고지와 주봉인 931고지를 포함한 문등리 계곡에는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6사단이 배치되었고, 851고지와 사태리 계곡은 제2군단 예하 제13사단이 방어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 기간 중 예비로 이곳에 투입되어 진지공사를 실시한 후 이 전투 개시 직전까지 방어시설을 강화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194] 또한 이들 서측에는 피의 능선에서 후퇴한 제12사단이 국군 제8사단 지역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작전기간 중인 10월 10일 중공군 제68군 예하 제204사단과 제202사단의 1개 연대가 북한군 제5군단을 대신하여 이 전선에 투입되었다.[195]

북한군 제5군단은 제6사단 5,500명과 제12사단 3,800명, 그리고 제32사단 3,800명 등 약 15,600명의 병력을 유지하였고, 군단 정면의 사태리 및 문등리 계곡 일대와 간무봉 동쪽의 소양강 상류계곡에 각종 포 330여 문을 배치하여 보병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196]

단장의 능선 전투에 관련된 양측의 전투서열 및 주요 지휘관은 다음의 <표 5-34>와 같다.

<표 5-34>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군	제10군단장	소장	Clovis E. Byers	
	제2사단장	준장	Thomas E. de Shazo	대리
		소장	Robert N. Young	1951. 9. 20부
	제9연대장	대령	John M. Lynch	
	제23연대장	대령	James Y. Adams	
	제1대대장	소령	George H. Williams, Jr.	
	제2대대장	중령	Henry F. Daniels	
	제3대대장	중령	Virgil E. Craven	
	제38연대장	대령	Frank T. Mildren	

	사단포병단장	대령	Edwin A. Walker	배속부대
	제72전차대대장	중령	John O. Woods	
	제2전투공병대대장	중령	Robert W. Love	
프랑스군	대대장	중령	Ralph Monclar	
네널란드	대대장	중령	W. D. H. Eekhout	
국군	제5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인접부대
	제7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북한군	제5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6사단장	소장	최봉준(崔鳳俊)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2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중공군	제68군장		천팡런(陳坊仁)	
	제204사단장		챠오위칭(曹玉淸)	

⑵ 전투 경과

(가) 제1차 전투(1951. 9. 13 ~ 9. 26)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 후 제9연대를 예비로 전환하는 대신 제23연대를 배치하였고, 제38연대는 사태리 계곡 동쪽에서 868고지-702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군단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부여받은 사단장은 G-2의 정보판단에 따라 1개 연대로 목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23연대를 주공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97]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목표 R(△894)-S(△931)-T(△851)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3연대(프랑스대대 배속)는 9월 11일 12시까지 제38연대 진지를 인수하여 9월 12일 07시를 기해 868고지(가칠봉 서남쪽 3.5㎞)과 702고지(△868 서쪽 1.6㎞, △894 동쪽 2㎞)를 각각 공격하여 탈취한 다음, 이후 명령에 따라 목표 R-S-T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 공격간 제38연대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③ 제38연대는 9월 11일 12시까지 현 진지를 제23연대에 인계하고 후곡리(양구 동북쪽 8.5㎞) 부근에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되라. 1개 대대를 제23연대에 배속 조치하라.
④ 제9연대는 9월 11일 12시까지 제23연대로부터 '피의 능선' 진지를 인수하라. 좌인접 국군 제7사단 제3연대와의 협조를 유지하라.
⑤ 프랑스대대는 계속 제23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⑥ 제37포병대대는 제23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제38, 제96(A포대 결), 제503, 제780(A, B포대 결) 야전포병대대는 사단 정면에 대한 일반지원을 계속하라. 화력지원의 우선권은 제23연대에 부여한다.
⑦ 제2전투공병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일부 병력으로 후곡리-비아리간의 도로, 특히 본 도로상의 교량을 확보하도록 하라.
⑧ 통신은 현 SOI에 준용한다.
⑨ 지휘소는 한전리(양구 북쪽 5㎞)에 위치한다.

사단장은 9월 11일에 하달한 이 명령을 통해 제23연대에 먼저 제38연대가 공격하던 사태리 계곡 동쪽의 868고지와 702고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사태리 도로를 횡단하여 주봉인 931고지와 북쪽의 851고지를 분리한 후 1개 대대가 851고지를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대대가 931고지와 남쪽의 894고지를 공격하도록 작전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는 이 능선을 남에서 북으로 축차적으로 목표를 공격하는 것보다 동측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제9연대는 제23연대가 남측의 894고지를 점령하면 그 서측 2㎞ 지점의 728고지를 공격하여 문등리 방향의 직전도로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31고지 공격에 앞서 제23연대는 9월 12일에 제1대대가 702고지를, 배속된 제38연대 제3대대가 868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이곳에서 단장의 능선 공격을 준비하였다.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연대는 제1대대가 702고지-660고지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가운데 제3대대를 선두로 제2대대와 제3대대가 공격제대로써 931고지와 그 북측의 851고지 사이의 무명고지(△850)를 먼저 점령한 다음 제3대대가 851고지로, 제2대대가 931고지로 공격한다는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프랑스대대는 제38연대 제3대대가 확보한 868고지를 인수하여 측방방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단장의 능선 공격은 계획대로 9월 13일 80여 문의 포가 동원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6시에 단행되었다.[198]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일단 삼태동-사태리 계곡을 따라 지뢰를 제거하며 북으로 전진하였다. 그러나 적도 이때 제2대대와 제3대대의 진로에 강력한 포병화력을 퍼부어 전진이 어려웠다. 상당수의 피해를 입으며 사태리 남쪽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931고지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 하단부에 급편진지를 구축하였다.

그 후 대대는 750고지-850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적의 포병화력은 물론 931고지의 851고지로부터 적 보병화기의 사격이 불바다를 이룬 듯하여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공격은 중간지점의 750고지 일대에서 고착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제3대대의 선두 L중대는 계곡을 따라 탄우를 무릅쓰고 약진을 거듭한 끝에 일몰 무렵에 중간목표인 850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대 중대원은 약 30여 명이 채 안되는 수준이었다. 본대는 750고지 부근에서 적의 포병화력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었다. 중대는 850고지에 전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역습에 대비하여 밤새 포병지원사격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야간으로 인해 정확한 사격유도가 불가능하였고, 지원사격의 공간을 이용해 쇄도한 적과 백병전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탄약이 바닥나 중대장 이하 30여 명의 중대원 전원이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단장의 능선 공격작전 역시 피의 능선 공격의 재판으로 어려운 공격이 될 것으로 판단한 사단장(Thomas E. De Shazo)은 공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공격력을 더욱 증강하기로 결정하였다.[199] 즉, 적이 동측방 방어에 집중하고 있음을 이용해 제9연대를 남쪽에서 894고지 공격에 가담시켜 동쪽과 남쪽 2개 방향에서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9월 14일에 양개 연대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제23연대는 전날과 같이 2개 대대로써 공격했으나 여전히 750고지의 급편진지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는 공격로 동측방으로부터 가해지는 적

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제38연대 제3대대로부터 868고지의 진지를 인수한 프랑스대대에 그 북쪽의 841고지-1052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을 공격토록 하였다. 한편 제9연대는 155㎜ 중포와 4.2인치 박격포 지원사격을 받으며 제72전차대대 B중대의 직사포로 적진의 화기진지를 강타하는 가운데 공격하여 일몰 무렵에 목표 894고지의 서남쪽 500m 지점의 무명고지를 수중에 넣었다.



대우산에서 본 단장의 능선(가운데 능선) 전경

다음날인 9월 15일에 재개된 공격에서도 제23연대는 750고지 부근에서 더 진전하지 못하였다. 프랑스대대도 841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피해만 입었다. 그러나 제9연대 제2대대는 포병 화력의 지원하에 894고지를 공격하여 가벼운 손실만 입고 점령하는데 성공하였고, 야간에 실시된 적의 역습마저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이날의 작전 결과 적 제6사단의 방어중점은 주봉인 931고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9연대가 단장의 능선 남쪽고지를 점령함에 따라 16일부터 제23연대는 931고

지 공격에 전 대대를 투입하였다. 제1대대는 남쪽에서, 제2대대는 동쪽에서 931고지를 공격했으며, 제3대대는 북쪽의 무명고지(△850)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매일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을 뿐 어느 대대도 돌파구를 열지 못하였다. 적 제6사단도 16일에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은 제1연대를 대신하여 예비인 제13연대를 투입, 931고지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200]

이 와중에도 9월 20일 사단장이 교체되어 로버트 영(Robert N. Young) 소장이 부임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제23전차중대가 셔먼 전차 5대를 상실하며 프랑스 공병소대의 엄호 아래 사태리까지 진출하여 여기에서 전차포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지원할 수가 있었다. 이들 전차의 지원을 받은 제3대대는 21일 마침내 중간목표인 850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931고지와 851고지의 적을 분리함은 물론 남쪽의 894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므로 931고지를 고립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9월 22일 제23연대는 제1대대가 프랑스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남쪽에서, 제2대대는 북쪽에서 931고지를 공격하고 제3대대는 850고지에서 그 북쪽 851고지의 적을 견제할 계획으로 공격하였다. 이날 남쪽에서 공격한 제1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적진 10m 전방까지 접근했으나, 결국 적의 최후저지 화망을 뚫지 못하고 물러났다. 북쪽에서 남으로 공격한 제2대대도 목표 500m 전방 무명고지(△870)를 탈취한 선에서 피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 무렵 무스탕 전투기 2개 편대가 931고지와 851고지를 연속으로 폭격하였다.

다음날인 9월 23일 제9연대는 단장의 능선에 대한 서측방으로부터 적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문등리 계곡 서측의 1024고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제23연대도 931고지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날의 공격에서 이미 후방마저 차단되어 포위의 위협을 안게 된 적진이 동요하는 징후가 보이자, 이를 간파한 제1대대는 맹공을 가해 새벽녘에 최고봉인 931고지를 점령하였다.[201] 그러나 이날 밤(23~24일) 적은 야포와 박격포 공격을 가한 후 문등리 계곡으로부터 연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역습을 개시하였고, 이로 인해 제1대대는 새벽 무렵에 고지를 피탈하였다. 이후 제1대대는

이 고지 북쪽에서 공격중인 제2대대의 지원 아래 역습을 실시했으나 역부족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9월 23~24일 밤 역습에 투입된 병력은 북한군 제12사단 제3연대였다. 적 제5군단도 단장의 능선 고수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23연대장은 지금까지의 공격작전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전력소모가 커 공격력이 약화되자, 배속된 프랑스대대를 931고지 공격에 운용하기로 결심하고 9월 25일 850고지에 투입하였고, 프랑스대대가 배치된 연대 동측방에는 역시 배속된 제38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였다. 이날 제9연대는 1024고지를 점령하고 적 115명을 사살하였다. 제7사단도 백석산 주봉을 공격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장의 능선 공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무렵 적 제6사단도 괴멸된 제13연대를 문등리 계곡 통제에 요지인 건솔리 서측 867고지로 전환시키고 단장의 능선에는 제15연대를 투입하면서 전열을 정비하였다.[202]

제23연대는 프랑스대대가 북에서 남으로, 제1대대가 여전히 남에서 북으로 공격하고 제2대대는 850고지에서 엄호하는 한편 제3대대는 북쪽 851고지의 적을 견제할 계획 아래 9월 26일 아침까지 931고지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쏟아진 적의 박격포탄에 프랑스대대의 제2중대장과 포병 관측장교가 전사하고 박격포 관측수의 무전기가 파손되는 등 주공부대의 공격준비에 차질이 발생해 13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다.

작전이 개시된 지 14일 동안 아군은 일일 평균 10,000여 발의 포탄을 소모하였으나 적의 유개진지가 파괴되지 않았음은 물론 적의 포병 특히 박격포가 제압되지 않았으며, 이날도 1,000여 발의 박격포탄이 850고지 부근에 낙하하였다.

프랑스대대는 57㎜와 75㎜ 무반동총을 근접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후 제3중대를 선두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23전차중대는 사태리 계곡 깊숙이 진출하여 직사포탄으로 적의 엄체호를 공격했으나, 적의 박격포 진지와 기관총진지를 파괴하는데 실패하였다. 제3중대는 이런 지원사격을 받으며 1개 소대를 동측으로, 1개 소대를 서측으로 우회시켜 공격하였다. 동측으로 공격한 소대는 가파른 단애지역을 기어올라 적진 가까이 접근했으나, 서측으로 기동한 소대는 중간지점에서 적의 박격포 탄막사격에 걸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이에 동측 소대가 홀로

돌격을 감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00여 명의 사상자만 발생하였다. 또한 후속하던 제2중대도 서측 소대를 초월해 3차에 걸친 돌격을 감행했으나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구성된 적의 화망을 뚫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편 남쪽에서 공격한 제23연대 제1대대도 적의 박격포와 수류탄, 그리고 자동화기의 화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전진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제23연대장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사단장에게 사단의 작전을 확대해 문등리에서 931고지로 투입되는 적의 증원과 보급을 분산시켜 주도록 건의하였다.[203] 2주간의 전투에서 발생한 사단의 손실이 1,670여 명이며, 이중 제23연대의 사상자가 950명이나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연대장은 만일 적의 증원만 차단해 준다면 연대는 당면한 적 제15연대를 약화시켜 단장의 능선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장의 건의를 수용하고 군단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의 능선 작전을 894고지를 확보한 채 9월 27일부로 일단 중단시킨 다음 문제점의 분석과 새로운 방책의 수립에 착수하였다.[204]



전투를 끝내고 휴식 중인 미군병사들

(나) 제2차 전투(1951. 10. 5 ~ 10. 13)

사단장은 지금까지 작전을 '대실패(fiasco)'로 규정하고, 그 원인으로 부대운용에 있어 병력을 좁은 기동공간에 축차적으로 투입한 점과 화력지원팀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전체 손실의 85%를 차지한 적의 박격포격을 제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작전지침에 의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205]

① 사단의 3개 연대로써 전 사단포병과 전차의 지원 하에 협조된 공격을 실시한다.
② 제72전차대대는 문등리 계곡으로, 보전협동 특수임무부대는 사태리 계곡으로 진출하여 전 기갑력으로 보병연대를 지원한다.

이 작전지도 지침에 따라 10월 2일에 하달된 작전(Operation Touchdown) 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06]

① 사단은 10월 5일 21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대치중인 적을 격멸하고 931고지-851고지 선을 반드시 확보한다.
② 제23연대(배속 : 프랑스대대) : 931고지를 점령한 후 851고지를 탈취하라. 연대 전차중대를 주력으로 하는 보전협동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사태리 부근의 적 화력을 제압하라.
③ 제38연대(배속 : 네덜란드대대)
   ○ 최초 제23연대의 931고지 공격의 양공으로서 문등리 도로 좌우측의 적을 척결하고 공병대대의 도로개척작전을 엄호하라.
   ○ 의명 문등리 도로 서측의 905고지-974고지를 점령 확보하라.
   ○ 1개 대대로서 캔자스선을 방어하라(이 대대의 전용은 사단장의 승인을 요한다).
④ 제9연대
   ○ 사단 서측방의 867고지-1005고지를 점령하라.
⑤ 제72전차대대 : 공병대대가 도로를 개척하는 대로 문등리로 돌진하여 적의 화력거점을 파괴하고 계곡 양안으로 진출하는 아군 공격부대를 지원하라.
⑥ 제2전투공병대대 : 10월 5일까지 고방산리-이목정 간의 작전로를 개척한 다음 작전 진전에 따라 이목정-건솔리 간 수입천(水入川) 도로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제72전차대대의 본도 사용을 보장하라.

사단장은 이 작전을 아래와 같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제1단계 : 먼저 주공인 제23연대가 보전협동으로 931고지를 점령한다. 이와 동시에 공병은 이목정-새건배 도로를 개척한다.
② 제2단계 : 공병이 새건배-건솔리 간 도로를 개척한다. 제38연대는 도로 좌우변의 요충을 확보하여 공병작전을 엄호한다.
③ 제3단계 : 제72전차대대가 문등리로 돌진하여 적의 후방을 유린한다. 이와 동시에 제23연대는 851고지를 점령하고 제38연대는 전과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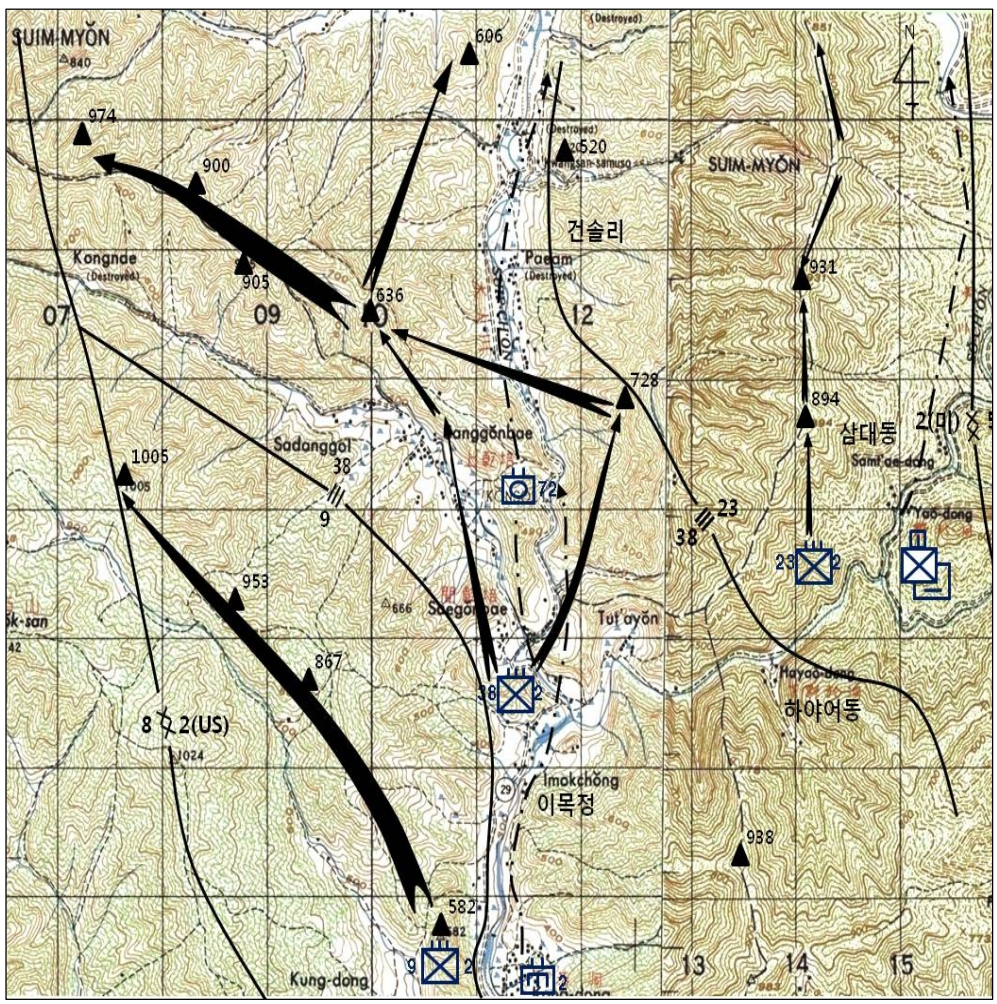
이 방침에 따라 작전준비에 착수한 각 부대의 작전 성공 여부는 도로개척에 있었다. 이 도로는 등외 도로로서, 굴곡이 심하고 습지를 통과하거나 깊은 계곡의 애로로서 노폭이 좁아 전차가 도로에 1대라도 정차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72전차대대의 전차(M4A3) 60대의 기동여부가 이 작전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때문에 사단장은 공병부대의 도로개척을 중시하였고, 포병도 전방으로 더 추진하여 연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207]

10월 5일 21시 30분에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어 약 300여 문에 달하는 사단 및 군단 포병이 적진을 강타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의 비행단도 문등리 계곡에 야간 항공폭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만 931고지에는 포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문등리 계곡에서 주로 화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제23연대는 이미 공격준비사격 실시 30분 전에 부대기동을 시작해 제2대대가 선두 공격제대로, 제3대대를 예비로 894고지에서 931고지를 향해 양공을 감행하였다. 제1대대는 북쪽의 851고지를 견제 공격하였다.

선두의 제2대대는 곧 적의 사격을 받았지만 적은 이 공격에 모든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었다. 사단 포병이 적의 박격포 진지를 공격하는 한편 대 박격포전을 전개하였고, 프랑스 대대가 북쪽에서 양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야음과 적의 산만함을 틈타 제2대대는 제3대대의 지원 하에 은밀히 931고지로 접근하였다. 적진에 도착한 제2대대와 제3대대는 화염방사기와 수류탄 그리고 소화기로 벙커 속의 적을 제압하고 10월 6일 03시경 931고지의 남쪽 절반을 점령하였다. 이들은 일출 무렵 고지 북쪽으로 올라온 프랑스대대와 연결하였으며, 정오 이전에 931고지

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제1단계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208] 이는 적의 전력분산과 협조된 기만작전, 그리고 기습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었다.

<상황도 5-11> 단장의 능선 제2차 공격계획(1951.10.5-10.13)



한편 제23연대의 931고지 공격 및 점령과 동시에 사단의 중앙 제38연대는 10일까지 새건배-문등리 간 도로 서측의 636고지와 605고지, 905고지를 점령함으로서 사단이 문등리 도로 축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단 공병대대

는 제38연대의 엄호 하에 7일부터 새건배-건솔리 간 도로개척 작전에 착수하여 9일까지 완료하였다. 서측방의 제9연대는 이목정 서측의 867고지를 확보한 다음 백석산 서북쪽의 1005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23연대는 서측방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지막 남은 851고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10일 제3단계 851고지 공격이 시작되었다. 먼저 851고지 서쪽에서는 제72전차대대가 제38연대 보병 L중대와 사단 공병소대로써 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여 문등리까지 진출하였고, 동측에서는 제23연대 전차중대와 프랑스대대의 보병과 공병으로 편성된 스트루먼 특수임무부대(Struman TF)가 사태리로 진입하여 851고지를 양측방서 차단하고 이 고지 공격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 무렵 적도 851고지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68군 제204사단과 제202사단 1개 연대가 오랜 전투로 피로에 지친 문등리-단장의 능선 상의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사단과 교대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었다.[209] 제72전차대대는 문등리를 넘어서자마자 불의에 중공군과 조우하였으며 즉시 이들에게 공격을 가해 큰 손실을 입힘은 물론 851고지 서측으로 이르는 적의 보급 및 보충선을 차단하였다. 적은 문등리 계곡이 개통되어 전차가 진입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210]

이런 가운데 제23연대는 851고지 공격을 실시하였다. 제1대대가 프랑스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선도하고 931고지의 제3대대는 제1대대 서측에서 기동했으며, 제2대대는 문등리 남쪽의 520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증원을 차단하는 한편 서측방에서 851고지를 공격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1대대와 프랑스대대는 적의 벙커를 파괴하며 조금씩 정상을 향해 전진하였으나, 북한군과 중공군은 죽거나 부상당할 때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3대대가 서측에서 851고지 공격에 가담하는 가운데 프랑스대대가 11일 야간에 제1대대를 초월해 전방으로 나서 10월 13일 동이 틀 무렵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211] 프랑스대대는 전면에서 적을 계속 압박하면서 야음을 이용해 북측으로 우회한 일부 병력이 배후에서 공격하였고, 적이 이에 대응하는 사이에 전면에서 일제히 돌격하여 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38연대도 사단 서측방에서 공격을 계속하여 네덜란드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974고지를 탈취하고 10월 15일 백석산과 어은산 중간지점의 1220고지까지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에 이어 9월 13일부터 1개월여의 혈전 끝에 단장의 능선을 탈취하고 전선을 1220고지-문등리-가칠봉(서측) 선까지 추진하였다.[212]

⑶ 전투 결과

'단장의 능선' 전투는 '피의 능선' 전투와 함께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유엔군의 하계 및 추계공세 기간 중의 전투 중 가장 격렬한 전투였다. 미 제2사단은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펼쳐진 이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북한군 제6사단과 제12사단, 그리고 제13사단은 물론 중공군 제204사단의 강력한 저항과 역습을 격퇴하고 목표고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

이후 사단은 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1951년 10월 18일 좌일선의 제38연대지역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스트루먼 특수임무부대와 제72전차대대가 사태리와 문등리의 양 도로를 확보한 가운데 제23연대와 제9연대로 851고지와 974고지 간의 전선을 강화하였다.

미 제10군단은 단장의 능선 전투를 끝으로 전선을 931고지(북한강 동쪽)-1090고지-851고지(문등리)-가칠봉-802고지-884고지(소양강계곡 동쪽) 선에서 정리하였고, 하계 및 추계작전에서 주 목표로 삼은 전선의 만곡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이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5-35>와 같다.[213]

<표 5-35> 전과 및 손실

전 과			손 실		
사살	살상(추정)	포로	전사	부상	실종
1,473	22,600	606	597	3,064	84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미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개된 유엔군의 하계공세는 접적지역인 캔자스-와이오밍선 일대에서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강요하는 제한목표공격작전이었다. 결과적으로, 제1단계 작전은 의도했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제2단계 작전은 단장의 능선과 1211고지 등의 확보에 실패하고 많은 인명 및 물자의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공산군에게 압력을 가해 회담을 촉진시키겠다는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휴전회담이 시작될 무렵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 제8군은 7월초에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9월 1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평양-원산 선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제압작전계획(Plan Overwhelming)'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휴전협상의 초기 시점에서 공산측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한편 공산군은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한 전력증강을 통해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반면에 유엔군은 정찰활동을 통한 포로획득의 부진 등으로 적정파악이 부실하였다. 또한 훈련도 군의 전의 고양과 활력을 불어넣기엔 한계가 있어 전투효율마저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적에게 혼란을 주는 반면 아군의 전선첨단을 강화하고 방어선의 취약부분 개선에 목적을 둔 제한목표공격작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의 방어개선을 위한 기본전략은 유엔군의 방어선 중 남쪽으로 쳐진 만곡부를 밀어올려 기복이 없도록 정리하고 아군 병참선과 캔자스선 방어에 위협을 주는 지형지물을 탈취하는데 있었다.

이 작전의 첫 번째 중점은 미 제8군의 방어선 중 가장 취약한 중동부지역의 미 제10군단 전선의 중앙과 해안분지(펀치볼) 북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만곡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와 협조된 작전으로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 방어선을 남강까지 추진한다. 둘째, 미 제9군단 정면의 금성분지를 점령하여 철의 삼각지를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함은 물론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확보한다. 셋째,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의 방어선을 10㎞ 정도 추진하여 연천-철원 간 철로를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철원-김화 철로와 연결시켜 서울-김화 도로는 물론 이 철로를 군 병참선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군은 방어선 개선목표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방어개념, 특히 와이오밍선에 대한 방어개념을 재정립하고 캔자스선과 같은 강도로 축성을 지시함으로써 방어선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전선의 군단은 와이오밍선에 주력부대를 배치하고 방어시설을 강화하였고, 캔자스선에도 예비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중으로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사령관은 이 작전에 국군을 투입하여 실전을 통해 전력을 향상하도록 지침을 부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향상방안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전장의 소강상태를 맞아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학교 및 훈련소의 복원과 확장을 추진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 그리고 이를 적극 뒷받침한 리지웨이 사령관의 노력과 함께 국군의 전력향상을 불러오는 전기가 되었다.

2. 작전의 주요 특징 및 요약

1) 전면공격과 제압작전계획

휴전회담이 개시될 무렵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유엔군은 캔자스-와이오밍선의 방어력을 강화하여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자세를 갖추면서 휴전회담의 추이에 따라 적응할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실시된 작전은 휴전협상의 타결

을 지원하고 아군의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적의 공세역량 축적을 거부하기 위한 균형파괴에 중점을 둔 제한목표공격작전이었다.

미 제8군은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을 섬멸하고 평양-원산선까지 점령할 대공격작전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제압작전계획(Plan Overwhelming)'이었다. 밴플리트 사령관은 적의 전력에 현저한 약점이 나타나거나 적이 북으로 철수할 경우 제8군의 임무가 현 전선에서의 방어가 아니라 공격작전으로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전력이 제8군에 지원될 경우 이 작전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대규모 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유엔군사령관의 불허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 작전은 원산에 상륙작전을 실시함과 더불어 캔자스-와이오밍 선에서 일제히 진격한다는 계획으로 유엔군이 중공군의 침략을 격퇴한 후 수립한 전면적인 공격작전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록 실행되진 않았지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적극 방어 전략과 지구전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휴전협상은 난항이 계속되던 중 공산측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선언으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협상의 목적이 의제의 조기타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담을 지연시키며 춘계공세 당시 입은 대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충하고 공세역량을 축적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려는 공산측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였다.

공산측은 군사적 우위확보에 기초하여 재공세를 실시하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이었다. 공산군은 병력은 우세하지만 화력이 열세하고 항공지원이 미진하여 대규모 공세작전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하여 유리한 지형에서 지구전을 실시하며 유엔군과의 전력비를 변화시켜 최종적으로 승리하거나 유엔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는 작전지도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군은 휴전회담으로 인한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방어선을 3중으로 편성하는 한편 유개화 및 엄체화하였고, 주요 화기와 장비를 전방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주요 지형지물에 연한 전초저항선을 설치하고 유엔군의 작전활동에 강력히 저항하였다. 결과적으로, 휴전협상은 공산군측에게는 전력복구와 지구전에 의한 승리획득의 한 방편일 뿐 협상의 조기타결이 목표가 아니었다.

3) 방어선 개선과 포복작전

미 제8군사령관은 기상조건으로 인해 중단했던 제한공격작전을 속개하면서 미 제10군단의 방어선 개선에 역점을 둔 작전을 실시하였다.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이라 명명된 이 작전은 해안분지(펀치볼) 공격의 전 단계로서 해안분지(펀치볼) 동측이자 서화계곡 동측의 884고지-924고지-1031고지로 이어진 '낚시 바늘(J Ridge)' 형상의 종격실 능선을 탈취하여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해안분지(펀치볼) 동쪽의 전선을 남강의 통제가 가능한 지역까지 밀어 올려 동측방에서 해안분지(펀치볼)를 압박하는 작전이었다. 또한 포복작전과 연계하여 해안분지(펀치볼) 서측에서도 공격작전을 전개함으로서, 이 작전은 해안분지(펀치볼) 북측 능선을 점령하기 위해 우익뿐 아니라 좌익의 고지군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미 제8군이 포복작전을 준비할 무렵 신캔자스선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과 함께 포복작전에 참여하여 부여된 임무인 '낚시 바늘 능선'의 줄기와 머리에 해당하는 924고지와 884고지를 탈취함으로써 서화계곡의 도로망을 확보하여 해안분지(펀치볼)의 동측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미 제8군의 작전에 기여함은 물론 군단의 서측 방어선을 남강까지 끌어올릴 기회를 마련하였다.

(집필 : 손규석)

주(註)

1) 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경기도』(서울: 평화당, 1989), 22쪽.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백마고지전투』, 1984, 20쪽.

3) 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강원도』(서울: 평화당, 1988), 174-175쪽.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양구전투(피의 능선·단장의 능선 전투)』, 1989, 8쪽.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 1990, 14-15쪽.

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172-173쪽.

7) 위의 책, 178쪽

8) 이러한 방식의 실행은 종심배비,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견고한 진지구축, 소수병력에 의한 전연(前沿)진지 방어, 저항과 반격에 의한 적군의 소모 살상을 의미한다. 즉, 공격을 받으면 방어선을 상황에 따라 이동하되, 호기를 포착하면 역습을 통해 적을 소모시키고 시간을 획득하고 적이 어느 정도 약해지면 취약점을 선택하여 공세반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173-175쪽.

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7 :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3, 1981, 32쪽.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33쪽.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847-851쪽;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348-353쪽.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2010, 157, 235쪽

14) 최고사령부는 9국 1부, 총참모부는 5부 8국으로 운용되었다. 편제를 보면, 최고사령부는 총정치국, 인사국, 군사교육기관국, 전투준비태세국, 재정국, 군사연락국, 군검사총국, 군사재판총국, 방첩국과 포병장비주문통제부이고, 총참모부는 작전부, 정찰부, 통신부, 조직동원 및 충원부, 전쟁경험연구부와 암호국, 지형국, 기밀국, 재정국, 정치국, 유격대활동지도국, 대공방위국, 군사출판국, 그리고 위수사령부와 위생부대 등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2001, 210-215쪽.

15)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조중연합사령부에 이양한 김일성은 정전시까지 자신의 군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는 명목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책, 235쪽.

16)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46-14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73쪽.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63-64쪽.

18)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46-149쪽; 『소

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3], 2001, 252-255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39-141쪽;

19)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005, 572쪽;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121-134, 175-177쪽.

20) 이들 전투사단 및 여단 중 51개 사단은 중공군, 23개 사단과 4개 여단은 북한군이었다.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1쪽.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146-147쪽;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 2001, 73-74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39-140쪽.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3], 2001, 73-75쪽.

23)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4쪽. 이와는 달리, 중국측의 자료는 중공군 77만 여명과 북한군 34망 여명 등 총 112만 여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169쪽.

24)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2쪽.

25) 1951년 10월 14일 북한군 전선참모부 군사회의록에는 "각 군단은 7일간의 예비식량만을 보유하고 있고, 소금 예비량은 일부 군단에서 완전 바닥났다. 일부 전사들은 4월부터 군화를 보급 받지 못해 짚신을 신거나 최악의 경우 맨발로 다닌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 2001, 205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1-142쪽.

26)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0.

27)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p. 80-81.

28)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1.

29) GHQ, EUSAK, Command Report, July 1951, pp. 69, 81.

3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99-100쪽.

31) GHQ, EUSAK, Command Report, July 1951, p. 72.

32) GHQ, EUSAK, Command Report, Aug. 1951, pp. 62-66.

33)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p. 24-26.

34) 육군작전교육국, 「정기작전보고 제169호」(4283. 7. 1); General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No. 372, from 0001k to 2400k 1 July 1951.

35) HQS, XCorps, Command Report, 1 June to 30 July 1951, pp. 5-8(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D 01541).

36)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43. 공산군측이 추정한 국군 및 유엔군의 병력은 국군 250,000명, 미군 220,000명, 기타 유엔군 35,500명으로 총 505,000명이었다.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3쪽.

37)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3-144쪽.

3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5쪽.

39)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3쪽.

4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27쪽.

41) 국군 수도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41호」(1951. 8. 16, 07시); 「수정작전지시 제9호」(1951. 8. 17, 13시)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806쪽.

42) 국군 수도사단 제26연대, 「작전명령 제20호」(1950. 7. 31, 20시).

4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79-980쪽.

4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81쪽.

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79쪽.

4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78쪽.

4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80-981쪽.

4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32-533쪽.

4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84-985쪽.

5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35-536쪽.

5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87쪽.

5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804쪽.

5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988쪽.

5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42), 1986, 808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42쪽.

5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60), 1987, 137쪽.

5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44-545쪽.

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60), 1987, 137-138쪽.

5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70쪽.

59) 군단 작명에 부여된 사단의 임무는 첫째, 군단의 중앙 제1선으로 진격하면서 당면의 적을 격멸하고 아울러 캔자스선상의 감제요충인 884고지-591고지 일대를 장악함으로써 동 선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고, 둘째, 목표 북쪽의 적 주보급로인 고성-사천리-인제간 453도로를 감제하여 적선의 북상을 강요하는 동시에 펀치볼의 포위태세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한국

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45쪽.

60) 국군 제11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6호 수정지시 제8호」(1951. 8. 16, 17시).

6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46-547쪽.

6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49쪽.

6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48-549쪽.

6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72쪽.

65)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51쪽.

6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정기작전보고서(1951. 8. 20~9. 30)』(25), 1987, 43쪽.

6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52쪽.

6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60), 1987, 136쪽.

6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60), 1987, 138-139쪽.

7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57쪽.

7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60), 1987, 139-155쪽.

7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59쪽.

7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 노전평전투』(서울: 해동문화인쇄사, 1992), 4-6쪽.

7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53-455, 579-580쪽.

7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294-295, 394-396쪽.

7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 노전평전투』, 1992, 15-17쪽.

77)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31호」(1951. 8. 8, 12시).

7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312-314쪽.

7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314-415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18-519쪽.

8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316-317쪽.

8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341-342쪽.

8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81-484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62쪽.

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79-480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62-563쪽.

8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395-396쪽.

8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17쪽.

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23-424쪽.

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27-428쪽.

8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30쪽.

8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33-434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68-569쪽.

9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36-438쪽.

9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93쪽.

9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96-598쪽.

9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18쪽.

9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19-520쪽.

9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43-547쪽.

9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25-526, 536-537쪽.

9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49-550쪽.

9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19쪽.

9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31-532, 541-542쪽.

10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33-534, 554-555쪽.

10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557-560쪽.

102) 이러한 조치에 대해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미군의 출혈을 피하기 위해 한국군만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밴플리트 사령관의 의도는 중공군의 제1, 2차 춘계공세 당시 적의 주공이 한국군 정면에 지향된 것을 고려하여 한국군의 전투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다.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4.

103)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216호」(1951. 8. 1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73쪽에서 재인용.

104)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9호」(1951. 8. 15).

10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21-822쪽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양구전투』(서울: 서라벌인쇄, 1989), 8쪽.

10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76쪽에서 재인용.

10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29-831.

10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05-806쪽.

11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06-807쪽.

11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08-809쪽.

11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84-585쪽.

11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09쪽.

11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09-810쪽.

11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11쪽.

116)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5.

11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13-814쪽.

118)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사단 작전지시 제42호를 하달하여 제35연대를 1951년 8월 27일 24시부로 미 제2사단에 배속과 동시에 제36연대의 작전임무를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587쪽.

11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27쪽.

120)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5.

121)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6.

12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28쪽.

12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823-825쪽.

124)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6.

125)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5.

126)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1953, 104쪽.

127)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 1961, 77쪽.

12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652쪽에서 재인용.

129)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1953, 105쪽.

13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32-133쪽.

131)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 1961, 78쪽.

132)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1953, 106쪽.

13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655쪽.

13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656-657쪽.

135)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6권(제한전선의 격동기), 1973, 657쪽.

136)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1953, 107쪽; 『해병발전사』, 1961, 78쪽.

137)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1953, 107쪽; 『해병발전사』, 1961, 107쪽.

138)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5.

139)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45호」(1951. 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43쪽에서 재인용.
14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27연대, 제35연대)』(51), 1986, 412-413쪽.
14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27연대, 제35연대)』(51), 1986, 493-494쪽.
142)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47호」(1951. 9. 5).
143)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3호」(1951. 9. 6, 20;00).
14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46쪽.
145) 보병 제5사단 제27연대본부, 「작전명령 제37호」(1951. 9. 9).
14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27연대, 제35연대)』(51), 1986, 443쪽.
147)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48호」(1951. 9. 9).
14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40쪽.
149)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50호」(1951. 9. 14, 12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27연대, 제35연대)』(51), 1986, 483-484쪽.
15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0쪽.
151)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51호」(1951. 9. 16).
15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40-141쪽.
153)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52호」(1951. 9. 18).
15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42쪽.
155)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53호」(1951. 9. 19).
15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6쪽.
157)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56호」(1951. 9. 22).
15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43쪽.
159)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58호」(1951. 9. 26),
160) 보병 제5사단 제35연대본부, 「작전명령 제72호」(1951. 9. 28).
16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161쪽.
16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65쪽.
163)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61호」(1951. 10. 1).
16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66-67쪽.
16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162-163쪽
166)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63호」(1951. 10. 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164쪽
167)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65호」(1951. 10. 5).
16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72쪽.
169) 보병 제5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66호」(1951. 10. 9).
17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27연대, 제35연대)』(51), 1986, 469쪽; 『한국

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52), 1987, 172쪽.

17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91쪽.

17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110쪽.

17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68-670쪽.

17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324쪽.

17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38-639쪽.

1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백석산전투』, 1990, 15-17쪽;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37쪽.

17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91쪽.

178) 보병 제7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19호」(1951. 9. 23, 08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91-94쪽.

179) 보병 제7사단 제8연대본부, 「작전지시 제45호」(1951. 9. 22, 12시).

18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95쪽.

18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51쪽.

18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333쪽.

1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333쪽.

184)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47호」(1951. 9. 29, 12시).

18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46-647쪽.

1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55쪽.

1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57쪽.

18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54쪽.

18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58-659쪽.

19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60쪽.

19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112쪽;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665-666쪽.

192)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이라는 명칭은 이 전투에서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해 심장이 찢어질 듯한 참상을 목격한 연합통신 특파원 스탠 카터(Stan Carter)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heartbreak!(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데서 비롯되었다.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6.

193)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8.

194)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98.

19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191-192쪽, 중공군 제68군은 1951년 10월 8~10일에 북한강 동안과 문등리 계곡으로 투입되어 전력이 약화되고 피로에 지친 북한군 제5군단과 교대하였다;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98.

19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200쪽.

197)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8-89.

198)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9.

199)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89-90.

200)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90.

201)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91.

202)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p. 90-91; 국방군사연구소,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사료 856, pp. 62-72.

203)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92.

20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220쪽.

205)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92.

206) 이 작전명령은 'Touchdown'이란 암호명으로 하달되었다. 이는 "럭비시합에서 공을 상대방 골라인 뒤쪽 땅에 대다"는 뜻으로 이번 작전이 기동개념을 여기에 비겨 붙여진 이름이었다.

207)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92-93.

208)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95.

20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191쪽;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사료 No. 856, p. 49. 북한군 제5군단은 1951년 10월 중순까지 심대한 손실을 입어 중공군 제68군에 의해 교대되었다. 이들은 고원-영흥-함흥지역으로 이동해 재편성 및 해안방어를 담당하였다.

21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192쪽, 중공군 제68군은 미군의 상황과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으로부터 방어임무의 인수를 완료하였을 시점엔 미군이 진지 6㎞전방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211)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96.

212) 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10월 18일부로 1220고지는 국군 제8사단으로 인계되었다.

21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240쪽.



제 6 장 유엔군의 추계 및 동계작전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유엔군의 추계작전
제 3 절	유엔군의 동계공세 및 공비토벌작전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개 요

1. 전선상황 요약

1) 추계작전

1951년 봄 피아의 주력이 대결했던 이른바 춘계공방전을 통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6월 중순 캔자스-와이오밍 선까지 진출하였으나, 7월 10일에 개막된 휴전회담과 더불어 일단 추격을 중단하고 대체로 간성-한계리-양구-백암산-임진강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한 후 정치협상의 동향을 주시하며 확보진지의 보강과 주진지 전방의 주요 고지에 대한 타격전만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40여 일에 걸쳐 진행된 정치회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적은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부진한 회담은 마침내 8월 24일을 기해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유엔군 당국은 명예로운 종전과 안전한 전선의 확보를 위해 8월 하순부터 위력수색을 강화하면서 경화된 전국의 타개책을 모색하였다. 대다수의 일선 지휘관들은 강화되는 적진에 대한 제한공격을 건의하였고, 또한 회담이 타결되어 비무장지대의 설정을 고려할 경우 현 전선의 확보를 위해서는 5㎞ 이상의 진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전양략(停戰兩略)의 이점까지 감안해 공격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1951년 10월초부터 10월 하순까지 전개된 추계공세작전으로서 휴전선 부근에 새롭게 형성된 전선에서의 전면공세였다.

이 작전의 결과, 수도사단과 제11사단으로 편성된 국군 제1군단은 북한군 제6군단을 상대로 남강 이남의 금성을 완전 장악하였고, 특히 수도사단은 전선 동측

의 요충인 월비산을 탈취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3사단과 제2사단 그리고 미 제2사단으로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을 공략하였고, 미 제9군단은 국군 제2사단과 제6사단 그리고 미 제24사단으로 금성분지를 제압하였으며, 미 제1군단은 코만도(Commando)작전을 전개해 제임스타운(Jamestown)선까지 약진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추계공세작전의 성공으로 요지 확보와 함께 휴전회담의 속개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동계작전

1951년 9월과 10월에 걸쳐 단행된 일련의 제한작전을 통해 월비산-헤이즈(Hays)선-개리(Gary)선-폴라(Polar)선-제임스타운(Jamestown)선을 차례로 점령한 국군과 유엔군은 보다 유리한 지형에 따라 전선을 정제할 수 있었다. 10월 25일 휴전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유엔 당국과 미국은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진격을 중단하고 전선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지상전은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포기한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새로운 대진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의 아군 작전은 진지를 강화하고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세방어'로 전환하였다.

한편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정체하자 공산군은 휴전협상의 기간을 지체하면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려 시도하였고, 그들의 진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따라서 전선은 피아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연일 수색전과 전초진지 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양상도 더욱 치열해졌다.

작전기간 동안 국군 제11사단이 치른 제2차 월비산 전투와 제6사단의 949고지 전투는 아군이 전선을 정리하다 적의 집요한 저항에 직면했던 전투였고, 제9사단의 281고지와 395고지 전투, 제7사단의 암동과 1090고지 전투, 제3사단의 662고지 전투, 제1사단의 두매리 부근 전투들은 전초진지 공방전이었다.

한편 아군 지휘부는 서남지구에서 출몰하는 공비들을 격멸하기 위해 수도 및 제8사단을 후방작전에 전용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작전지역의 특징

1951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펼쳐진 유엔군의 추계 및 동계 작전은 주로 임진강-문산-전곡-운천-화천-양구-간성을 연하는 선의 남북지역이 주 무대였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역으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고서저의 지세를 보여주고, 작전이 진행된 가을철의 기상조건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시계의 제한을 주지 않았으나, 겨울철에는 많은 적설량과 혹한으로 부대의 기동 등 작전수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대략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작전지역은 전반적으로 공자에게 불리하고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서부지역

김포반도로부터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서(以西)지역을 아우르는 서부지역은 대체로 표고 100m 내외의 구릉과 비옥한 충적토, 간석지, 갯벌, 해안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임진강 북쪽의 개성 고지군과 임진강 남쪽의 파평산과 감악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하천은 경기 북부를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예성강과 마식령 부근에서 발원하여 파주를 지나 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임진강, 강원도 및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서해안으로 접어드는 한강이 있다.

지역 내의 주요 도시는 개성과 문산, 적성, 연천, 전곡 등으로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철로와 도로망이 종횡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주요 철로와 도로는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와 함께 개성-문산-서울을 잇는 1번 도로, 연천-동두천-의정부를 연결하는 3번 국도가 남북으로 그리고 문산-법원리-동두천을 잇는 도로가 동서로 발달되어 있어 차량 및 전차의 기동이 가능하였다.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가을철인 10~11월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시계의 제한을 주지 않았고, 기온과 풍속 및 풍향도 작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동계작전이 진행되던 12월은 강추위를 동반한 북풍과 적설로 작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서부지역은 습지와 하천, 갯벌 등의 천연장애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나 종횡으로 발달된 도로망과 비교적 낮은 고지 사이로 발달된 개활지는 공격에 유리하였고, 특히 서울에 이르는 최단거리 접근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의 이동(以東)으로부터 북한강 서안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지세는 고지대의 경우 표고 400~800m의 고지군과 계곡이 어우러져 기복이 심하고 삼림이 울창한 반면 논과 밭이 산재한 저지대는 표고 100~200m의 기복이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지로 철원-김화평야가 대표적이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철원-김화평야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서방산과 효성산, 오성산, 교암산 등이, 그리고 남쪽에는 대성산, 적근산, 백암산, 금학산, 고대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강과 하천은 연천 남부를 흘러 임진강과 합류하는 한탄강과 평강지역에서 발원하여 395고지를 남쪽으로 감돌아 다시 서쪽으로 흐르는 역곡천, 그리고 금성 북방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북한강과 합류하는 금성천 등이 있다.[1] 지역 내에는 평강과 김화, 철원, 포천 등의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는 서울-원산 간 3번 도로와 포천-의정부를 잇는 43번 도로 등이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또한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서부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추계작전에 비해 동계작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종적으로 발달된 고지군 사이에 비교적 양호한 다수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연계가 불리한 반면 기계화부대의 운용에는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3) 중동부지역

중동부지역은 북한강 동안으로부터 태백산맥 북부지역을 아우르며,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표고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협소한 계곡과 경사도가 높은 이 지역의 주요 고지는 어은산과 삼각산, 가칠봉과 백석산, 대우산과 대암산 등으로서, 직경 15~20cm 정도의 소나무와 잡목 그리고 잡초와 칡덩굴 등이 뒤섞여 우거져 있는 울창한 삼림지대이다. 주요 강과 하천은 북한강 상류가 동북쪽에서 서남 방향으로 흐르며, 문등리 계곡을 따라 흐르는 수입천과 사태리 계곡의 소하천, 그리고 군량천 등이 화천저수지나 소양호로 흘러드는데,[2] 하천의 유속이 빠를 뿐 아니라 강우시에는 하천의 깊이와 폭이 불시에 증가한다.

작전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인제와 원통 그리고 양구와 화천 등이고,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간성-인제-홍천-서울 간 44번 도로가 동서로, 화천-춘천-홍천 간 5번 도로와 양구-춘천-가평 간 46번 도로 그리고 인제-현리-홍천을 잇는 451번 도로가 남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는 굴곡과 함께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악 단차로로서 차량 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작전기간 중 지역의 기상조건은 산악지대의 지세적인 특징과 내륙인 관계로 한서의 차가 심해 겨울철은 몹시 춥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연평균 12.3℃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32℃이다.

결론적으로, 중동부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불규칙한 지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쪽과 서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을 비롯한 각종 천연장애물이 산재해 있고, 종적 및 횡적인 도로망이 제한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격에 불리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4) 동해안지역

태백산맥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은 서부의 경우 태백산맥에 연하여 표고 1,000~1,700m의 높은 산지가 주능선을 이룬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동부해안지대는 모래해안이 주를 이루며 내륙은 150m 이하의 구릉과 야산이 동해와 접하고 있다. 지역 내의 주요 고지는 북쪽의 적벽산과 월비산, 351고

지 등과 남쪽의 고황봉과 339고지, 향로봉과 건봉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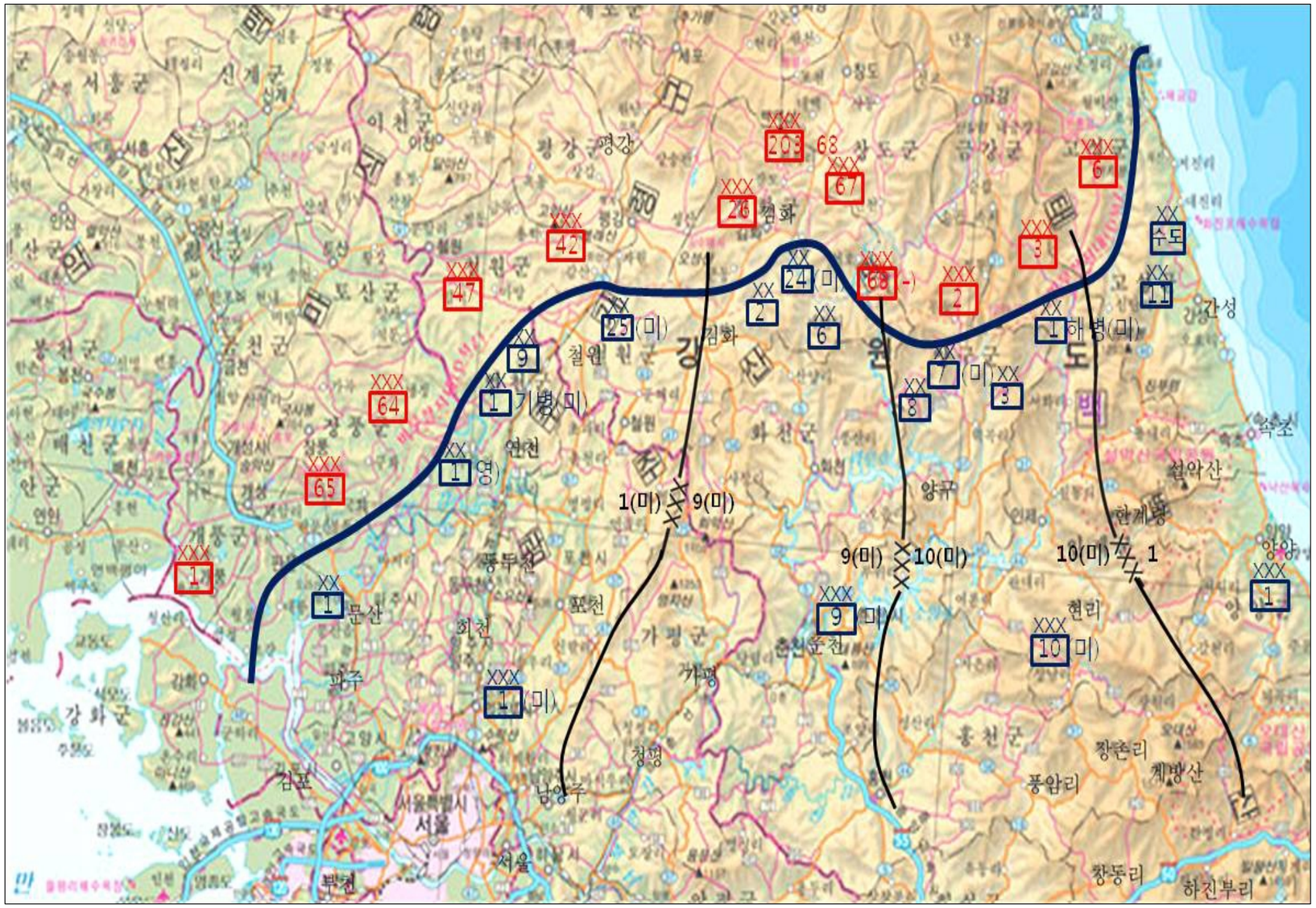
주요 하천은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은 남강이 있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 신탄리 부근에서 다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성 근처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강폭은 평균 60~80m이나 수폭은 대략 20m 내외이며, 유속은 초속 1.8m로 기갑 및 차량부대의 기동을 제한하지만 도보부대의 도섭은 가능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의 주요 거점도시는 고성과 통천 그리고 간성과 거진 등이며, 도로망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7번 도로와 강정-남강-사기점을 잇는 7002번 도로가 있다. 동해안 일대는 비교적 개활한 지형으로 도로망이 다소 발달되어 있으나, 내륙쪽은 험준한 지세로 인해 인마의 통행이 가능한 산간소로 밖에 없고 우마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어 작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작전기간 중 이 지역의 기상조건은 산악지역 특성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뿐 아니라 적설과 강추위로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발달된 횡격실 능선과 종적 도로망의 제한, 협소한 기동공간 등으로 인해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특히 해상과 산악지역을 통한 특수전 부대의 침투 및 상륙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상황도 6-1> 1951년 10월 피아 전선 배치 상황(1951.10.31)



제 2 절 유엔군의 추계작전

1. 상황평가 및 의도

1) 공산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중공군 지휘부는 휴전회담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연합병종작전의 수준을 향상시켜 지구작전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양측의 전황을 근거로 대규모의 기동전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 진지전의 전쟁형식은 더욱 분명해져 진지공격과 진지방어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역설하였다.[3] 또한 방어작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극방어와 계속반격을 실시하고, 끊임없는 진지반격 및 소규모공격 형태를 채택하여 침범 또는 돌출된 적을 섬멸함으로서 적군을 보다 많이 살상하고 시간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침을 확정하였다.[4]

① 제1선 부대는 예상되는 적의 공세를 물리칠 준비를 하면서 수시로 소규모로 교란하는 적을 섬멸할 준비를 한다. 동시에 적의 돌출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견고한 적의 진지에 대한 공격작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되. 이러한 공격마다 미군 1개 중대~대대급 병력을 섬멸하고 견고한 진지에 대한 공격전투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② 정면전선으로부터 공격하거나 동서해안에서 상륙하는 적군을 격퇴하기 위해 전군은 방어진지의 강화를 전략과제로 삼아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 진지의 공사를 보다 강화하고 또한 동서해안의 종심방어 공사와 제3방어선 구축공사에 착수한다.

③ 중간수송선을 강화하고 원활한 보급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전군은 즉시 양덕-곡산-이천선, 양덕-마전리-가려주-세포리선, 시변리-남천점과 시변리-수안, 시변리-오리정-삭녕선, 세포리 동부지역선, 이천-옥동리선 등 일부 전략적인 도로의 보수에 착수한다.

(2) 작전계획

중공군은 작전방침에 따라 장기전과 진지전 사상을 확립하고, 제1선부대의 소규모 작전을 적극 진행함과 동시에 진지 구조물을 강화하면서 동서해안의 해안방어에도 중점을 두었다. 유엔군의 측후방 상륙공격에 대한 방어는 유엔군의 해·공군력 우세와 상륙작전에 대한 경험들을 고려할 때, 중공군 전략지도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한반도 동서해안의 방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해안방어의 작전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5)]

"현재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동서해안의 방어이다. 적의 가능한 상륙을 방어하고 동서해안 측후방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해상에서 막아야 하고, 적의 어떠한 상륙 시도도 분쇄해야 한다. 반드시 해안을 방어하는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에 의거해 적을 해상에서 강력하게 저지하면 우리의 정면 주력 진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하라. 따라서 적이 상륙하도록 하거나 또는 적을 깊숙이 유인한 후 섬멸한다는 방침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중공군 지휘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부대 배치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6)]

① 화북지역에서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제11군단과 제16군단 중 제16군단의 1개 사단으로 함흥지역의 해안방어를 강화하고, 제9병단에 배속시켜 북한군과 합동으로 함흥과 흥남지역 해안방어 임무를 담당토록 한다.

○ 제16군단(-)은 퉁화(通化)지역으로 이동하여 부대 휴식 및 정비를 실시하며

명령에 대기하다 함흥지역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역 작전에 증원된다.

- ㅇ 제11군단은 평청(鳳城)과 안둥(安東) 일대로 이동하여 정비와 훈련을 진행하며 대기하다 서해안에 긴급 상항이 발생하면 서해안 작전에 증원된다.

② 동해안 고성, 원산, 함흥을 연하는 선의 해안방어작전 준비와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고성과 원산지역의 북한군 제7군단과 함흥지역의 북한군 제46사단을 제9병단에 배속시킨다.

- ㅇ 기동력 강화를 위해 제27군단이 입북한 후 영흥과 고원지역에 집결하여 정비와 훈련을 진행하며 함흥지역의 북한군과 긴밀히 연락한다.
- ㅇ 제9병단장에게 적의 상륙을 저지하는 모든 책임을 일임한다.

③ 서해안의 해상방어작전을 위해 서해안방어사령부를 조직하고 제38, 제39, 제40, 제50군단과 북한군 제14, 제105사단이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이를 토대로 중공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동서해안을 통일 지휘할 수 있는 연합지휘체계의 수립에 관해 김일성과 논의한 끝에 동서해안 연합지휘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진지공격과 진지방어를 위한 전장 배치의 전면적인 조정을 지시하였다.

① 제65군단은 개성 중립지역의 공격방지와 안전보장을 담당한다. 또한 개성방어를 담당한 제47군단과 북한군 제1군단의 각 1개 사단은 원 편제로 복귀한다.
② 북한군 제6군단은 제3군단의 방어임무를 담당한다.
③ 제20병단 제67군단은 제9병단 제27군단의 금성지역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제27군단은 마전리와 양덕지역에서 휴식 및 부대정비와 함께 동해안방어의 제2제대 임무를 수행한다.
④ 제20병단 제68군은 북한군 제5군단의 방어임무를 담당한다.
⑤ 주요 방어정면의 제1제대 부대에 2~3개 유탄포병연대, 로켓포병연대 및 대전차포병연대, 탱크연대를 각각 증원한다.[7]

이와 같이 공산군은 진지공격과 진지방어 사상의 제안, 적을 해상에서 저지한다는 해상방어방침의 확립, 그리고 동서해안의 연합지휘기구의 조직과 전장배치의 전면적 조정 등을 통해 전장의 작전에 필요한 전략적인 준비를 완료하였다.

⑶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가) 지휘체계

중공군사령부는 예하에 3개 사령부(후방근무・공군・전방철도운송사령부)와 3개 지휘소(포병・공병・장갑병지휘소), 그리고 5개 병단(제3・제9・제19・제20・제23 병단)과 6개 직할 군을 두었고, 이들은 총사령관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있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국경 안의 모든 작전과 이에 관계되는 업무를 통일 지휘하기 위해 '조중연합사령부'를 편성하고 중공군은 물론 북한군 및 모든 유격부대들을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하에 두었다.[8] 따라서 모든 작전은 이 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는 중공군 각 병단과 북한군 전선사령부에 대한, 그리고 각 병단사령관은 예하의 각 군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전쟁 전반을 지휘 및 통제하는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를 설치하고 예하의 전선사령부를 비롯한 해군사령부 및 공군사령부와 포병사령부, 그리고 후방행정사령부와 정치국을 관장하였다.[9] 그러나 전선작전의 총괄을 담당한 전선사령부의 작전에 관한 지휘 및 통제는 조중연합사령부에 있었다. 제1선에 배치된 4개 군단 다시 말해, 제2・제3・제5・제6군단은 전선사령부, 그리고 주로 해안방어임무를 담당한 제1・제4・제7군단의 3개 군단은 새로 조직된 동해안방어사령부와 서해안방어사령부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았다.[10]

한편 북한군은 전쟁 전반을 지휘 및 통제하는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를 설치하고,[11] 예하의 전선사령부를 비롯한 해군사령부 및 공군사령부와 포병사령부, 그리고 후방행정사령부 등을 관장하였다.[12] 그러나 전선작전의 총괄을 담당한 전선사령부의 작전에 관한 지휘 및 통제는 연합지휘체인 조중연합사령부에 있었다. 제1선에 배치된 4개 군단 다시 말해, 제2・제3・제5・제6군단은 전선사령부, 그리고 해안 등 후방지역의 방어임무를 담당한 제1・제4・제7군단의 3개 군단은 최고사령부의 직할로 직접적인 지휘 및 통제를 받았다.[13]

(나) 전투편성

공산군의 전투편성은 대체로 3각 개념에 의해 편성되는데, 중공군은 3개 사단으로 편성된 군단급 부대인 군(軍)이 작전의 기본단위이고, 전투단위는 3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로 편성된 연대급 부대인 단(團)이다. 일반적으로, 보병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포병대대, 박격포대대, 공병중대, 수색중대, 경비중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구성되었으며, 장교 1,500여 명을 포함한 10,000~12,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다. 또한 주로 병단에 배속되어 운용된 포병사단은 3개 포병연대와 고사포대대, 공병대대, 경비대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고, 1,100여 명의 장교를 포함한 9,0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57~155㎜ 곡사포 108문과 37㎜ 고사포 12문을 편제하고 있었다.

작전기간 중 중공군사령부는 제3병단과 제9병단, 제19병단과 제20병단, 그리고 제23병단과 함께 사령부로 전환된 제13병단을 관장하고 있었다. 병단별 편성을 보면, 후방지역 특히 서해안 방어임무를 담당한 사령부 직할(제13병단)은 제38·제39·제40·제42·제50군과 제19병단에 배속된 제47군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공군의 총 예비대임무를 담당한 제3병단은 제12·제15·제60군으로, 서부전선을 담당한 제19병단은 제63·제64·제65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중동부전선을 담당한 제9병단과 제20병단은 제20·제26·제27군과 제67·제68군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 내 비행장 건설임무를 담당한 제23병단은 제36군과 제37군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각 군은 예하에 3개의 사단을 편성하였는데, 각 군의 사단 편성은 <표 6-1>과 같다.

<표 6-1> 중공군 전투서열

병 단	군(군단)	사 단	비 고
중공군사령부 직할	제38군	제112·제113·제114사단	
	제39군	제115·제116·제117사단	
	제40군	제118·제119·제120사단	

	제42군	제124 · 제125 · 제126사단	
	제47군	제139 · 제140 · 제141사단	제19병단 예속
	제50군	제148 · 제149 · 제150사단	
제3병단	제12군	제31 · 제34 · 제35사단	중공군 총예비대
	제15군	제29 · 제44 · 제45사단	
	제60군	제179 · 제180 · 제181사단	
제9병단	제20군	제58 · 제59 · 제60사단	
	제26군	제76 · 제77 · 제78사단	
	제27군	제79 · 제80 · 제81사단	
제19병단	제63군	제187 · 제188 · 제189사단	
	제64군	제190 · 제191 · 제192사단	
	제65군	제193 · 제194 · 제195사단	
제20병단	제67군	제199 · 제200 · 제201사단	
	제68군	제202 · 제203 · 제204사단	
제23병단	제36군	제106 · 제107사단	태주 · 박천 지역 비행장 건설
	제37군	제109 · 제110사단	

한편 중공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은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펑더화이(彭德懷)를 비롯하여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인 덩화(鄧華)와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 한셴추(韓先楚), 천경(陳賡), 그리고 참모장인 셰팡(解方)과 정치부주임인 두핑(杜平) 등이었다. 예하 사령부 및 지휘소의 주요 지휘관은 지원군 사령부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가 후방근무사령관을 겸임하였고, 공군사령관 류전(劉震), 전방철도운수사령관 허친녠(賀晉年), 포병지휘소 주임 쾅위민(匡裕民), 공병지휘소 주임 천정펑(陳正峰), 장갑병지휘소 주임 황후시안(黃鵠顯) 등으로서, 다음의 <표 6-2>와 같다.

<표 6-2> 중공군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중공군사령부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덩화(鄧華)	부정치위원 겸임
		천경(陳賡)	
		쑹스런(宋時輪)	
		홍쉐즈(洪學智)	
		한센추(韓先楚)	
	참모장	세팡(解方)	
후방근무사령부	사령관	홍쉐즈(洪學智)	중공군부사령관 겸직
	정치위원	저우춘췐(周純全)	
공군사령부	사령관	류전(劉震)	
	참모장	션치쉬엔(沈啓賢)	
철도운수사령부	사령관	허친넨(賀晉年)	
	정치위원	장밍웬(張明遠)	
포병지휘소	주임	쾅위민(匡裕民)	
공병지휘소	주임	천정펑(陳正峰)	
장갑병지휘소	주임	황후시안(黃鵠顯)	전차 제1사단장 겸직

각 병단의 장은 제3병단장 천껑(陳賡), 제9병단장 쑹스런(宋時輪), 제19병단장 양더즈(楊得志), 제20병단장 양청우(楊成武), 그리고 제23병단장 동지우(董其武)이며, 이 밖의 주요 지휘관은 <표 6-3>과 같다.

<표 6-3> 중공군 병단별 지휘부 편성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제3병단사령부	사령관	천경(陳賡)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왕진산(王近山)	
	참모장	왕윈루이(王蘊瑞)	
제9병단사령부	사령관	쑹스런(宋時輪)	정치위원 겸임
	부사령관	타오용(陶勇)	
	참모장	탄젠(覃健)	
제19병단사령부	사령관	양더즈(楊得志)	
	부사령관	게얀춘(葛晏春)	
	참모장	쩡웨이산(鄭維山)	부사령관 겸임
	정치위원	리즈민(李志民)	
제20병단사령부	사령관	양청우(楊成武)	
	참모장	샤오원쥬(蕭文玖)	
	정치위원	장난셩(張南生)	
제23병단사령부	사령관	동지우(董其武)	
	부사령관	볜장우(邊章伍)	
	정치위원	가오커린(高克林)	

각 병단 중 제1선에 배치된 병단의 주요 지휘관을 살펴보면, 제9병단은 제20군장 장이샹과 참모장 위빙후이, 제26군장 장런추와 정치위원 리야오원 그리고 제27군장 펑더칭과 정치위원 쩡루칭이고, 제19병단은 제63군장 촨충삐와 정치위원 롱다오췐, 제64군장 쩡쓰위와 정치위원 왕자오 그리고 제65군장 샤오잉탕과 왕다오방, 제20병단은 제67군장 리샹과 정치위원 쾅풍자오, 제68군장 천팡런과 정치위원 리청뤼이다.

<표 6-4> 중공군 제1선 병단별 주요 지휘관

병 단	군(군단)	직 책	성 명	비 고
제9병단	제20군	군 장	장이샹(張翼翔)	정치위원 겸임
		참 모 장	위빙후이(兪炳輝)	
	제26군	군 장	장런추(張仁初)	
		참 모 장	펑딩란(馮鼎蘭)	
		정치위원	리야오원(李耀文)	
	제27군	군 장	펑더칭(彭德淸)	
		참 모 장	리위안(李元)	
		정치위원	쩡루칭(曾如淸)	
제19병단	제63군	군 장	촨충삐(傅崇碧)	
		참 모 장	두위화(杜瑜華)	
		정치위원	롱다오췐(龍道權)	
	제64군	군 장	쩡쓰위(曾思玉)	
		참 모 장	마웨이화(馬衛華)	
		정치위원	왕자오(王昭)	

	제65군	군 장	샤오잉탕(簫應棠)	
		참 모 장	루안핑(阮平)	
		정치위원	왕다오방(王道邦)	
제20병단	제67군	군 장	리샹(李湘)	
		참 모 장	류슈(劉蘇)	
		정치위원	쾅풍자오(曠伏兆)	
	제68군	군 장	천팡런(陳坊仁)	
		참 모 장	숭쉐페이(宋學飛)	
		정치위원	리청루이(李呈瑞)	

또한 중공군의 총예비부대인 제3병단은 제12군장 쩡사오산과 참모장 샤오용인, 제15군장 친지웨이와 정치위원 구징성 그리고 제60군장 웨이제와 정치위원 위안쯔친이고, 공군참전을 위한 지원부대인 제23병단은 제36군장 왕지안예와 정치위원 캉지엔민, 제37군장 장시젠과 정치위원 슈아이롱 등이다. 중공군총사령부 직할은 제38군장 량싱차오와 정치위원 류시위안, 제39군장 우신촨과 정치위원 리쉐싼, 제40군장 원위청과 정치위원 위안성핑, 제42군장 우루이린과 저우뺘오, 제47군장 차오리화이와 정치위원 리런린, 제50군장 쩡쩨셩과 정치위원 쉬원례 등이다. 각 군의 지휘부는 다음의 <표 6-5>와 같다.

<표 6-5> 중공군 군(단)별 지휘부 편성

병 단	군(군단)	직 책	성 명	비 고
제3병단	제12군	군 장	쩡사오산(曾紹山)	
		참 모 장	샤오용인(蕭永銀)	부군장 겸임

	제15군	군 장	친지웨이(秦基偉)	
		참 모 장	장윈위(張蘊鈺)	
		정치위원	구징성(谷景生)	
	제60군	군 장	웨이제(韋杰)	
		참 모 장	덩스준(鄧仕俊)	
		정치위원	위안쯔친(袁子欽)	
중공군 총사령부 직할	제38군	군 장	량싱차오(梁興初)	
		참 모 장	왕량타이(王良太)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류시위안(劉西元)	
	제39군	군 장	우신촨(吳信泉)	
		참 모 장	장제청(張竭誠)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리쉐싼(李雪三)	
	제40군	군 장	원위청(溫玉成)	
		참 모 장	덩웨(鄧岳)	부군장 겸임
		정치위원	위안성핑(袁升平)	
	제42군	군 장	우루이린(吳瑞林)	
		참 모 장	랴오중푸(廖仲符)	
		정치위원	저우빠오(周彪)	
	제47군	군 장	차오리화이(曹里懷)	제19병단 예속
		정치위원	리런린(李人林)	
	제50군	군 장	쩡쩌셩(曾澤生)	
		참 모 장	쉬싱(舒行)	
		정치위원	쉬원례(徐文烈)	

제23병단	제36군	군 장	왕지안예(王建業)	대리
		참 모 장	비안제지(變折啓)	
		정치위원	캉지엔민(康建民)	
	제37군	군 장	장시젠(張世珍)	
		참 모 장	핑지(憑梓)	
		정치위원	슈아이롱(帥榮)	

북한내 해안방어의 통일된 지휘를 위해 설치된 해안방어사령부 중 서해안방어사령부의 사령관은 중공군 부사령관인 한셴추이고 부사령관은 북한군 제4군단장 박정덕이며, 동해안방어사령부는 사령관에 중공군 제9병단장인 쑹스런 그리고 제1 및 제2부사령관에 북한군 제7군단장 이이법(李離法)과 중공군 제9병단 부사령관 타오용이 임명되었다.

<표 6-6> 해안방어사령부 지휘부 편성

구 분	서해안방어사령부	동해안방어사령부
사 령 관	한셴추(중공지원군 부사령관)	쑹스런(중공군 제9병단장)
부사령관	박정덕(북한군 제4군단장)	이이법(북한군 제7군단장) 타오용(제9병단 부사령관)
편 성	중공 제38군, 제39군, 제40군, 제50군	중공 제20군, 제27군, 제16군 제47사단
	북한 제1군단, 제4군단	북한 제7군단

한편 북한군의 전투편성 역시 3각 편제로서, 군단은 독립통신대대, 독립공병대대, 독립차량운송대대, 군단예비연대, 교육연대, 군관예비대대, 2~3개 야전이동병원과 군단보급기지로 편성되었다. 정면 전선의 제1선 부대 중 제2·제3·제5군단은 예하에 3개 보병사단을, 그리고 제6군단은 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 및

육전여단을 두었다. 그리고 주로 해안방어를 담당한 제2선 부대인 제1군단은 3개 보병사단을, 제4군단은 3개 보병사단과 1개 기계화사단 및 육전여단을, 그리고 제7군단은 4개 보병사단과 2개 육전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보병사단은 3개 보병 및 1개 포병연대, 대전차포·고사포·통신·공병·의무대대, 정찰·수송중대, 그리고 후방부로 구성되었고, 기계화사단은 2개 전차연대와 1개 포병연대, 산악포병대대와 기술보장대대, 기타 부대로 편성되었다. 육전여단은 6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120㎜ 박격포대대, 공병대대와 통신대대, 기관총중대와 정찰중대, 의무중대와 수송중대, 그리고 후방부로 편성되었다.[14]

북한군의 군단은 최고사령부 직할의 3개 군단과 전선사령부 예하의 4개 군단 등 7개 군단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군단 및 사단별 편성은 다음의 <표 6-7>과 같다.[15]

<표 6-7>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구 분	군 단	사 단	연 대
최고사령부	제1군단	제8보병사단	제81·제82·제83보병연대, 제8포병연대
		제19보병사단	제36·제37·제38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7보병사단	제113·제123·제124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군단	제4보병사단	제5·제16·제18보병연대, 제4포병연대
		제5보병사단	제10·제11·제12보병연대, 제5포병연대
		제10보병사단	제25·제27·제29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05기계화사단	제1·제2·제3전차연대, 훈련연대
		제26육전여단	
	제7군단	제3보병사단	제7·제8·제9보병연대, 제31포병연대
		제7보병사단	제51·제53·제54보병연대, 제7포병연대

		제37보병사단	제74・제75・제76보병연대,
		제46보병사단	제93・제94・제95보병연대, 제66포병연대
		제24육전여단	
		제63육전여단	
전선사령부	제2군단	제2보병사단	제4・제6・제17보병연대, 제2포병연대
		제13보병사단	제19・제21・제23보병연대, 제13포병연대
		제27보병사단	제172・제173・제174보병연대, 제25포병연대
	제3군단	제1보병사단	제2・제3・제14보병연대, 제1포병연대
		제15보병사단	제45・제48・제50보병연대, 제15포병연대
		제45보병사단	제89・제90・제91보병연대, 제51포병연대
	제5군단	제6보병사단	제1・제13・제15보병연대, 제6포병연대
		제12보병사단	제30・제31・제32보병연대, 제12포병연대
		제32보병사단	제39・제40・제41보병연대,
	제6군단	제9보병사단	제85・제86・제87보병연대, 제9포병연대
		제17기계화사단	제33・제34보병연대, 제35전차연대
		제18보병사단	제20・제22・제24보병연대, 포병연대
		제23육전여단	

한편 작전기간 중 북한군 주요 지휘관은 총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민족보위상 겸 부사령관인 최용건, 총참모장 남일,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웅, 후방행정사령관 최홍갑 상장 등으로 다음의 <표 6-8>과 같다.

<표 6-8>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최고사령부	총사령관	원수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부원수	최용건(崔庸健)	민족보위상 겸임
총참모부	총참모장	상장	남 일(南 一)	
전선사령부	사령관	상장	김 웅(金 雄)	
	참모장	중장	최 광(崔 洸)	
포병사령부	사령관	-	-	
후방행정사령부	사령관	중장	최홍갑(崔弘甲)	

그리고 각 군단장은 제1군단장 이권무, 제2군단장 최현, 제3군단장 유경수, 제4군단장 박정덕, 제5군단장 방호산, 제6군단장 최용진, 제7군단장 이이법 중장이며, 각 군단 예하의 사단장과 여단장은 <표 6-9>와 같다.[16]

<표 6-9> 북한군 군단별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중장	이권무(李權武)	전선사령부 예속
	제8사단장	소장	김봉문(金奉文)	
	제19사단장	소장	김창봉(金昌鳳)	
	제47사단장	소장	임 해(林 海)	
제2군단	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2사단장	소장	이철용(李喆用)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제27사단장	소장	조 관(趙 寬)	

제3군단	군단장	중장	유경수(柳京洙)	
	제1사단장	소장	정 범(鄭 範)	
	제15사단장	소장	주 연(朱 燕)	
	제45사단장	소장	지병학(池炳學)	
제5군단	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6사단장	소장	최봉준(崔鳳俊)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32사단장	소장	김대홍(金大弘)	
제4군단	군단장	중장	박정덕(朴正德)	최고사령부 직할
	제4사단장	소장	송덕만(宋德萬)	
	제5사단장	소장	이덕원(李德原)	
	제10사단장	소장	이방남(李芳南)	
	제105기계화사단장	소장	강주필(강주필)	
	제26육전여단장	소장	이채윤(이채윤)	
제6군단	군단장	중장	최용진(崔勇鎭)	
	제9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제17기계화사단장	소장	정철우(鄭哲宇)	
	제18사단장	소장	임한식(임한식)	
	제23육전여단장	소장	오백룡(吳百龍)	
제7군단	군단장	중장	이이법(李離法)	
	제3사단장	소장	김태련(金泰練)	
	제7사단장	소장	이익성(李益成)	
	제37사단장	소장	전 우(全 宇)	
	제46사단장	소장	이 명(이 明)	
	제24육전여단장	소장	채문철(채문철)	
	제63육전여단장	소장	-	

(4) 전투력 수준

유엔군의 추계공세가 전개된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 전개된 병력은 72개 보병사단과 2개 기계화사단 그리고 4개 육전여단 등 78개 전투사단 및 여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3개 곡사포사단, 1개 대전차사단, 2개 대전차포병사단, 4개 고사포사단, 독립 곡사포연대, 독립 박격포연대, 12개 고사포병연대, 3개 고사포병대대, 4개 독립전차대대 및 2개 독립전차중대가 배치되었다.[17]

정면 전선에 대한 공산군의 병력 전개는 제1선 방어에 중공군 6개 군과 북한군 4개 군단이, 제2선에 중공군 2개 군이 담당하였다. 예성강 하구로부터 북한강 서안에 이르는 지역의 배치 현황은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5군, 제47군과 총사령부 직할의 제42군, 그리고 제9병단 예하의 제26군과 제20병단 제67군 순이었으며, 제68군은 북한군 제5군단의 임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강 동안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지역은 북한군 전선사령부 예하의 제5군단, 제2군단, 제3군단, 제6군단 순이었다. 또한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3군과 제20병단 예하 제68군은 제2선 부대였다.[18]

<표 6-10> 공산군 전선정면 배치현황

중공군				북한군			
예성강 하구~북한강 서안				북한강 동안~동해안			
제19병단	총 사령부	제9병단	제20병단	전선사령부			
제65군 제47군	제42군	제26군	제67군	제5군단	제2군단	제3군단	제6군단

한편 해안방어에 있어 해주로부터 용암포에 이르는 서해안 제1선에 전개된 부대는 중공군 4개 군과 북한군 2개 군단 및 1개 여단이었다. 북한군 제1군단과 제4군단, 제23육전여단과 제26육전여단은 해주~청천강 하구의 제1선을, 중공군 제38군과 제39군 그리고 제40군은 순안, 숙천, 영유, 성천, 상원 지역을 잇는 제2선 방어를 담당하였다.

반면 동해안 방어에는 중공군 2개 군과 1개 사단, 북한군 1개 군단과 2개 여단이 투입되었다. 통천으로부터 서호진에 이르는 동해안 제1선 방어는 북한군 제7군단과 제24육전여단 및 제25육전여단, 중공군 제16군단 예하 제47사단이 배치되었다. 중공군 제20군과 제27군은 마식령 지역에서 제2선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3병단 제12군과 제15군 그리고 제60군은 중공군의 총예비부대로서 곡산지역에 위치하였고, 제23병단 예하 4개 사단은 공군의 참전을 위한 비행장 건설을 위해 남시 및 태천 등지에 배치되었다.[19]

<표 6-11> 공산군 해안방어 배치현황

구 분	서해안방어사령부	동해안방어사령부
정 면	이남포~해주~용암포	통천~원산~서호진
제1선	· 북한 제1·4군단, 제23·26육전여단 (해주~청천강 하구)	· 북한 제7군단, 제24·25육전여단 (통천~서호진)
	· 중공 제50군(청천강 북안~용암포)	· 중공 제16군 제47사단
제2선	· 중공 제38·39·40군 (순안-숙천-성천-상원지역)	· 중공 제20·27군(마전리 일대) · 북한 제5군단(영흥~고원)

유엔군의 추계공세가 감행될 무렵의 공산군의 전투력 수준은 하계공세 당시의 전력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단지, 공세가 전개되던 1951년 10월 20일 현재 북한군 전투부대의 병력이 29만 3천여 명으로 하계공세 당시와 비교할 때, 약 10만 명의 감소를 나타냈다.[20]

<표 6-12> 북한군 병력(병원)현황 (1951. 10. 20. 현재)

구 분	군 관	하사관	하전사	합 계
편제(명)	42,790	85,682	202,941	331,413
실제(명)	43,093	85,326	165,265	293,684

또한 작전기간 중 북한군의 총기 보유량은 대공기관총 890여 정과 중기 및 경기 약 6,500여 문, 자동소총 48,000여 정과 소총류 90,000여 정이며, 종별 보유현황은 다음의 <표6-13>과 같다.

<표 6-13> 북한군 총기류 현황 (1951. 10. 20. 현재)

구 분	소총·장총	자동소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대공기관총
편제(정)	150,014	51,819	6,836	3,567	1,140
실제(정)	90,790	48,320	4,255	2,231	891

그리고 북한군은 대전차포 1,800여 문, 대공포 230여 문, 대전차포 600여 문, 곡사포 170여 문과 박격포 2,000여 문등을 보유하였으며, 종별 보유 현황은 다음의 <표 6-14>와 같다.

<표 6-14> 북한군 각종 포 현황 (1951. 10. 20. 현재)

구분	대전차 로켓포	대 포					박격포	
		37㎜ 대공포	45㎜ 대전차포	76㎜ 연대포	무반동포	122㎜ 곡사포	82㎜	120㎜
편제(문)	1,548	332	984	645	117	300	1,998	492
실제(문)	1,814	239	615	336	57	179	1,688	403

또한 북한군은 전차 185대와 자주포 61문을 보유하였고, 운송수단으로 각종 차량 2,000여 대와 다수의 우마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보유 현황은 다음의 <표 6-15>와 같다.

<표 6-15> 북한군 기갑류 현황 (1951. 10. 20. 현재)

구분	전 차		차 량				기 타	
	전차	76㎜ 자주포	경차	화물차	견인차	특수차	말	소
편제	182	48	781	5,318	1,076	887	18,971	315
실제	185	61	426	936	614	140	5,317	407

2) 유엔군측 상황평가 및 의도

(1) 작전기도 및 방침

유엔군측은 하계공세작전을 종료하며 목표하였던 동부전선의 방어선 개선을 일정 수준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추계공세작전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추계공세작전은 하계공세작전과 마찬가지로 휴전협상의 타결을 지원하고 아군의 방어선을 개선하면서 공산군의 공세역량 축적을 거부하기 위한 균형파괴에 중점을 둔 제한목표공격작전이 기본 방침이었다.[21]

따라서 작전지침은 작전의 주도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종심 깊은 탐색작전으로 적의 전력증강을 억제하며, 잘 훈련된 유엔군이 '교착된 전장(sitdown war)'으로 인해 침체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22]

(2) 작전계획

1951년 8월 중순 미 제8군사령관은 한 달간 지속된 장마로 인한 전선의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Talons 작전'을 계획하였다.

작전목표 : 현 전선을 장전-금강산-금성-김화선으로 추진한다.
기본방침 : ① 동부전선(제10군단 정면)의 만곡부를 수정하기 위해 동 전선을 10~15마일 북진시킨다.

② 그 후 원산 부근에 상륙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함과 동시에 중동부 전선에서 공세로 이전한다.

그러나 작전의 수행에 있어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한 사령관은 작전계획의 실행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 제8군의 계획을 검토한 유엔군사령관은 정략적인 차원에서 재고를 요하면서 제3단계 계획을 보류조치하고 제1, 2단계만을 승인하였다.[23)]

① 제1단계 : 9월 중으로는 동부전선에서 뚜렷한 목표선을 부여하지 않고 현 전선을 밀어 올림으로써 당면한 만곡부를 수정하여 제9군단과의 전선을 정제한다.
② 제2단계 : 10월에 들어서는 동부전선의 공세를 중지하고 휴전회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부전선의 제1군단을 북진시킨다.
③ 제3단계 : 제1군단의 공격이 진척되면 동해안의 통천 부근에 상륙하여 김화 부근으로 동북진한 제9군단과 연계하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한다.

유엔군사령관의 조치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각 군단에 제한된 공격목표를 부여하고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제10군단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제10군단은 조속한 시일내로 다음 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여 공격을 계속하라.
목표 1 : 사태리-문등리 부근의 고지군
목표 2 : 통선곡(어은산 서남쪽 4.5㎞) 부근의 고지군
목표 3 : 간무봉(가칠봉 동북쪽 7.5㎞) 부근의 고지군
② 상기 목표를 탈취하는 순서와 일자는 군단장이 결정하여 보고하라.

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군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예하 사단에 하달하였다.

① 각 사단은 당면의 목표를 공격하여 조속히 이를 점령하라.
② 사단별 공격목표와 D일은 다음과 같다.
㉮ 국군 제8사단 : 목표 854고지(간무봉 동쪽 9㎞), D일 9월 10일
㉯ 미 제1해병사단 : 목표 749고지(△854 서남쪽 4.5㎞), D일 9월 11일
㉰ 국군 제5사단 : 1211고지(가칠봉 서북쪽 1.25㎞)에 대한 현 공격을 계속하라.
㉱ 제2사단 : 목표 894고지-931고지-851고지(사태리-문등리간 능선), D일 9월 12일
㉲ 국군 제7사단 : 목표 883고지(백석산 남쪽 2.25㎞), D일 9월 9일
③ H시는 사단장이 결정한다.

(3) 지휘관계 및 전투편성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모든 유엔군의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는 유엔군사령부로서 예하에 미 제8군을 편성하고 있었다. 주요 지휘관은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 그리고 극동해군사령관 브리스코(Robert C. Briscoe) 중장과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대장 등이었다. 작전기간 중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및 전투서열은 <표 6-16>과 같다.[24]

<표 6-16> 유엔군사령부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Matthew B. Ridgway	극동사령관 겸직
	부사령관	중장	Doyle O. Hickey	
	참모장	중장	Doyle O. Hickey	
미 제8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James A. Van Fleet	
	부사령관	중장	John B. Coulter	
	참모장	소장	Henry I. Hodes	
극동해군사령부	사령관	중장	Robert C. Briscoe	
극동공군사령부	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유엔군의 추계공세 작전기간 중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3보병사단, 영연방 제1사단과 국군 제1사단, 그리고 제13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예하에 제5·제7·제8기병연대와 배속된 그리스대대 및 타일랜드대대를, 미 제3보병사단은 제7·제15·제65연대와 배속된 벨지움대대 및 필리핀 제20대대를, 그리고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 제28·제29보병연단과 캐나다 제25보병여단을 예하에 두었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와 한국 제5해병대대를 예하에 두었다.[25]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오다니엘(John W. O'Daniel) 중장과 부군단장 할리데이(Terrell G. Holliday) 소장, 참모장 반 브런트(Rinaldo Van Brunt) 준장을 비롯하여 미 제1기병사단장 헤럴드(Thomas L. Harrold) 소장, 미 제3보병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 영연방 제1사단장 카젤스(A.J.H. Cassels) 소장과 국군 제1사단장 박임항 준장 등이었다. 미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17>과 같다.

<표 6-17> 미 제1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군단	군단장	중장	John W. O'Daniel	
	부군단장	소장	Terrell G. Holliday	
	참모장	준장	Rinaldo Van Brunt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Thomas L. Harrold	
	제5연대장	대령	Irving Lehrfeld	
	제7연대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연대장	대령	Eugean J. Field	
	그리스대대장	중령	Apiliopoulis Kyriakos	배속부대
	타일랜드대대장	중령	Prayauth Nuckakankul	배속부대

미 제3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	
		준장	Thomas J. Cross	1951.10.20부
	제7연대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장	대령	William W. Harris	
	필 제10대대장	중령	Salvador Abcede	배속부대
	벨지움대대장	중령	B. E. M. Crahay	배속부대
영연방 제1사단	사단장	소장	A. J. H. Cassels	
	영 제28여단장	준장	J. F. M. Macdonald	
	영 제29여단장	준장	A. H. G. Ricketts	
	캐나다 제25여단장	준장	J. M. Rockingham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박임항(朴林恒)	
	제11연대장	대령	문형태(文亨泰)	
	제12연대장	중령	정영홍(鄭永洪)	
	제15연대장	대령	김진위(金振暐)	
	제5해병대대장	소령	오명복(吳命福)	배속부대
국군제13경비대대	대대장	중령	-	

중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미 제7보병사단과 미 제24·제25보병사단, 국군 제2·제6사단과 제15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7사단은 예하에 제17·제31·제32연대와 배속된 에티오피아대대를, 미 제24보병사단은 제5·제19·제21보병연대와 배속된 콜롬비아대대를 그리고 미 제25보병사단은 제24·제27·제37보병연대와 배속된 터키여단을 두었다. 또한 국군 제2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를, 국군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를 예하에 편성하였다.[26]

미 제9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호지(William H. Hoge) 중장과 부군단장 미첼(William L. Mitchell) 준장, 참모장 피플로(George B. Peploe) 준장을 비롯하여 미 제7사단장 페렌버그(Claude B. Ferenbaugh) 소장, 미 제24사단장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소장, 미 제25사단장 스위프트(Ira P. Swift) 소장, 국군 제2사단장 함병선 준장과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 등이었다. 미 제9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18>과 같다.

<표 6-18> 미 제9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9군단	군단장	중장	William H. Hoge	
		중장	Willard G. Wyman	1951. 12. 24부
	부군단장	준장	William L. Mitchell	
	참모장	준장	George B. Peplo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Claude B. Ferenbaugh	
			L. L. Lemnitzer	1951. 12. 5부
	제17연대장	대령	Royal Reynolds, Jr.	
	제31연대장	대령	Lloyd R. Moses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에티오피아대대장	대령	Kebbede Guebre	
미 제24사단	사단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5연대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장	대령	Ned D. Moore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콜롬비아대대장	중령	Jaime Polania Puyo	

미 제25사단	사단장	소장	Ira P. Swift	
	제24연대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장	대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장	대령	Henry G. Fishir	
	터키 제1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국군 제2사단	사단장	준장	함병선(咸炳善)	
	제17연대장	대령	은석표(殷碩杓)	
	제31연대장	대령	조원영(趙原英)	
		대령	김 성(金 聖)	1951. 10. 26부
	제32연대장	대령	김용순(金容珣)	
국군 제6사단	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송대후(宋大厚)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국군제15경비대대	대대장	중령	-	

중동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은 미 제2보병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 국군 제5·제8사단과 제12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2사단은 예하에 제9·제23·제38연대와 배속된 프랑스대대 및 네덜란드대대를 두었으며, 미 제1해병사단은 제1·제5·제7·제11해병연대와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를 두었다. 또한 국군 제5사단은 제27·제35·제36연대를, 국군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예하에 두었다.[27]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바이어스(Clovis E. Byers) 소장과 후임인 팔머(Williston B. Palmer) 중장, 참모장 거스리(John S. Guthrie) 준장을 비롯하여 미 제2사단장 영(Robert N. Young) 소장, 미 제1해병사단장 토마스(Gerald

C. Thomas) 소장,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과 후임인 임부택 대령, 그리고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 등이었다. 미 제10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19>와 같다.[28]

<표 6-19> 미 제10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10군단	군단장	소장	Clovis E. Byers	
		중장	Williston B. Palmer	1951. 12. 5부
	참모장	준장	John S. Guthrie	
미 제2사단	사단장	소장	Robert N. Young	
	제9연대장	대령	John M. Lynch	
	제23연대장	대령	James Y. Adams	
	제38연대장	대령	Frank T. Mildren	
	프랑스대대	대령	Ralph Monclar	배속부대
	네덜란드대대	중령	W. D. H. Eekhout	배속부대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Gerald C. Thomas	
	부사단장	준장	W J Whaling	
	제1연대장	대령	Wilburt S. Brown	
	제5연대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7연대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제11연대장	대령	Joseph L. Winecoff	
	한국해병 제1연대장	대령	김대식(金大植)	배속부대
국군 제5사단	사단장	준장	민기식(閔機植)	
		대령	임부택(林富澤)	1951. 11. 7부

	제27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대령	오창근(吳昌根)	1951. 11. 20부
	제35연대장	대령	고백규(高白圭)	
	제36연대장	대령	황 엽(黃 燁)	
		대령	최재홍(崔在鴻)	1951. 10. 30부
국군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정 강(鄭 剛)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全富一)	

동부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제11사단과 제7경비대대로 편성되었다. 수도사단은 제1·제1기갑·제26연대를, 제3사단은 제18·제22·제23연대를, 그리고 제11사단은 제9·제13·제20연대를 예하에 각각 두었다.[29]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사령관 백선엽 소장과 부군단장 장창국 준장, 참모장 최홍희 준장을 비롯하여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 제3사단장 백남권 준장 그리고 제11사단장 오덕준 준장 등이었다. 국군 제1군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부 편성은 다음의 <표 6-20>과 같다.

<표 6-20> 국군 제1군단 전투서열(1951. 10. 현재)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	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부군단장	준장	장창국(張昌國)	
	참모장	준장	최홍희(崔泓熙)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중령	박춘식(朴春植)	1951. 11. 25부
	제26연대장	대령	서정철(徐廷哲)	

	제1기갑연대장	중령	이동화(李東和)	1951. 10. 1부
		대령	이 용(李 龍)	
제3사단	사단장	준장	백남권(白南權)	
	제18연대장	대령	유양수(柳陽洙)	
	제22연대장	대령	장춘권(張春權)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11사단	사단장	준장	오덕준(吳德俊)	
	제9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제13연대장	대령	최석용(崔錫鏞)	
	제20연대장	대령	박원근(朴元根)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제7사단 및 제9사단과 제1·제8·제11경비대대, 태백산전투사령부와 서남사령부를 지휘 및 통제하였다.[30] 주요 지휘관은 총참모장 이종찬 소장을 비롯하여 제7사단장 김형일(金炯一) 준장과 제11사단장 오덕준(吳德俊) 준장 등이었다.

(4) 전투력 수준

유엔군의 추계공세작전이 전개될 무렵의 유엔군의 전력은 국군 1개 군단 10개 사단과 미군 3개 군단 8개 사단이 주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외에 영국군 2개 여단과 캐나다군 1개 여단으로 편성된 영연방 1개 사단과 대대 및 연대규모의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터키·태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부대가 참전하고 있었다.

이 시점의 유엔군의 총 병력은 하계공세 당시보다 11,000여 명이 증가된 607,300명이고, 이들 중 미 제5공군 병력 26,400여 명을 제외한 580,900여 명이 지상병력이었다. 지상병력의 구성은 국군 286,300여 명과 미군 262,300여 명, 기타 유엔군 32,100여 명이었다.[31] 또한 국군과 유엔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는 하계공

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공산군과의 병력 대비시 병력면에선 공산군이 대체로 2:1로 우세한 반면 화력면에선 유엔군이 우위를 점하였다.[32]

3. 전투 경과 및 결과

1) 군사적 압력과 진지전

(1) 제1차 월비산 전투(1951년 10월 12일 ~ 10월 15일)

(가) 전투 개요

월비산(月比山)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무렵, 수도사단이 1951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간성 북방의 월비산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19사단을 격퇴하고 이를 탈취한 공격전투이다. 전술적 요충인 월비산을 탈취 및 고수하기 위한 양측의 격전으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단은 우세한 화력지원 아래 4일간의 공격으로 목표점령에 성공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은 전 전선의 최북단에 위치한 월비산을 확보한 반면 북한군은 남강 북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국군 제1군단은 1951년 9월 6일에 단행된 군의 전선 조정에 의해 군단 서측의 방어선이 2㎞ 축소되어 향로봉(香爐峯)-건봉산(乾鳳山)-까치봉-송현리(松峴里)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단은 좌익의 전선을 미 제10군단에 인계한 수도사단을 동해안으로 이동시켜 제11사단과 수도사단으로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제3사단을 예비로 전환하는 등 사단을 재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9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제3사단 지역을 인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도 해안분지(펀치볼) 일대에서 제2군단이 큰 타격을 받자 동해안에서 국군 제1군단과 대치하고 있던 제3군단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제2군단과 교대시켰으며, 동해안 지역에는 서부전선에서 재편성한 제6군단을 투입하였다. 제

6군단은 예하의 제19사단을 남강 동안에, 제9사단을 고성으로부터 통천까지의 해안선에 배치하고 제18사단을 예비로 보유하였다.[33]



월비산을 맴돌아 동해로 흘러드는 남강의 모습

수도사단과 대치한 북한군 제19사단은 까치봉 서북능선-월비산-351고지 부근에 주력을 배치하였으며, 특히 월비산에 강력한 거점을 형성해 아군의 전진을 저지하는 한편 장차 공격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리고 제9사단은 고성 방어에 중점을 두고 적벽산(赤璧山)-146고지-고봉리(高峰里) 선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이들은 아군의 기도를 탐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소장은 10월에 접어들어 군이 전개하고 있는 제한된 종심의 전선 '밀어올리기'작전의 일환으로 월비산과 그 일대의 고지군을 점령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획득함은 물론 동해안의 적을 남강 북쪽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도사단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공격을 담당한 제1기갑연대는 대체로 연대 T/O 및 T/E를 유지하였고, 제10포병대대를 비롯한 미 제7함대와 군단을 지원하는 미 제196포병대 1개 포대의 화력지원을 받았다.[34]

<표 6-21>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군단장	소장	백선엽(白善燁)	
	수도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기갑연대장	대령	이 용(李 龍)	
	제1대대장	대위	이붕식(李鵬植)	
	제2대대장	소령	박익균(朴益均)	
	제3대대장	대위	박명경(朴明景)	
	제10포병대대장	중령	방경원(房景源)	
	제11사단장	준장	오덕준(吳德俊)	좌인접부대
북한군	제6군단장	중장	최용진(崔勇鎭)	
	제9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제19사단장	소장	김창봉(金昌奉)	

월비산은 고성 서남쪽 5㎞에 위치한 459고지로서 이 일원에서 가장 높은 감제고지이다. 그리고 남강 동안변에 돌출하고 있어 동북쪽으로는 고성 시가를, 서남쪽으로는 남강 서안의 적선을 비롯하여 북한군 주력의 배후로 통하는 고성-장전-원산간 도로의 감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은 남강 및 고성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작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고지였다. 반면 아군은 남강의 통제와 고성의 확보를 위해 그리고 사단 주진지가 감제당하는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고지였다. 작전기간 중의 기상은 동해의 해상 강풍과 함께 비가 내려 시계 및 포 관측을 제한함으로써 작전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35]

(나) 전투 경과

월비산을 확보하려는 군단장의 계획에 따라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적을 일거에 몰아내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36]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10월 12일 06시를 기해 월비산을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1기갑연대(공병 1개 중대 배속)는 현 진지에서 약진하여 350고지-월비산을 탈취하라.
③ 제1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제1기갑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라.
④ 제26연대는 사단 예비로서 측후방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되 제1기갑연대가 목표를 탈취함과 동시에 제1기갑연대의 최초 진지까지 진출하라.
⑤ 제10포병대대는 공격간 제1기갑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수도야전공병대대(1개 중대 결)는 적의 예상접근로 상에 가용한 모든 장애물을 설치하라.
⑦ 요청에 따라 함포 및 공중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⑧ 작전기간 중 미 제10군단의 155㎜포 1개 포대가 화력 지원할 것이다.

군단의 조치에 따라 동해안으로 이동한 수도사단은 제1연대와 기갑연대를 전방으로, 그리고 제26연대를 예비로 554고지-고황봉-36고지-강정(江亭)을 연하는 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이 중에서 월비산의 적과 대치한 제1기갑연대에 공격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심하고 월비산 공격의 사전 포석으로 351고지(월비산 동쪽 2㎞)-148고지(고성 동남쪽 3.5㎞)선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지형의 특징상 월비산 공격의 발판을 구축하려는 복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기갑연대는 10월 10일에 사단포병과 군단을 지원하는 미 제196포병대대 1개 포대의 지원과 동해안으로부터 함포지원을 받아 가경지(佳境地) 고개-명호리(明湖里) 선으로부터 돌진하여 다음날까지 7㎞를 진격, 351고지-148고지 선을 탈취하고 월비산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사단장은 예비인 제26연대 제2대대에 기갑연대의 주저항선(고황봉-△203-△36) 방어임무를 인수하게 하여 기갑연대는 월비산 공격작전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37]

기갑연대는 10월 12일 06시를 기해 월비산 공격을 개시하였다. 주공인 제2대대는 동측의 148고지에서 월비산 북쪽의 350고지를 점령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삼아 남쪽으로 공격하고, 제1대대는 조공으로서 곧장 261고지를 경유하여 정면으로

월비산을 공격, 주공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연대는 공격준비사격으로써 월비산은 물론 350고지와 261고지 부근의 적 진지와 장애물을 파괴함과 아울러 이 두 고지는 물론 고성 남쪽의 201고지와 146고지에까지 연막탄을 투하, 적의 관측을 완전히 차장하여 기동부대의 은폐를 도모하였다.

주공인 제2대대는 적과 10간의 격전 끝에 16시 경 350고지를 점령한 후 계획대로 월비산을 공격하였다.[38] 후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적진에 동요의 기미가 보이자, 제2대대의 공격중대가 돌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열을 재정비한 적이 계속 저항을 함에 따라 결국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350고지로 철수하였다. 같은 시간에 조공인 제1대대는 261고지를 점령하고 여러 차례 동측에서 월비산을 공격했으나 적의 포격과 방어사격에 번번이 실패하고 261고지로 철수하였다.[39]

다음날인 10월 13일 제2대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재공격을 감행하여 14시 30분경 월비산 8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깎아지른 절벽 위에 구축한 진지에서 수류탄을 굴려 내리며 대항하는 적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일시 공격을 중단하고 서북쪽의 무명고지로 이동하였다. 한편 월비산의 서측배로 진격하여 중턱에 있는 적의 거점을 탈취한 후 제2대대와 협동으로 목표를 점령하라는 연대장의 구두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고전 끝에 월비산의 적진에 접근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자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5시 경에는 고지 동쪽의 일부를 확보하였다. 이때 엄체호로부터 1개 중대의 적이 뛰어나옴에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으며, 여기에서 대대는 다시 밀려나고 말았다.[40] 이날의 전투에서 포로 14명, 사살 355명의 전과를 기록한 반면 아군도 전사 18명, 부상 77명 들 약 100명의 손실을 입었다.[41]

연대장은 제3대대에 연대 수색중대와 협동하여 161고지-고봉리선을 확보한 다음 고성으로부터 증원되는 적을 견제하여 억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투입된 제3대대의 2개 중대가 350고지를 점령하여 북쪽의 201고지로부터의 증원을 차단했으며 나머지 1개 중대는 연대 수색중대와 함께 146고지를 급습하여 적벽산의 적 역습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적의 포격에 사상자가 속출해 148고지 부근으로 복귀하였다.

<상황도 6-2> 제1차 월비산 전투(1951.10.12)



한편 연대장은 지난 2일간의 전투경과 분석에서 350고지 북쪽의 201고지와 146고지에 배치된 적을 격멸하거나 견제하지 않고는 월비산에 대한 증원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공이 배후의 위협을 받아 공격에 집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적에게 전력보강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그 허를 찔러 일거에 격멸하는 한편 목표 점령 후에 확장될 전투정면에 따른 전선조정을 단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복안을 수립하였다.[42]

① 연대는 10월 15일 10시를 기해 월비산을 기필코 탈취하기 위하여 결전을 강요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현 점령중인 진지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161고지-고봉리 선상에 주진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연대의 우일선으로 목표 동측배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고 연대의 중앙일선으로 진격하여 목표 정면을 돌파하라.
④ 제1대대는 연대의 좌일선으로 진격하여 목표 서측배를 점령하고 좌인접 제1연대와 연계를 유지하라.

제1기갑연대장은 기필코 월비산을 탈취하기로 결심하고 10월 15일에 제3대대를 주공으로 삼고 나머지 대대를 조공으로 삼아 총력으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제3대대는 350고지에서 제9중대를 선두로 북쪽에서 월비산을 공격하였고, 제2대대는 주력으로써 서쪽으로 월비산을 우회하여 공격하는 한편 제1대대는 제2중대를 선두로 261고지에서 월비산 동측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이날 폭우와 강풍이 멎은 모처럼의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맞아 사단 포병 및 미 제196포병대대과 항공지원을 받으며 공격하였다. 이날의 공격은 3개 중대가 각 대대장의 지휘하에 3개 방향에서 목표로 향했으며, 상호 지원은 중대간의 거리가 이격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격제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공격이 중단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나 제9중대가 접근로 상에 배치된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고전하던 중 요

청한 포병과 박격포의 지원사격이 정확히 목표지점에 명중되는 틈을 타 적을 제압하며 고지 정상으로 돌진하였다. 서쪽으로 우회한 제7중대는 정상을 향해 진출하던 중에 우군 항공기의 오폭으로 인해 일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으나 목표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제2중대도 적의 기관총 및 엄체호로부터의 사격에 고전했으나 제1중대의 지원사격 아래 활로를 찾아 돌격선으로 진출하였다.[43]

이와 같이 3개 방향에서 돌격선에 다다른 이들은 제7중대가 서측에서 먼저 진내로 뛰어들어 월비산 정상으로 치닫자, 다른 중대들도 각각 돌격을 감행하여 부여된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월비산을 탈취하였다.[44] 이날 사단장은 월비산에 직접 올라와 장병들을 치하하고 훈장을 수여했으며, 군단장도 고성의 관문 월비산 탈환을 치하하는 격려 전문을 보내왔다.

월비산을 탈취한 기갑연대는 제3대대를 월비산-350고지에, 제1대대를 339고지-351고지-덕무현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148고지 남쪽에 집결시켜 고봉리-146고지로 진출태세를 갖추며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사단장은 다음날 16일에 예비인 제26연대를 전방으로 추진, 본대의 기갑연대 주저항선이었던 수령-강정까지의 진지를 인수시켜 동측의 제1연대와 연계해 사단 주저항선을 형성하는 한편 기갑연대는 새로 점령한 지역에 전초진지를 편성하도록 조치하였다.[45] 기갑연대는 16~17일 자정 무렵 월비산을 탈취하려는 적의 역습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사단장은 적이 일정기간의 정비 없이는 재공격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과확대를 명령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그대로 17일에 고봉리-146고지 선을 점령하고 19일에 공격을 재개하여 201고지-적벽산까지 확보하여 남강 남쪽의 적을 모두 격퇴시켰다.

(다) 전투 결과

추계공세작전에서 월비산을 탈취하고 남강까지 진출한 수도사단은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방어지역을 좌인접 제11사단에 인계하고 후방지역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새로 창설된 백야전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호남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제11사단은 현 주저항선을 방어중인 제13연대와 제20연대는 그대로 두고 예비인 제9

연대로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을 인수하는 한편 대전차공격대대에 사단 수색중대를 배속시켜 월비산과 남강 이남의 전초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1개 사단의 방어지역을 1개 연대가 담당하고, 1개 연대가 담당한 전초진지를 1개 대대(-2)로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 16일 군 예비로 야전훈련소에서 교육중인 제5사단 제36연대를 제11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북한군은 수도사단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제19사단 대신 제9사단이 남강 북쪽의 전선으로 진출한 후 아군의 부대교육을 틈타 11월 18일부터 월비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11사단은 월비산과 구선봉까지 제9연대 정면의 전초를 모두 상실하였고 일시적으로 빼앗겼던 351고지는 역습으로 탈환하였으나, 결국 월비산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



월비산・351고지 전투 전적비

이 전투에서는 부대교대와 관련한 군의 지휘조치상의 문제 외에도 대전차 공격대대가 월비산에 투입될 때 2개 중대나 결한 상태여서 전력이 부족하였으며, 월비산 및 사단 전초에 투입된 후 남강에 대한 경계가 부실하여 적의 도하를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기습공격을 당한 점 등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다.

이와 같이 국군 제1군단은 하계-추계공세에서 남강 이남의 지역을 확보해 방어선을 크게 개선하였고, 수도사단은 38도선으로부터 80㎞ 북쪽에 위치한 고성까지 진출함으로써 유엔군의 전 전선에서 가장 북쪽으로 진출한 부대가 되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는 적의 동계공세를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고 월비산과 구선봉 북쪽의 전초고지를 빼앗김으로써 고성을 적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6-22>와 같다.[46]

<표 6-22> 전과 및 손실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박격포	기관총	다발총	소총	포탄	수류탄		
891	37	3	43	91	369	953	3,255	70	250

(2) 가칠봉 부근(1052고지 및 1211고지) 전투(1951년 9월 4일 ~ 10월 14일)

(가) 전투 개요

가칠봉 전투는 전선이 교착된 후 국군과 유엔군이 주저항선 전방의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때, 국군 제3사단이 1951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양구 북방의 가칠봉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27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제5사단은 제26포병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가칠봉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27사단을 격퇴하고 초전에 목표를 탈취하였으나, 이후 북한군의 역습을 받

고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40여 일간의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가칠봉을 확보한 후 군단 통제선인 헤이스선으로 진출하였다.

미 제10군단의 중앙우익이 되어 제5사단의 가칠봉 전선을 인수한 국군 제3사단은 1211고지 일대를 계속 공략하였다. 공격의 목표인 1211고지는 동으로 만대리(萬垈里)를 포함하는 소양강변의 작전로를 감제하고, 서로는 문등리(文登里) 계곡까지 견제가 가능한 공수에 있어서 요충이었다. 따라서 이 고지를 장악할 경우 적선을 성내천 건너 매봉-간무봉(看霧峯)을 연하는 선까지 밀어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내천 남쪽 일대를 장악함으로써 만곡을 이룬 전선을 정제할 수 있었다.

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2군단은 일명 영웅고지라 명명한 1211고지를 중심으로 2개 사단을 일선에, 1개 사단을 예비로 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제13사단 제19연대가 796고지-811고지-1052고지를 연한 선을 점거하고 1211고지의 서쪽을 담당하였으며, 동쪽을 담당한 제2사단은 우일선의 제6연대와 좌일선의 제17연대로 1052고지-1211고지-서희리(西希里)를 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제27사단은 군단 예비로 1297고지-1284고지를 연한 일대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2군단은 5월 공세로 인한 전력약화로 전면공세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1211고지 일대의 방어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23>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3사단장	준장	백남권(白南權)	
	제22연대장	대령	장춘권(張春權)	
	제1대대장	소령	최장학(崔章學)	
	제2대대장	소령	홍순정(洪淳丁)	
	제3대대장	소령	이관희(李寬熙)	
	제11포병대대장	소령	김찬복(金燦福)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1대대장	소령	안영선(安永善)	
	제3대대장	소령	김두업(金斗業)	
	제18연대장	대령	김덕준(金德俊)	배속부대
	제1대대장	소령	손영진(孫榮鎭)	1951. 10. 29부
	제2대대장	소령	김상옥(金上玉)	1951. 10. 27부
	공병대대장	소령	김재식(金在植)	지원부대
북한군	제2군단장	중장	최 현(崔 賢)	
	제2사단장	소장	이철용(李喆用)	
	제13사단장	소장	정병갑(鄭炳甲)	

1951년 10월 20일 미 제10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된 국군 제3사단은 양구 동북쪽 11㎞의 골말로 이동하여 제5사단의 진지를 인수하였다. 사단은 제18연대를 우일선으로 서희령 일대의 제36연대 진지를, 제23연대를 중앙일선으로 가칠봉(加七峯)의 제27연대 진지를, 그리고 제22연대를 좌일선으로 제35연대의 진지를 각각 인수하게 함으로써 가칠봉 서남쪽 능선-841고지 간에 주진지를 확보하였다.

(나) 전투 경과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스 소장은 1951년 10월 22일 "제3사단은 주저항선을 확보하면서 1개 연대를 초월하지 않는 병력으로 1052고지-1211고지를 탈취하여 만곡부를 이룬 전선을 정제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47] 이에 따라 사단장은 1211고지의 공격에 앞서 1052고지를 먼저 탈취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48]

① 사단은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가운데 일부병력으로 1052고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2연대는 주진지를 확보하면서 일부의 병력으로 1052고지를 탈취하고 전진진지를 편성하라.
③ 제18연대와 제23연대는 1211고지에 대한 공격준비를 갖추고 제22연대의 공격간

1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위력수색을 감행하라.
④ 제11포병대대는 제22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⑤ D일 H시는 후달한다.
⑥ 통신은 현행 SOI에 의거한다.
⑦ 지휘소는 공말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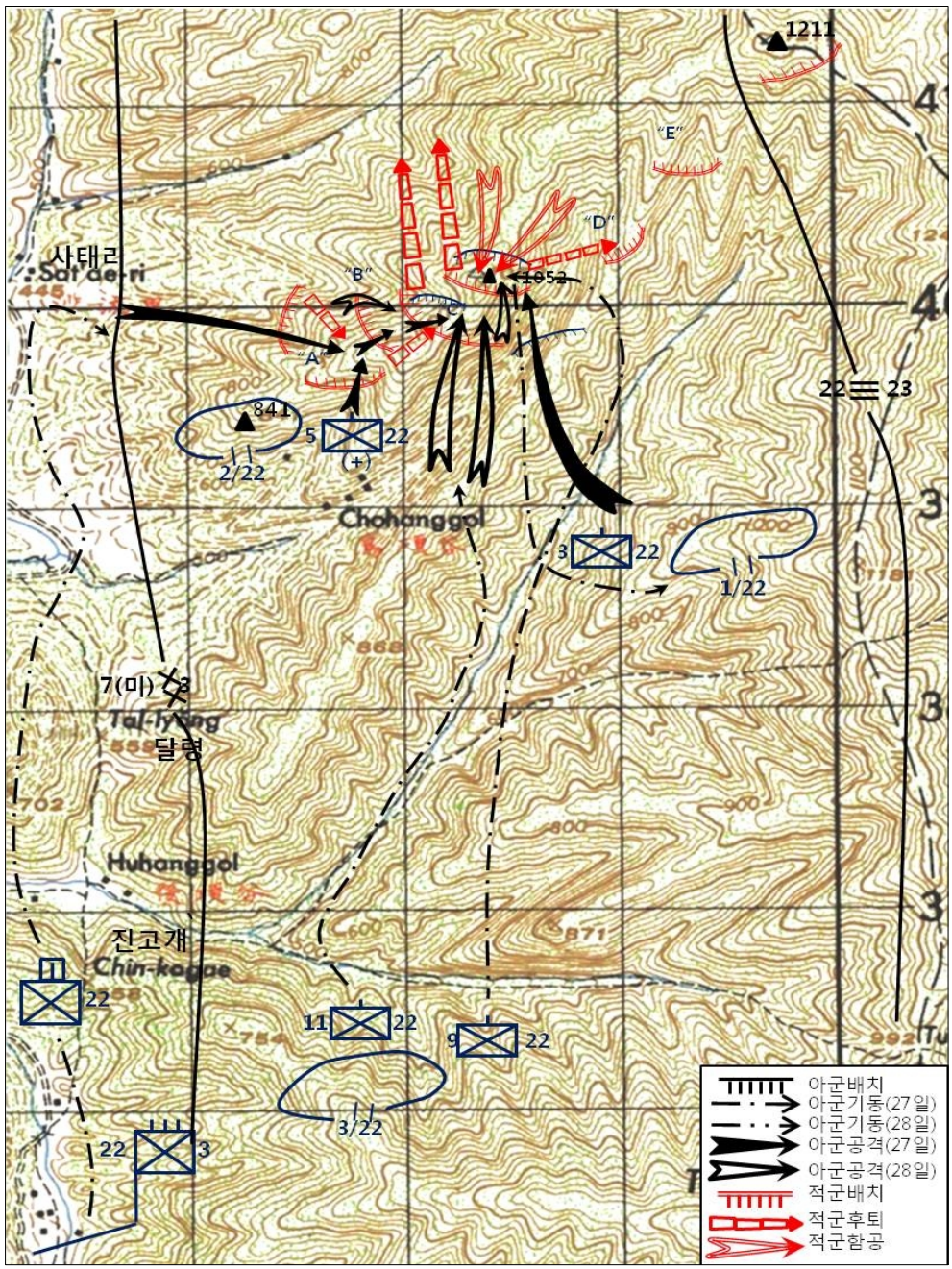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제22연대장은 1052고지에 대한 정면공격을 제1대대에 지시하는 한편 841고지를 점령한 제2대대에 동북쪽 능선을 따라 협공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49]

① 연대는 주진지를 확보하면서 일부 병력으로 1052고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필요한 병력으로써 1052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2대대는 연대 특공대가 무명고지를 탈취하는 즉시 필요한 병력으로 이를 초월하여 B-C를 탈취한 다음 1052고지 서측방을 공격하여 제1대대의 공략을 용이하게 하라.
④ 제3대대는 885고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별도의 명령을 기다리라.
⑤ 연대 특공대는 무명고지 A를 탈취한 다음 초월하는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⑥ 제11포병대대는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⑦ D일 H시는 각대별로 후달한다.
⑧ 통신은 현행 SOI에 의거한다.
⑨ 지휘소는 비아리(比雅里)에 위치한다.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1052고지 일대에 집중됨과 동시에 연대 특공대와 제2대대는 10월 27일 03시 30분에 무명고지 A에 대한 협공을 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대장은 06시를 기해 1052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을 제1대대에 지시하였다.

명령에 따라 대대장은 1052고지에 대한 정면공격 임무를 제3중대에 부여하였다.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여 1052고지 남쪽능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한 병력은 특공조가 요소마다 형성하고 있는 적의 거점을 격파하며 적진 70m 전방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적의 최후의 저항에 막혀 진격이 멈춰졌고, 중대장은 병력을 좌우로 우회시켜 3면에서 돌격을 단행하였다.

<상황도 6-3> 가칠봉 부근 1052고지 전투



때마침 제11포병대대와 군단 155㎜포병대대의 포격이 집중되는 동안 중대는 적진을 돌파하여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적은 무명고지 C로 물러나게 되었고 11시 50분에 1052고지를 탈취하였다. 성공적으로 묵표 고지를 장악한 중대는 일부 병력을 서남쪽 능선을 따라 투입하여 무명고지 C를 공격중인 제2대대의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18시 무렵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포격지원을 받으며 역습을 가해왔고 중대는 포병의 엄호사격 아래 육박전을 펼쳐 이를 격퇴하였으나, 결국 적의 파상공세로 인해 20시에 1052고지의 남쪽능선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05시 30분에 증강된 1개 중대로 무명고지 A에 대한 공격에 돌입하였다.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제5중대(+)는 고지의 동북쪽 능선으로 돌진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남쪽 능선으로 우회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적의 포화와 집중사격에 막혀 진출이 중지되었으나, 10시 40분경 연대 특공대와의 협공으로 적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정상 탈취에 성공하였다. 이때 연대 특공대는 무명고지 A를 탈취하기 위해 동쪽으로 우회하여 고지의 후사면으로 접근하였고, 가까스로 적의 지뢰지대를 뚫고 정상까지 진격하였던 것이다.

이어 무명고지 B로 공격의 방향을 바꾼 중대는 백병전을 벌여 이를 장악한 후 무명고지 C로 향하였다. 20시 30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격에도 고지점령에 실패한 중대는 무명고지 A로 철수하여 역습에 대비하였다.

다음날인 11월 28일 연대장은 1052고지에 대한 탈환을 제1대대에 명령하였다. 전날 고지를 탈취한 후 적의 역습에 물러났던 제1대대 제3중대는 06시에 고지의 정상을 향해 기동해 별 어려움 없이 정상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중대는 적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진출이 정지되었다. 중대는 제11포병대대와 연대의 박격포지원을 받는 가운데 정면과 좌우로 나뉘어 적진으로 진격하여 진내전을 벌였다. 백병전이 계속되던 08시 50분 무렵 적은 마침내 북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중대는 1052고지를 다시 점령하였다.

한편 새로운 명령으로 1052고지-무명고지 C의 확보를 부여받은 제3대대는 06시에 무명고지 C를 공격하기 위해 기동을 시작하였다. 계획대로 무명고지 A로 진격해 제5중대(+) 및 연대 특공대와 협공을 펼친 제11중대는 무명고지 B를 점령

하고 무명고지 C로 향하였다. 그러나 적은 견고한 거점 속에서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집요하게 저항함으로써 아군의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제11중대는 후사면으로 우회한 제5중대와 협공을 가하였고,[50] 이에 앞서 1052고지를 제3중대가 장악함에 따라 적은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중대는 무명고지 C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또한 제9중대는 17시에 1052고지로 진출해 진지를 교대하였다.

적의 역습으로 1052고지를 다시 빼앗긴 10월 27일 사단장은 1211고지를 우회공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51]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211고지를 탈취하고 Y선(서희령 북쪽능선-1211고지-△1052-사태리)를 확보하려 한다.
② 제23연대는 제18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1211고지를 탈취하라. 단, 산전(山前)-930고지-서희리에 이르는 연대의 전투지경선을 공격간에 있어서 제23연대의 전투지경선으로 임시 확장한다.
③ 제18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1개 대대를 공격간에 제23연대에 배속하라. 단, 제23연대 전투지경선으로 확장된 정면은 명령에 따라서 제18연대 전투지경으로 환원한다.
④ 제22연대는 1052고지를 재탈취한 다음 1개 중대로써 무명고지 D(△1211 서남쪽 1.3㎞)-E(△1211 서남쪽 0.7㎞)를 계속 공격하여 당면의 적을 견제하라.
⑤ 제11포병대대의 2개 포대는 제23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요청에 따라서 군단포병의 화력증원을 받을 것이다.
⑥ 지휘소는 계속 골말에 위치한다.
⑦ D일 H시는 후달한다.
⑧ 통신은 현행 SOI에 의거한다.』

명령에 따라 연대장은 연대예비인 제3대대를 공격 제일선으로 하여 배속된 제18연대 제2대대의 지원 아래 1211고지 동북쪽으로 우회 공격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52]

① 연대는 제18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1211고지를 탈취하고 Y선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산전으로 전진하여 D일 H시를 기하여 1211고지를 탈취하라.
③ 제1대대는 제3대대가 1211고지 동북쪽 능선으로 우회하는 즉시로 고지 F를 탈취한 다음 곧 1211고지의 적을 공격하라.
④ 제18연대 제2대대는 서희리 일대를 탈취하고 제23연대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제2대대는 사단예비로서 현 임무를 계속하라.
⑥ 제11포병대대의 2개 포대가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다. 또 요청에 따라서 군단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을 것이다.
⑦ 통신은 현행 SOI에 의거한다.
⑧ 연대지휘소는 현리(縣里)에 위치한다.

만대리 서북쪽의 산전으로 진출한 제3대대는 10월 28일 05시를 기해 1211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짙은 안개를 이용해 고지 G-H 일대를 탈취한 대대는 제10중대를 우일선, 제11중대를 좌일선으로 1211고지 동북쪽 능선으로 우회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은 거점을 형성하고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대대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이에 대대는 포병지원과 75㎜ 무반동총과 3.5인치 로켓포로 적을 집중 공격하며 9시간에 걸쳐 접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적을 격퇴하는데 실패하고 축차 철수를 실시하여 가칠봉 동쪽 1㎞ 지점의 1006고지에 집결하였다.

한편 서희리 일대를 탈취하고 제23연대 제3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받은 제18연대 제2대대는 02시에 집결지인 산전에서 930고지 북단으로 진격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일선의 제6중대는 후속하는 대대 주력과 81㎜ 박격포의 엄호 하에 691고지와 서희리 동쪽의 고지 I로 향하였다. 중대는 일부 병력이 691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주력은 목표 고지의 능선에서 적 화망의 집중세례를 받고 진격이 중단되었다. 이에 중대(-)는 특공조의 수류탄 공격으로 적의 거점을 격파하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적을 동북쪽으로 몰아내고 서희리 일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현 전황을 검토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축차로 철수하여 서희령 부근에 집결하였다.

다음날인 10월 29일 연대장은 제1대대에 고지 F를 탈취한 후 1211고지를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새로 배속된 제18연대 제1대대에 고지 G-H를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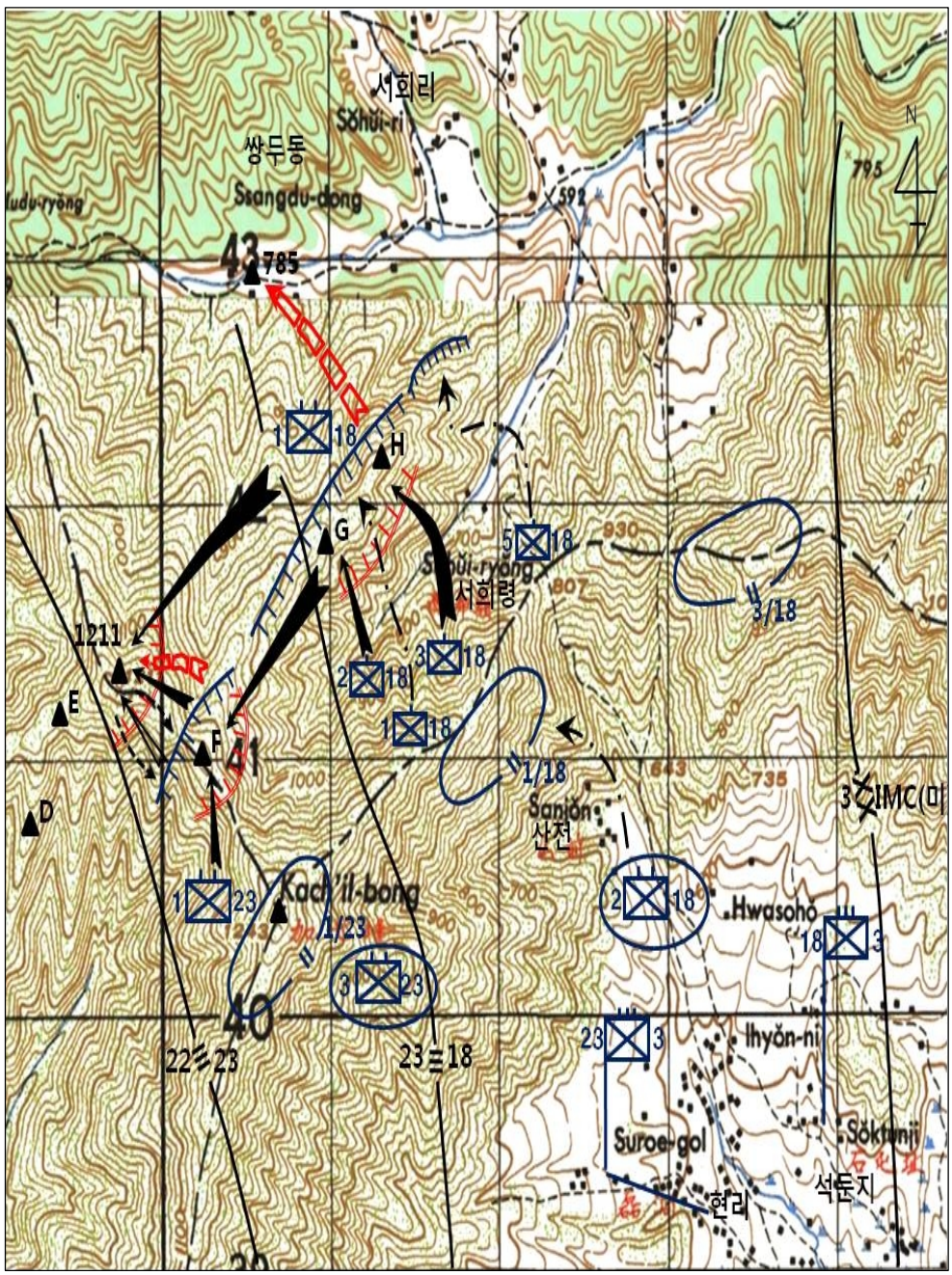
한 후 제23연대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가칠봉의 주진지를 제3대대에 인계한 제23연대 제1대대는 05시에 제1, 2중대를 좌우일선으로 전개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09시 30분에 적의 집요한 저항을 물리치고 전진거점을 형성한 대대는 고지 F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다.

하지만 적의 강력한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대대장은 후속중대인 제3중대를 우회시켜 협공을 시작하였다. 때마침 고지 G-H를 점령한 좌측의 제18연대 제1대대가 고지 F의 동북쪽 능선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삼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은 마침내 분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를 포착한 제1, 2중대는 돌격을 감행하여 백병전으로 적을 제압하고 14시 30분에 목표 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여세를 몰아 1211고지를 공격하였으나, 강력한 적의 자동화기로 인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18시경 고지 F로 철수하여 제18연대 제1대대와 연계하였다.

사단장은 1211고지의 점령을 독려하면서 군단에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연대장 김종순 대령은 10월 30일 제1대대를 고지 F의 서쪽능선을 따라 정면으로, 새로 배속된 제18연대 제1대대는 동북쪽으로 우회시켜 1211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적은 화력거점에서 자동화기와 수류탄으로 대응하였고, 이어 야포와 박격포를 집중하면서 오히려 고지 F의 탈환을 기도하였다. 대대장은 포병엄호사격을 요청하여 적을 격퇴하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1211고지의 공격을 재개하였다. 대대는 고지 F와 1211고지 사이의 능선에서 끊임없는 공방전을 반복하던 중 일몰로 인해 고지 F에서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한편 무명고지 H-G-F 일대를 확보한 제18연대 제1대대는 공격준비사격에 이은 미 공군의 폭격지원을 받으며 1211고지를 공격하였다. 고지 동북쪽으로 우회한 대대는 09시에 81㎜ 박격포의 엄호를 받으며 포복과 약진으로 적진에 근접해 갔다. 그러나 서북쪽의 적으로부터 대대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제11포병대대가 군단포병과 함께 화력지원으로 이를 제압하였다. 대대는 16시를 기해 총공격을 계획하였으나, 고지 F의 서쪽능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23연대 제1대대의 공격차질로 인해 전날에 확보한 진지로 철수하였다.

<상황도 6-4> 가칠봉 부근 1211고지 전투



공세로 이전한 북한군은 10월 31일 새벽에 예비 병력마저 투입하여 고지 H-G-F선을 기습함으로써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대대는 적의 역습을 격퇴하고 고지 F를 확보한 후 우인접의 제18연대 제1대대를 지원하여 임의철수를 엄호하였다. 한편 축차로 철수하여 산전에 집결한 제18연대 제1대대는 제23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었다.

(다) 전투 결과

사단은 1951년 10월 31일부로 1211고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11월 2일 제23연대를 우일선, 제22연대를 좌일선으로 뉴 미네소타선(New Minnesota Line)상의 주진지를 조정하고 고지 H-G-F와 1052고지-고지 C의 전진진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제18연대는 사단예비로 현리 부근에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였다.[53]

반면에 주요 전진거점을 상실한 적은 주거점인 1211고지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북한군 제2사단의 예비인 제4연대의 증원 아래 고지 H-G-F에 역습을 계속하였다.

이후 사단은 육본 지시에 따라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육본 직할로 배속이 변경되어 미 제7사단에 작전임무를 인계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사단지휘소를 죽리로, 제18연대를 수인리(水仁里)로, 제22연대를 송정리, 그리고 제23연대는 추곡리(楸谷里)로 이동하였다. 이번 가칠봉 부근 전투에서 사단이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6-24>와 같다.[54]

<표 6-24>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 과							손 실	
	사살	포로	기관총	다발총	자동 소총	소총	수류탄	전사	부상
계	502	19	9	47	2	81	160	132	182

(3) 어은산 부근 전투(1951년 10월 6일 ~10월 28일)

(가) 전투 개요

백석산을 확보한 제8사단은 해안분지(펀치볼, Punch Bowl) 서벽 일대의 주보급로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고, 사단정면에 위치하여 미 제10군단의 좌익 진출을 저해하는 고지군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계속하였다. 천연의 장벽인 이 고지군은 사단의 우측에서 백석산-1050고지-1120고지-1220고지-어은산(△1277)을 연해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좌측의 북한강 상류 동안에서 동북쪽으로 연결된 892고지-922고지-1065고지-977고지-1090고지-1220고지를 잇는 능선이다.

이 무렵의 전황은 사단의 우인접인 미 제2사단이 피의 능선을 초월하여 단장의 능선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의 작전은 군단 조공으로서 주공인 미 제2사단을 좌측에서 엄호하고, 우측 제6사단의 노매드(Nomad)선 진출에 호응하여 문등리-어은산(魚隱山)을 목표로 하는 제한공격 진출선을 북상시키는 것이었다.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5군단 예하의 제12사단과 제32사단으로, 아군의 공격으로 전투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제12사단은 제2차 백석산 전투에서 1개 연대가 괴멸되다시피 하여 백석산-1050고지-1220고지 일대와 1005고지-서남능선 일대에 새로운 방어선을 급편하였다. 또한 군단의 우익인 제32사단은 743고지-650고지에 주력을, 922고지-891고지에 제2연대 주력을 배치하여 1220고지-1090고지 능선을 주저항선으로 어은산 방어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51년 10월 10일 중공군 제20병단 제68군 예하의 제204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이 사단은 2개월 간의 야전훈련을 마치고 1951년 5월 압록강을 건넌 후 원산에서 해안경비를 담당하다 현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어은산에 OP를 설치하고 우일선에 제612연대를, 중앙에 제611연대를, 그리고 좌일선에 제610연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들의 병력은 약 5,000명으로 추정되었고, 주요 장비는 각종 박격포 75문과 AA 12문, 중기 및 경기 각각 46정과 120정, 수 미상의 직사포 및 소련식 야포와 로켓포 등이며, 분대장급 이상은 다발총을, 병사는 소식 소총으로 무장하였다.[55]

<표 6-25>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8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정 강(鄭 剛)	
	제1대대장	소령	차만석(車萬石)	
	제2대대장	소령	김 광(金 光)	
	제3대대장	대위	김두성(金斗星)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1대대장	소령	박해식(朴海軾)	
	제2대대장	소령	한병갑(韓丙甲)	
	제3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全富一)	
	제1대대장	소령	김광철(金光哲)	
	제2대대장	소령	김동회(金同會)	
	제3대대장	소령	최효삼(崔孝三)	
	제16포병대대장	중령	문재준(文在駿)	배속부대
	제50포병대대장	중령	한광선(韓光先)	1951. 10. 16부
북한군	제5군단장	중장	방호산(方虎山)	
	제12사단장	소장	최아립(崔阿立)	
	제30연대장		-	
	제31연대장		-	
	제32연대장		-	
	제32사단장	소장	김대홍(金大弘)	
	제36연대장	중좌	서정백(徐正白)	
	제40연대장	중좌	김창현(金昌絃)	
	제41연대장	중좌	오장환(吳長煥)	
중공군	제68군장		천광런(陳坊仁)	1951.10.10 교체
	제204사단장		샤오쿼이우	

적의 의도는 전략적 요지인 1220고지-1090고지-1065고지 선을 확보하는 한편 국군 제8사단에 빼앗긴 백석산-1024고지 선을 탈환하여 문등리로 이어지는 주 보급로를 차단, 미 제10군단의 전면적인 진출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56]

작전지역은 700~1000m의 고산준령이 중첩되어 있고, 각 고지마다 45~70도의 급사면과 울창한 삼림, 험준한 암석이 깔려 있어 공자(攻者)는 매우 불리하고 방자(防者)에게는 유리한 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1951년 10월 1일 차기 작전에 돌입한 제8사단은 우일선에 제10연대를, 중앙에 제16연대를, 그리고 좌일선에 제21연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OP를 1024고지에 설치한 제10연대는 우일선에 제2대대를, 주봉인 중앙에 제1대대를, 공격개시선에 제3대대를 집결시켰다. 940고지에 OP를 전진시킨 제16연대는 우일선에 제2대대를, 중앙에 제3대대를, 대곡계곡을 감제하는 521고지에 좌일선의 제1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좌일선의 제21연대는 OP를 602고지에 설치하고 우일선에 제2대대를, 중앙에 제1대대를, 좌일선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57]

사단의 지원포병인 제16포병대대는 현리에, 미 제780포병대대는 양지촌에 각각 위치하는 등 정면 및 측방화망을 구성하였다. 사단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소대식을 배속시켜 지뢰제거와 보급로를 개척하였다. 특히 화천저수지를 이용한 수상보급로의 개척은 1회 왕복으로 대대급의 1일 보급량 수송을 담당하였다.

작전기간 중 기상조건은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어 항공 근접지원이 용이하였고, 새벽녘엔 짙은 안개로 인해 접적행동에 유리하였다.

(나) 전투 경과

1951년 10월 해안분지(펀치볼) 서벽의 진출선을 북상시키기 위해 미 제2사단을 군단의 주공으로 한 미 제10군단장은 백석산-894고지-892고지 선을 확보하고 있는 국군 제8사단에 다음과 같은 작전 지시로 군단의 조공 임무를 부여하였다.[58]

① 제8사단은 1050고지를 점령 확보하라. 공격은 1951년 10월 6일 06시 이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 922고지, 726고지에 강력한 정찰대를 파견하여 이 지역에 정찰 기지를 설치하라.
③ 군단명령이 있을 시, 곡내(谷內)-1220고지-1065고지의 일대를 점령 확보할 준비를 갖추라.

이는 피의 능선을 초월하여 단장의 능선 방향으로 진출중인 군단 주공을 좌측방에서 엄호하는 동시에 백석산을 거점으로 공격정면의 고지군을 어은산 선까지 공략하여 북한강 상류를 사이에 둔 좌인접 미 제9군단의 금성진출에 호응하려는 계획이었다. 군단의 이러한 의도에 따라 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6가지의 첩보기본요소를 분석, 적의 주저항선인 1220고지-1090고지-977고지 선까지의 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공격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제1단계 : 적의 주저항선을 공략하는 전진거점 확보를 위해 제10연대는 목표 A(△1050)를, 제16연대는 목표 C(△620)-D(△650)-E(△730)-F(△743)-G(△752)를, 제21연대는 목표 H(△922)-I(△891)-J(△726)를 점령한다.
② 제2단계 : 제1단계의 진출선에서 공격을 속행하여 제10연대는 목표 B(△730)-K(△1120)-L(△1090)을, 제16연대는 목표 M(△977)-N(△1054)을, 제21연대는 목표 O(△1065)-Q(△920)-R(△748)을 점령한다.
③ 제3단계 : 제2단계로 점령 확보한 1090고지-977고지-1054고지-1065고지의 능선과 920고지-748고지의 능선에 전초종심을 부여하기 위해 제16연대는 목표 P(△931)를, 제21연대는 목표 S(△680)-T(△319)를 점령한다.

이어 공격개시시간을 비롯하여 이러한 작전구상을 구체화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59]

① 좌인접 제6사단은 현 방어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인접 미 제2사단은 10월 5일부터 1065고지-867고지-문등리 일대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② 사단은 현 방어선 전방에 있는 주요 고지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차기 공세에 유리한 전진기지를 확보하려 한다. 미 제30포병대대는 사단공격을 일반 지원할 것이다.
③ 제10연대는 목표 A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라.
④ 제16연대는 목표 C-D-E-F-G에 대하여 위력수색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대에 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⑤ 제21연대는 목표 H-I-J에 대한 위력수색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에 이를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준비하라.
⑥ 제16포병대대는 제10연대의 공격을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⑦ 공병대대는 10월 4일 12시까지 각 연대에 1개 중대(-1개 소대)씩 배속시켜 공격기간 중 지뢰제거, 전진로 개척, 목표확보에 긴요한 공사에 임하도록 하라.

제1단계의 주공목표인 1050고지는 1220고지에서 백석산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중간에 위치한 동서 양면으로 급경사를 이룬 고지이며, 정남쪽으로는 백석산까지 곧바른 능선을 이룬 감제고지이다.

공격정면의 북한군 제12사단은 1220고지에 사단 CP를 두고 예하의 제1연대를 1050고지-1020고지 능선에, 제2연대를 1005고지의 서사면에 각각 배치하고 제2차 백석산 전투에서 물러난 대대규모의 병력을 무명고지에 집결시켜 방어와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여 백석산의 재탈환을 기도하였다. 이러한 적의 기도에 대해 연대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60]

① 연대는 목표 A(△1050)를 공격하여 점령하려 한다.
② 제3대대(무반동총 2정 배속)는 10월 6일 05시까지 LD에 주력을 집결 완료하고 동일 06시를 기해 공격 개시하여 목표 A를 점령 확보하라.
③ 제1대대는 현 진지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제3대대의 공격을 필요한 화력으로서 지원하라.
④ 제2대대는 현진지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우인접 대전차공격대대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제3대대의 공격을 필요한 화력으로 지원하라.
⑤ 75㎜ 무반동총 2문을 작전기간 중 제3대대에 배속시킨다.
⑥ 수색중대의 배속은 종전과 같다.
⑦ 대전차공격대대는 10월 6일 00:30까지 주력을 1024고지 일대에 배치완료하고 우인접 미 제2사단과의 연계를 유지하라.
⑧ 연대 OP는 최초 1024고지에 위치하고 목표 점령 후 1142고지로 추진한다.

명령에 따라 제10연대는 10월 6일 목표 A를 향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06시를 기해 공격준비사격이 연신되자 제3대대는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4시간 후에 백석산 북쪽의 연봉인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하지만 무명고지 북쪽 300m의 1088고지와 1005고지에 위치한 적의 집중사격으로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려워지자 대대는 항공근접지원으로 이들의 제압에 나섰다. 그럼에도 적진을 제압하는데 실패하자 대대는 현 위치에서 사주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이 무렵 제16연대와 제21연대는 부여된 공격목표 고지들에 대한 위력수색을 실시하며 추후의 명령을 대기하였다.

제10연대 제3대대는 다음날 06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협곡으로 이루어진 공격전진로가 적에게 완전 감제되어 진출이 부진하자, 연대장은 항공근접지원과 포병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2,000여 발의 포격지원과 2시간에 걸친 전폭기의 대지공격에도 적의 저항이 지속되자, 대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주방어로 전환하였다.

전날에 이어 10월 8일 06시를 기해 공격을 재개한 제10연대 제3대대는 주공인 제9중대가 인접부대의 엄호와 화력지원 아래 고지 중턱까지 접근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09시 30분에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들은 계속하여 1㎞ 전방의 목표 A(△1050)에 대한 공격에 나섰으나, 적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접근로에 치열한 화망을 구축해놓음으로써 일단 전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대대는 유엔함재기 편대의 대지공격과 미군 4개 포병대대의 포격지원이 무명고지 및 1050고지 일대에 집중되는 동안 단지 100여m 정도를 전진했을 뿐 더 이상의 진출이 불가능하자, 1088고지로 후퇴하여 사주방어에 돌입하였다. 이날 제16연대와 제21연대는 위력수색을 통해 부여된 목표고지 부근에서 중공군 일부 병력과 가벼운 교전을 실시하였다.

전투정찰 및 위력수색을 더욱 강화한 사단의 1050고지에 대한 공격 방침에 따라 제10연대는 10월 9일 06시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주공인 제3대대는 배속된 모든 화력을 동시에 집중하면서 돌격을 거듭하였으나, 진로가 적에게 노출되어 일부 병력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대대는 미 제5공군 2개 편대의 근접지원과 3개 포병대대의 2,700여

발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돌진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적의 저지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다.

한편 전투정찰과 위력수색을 실시하던 제16연대와 제21연대는 이날 오후(14시~16시) 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5군단이 중공군 제68군 예하 제204사단과 교대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사단장은 사단의 전 정면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목표고지를 점령하기로 하고 다음날 제16연대와 제21연대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61]

① 제16연대는 10월 11일 04시를 기해 공격목표 C(△621)-D(△650)-F(△743)-G(△752)를 점령 확보하라.
② 제21연대는 10월 11일 04시를 기해 공격목표 H(△922)-I(△891)-J(△726)를 점령 확보하라. 대전차공격대대를 10월 10일 17시부터 배속한다.
③ 제10연대는 목표 A(△1050)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라.
④ 사단 교육대대는 10월 10일 15시까지 제16연대 및 제21연대에 대하여 75㎜ 무반동총 각 2정을 배속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10월 10일 17시를 기해 제21연대장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동시에 주저항선을 계속 확보하라.

이에 따라 제10연대장은 4일간의 격전을 거듭한 제3대대를 중앙예비로 두고 우일선과 좌일선에 제2대대와 제1대대를 각각 전개시켜 06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12사단 제3연대와 교대한 중공군 제204사단 제611연대였다. 우일선의 제2대대는 우측방 1005고지의 적을 견제하면서 공세를 가해 제1대대가 점령한 무명고지의 동쪽 경사면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3개 포병대대의 지원사격과 유엔공군 소속의 전투기 4개 편대, 그리고 중포중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제3대대의 진출선을 초월한 좌일선의 제1대대는 09시경 대대규모의 적의 반격을 물리친 후 최후 저지선에서 수류탄전을 감행하여 목표 A의 전진거점인 무명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10월 11일 06시를 기해 사단이 전면공격에 나서자, 미 제5공군 소속의 F4U 및 F-51전폭기 5개 편대는 1220고지와 1050고지, 726고지에 5회에 걸쳐 로

켓탄 76발과 56발의 각종 폭탄을 투하하는 동시에 50㎜ 기총소사로 근접지원하였다. 또한 제16포병대대와 미 제300포병대대 등 3개 포병대대는 제10연대와 제16연대 정면의 목표고지에 3,100여 발의 포탄을 집중하여 적의 화기진지를 격파하였다.

우일선의 제10연대는 목표 A(△1050)를 향해 제1대대를 선두로 그리고 제2대대가 후속하여 공격에 나섰다. 제1대대는 화기중대의 지원 아래 대대규모의 적을 물리치고 11시경 돌격선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후속하던 제2대대는 1개 중대를 우회시켜 고지의 동쪽 기슭을 지나 무명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제1대대를 측면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적은 1,000여 명의 추산병력으로 고지의 주요 위치에 진지를 구축한 채 자동화기와 박격포의 집중화력으로 저항하였다. 제1대대는 중앙에서 돌격하던 제2중대장 이금영(李琴永) 중위가 적진 20m 전방까지 접근한 뒤 돌격조를 직접 지휘하여 적의 자동화기 진지를 수류탄으로 파괴하였다. 이처럼 제1대대는 항공 근접지원과 포병 지원사격하에 적의 주진지에 대한 육박공격과 수류탄전을 감행한 끝에 17시 20분 고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중앙일선의 제16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공격일선으로 하여 04시에 목표 C(△620)-D(△650)-F(△743)-G(△752)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장 이존일(李存一) 대령은 지형과 적정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62]

① 제1대대는 현 방어임무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제3대대와 병진하여 목표 F(△743)를 탈취한 다음 목표 G(△752)를 점령 확보하라.
②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서 제1대대 담당임무를 인수하고 계속 진지를 확보하면서 별명에 따라 목표 E(△730)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
③ 제3대대는 제1대대와 연계하여 목표 D(△650)를 탈취한 다음 계속 목표 C(△620)를 점령하라.

명령에 따라 목표 고지로부터 동남쪽 1.3㎞에 위치한 521고지의 공격개시선을 통과한 제1대대는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06시에 목표인 743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 14시무렵에는 목표 G인 752고지의 150m 전방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04시에 공격을 개시한 제3대대는 목표 D인 650고지 동쪽 기슭의 협곡지대를 지나 고지 중턱까지 진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여의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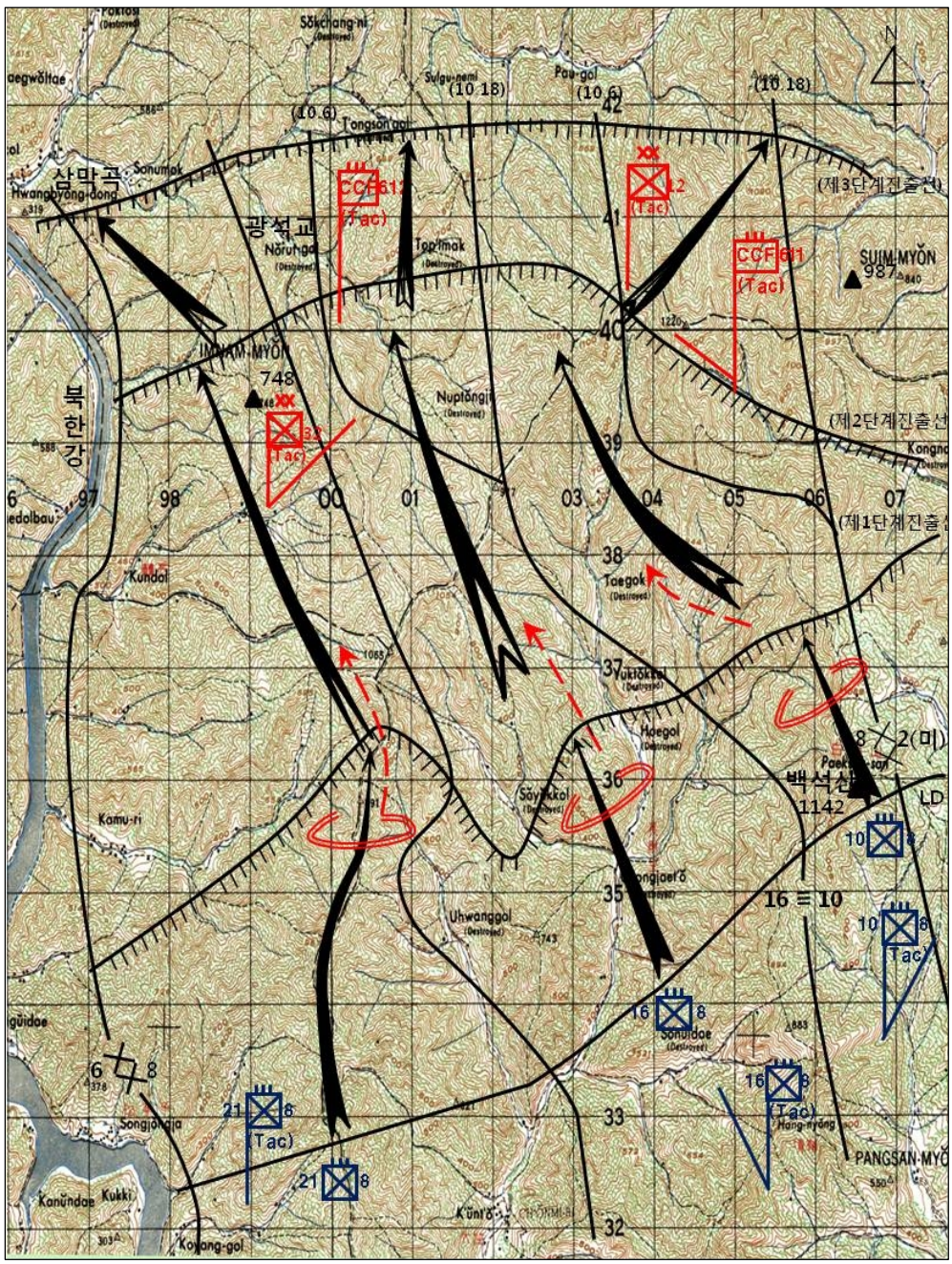
한편 좌일선인 제21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공격 제대로 그리고 제2대대를 예비로 편성하여 목표 H(△922)-I(△891)-J(△726)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연대장 전부일(全富一) 대령은 지형과 적정을 분석한 후 각 대대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고,[63] 공격지원을 위해 81㎜ 박격포 16문을 배치하였다.

① 제1대대는 무명고지(△922 동남쪽)를 점령한 다음 계속 전진하여 목표 H(△922)를 확보하라.
② 제2대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의 공격간 연대예비로서 공격제대를 화력지원하되 제1대대가 △922고지를 점령하면 △922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I(△891)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목표 J(△726)를 점령한 다음 제1대대와 협동하여 제2대대의 공적을 지원하라.

05시에 무반동총과 중화기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전진을 단행한 제1대대는 922고지 접근로에 설치된 지뢰들을 제거하며 11시경 적진 1㎞ 전방까지 접근하였다. 대대는 이곳에서 중대규모의 적과 20여 분간의 교전을 펼쳐 이들을 격퇴한 후 계속 진격하여 무명고지 중턱까지 도달하였으나 적의 측방화력으로 인해 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제3대대 또한 목표 J를 향해 전진을 시작하였으나, 급사면을 이용한 적이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항함으로써 적의 저지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무렵 연대예비인 제2대대는 공격제대를 화력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대에 배속된 대전차공격대대와 함께 공격간 주진지를 확보하였다.

다음날인 10월 12일 사단은 미 제5공군 소속 전투기 4개편대의 4차에 걸친 근접지원과 3개 포병대대의 포격지원 아래 목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10연대는 미 제2사단 제9연대와의 전투지경선 변경에 따라 1005고지를 인수하고, 제1대대를 1050고지에, 제2대대를 백석산 주진지에, 그리고 제3대대를 백석산 서남쪽 능선에 배치하면서 제2단계 공격임무에 대비하였다.

<상황도 6-5> 어은산 남측지구 공격방향



목표 C(△620)-D(△650)-G(△752)에 대한 공격에 나선 제16연대는 제1대대가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12시 15분 목표 G를 점령하였으나, 강력한 적의 역습에 밀려 고지 동쪽의 8부 능선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후 대대는 격렬한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펼쳐 고지정상 100m 전방까지 진출하였으나, 끝내 정상 탈환에 실패하고 자정 무렵 8부 능선에서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목표 D와 C의 점령에 나선 제3대대는 주력이 중화기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감행한 끝에 14시 10분에 목표 D를 점령하였고, 대대예비 병력은 3차에 걸친 돌격으로 급경사의 불리한 지형을 극복하고 17시 40분에 목표 C를 탈취하였다.

전날의 진출선에서 공격을 재개한 제21연대 제1대대는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목표 고지에 접근한 후 좌우로부터의 협공을 펼쳐 15시 30분에 목표고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목표 I(△891)에 대한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제1대대가 922고지를 점령하자, 16시에 이를 초월하여 922고지 북쪽의 967고지에서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돌격을 거듭한 끝에 17시에 목표를 확보하였다. 목표 J(△726)의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는 중포중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정상 정복에 나서 09시 30분 수류탄과 백병전으로 적의 주진지를 격파하고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21연대는 891고지-922고지-726고지를 연하는 능선을 확보하고 차기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전면공격을 통해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판단한 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준장은 계속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적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제2단계 작전의 단행을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64]

① 사단은 △1090-△977-△1065를 일거에 공략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목표 B(△730)-K(△1120)-L(△1090)을 점령하면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증원을 저지 격파하라.
③ 제16연대는 목표 E(△730)-M(△977)-N(△1054)을 점령하라.
④ 제21연대는 목표 O(△1065)-Q(△920)를 점령하라.
⑤ 각 연대는 공격간 최소 1개 대대로써 지시된 주저항선을 계속 확보함을 요한다.
⑥ 공격개시 일시는 1951. 6. 13. 06시이다.

명령을 받은 제10연대장은 공격 제1선에 제2대대를, 엄호부대로 제3대대를 그리고 연대예비로 제1대대를 편성하여 1050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65] 10월 13일 07시를 기해 제1차 목표인 1120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중화기의 지원을 받으며 돌진을 거듭한 끝에 10시 30분 무렵 1120고지의 전진진지인 1025고지를 공격하기에 유리한 고봉을 확보하였다. 미 제300포병대대의 지원을 받은 공격제대는 외곽진지를 돌파한 후 백병전으로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정오 무렵 1025고지를 확보하였다. 엄호부대인 제3대대는 08시에 일부 병력을 1050고지의 동북쪽으로 우회시켜 제2대대가 공격 전진을 감행하는 동안 측방을 엄호하였다.

한편 제16연대장은 제2대대에 목표 M(△977)을, 제1대대에 목표 G(△752)-N(△1054)을, 그리고 제3대대에 목표 E(△730)에 대한 공격임무를 각각 부여하였다.[66] 06시에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중포중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돌격과 수류탄전으로 적의 엄체호를 파괴하고 1시간여 만에 고지정상을 점령한 후 전과를 확대하여 목표 고지 동북쪽의 무명고지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제2대대도 제1대대의 공격과 동시에 목표 M에 대한 공격에 돌입하였다. 작렬하는 적의 치열한 집중포화와 대곡고지에 배치된 적의 저항을 극복하고 서쪽 기슭에 도달한 공격제대는 22시경 목표인 977고지의 접근로 어귀에서 대형을 재정비하였다. 제3대대장은 목표인 730고지의 점령이 연대작전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접 대대의 진출에 앞서 목표 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67] 2개 중대 병진으로 0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대대는 예비 병력의 자동화기와 박격포 지원으로 적의 화력을 견제하는 동안 적을 격퇴하고 12시 30분에 목표 E를 완전 점령하였다.

사단의 좌일선인 제16연대는 현 진지를 계속 강화하여 적의 반격을 봉쇄하는 동시에 목표 O(△1065)-G(△920)선을 신속히 점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2대대에 주공임무 부여하는 한편 제1대대와 제3대대에 현 진지를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68] 10월 13일 06시를 기해 제2대대는 4.2인치 중박격포 및 81㎜ 박격포의 집중포격이 목표고지에 가해지는 가운데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은 제2대대는 17시까지 일진일퇴의 격전을 전개한 끝에 적진 50m 전방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처하였다.

제2단계 작전 이틀째인 10월 14일 제10연대는 제2대대에 목표 K(△1120)를. 제3대대에 목표 B(△730)에 대한 공격임무를 각각 부여하였다. 전날의 공격에 이어 제2대대는 07시부터 1025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별다른 접적 없이 고지 중턱까지 진출한 다음 우회하여 18시경 현 진출선에서 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730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제3대대는 11시에 1050고지-1025고지 사이의 능선을 따라 목표고지의 동쪽 계곡으로 내려갔다.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계곡을 건넌 대대는 고지의 우측면으로 접근하여 적을 기습함으로써 15시 30분 무렵 고지점령에 성공하였다.

한편 제16연대는 3개 대대를 공격일선에 참가시켜 목표 N(△1054)과 목표 M(△977)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대대는 제21연대 제2대대의 1065고지 공격을 측방에서 지원하던 중 제21연대가 고지점령에 성공하자 15시를 기해 동북쪽 능선을 따라 공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고지 정상의 서남쪽 능선에서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는 동안 일몰과 함께 적이 병력을 증원해옴에 따라 동남쪽 능선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목표인 977고지를 향해 03시에 공격을 재개한 제2대대는 고지 100m 전방까지 진출하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에 고전하던 중 후속부대가 합류한 15시 30분에 돌격과 함께 백병전을 펼쳐 18시경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1054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는 우일선의 제11중대가 목표고지의 800m 전방에 위치한 무명고지를 점령하였고, 좌일선의 제10중대는 무명고지를 서쪽으로 우회하여 공격하였으나 적의 집중사격에 걸려 8부 능선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목표 O(△1065)의 점령임무를 부여받은 제21연대는 제2대대가 07시를 기해 공격에 나섰다. 우일선의 제5중대장 최한규(崔漢奎) 중위는 측방에서 화력을 집중하는 적의 엄체호를 파괴하기 위해 10명의 돌격조를 편성한 후 진두지휘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이에 고무된 대대 병력은 일거에 돌진하여 결전 끝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제2대대가 점령한 1065고지를 초월하여 고지 동북쪽 능선상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전날에 이어 10월 15일에도 각 연대는 부여된 목표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지속하였다. 제10연대는 제2대대에 목표 K(△1120)를, 그리고 730고지를 확보중인 제3대대에 목표 L(△1090)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07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제2대대는 치열한 적의 집중사격으로 고전하던 중 우회한 제5중대가 수류탄으로 적의 자동화기진지를 파괴함과 동시에 총 돌격을 감행하여 1시간 만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730고지를 출발하여 대곡의 북쪽 능선으로 기동한 제3대대는 13시에 남쪽 경사면의 6부 능선에서 공세를 펼쳐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항하는 적과 혈전을 반복한 끝에 17시 50분 고지를 확보하였다. 이어 대대는 서남쪽 능선상의 무명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적의 어은산 방어의 주저항선인 1220고지-1090고지-977고지 선을 장악하였다.[69]

한편 제16연대는 제1대대에 목표 N(△1054)에 대한 공격을, 그리고 제3대대에 목표 P(△931)에 대한 차기작전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02시 40분에 작전에 돌입한 제1대대는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1054고지를 점령하였다. 08시에 작전을 재개한 대대는 중도에 적의 반격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14시 40분경 목표 P(△931)의 남사면에 돌격거점을 형성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1054고지-977고지의 동북쪽으로 우회하여 977고지 동북쪽 능선에 위치하였고, 일부는 931고지 동쪽 능선까지 진출하였다.[70]

제21연대는 목표 G(△920)-R(△748)에 대한 공격임무를 제3대대에 부여하였다. 07시 30분에 1065고지를 초월한 제3대대의 공격제대는 약 2시간 후 노출된 능선상에서 적의 저항을 받았으나, 중화기지원을 받으며 돌진하여 백병전과 수류탄전으로 격퇴하고 목표고지를 점령하고 전과를 확대하였다. 이날 제1대대는 1065고지-527고지 간의 능선 일대에 주저항선을 확보하였고, 제2대대는 1065고지의 정상을 중심으로 진지를 강화하였다.[71]

이와 같이 사단은 1090고지와 748고지를 점령하고 진출선을 북상시킴으로써 군단에서 부여한 공격목표를 훨씬 초월하여 어은산 선을 지향하였다. 반면 정면의 중공군 제204사단은 주저항선을 상실하고 1090고지-931고지-680-319고지 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급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스 소장은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을 점령함으로써 군단의 중앙진출이 안정되자, 좌인접 미 제9군단의 금성진출에 호응하기 위해 신속한 북상 진출을 사단에 지시하였다.[72] 이에 따라 사단은 1220고지-1090고지-1277고지를 잇는 능선으로 주공을 지향하여 전면적인 공세를 전개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예하에 하달하였다.[73]

① 사단은 △1090-△931-△680-△319의 적을 격멸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목표 U(△1090)를 공격 점령하라.
③ 제16연대는 목표 P(△931)를 공격 점령하라.
④ 제21연대는 목표 S(△680)-T(△319)를 공격 점령하라.
⑤ 제16포병대대를 10월 16일 16시부로 배속 해제하고 제50포병대대를 사단에 배속한다.
⑥ 대전차공격대대는 10월 16일 17시까지 장재대(長財垈)로 이동하여 추후 명령을 대기하라.
⑦ 공병대대는 신방어선의 진지를 강화하라.

명령을 받은 제16연대는 진출선인 도피막 일대에서 10월 16일 06시를 기해 목표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일선인 제3대대의 공격제대는 비교적 완만한 931고지의 동남쪽 경사면으로 진격하여 적의 집중된 중화기사격을 육탄 돌격으로 극복하고 11시 무렵 고지정상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고지 동북쪽의 바우골 능선으로부터 적의 역습이 시작되고, 적의 포탄이 진내에 집중되자, 교전을 중단하고 8부 능선으로 철수하였다. 08시에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제3대대가 적의 역습을 받고 격전을 전개하는 동안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고지의 서북쪽 급경사로 돌진하였으나, 적의 화력에 직면하여 혈전 끝에 7부 능선에서 사주방어에 들어갔다.[74]

한편 680고지와 315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제21연대는 공격임무를 제3대대에 부여하였다. 07시에 목표를 향해 전진한 제3대대는 별다른 적의 저항 없이 09시에 고지를 장악한데 이어 서북쪽 능선으로 돌진하여 2개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12시 30분경 650고지마저 점령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 수색중대는 북한강 동안으로 북상하던 중 목표 T인 319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삼막곡(三幕谷) 일대를 장악하였다.

제21연대의 공격목표인 680고지와 319고지를 확보한 사단은 931고지 공략에 중점을 두었다. 공격을 담당한 제16연대는 제16포병대대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10월 17일 07시 40분을 기해 공격에 돌입하였다. 우일선의 제3대대는 중화기지원을 받으며 13시경 돌격준비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적의 치열한 집중화망에 걸려 차폐진지를 급편하였다. 좌일선의 제1대대는 고지 서남단으로 진출해 3회에 걸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일몰로 인해 고지 서남단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75]

다음날 사단장은 제16연대의 931고지 공략을 격려하는 한편 제10연대에 1090고지의 재공격을 지시하였다. 적은 문등리-1090고지-암동-931고지선에 최후저지선을 확보하고 미 제10군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1090고지 일대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였다. 1220고지로 진출해 미 제2사단 제38연대로부터 고지를 인수한 제3대대는 13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화기 지원 및 포병대대의 직접지원 하에 돌진을 단행한 공격제대는 적의 집중 화력과 함께 측방화력으로 인해 공격을 중단하였다.

한편 제16연대는 931고지의 점령을 위해 예비대인 제2대대마저 공격제대로 편성하였다. 우일선의 제3대대는 09시 10분에 고지 동쪽 경사면을 통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유엔공군의 근접지원 하에 고지정상에 근접한 대대는 완강한 적의 저항에 직면하였으나, 결사돌격조를 편성하여 5차에 걸친 육탄돌입을 감행한 결과 17시 무렵 적 주진지의 좌단 일부를 점령하였다. 또한 중앙의 제1대대도 연속된 돌격을 통해 진지 일부를 탈취하였다. 좌일선의 제2대대 또한 돌진을 거듭한 끝에 적 주진지의 일부를 확보한 후 21시 50분 수류탄과 백병으로 적의 교통호를 장악하였다.[76]

한편 전날에 이어 1090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제10연대는 공격제대인 제3대대가 제16야포대대와 미 제5공군 전폭기 2개 편대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정오 무렵 목표고지 1㎞ 전방의 무명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진격을 계속한 끝에 1090고지의 남쪽 연봉에 이르렀으나, 적의 집중포화와 측방사격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공격

을 중단하고 사주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77]

적의 주진지 일각을 점령했던 제16연대는 야간의 적의 역습을 물리치고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일선의 제3대대는 새벽녘부터 이어진 적의 역습에 일단 철수한 후 제16포병대대의 제압사격과 미 제5공군 전폭기 편대의 근접지원 하에 돌격을 감행하여 적의 진지 일각을 다시 점령하였다. 또한 좌측의 제3대대는 제1대대로부터 남정면에서의 임무를 인수한 후 15시경 제1대대와 호응하여 공격을 재개한 끝에 완강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931고지를 성공적으로 장악하였다.[78]

이후 사단은 3단계 작전의 최종목표인 1090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하였으나, 폭우로 인한 기상조건의 악화로 포병지원과 항공근접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부득이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날씨가 쾌청하게 회복된 10월 27일 제10연대는 1090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는 4개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14시에 공격에 나서 16시에 목표고지 남쪽 300m 능선상의 연봉인 무명고지를 차지하였다. 사기가 오른 공격제대는 다음날 07시에 목표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고, 미 제50 및 제300포병대대의 제압사격과 미 제5공군 전폭기 편대의 근접지원이 집중되자 수류탄 화력을 집중하며 돌격하였다. 최후의 발악으로 진내탄막을 깔고 저항하던 적은 마침내 진지에서 이탈하여 퇴각하기 시작함으로써 정오 무렵 공격제대는 목표인 1090고지를 완전 장악하였다.

(다) 전투 결과

이번 전투기간 중 제1단계 작전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군 제12사단과 제32사단은 중공군 제204사단에 방어진지를 인계한 후 원산방면으로 철수하여 부대재편에 착수하였다. 중공군 제204사단 또한 사단의 연속된 공세로 인해 어은산(△1277)과 949고지로 철수하여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1277고지-960고지-949고지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반면 국군 제8사단은 23일간에 걸친 3단계 작전기간을 통해 10월 28일 최종목표인 1090고지를 점령함으로써 1090고지-931고지-암동-319고지로 이어지는 진출선에서 우인접의 미 제2사단과 좌인접의 제6사단의 진출에 호응할 수 있었다. 이

후 사단은 11월 20일 작전지역을 제7사단에 인계한 후 백야전전투사령부에 예속되어 서남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였다.

1951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어진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및 손실 현황은 다음의 <표 6-26> 및 <표 6-27>과 같다.[79]

<표 6-26> 작전기간 중 사단의 전과 현황

구 분	사살	생포	노획						
			로켓포	박격포	중기	경기	다발총	소총	수류탄
제10연대	576	56			6	17	14	78	960
제16연대	609	17		2	4	5	2	20	2,450
제21연대	286	33	3	4	3			56	9,700
계	1,472	106	3	6	13	22	16	154	13,110

<표 6-27> 작전기간 중 사단의 손실 현황

구 분	전사	부상	실종	망실			
				BAR	M1소총	칼빈소총	총검
제10연대	1/111	7/397	/3	2	10	49	168
제16연대	3/93	7/466	/3				
제21연대	/37	5/285	/8				
계	4/241	19/1,148	/14	2	10	49	168

2) 연천-철원 병참선 확보와 코만도작전

미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이 하계제한공세작전을 통해 해안분지(펀치볼)를 확보하고 방어선을 개선하는 한편 마무리 단계로서 단장의 능선전투를 전개할 무렵, 서부에서도 유사한 추계공세를 실시하기 위해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이라 명명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당시 한강 하구-문산-연천-철원에 이르는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驛谷川)까지 약 10㎞ 정도 추진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작전의 목표선은 고랑포 동남쪽 임진강 제방-사미천변의 사미촌(沙尾村)-고왕산(高旺山)-마량산(馬粮山)-임진강변 계호동-역곡천 남안의 고지군-281고지, 395고지-철원 북서쪽 주토소-중가산(中佳山)-438고지-한탄천과 남대천의 합류지점인 정연리(亭淵里)를 연하는 선으로서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이라 명명하였다.

군단장은 이 작전으로 ①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추진해 현재 점령중인 와이오밍선의 방어력을 더욱 튼튼히 함은 물론 ② 연천-철원계곡의 병참선을 적의 포병사격이나 관측으로부터 방호하고 서울-철원, 철원-김화간의 철로를 개통시켜 다가오는 겨울철의 차량에 의존해야 하는 보급제한을 해소하며 ③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아군이 정체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전략, 전술적 이점을 고려해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9월말 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작전으로 미 제1군단의 우익이 돌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인접 미 제9군단의 좌익 미 제25사단도 이 작전에 동참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일에 군단장은 작전명령을 하달하며 아래와 같이 각 사단에 임무를 부여하였다.[80]

① 군단 좌익의 임진강을 방어중인 국군 제1사단은 판부리 서쪽 91고지, 146고지 일대(Moon)를 점령 방어하라.
② 영연방 제1사단은 187고지, 고왕리 일대(Foster)와 마량산, 고잔리 일대(Moore)를 점령 방어하라.
③ 미 제1기병사단은 놀음고개, 346고지 덕은동 일대(Courson)와 347고지, 갈현리 일대(Craig)를 점령 방어하라, 또한 목표 크레이그를 탈취한 후 우인접 미 제3사단의 목표 버틀러 공격을 지원할 준비를 하라.

④ 미 제3사단은 중토동-도밀리, 324고지-덕산리 일대(Butler)와 대마리-281고지-266고지-중어성 일대(Watts)를 점령 방어하라. 버틀러 목표는 북쪽과 남쪽에서 공격하되, 이것이 불가능하면 1개 연대를 좌인접 제1기병사단 지역으로 기동시켜 서쪽에서 공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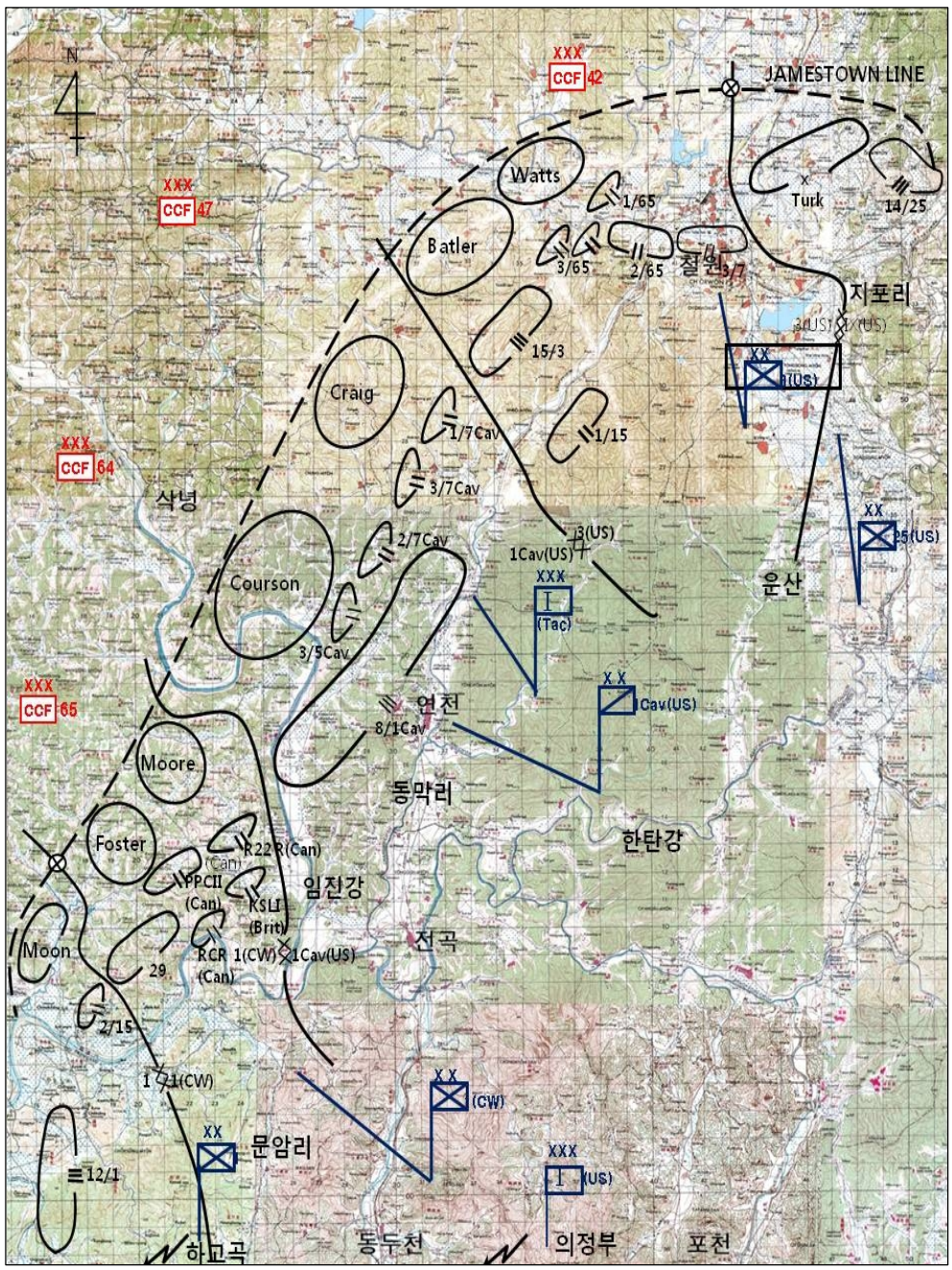
그리고 미 제9군단의 제25사단은 좌전방의 터키여단에 김화-평강 사이의 중간지점까지 전진해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미 제1군단의 전방에는 좌로부터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5군과 제64군이 임진강 연안에 배치되었으며, 역곡촌 일대에는 제47군이, 철원-김화 전방에는 제42군과 제9병단의 제26군이 평강으로 일는 접근로를 방어하고 있었다.[81] 그리고 예성강 서쪽에는 북한군 제1군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밖에도 남천점 남서쪽에는 제19병단의 제63군이, 이천과 곡산지역에는 제3병단 제12, 제15, 제60군이 전선예비로 집결하고 있었다.

전방에 배치된 적은 몇 개월간의 교착기를 이용해 방어선도 강력히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10월 2일에 펑더화이로부터 "제19병단은 적의 공격에 단호히 저항하고 적군을 대량살생하며, 또한 유리한 상황에서는 역습을 실시함으로써 적군의 공세를 분쇄하라"[82]는 지시를 받아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었다. 즉, 중공군은 "적극방어, 계속저항, 반복쟁탈, 적군섬멸"이란 지도원칙에 따라 강력한 저항과 연속적인 역습으로 방어선을 고수할 태세였다.[83]

미 제1군단의 특공작전은 10월 3일 이른 아침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6시에 시작되었다. 첫날 작전에서 좌익의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 상의 주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우전방 제15연대가 적의 저항 없이 사미천 서안의 91고지와 146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군단목표를 점령하였다. 역시 우익의 미 제25사단도 터키여단이 경미한 교전 끝에 이길리의 372고지를 점령하고 제14연대가 제임스타운선 동단의 정연리 북측 430고지를 접적 없이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작전목표선을 확보하였다. 이들 사단의 목표선은 정면과 종심이 모두 짧아 조기 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양익 사단이 순조롭게 임무를 완수한 반면 나머지 사단은 적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고, 특히 중앙의 제1기병사단 공격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마치 단장의 능선 전투를 방불케 하는 조짐을 보였다.

<상황도 6-6> 미 제1군단의 코만도(COMMANDO) 작전계획



제1기병사단은 첫날 좌전방 제5기병연대가 목표 커슨에 이르는 중간목표 222고지, 272고지, 346고지, 287고지를 공격했으나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 끝에 222고지를 점령하였고, 272고지는 6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점령에 실패하였다. 우전방 제7기병연대는 제3대대와 그리스대대 그리고 제2대대를 전방으로 하여 크레이그 목표 남쪽의 347고지, 313고지, 418고지를 공격했으나, 모두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스대대의 313고지전투와 제2대대의 418고지 전투에서는 이날 하루에 3~4 차례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으나 적은 백병전에서 밀려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이날 아군이 15,000발의 포탄을 발사한데 반해 제2포병사단을 투입하고 그 대부분을 미 제1기병사단의 전진을 저지하는데 운용하였다.

제1기병사단 좌익의 영연방 제1사단은 우전방 제28연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이날 목표 무어 하단의 고잔하리-199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 일부는 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목표 포스터와 무어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우익의 미제3사단은 이미 목표 왓스는 거의 점령한 상황이었으므로 공격의 초점은 바틀러 목표에 모아졌다. 왓스 탈취임무를 부여받은 중앙의 제7연대는 이미 395고지와 266고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격 첫날인 10월 3일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가 중어성 남쪽 도로 교차점까지 점령지역을 확대함으로써 281고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우익의 제65연대(-)는 철원평야의 284고지와 중가산 일대까지 일부 부대를 추진 배치해 제임스타운선을 점령하였다. 좌전방 제15연대는 목표 바틀러 남쪽 야월산(△487)을 무혈점령하고 천덕산(△477)을 공격하였다.

다음날인 10월 4일도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격전이 전개되었고, 특히 제1기병사단의 공격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이날도 346고지 공격에서 쌍방간 균형을 깨지 못했고, 272고지는 확보하였다가 상실하였다. 제7기병연대도 전날처럼 347고지, 313고지, 418고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그리스대대는 313고지 공격에서 연일 큰 피해를 입었고,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의 1개 대대를 지원받아 양개 대대로 공격했으나 418고지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적은 고지에서 밀려나면 인명을 고려하지 않고 부대를 투입해 다시 탈환하였다. 적은 중대 당 12정의 기관총을 운용하였고, 많은 양의 수류탄을 확보해 투척하였다. 아군은 바로 이 수류탄공격에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날 적은 미 제1기병사단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제139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예비인 제140사단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제1기병사단은 중공군 제47군의 주력과 대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5일에는 적의 방어선도 일부가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날 제1기병사단의 우전방 중앙에서 313고지를 공격한 그리스대대가 정상에 도달할 무렵 적은 시체 150구를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스대대는 여기서 패잔병 12명을 생포하였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418고지도 무혈점령하였다. 이로써 제7기병연대는 작전 3일째에 비로소 목표 크레이그의 저변을 확보하고 347고지와 334고지를 지척에 두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마량산의 전경

한편 영연방 제1사단은 10월 4일 중앙의 캐나다 제25여단이 187고지와 가마골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였고, 좌전방의 제29여단이 187고지 서단으로 진출함으로써 목표 포스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우전방 제28여단은 목표 무어와 포스터와의 중간에 위치한 고왕산(△355)과 227고지를 점령하고 무어의 남단 일각을 차지하였다. 이 여단은 다음날 5일 공격을 재개하여 마량산(△317)과 그 서남의 217고지를 탈취함으로써 목표 무어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미 제3사단은 10월 4일 제15연대가 이틀째 공격에서 천덕산을 점령했으나 적의 역습에 의해 다시 피탈되었고, 제7연대는 281고지까지 점령함으로써 목표 왓스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제65연대는 제2대대가 전날에 점령한 제임스타운선에서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제15연대는 10월 5일에야 천덕산을 점령한 다음 6일에는 적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324고지에 오름으로써 목표 바틀러를 점령하였다.

군단의 특공작전 개시 4일째인 10월 6일에도 가장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제1기병사단은 격전을 계속하였다. 제5기병연대가 적거리(赤巨里) 일대의 목표 커슨 남단 346고지 일대로 수색정찰대를 진출시켰으나 대대규모의 적의 저항으로 원위치로 복귀하였고, 제7기병연대는 배속된 제8기병연대 제2대대가 갈현리 334고지를 점령하고 주야 두 차례에 걸쳐 적의 역습을 격퇴하였다. 포로들은 "공격 첫날에 부대가 많은 살상을 당했고 식량과 탄약도 고갈되어 이날 역곡천 북방으로 5~7㎞ 후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작전개시 5일째인 10월 7일 이미 좌우인접 사단들이 목표를 확보한 가운데 제1기병사단도 공격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익의 제7연대는 그리스대대의 지원을 받는 제3대대가 부흥리 347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일몰 무렵 날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1기병사단은 두 개의 목표 중 크레이그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그러나 좌익인 제5연대의 공격은 이날까지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에 나선 제7연대는 제1대대에 커슨 목표의 하나인 287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인수하여 제2대대의 지원하에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제7연대 제1대대가 커슨 목표의 동북 287고지를 점령해 제5연대 목표의 일각을 파괴했으나 적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강력한 포병 및 박격포, 전차포

사격도 튼튼한 적의 방어조직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346고지를 중심으로 한 230고지와 272고지에서는 10월 9일까지도 목표탈취를 위한 격전이 계속되었다. 이날 군단은 목표 1개가 남아있었음에도 군단의 작전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작전을 일단 종결하였다.

하지만 제1기병사단은 군단작전의 종결에도 목표 커슨에 대한 공격작전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은 적의 병력 및 탄약의 고갈로 그 효과가 10월 12일에야 나타나게 되었다. 이날 밤 적이 272고지를 포기함으로써, 다음날 제8기병연대는 접적 없이 이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마지막 목표인 346고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군단 우익 제3사단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사단의 전초임무를 띠고 학당리 338고지에 추진된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가 11일과 12일 자정 후 한밤중에 최후 저지사격에도 불구하고 진전에 접근한 중공군을 격퇴시켜 제임스타운선 방어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 목표 커슨에 대한 작전은 10월 15일에 시행된 새 작전계획에 따라 속행되었다. 제5기병연대는 제3사단으로부터 벨기에대대를 배속 받아 346고지를 공격하고, 필요시 제8연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10월 16일 제5기병연대의 총공격과 함께 제8기병연대는 287고지로부터 346고지를 북동쪽에서 공격하였다. 10월 18일 완강히 저항하던 적이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제5기병연대는 346고지와 230고지를 연이어 탈취하였다. 이어 적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262고지마저 탈취함으로써 목표 커슨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19일까지 제1기병사단은 역곡천 남안의 목표를 모두 확보하였고, 적은 그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중공군은 그들의 보급기지인 삭령을 방어하기 위해 역곡천 남안에서 강력히 저항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공군은 이 작전에서 기본전술 교리인 유동방어 개념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고수방어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공군의 전사에는 이 전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84]

> '아군은 적극방어, 계속저항, 반복쟁탈, 적군섬멸'의 지도원칙 아래 강인한 저항과 연속적 역습을 실시하였다. 진지마다 모두 수차에서 10여 차례에 이르는 반복쟁탈

> 전이 전개되었고, 아군의 어떤 중대는 10~30명이 남게 되었으나 진지를 여전 고수하였다... 마량산 진지는 5차례나 뺏고 빼앗겼다. 217고지를 방어한 1개 중대는 갱도식진지(말발굽형 동굴)에 의탁하여 하루 동안에 21차례의 적의 계속된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 코만도작전 기간 동안 중공군은 포로 500명을 포함해 21,000여 명의 손실이 발생하여, 제47군의 전력이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이 중 76%인 16,000명은 제1기병사단에 의한 것이었다. 아군도 제1기병사단의 2,900명을 포함해 모두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아군은 이러한 많은 희생의 대가로 작전목표를 달성하고 방어선을 제임스타운 선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진지를 회복하려는 중공군의 공격이 반복되어 특히 제1기병사단과 영연방 제1사단지역에서는 전초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전투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 특히, 1951년 11월부터 실시된 적의 동계공세에서 중공 제64군은 마량산과 고왕산에 대해 차례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해왔다.

중공군은 11월 2~3일 영연방 사단의 좌전방 연대(캐나다 제25여단)지역에 양공작전을 편 다음 4일 이른 아침에 우전방 제28연대가 방어중인 마량산(△315)과 217고지를 공격해왔다. 그들은 포격은 물론 7~8대의 전차까지 동원해 공격하였다. 적은 인해전술과 파상공격으로 아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해 들어왔고, 아군은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으로 대응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결국 10월 초에 힘겹게 탈취한 이 고지를 상실하였다.

중공군은 11월 17일 밤에 역시 제28여단의 좌단인 고왕산 서쪽 227고지를 공격하였다. 야간공격에서 적에 압도된 여단은 결국 고지를 상실하고 227고지와 고왕산(△355) 사이의 안부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 무렵 단행된 사단의 전투지경선 조정과 이에 따른 부대 재배치의 결과로 사단의 우전방이 된 캐나다 제25여단 예하 R22 R대대가 문제의 안부진지를 인수하였고, 그 동측 고왕산은 미 제3사단에 인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대배치의 조정을 눈치 챈 중공군이 바로 다음날인 23일 고왕산을 공격해 2개 대대 병력으로 진지를 갓 인수한 미군을 몰아내고 말았

다. 승세를 탄 적은 이날 19시 20분 능선을 따라 캐나다 R22 R대대 D중대가 점령중인 안부진지로 쇄도하였다.

D중대는 적이 진전에 도착하자 기습사격으로 격퇴하였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적은 21시 30분 227고지에서 중대의 서측 진지를 돌파해 들어왔다. 이때 제1파는 다발총으로, 제2파는 철조망을 넘기 위한 멍석을 휴대하고 제3파는 단검에 몽둥이를 매달고 나팔을 불며 돌격해왔다. 이런 와중에서도 전투 경험이 많은 중대장은 당황함이 없이 돌파되고 있는 진지에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역습대를 투입해 이들을 격퇴시켰다. 캐나다대대의 안부진지 고수로 다음날 미 제3사단도 고왕산을 역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전투에서 마량산을 빼았기고 고왕산을 확보한 상황은 이후 열린 군사분계선 회담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국 같은 상태로 휴전협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3) 금성지구 확보작전

군사령부의 하계제한공세전략에 따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해안분지(펀치볼)를 확보하고,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이 연천-철원 도로 및 철로 축선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주저항선을 북으로 10㎞ 정도 밀어올리기 작전을 시작하자,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장(William H. Hoge)도 군사령부의 이러한 전략개념에 따라 군단의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적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10월 8일에 금성진격작전계획을 군사령관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당시 미 제9군단은 철원 동북 중산리-김화-화천 북방 적근산-백암산-북한강선에 이르는 주저항선(Wyoming Line)에 미 제25사단, 국군 제2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6사단을 배치하고 미 제7사단(-)을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 군단은 중공군의 5월 공세를 격퇴한 후 6월말 이곳으로 진출한 이래 약 4개월에 걸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군사령관의 제한공격작전을 준비해왔다.

대치중인 적은 중공군 제20병단 제67군으로서 제200사단을 적근산 북쪽에, 제

199사단을 백암산 북쪽에 전개하고, 제201사단은 금성 부근에 예비로 보유한 채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제67군은 지난 6월 중순에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도하하여 입북한 부대로서 양덕에서 산악훈련까지 마친 다음 9월 10일을 전후해 이곳에서 제27군과 교대하였다. 따라서 전투경험이 부족한 반면 병력과 장비 보유율은 높으며, 전선을 인수한 후 기존 진지의 보강과 수색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미 제9군단이 작전의 목표로 정한 금성은 현 전선으로부터 약 12㎞ 북측 금성천변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천-평강, 원산-회양-창도리-평강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곳을 지나고 또한 화천으로 남하하는 도로의 분기점이기도 한 교통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작전은 병참선 상의 요충을 확보하는 한편 오성산(1062m)에 대해 위협을 가함으로써 철의 삼각지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5개의 봉우리가 별의 형상을 띠고 있는 오성산의 모습

미 제9군단장은 이 작전을 군의 방침에 따라 단계별 제한공격작전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현 전선을 일단 5㎞ 정도 밀어 올려 금성천을 확보할 복안으로 제1단계 목표선을 하소리-풍동리-죽동-여문이-금성천 하구(Nomad Line)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군단의 좌익인 미 제25사단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작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3개 전방사단으로 작전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0월 10일에 하달된 군단 작전명령에 따르면, 중앙의 미 제24사단이 적근산과 주파령에서 17번 도로와 적근산으로부터 북으로 뻗은 능선 접근로를 따라 금성 공격을 주도하고, 그 좌우에 포진한 국군 제2사단과 제6사단이 외야동과 교암산 방향으로 협조된 공격을 전개는 것이었다. 이때 좌익의 미 제25사단에는 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미 제1군단작전에 협조하면서 평강에 대한 파쇄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85]

이 무렵 적도 철원-김화 방면에서 아군의 공격작전이 전개될 것을 예상한 듯 중공군 사령관은 "제1선 부대에 경계를 강화하고, 긴급히 준비하여 만약 적이 공격하면 중요 지점을 반드시 굳게 고수해야 하며,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86]를 하달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공격작전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였다.

제9군단은 명령대로 10월 13일 일제히 공격작전을 개시하여 적의 전선을 돌파하고 3일 동안 5㎞를 전진한 끝에 10월 16일 목표선을 확보하였다. 제1단계 목표선(Noname Line)을 점령하자 이날 군단장은 다시 약 4㎞를 전진해 금성 남쪽 약 3㎞까지 전진하기로 결심하고 10월 17일부터 공격을 속개해 하소리-외야동-봉화산-교암산-성동리-금성천 하구를 연하는 선(Polar Line)을 점령할 것을 공격부대에 명령하였다. 아울러 이 선을 점령하면 이곳에 강력한 전초저항선(OPRL)을 편성하고 공세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하면서 적과 접촉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3개 사단은 17일에 속개한 폴라선 진격과정 중의 격전에서 많은 전과와 더불어 상당한 희생을 치른 다음 21일에 목표선을 확보하였다. 이 작전의 마지막 날인 20일에 미 제24사단의 전차부대가 금성으로 돌진해 시가를 제압함으로써 작전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도 금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듯

자신들의 전차와 대전차 화기를 동원해 대응함으로써 아군 전차부대는 이곳에서 철수하였다. 이후에도 23일까지 적은 소대 및 중대 규모로 도전해왔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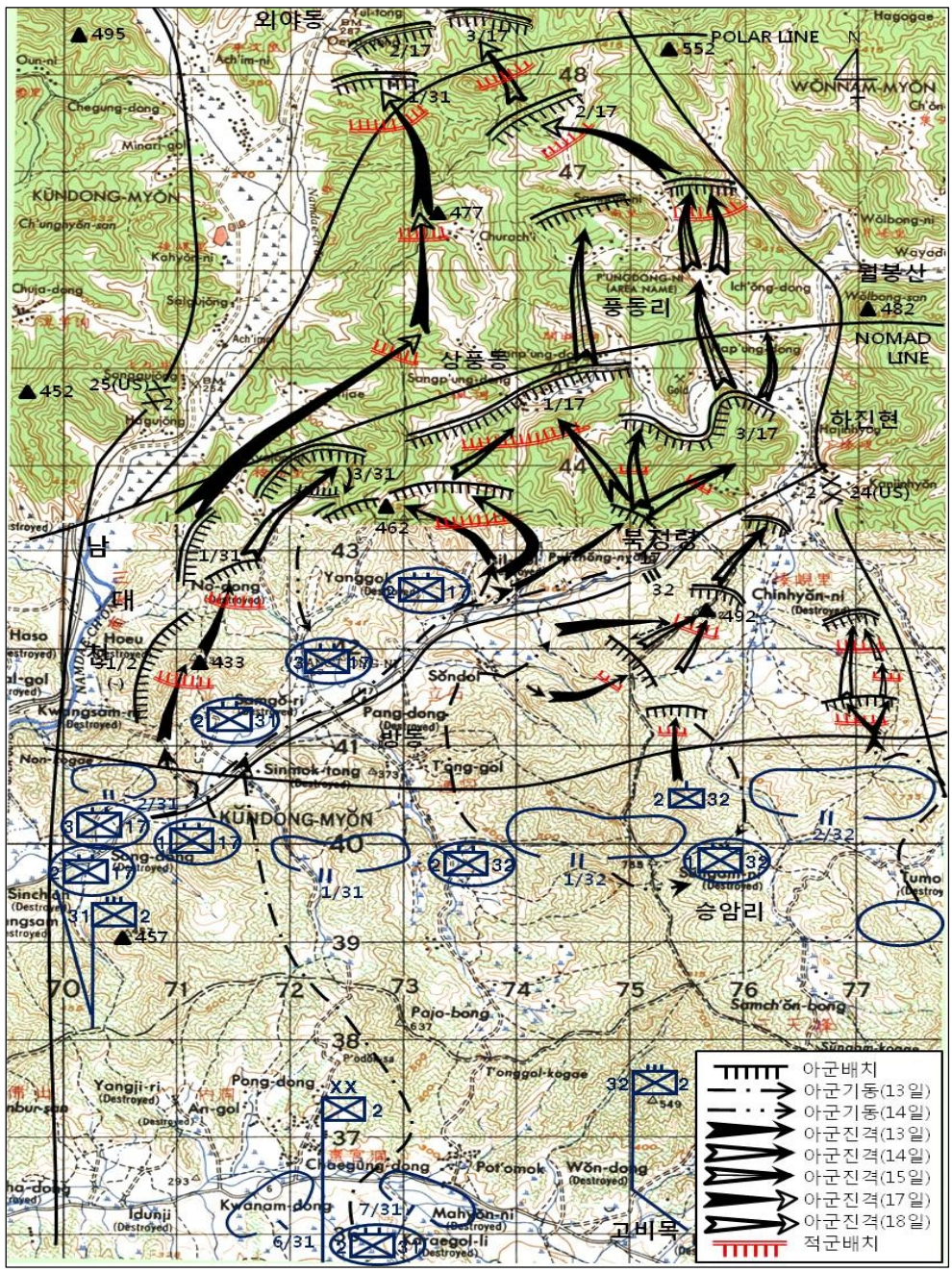
중공군의 전쟁사에도 이 금성지역 전투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기술하고 있는데, 아군의 2단계 작전개시 직전인 16일에 중공 제67군은 예비대인 제201사단을 투입해 제199사단과 교대하였으며, 병단예비인 제68군의 제202사단(-)을 금성 북방 6㎞ 지점으로 추진해 금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음이 밝혀졌다.[87] 또한 적은 이 작전기간 동안 17번 도로상의 대전차방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88]

특히 이 작전에서 국군 제2사단과 제6사단은 작전지역이 산악지형이고 금성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 불리한 조건인데도 적의 집요한 저항을 격파하고 도로축선으로 공격한 기동력이 양호한 미 제24사단과 보조를 맞춰 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결과로 양개 사단은 작전이 종료되던 23일 군사령관으로부터 탁월한 전공에 대한 찬사를 받았다.

(1) 김화-금성 진격작전

국군 제2사단은 1951년 10월초 미 제9군단의 중앙 좌익 사단으로서 김화 동쪽 송동으로부터 바조봉-승암고개-적근산 서측 두목에 이르는 일련의 능선에 연해 형성된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제31연대가 457고지-송동-방동의 좌일선에, 제32연대가 785고지-734고지-두목의 우일선에 배치되었고, 제17연대는 예비로써 고비목과 말고개에 집결했으며 사단사령부는 제궁동에 위치하였다. 사단은 지난 6월 중순 이곳으로 진출한 이후 지난 8월에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던 734고지를 공격해 탈취하였고, 9월초 이들의 공격을 격퇴하여 사기가 높았다. 대치한 적은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200사단으로서 약 2㎞ 북쪽 교전리-북정령-진현리-633고지 일대에 주력을 배치하고 그 경계부대를 회우-진현리 남쪽 600고지까지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금성에 이르는 접근로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종심 깊게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황도 6-7> 김화-금성 진격작전



제2사단장은 10월 10일에 군단장으로부터 “금성진공작전계획에 따라 군단의 좌익으로서 군단목표선(Nomad Line) 상의 하소리-교전리-월봉산 지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89] 명령을 수령한 사단장은 작전지역과 적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작전개념과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목표선이 일련의 횡격실 능선으로 되어 있어 공격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고지마다 벌집처럼 견고한 축성진지로 구축되어 있어 강력한 화력의 집중과 이를 돌파할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서측방에 위치한 오성산(△1062)으로 인해 공격간 좌측방이 노출되므로 측방 엄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전반적으로 부대 전개나 운용을 순조롭게 하려면 사단 동측방으로 종심 깊게 추진되어 있는 600고지, 633고지, 492고지의 적을 제압해야 한다.

사단장은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사단작전지역을 가로지르는 신촌-하진현을 연하는 기동로를 따라 작전을 양단한 다음 주공(제17연대+전차중대)은 노매드선을 목표로 돌진하고, 조공(제32연대)은 진현리의 492고지와 600고지의 적을 포위 격멸하며, 예비(제31연대)는 2개 대대로서 주저항선을 방어함과 아울러 1개 대대는 제17연대를 후속하다가 좌우지역으로 진출해 사단 서측방을 방호하며 제17연대의 공격작전을 지원하도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진현리의 적을 포위 격멸하고 주공을 기만하기 위해 조공이 공격을 1시간 빨리 시작하도록 하였다. 즉 진현리의 적을 조공으로 고착 견제하는 동안 주공이 후방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을 포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10월 13일 05시에 조공인 우익의 제32연대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연대는 제2대대가 좌일선으로 492고지를, 제3대대가 우일선으로 600고지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중간목표인 532고지를 큰 손실 없이 점령한 다음 492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적의 포탄 200여 발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적의 저항이 강력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연대는 포병지원사격과 F-51전투기의 지원폭격을 요청한 후 재공격을 가하였으나 적도

증원부대를 투입함으로써 이날 목표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반면 우전방의 제3대대는 화염방사기의 분사와 수류탄 투척으로 적을 제압하며 8시간의 전투 끝에 600고지를 점령하였다.

조공보다 1시간 늦게 공격을 개시한 주공인 제17연대는 보전협동부대를 적진으로 투입해 우선 복정령과 462고지를 점령하고 적진을 돌파 및 양단하는데 작전의 주안을 두고 있었다.

미 제25사단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은 제1대대는 송동에서 이실골로 신속히 진출하여 북정령과 462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제1중대가 전차의 지원 아래 화염방사기와 3.5인치 로켓으로 적의 화기진지를 제압하여 3시간의 격전 끝에 북정령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적이 남북으로 양단됨에 따라 사단의 작전기도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으며, 제1대대는 남쪽의 적을 제32연대가 공격함에 따라 북정령 북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때 462고지에서는 제2중대가 산중턱에서 고전중에 있었다. 대대는 예비중대를 동측방으로 투입하였으며, 또한 F-51전투기 1개 편대의 10분에 걸친 폭격 끝에 양개 중대가 협동공격을 펴 적 103명을 사살하고 12명이 투항하는 전과를 거두며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한편 조공인 제3대대는 경미한 저항을 잠재우며 433고지를 점령하고 교전리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자정을 넘기면서 02시부터 전날 치열한 전투 끝에 점령한 462고지에서는 적의 역습으로 격렬한 야간전투가 벌어졌으며, 14일 새벽녘에야 적이 물러갔다.

전날 적진의 돌파와 분리에 성공을 거둔 주공인 제17연대는 14일 날이 밝자 예비인 제2대대를 북정령 동북으로 투입하여 주공의 정면을 좁히면서 3개 대대로 총공격을 실시하였다. 이 공격에서 각 대대가 교전리, 421고지, 434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노매드선에 도달하였고, 특히 제1대대는 421고지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기록하였다. 당시 이 전투를 지휘한 제1중대 제3소대 신임소대장 송기선(宋基善) 소위는 "당시 적의 진지가 견고하고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고참병들이 특공대를 자원하여 적진에 돌입하는 것을 보고 경탄해마지 않았다. 이처럼 고참병들이 용감한 공격으로 목표를 탈취하고 많은 전과를 올렸다."며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였다.[90]

한편 제32연대는 전날 탈취에 실패한 492고지와 600고지 서북 능선(491고지) 공격을 계속하였다. 우익의 제3대대는 적의 감제관측 하에 북으로 뻗은 종격실 능선 접근로를 따라 공격을 가하여 일부 적이 우인접 미 제24사단지역에서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교전 끝에 85명을 사살하고 7명을 포로로 하며 잔적을 격퇴하였다.

492고지를 공격한 좌익의 제2대대도 41명을 사살하고 포로 17명을 사로잡은 외에도 60㎜ 박격포 2문과 로켓 1문, 각종 소총 5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기록하였으나, 8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제31연대는 전날에 이어 광삼리-하소리 선에서 사단 좌측방 방어에 임하였다.

노매드선에 도달한 사단은 다음날인 10월 15일 물러났던 적이 방어선 전방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사단의 경계진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하에 노매드선 북측 1㎞ 살구정-풍동리-419고지 선으로 추격작전을 실시하였다.

제17연대는 우익의 제2대대가 월봉산 서북 1㎞ 지점의 419고지를 공격하여 목표 전방에서 종일토록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다가 서측으로 우회한 중대의 측후방 공격이 주효하여 혈전 끝에 이를 점령하였다. 좌익의 제1대대도 무난히 풍동리 무명고지 선을 확보하였다.

제31연대는 이날 광삼리-하소리 선에 주력을 배치하고 교전리 진지도 인수하여 사단 동측방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살구정까지 위력수색대를 파견하며 남대천을 따라 탐색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32연대도 전방으로 진출하여 제17연대의 노매드선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3일 만에 사단은 작전목표선을 확보하는 한편 차후작전을 위한 부대배치의 조정도 완료하였다.

10월 16일의 작전에서 노매드선을 확보한 사단은 17일부터 군단의 다음 단계 작전계획에 따라 폴라선으로 작전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폴라선 책임지역은 금성 서남방 3~5㎞ 지점 미나리골-외야리-522고지를 연하는 선으로 폭이 약 4㎞에 불과하였다.

사단장은 현 배치와 좁은 정면을 고려하여 전방 제17연대와 제31연대의 각 1개 대대로써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제17연대는 522고지를, 제31연대는 외야리 일대의 고지군을 점령한 다음 이를 제17연대에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적은 2단계 목표선으로 설정한 고지군에 저지선을 형성하고 금성분지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단의 2단계 공격작전은 10월 17일 06시를 기해 단행되었다. 이날 서측의 제31연대 제1대대는 중간목표인 477고지를 점령한 후 경미한 저항을 일소하고 외야리 목표를 무난히 탈취하였다. 그러나 사단작전의 중점이라 할 수 있는 522고지 공격은 이와는 달리 쉽지 않았다. 제17연대 제2대대는 중간목표를 점령한 다음 3개 중대를 동시에 전개하여 최종목표를 공격하였으나, 적도 포격지원 아래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돌파구 개척에 실패하였다. 대대는 포병지원사격을 집중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음날인 10월 18일 예비인 제3대대가 제2대대를 초월 공격하였다. 제3대대의 공격도 큰 진전이 없었으나, 제10중대의 측후방 우회공격으로 적진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틈을 이용하여 일제히 적진으로 돌진하여 522고지를 탈취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 제2사단은 군단 내에서 폴라선에 선착한 후 제17연대로써 이 선을 점령하고, 제31연대는 오성산의 적 견제에 중점을 두고 남대천에 연한 사단 서측방을 방어하는 한편 제32연대는 노매드선의 진지를 확보한 채 금성 서남측을 방어하였다.

⑵ 금성천-교암산 전투

국군 제6사단은 군단이 노매드선으로 진격작전을 감행한 1951년 10월, 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 백암산(△1179)을 방어하고 있었다. 제7연대와 제2연대가 어민(Ermine)선인 백암산 후방 1057고지-782고지-수상리 선을 점령중이었고, 제19연대는 백암산 전방의 819고지-수고지-780고지 선에서 사단 전초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좌로는 미 제24사단, 우로는 국군 제8사단과 인접하였다.

당시 대치중인 적은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199사단이었다. 이들은 금성천 북안의 585고지-여문리-529고지 선에 주진지를 구축하고 그 남안의 565고지-여내골-462고지 선에 1개 연대규모로 경계진지를 구축하고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교암산(뒤쪽 능선)을 맴돌아 흐르는 금성천의 모습

피아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이 작전지역은 서측에서는 금성천이 남으로 흘러 동으로 가로지르며 북한강과 합류하고, 동측에서는 북한강이 북으로 뻗쳐 양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간지형이어서 도로망이 빈약해 전차 및 포병운용이나 보급지원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기동공간이 협소해 부대이동의 신속성도 결여되었다.

제6사단장은 1951년 10월 10일 미 제9군단장으로부터 “10월 10일 06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죽동-여문리-금성천 입구를 연하는 노매드선을 점령하고 군단의 동측방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장은 작전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사단의 공격은 금성천과 산악지형으로 부대의 기동과 보급지원에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며, 특히 금성천을 적전 도하해야 함으로 이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② 사단 우익에는 제8사단 제21연대가 938고지를 공격중에 있으나 사단의 진격에 따라 동측방이 노출될 것이므로 이 적을 견제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③ 사단이 금성천을 도하하면 포병의 진지변환 간 화력지원이 중단될 것이므로 가능한 계속적 화력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장기간에 구축된 적의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므로 특공대 운용 등 이들 진지를 제압할 특수전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애로의 타개책을 모색한 결과, 사단장은 제7연대를 좌일선, 제19연대를 우일선으로 운용하되 비교적 도하가 용이한 좌일선의 제7연대가 565고지를 점령한 다음 금성천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포병은 주력이 금성천을 도하하면 동막동을 거쳐 백암산 서북 7㎞ 지점의 신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이때 항공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좌인접 미 제24사단과는 포병부대의 기동로 사용 우선권을 협조하였다.

또한 전방연대에 공병 1개 중대씩을 직접 지원하여 장애물 제거와 기동로 개척에 운용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가용인원을 최대 동원하여 전방연대의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개념의 작전명령에 따라 10월 13일 06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익의 제7연대는 이날 819고지에서 금성천 남안의 565고지를 점령한 후 다음날에는 광대골로 금성천을 도하, 북서방에서 472고지를 공격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일선의 제19연대는 462고지에 배수진을 친 대대규모의 적이 포병지원을 받으며 강력히 저항하여 이튿날에야 149명의 사상자를 낸 끝에 404명의 적을 사살하고 13명을 사로잡으며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10월 14일 교두보를 확보한 제7연대는 이를 발판으로 연대가 모두 도하한 다음 551고지-552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하지만 이날의 전투에서 25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한 반면 374명을 사살하고 44명을 포로로 하였다.

제19연대는 462고지를 점령한 제1대대의 엄호 하에 15일 02시 50분에 양지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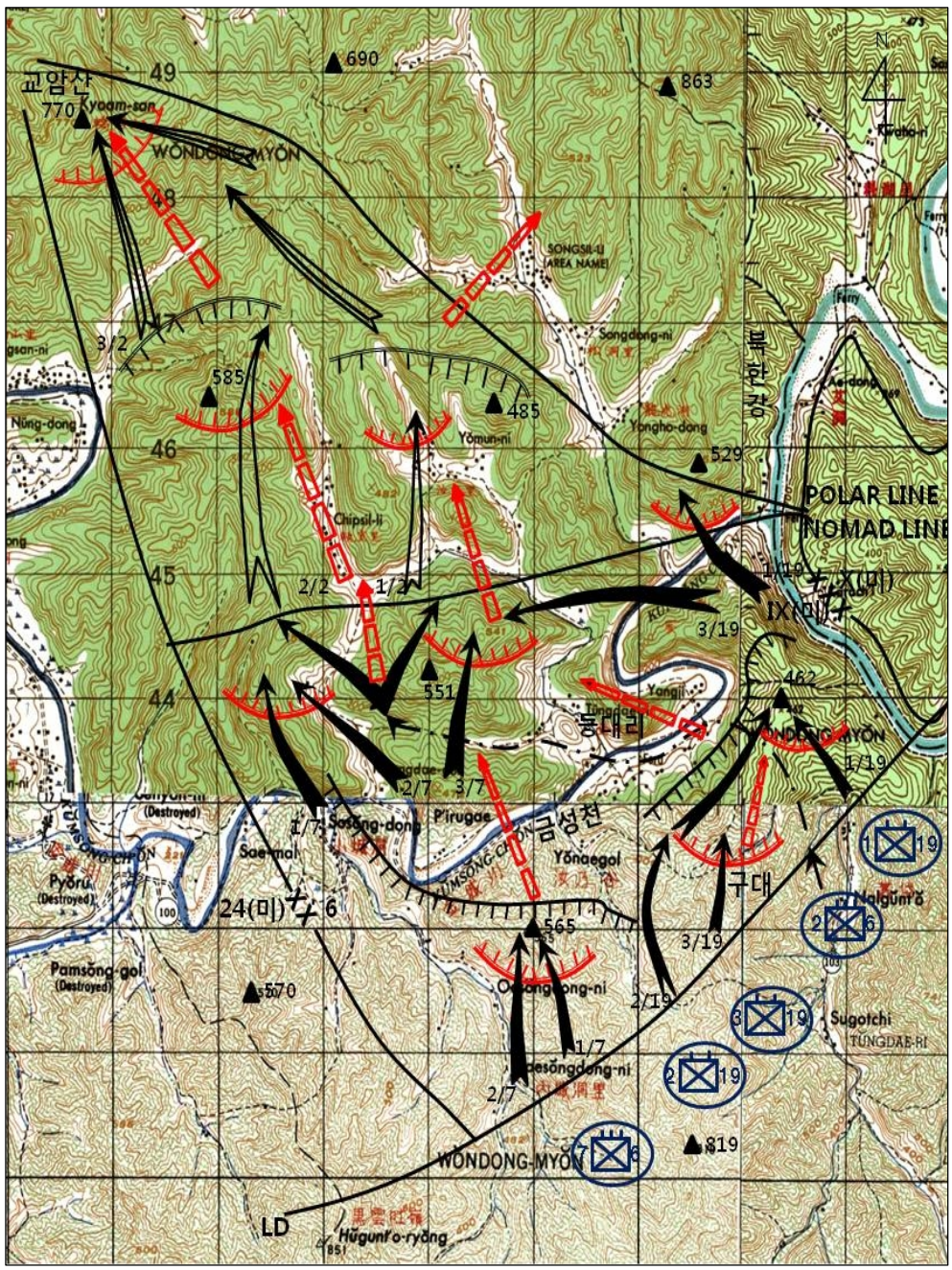
서 등대리로 도하하여 541고지-529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날 연대 좌전방의 제3대대는 인접 제7연대의 지원을 받아 541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우익의 제2대대는 529고지(관망산)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 고지는 북사면을 제외한 삼면이 급경사여서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제19연대는 462고지-324고지에서 예비임무를 수행하던 제1대대를 투입하여 529고지를 야습하였으나 역시 좌절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이날까지 3일간의 전투에서 군단 작전목표인 노매드선을 확보하였다.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노매드선의 진지를 강화하며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고, 예비인 제2연대는 제3대대(+)가 금성천 남안의 진지를 유지하는 한편 2개 대대는 노매드선 전방으로 추진하여 정찰활동을 하며 전초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때(10월 16일) 사단은 군단의 폴라선 진출계획에 따라 교암산-송동리 선의 적을 격멸하고 이를 점령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

사단장은 사단의 임무가 사실상 교암산 점령이며, 전투 정면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작전을 전개해 온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노매드선을 방어하고, 예비인 제2연대로써 585고지-교암산 축선으로 공격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10월 17일 06시에 공격을 재개한 제2연대는 전날부터 이미 제2대대가 585고지 방향으로, 제1대대가 여문리 일대로 진출하여 전초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제2대대가 585고지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동안 제1대대에 이 고지의 동측 후방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육박돌격과 백병전을 거듭하여 12명이 전사하고 105명이 부상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혼전을 계속하였고, 제1대대는 여문리에서 585고지 방향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도중 482고지에서 대대규모의 적과 마주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포로진술에 의하면, 전날밤 중공군 제67군의 예비 제201사단이 투입되었으며, 연대가 당면한 770, 585, 482, 485고지에는 그 중 제602연대가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지형도 기복이 심하고 585고지나 770고지는 경사가 급한데다 적 예비대까지 투입되어 앞으로의 작전에 어려움이 겹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사단장은 제2연대가 585고지를 공격하는 동안 제19연대 1개 대대를 여문리 동북쪽으로 진출시켜 우전방의 적을 격퇴하는 한편 주공을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

<상황도 6-8> 금성천-교암산 전투



10월 18일 제2연대 제2대대는 585고지에서 증강된 대대규모의 적과 육박전을 건개하며 맹공을 가했으나 공격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제1대대는 482고지에 대해 3면에서 포위망을 압축하는 동시에 특공대를 우측 배후로 투입시켜 고지를 탈취한 직후 곧 585고지 동측 능선으로 돌진하였으나 또다시 도중에 저지되었다. 이때 사단은 탈취한 482고지를 제7연대에 인수시켜 제2연대는 585고지 공격에 집중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제19연대(제2대대)는 사단 우전방 용호동과 여문리 사이의 능선을 장악하고 측방 방어에 임하였다.

10월 19일 제2연대는 금성천 남안의 진지를 사단 수색중대에 인계하고 제3대대를 집실리로 이동시켜 585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제2연대 제2대대는 어제까지와는 달리 3개 중대를 585고지 서측으로 우회시켜 공격하던 중 집실리로 추진된 연대예비 제3대대가 585고지 동측으로 치고 올라오자 적이 동요하는 틈에 좌우에서 양 대대가 돌격하여 육박전 끝에 585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앞서 제1대대는 특공대를 투입하여 적의 화기진지를 폭파하고 1개 중대를 동측으로 우회시켜 585고지 우측 능선상의 488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돌파구를 열지 못하던 중 예비인 제3대대가 투입되면서 488고지 좌견부를 강타하자 적진의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양개 대대의 협동으로 488고지를 탈취한 후 제1대대는 잔적을 소탕 및 추격하는 한편 제3대대는 585고지의 제2대대를 지원하였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예비대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투입하여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피아간에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당시 제2대대장 송기덕 대위는 후일의 회고에서 “대대원의 50%가 손실되었으며, 대대장도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91]

중간목표를 탈취한 후 사단장은 제2연대를 주공, 제19연대를 조공으로 교암산과 폴라산을 점령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제7연대에 노매드선의 진지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연대는 10월 20일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전방 제대로 하고, 제2대대를 585고지에 예비로 확보한 채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3대대는 585고지에서 성산리 계곡을 건너 교암산에서 남으로 뻗은 능선을 타고 공격하고, 제1대대는 488고지에서 북으로 종격실 능선을 타고 교암산 동쪽으로 우회하여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러

나 제1대대가 약 1㎞ 북방의 요지인 무명고지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과 방어 사격에 공격이 저지되자 제3대대가 방향을 바꿔 이 고지의 서측방으로 공격하여 적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면서 협공하였다.

이때 제1대대가 정면 돌격을 감행하여 87명의 적을 사살하고 14명을 포로로 하면서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2연대는 585고지 탈취에 이어 교암산에 이르는 두 번째 난관을 돌파하였다.

제2연대는 21일 아침 계획대로 교암산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3대대는 성산리 계곡을 넘어 공격하였고, 제1대대는 가파른 단애를 기어올라 동측으로부터 770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교암산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높은 경사에 암벽이 중첩하여 기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3대대는 지원사격을 요청하며 적진으로 돌진하였으나, 적의 포격과 기관총 사격, 그리고 수류탄 투척으로 좀처럼 돌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동측방에서 기습을 가하면서 적진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틈을 이용한 양 대대가 돌격하여 백병전을 벌여 마침내 교암산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우전방의 제19연대는 이미 전날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목표선을 점령한 다음 485고지-529고지 선에 방어 배치를 완료하였다.

4) 전투 결과

제6사단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혈전 끝에 백암산 선에서 금성천을 건너 교암산까지 탈취하고 폴라선을 점령함으로써 금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으나, 미 제9군단 동측방과 미 제10군단 사이에 전선의 만곡부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미 제9군단 예하의 국군 제6사단은 10월말에 교암산 지역을 미 제24사단에 인계하고 북한강 서안으로 이동한 다음 11월 중순에 우인접 미 제10군단의 국군 제8사단 서측 연대인 제21연대를 배속 받아 만곡부 동측의 949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전투를 통해 용호동-949고지-973고지-석장동을 잇는 개리(Gary)선을 확보하고 양 군단 간의 전선을 정리하였다.

10월 23일 미 제9군단의 폴라선 작전의 종료는 유엔군이 7월 하순부터 전개한 하계와 추계공세의 사실상의 종료를 의미하였다. 금성진격작전에서 아군은 적의 준비된 축성진지를 공격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중공군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제67군이 제12군과 교대하여 예비로 전환되었다.[92] 그간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쳐 방어선을 개선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달성하였으며, 특히 국군이 제한목표공격작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방어선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전력과 전쟁지도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 3 절 유엔군의 동계공세 및 공비토벌작전

1. 유엔군의 동계공세

1) 전선정리 전투

(1) 제2차 월비산 전투(1951년 11월 18일 ~ 11월 24일)

(가) 전투 개요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제11사단은 진지보강과 아울러 계속된 위력수색을 전개하던 중 11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수도사단의 전선을 인수하라는 군단의 명령을 받았다.[93] 추계공세작전에서 월비산을 탈취하고 남강까지 진출한 수도사단은 후방지역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새로 창설된 백야전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호남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11사단은 현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수행중인 제13연대와 제20연대는 그대로 두고 예비인 제9연대로 하여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을 인수하도록 하는 한편 대전차공격대대에 사단 수색중대를 배속시켜 월비산과 남강 이남의 전초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단의 주저항선 방어를 담당한 제9연대와 전차공격대대, 사단수색중대의 병력은 1,140여 명이었고, 장비는 T/E의 90%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고, 신편부대인 관계로 신병이 주류를 이루어 정규전에 대한 경험이 일천할 뿐 아니라 수색중대의 경우 사단 전면에 대한 수색임무를 띠고 경계임무에 주력하고 있었다.[94]

반면 북한군 제6군단 제19사단은 수도사단과의 전투에서 극심한 손실을 입어 재편성을 위해 후방으로 물러나고 대신하여 제9사단이 남강 북방의 전선으로 진출하

였다. 작전지역을 인수한 적 제9사단은 월비산을 탈취하여 고성 방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하였다. 북한군 제9사단의 병력은 예하 3개 연대 소속의 3,620여 명을 유지하였고, 장비는 76㎜ 직사포 16문과 120㎜ 및 82㎜ 박격포 10문과 55문, 그리고 중기 및 경기 76정과 145정, 기타 다발총 및 소총을 등을 보유하였다.[95] 또한 이들은 10월 중순에 방한복을 비롯하여 방한화와 방한모 등을 지급하여 월동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고, 식량은 비상용으로 5일분 이상을 소지하였다. 각종 보급은 장안사와 통천에 설치된 보급소를 통해 조달되는 등 사기는 비교적 양호하였다.[96]

<표 6-28>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1사단장	준장	오덕준(吳德俊)	
	제9연대장	대령	김안일(金安一)	
	제1대대장	소령	김용림(金用琳)	
	제2대대장	소령	임영호(林永鎬)	
	제3대대장	소령	전월봉(全月奉)	
		소령	전우영(全禹榮)	1951. 11. 20부
	사단수색중대장	대위	양창식(梁昶植)	
	제20포병대대장	소령	김일한(金一瀚)	
	제36연대장	대령	최재홍(崔在鴻)	배속부대
	제99포병대대장	중령	노재현(盧載鉉)	지원부대(군단)
북한군	제6군단장	중장	최용진(崔勇鎭)	
	제9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표고 459m의 지역 내 최고봉인 월비산은 남북으로 완만한 종격실을, 동쪽으로는 일련의 횡격실을 이루며 주변 일대는 비교적 낮은 고지들이 산재한다. 이 고지는 동해안의 고성-통천-원산에 이르는 7번 도로와 무명도로 그리고 남강 일대

를 관제 관측할 수 있는 군사작전상의 요충으로 적에게는 남강 및 고성의 확보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작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고지였다. 반면 아군으로서도 남강의 통제와 고성의 확보를 위해 또한 사단 주진지가 감제당하는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고지였다.[97]

(나) 전투 경과

군단지시에 따라 수도사단의 방어정면을 인수하게 된 사단장은 작전회의를 통해 제13연대와 제20연대는 현 주저항선을 유지하고 예비인 제9연대가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을 인수하며, 대전차공격대대와 사단수색중대가 기갑연대가 전진진지로 확보하고 있는 36고지-187고지-149고지-261고지-월비산 선을 담당하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98]

① 사단은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수도사단의 전구를 인수하려 한다.
② 제9연대는 수도사단의 주진지를 인수하라.
③ 제13, 제20 양 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전투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라.
④ 대전차공격대대는 11월 16일 09시부로 수색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37고지-187고지-149고지-261고지-월비산 선의 진지를 인수하라.
⑤ 수색중대는 11월 16일 09시부로 대전차공격대대에 배속한다.
⑥ 협조지시
㉮ 각대는 11월 16일 09시부터 행동 개시하여 17일 12시까지 진지를 인수한다.
㉯ 각대는 계획된 진지를 인수함과 동시에 적정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진지를 보강하라.
㉰ 각대는 교대간 기도비닉에 유의할 것이며,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⑦ 사단CP는 계속 광산리(光山里)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각 대는 계획된 전구의 인수를 시작하여 제9연대는 제1대대가 제26연대, 제2대대가 제1연대의 진지를 각각 인수하여 11월 17일 11시에 좌인접 제13연대와 전선을 연계하였다. 또한 대전차공격대대는 배속된 수색중대를 우일선으

로 37고지-149고지 선의 진지를 인수하게 하였고, 제2중대와 제4중대를 좌일선으로 261고지와 월비산 일대에 병력을 전개시켰다.[99]

이는 1개 사단의 방어지역을 1개 연대가 담당하고, 1개 연대가 맡던 전초진지를 1개 대대(당시 대전차공격대대는 2개 중대가 결한 상태임)로 편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 16일부로 군 예비로 야전훈련소에서 교육중인 제5사단 제36연대를 제11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100]

월비산 일대에 진지를 점령한 대전차공격대대는 11월 18일 월비산의 방어편성을 탐색하려는 적으로부터 야간 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22시 20분경 포병사격과 동시에 몰려드는 적을 지원포대의 105㎜ 및 155㎜ 포격으로 차단한 후 진전으로 육박한 대대규모의 적을 수류탄 공격으로 격퇴하였다.[101]

적의 공격은 다음날 새벽에도 계속되어 구선봉(九仙峯)-월비산의 전진진지 선에서 공방전이 이어졌다. 구선봉의 방어를 담당한 수색중대는 2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전 끝에 물리쳤으나, 주간에 재개된 대대규모의 적의 공격을 받고 37고지-208고지 선으로 철수하였다. 월비산을 방어하던 대전차대대(-)는 5차에 걸쳐 실시된 적의 파상공격으로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정오 무렵 208고지로 철수하였다. 또한 적이 여세를 몰아 351고지마저 공격함에 따라 339고지로 물러났다.

208고지-339고지 선에 축차진지를 점령한 대대는 군단지휘소 경계임무에서 해제된 제3중대를 합류시켜 361고지에 대한 탈환을 시도하였다. 함재기 편대의 항공지원과 사단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감행한 대대는 15:10에 351고지를 회복하였다.[102] 그러나 대대는 자정 무렵부터 적의 공격을 받고 혈전을 전개한 끝에 1시간 만에 고지를 상실하였다가 대대장 명령에 따라 역습을 감행하여 11월 20일 05시에 다시 탈환하였다.

한편 제9연대는 대전차공격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3대대를 351고지로 진출시켰다. 먼저 339고지에 진출한 제3대대는 351고지로 전진하여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를 배속받아 진지를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제9중대와 제11중대는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와 함께 351고지를, 제10중대는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와 339고지의 방어를 담당하였다.[103]

감호 남안을 방어중인 우일선의 수색중대는 11월 21일 자정 직전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351고지의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도 06시경에 적의 기습을 받았다. 이처럼 적의 공격을 격전 끝에 물리친 대대는 아침나절 월비산에 적 병력이 집결되는 것을 목격하고 포병사격으로 격퇴한 후 이를 탈환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351고지의 제3대대에 261고지를 탈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대는 19시에 야간공격을 전개하여 혈전을 벌인 끝에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이어진 적의 역습으로 날이 밝도록 공방전을 실시하였다.[104]

다음날인 11월 22일 고성 해역으로 급거 출동한 미 전함은 남강 일대에 8인치 포로 91발의 제압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61고지를 확보한 제3대대는 자정 무렵 공격을 가해온 적을 맞아 07시까지 공방전을 펼쳐 격퇴하였다. 대대는 351고지-261고지 간에 전선을 재편하고 배속중인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를 351고지에, 제9중대를 351고지 서쪽 능선에 전개하였다.

한편 적은 351고지와 261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견제의 일환으로 11월 24일 감호 남안의 수색중대에 공격을 가하며 대전차공격대대가 확보중인 208고지를 공격하였다. 어둠을 이용하여 진전으로 접근한 적은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하고 돌격함으로서 대대는 일시 339고지의 예비진지로 철수한 후 여명공격을 감행하여 다시 탈환하였다.[105]

208고지 확보에 실패한 적은 날이 밝은 후 제3대대 제11중대의 261고지를 지향하여 76㎜ 직사포 1,000여 발을 집중하고 중대규모로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에 중대는 사단포병의 지원 아래 수류탄 공격과 백병전을 펼쳤으나, 이전의 전투에서 전력에 많은 손실을 입은 중대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351고지로 철수하였다. 이후 대대는 특공대를 편성하여 261고지의 탈환을 시도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고지 확보에 실패하였다.

(다) 전투 결과

사단은 수도사단이 탈취한 월비산 일대의 방어에 실패하고 인수 8일 만에 적에게 빼앗겼다. 이와 같이 월비산과 261고지를 상실한 사단은 공격 제대의 재정비

를 위해 부대교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배속된 제36연대 제1대대에 351고지 일대를 확보하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11월 27일 15시를 기해 37고지-208고지-339고지-351고지 선의 진지를 인계하고 타이거(Tiger)선의 예비진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국군은 월비산에 대한 탈환작전은 단행하지 않았고, 단지 351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방전만이 이어졌다. 이 전투에서 제11사단이 올린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6-29>와 같다.[106]

<표 6-29> 전과 및 손실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실종
		중기	경기	다발총	소총	수류탄			
1,064	7	2	5	15	16	419	49	167	28

(2) 949고지 전투(1951년 11월 17일 ~11월 18일)

(가) 전투 개요

제6사단은 1951년 10월의 추계작전을 통해 금성천 강구-송동리(松洞里)-645고지-교암산(轎岩山)을 잇는 폴라(Polar)선 상에 주진지를 구축하고 동계작전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후 전국(戰局)은 현 전선을 분계로 일단락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무렵 유엔군은 미 제10군단이 백석산(白石山)과 단장(斷腸)의 능선을 탈취하였고, 미 제9군단이 교암산-금성-김화를 연하는 선과 미 제1군단이 제임스타운(Jamestown)선까지 약진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이에 공산군은 예비대를 투입하여 이를 저지하는가 하면 한편으론 종래의 주장과는 달리 현 접촉선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정치협상에 나서 10월 25일 휴전회담을 재개하였다.

이후 정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전선정리에 나선 밴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 간의 불필요한 만곡부를 정제하기 위해 석장동(石葬洞)-903고지-949고지-용호리(龍虎里)-교암산으로 이어지는 '개리(Gary)선'을 제한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양 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목표지대를 미 제9군단에 편입하는 한편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를 미 제9군단에 배속하였다.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중장은 국군 제6사단의 현 임무를 미 제24사단에 인계한 후 11월 17일 05시를 기해 제21연대를 포함한 4개 연대에 목표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아군의 정면에는 어은산(魚隱山)에 지휘소를 둔 중공군 제68군 예하 제204사단이 제202사단 제605연대의 증원을 받아 903고지-973고지-949고지-793고지-548고지를 연하는 개리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10월 중순의 백석산 전투에서 제8사단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고 이곳에 급편 저지선을 형성했던 이들 병력은 약 8,000명으로써 송정(松亭) 부근의 야포대로부터 포격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07]

<표 6-30>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6사단장	준장	장도영(張都暎)	
	제2연대장	대령	송대후(宋大厚)	
	제1대대장	소령	홍재익(洪在翊)	
	제2대대장	소령	송기덕(宋奇德)	
	제3대대장	소령	김두일(金斗逸)	
	제7연대장	대령	양중호(梁仲鎬)	
	제1대대장	소령	인성훈(印聖勳)	
	제2대대장	소령	유승원(柳承源)	

	제3대대장	소령	최희대(崔熙大)	
	제19연대장	대령	임익순(林益淳)	
	제1대대장	소령	임완식(林完植)	
	제2대대장	소령	박철원(朴哲源)	
	제3대대장	대위	김명익(金明益)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全富一)	배속부대
	제1대대장	소령	김광철(金光哲)	
	제2대대장	소령	김동회(金同會)	
	제3대대장	대위	최효삼(崔孝三)	
	제27포병대대장	소령	박정호(朴晶浩)	지원부대
	사단공병대대장	중령	박정채(朴正采)	
중공군	제63군장		푸충비(傅崇碧)	
	제202사단장		청팡런(陳坊仁)	
	제204사단장		챠오위칭(曹玉淸)	
	제12군장		쩡사오산(曾紹山)	
	제35사단장		시앙충행(尙忠衡)	

한편 제6사단은 제19연대를 북한강 서쪽의 등대리(登大里) 부근에, 제7연대를 구대(舊垈)와 금성천 어구에, 그리고 제2연대를 용호동과 여문리(汝文里) 부근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들은 제27포병대대와 군단의 제38, 제92, 제213야포대대로부터 일반지원을, 미 제6전차대대의 2개 중대 및 군단의 부교중대 그리고 유엔공군의 근접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작전기간 동안의 기상은 대체로 청명하였으나,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눈깨비가 내려 적설의 상태를 보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짙은 안개로 부대기동과 화력지원 등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나) 전투 경과

밴플리트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미 제9군단장은 D일 H시를 11월 17일 05시로 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8]

① 제6사단(제21연대 배속)은 현 접촉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A”(송동리 동북쪽 1㎞의 무명고지 일대), “B”(△629 및 그 서북쪽의 무명고지), “C”(△949), “D”(△903 및 △973)를 탈취한 다음 Gary선상의 유리한 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② 미 제24사단은 전차 2개 중대로써 제6사단을 지원하라.
③ 군단 부교중대는 주력으로써 도하작전을 지원하라.
④ G선은 903고지(석장동 북쪽 1㎞)-973고지(변암동 서쪽 2㎞)-949고지-용호동을 연하는 일반선이다.

명령을 받은 사단장은 작전회의에서 지형과 적정을 분석하고 제반 계획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후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9]

① 사단은 Gary선 상의 목표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1연대(중포중대 배속) : 현 접촉선에서 우익지구를 전담하여 목표 “8”, “9”에 이어 목표 “10”을 탈취하라. 공격간 최소 1개 중대로써 동측방을 엄호하라.
③ 제19연대(전차 2개 소대 및 공병 1개 중대 배속) : 후동-구대 간에서 도하하는 즉시 목표 “5”-“6”-“7”을 탈취하라. 공격간 전차는 632고지를 넘지 않도록 하라.
④ 제7연대(전차 2개 소대 및 공병 1개 중대 배속) : 구대-금성천 간에서 도하하는 즉시 목표 “1”-“2”-“3”을 탈취하라. 공격간 전차는 629고지를 넘지 않도록 하라.
⑤ 제2연대(전차 1개 중대 배속) : 주력으로써 현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가운데 최소 2개 중대의 병력으로 목표 “A”를 탈취하라. 공격간 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라.
⑥ 제18포병대대 : 공격 전면을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제19연대로 지향케 하라. 주력으로써 도하작전을 완료하면 최소 2개 포대를 구대 부근으로 추진토록 하라. 공격준비사격 개시는 04시로 예정한다.
⑦ 공병대대(부교중대 배속) : 제7, 제19연대에 각 1개 중대씩 분할배속하여 도하

작전을 지원케 하라. 부교경비를 철저히 하라.

⑧ 협조지시 : 전차의 전진 통제선을 엄수하라. 제7, 제19연대는 공격개시 30분전까지 교두보를 확보하라. 규정에 준한 대공포판을 표식하되 특히 적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보전협동에 있어 수반 보병으로써 전차경비에 임하라. 목표를 탈취하는 즉시 진지를 구축하되 자동화기 위치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하라.

⑨ 행정사항 : 낙오자 수용선은 황병동-후동-구대를 연하는 선이다. 의무중대장은 후동에 전방구호소를 설치하라.

⑩ 통신시항 : 통신축선은 동막동-외성동리-후동을 연하는 선이다. 제21연대와는 2회선의 유선을 유지하라. 제21와 제19연대간 유무선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공격개시 전에 무선사용을 금한다.

⑪ 공격개시 시간은 17일 05시이다.

⑫ 사단 전방지휘소는 동막동에 위치하며, 사단장은 공격의 진척에 따라 949고지 방향의 진두에 설 것이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사단은 11월 17일 04시를 기해 제2연대가 주저항선을 확보한 가운데 제21연대와 제19연대 그리고 제7연대의 3개 제대가 포병대대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개시선을 향해 출발하였다. 사단의 우일선으로 도피막(都皮幕)과 광석교(廣石橋) 부근에 집결한 제21연대는 대대별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제1대대는 983고지-903고지의 축선으로 목표 “9”를, 제3대대는 광석교-586고지 선을 따라 목표 “8”을 각각 탈취하고 예비인 제2대대는 현 진지에서 명령에 대기하며, 수색대는 통선골 부근에서 사단의 동측방을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석장동 부근에서 05시에 903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한 시간 후 석장동 북쪽의 무명고지에 도달하였으나, 중대규모의 적과 3시간 여의 치열한 교전 끝에 격퇴하고 고지를 탈취하였다. 이어 화력을 분배한 대대는 903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고지에서 적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대대는 화력증원을 요청하고 6차에 걸친 돌격전을 전개하였음에도 수류탄을 투척하며 적이 저항하자, 일몰과 함께 경계태세로 들어갔다.[110]

제3대대도 05시를 기해 목표인 586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약 30분이 경과한 후 능선에 도달한 대대는 2개 소대규모의 적과 수류탄전을 펼쳤다. 대대

의 집중공격에도 불구하고 탈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대장은 예비대를 서측으로 우회시켜 배후를 기습하였고, 동시에 주력이 정면공격을 단행하였다. 마침내 집요하게 저항하던 적은 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대대는 격멸전을 펼친 끝에 10시 40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계속하여 883고지를 목표로 진격하여 15시 30분경 목표 전방 700m까지 진출하였고,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 목표를 집중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대규모의 적이 903고지의 병력과 연계하여 방어태세를 취함으로써 대대는 몇 차례의 격전 끝에 현 위치에서 사주경계에 돌입하였다.

예비대로써 도피막 부근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던 제2대대는 제7사단 제5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15시에 석장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23시에 "다음날 903고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연대 수색중대는 983고지-통선골 간의 진지를 방어하면서 암동 부근까지 위력수색을 전개하였고, 15시 40분에 연대장의 지시로 주력을 통선골 북쪽의 무명고지에 전진 배치하였다.

한편 중앙일선을 담당한 제19연대는 후동과 641고지 부근에서 북한강을 건너 목표 "5(△632 및 △615)"와 "6(△949 남쪽 1.5㎞ 고지군)" 그리고 "7(△949 및 그 서쪽 능선일대)"을 공격하였다. 이 중에서 적의 핵심부인 목표 "7"의 949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연대는 우선 제5목표를 탈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대대는 북한강 서안에서 엄호진지를 점령하였고, 제3대대와 제1대대는 04시에 후동과 구대 부근에서 도하작전을 실시하였다.

도하에 성공한 제3대대 주력은 목표인 632고지를 향해 진격을 개시하던 중 중대규모의 적과 만나 전차포의 지원을 받으며 치열한 교전을 펼쳤으나 적의 저항은 집요하였다. 10시 40분경 유엔공군 F-51전폭기 1개 편대가 적진을 강타함과 동시에 좌일선의 제1대대 선봉이 배후를 기습하기에 이르자 적은 마침내 혼란상태에 빠져들었다. 기회를 포착한 대대는 적진으로 돌입하여 한 시간 후에 목표인 632고지를 완전 점령하였다.[111]

전열을 정비한 대대는 다음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기동하였고, 제6목표의 남

쪽 무명고지를 통해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며 손쉽게 목표를 탈취하였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연대 주력이 949고지의 서남쪽 능선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대대가 이들과 협동하여 949고지를 점령하도록 동쪽으로 계속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제3대대 주력은 명령대로 949고지의 동남쪽으로 진격하여 목표 전방 800m까지 접근하였으나, 지형상의 이점을 안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적을 만나 야포의 지원을 받으며 격전을 벌였지만, 결국 적진 돌파에 실패하였다.

구대 동쪽에서 도강을 시작한 제1대대는 05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한 차례의 적을 저항을 물리치고 08시에 목표고지 전방 100~150m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때 중대규모의 적이 유리한 지형에서 집중공격을 가해왔고, 대대는 전차포와 81㎜ 박격포의 지원을 받으며 2시간 여의 격전 끝에 이를 제압하고 최초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어 12시 30분경 대대는 제949고지로 약진하여 그 서남쪽 능선을 공격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결국 적진을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새벽까지 교전을 계속하였다.[112)]

연대의 도하작전 엄호를 마친 제2대대는 641고지 부근에서 도하하여 12시 30분경 좌일선으로 돌진하여 949고지의 서북능선을 공격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제1대대를 후속한 대대는 제2대대의 공격선 서쪽에서 목표의 서쪽 능선을 공격하던 중 2개 중대규모의 적과 만나 밤이 깊도록 접전을 계속하였다.

한편 제7연대는 구대와 금성천 어구 사이에서 북한강을 건너 목표 “1”과 “2”, 그리고 “3”을 탈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연대장은 지형여건상 최초 목표의 탈취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목표 1과 2를 탈취하여 전지기지를 확보한 후 목표 3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와 제3대대에 전차 1개 소대씩을 배속하고 이들 목표에 대한 공격임무를 하달하였다.

제2대대는 구대 동쪽에서 도강하여 주력으로 629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고지의 동쪽 계곡을 따라 목표 동남쪽 600m 지점의 무명고지를 지날 무렵 적으로부터 박격포격 및 자동화기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병력을 양분하여 1개 중대는 남사면, 다른 1개 중대는 동남쪽 능선으로 협동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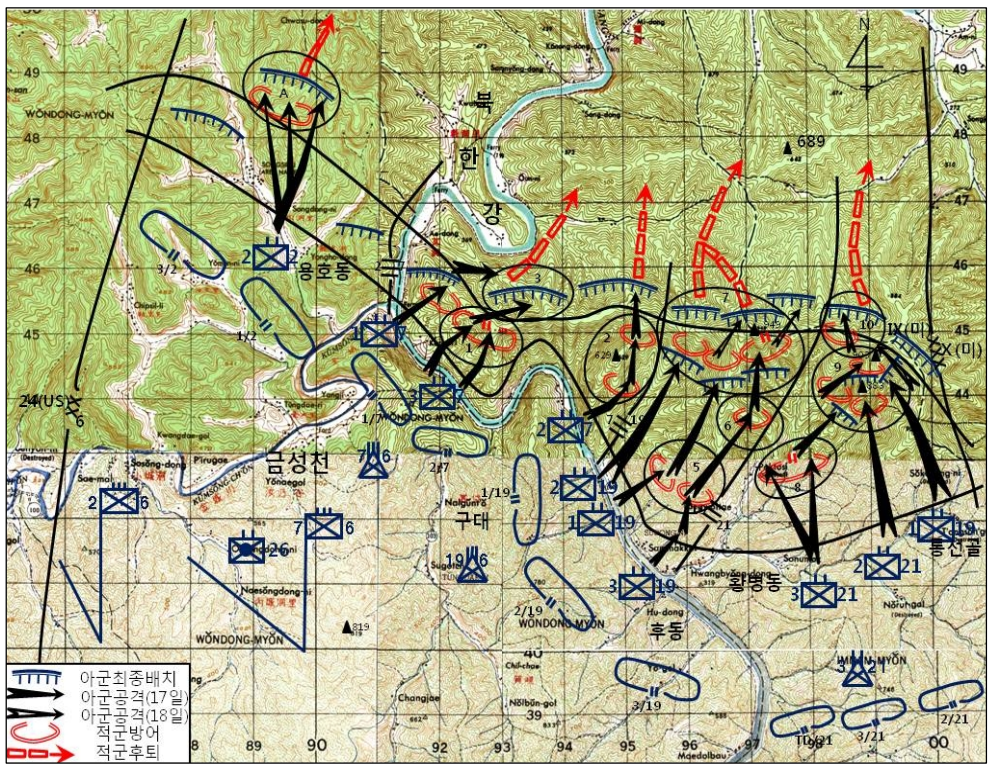
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지대는 949고지로 연한 적의 주저항선으로서 화력과 병력을 중점 배치하고 강력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에도 8부 능선에서 전선은 교착된 채 사상자만 늘어갔다. 10시 10분에 대대장은 전차포의 지원 아래 예비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잠시 후 유엔공군 F-51전폭기 1개 편대가 대지공격으로 지원하자, 이들은 보전포공의 협동으로 10시 50분에 적선을 돌파하여 제2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대는 이어 전과를 확대하여 당면의 Gary선과 그 북쪽의 주요 지역을 확보하였다.[113]

462고지 동쪽에서 도하한 제3대대는 제1목표인 548고지를 향해 예정된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2개 중대로 동서 양쪽에서 분진공격하던 대대는 우일선의 중대가 목표 500m 지점에서 적으로부터 기관총 집중공격을 받고 일시 지휘계통이 마비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수습하여 화력으로 대응하며 진격하였다. 반면에 좌일선 중대는 험한 지형 탓에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07시 50분에 목표인 548고지를 장악하였다.

배후기습으로 적진에 혼란이 야기되면서 대대는 정면공격을 감행하였고, 09시경에는 제3목표의 서남쪽에 접어들 수 있었다. 이때 제3목표를 탈취하라는 연대의 명령에 따라 09시 30분에 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완강히 버팀으로써 11시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교전만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의 전황은 연대 주력이 전선을 장악하면서 모든 지원화력이 이곳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대대가 합세하여 목표의 서남쪽 능선으로 돌입하였고, 제3대대의 신속한 진출마저 이루어져 적은 퇴로가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제3대대와 제1대대의 주력은 제3목표를 장악하고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연대예비로 금성천 어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1대대는 08시 30분에 즉시 도하하여 제3목표의 서측을 공격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대 주력은 위력수색을 펼치며 11시 20분에 목표의 서측 능선에 돌입하였으며,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강안에서 진지공사에 착수하였다.

<상황도 6-9> 개리(GARY)선 전격작전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목표 “A”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2연대장은 제2대대(-)에 전차 1개 소대를 배속시켜 임무를 전담시켰다. 이때 제1대대는 지원 병력을 포함한 대대 주력으로 833고지-780고지-구대-462고지 전에서 진지편성을 완료하였고, 제3대대는 여문리-집실리 부근의 진지를 제7연대로부터 인수하였다.

제2대대(-)는 05시를 기해 용호동에서 목표 “A”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09시 10분경 공격축선을 따라 목표고지의 서남쪽으로 돌입한 대대(-)는 목표 “A”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으나, 중대규모의 적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해 3시간이 넘는 격전을 펼쳤다. 그러나 전차소대의 근접지원으로 적의 화력거점이 서서히 와해되었고, 이 틈을 이용한 우일선 중대의 돌진과 주력의 정면 돌격으로 14시경 대대는 목표 “A”를 완전 점령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114]

한편 진출선에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제21연대는 다음날인 11월 18일 03시 30분에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제1대대는 903고지로부터 침공해 온 적의 공격을 시의적절한 화력지원과 1시간 여에 걸친 근접전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여세를 몰아 연대는 예비인 제3대대를 투입하여 3개 대대로 903고지와 883고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06시에 제1대대는 우일선으로 903고지를, 제2대대는 중앙 제일선으로 883고지의 남쪽을, 그리고 제3대대는 좌일선으로 양고지의 서쪽을 향해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903고지의 동쪽을 포위공격한 제1대대는 07시 30분경 주력이 목표 고지의 8부능선에 접근해 완강히 버티는 2개 중대규모의 적과 끊임없이 공방전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14시가 지나며 좌일선의 제3대대가 복지동(伏至洞) 계곡을 통해 적의 배후를 공격하자, 적은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대대는 1개 중대로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주력으로 정면공격을 실시하여 903고지의 동북능선을 탈취하였다.

883고지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목표 남쪽 500m의 공격개시선에서 06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은 경사가 심한 목표지대에 화력거점을 형성하고 집중적인 포격으로 접근을 저지하였다. 화력의 집중으로 적을 물리치는데 실패한 대대는 특공조를 투입하여 근접전을 전개하였고, 제3대대가 고지의 서북능선을 타고 903고지의 서쪽으로 돌진하던 11시가 지나자 적진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간파한 대대는 총공격을 단행하여 정오 무렵 목표를 점령하였다.

903고지의 공격에 나선 제3대대는 도중에 중대규모의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11시경 목표의 서남쪽으로 진출하여 적의 배후를 기습 공격하였다. 제1대대의 정면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주력을 배치했던 적은 제3대대의 배후 기습에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를 포착한 대대는 경미한 저항을 잠재우고 13시 30분에 정상을 점령하였다. 제1대대에 고지를 인계한 대대는 제10목표인 973고지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여 무인지경의 상태인 973고지를 무혈점령하였다.[115]

한편 949고지 및 고지 서쪽능선 일대를 탈취하기 위해 격전을 펼친 제19연대는 새로운 공격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우일선인 제3대대는 11월 18일 06시를

기해 목표 동남쪽 800m에서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목표 전방 300m 지점까지 무리 없이 진출한 대대는 이곳에서 증강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집중적인 수류탄공격을 받고 진격이 일단 중단되었다. 3시간 여에 걸친 격전 끝에 대대는 우회한 제11중대가 적의 배후를 기습하는 동안 주력이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의 동남쪽 능선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후 대대는 공격방향을 동북능선으로 전환하여 949고지 동북쪽 1.5㎞ 지점의 805고지를 점령한 후 이 고지를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116]

제1대대는 06시에 949고지 서쪽에서 공격을 시작해 화력지원을 받으며 목표 전방 150m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중대규모의 적과 공방전을 펼치던 대대는 유엔공군 전폭기 6대가 출현해 적진을 집중공격하고 나자 일시에 돌격을 감행하여 적진에 돌입하였다. 1시간에 걸친 진지전 끝에 08시 20분에 진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한 대대는 전선정리에 착수하여 949고지의 북사면에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연대 공격선의 측방경계를 담당한 제2대대는 949고지에 연한 서측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목표선을 점령한 제7연대장은 우일선 대대의 책임지역을 축소하여 종심을 깊게 하고, 좌일선은 강반진지의 경계에 중점을 둔 전선정리를 지시하였다. 또한 11월 18일 10시까지 조정된 진지에 병력배치를 완료할 것과 적의 예상접근로에 지뢰를 매설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117] 이에 따라 제2대대는 629고지 북쪽 1㎞에, 제3대대는 629고지 북쪽 1㎞ 지점에서 548고지 북쪽 계곡 사이의 주요 능선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548고지에 대대 OP를 두고 북한강 동쪽의 주요 선을 따라 진지구축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하였다.

송동리(松洞里) 북쪽의 고지군을 확보하고 북한강 서쪽 선을 담당하고 있던 제2연대는 11월 18일 03시 무렵 적의 반격을 받았다. 제2대대는 대대규모(-)의 적의 공격을 받고 일부 진지에서 혼전까지 벌였으나, 2시간에 걸친 진내전 끝에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재정비하였다. 대대는 연대의 대폭적인 전선정리에 따라 이진지를 전담하게 된 제1대대에 인계하고 용호동으로 이동하였다.

제2연대는 사단의 새로운 주진지 편성으로 인해 제7연대 진지의 좌단에 연한 용호동-여문리 선에 주진지를 구축하고 이번 전투의 점령지역도 경계진지로 확보

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일선의 경계진지를 전담하는 한편 제2대대가 우일선으로 용호동 부근에, 제3대대가 좌일선으로 여문리 부근에 각각 배치되었다.[118]

(다) 전투 결과

사단은 공격개시 2일 만에 예하의 전 연대가 목표인 Gary선을 성공적으로 점령하였다. 이에 정면의 중공군 제68군은 예비인 제202사단을 일선에 투입하여 송정-674고지-679고지-472고지-과호리(科湖里) 선에서 급편방어에 돌입하였고,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제204사단을 대정리(大井里)로 물려 재편하는 등 전세만회를 도모하였다.

반면에 목표를 점령한 사단은 전선정리를 단행하여 우일선의 제21연대를 예비로 하여 본대 복귀에 대비시키는 한편 제19연대를 석장동-903고지-949고지 선에, 제7연대를 949고지-어운리(漁雲里) 선에, 그리고 제2연대를 강 서쪽에 진지를 편성토록 하는 등 주저항선에 배치하였다. 사단은 11월 20일 05시를 기해 담당 정면에 경계진지를 확보토록 각 연대에 지시하였고, 이에 제7연대는 어운리 동쪽의 572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번 전투기간 중 제6사단이 올린 전과 및 손실은 다음의 <표 6-31>과 같다.[119]

<표 6-31>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 과							손 실	
	사살	포로	82㎜ 박격포	60㎜ 박격포	기관총	소총	수류탄	전사	부상
제21연대	153	16	2	2	11	41	300	1/28	2/110
제19연대	329	69		4	9	65	5000	4/18	3/99
제7연대	141	13	2	3	6	21		10	2/86
제2연대	261	26		5	7	46	400	27	1/79
계	884	124	4	14	33	173	5,700	5/97	8/374

2) 전초진지 쟁탈전

(1) 281고지 및 395고지 전투(1951년 11월 3일 ~ 11월 6일)

(가) 전투 개요

보개산(寶蓋山)-고대산(高臺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제9사단은 1951년 10월 5일 06시부로 미 제1군단에 배속되어 10월 20일까지 제3사단의 정면을 인수하라는 군단의 작전지시를 받았다.[120] 이에 따라 새로운 정면을 인수한 사단은 제30연대를 우일선, 제29연대를 좌일선으로 중강리(中江里)-유정리(楡井里)-284고지-395고지-281고지를 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제28연대를 예비로 두었다. 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사단은 우측의 미 제25사단 및 좌측의 미 제1기병사단과 상호 연계하는 전선을 유지하였다.

한편 제29연대의 주진지 내에 있는 395고지와 281고지는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주요한 고지인데, 이는 사단이 현 방어선을 유지함에 있어 방파제 역할을 하고, 배후의 연천-서울-전곡을 잇는 3번 도로와 운천-서울을 연결하는 43번 도로의 엄호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감제가 되는 철원 일대를 방어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이 이들 고지를 장악할 경우 사단의 좌측이 크게 위협을 받아 보급 및 교통의 중심지인 철원을 빼앗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9연대장은 우일선의 제1대대를 284고지-395고지 일대에, 좌일선의 제2대대를 방석동(芳石洞)-281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주진지 후방 3~4㎞ 후방에 제3대대를 예비로 두었다.[121]

<표 6-32>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9사단장	준장	박병권(朴炳權)	
	제28연대장	대령	이창정(李昌禎)	
	제1대대장	소령	김조옥(金祚鈺)	

	제2대대장	소령	김인문(金寅文)	
	제3대대장	소령	조성칠(趙誠七)	
	제29연대장	대령	박응규(朴應奎)	
	제1대대장	소령	장석균(張奭均)	
	제2대대장	소령	손덕균(孫德均)	
	제3대대장	소령	이대철(李大哲)	
	제30포병대대장	소령	서정선(徐廷善)	
미 군	제25사단장	소장	Iar P. Swift	인접부대
	제1기병사단장	소장	Thomas L. Harrold	
중공군	제42군장		우루이린(吳瑞林)	
	제126사단장		왕첸샹(王振祥)	
	제376연대장		-	

이 무렵의 전황은 휴전회담의 개최로 인하여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고, 사단은 진지보강과 위력수색을 전개하는 수준이었다. 사단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대체로 인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122]

반면에 적은 중공군 제42군 예하의 제126사단을 396고지-459고지-596고지-501고지-431고지 선에 배치하고 완전 거점화된 진지를 구축하는 등 공수 양면의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8,000여 명의 전투 병력과 82㎜ 및 60㎜ 박격포 12문과 18문, 75㎜직사포 12문, 중기 및 경기관총 18정과 24정 등을 보유하였으며, 122㎜ 야포 1개 대대의 지원을 받았다.[123]

(나) 전투 경과

전력증강을 마치고 395고지와 281고지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하던 적은 1951

년 11월 3일 281고지에 대한 1시간에 걸친 집중포격을 실시하고 22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124] 이에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한 연대는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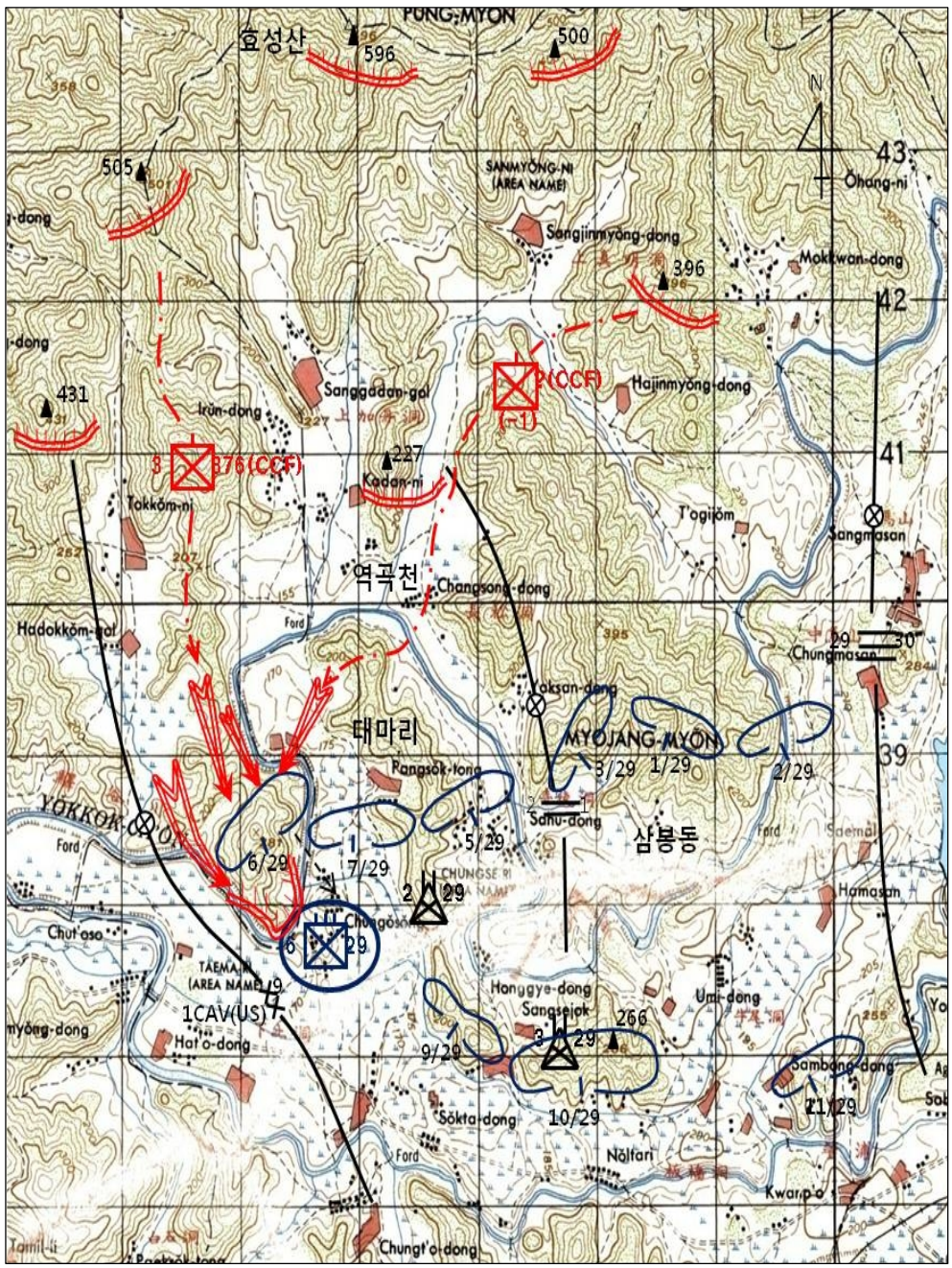
① 연대 당면의 적은 281고지를 목표로 공격중이다.
② 연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여 적을 진전에서 격멸하려 한다.
③ 제2대대는 현 주저항선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281고지를 고수하는데 전력하라.
④ 제1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특히 392고지 일대의 확보에 주력하라.
⑤ 제3대대는 측후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명에 따라 즉각 기동할 태세를 갖추라.
⑥ 각 대대는 소정의 야간 식별과 암호 및 음어를 사용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⑦ 연대 CP는 266고지(△281 동남쪽 2㎞)에 위치한다.

제2대대장은 281고지를 비롯한 주진지 일대에 적의 포격이 집중되자, 가용한 모든 화력의 집결사용과 주봉인 281고지에 대한 고수를 명령하였다. 중공군 제376연대 제1대대는 281고지의 주봉을 담당한 제6중대를 향해 우회와 포위의 양면작전으로 3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였다. 중대는 적이 소총의 사격거리로 진입하는 즉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또한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대응하였다.

그러나 전열을 정비한 적은 우세한 병력으로 파상공격을 가해왔고, 급기야 진지의 우측과 중앙에서 혼전이 벌어진 데 이어 좌측마저도 기습을 받았다. 이처럼 급변한 전황을 직감한 중대장은 예비로 확보한 병력을 직접 지휘하여 진내로 들어가 병사들과 합류하였고, 백병전을 펼침으로서 진지 좌측의 적을 가까스로 몰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지 중앙과 우측의 상황은 병력 증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자정이 지난 11월 4일 00시 15분에 물러났던 적은 100여 발의 포탄을 고지 정상에 집중시킨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진지의 정면과 좌측이 연이어 돌파되었고, 집중적인 포격으로 모든 통신이 두절되어 중대와 대대 간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백병전을 펼치던 대원들은 점차 병력과 탄약이 줄어들자,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03시에 281고지의 동단으로 후퇴하여 집결하였다.[126]

<상황도 6-10> 281고지 야간전투



한편 제2대대의 이런 상황을 간파한 연대장은 증강된 1개 중대를 11월 4일 03시 30분까지 281고지로 급파하라는 명령을 제3대대장에게 하달하였다.[127] 명령을 받은 제3대대는 연대의 측후방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제11중대와 제10중대 제1소대에 출동태세를 갖추고 OP에 집결할 것을 명령하였다.[128]

이에 따라 04시에 281고지 남단의 공격대기지점에 도달한 제11중대(+)는 제6중대와 연계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전황을 파악하여 대대에 보고하였다. 이어 30분 후 중대는 제1소대가 281고지 정면을 공격하는 동안 동북쪽으로 우회하여 적의 배후를 기습하라는 대대의 작전지시에 따라 공격을 감행하였다. 중대는 우회하여 단숨에 고지 중턱에 도달하여 박격포를 비롯한 중화기로 저항하는 중대규모의 적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1시간에 걸친 격전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한 중대는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 적의 배후를 기습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제3소대에 지시하였다. 소대장 민혜동(閔惠東) 소위를 비롯한 소대원은 적의 화망을 뚫고 돌격하여 화력을 집중하였다.[129] 이와 동시에 중대도 정면공격을 감행하여 8부 능선까지 도달하였으나, 중기관총 공격에 진출이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중대는 대대에 제압사격을 요청하여 포격이 집중되는 동안 적진으로 돌격하였고, 수류탄 투척으로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한 후 정상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적이 수류탄을 내어던지며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정상점령에 실패하고 07시까지 진출선에 머물렀다.

또한 양공견제 임무를 부여받은 제1소대는 공격에 나서 05시경 고지 중턱에 도달하여 지원사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11중대가 정상 부근에서 진격이 중단된 채 격전을 반복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대는 돌격선 부근까지 포복으로 접근하여 모든 화력을 집중하였다. 하지만 교통호 속에 숨어있던 적의 역습에 포위된 소대는 돌격조를 편성해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전황을 지켜보던 연대장은 제3대대의 잔여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08시에 10시까지 281고지로 진출해 고지를 탈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130] 공격대기선에서 281고지의 서쪽 능선을 타고 진격을 개시한 제3대대(-)는 고지 중턱에서 적의 화력거점을 격파하고 돌격선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대대(-)는

중대규모의 적과 격전을 펼친 끝에 11시 35분에 281고지의 서쪽을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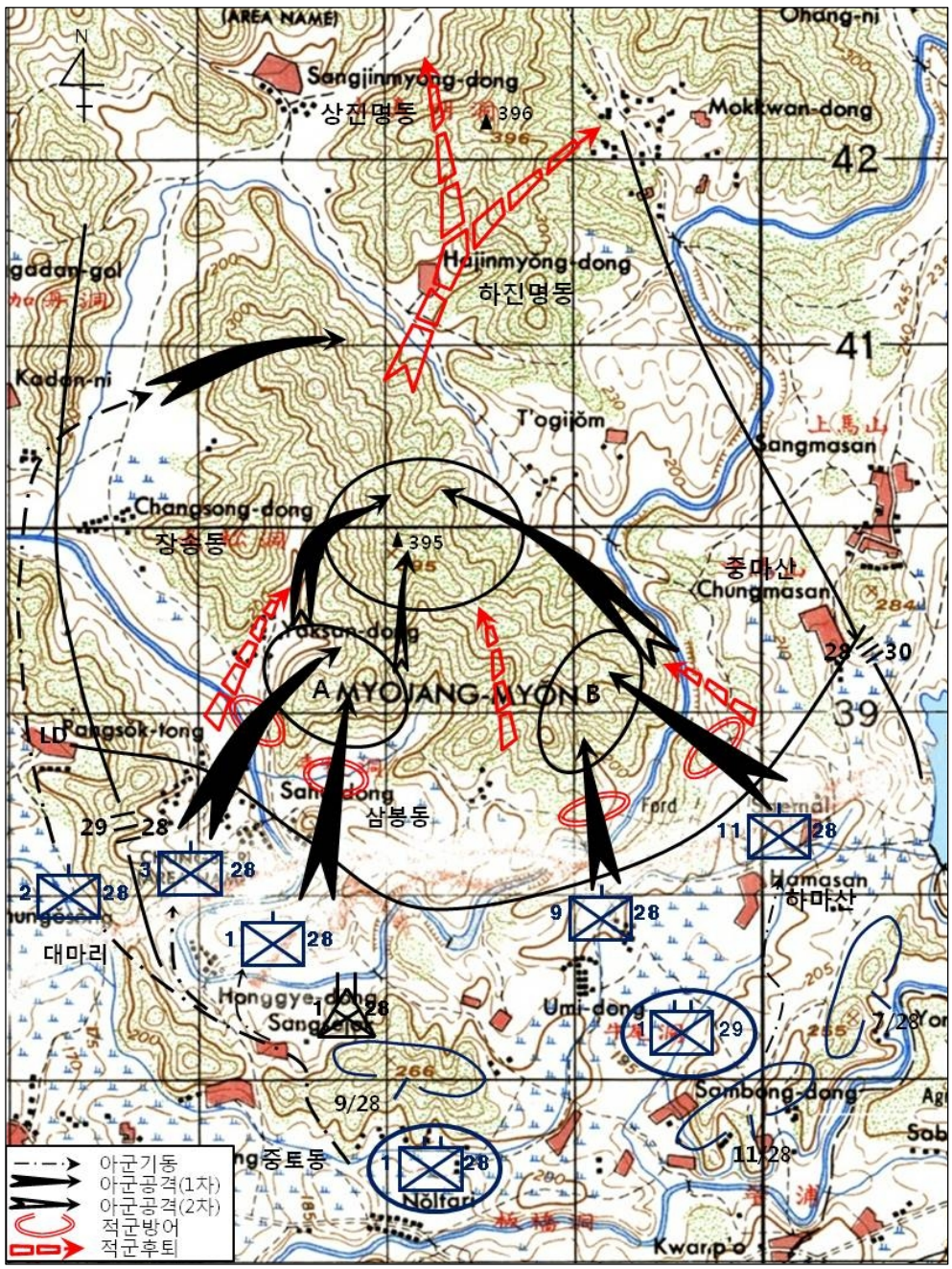
고지 중턱에서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정상 점령에 실패한 제11중대(+)는 제30포병대대의 집중포격에 이어 08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정상으로 돌진한 이들은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을 벌여 적을 격퇴하고 정상에 돌입한 후 동진한 대대 주력과 합류하였다. 또한 전열을 재정비한 제6중대도 서북쪽 능선을 타고 진격하여 11시 50분에 동쪽의 정상을 장악함으로서, 대대는 목표인 281고지의 탈환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131]

한편 281고지 탈환에 실패한 중공군 제126사단은 25시간 만에 395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공격을 담당한 적은 중공군 제376연대 제2대대로서 600여 명의 병력과 82㎜ 및 60㎜ 박격포 4문과 8문, 57㎜ 무반동총 2정, 그리고 중기 및 경기 24정과 48정 등을 각각 보유하였다.[132]



전쟁 당시와 현재의 395고지(백마고지)

<상황도 6-11> 395고지 전투(1951.11.5～11.6)



11월 5일 21시경 적은 제29연대 제2대대 OP를 비롯하여 395고지와 그 일대에 105㎜ 포탄 100여 발을 집중한 후 고지 북사면에 매복해있던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고지 정상을 향해 쇄도하였다. 이들은 고지의 주봉을 담당한 좌일선의 제3중대 정면을 돌파 시도하는 한편 일부는 고지 중앙의 제1중대 동쪽을 기습하는 양면 협공을 가하였다. 모든 화력을 집중한 아군의 방어에도 적의 파상공격으로 인해 23시부터 진내 백병전이 전개되었다.[133]

이 무렵 우일선의 제2중대 정면에도 적이 출현하였고, 고지로부터 동남쪽 700m 지점의 대대 OP가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395고지 동남쪽 3㎞ 지점의 255고지 부근으로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395고지 동쪽 능선을 타고 나타난 적 전차 1개 소대로 인해 중대는 위급상황에 처하였다.

악화되는 전황을 인식한 사단장은 제1대대 주력의 임의 철수를 명령하고 저지진지를 점령한 제28연대 제3대대에 255고지-266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차단진지를 점령하여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함과 아울러 적의 침공을 견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28연대 제1대대를 266고지로 출동 대기시키는 한편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34]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현 방어선에 침투한 적을 역습하여 포착 격멸하려 한다. 공격간 미 제64전차중대의 1개 소대가 지원할 것이다.
② 제28연대는 2개 대대로서 목표 “A” “B”를 확보함과 동시에 계속 진격하여 최종목표 “李”(△395)를 점령 확보하라.
③ 제29연대는 제28연대가 공격대기선에 진출하면 제28연대장과 협의하에 투명도의 전투정면을 인계하라.
④ 제30연대는 현 진지를 확보하면서 위력수색을 강화하라.
⑤ 제30포병대대는 제28연대를 직접지원하고 공격개시 30분 전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라.
⑥ 공격개시 일시는 11월 6일 07시이다.

이에 따라 제28연대장 이창정 대령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목표 탈취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이날 새벽에 255고지-266고지로 진출해 차단진지를 점거중인 제3대대를 우일선, 266고지로 진출해 출동 대기중인 제1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공격개시 1시간 전에 공격대기선을 점령한 후 공격개시와 더불어 중간목표(“A” “B”)의 좌우 측면으로 분진하면서 돌파하여 탈취한 다음 최종목표인 395고지를 일거에 공략하는 작전이었다.[135]

제1대대와 제3대대는 각각 담당지역으로 이동하여 제30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남과 동시에 07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일선의 제3대대는 제11중대와 제9중대를 우일선 및 좌일선으로 전개하여 목표 “B”를 향해 395고지의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1시간이 지나 대대는 목표 100m 전방까지 진출했으나, 유리한 지형에 화력거점을 구축한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대대장은 병력을 돌격대형으로 전개시킨 후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1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교전을 펼쳤으나 더 이상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

대대는 전열을 정비한 후 포격지원으로 적의 화기를 제압한 다음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다. 우일선의 제11중대는 포복으로 목표에 접근한 후 수류탄 투척과 백병전으로 적을 압박하였고, 이와 함께 좌일선의 제9중대가 협공을 가하자 적은 09시 30분에 후퇴를 시작하였다. 목표 “B”를 탈취한 대대는 여세를 몰아 395고지를 향해 진격하였으나, 8부 능선에서 급편방어태세를 갖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대대장의 돌격명령에 따라 이들 중대는 정상 30m 전방까지 접근하여 백병전을 전개하자 적의 진지 일부가 와해되어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를 포착한 대대는 총공격을 펼쳐 10시 50분에 최종목표인 395고지의 동쪽을 장악하였다.

한편 목표 “A”의 탈취임무를 부여받은 제1대대는 집결지인 266고지를 떠나 06시 30분에 공격대기지점에 도착하여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대대는 제1중대를 우일선, 제3중대를 좌일선으로 전개한 후 07시에 목표를 향해 진격을 개시하였다. 목표고지의 하단에 도달한 대대는 병력을 포위대형으로 편성해 양면에서 압박을 가하였지만, 지형상의 불리함으로 인해 1시간에 걸쳐 격전만을 반복하였다.[136]

이에 대대 주력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정면공격을 단행하여 고지 중턱까지 진출했으나, 이곳에서 다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때 좌일선의 제3중대가 목표 좌측으로 우회하여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후미를 기습하자 적진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호기를 포착한 제1중대가 동쪽으로부터 합류하여 공격을 가하면서 적은 정상 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전황을 지켜보던 연대장은 OP 부근에서 대기하던 제2중대에 395고지 북사면으로 진출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배후를 기습하라고 명령하였다. 10시에 목표 "A"를 탈취한 제1중대와 제3중대가 계속 돌진하며 정상에 육박하자, 적은 박격포와 중기관총으로 최후의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제2중대가 적의 배후를 집중 공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대대 주력이 전면 공격으로 정상에 도달하여 백병전을 펼침으로써 11시에 마침내 고지 서쪽을 장악하였다. 이로서 대대는 395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하였다.[137]

(다) 전투 결과

전투를 종료한 사단은 전선정리에 착수하여 우일선의 제30연대를 철원 북쪽의 현진지에 계속 남겨두는 한편 제28연대를 11월 6일 15시부로 제29연대와 교대시켜 좌일선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29연대의 좌일선으로 사단의 최서단 진지인 281고지를 점유중인 제3대대를 제28연대에 배속하였다. 따라서 제28연대는 제3대대를 우일선, 제1대대를 중앙일선, 배속된 제29연대 제3대대를 좌일선으로 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266고지 일대의 저지진지를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 제29연대는 진지 인계와 동시에 사단 예비로 철원 서남쪽의 약천동 부근으로 이동하여 전력정비와 사단 측후방 경계에 임하였다.

반면에 중공군 제126사단은 기간 중에 많은 인명손실에도 불구하고 소대 내지 중대 규모의 정찰대를 395고지-281고지 부근에 출몰시켜 공세로 이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국군 제9사단이 기록한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6-33>과 같다.[138]

<표 6-33>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 과							손 실		
	사살	포로	중기	경기	무반동총	다발총	소총	전사	부상	실종
제28연대	101	3	1	3			18		1	
제29연대	145	54	9	20	3	18	47	31	115	18
계	246	57	10	23	3	18	65	31	116	18

(2)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1951년 12월 25일 ~ 1952년 2월 13일)

(가) 전투 개요

크리스마스고지 전투는 1951년 12월 25일을 전후하여 어은산 일대의 중공군 제204사단이 백석산 북방의 국군 제7사단의 최북단 전초진지인 1090(북)고지 부근의 무명고지에 대해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개된 전투로써 후일 크리스마스 전투라고 명명되었다. 이 고지는 어은산과 백석산을 연하는 종격실 능선상의 고지들인데, 피아가 현 주저항선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지의 충돌로써 쟁탈전이 반복되었다.

당시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63군 예하 제204사단 제612연대로서 어은산을 주축으로 890고지-1218고지-984고지를 연한 선에서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1090고지를 기습과 강습을 병행하여 점령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주진지 일대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 공세이전에 대비하려 하였다.[139]

<표 6-34>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7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제3연대장	대령	이소동(李召東)	
	제1대대장	소령	고학룡(高學龍)	
		소령	김 업(金 業)	1952. 1. 1부
	제1중대장	중위	이석철(李錫喆)	
	제2중대장	중위	이효열(李孝烈)	
	제3대대장	중위	이만식(李萬植)	
	제4중대장	중위	오재현(吳在現)	
	대전차공격대대장	중령	박주용(朴周用)	
	제16포병대대장	중령	문재준(文在駿)	
중공군	제63군장		푸충삐(傅崇碧)	
	제204사단장		챠오위칭(曹玉淸)	
	제614연대장		-	

국군 제7사단은 1951년 11월 중순 국군 제8사단과 교대하여 이곳에 투입된 후 이미 중공군 제204사단과 일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 사단은 이 고지가 지형적으로 감제가 가능한 군사 및 전술상으로 중요한 전초진지이므로 이를 결사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에 거의 충족하는 수준이고, 사기 또한 양호하였다.

(나) 전투 경과

1951년 11월말 1090고지 부근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Duke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 사단장 이성가(李成佳) 준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예하에 하달하였다.[140]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진지를 교대하여 주저항선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려 한다.
② 제3연대(대전차공격대대 배속)는 12월 10일 08시에 행동을 개시하여 12월 12일 06시까지 제5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좌일선의 지구를 담당하라.
③ 제5연대는 12월 12일 06시까지 현 진지를 제3연대에 인계하고 오미리(五味里)에 집결하여 사단예비에 임하되, 1개 대대를 제8연대에 배속하라.
④ 제8연대는 현 임무(우일선)를 계속 수행하되, 제5연대의 1개 대대를 12월 12일 06시부로 직접 지휘하여 진지를 보강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12월 12일 06시부로 제5연대로부터 제3연대로 배속 변경한다.
⑥ 제16포병대대는 제3연대를, 제50포병대대는 제8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한다.
⑦ 사단 정면에 대한 일반지원은 군단지원포병이 이를 담당할 것이다.
⑧ 공병대대는 일선연대에 각 1개 중대씩 배속하여 진지공사를 강화하라.
⑨ 통신중대는 현 통신축선을 계속 유지하라.
⑩ 지휘소는 현리(縣里)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3연대는 1220고지에 CP를 개설하고 제5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우일선에 제1대대와 중앙일선에 제2대대를, 그리고 좌일선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면서 배속된 대전차공격대대를 예비로 두었다. 아울러 연대의 각종 지원화기로 제1대대를 중점 지원토록 하는 한편 Duke선 정면에 대한 위력수색과 잠복을 통한 포로획득에 주력하였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강력한 눈보라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17시 40분경 20여 명의 적 정찰대가 무명고지Ⓑ 일대의 진전을 탐색하다가 제1대대 전초소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들이 물러간 다음 120㎜와 82㎜ 박격포탄 400여 발이 고지 일대에 집중되었고, 곧이어 1개 대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무명고지Ⓑ를 동쪽으로 우회하여 무명고지Ⓐ를 향해 동측방을 공격하는 한편 일부는 무명고지Ⓑ의 서쪽으로 대대의 경계선을 양단한 무명고지Ⓐ를 공격하면서 아군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였다. 적의 의도는 일거에 무명고지Ⓐ를 점령하여 무명고지Ⓑ에 대한 포위효과를 노리면서 여세를 몰아 1090고지를 기습공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141]

대대장은 1090고지(남)의 예비중대를 1090고지(북)으로 추진하여 종심을 강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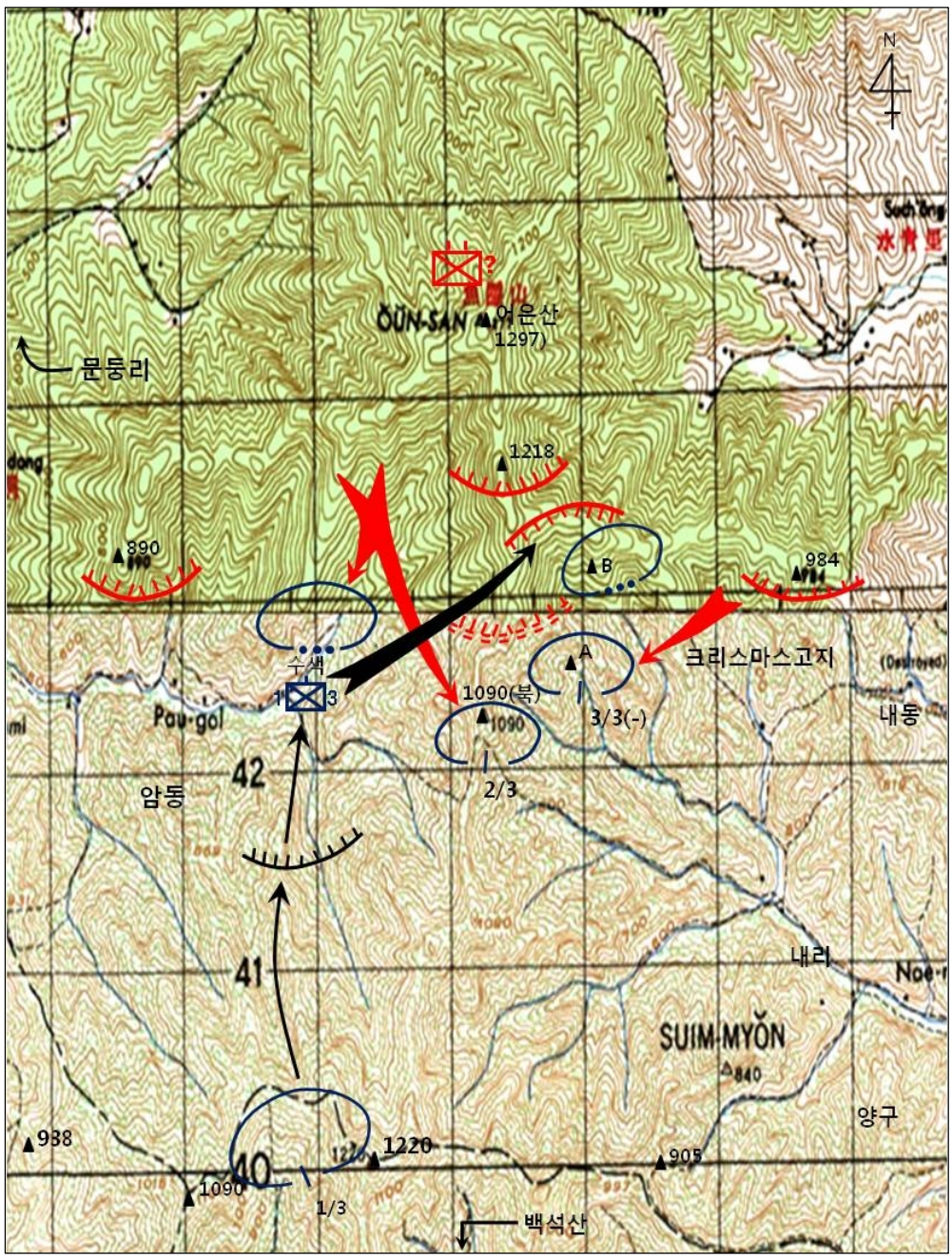
키는 한편 자대화력으로 제3중대를 지원하며 날이 밝기까지 무명고지Ⓐ를 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는 좌우에서 협공을 가하는 적과의 격전이 불가피하였다. 고지를 둘러싸고 수차에 걸쳐 파상공격을 가하던 적은 약 1시간 후 무명고지Ⓑ쪽으로 자진 철수하였다. 중대는 상황을 간파한 대대장의 역습명령에 따라 무명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자정 무렵까지 역습준비에 임한 제3중대는 다음날 새벽에 전 중대를 지휘하여 무명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대대는 어둠을 이용하여 네 차례나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09시경 대대장의 명령을 받은 제1중대는 포병의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제3중대를 초월 공격하여 적과의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반복한 끝에 15시 30분 무명고지Ⓑ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어둠이 짙게 깔린 19시 35분에 적이 370여 발의 박격포탄을 고지에 집중하며 공격을 가해오자, 중대는 2시간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제3중대의 무명고지Ⓐ로 철수하였다.

다음날인 12월 27일 대대장은 제1중대와 제3중대에 무명고지Ⓑ에 대한 합동공격을 지시하였다.[142] 11시부터 실시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대대는 목표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고, 적은 이에 맞서 박격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병력을 무명고지Ⓐ로 일단 철수시킨 후 야포를 이용하여 1218고지 부근의 적 박격포를 제압하였다. 대대는 목표고지의 화망을 제거한 후 적의 병력 증원을 차단하며 강공을 펼쳐 무명고지Ⓑ를 탈취하였다.[143]

그러나 새로운 증원부대로 보이는 약 2개 중대규모의 적이 18시 30분 무렵 기습공격을 가해옴으로써 탄약의 소모로 진지를 지탱하기가 어려워 다시 무명고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대대장의 여명공격 명령에 따라 제1중대는 제3중대의 2개 소대와 함께 06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격렬한 백병전을 펼친 끝에 09시 50분에 고지 정상을 탈환하였다. 하지만 고지를 빼앗긴 적은 군단장과 사단장이 연대지휘소를 방문한 11시 45분에 치열한 박격포격을 집중한 후 반격을 감행하였으나, 아군 3개 포병대대의 화력집중에 격퇴되었다.[144]

<상황도 6-12>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



(다) 전투 결과

12월 28일 06시 연대는 우일선의 진지교대를 단행하고 예비인 대전차공격대대를 육덕곡(六德谷)으로부터 미네소타(Minnesota)선으로 추진하여 중앙일선의 제2대대 진지를 인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 제1중대가 무명고지Ⓑ에서 전투를 실시하는 동안 제2대대의 일부가 제1중대의 예비 진지인 1090고지(남)를 확보하게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20시 15분에 진지를 제2대대에 인계한 후 다음날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이 무렵 전선의 상황은 동해안의 남강 하구에서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평온을 유지하였으나, 상기 지역의 무명고지에서만 격전을 펼친 까닭에 이 고지를 'Christmas고지'라 명명하게 되었다. 1951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개된 이 전투기간 중에 제7사단 제3연대 제1대대가 거둔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6-35>와 같다.[145]

<표 6-35> 제1차 전투 전과 및 손실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실종
		LMG	SMG	소식소총	다발총			
172	5	2	8	3	1	22	109	21

(3) 두매리 부근 전투(1951년 12월 28일 ~ 1952년 1월 8일)

(가) 전투 개요

이 전투는 1951년 12월 28일부터 다음해 1월 8일까지 문산 정면의 임진강 북쪽 두매리(杜梅里) 부근에서 국군 제1사단과 중공군 제68군 예하 제188사단이 전개한 전형적인 전초진지 쟁탈전이다. 당시 국군 제1사단은 주저항선을 임진강 북안의 사천(泗川)-백학산(白鶴山)-사미천(沙尾川)을 연하는 선으로 추진하여 좌전방

에 제11연대를, 우전방 두매리 남쪽에 제12연대를 배치하고 제1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고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상의 90%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17포병대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하였고, 미 제1군단포병부대와 전차중대의 지원은 물론 필요시 미 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화력은 대체로 적보다 우세한 상황이었다.

<표 6-36>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사단장	준장	박임항(朴林恒)	
	제12연대장	대령	정영홍(鄭永洪)	
	제1대대장	소령	유문호(柳文鎬)	
	제2대대장	소령	장득수(張得守)	
	제3대대장	소령	강영걸(康永傑)	
	제15연대장	대령	김진위(金振暐)	
	제1대대장	소령	김명중(金明中)	
	제2대대장	소령	박춘웅(朴春雄)	
	제3대대장	소령	김국주(金國柱)	
	제17포병대대장	중령	양정길(梁正吉)	
중공군	제63군장		푸충삐(傅崇鍾)	
	제188사단장		덩 웨(鄧 岳)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3군 예하 제188사단이 지휘소를 마산동(馬山洞)에 개설하고 주력을 용호산(龍虎山)-망해산(望海山)-반용산(盤龍山) 선에 배치하여 경계부대를 비지산(非智山)-대덕산(大德山) 전면으로 추진, 아군의 동정을 살피면서 주야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적 병력은 7,500여 명으로 예상되었으며, 122㎜ 야포 1개 대대와 105㎜ 야포 1개 중대, 그리고 전차 1개 소대가 전후방 일대에 분산 포진하고 있었다.

작전지역은 대체로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에 불리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적이 점령한 지역은 우측의 용호산-망해산-반룡산-대덕산을 연하는 준령이며, 이 지대의 능선과 계곡은 남북으로 놓여 있고 다수의 능선은 절벽 또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사단의 점령지역은 적으로부터 감제 관측이 가능한 지형으로 천연적인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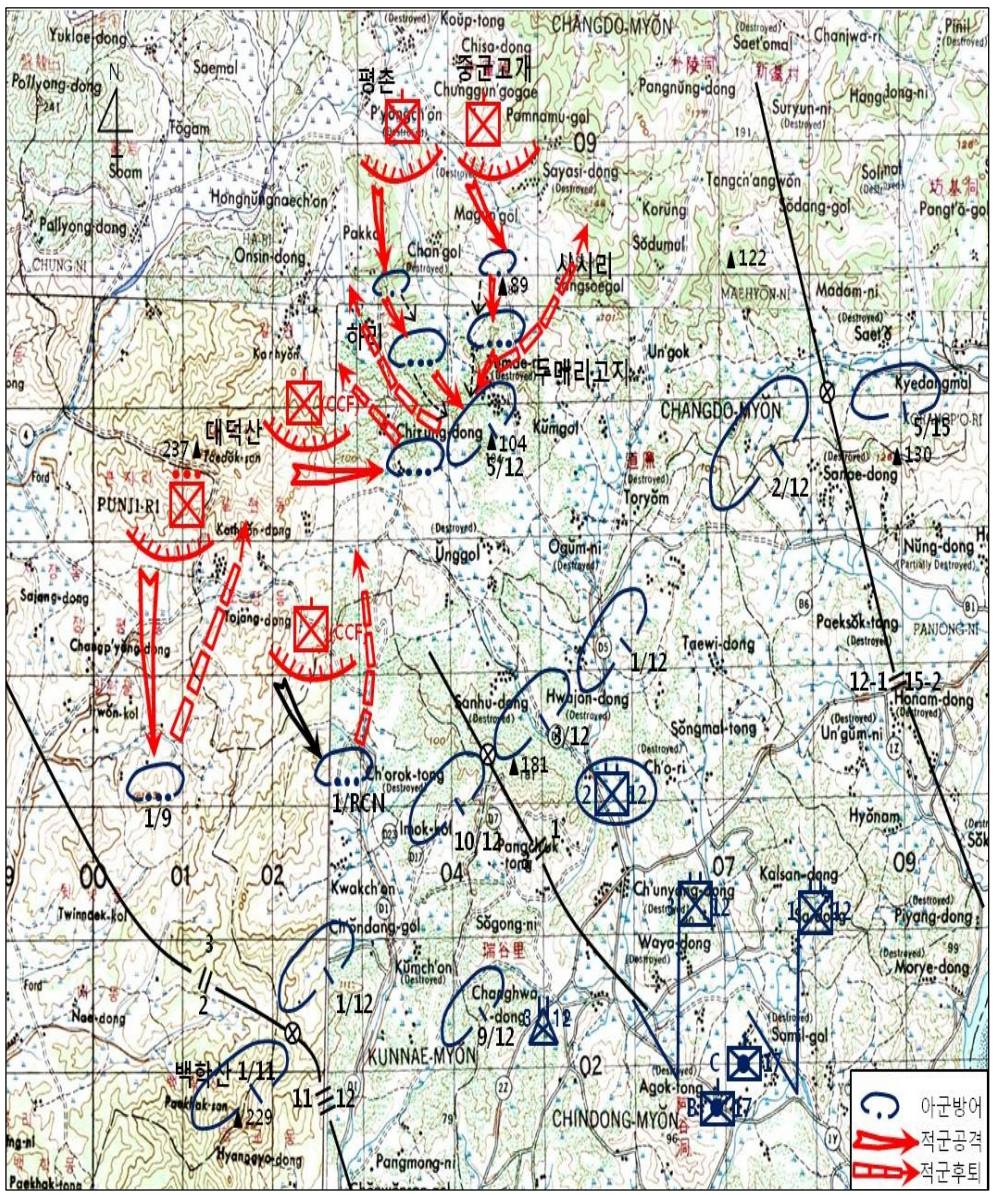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연중 가장 혹한의 계절로써 개인 활동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었으나, 날씨는 쾌청하여 작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47]

(나) 전투 경과

1951년 10월 29일 주저항선을 제임스타운(Jamestown)선으로 추진한 제12연대는 우일선에 배속된 제15연대 제2대대를, 중앙에 제1대대와 좌일선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일부를 전진거점을 확보하는데 투입하고 주력은 예비로 배치하였다. 반면 당면의 적은 연대의 진지축성을 방해하고 주진지에 대한 위력수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노획한 포로의 진술을 통해 가까운 시기에 적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연대장은 12월 14일을 기해 예비인 제3대대와 제2대대간의 임무를 교대시켰다. 그리고 제2대대 제5중대는 제1대대의 전진진지인 두매리 고지 일대를 전담토록 지시하였다.[148]

한편 연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제188사단 예하 제523연대는 12월 28일 저녁 무렵 예비대를 투입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해왔다. 16시를 기해 적은 제5중대가 확보하고 있던 철모고지 전방 300m 지점에서 신호탄을 쏘아올림과 동시에 104고지와 두매리 고지 부근을 향해 600여 발의 박격포탄을 집중하였다. 10분이 경과하며 적은 좌우 일선에서 각각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제5중대의 진전으로 몰려왔다. 이에 제17포병대대는 미리 준비한 탄막사격을 집중하였으며, 미 제999포병대대는 적의 예상 포진지에 대하여 대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149]

<상황도 6-13> 두매리고지 전투(1951.12.18)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예하 대대에 비상경계를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구두 명령을 하달하였다.[150]

① 적은 연대 전진진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② 제3대대 정면에 대한 적의 공격은 양공(陽攻)으로 판단되며, 주공은 제1대대 정면의 전진거점으로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연대는 이 적을 진전에서 저지 격멸하려 한다.
④ 예비인 제2대대는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

명령을 받은 제1대대장은 배속된 제5중대에 백병전의 각오로 전진진지를 고수할 것을 엄명하였다. 잠시 후 적은 제5중대의 분견대가 점령한 두매리 고지 서북쪽 1.5㎞ 지점의 철모고지와 89고지에 2개 중대규모로 공격을 가해와 진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철모고지의 분견대는 적의 공격 일파를 저지한 다음 고지 남쪽 300m의 무명고지로 철수하였으며, 89고지의 분견대도 두매리 고지로 철수하였다.[151]

전방의 분견대는 적이 진전으로 진입하자 포병사격을 유도하면서 사격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사격전이 전개되는 동안 모든 유개호가 파괴되고 적이 진내로 돌입하자 분견대는 결국 104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때 연대에서 요청한 F-51 전폭기 편대가 두매리와 무명고지 일대의 적을 강타하고 포병의 집중사격이 진전에 집중되면서 적의 공세는 일단 약화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적은 12시 20분부터 다시 전차포의 지원을 받으며 104고지 좌우측 능선을 따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대는 지원포병의 사격지원을 받아 진전으로 몰려오는 적에게 저지사격을 가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중대는 달려드는 적을 맞아 수류탄과 백병전으로 혼신의 혈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적을 격퇴하고 104고지를 중심으로 야간경계에 돌입하였다.

한편 차기작전에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려는 적의 기도를 감지한 연대장은 다음날인 12월 29일 피탈된 전초고지를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52]

① 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전진진지를 탈환하려 한다. 제17포병대대가 연대를 직접 지원하고 공격개시 30분 전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할 것이다.
② 제2대대는 목표 A(△140), B(무명고지)를 탈취 확보하라.

③ 제1대대는 수색대로 하여금 서쪽에서 견제에 임하도록 하라.
④ 제15연대 제2대대장은 유격소대로 하여 동측에서 견제에 임하도록 하라.
⑤ 공격개시 일시는 12월 29일 06:00이다.
⑥ 연대 OP는 △131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제17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이 종료되자, 목표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제2대대는 제6중대와 제7중대를 공격일선에 각각 배치하여 무명고지와 두매리 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06시 30분 공격제대는 조금리의 공격개시선을 점령하고 약진을 시작하여 약 3시간 후 우일선의 제7중대는 두매리 고지 100m 전방까지 진출하여 적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주요 지형에 화력거점을 형성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전하던 중대는 마침 선봉에 나선 제2소대가 사각지대로 진입하여 목표 50m까지 근접하여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중대 주력이 적의 동쪽 진지를 향해 돌진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진내에 돌입함으로써 마침내 10시 10분에 목표고지인 140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153]

이후 중대는 수차례 반복된 적의 역습을 받아 그때마다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14시 30분경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공격을 가해와 진내에서 백병전이 펼쳐졌고, 탄약이 소진되고 누적된 피로로 인해 전력이 급격히 약화된 중대는 부득이 철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06시 30분에 무명고지를 향해 돌진한 제6중대는 가파른 지형을 고려하여 우회공격을 기도하고 있었다. 중대는 먼저 고지 일대에 포병사격을 요청하여 포격을 집중한 후 주력이 즉시 돌격선까지 진출하여 소대규모의 적과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목표 우측으로 우회한 제3소대가 적의 좌측 뒤편을 기습하는 동시에 중대 주력은 정면에서 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고지를 탈환하였다.[154]

그러나 현 진출선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한 중대는 11시경 사정을 연신한 적이 포격을 가하는 동안 철모고지 방향에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대덕산 동쪽과 하리 남쪽에서 적의 공격에 직면하였다. 이에 중대는 전 화력을 이용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진내전을 펼친 끝에 고지 하단으로 철수하여 병력을 수습하였다.

한편 양개 중대의 역습상황을 살피고 있던 연대장은 당면의 적세로 목표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열의 재편을 도모한 후에 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중대에 104고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 우측에 제7중대를 배치하였다. 제5중대는 주진지로 복귀시켜 재공격을 준비하게 하였다.[155]

다음날인 12월 30일 대대장은 제5중대를 다시 일선에 기용하여 제17포병대대의 화력지원 아래 07시에 두매리 고지에 대한 역습을 재개하였다. 중대의 선봉은 13시경 적진 30m 전방까지 도달하였으나,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공격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14시를 기해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돌격을 전개한 중대는 마침내 적진에 돌입하여 수류탄과 자동화기로 적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고지를 점령한 즉시 대대에 증원을 요청하고 진지 재편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적은 중대가 증원을 받기도 전에 전차포 직사포탄 100여 발을 집중하면서 좌우 능선으로 역습을 재개하였다. 중대는 포병사격을 요청하면서 또다시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고전 끝에 철수를 결정하고 104고지 후사면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 고지는 이를 확보할 경우 적진 후방 깊숙이 감제와 관측이 가능하여 구화리(九化里)-개성 간의 주 보급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지대내 적의 감제고지인 대덕산 동측과 후방에 대한 고립이 가능하고, 차후 공격의 전진 발판으로 사단의 주진지 전방에 대한 적의 수색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156] 이를 인식한 사단장은 고지 탈환을 위한 작전명령을 다음과 같이 예하에 하달하였다.[157]

① 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전방 요점을 탈취하려 한다.
② 제12연대는 목표 A, B를 공격하여 이를 확보하라.
③ 제15연대는 현 진지에서 공격태세로서 별도의 명령을 기다려라.
④ 전항 양 연대를 제외한 각 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공격개시 일시는 1952년 1월 3일 10시이다.
⑥ 사단 전방지휘소는 △181에 위치한다.

상기 지시에 따라 연대장은 상황을 분석한 후 제2대대를 대신하여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한 작전지시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158]

① 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두매리 고지와 무명고지를 공격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목표 A, B를 공격하여 이를 탈취하라.
③ 유격중대는 우측방에서 제3대대에 대한 적을 견제하라.
④ 수색중대는 좌측에서 공격부대를 엄호하라.
⑤ 공격개시 시간은 10시이다.
⑥ 연대 OP는 △181에 위치한다.

1952년 1월 3일 08시를 기해 105㎜ 야포 18문과 155㎜ 야포 6문, 4.2인치 박격포 8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두매리 고지 일대를 집중 사격하였고, 이어 전폭기 4대가 측방 엄호폭격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3대대는 적진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전방제대인 제10중대와 제11중대에 전차소대를 각각 배속하여 전력을 강화한 다음 좌우 능선으로 나뉘어 분진하였다.[159]

좌전방인 제10중대는 목표 B인 무명고지를 향해 약진 공격하여 7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적전 30m까지 육박하였다. 하지만 고지정상에서 수류탄 공격과 기관총사격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적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격은 불가능하고 사상자만 속출하였다. 이때 제1소대의 김학명(金學明) 중사 외 5명의 특공대원이 적의 화기진지를 격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중대 주력이 일제 돌격을 실시하여 적 47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달성하면서 마침내 13시 10분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대 역시 계속되는 적의 역습을 받고 제17포병대대의 지원사격 하에 몇 차례 격퇴하였으나, 적 2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받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일선의 제11중대는 전차포로써 적의 진지를 제압한 다음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고지 곳곳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맞서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전하고 있었다. 이때 동쪽의 경사면으로 우회한 제3소대가 적진으로 돌입하였고, 동시에 중대 주력이 돌격하여 적진을 유린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곧바로 적의 역습을 받기 시작하여 진내에서 백병전까지 펼치면서 적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14시에 진지를 이탈하여 병력을 수습하였다.[160]

한편 사단장으로부터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15연대장은 고지 탈환작전이 부진한 원인과 격전의 추이를 검토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161]

① 연대는 목표 “A”와 “B”를 탈취한 다음 목표 “C”(속칭 중군고개)를 점령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목표 “B”(무명고지)를 탈취한 다음 의명 목표 “C”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두매리 고지의 동측배를 급습하여 목표 “A”를 탈취한 다음 공격을 계속하여 목표 “C”를 확보하라.
④ 제2대대는 전(前) 임무를 계속하라.
⑤ 공격개시 일시는 1월 5일 05시이다.
⑥ 공격간 연대지휘소는 △130에 위치한다.

명령을 받은 각 대대는 1월 4일 06시를 기해 이동을 실시하여 임진강을 건너 계획된 위치인 사내동(舍內洞)과 고랑포리 부근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다음날인 1월 5일 여명에 제15연대는 제1대대를 좌전방으로, 제3대대를 우전방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는 제11중대와 제9중대를 전방에 전개하여 목표 A를 집중 공격토록 하고 제10중대를 예비로 후속시켰다.

대대의 진격은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고지 중턱에 이르러 급경사와 함께 3면의 적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대대가 목표 고지 배후에 포격을 집중하도록 요청하여 적을 제압하는 동안 제11중대는 격전 끝에 89고지를 확보하고 배후에서 두매리 고지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반면 제9중대는 제2소대의 특공대가 돌격로를 개척하면서 적진으로 돌입하여 마침내 목표고지를 탈환하였다. 또한 제10중대는 신속히 무명고지로 방향을 전환하여 소대규모의 적을 격멸하고 122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148고지마저 탈취하였다.

한편 좌전방인 제1대대는 제2중대와 제3중대를 좌우로 병진공격하여 목표 B를 압박하였다. 양 중대는 고지 동사면의 돌출부로부터 적의 자동화기 사격을 받아 공격이 정체되었다. 그러나 제2중대가 포병의 지원사격 하에 공격을 재개하여 적진 20m 앞까지 육박한 다음 혈전을 전개하여 정오 무렵 마침내 무명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적은 13시 30분경 집중포격을 실시한 다음 2개 중대규모로 중군고개와 148고지에 대해 반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제17포병대대와 미 제1군단 포병대대의 집중포격에도 두매리 고지로 전력을 집중하였다. 제3대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89고지가 무너진데 이어 18시 40분에 두매리 고지

마저 상실하였다.[162]

다음날인 1월 6일 연대장은 제1대대에 두매리고지의 탈환을 명령함으로써 치열한 격전이 반복되었다. 05시에 공격개시선을 넘은 대대 주력은 3시간 후 고지 중턱까지 진출해 적과 격전을 벌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혈전만을 교환하였다.

제15연대장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탈환전에서 적이 많은 타격을 입었음에도 완강히 저항하는 것은 역습부대의 대량투입과 화력의 증강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포병 화력을 강화하면서 제3대대에 탈환명령을 하달하였다.[163]

제3대대는 진지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두매리 고지 200~300m 전방까지 진출한 후 05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30분이 지날 무렵 이들은 고지 중턱까지 도달했으나, 이때부터 적의 박격포 탄막이 진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격전이 지속되어 날이 밝아오고, 따라서 공격제대의 측방이 노출되어 적의 집중공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대는 대덕산과 두매리 고지의 적 화력을 포병의 집중사격으로 제압한 후 09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0중대는 전차포의 지원하에 적 진전으로 진입하였고, 특공대가 적의 화기진지를 제압한 후 일제돌격을 감행하여 11시에 마침내 두매리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적은 2개 중대규모로 역습을 개시하는 한편 3개 중대병력이 이들을 후속하였다. 대대는 1시간 동안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상황을 주시하던 사단장은 적에게 많은 출혈을 강요하였음에도 고지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두매리 고지 서남쪽 무명고지로부터의 측방사격 때문이라 판단하고 먼저 이를 탈취하도록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164]

① 제12연대는 1개 대대로 목표 “B”를 탈취하라.
② 제15연대는 현 진출선에서적을 견제하라.
③ 제17포병대대는 대덕산과 두매리 고지 일대를 연막으로 차단하라.

이와 같이 제12연대 제3대대는 무명고지 공격에 대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대는 특공대를 양측으로 투입하여 적을 교란하면서 일제돌격을 감행한 끝

에 16시 20분에 목표인 무명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30분 후 대대는 적의 역습을 받고 사단 가용포의 집중포격과 진내전으로 이를 저지하였으나, 역부족으로 17시 30분에 고지 남쪽 100m 지점의 무명고지로 철수하였다.[165]

사단장은 적이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역습을 가해오자 다시 제15연대 제3대대와 제12연대 제3대대를 투입하여 일거에 무명고지와 두매리 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전황은 이전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고지를 탈환하면 곧 이은 적의 역습으로 다시 고지를 빼앗기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다) 전투 결과

사단은 미 제1군단의 명령에 의해 1952년 1월 8일 전투를 종료하는 한편 예하의 제15연대를 임진강 남안의 원진지로 복귀시키고, 제12연대에는 104고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진진지에 견고한 축성공사와 함께 위력수색을 지시하였다. 반면에 적은 대덕산을 중심으로 주진지를 계속 보강하면서 두매리 고지 전면에 지뢰지대를 설치하였다. 한편 전투기간 중 사단의 종합 전과와 손실은 다음의 <표 6-37>과 같다.[166]

<표 6-37> 전과 및 손실

구 분	전과					손실		
	사살	포로	노획			전사	부상	실종
			소총	기관총	60㎜ 박격포			
제12연대	757	4	4	1	1	67	243	
제15연대	854		2			62	342	2
계	1,611	4	6	1	1	129	585	2

3) 전투 결과

하계 및 추계공세 당시 일련의 제한작전으로 보다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고 전

선을 정제한 유엔군은 휴전회담의 재개로 인한 유엔과 미국의 전선확대 금지방침에 따라 공세작전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작전의 주도권을 포기한 유엔군은 진지를 강화하고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방어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은 유엔군의 공세가 중단됨과 동시에 휴전회담을 지연시키며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지 강화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전선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진하면서 정찰전과 전초진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작전기간 중 제2차 월비산전투와 949고지전투는 전선정리를 위해, 281고지전투와 1090고지전투, 두매리 부근 전투는 전초진지 쟁탈을 위한 공방전이었다.

2. 공비토벌작전

1) 작전 개요

1951년 말 아군의 후방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비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 이후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패잔병이 호남과 영남지역의 지방공비들과 합류함으로써 점차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 시설을 위협하였다.

이들 공비들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실시한 국군 3개 사단(제11사단, 제8사단, 제2사단)의 토벌작전으로 대부분 격멸되었으나, 산악지대로 분산 도주한 일부 공비들은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167]

육군본부는 호남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의 수를 총 4,000명 정도로 판단하였다. 이들 중 핵심적이고 전열이 정비된 부대는 남부군 원래의 직속부대인 제81사단과 제92사단, 경남도당 사단인 제57사단, 그리고 전북도당 사단이었다. 이들은 여·순반란군 출신 중 생존해 있던 인원과 북한군 전투부대의 낙오병들로 구성되었다.[168]

공비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속리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약탈, 지서습격, 차량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와 같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들은 집단으로 소도시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촌락을 일정기간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며 양민을 납치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다 급기야는 철도파괴, 군용열차 습격, 무기와 보급품의 약탈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리산 부근의 운봉, 곡성, 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여러 가지 행동으로 양민들을 위협하는 한편 남원-구례-순천에 이르는 전라선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열차를 습격하여 무기와 보급품을 약탈하는 등 아군 후방지역을 극도로 교란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군사작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민심의 동요와 국민사기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다.[169]

<표 6-38> 백야전전투사령부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백야전전투사령관	중장	백선엽(白善燁)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기갑연대장	대령	이 용(李 龍)	
	제1대대장	소령	이붕직(李鵬稙)	
	제2대대장	소령	박익균(朴翊均)	
	제3대대장	대위	박명경(朴明景)	
	제1연대장	중령	박춘식(朴春植)	
	제1대대장	소령	윤종호(尹鐘浩)	
			함용익(咸鎔翼)	1951. 12. 10부

	제2대대장	소령	이종록(李鍾錄)	
	제3대대장	소령	박노웅(朴魯雄)	
			김승길(金承吉)	1951. 12. 10부
	제26연대장	대령	이동화(李東和)	
	제1대대장	소령	차문석(車文錫)	
	제2대대장	소령	박기순(朴基淳)	
	제3대대장	소령	우교붕(禹敎鵬)	
제8사단	제8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0연대장	대령	정 강(鄭 剛)	
	제1대대장	소령	차만석(車萬石)	
	제2대대장	소령	이기만(李基萬)	
	제3대대장	소령	임병근(林炳根)	
	제16연대장	대령	이존일(李存一)	
	제1대대장	소령	이정호(李定浩)	
	제2대대장	소령	한병갑(韓丙甲)	
	제3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全富一)	
	제1대대장	소령	김광철(金光哲)	
	제2대대장	소령	김동회(金同會)	
	제3대대장	소령	박창모(朴彰模)	

2) 작전 경과

육군본부는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호남지역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섬멸할 목적으로 2개 사단으로 공비토벌을 위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판단에서 유엔군측과 한국정부 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결정되었다.

첫째, 전선에서의 쌍방의 대진으로 인해 동계기간 아군의 공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전황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전선에 투입된 병력 중에서 2개 사단 규모는 차출이 가능하다. 둘째, 산속에 거점을 둔 공비토벌에 가장 유리한 시기는 낙엽기이다. 셋째, 국군의 재편성과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훈련을 겸하여 후방지역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1년 11월 25일 백야전전투사령부(이하 백야사)를 설치하게 되었고, 사령관에 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 소장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수도사단과 제8사단,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및 경찰부대가 배속되었다.[170] 백야사는 전주로 이동하여 11월 26일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로부터 서남지구 공비토벌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서남지구전투사령부와 배속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171]

육군본부는 백야사의 설치에 따라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속초와 춘천에서 호남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172] 이에 따라 백야사는 양개 사단의 6개 연대를 기동타격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와 예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173]

1. 백야전전투사령부
   가.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다음 4개 단계로 구분하여 작전을 수행하라.
      (1) 제1기 작전 : 공비들의 강력한 거점인 지리산지구에 전 부대로 공격을 감행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10일로 예정한다.
      (2) 제2기 작전 : 2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일부 부대는 전북지역의 강력한 공비거점에, 다른 일부 부대는 경남지역 내 공비거점에 각각 투입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30일로 예정한다.

(3) 제3기 작전 : 제1, 제2기 작전지역에 대한 재수색으로 잔적을 격멸하라. 작전의 완료일정은 1월 10일로 예정한다.

(4) 제4기 작전 : 일부 부대로 하여금 공비가 침투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비를 격멸하도록 조치하라.

나. 각 부대는 항시 어떤 지역에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명 전방지역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2. 서남지구전투사령관은 현 담당지구의 작전지휘권을 백야전전투사령관에게 인계하고 그의 지휘 하에 들어가라.

3.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풍기-상주, 충주-상주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 내에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4. 치안국장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충주-대전-전주 선과 천안-강경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 내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5. 협조지시

가. 작전은 엄격한 통제 하에 기동타격부대와 저지부대 그리고 거점수비대로 구분 실시하되, 기동타격부대는 주력을 포착 격멸하는데 사용하고, 저지부대는 충분한 종심을 두고 배치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면서 기동타격부대를 지원하라.

나. 각 지구 공비의 거점이 괴멸되면 기동타격부대는 분산된 잔적을 격멸하기 위해 기동력을 활용, 타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준비를 하라.

다. 각 단계별 작전에 있어서 저지부대는 기동타격대를 신속히 후속하여 공비의 재편성을 방지하라.』

이상과 같은 육군본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백야사는 양개 사단의 6개 연대를 기동타격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와 예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12월 1일 서남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공비토벌작전을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마을 간의 전화교신을

차단하였다. 이어 12월 2일을 기해 백야사는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전면 개시하였다.[174] 이 작전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각 단계별 작전은 엄격한 통제 하에 기동타격부대와 저지부대 그리고 거점수비대로 구분 실시되었다. 기동타격부대는 공비의 주력을 포착 섬멸하고, 저지부대는 충분한 종심을 두고 배치하여 공비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면서 기동타격부대를 지원하는데 운용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의 토벌작전에서 생포된 공비들의 모습

(1) 제1기 작전(1951. 12. 2 ~ 12. 14)

제1기 작전에서 백야사는 수도사단을 지리산 남쪽에, 제8사단을 지리산 북쪽에 각각 배치하여 지리산 지역을 크게 포위한 다음 이들 부대를 기동타격부대로, 그 밖의 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비의 근거지를 일거에 분쇄하고 아울러 반복수색으로 그 잔당을 색출하였다.

수도사단은 공격 첫날부터 제8사단과 협조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예하 3개 연대는 구곡산, 내대리, 984고지, 형제봉, 송정리, 파도리를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 기갑연대는 공비의 은거지 색출에 주력하였으며, 제26연대는 묵계리(청암면)-운수리(화개면)로 진격하다가 등촌리에서 공비를 추격하였다. 제1연대는 불당마을 동쪽에서 조우한 공비 300여 명과 교전하여 격멸하였다.

이어 4일과 5일 통제선 일대에 대한 전면공격이 전개되었다. 기갑연대는 거림-세석, 법계사-1398고지로 진출하였고, 2일간의 전투에서 사살 34명, 생포 510명의 전과를 올렸다. 사단의 중앙에 배치된 제26연대는 산청 및 하동 간 군계와 도계를 따라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대성리로 진출하는 동안 공비 72명을 사살하고 79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수도사단은 2일부터 6일까지 제1기 전반기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7일부터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였다. 후반기 작전은 사단 담당지역 일대에 대한 반복 수색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14일까지 계속되었다.

제8사단은 공격 첫날 천마산-650고지-734고지-덕주산-삼봉산-380고지-왕산을 연하는 통제선을 점령하였다. 배속된 제110예비연대(-)와 제107연대(-)는 사단 기동타격부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다음날 사단은 통제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어 6일까지 최종 목표인 벽소령-1248고지-1134고지-1806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전반기 작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사단은 7일부터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여 분산 은거중인 공비를 탐색하기 위해 공격 역순으로 진출하면서 반복 수색을 계속하였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배속된 제203경찰연대(-)를 순천으로부터 화개장으로 진출시켜 저지진지를 점령토록 하고, 잔여부대로 예상되는 공비의 준동에 대비하여 주요 지역을 경비하고, 다른 한편으로 토벌부대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지상방송과 공중방송 등을 실시하였다.

제1기 작전기간 중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종합 전과는 공비사살 1,715명, 생포 1,710명, 귀순 132명, 소총 509정, 자동화기 86정, 수류탄 676발, 백미 769석, 벼 416가마에 달했으며, 잔여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형과 은거지를 버리고 토벌부대를 피해 분산 잠적하였다.[175]

(2) 제2기 작전(1951. 12. 16 ~ 1952. 1. 4)

제2기 작전에서는 분산된 공비를 근거지별로 각개격파하기로 결정하고, 거점을 포위 공격하는 전반기 작전(1951. 12. 19~28)과 공비의 잔당을 수색 격멸하는 후반기 작전(1951. 12. 30~1952. 1. 5)의 2개 단계로 구분하고, 수도사단과 제8사단 그리고 서남지구전투사령부로 하여 지역별로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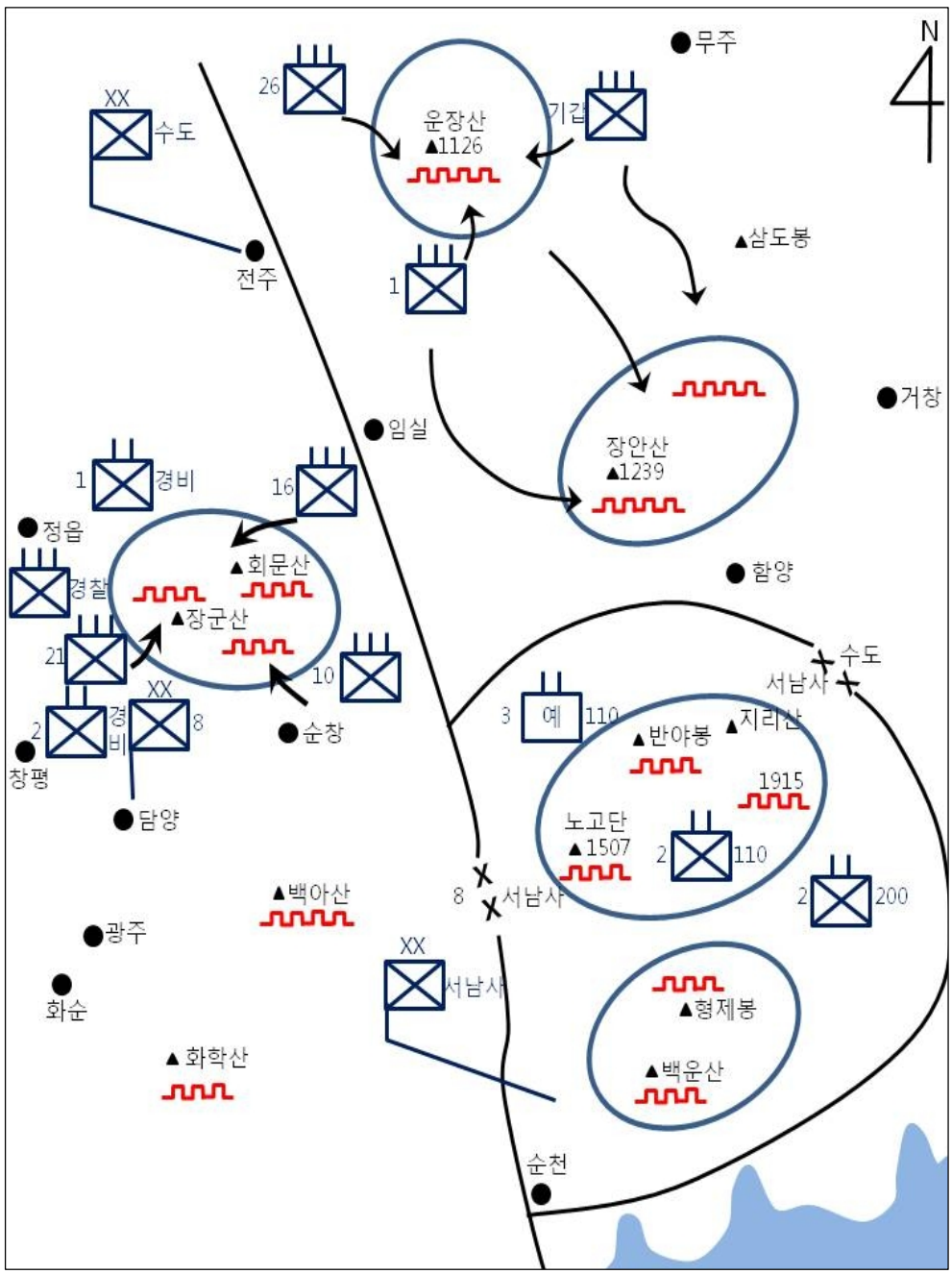
제2기 작전은 전주를 주 목표로 설정하고 그 주변의 산악으로 공격을 변경하였다. 12월 19일부터 1월 4일에 이르기까지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은 고지를 오르내리며 험한 지형 속에 숨어있는 게릴라를 함정에 넣도록 모색하였다.

수도사단은 12월 15일부로 현지 작전임무를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 인계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였으나 공비들이 이미 운장산 주봉쪽으로 잠적하였으므로 접전이 없는 가운데 62개의 근거지를 파괴하며 운장산 중턱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부터 일제공격을 재개하여 운장산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토벌부대는 도주하는 공비주력을 추격하여 격멸하였다. 일부의 공비가 다시 장안산 방면으로 도주하자 사단은 이 일대에 병력을 집중 투입하여 28일까지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다시 후반기 작전을 재개한 사단은 일부의 공비가 삼도봉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구축하려 하자 기갑연대를 무주에, 제1연대를 거창에, 그리고 제26연대를 함양에 각각 전개한 다음 3면에서 일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지역 내 주봉을 수색하면서 공비의 주력을 포착하는 즉시 일격을 가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도주하는 잔당을 추격하여 황석산에서 격멸하였다.

제8사단은 노령산맥 남서 회문산-장군봉-신선봉-내장산 일대에 은거중인 공비를 격멸하기 위해 전술배치를 완료하였다. 사단은 19일 06시 임실-순창 선에서 9개 대대가 각각 담당지역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 주력부대는 회문산 부근의 공비 은거지를 파괴하고 종성리, 금평, 자양리 선까지 진출하였다. 제10연대는 장군봉 일대와 산내면, 복흥면 일원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공비의 주요 거점인 신선봉, 내장산, 백양산을 집중 공격하였다.

<상황도 6-14> 공비토벌 제2기 작전



사단은 12월 30일부터 다시 후반기 작전을 재개하였다. 사단은 회문산 일대에 은거한 공비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제10연대를 회문산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2개 연대와 배속부대로 백아산을 전면 포위하였다. 지구별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된 각 부대는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1월 3일까지 5일 동안 수색작전을 계속하였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지리산 일대에 재집결을 기도하던 공비들을 격멸하고 아울러 이들의 주요 거점을 수색하였다. 서남지구사는 19일 제110예비연대 제3대대가 반야봉 동쪽 1585고지 일대에서 공비를 소탕하였으며,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가 거림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10예비연대 제2대대는 거림 부근에 출현한 200여 명의 공비와 4시간의 교전을 치른 끝에 이들을 완전 소탕하였다.

서남지구사는 28일부터 천왕봉에서 200여 명의 공비를 포착하여 수도사단 제26연대와 합동으로 이를 격멸하였으며, 후반기 작전에서도 지리산지구에서 저지부대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백야사는 작전이 개시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공비 약 4천명 이상을 사살하고 4천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77]

3) 작전 결과

1951년 11월 25일 전주에 사령부를 설치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12월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주축으로 3차에 걸쳐 서남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공비의 주력은 와해되었고, 체계적인 작전이 불가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총참모장은 서남지구의 병력을 축차로 철수시켜 일선에 투입한다는 미 제8군의 계획에 따라 제8사단에 부대이동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의 작전임무를 담당하게 된 수도사단은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및 경찰부대와 함께 제4차 작전에 착수하였고,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육본의 지시에 따라 서남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도사단에 인계하고 일선으로 이동하여 미 제9군단에 배속됨으로써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은 종료되었다.

이번 공비토벌작전은 후방지역이 공비들의 발호로 병참선이 마비되고, 치안부

재의 상태에서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공비들을 포위 격멸하는 기습작전이었다. 작전기간을 단축하고 겨울철을 선택함으로써 공비에겐 불리하고 토벌부대에겐 유리하였으며, 주민과의 신뢰를 토대로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사살보다는 생포 또는 귀순 위주의 작전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심리전을 강화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은 작전의 기간 및 시기, 민군간의 협조체계, 효율적인 심리전 운용, 지휘관의 용맹성과 리더십 등 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병참선 확보와 후방지역의 치안확립 등을 가져온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미 제8군은 1951년 9월말까지 하계제한공격작전을 종결짓고 10월부터 서부 및 중부전선의 부대로 제한공격작전을 전개하여 연천-철원-김화 간 병참선을 확보할 2개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계획은 적에게 노출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철원-김화 간 철도를 사용가능하도록 이 지역의 전선을 와이오밍선보다 15㎞ 추진함과 아울러 이곳에 설치된 적의 저항선 전투전초선을 파괴한다는 개념의 '소타격작전계획(Plan Cudgel)'이었다. 이 작전은 미 제9군단이 주공을 담당하되, 좌우 인접의 양개 군단도 조공으로 적의 예비가 주공 정면에 투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계획은 중부전선의 병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타격작전으로 확보된 철도를 이용하여 평강-금성-고저 선을 확보하는 '대타격작전계획(Plan Wrangler)'이었다. 이 작전은 동해안의 고저에 사단급 규모 이상의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이 동북방으로 진격하여 연결을 이루어 지대 내의 적을 차단·포위·섬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미 제9군단이 북동쪽으로 금성-고저 도로에서 상륙부대와 연결을 시도할 경우 군단에 가해질 예상되는 위험과 적이 작전을 억제하기 위해 서부전선에 가할 공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취소되었다.

미 제8군은 하계제한공세작전을 종료하면서 추계공세작전을 준비하였는데, 주안점은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종심 깊은 탐색작전으로 적의 전력증강을 억제하며, 잘 훈련된 유엔군이 '교착된 전장'으로 인해 침체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작전의 포커스를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중부전선의 미 제9

군단의 방어선 개선에 맞추었다.

미 제1군단의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은 군단의 전선을 대체로 역곡천 남안까지 10㎞ 추진하여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연천-철원 간 철로 및 병참선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 제9군단도 제8군의 방침에 부응하고 방어선을 개선함은 물론 철원-김화 철로 및 도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한편 미 제1군단의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할 목적 아래 제한목표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적의 주요 작전기지인 금성을 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작전을 개시하여 제1단계로 노매드선(Nomad Line)을 확보하고 제2단계로 폴라선(Polar Line)을 점령한 후 종료되었다.

추계공세는 유엔군이 전장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방어선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적의 부대 운용에 균형을 파괴하며 공세역량의 증강을 억제하는 한편 유엔군의 부대 전선을 예리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작전의 주요 특징과 요약

1) 연천-철원 간 병참선의 확보

미 제10군단이 하계제한공세작전을 통해 방어선 개선을 도모하는 동안 미 제1군단은 서부전선에서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이라 명명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한강 하구-문산-연천-철원에 이르는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약 10㎞ 정도 추진해 새로운 방어선인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코만도작전은 ①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추진해 현재 점령중인 와이오밍선의 방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② 연천-철원 계곡의 병참선을 적의 포병사격이나 관측으로부터 방호하고 서울-철원,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개통시켜 다가오는 겨울 차량에 의존해야 하는 보급제한을 해소하며, ③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아군이 정체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적 이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2) 철의 삼각지에 대한 확고한 통제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미 제8군의 하계제한공세전략에 따라 군단의 방어선을 개선하는 한편 적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금성진격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와이오밍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있던 군단이 중부지역 도로의 분기점이자 교통의 요지인 금성을 탈취하여 병참선 상의 요충을 확보하는 한편 오성산에 대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철의 삼각지를 통제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제8군의 방침에 따라 단계별 제한공격작전을 추진한 군단은 우선 현 전선을 일단 5㎞ 정도 밀어 올려 금성천을 확보하기 위해 제1단계 목표선을 하소리-풍동리-죽동-여문리-금성천 하구를 잇는 노매드선(Nomad Line)으로 설정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군단은 제1단계선인 노매드선을 확보한 후 전초저항선인 폴라선(Polar Line) 공략에 나서 상당한 희생을 치른 후 목표선을 확보하였다.

3) 공비토벌과 후방 병참선 확보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수행한 공비토벌작전은 후방지역이 공비들의 발호로 병참선이 마비되고,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공비들을 포위 격멸하는 기습작전이었다. 작전기간을 단축하고 겨울철을 선택함으로써 공비에겐 불리하고 토벌부대에겐 유리하였으며, 주민과의 신뢰를 토대로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사살보다는 생포 또는 귀순 위주의 작전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심리전을 강화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은 작전의 기간 및 시기, 민군간의 협조체계, 효율적인 심리전 운용, 지휘관의 용맹성과 리더십 등 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병참선 확보와 후방지역의 치안확립 등을 가져온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집필 : 손규석)

주(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백마고지전투』, 1984, 20쪽.

2) 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강원도』(서울: 평화당, 1988), 174-175쪽.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61쪽.

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서울: 세경사, 1991), 186-187쪽.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67쪽.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67-168쪽.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70-171쪽.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2010, 157, 235쪽

9)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조중연합사령부에 이양한 김일성은 정전시까지 자신의 군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는 명목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책, 235쪽.

10)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70쪽.

11) 최고사령부는 9국 1부, 총참모부는 5부 8국으로 운용되었다. 편제를 보면, 최고사령부는 총정치국, 인사국, 군사교육기관국, 전투준비태세국, 재정국, 군사연락국, 군검사총국, 군사재판총국, 방첩국과 포병장비주문통제부이고, 총참모부는 작전부, 정찰부, 통신부, 조직동원 및 충원부, 전쟁경험연구부와 암호국, 지형국, 기밀국, 재정국, 정치국, 유격대활동지도국, 대공방위국, 군사출판국, 그리고 위수사령부와 위생부대 등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2001, 210-215쪽.

12)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조중연합사령부에 이양한 김일성은 정전시까지 자신의 군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는 명목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책, 235쪽.

13)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46-14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73쪽.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63-64쪽.

15)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46-149쪽;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2001, 252-255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39-141쪽.

16)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1951. 7.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2005, 572쪽;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121-134, 175-177쪽.

17) 이들 전투사단 및 여단 중 51개 사단은 중공군, 23개 사단과 4개 여단은 북한군이었다.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41쪽.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171쪽;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 2001, 73-74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39-140쪽.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171-172쪽; 러시아 國防部 編·金鍾國 譯, 『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 2002), 150-151쪽.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3], 2001, 266-267쪽.

2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108쪽.

22) GHQ, EUSAK, 「Command Report」 Oct., 1951, pp. 9-30.

2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202쪽.

24)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p. 24-26.

25) 육군작전교육국, 「정기작전보고 제169호」(4283. 7. 1);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 5;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p. 1-2.

26)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 5;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p. 2-3.

27)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p. 5-6;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p. 3-4.

28) HQS, XCorps, Command Report, 1 June to 30 July 1951, pp. 5-8(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D 01541).

29)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 6;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p. 4-5.

30)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p. 5.

31)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pp. 9-11.

3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5쪽.

3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6) : 정기정보보고 제276호(1951. 10. 3)』, 975쪽.

34)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302-304쪽.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 1990, 11-18쪽.

36) 수도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46호」(1951. 10. 9).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 1990, 305쪽.

3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정기작전보고, 제272호(1951. 10. 12)』(26), 1987, 270쪽.

39)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306-307쪽.

4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정기작전보고, 제273호(1951. 10. 13)』(26), 1987, 291쪽.

41)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310쪽.

42)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312쪽.

43)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312-313쪽.

4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정기작전보고, 제275호(1951. 10. 15)』(26), 1987, 339쪽.

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정기작전보고, 제276호(1951. 10. 16)』(26), 1987, 363쪽.

46)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315쪽.

4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17쪽.

48) 보병 제3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3호」(1951. 10. 24, 18시).

49)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18쪽.

50) 김진하(金珍河) 소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는 남쪽의 벼랑을 타고 적의 거점을 우회하여 고지 50m까지 접근하였으나, 적에게 노출되어 집중적인 기관총사격을 받게 되자 선두에서 수류탄으로 적의 기관총을 파괴하고 적진에 돌입하는 용맹을 보여주었다. 고지탈취에 크게 공헌한 김진하 소위는 이후 미 은성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23쪽.

51) 보병 제3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4호」(1951. 10. 27).

5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24쪽.

53) 보병 제3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5호」(1951. 10. 31, 21시).

5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30쪽.

5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21쪽.

5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46-47쪽.

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29-30쪽.

58)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240호」(1951. 10. 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34쪽에서 재인용.

59)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37호」(1951. 10. 3, 20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122-129쪽.

60) 보병 제8사단 제10연대본부, 「작전명령 제35호」(1951. 10. 5, 07시).

61)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38호」(1951. 10. 10, 08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139-142쪽.

62) 보병 제8사단 제16연대본부, 「작전명령 제28호」(1951. 10. 11).

63) 보병 제8사단 제21연대본부, 「작전명령 제19호」(1951. 10. 11).

64)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39호」(1951. 10. 12, 21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149-157쪽. 전날의 군단 작전지시에 의거 우인접 미 제2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변경으로 지경선 △1005-△1090이 △1005-△1220으로 이전되었다.

65) 보병 제8사단 제10연대본부, 「작전명령 제36호」(1951. 10. 12, 20시).

66) 보병 제8사단 제16연대본부, 「작전명령 제29호」(1951. 10. 13, 01시).

67) 목표 E(△730)는 동쪽으로 회창-육덕곡-대곡간의 계곡 일대를, 남쪽으로는 서역곡 일대를 감제하기 때문에 977고지 및 1054고지를 향한 연대의 공격전진의 장애물과 같았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52쪽.

68) 보병 제8사단 제16연대본부, 「작전명령 제20호」(1951. 10. 12, 13시).

6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70-72쪽.

7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75-76쪽.

7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77-78쪽.

72)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246호」(1951. 10. 16, 22시),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361쪽에서 재인용.

73)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50호」(1951. 10. 15, 12시).

7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84-85쪽.

7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93-94쪽.

7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87-88쪽.

7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79-80쪽.

7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89-91쪽.

7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56), 1987, 102-105쪽.

80) GHQ, EUSAK, Command. Report., Oct. 1951, p. 33..

81) GHQ, EUSAK, Command. Report., Oct. 1951, p. 7.

82) 『항미원조전사』, p. 189.

83) 위의 책, p. 189.

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181쪽.

85) GHQ, EUSAK, Command Report, Oct. 1951, pp. 44-45.

86) 『항미원조전사』, p. 191.

87) 위의 책, p. 193.

88) 위의 책, pp. 192-193.

89) 미 제9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0호」(1951. 10. 10, 15시),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437족에서 재인용.

9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410쪽.

91) 송기덕 증언, 1993. 8. 20. 국방군사연구소.

92) 『항미원조전사』, 195쪽.

93)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154호」(1951. 11. 14).

9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86-487쪽.

9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82-483쪽.

9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

(59), 1987, 484쪽.

9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80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 1990, 15-16쪽.

98) 보병 제11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81호」(1951. 11. 15).

9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91-492쪽.

10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89-490쪽.

101)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1974, 483쪽.

10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93-494쪽.

10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96쪽.

10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97쪽.

10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498쪽.

10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503쪽.

10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4), 1987, 442쪽.

10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495쪽에서 재인용.

109) 보병 제6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70호」(1951. 11.).

11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499-500쪽.

11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4), 1987, 694-695쪽.

11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4), 1987, 695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03쪽.

11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4), 1987, 443쪽.

11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08쪽.

115)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11쪽.

11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4), 1987, 695쪽.

117) 보병 제6사단 제7연대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1. 11. 17, 21시).

11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14쪽.

11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4), 1987, 453, 699쪽;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16쪽.

12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19쪽.

12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

대)』(59), 1987, 14-15쪽.

122)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518쪽.

12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10-11쪽.

12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17쪽.

125)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521쪽.

12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17-18쪽.

12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18쪽.

12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20쪽.

129)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525쪽.

130)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526쪽.

13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 제2연대, 수색대대, 통신가설소대, 제9사단, 제28연대)』(58), 1987, 800쪽.

13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 제2연대, 수색대대, 통신가설소대, 제9사단, 제28연대)』(58), 1987, 799쪽.

13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 제2연대, 수색대대, 통신가설소대, 제9사단, 제28연대)』(58), 1987, 804쪽.

134) 보병 제9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79호」(1951. 11. 5).

135) 국방부, 『한국전쟁』 제7권(대진초기), 1974, 531쪽.

136)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6-37쪽.

137)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6쪽.

13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 제2연대, 수색대대, 통신가설소대, 제9사단, 제28연대)』(58), 1987, 806쪽;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제11사단, 제9, 13, 20연대)』(59), 1987, 39쪽.

13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353쪽.

140) 보병 제8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98호」(1951. 12);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61-562쪽에서 재인용.

14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353-354쪽.

14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66쪽.

14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66-567쪽.

14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355쪽.

1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7사단,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전차공격대대, 공병대대, 제8사단)』(55), 1987, 360-362쪽.

14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03쪽.

14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88쪽

148)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89쪽.

14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10쪽.

150)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89쪽에서 재인용.

15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239쪽.

152) 보병 제1사단 제15연대본부, 「작전지시 제72호」(1951. 12. 28, 22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11쪽.

15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92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 1997, 241쪽.

15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12-213쪽.

155) 보병 제1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73호」(1951. 12. 29, 21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13-214쪽.

15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95쪽.

157) 보병 제1사단사령부, 「작전지시 제128호」(1951. 12. 31, 13시).

158) 보병 제1사단 제12연대본부, 「작전지시 제75호」(1951. 12. 31, 18시);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17-218쪽.

15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18쪽.

16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19-220쪽.

16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598쪽.

16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20쪽.

163)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603쪽.

164)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권(대진초기), 1974, 605쪽에서 재인용.

16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21-222쪽.

16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사단 제12연대, 제15연대)』(45), 1986, 232, 259쪽.

1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83쪽.

1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84쪽.

1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143쪽.

170)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3호」(1951. 11. 25).

1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86쪽.

172) 육군본부, 「작전계획 제26호」(1951. 11. 16).

1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90쪽.

174)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132쪽.

1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92-200쪽;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132쪽.

1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200-208쪽.

177) 육본정보참모부, 『공비연혁』1971, 393-399쪽;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132쪽.



제 7 장 해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유엔해군 작전
제 3 절	한국해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개황

6·25전쟁 발발 후 1년간의 격전 끝에 전선이 대체로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기 시작한 1951년 6월을 전후하여 휴전회담문제가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사이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쌍방이 전쟁을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성되었다.

유엔군이 '철의 삼각지대'인 평강-철원-김화를 재점령하는 등 전선에서 공산군의 세력이 약화되자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Jacob Malik)가 정전협상을 제기함에 따라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쌍방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유엔군은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공산군에게 휴전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은 휴전협상 기간을 이용하여 전력 증강을 도모하면서 군사력 과시를 통해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군사작전을 계속하였다.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된 지상군의 작전은 크게 하계, 추계 및 동계공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하계작전으로, 미 제10군단이 해안분지(펀치 볼, Punch bowl) 북동쪽 노전평으로부터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을 연하는 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실시했는데, 전투결과 공산군이 굴복함으로써 이 공세는 10월 25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추계공세는 1951년 10월 초순에 시작되어 10월 하순까지 실시된 군사작전으로 이 공세의 결과로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 공세를 통해 국군 제1군단은 북한 제6군단을 공격하여 남강 이남의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미 제10군단도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을 탈취하였으며, 미 제9

군단은 금성분지를 확보하였고, 미 제1군단 역시 코만도 작전을 전개하여 제임스타운(Jamestown)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후 유엔군은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공세작전은 자제하고, 전선을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당시의 접촉선에서 진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공산군은 되도록 휴전회담의 시기를 지연시키면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진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선에서는 피아가 팽팽하게 대치한 상태에서 수색정찰과 국지적인 진지 쟁탈전만이 전개되었다.

동계공세는 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11월 초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실시한 작전이다. 이 기간 중에 진행된 주요전투 중 먼저 월비산 전투와 949고지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이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한 전투였다. 그리고 281, 395고지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및 두메리 부근 전투는 모두 고지를 확보하려는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공산군과 유엔군이 교착된 전선에서 치열하게 진지 및 고지쟁탈전을 전개한 이 기간(1951년 7월 10일~12월 말) 중에 공산군에 비해 월등하게 우세한 전력을 보유한 유엔해군은 동서해안에 대한 강력한 해상봉쇄작전과 후방시설에 대한 함포지원 사격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유엔군의 작전 수행에 기여하였다. 반면 북한해군은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 하에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한 해안방어에 주력하였다.

2. 북한해군 작전

북한해군은 개전초기에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하여 766부대를 강릉과 삼척지역 해안에 상륙시키고, 무장수송선에 게릴라를 승선시켜 남해안에 침투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유엔해군이 전쟁에 참전하여 북한해군을 무력화시킨 이후부터 북한해군은 남한 후방지역에 게릴라를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는 등의 작전을 더 이상 전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북한해군은 유엔해군의 상륙작전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작전의 중점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해군부대를 재편하여 상륙기습임무를 담당했던 육전대(해병대)의 일부를 육군으로 전환하고, 상륙방어작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련으로부터 다수의 계류기뢰 및 해저기뢰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군사 고문관들이 북한해군에게 기뢰 부설방법을 교육하고, 성능을 개조한 선박들을 활용하여 주요 해안지역인 원산, 진남포 등지에 방어기뢰를 부설하였다.

또한 원산항 앞바다에서 활동 중인 유엔해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해안포병부대를 재편하고, 해안포를 다수 배치하는 등 강력한 해안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의 함정은 북한 해안포 사정거리 외곽에서 해상작전을 해야 했으며,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북한해군의 재편된 해안포병부대 운용실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동해안에는 제24독립포병기관총여단(6,896명), 제25독립포병기관총여단(6,009명)을 편성하여 운용하였고, 서해안에는 제23독립포병기관총여단(5,021명), 제26독립포병기관총여단(6,181명)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해안방어부대에 다수의 포병병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또한 해안 포병부대의 무장에 있어서도 무반동포, 82mm, 122mm포를 배치하는 등 병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해안방어를 강화하였다.

한편 라주바예프가 1951년 4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북한해군의 재편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북한해군은 해군 전투장비의 실제수량 및 단기간 내 무기(해안포대용) 입수 가능성, 조직 및 주요 간부의 유지 필요성, 관측임무와 조직, 기뢰부설 작업 실시 및 향후 간부훈련 등과 같은 각 분야별 임무를 고려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고, 전체 해군정원을 감축하여 운영하였다..[1)]

북한해군의 중요한 임무인 해안방어 작전과 관련된 부대 재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전대 6개 여단 중에서 육전대 2개 대대, 원산 해군 총기지 예하 육전대 1개 대대, 남포 해군기지 예하 육전대 제2대대는 해군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해안포병 2개 연대는 107mm포 독립포병 3개 대대와 76mm 포 독립포병 5개 대대로 재편되었다.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 중 북한해군의 교육훈련 및 전투태세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해군 본부와 해군기지의 각 참모부는 새로운 편제에 따라 인원이 충원되었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소련군 고문관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1951년 3월부터 해군 참모부와 해군기지에서 전투교육훈련이 실시되었는데, 훈련내용에 기초훈련 교육부터 실제 전투에 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즉 전투교범 연구, 습득 및 작성, 그리고 작전업무 조직, 해군교범 및 지침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해군 군사장비의 제원과 운용방법, 해군부대의 전쟁경험에 대한 교육을 강의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951년 4월 1일 당시, 북한해군의 전투장비 보유 및 운용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북한이 개전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해군함정 중에서 22척이 침몰되었고, 3척은 소련에서, 2척은 신의주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51년 3월 초에 도입된 계류기뢰 1,000개와 해저기뢰 100개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이중에서 계류기뢰 600개, 해저기뢰 25개가 부설되었다. 기뢰부설작전에는 스쿠너 선박, 단정 등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었으며,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인 서해에서는 AMD-1000형 해저기뢰만을 부설하였다.

이처럼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시 이후 12월말까지의 기간 중에 북한해군은 유엔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한 해안방어와 기뢰부설, 부대 재편성 및 간부양성 등의 제한된 임무만을 수행하였다.[2)]

3.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 작전

유엔해군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동해안 축선에서 작전 중인 미 제1해병사단에 대한 함포지원사격과 함께 휴전회담 테이블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협의 과정에서 한강하구 지역을 확보하려는 북한 측의 의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한강주변 시위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지상군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상륙양동작전, 동해안 지역 도서확보를 통해 정찰활동 및 조종사 구조활동을 실시했던 원산항 포위작전, 그리고 항공차단작전 일환의 나진 및 갑

산공습작전과 동서해안에서의 소해작전 등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의 작전활동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 축선에서 지상작전을 실시한 미 제1해병사단은 작전기간 중 미 해군에 적극적인 함포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이는 공산군이 동해안 축선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참호와 진지를 후사면에 구축하였는데, 이것을 미 해병이 보유한 전차와 야포로는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해군의 전함과 순양함이 보유한 16인치와 8인치 함포로는 진지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탄착수정요원과 나포된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미 해군의 함포지원사격 결과로 다수의 공산군의 진지가 파괴되었다. 특히 공산군은 미 전함에서 발사된 16인치 함포의 위력과 폭발에 의한 파공을 보고나서 사기가 극히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의 함포지원사격을 받은 미 제1해병사단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한강주변 시위작전은 군사분계선 설정협상에서 한강하구 지역을 확보하려는 북한 측의 의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당시에 임진강 서부의 해역과 서북도서지역은 유엔군의 통제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 7월 휴전회담을 시작하면서 공산군이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군이 한강주변 시위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강하구 지역은 수도서울로 가는 통로로써 공산군 측이 이 지역을 확보한다면 유엔군으로서는 한강에서 서해로 가는 수로가 막히게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수를 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이 작전을 실시하면서 중순양함 1척이 해주만 입구에서 북한 지역에 대해 사격을 했고, 특히 한강하구 작전 시에는 영연방 국가의 수심측량 지원 하에 미 해군함정이 예성강 입구까지 진입하여 사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강주변 시위작전은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계속되었고, 이 작전의 결과로 유엔군은 휴전회담에서 쟁점이 되었던 임진강 서쪽지역이 유엔군 측 점령 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었다.

1951년 7월 이후 지상에서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유엔해군은 북한 지상군의 전력분산을 강요하기 위해 상륙양동작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공산군은 상륙작전을 방어하기 위한 해안방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

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엔군의 상륙작전 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공산군은 해안에 기뢰를 부설하고, 해안포대를 강화하였으며, 참호 등의 진지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유엔해군은 동해안 원산인근 고저지역, 서해안 해주지역에 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제해권과 제공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지상군의 병력이 부족하고, 전선을 북한 후방까지 확장하지 않겠다는 유엔군 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상륙작전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륙양동작전으로 공산군은 해안선에 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원산항 포위작전은 원산항 앞바다에 있는 전략도서를 확보하여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고, 해군함정의 함포사격으로 적 육상의 군수품 집결지 파괴 및 보급로 차단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피격된 유엔군 항공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전이었다.

유엔해군은 이 작전을 통해 다수의 포, 차량, 소형선박, 교량, 터널, 철도 등 공산군의 장비 및 시설을 파괴하였고, 공산군으로 하여금 해안방어를 위하여 원산 인근에 79,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도록 강요하였다. 한편 유엔해군은 이 작전을 통해 LST가 헬기모함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함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해군 함포사격 시 항공기의 탄착수정을 통한 표적파괴 효과 제고 등 해·공합동작전 분야에서의 전술적 발전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6월부터 북한지역 도로망에 대한 집중적인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철도망은 계속된 유엔군의 항공폭격으로 다수 파괴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공습이 어려운 도로망은 보급지원 시설로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유엔해군은 북한지역의 중요한 군수품 집결지인 나진에 대한 공습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은 중국과 소련의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 그 동안 공습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의 강력한 공습요청과 소련국경을 넘지 말라는 것을 비롯한 몇 가지 제한사항을 붙여 미 합참이 공습을 허가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 작전 시에 해군전투기가 공군 B-29를 호송하여 폭격을 하였는데 6·25전쟁

기간 중에 해군 전투기가 공군 폭격기를 호송한 것은 나진 공습작전이 처음이었다. 이 작전의 결과로 나진의 군수품 집결지 약 75%가 파괴되었다.

유엔해군의 항공기들은 아군의 특수부대가 제공한 첩보에 따라 1951년 9월 29일 갑산에 대한 공습작전을 실시하여 공산당 간부 약 500명이 사망하였다. 아울러 유엔해군의 항공기와 함정들은 이 작전을 통해 2,379개의 교량과 4,519대의 차량과 7,028량의 철도를 파괴하고, 4,674 지점의 철로를 절단하였다.

한편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한국해군 세력으로만 수행된 단독작전도 수차례 실시하였다. 이는 송화(松禾)지구 전투, 신미도 전투 및 수송작전 등이었는데 개략적인 작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황해도 송화군에 있는 공산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활동 중인 초도 및 석도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공산군 부대를 무력화하고 교란작전을 실시한 것이 1951년 9월에 있었던 송화지구 전투이다. 백아도에 주둔하고 있던 수월부대 300명은 해군함정 YMS 4척 지원 하에, 9월 3일 송화군에 상륙기습작전을 실시하여 공산군과 교전을 벌였다. 이 교전으로 공산군 후방에 대한 교란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추후에도 산발적으로 첩보수집과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를 통해 거둔 전과는 적 사살 102명, 생포 1명과 함께 경기관총 1정과 소총 11정 노획 등이었으며, 아군 손실은 전사 2명, 부상 9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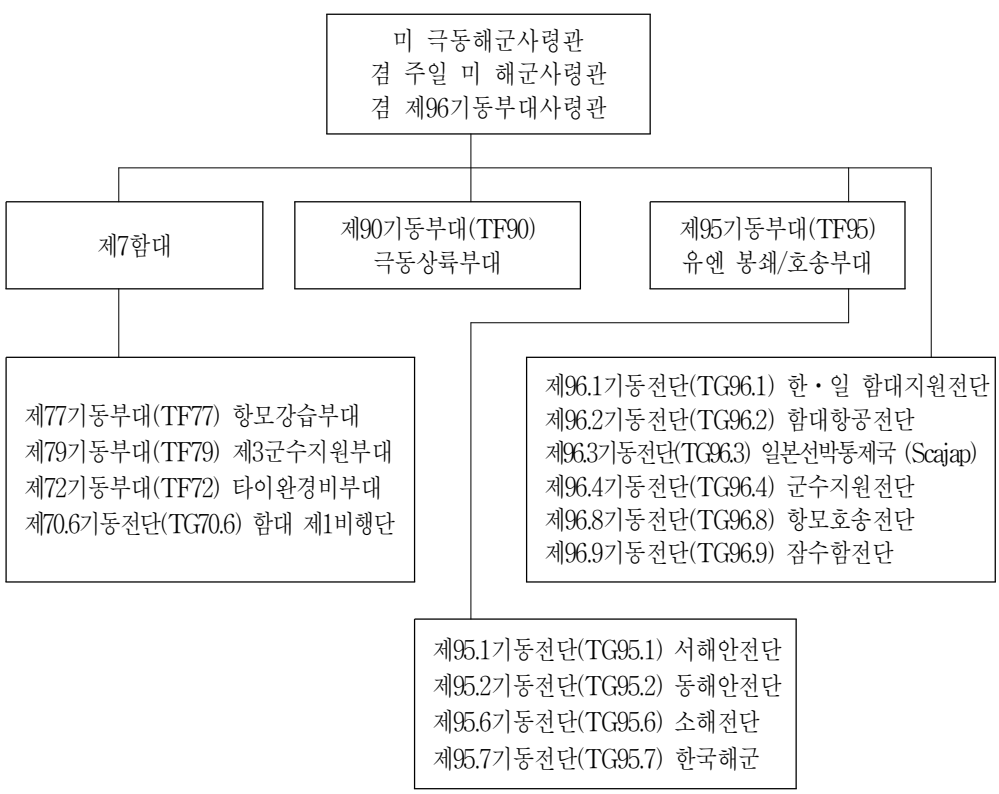
다음은 신미도 전투로 PF-62함은 압록강 하류 신미도에 추락한 적 MiG-15기의 상태를 조사하고 기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1951년 4월 11일 출동명령을 받았다. 이후 4월 16일 신미도 근해에서 탐색과 경비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던 PF-62함이 오전 7시 58분에 갑자기 적 YAK 전투기 4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에 PF-62함은 대공사격을 실시하여 적기 4대 중에 1대를 격추하고, 1대에 손상을 입혔다. 이때 PF-62함에 승함하고 있던 아군 중에서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상당수가 함정에서 실습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사 4기생들이었다.

참고로 6·25전쟁 기간 중 한국해군의 전력증강 및 지휘구조 재편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해군은 전쟁 초기 제1·2·3정대 및 훈련정대로 편성되어 동·서·남해의 해상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 해군은 서해안의 해

상봉쇄를 강화하고 해군본부에서 직접 작전지휘 및 지원업무를 장악하기 위하여 1950년 8월 16일 제1정대를 제1함대로 증편하였다. 이후 제1함대는 1950년 12월 15일에 제2정대, 1951년 1월 5일에 제3정대를 각각 예하부대로 추가 편입하였다. 그리고 한국해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작전과 종합적인 군수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52년 1월 5일에 제1함대를 개편하여 예하에 호송·서해·동해·남해·수송·소해전대 및 PT편대 등 7개 전·편대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이처럼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의 전쟁기간 중에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월등하게 우세한 전력을 활용하였다. 즉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 항공차단 및 공습, 특수부대 지원작전 등을 통해 유엔군의 성공적인 작전수행과 휴전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확보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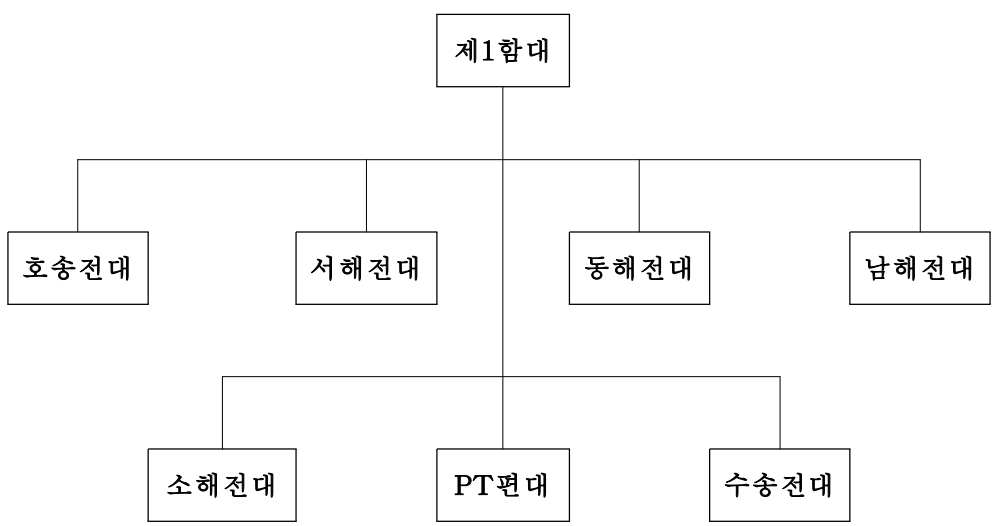
<표 7-1> 미 극동해군 지휘체계(1950. 9. 12~전쟁 종료 시까지)



<표 7-2>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한국해군	총참모장	해군 소장	손 원 일
	PF-61 함장	해군 대령	이 용 운
	PF-62 함장	해군 중령	신 종 섭
	PF-63 함장	해군 대령	최 효 용
	PF-65 함장	해군 중령	이 재 송
유엔해군	극동해군사령관	해군 중장	Robert P. Briscoe
	제7함대사령관	해군 중장	Herold W. Martin
	제77기동부대장	해군 소장	John. Perry
	제95기동부대장	해군 소장	George C. Dyer
	제1해병사단장	해병 소장	John T. Selden

<표 7-3> 한국해군 편성



제 2 절 유엔해군 작전

1. 미 제1해병사단을 위한 함포지원사격

미 제1해병사단은 1951년 10월부터 동해안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1군단의 좌전방 사단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51년 11월에 미 제1해병사단은 해상에서 측방지원을 할 수 있는 해군의 함포지원사격을 요청하였고, 유엔군사령관은 이 요청을 수락하여 해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한 함정들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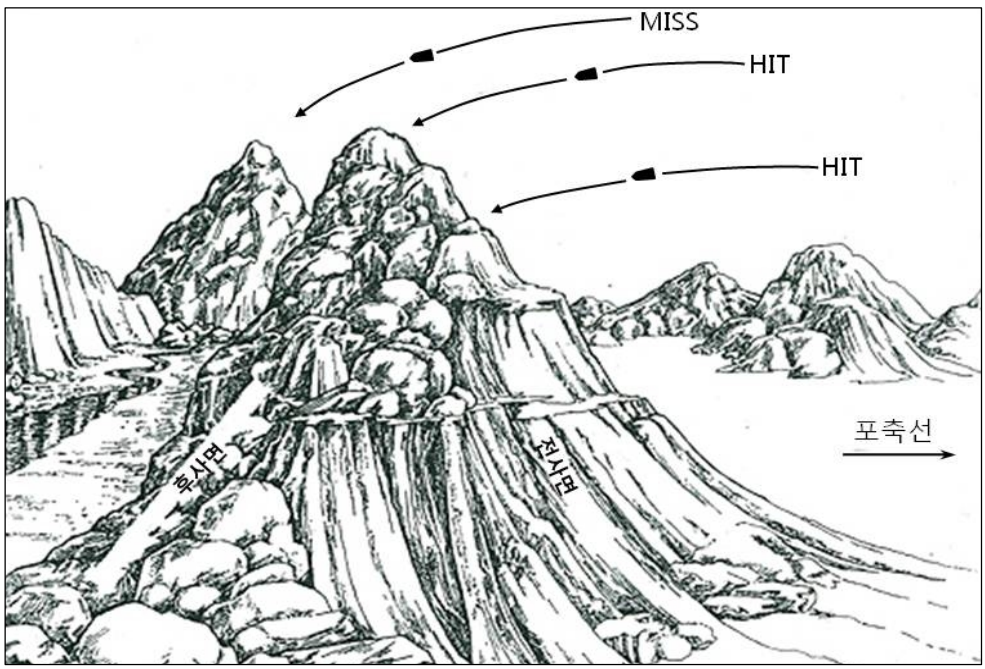
그 후 4개월간 해군, 해병 간 연락장교 회의에서 해병은 작전지역과 표적을 설명했으며, 함정의 포술장교는 가용한 탄약, 예상되는 재보급 시간 및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교환은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매우 유용하였다.

공산군들은 동해안 축선의 험준한 산악 후면에 참호를 파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미 제1해병사단이 보유한 전차와 야포로는 이를 무력화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해군이 가지고 있는 순양함과 전함의 함포사격은 이들 표적을 제압하는데 매우 위력적이었다.

그래서 미 제1해병사단장 셀든(John T. Selden) 소장은 제7함대사령관 마틴(Herold W. Martin) 중장에게 함포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마틴 제독은 TF-77과 TF-95의 순양함들에게 최대한의 함포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표적까지의 평균 사거리는 순양함의 경우 10마일이었고, 전함의 경우 16마일이었는데, 예상하기 어려운 바람의 방향과 산악지대 고지군의 후사면에 있는 소형 표적을 파괴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함포지원함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사격을 실시하기 위하여 탄착수정을 하면서 주로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1군단 정면에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1952년 4월 7일 사단장 셀든 소장은 7함대사령관 마틴 중장에게 사격지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상황도 7-1> 동해안에 대한 함포사격의 문제점



첫째, 전함 위스콘신[3](Wisconsin)함은 평균 사거리 약 16마일로 43회의 지원사격 임무를 실시하여 16인치 977발을 발사하였다. 이 사격으로 적군 70명이 전사하고, 359명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야포 3문을 파괴하고 7문을 파손시켰다. 또한 벙커 등 81개 진지를 파괴하고, 105개를 파괴시켰다.

둘째, 순양함 세인트 파울[4](Saint Paul)함과 로체스터[5](Rochester)함은 평균 사거리 11마일로 8인치 포탄 1,661발을 발사하였다. 이 사격으로 적군 239명이 전사하고, 47명이 부상당했으며, 적 야포 2문을 파괴하고 3문을 파손시켰다. 또한 벙커 등 진지를 116개 파괴하고, 127개를 파손시켰다.

셋째, 순양함 맨체스터[6](Manchester)함은 평균 사거리 11마일로 6인치 포탄 470발을 발사하였다. 이 사격으로 적군 163명이 전사하고, 47명이 부상했으며, 야포 1문이 파괴되고 8문이 파손되었다. 또한 벙커 등 진지를 28개 파괴하고, 28개를 파손시켰다.

함포사격의 표적 파괴력은 매우 높았고, 함포지원함들은 매 표적에 대하여 함포 15발 내지 23발을 사격하였는데 이는 평균탄약 소모로써 야포 포탄 50발 내지 60발을 사격해야만 얻을 수 있는 효과였다. 적의 사기에 미친 영향도 대단한 것이었다.

함포사격의 매우 높은 효과에 관한 보고들은 함포사격을 관측하는 탄약수정 요원뿐만 아니라 적의 포로로부터도 얻을 수 있었다. 한 포로는 전함 위스콘신함의 함포 포탄이 그의 사단 지휘소에 명중하여 지휘소 내의 인원 중 반 이상이 사상자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다른 포로는 유엔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생존한 후에 항복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자백하였다.

공산군 측은 특히 전함에 탑재된 16인치 함포의 크기와 폭발에 의한 파공을 보고나서 그 위력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으며, 해상으로부터 함포지원사격을 받은 제1해병사단은 지상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상황도 7-2> 함포사격지원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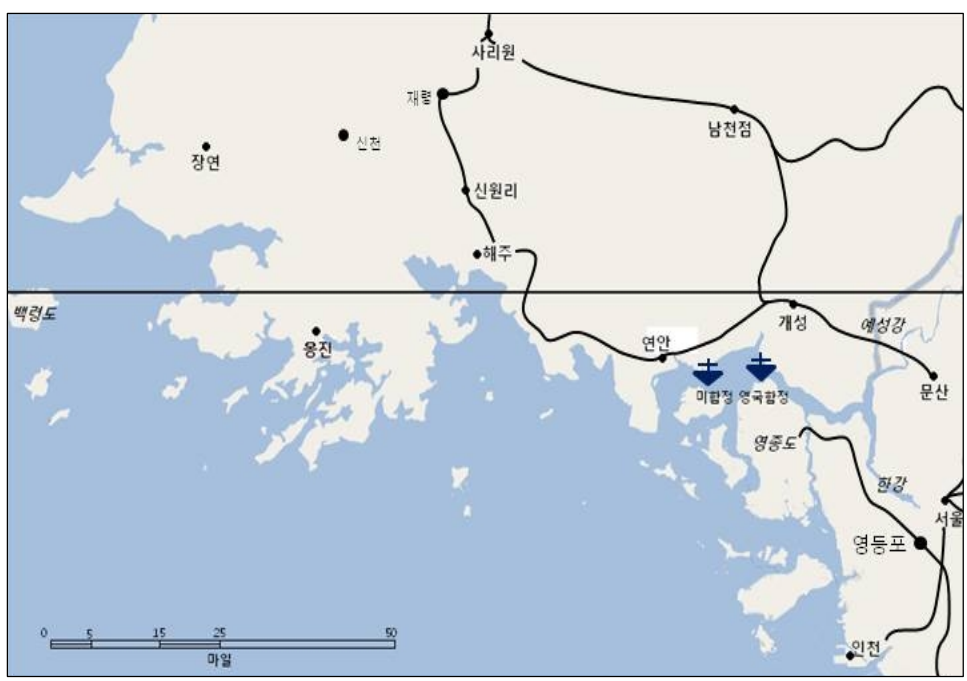


2. 한강주변 시위작전

1951년 7월 26일 개성에서는 공산군과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이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놓고 논쟁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해군에서는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상시위'라는 특수작전을 한강인근에서 시작하였다. 이 특수작전은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에서 38도선 이남과 임진강 서부의 200평방마일(옹진반도 포함)이 그들의 점령 하에 있고,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공산군 측이 관할권을 주장한 지역은 유엔 특수부대의 통제 하에 있었다. 또한 유엔군 측은 서울로 가는 해상 접근로를 공산군의 통제 하에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유엔군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공산군 측에게 보여주는 시위작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상황도 7-3> 한강주변 시위작전 구역



구체적인 한강주변 시위작전의 경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스엔젤레스[7](Los Angeles, CA-135, 대령 Robert. N. McFarlane)함은 7월 28일, 소해가 완료된 해주만의 수로에 진입하여 탄착수정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적 전방 진지들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하였다. 이 때 순양함 로스엔젤레스 함은 8인치 포탄 44발과 5인치 포탄 66발을 적 적방 진지에 발사하여 해당 진지를 무력화시켰다.[8] 기습을 당한 공산군은 유엔군의 대형함이 수심이 낮고, 기뢰가 부설된 해역에까지 들어와서 육상 표적에 대하여 포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한강시위작전의 책임자인 제95기동부대장 다이어(George C. Dyer) 소장[9]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한강에서의 시위작전은 매우 어려운 해군작전이었다. 한강은 수로가 협소한 중국의 양쯔강과 같았으며, 하구에서의 유속(流速)은 4~10노트 정도였고, 굴곡이 심하였다. 조석의 차이는 12피트에서 25피트나 되었다. 우리는 첫째 수로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야 하였다. 이 곳에서 수로측정은 영국해군의 프리게이트함의 유능하고 적극적인 항해사들에 의하여 실시되었다.[10] 이때 미 해군은 닻과 부표와 예인선을 지원하였다. 측량작업은 만조 전후에 작은 보트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속이 빨라서 저속으로 운항하는 보트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부표작업 설치절차는 먼저 소형보트로 수심을 측량하고, 소형 소해정으로 소해를 실시한 다음 예인선이 부표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프리게이트 함이 작전을 실시하였다. 함정들이 외해에서 교동도에 도착할 때까지 한강 상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일일 3마일 정도였다. 나는 영국 및 영 연방 해군들이 이 측량 작업에서 발휘한 그들의 용기와 불굴의 정신 및 고도의 조함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교동도 인근해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투묘지를 설정하였고, 적 진지에 대하여 사격을 개시하였다. 그 다음 측량작업은 서쪽과 동쪽으로 향하여 실시되었다. 단 하나의 항해가능한 수로는 교동도를 따라 북으로 이동하여 동쪽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우리가 교동도 북방에 진입했을 때 적이 예성강 하구에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황해도 연안에서 개성으로 가는 철도가 있었고, 예성강에는 선착장이 있었으며 많은 배들이 모여 있었다. 이 선착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포격하기 위해서는 프리게이트 함들이 예성강 하구까지 올라가야 하였다. 공산군은 야간에 논에 기관총과 박격포를 설치하였다가 아침에 프리게이트 함이 나타나면 사격하기 시작하였고, 프리게이트 함과 공산군과의 근접 사격전이 개시되었다."

1951년 7월말에 시작된 한강주변 시위작전은 11월 27일까지 계속되었고, 이 작전의 결과로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에서 쟁점이 되었던 임진강 서쪽의 38도 이남에 대한 관할권이 유엔군 측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3. 상륙양동 작전

1)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성 및 지휘관들의 인식

맥아더, 릿지웨이, 밴 플리트 및 클라크 장군 등 미국의 고위지휘관들은 상륙작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밴 플리트 장군과 제95기동부대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다이어 제독의 과거 근무경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밴 플리트 장군과 다이어 제독은 1947년 그리스 내란 시에 서로 알게 되었으며, 당시 밴 플리트 장군은 그리스 주재 미 군사사절단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다이어 제독은 제10 순양함전대사령관이었다. 다이어 제독은 1947년 그리스에서 밴 플리트 장군을 만났을 때 그리스가 반도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그리스의 지리적인 특성은 해군력을 바다로부터 투사하는데 매우 적합하고, 반대로 해안선은 상륙작전과 해군함포에 취약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다이어 제독은 그리스는 규모는 작으나 잘 훈련된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해군력을 반군세력에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4년 만인 1951년 6월, 다이어 제독은 한국 서울에 있는 밴 플리트 집무실에서 그를 다시 만나 한국의 지형과 작전상황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이들은 회의가 진행되면서 한국과 그리스가 유사한 지형인 반도형태의 국가이므로 적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이 갖는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릿지웨이와 클라크 장군도 상륙작전의 가치와 공산군에 대한 상륙위협을 계속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의 고위급 장성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특

히 미 제1해병사단은 공산군이 잘 볼 수 있는 화천 저수지에서 상륙작전연습을 실시하였다.

2) 상륙공격에 대한 공산군의 취약성 및 대응조치

유엔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군은 교착된 전선지역에서 참호를 유개화하고, 지하갱도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산군의 기동력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종심이 깊은 적 후방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공산군의 방어태세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공산군은 인천에서 유엔군의 상륙기습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착된 전선에 병력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제2차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접촉선의 북측 해안에 기습공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공산군은 전방에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안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상륙 예상지역으로 판단되는 원산 부근에 대한 방어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다수의 북한주민을 동원하여 해안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그 배후에 중공군을 배치하여 공격을 받는 해안으로 신속히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해안선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함에 있어 지하 깊이 굴을 파고 참호진지를 구축하였다. 해안 방어용 참호는 바다로부터 유엔 상륙군이 상륙에 성공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을 때에도 공산군이 계속적으로 방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설치되었다. 아울러 공산군은 해안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해안가에는 기뢰를 부설하였으며, 해안에 있는 논과 저수지를 이용하여 상륙군의 전차와 중장비들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3) 유엔군의 상륙계획 수립 및 실행 취소

6·25전쟁 중반부터 종전까지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의 동서해안에 대한 상륙공격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유엔군사령관이 제안했던

원산 인근의 호도반도에 대한 상륙공격 계획이었다. 이 공격의 목적은 호도반도를 영구히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공산군 포대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유엔해군의 서해안에 대한 상륙계획으로는 해주 반도가 아군 상륙에 가장 유망한 상륙 후보지역이였으며, 유엔군은 휴전회담이 결렬될 경우 이 지역에 군단급 규모의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잠정적 계획이 수립해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상륙작전에 필요한 제반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세력 규모를 판단하였으며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주에서의 상륙돌격이 갖고 있는 주요 문제는 상륙돌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일단 상륙군이 육상에 상륙한 후에 아군의 중장비를 어떻게 전답(田畓)지역을 횡단하여 높은 지역까지 이동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해주지역에서 군단급 규모의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내에는 가용한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2개의 육군 사단과 1개의 해병사단을 미 본토로부터 추가 증원받아야만 하였다.

동해에서 상륙작전이 가장 적합한 지역은 원산 바로 남쪽에 있는 고저반도였다. 유엔군이 일단 이곳에 상륙한다면 그곳으로부터 남서로 뚫려 있는 계곡을 따라 이동하여 북한군과 중공군 간의 연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과 함포, 항공능력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상군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상륙작전 계획을 완성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1개 사단과 한국에 배치된 1개 예비사단을 동원하여 상륙작전에 투입하려는 계획이 밴 플리트(Van Fleet) 장군의 고저상륙계획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면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종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상륙작전의 효과 및 공산군의 약점

유엔해군 및 육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적지에 대한 상륙돌격을 감행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극동해군사령관 브리스

코 중장은 공산군이 전선에 집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유엔군이 전선 후방에 상륙돌격 작전을 감행한다면 언제든지 중공군의 배후에 일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적 후방에 대한 상륙돌격이 공산군의 보급선을 단절시킬 것이며, 작전수행 간에 아군의 우세한 화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 제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도 상륙돌격이 결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해군이 지상군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상군이 교두보를 확장, 강화하는 동안 해군이 바다에서 함포사격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며, 상륙에 성공한 지상군은 후방으로부터 신속하게 예비전력을 증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중공군은 유엔군이 그들의 후방에 상륙돌격을 감행할 경우 아군의 전력을 능가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병력의 이동능력이나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보유하지 못했고, 신속하게 전력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을 숙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공산군은 기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동 군수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해야만 하는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최대 약점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이 전선 후방종심 지역에 대하여 상륙작전을 실시한 후 공격을 계속할 경우 유엔군은 공산군의 군수 보급선에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또한 공산군에게 주야로 보급품 수송작전을 강요함으로써 적의 군수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11]

4. 원산항 해상포위 작전

1) 포위작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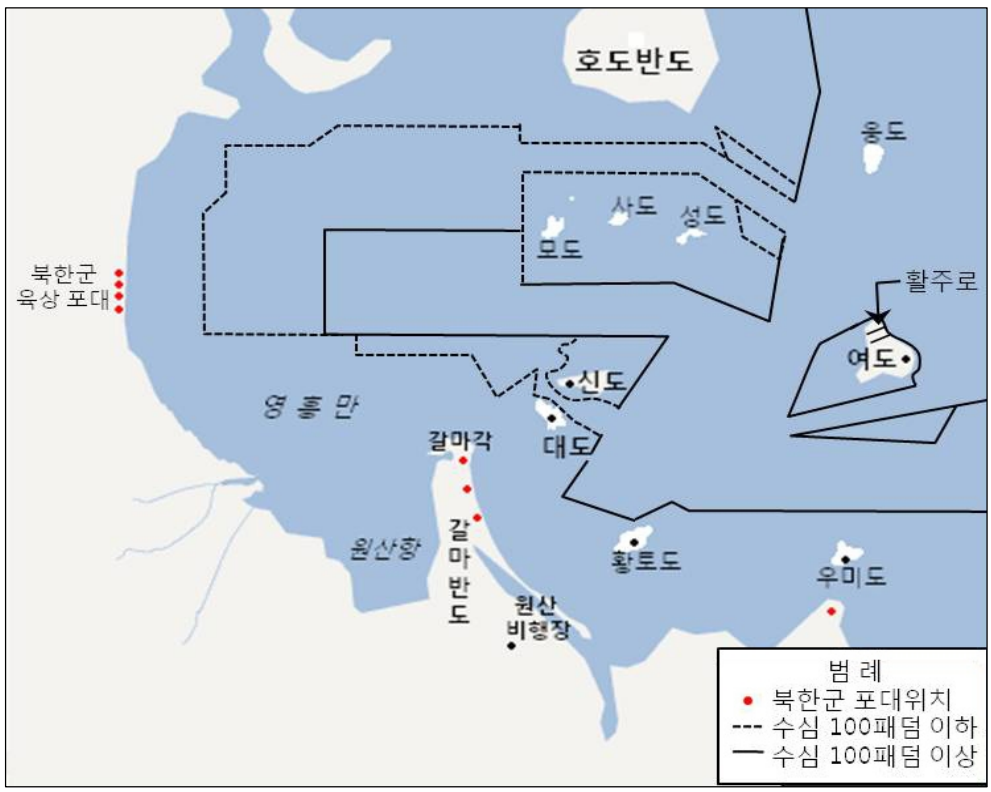
유엔해군의 원산항에 대한 봉쇄는 1951년 2월 16일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 해

군 역사상 가장 장기간 동안 실시된 봉쇄작전이었다. 유엔해군이 이 작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원산항을 항구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이 작전은 원산항 내에 있는 도서 중에서 1개 이상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동서해안의 도서점령 계획의 일환으로 스미스 제독(봉쇄 및 호송부대사령관)에 의하여 최초로 착안된 것이었다.

스미스 제독이 이 계획을 제의했을 때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에 이은 공세로 인해 철수작전을 하고 있었다. 1950년 12월은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도 있었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미스 제독은 지상군이 철수하고 있지만 해군은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유리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차후 지상작전 지원을 위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엔해군의 지휘부는 이러한 스미스 제독의 상황평가를 근거로 몇몇 도서들을 점령하는 것이 장차작전 수행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때 점령할 도서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진남포 입구의 초도였고, 둘째는 장산곶 남쪽의 백령도, 셋째는 인천항 입구의 덕적도, 넷째는 군산 인근의 1개 도서 그리고 다섯째는 원산항 내의 도서였다.

스미스 제독의 계획은 이들 도서에 150명 내지 200명 정도의 한국 해병들을 주둔시키는 것이었다. 한국 해병들은 처음에는 소총만 보유하고 투입되었으나 나중에 기관총과 수류탄이 지급되었다. 미 제8군이 북진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전략적인 도서들은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해병에게 사수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스미스 제독은 이 계획을 극동해군사령관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았다. 그리고 1951년 2월 16일부터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작전을 실시하였다. 원산항 포위작전은 이러한 작전 중의 하나로 시행되었으며, 작전의 목표는 유엔군이 북한을 재점령하기 위하여 다시 북진할 때까지 원산항 인근의 도서들을 포함한 10여 개의 섬들을 점령하는 것이었다.[12]

<상황도 7-4> 원산항 요도



2) 공산군의 원산포위 거부작전

원산에 대한 해상포위가 시작된 1951년 2월 16일경에는 공산군의 포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해상포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산항을 방어하는 공산군 포대의 수가 점차 증가되었다.[13] 이와 마찬가지로 최초에 제한적이던 공산군의 원산항 방어시설도 점차 증가되고 있었다. 유엔군의 소해함들이 해안으로 더 근접하여 소해를 실시함에 따라 소해된 해역에 가까운 쪽으로 공산군의 방어병력들이 이동하였다. 해안의 참호는 공산군 측이 유엔군의 상륙가능 지역으로 판단한 원산시 근방의 해안과 원산만의 남쪽 해안 및 서쪽 해안에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공산군의 해안 포대들은 아군함정의 작전 구역과 잠정적 상륙해안에 대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으며, 중기관총과 박격포들은 상륙가능 해안 인근에 포진되었다. 또한 76mm 포대들은 상륙예상지역 인근의 고지군 중턱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122mm 및 155mm 등은 그 후면에 위치하여 아군 함정의 작전구역을 포함하여 상륙가능지역을 사정거리 내에 두게 되었다.

원산항의 모든 포들은 항만 방어용 야포였으며, 이는 해군 함포나 고정 해안방어 포대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노출된 포대를 함포사격을 받으면 쉽게 파괴된다는 것을 간파하여 대다수의 포대들을 동굴이나 터널에 엄폐시켰으며, 사격 시에만 견인하여 사격을 실시하였다.

원산항 포위작전 초기에는 포가 설치되지 않은 포상(砲床)과 엄폐호가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1개 엄폐호가 계속된 포 사격으로 너무 더워지면 다른 엄폐호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포가 설치되지 않은 진지들은 아군 항공기의 공습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산항 포위작전이 장기화되었을 때는 비어있는 포대 진지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공산군이 더 많은 포들을 이 지역에 증강 배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산지역 해안의 저지대에 위치한 대다수 해안포의 엄폐호는 단 하나의 입구만으로 구축되었다. 그 입구는 포 출입 자체를 위한 것이었고, 가능한 작게 만들어졌다. 엄폐호 중에서 몇 개만이 대구경 포들의 포요원들을 위하여 출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출입구는 산 후면에 있어서 포요원들이 아군함정의 포격에 노출되지 않고 엄폐호에 출입할 수 있었다.

전차들은 원산만의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갈마반도의 작은 산 위에 있었던 전차 진지들은 유엔군들에게 뚜렷하게 보였다. 또한 갈마반도에는 다른 전차들도 출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차 진지 중 두 개는 전차가 산속에 위치한 포문을 통하여 사격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었으며, 전차 그 자체는 노출되지 않고 포문을 통하여 포신만 돌출시켜 사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원산에서 도서로 피난을 온 사람들의 진술을 통하여 모든 항만방어 포들이 북한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공군은 해안

포에 배치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해군 요원이 배치된 호도반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 포들의 대다수는 육군부대가 운용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포대들은 아군 함정을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특정위치에 포를 영점 조준시켜 배치해놓고 있었다. 공산군은 포가(砲架)의 바퀴들이 결합되어 움직일 수 있는 원형 홈을 만들고, 이 홈에 연하여 선정된 지점에 신속하게 영점조준을 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해놓았다. 포 요원들은 협동하는 방법을 습득하였고, 해안포대 간에 일정한 협조계획까지 수립해 놓았다. 기점판을 보유한 탄착 수정소들이 설치되었고, 해상에 떨어진 탄착정보는 통신기로 사격 통제소에 통보되었고, 사격 통제소는 수정치를 산출하여 포대에 연락하였다. 북한군은 자동계산기나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계산은 신속하고 정확하였다. 공산군의 사격 증가로 1951년 7월, 아군 함정 6척[14]이 공산군의 포탄을 맞았고, 동년 8월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9월에는 다시 2척[15]이 피격되었다.

공산군은 해안포들을 사용하여 아군의 해상포위를 무력화하고, 소해된 해역에 기뢰를 재부설하며, 항내의 도서들을 재점령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아군의 강력한 방어로 인하여 그러한 작전은 무산되고 말았다.[16]

3) 해상포위작전에 대한 논란

원산항 포위작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자 유엔해군 함정이 침몰되거나 심한 손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산항 포위작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해상포위작전을 실시한 최초 180일 동안에 유엔해군은 약 5만발의 포탄으로 원산 시내의 표적에 대하여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유엔해군의 포격이 전반적으로 공산군의 능력과 사기에 어떠한 효력을 주었는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외관적으로 약간의 추측은 할 수 있었다. 해상포위가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에 항공기의 폭탄투하 또는 함포사격으로 주간에 실시되는 공산군의 보급품 수송은 거의 중단되었고, 병력도 큰 손상

을 받았다. 그러나 유엔해군의 원산항 포위에도 불구하고 공산군 보급품의 야간 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유엔해군이 공산군에게 가한 피해는 대략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다.

<표 7-4> 해상포위작전 결과

표 적	파 괴	손 상
포	262	230
차량	178	348
소형선박	89	299
교량	36	100
터널	-	15
철도 차량	66	80

야간에 적의 열차와 트럭들은 아군의 함포사격과 항공기의 교란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의 아군 관측자들이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인해 원산항내에서 작전하는 구축함과 소해함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었다. 만일 조함(操艦)장치에 적 포탄이 명중되어 기동중인 함정이 기뢰원으로 진입하거나 많은 도서에 충돌 또는 좌초될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원산항을 포위함으로써 아군에게 주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먼저 공산군의 저항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해상포위가 적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또한 다수의 적군이 아군 상륙작전으로부터 원산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원산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보고에 의하면 79,200명의 공산군 병력이 아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산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공군, 해군 및 해병 항공 조종사들 여러 명을 원산항 근해에서 구조하였는데, 이는 원산항을 아군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었다. 그리고 목을 가시로 찌르고 있는 것 같은 유엔군의 원산항 해상포위가 북한군에 끼치는 심리적인 위협은 측정하기 힘든 것이었다.

원산항 해상포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봉쇄부대사령관(CTF-95)에 의해 재임 기간 중 최소한 두 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육군과 해군의 최고 군사지휘관인 셔먼 제독과 맥아더 원수 및 릿지웨이 대장이 모두 원산의 해상포위작전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전함 뉴저지[17](New Jersey) 함과 순양함 톨레도[18](Toledo) 함에 의한 함포사격이 1951년 7월 2일에 원산의 표적을 강타하였다. 1951년 9월 18일 미 순양함 톨레도함(함장, Hunter Wood 대령)에 탑승한 다이어(George C. Dyer) 소장의 지휘를 받아 TF-95에 의한 첫 번째의 해공합동작전이 원산시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 강력한 함포사격에 참가한 함정은 순양함과 구축함 6척[19]이었다. 그 다음날, 9월 19일에는 LSMR 3척[20]이 증강되어 사격을 계속하였고, 원산시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러한 해공합동작전은 10월 10일에도 반복되었다. 이 강습작전에는 호주의 경항공모함 시드니[21](Sydney, 함장, D. H. Harries 대령)함에 의하여 주도되고, 영국 순양함 벨파스트 함과 미·영 구축함 5척[22]의 지원을 받는 영국 기동부대가 영국 해군 스코트 몬크리에프(A.K. Scott-Moncrieff) 소장이 이 함들을 지휘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적의 대규모 병력 집결지가 원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집결지에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가하였다. 제3차의 함포사격은 전함 위스콘신(Wisconsin) 함의 선두사격으로 시작하여, 12월 20일 원산시내의 주요 군사표적들을 강타하였다.[23]

4) 원산항에서 최다(最多)로 구조된 조종사

6·25전쟁 중 원산항에서 가장 많이 구조된 해군 조종사는 항공모함 에섹스(Essex)함의 제54전투기 전대장 그래이(Paul N. Gray) 중령이었다. 아군이 원산항 해상포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탈출한 수십 명의 조

종사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이 중령의 첫 번째 피격은 마전리 인근의 한 교량에 대해 급강하 폭격한 1951년 9월 7월에 있었다. 항공기는 엔진에 1발이 명중되었고,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인지하였고, 약 50마일 정도 긴장하면서 비행을 시도하였다. 원산 도착 5마일 지점에서 압력계가 영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으나 항내까지 활공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한국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두 번째 피격은 1951년 10월 28일, 원산에 있는 철도 조차장의 열차에 대해 기총사격을 할 때에 일어났다. 항공기는 적 대공화기 사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나중에 항공기가 맞은 총구멍을 세어보니 모두 57개였다. 남쪽의 비상활주로에 착륙했고, 가장 중요한 연료계통 부분을 임시로 수리한 후 이륙하여 항모기지인 에섹스 함으로 귀함하였다. 그후 그 항공기는 해체되어 수리 부속품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1952년 1월 중순까지는 적의 대공포에 피격을 당하지 않아 비상착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월 22일 항공작전 중에 항공기 엔진에 37mm 포탄 1발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때 원산항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원산 북방의 철로 폭격의 선두에 있었다. 항공기 엔진은 즉시 불이 붙기 시작하였고, 엔진은 작동 중지되었다. 포탄이 폭발할 때 3개 이상의 엔진 실린더가 부서져 나갔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산 근방에서 해안 쪽으로 벗어날 때까지 간헐적으로 엔진이 작동하였다. 미 구축함 그레고리(USS Gregory) 함이 얼음보다 더 차가운 바다에서 온 몸이 마비되어 가는 그래이 중령을 구조하였다.

그 후 1952년 1월 30일, 고원 남쪽의 철도를 폭격하는 동안 다시 적군의 37mm 대공포탄이 항공기의 엔진에 명중하였다. 이번에는 프로펠러 한 부분이 부서져 나갔고, 엔진과 항공기가 크게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엔진을 껐다가 시동시켰다 하는 엔진의 혼합 작동방법을 이용하여 겨우 원산의 해안을 벗어난 해역에 도착하였고, 미 구축함 투이닝(Twining) 함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항공모함 에섹스함에 복귀하였을 때 제77항모기동부대사령관 존페리(John Perry) 소장은 그래이 중령에게 더 이상 적지에 대한 폭격임무는 수행하지 말고, 항모기동부대 인근의 대잠 초계비행만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24]

5. 항공차단작전

1) 교살작전

미 제8군 사령부는 1951년 5월 하순에 전선에 대한 교살작전을 제안하였다. 전선 이북 후방지역에 한반도를 횡단하는 선을 그어 각 부분을 여러 항공세력에 할당하고, 할당된 구역 내에 있는 차량과 교량, 그리고 표적을 격멸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1951년 6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된 "교살작전(operation strangle)"의 시작이었다.

한반도내에서의 어떤 교살작전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번 교살작전은 이론적으로 매우 논리적이었다. 현재까지는 철도 차단작전과 북한 전역에 대한 교통망 차단작전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래서 이번 도로에 집중된 새로운 차단공습이 성공하기를 희망했는데, 이 이유는 공산군이 상대적으로 공습이 어려운 도로망을 이용하여 군수보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도 7-5> 항공차단작전 책임구역



이런 계획에 따라 교착된 전선의 바로 북방인 북위 38도 15분에서 39도 15분 사이의 60마일 구역을 집중적인 항공차단구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구역을 지나는 교통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8개의 도로를 선정하였다. 주한 제5공군은 서부의 3개 도로를 맡았고, TF-77의 항공모함은 2개의 중간도로를 책임졌으며, 제1해병항공대는 동부의 3개 도로를 맡았다.

공산군의 야간 기동을 방해하기 위한 특별 작전이 수행되어 야간 폭격기 활동이 증가하였다. 인민군의 도로망 수리작업의 진도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6시간에서 72시간까지의 기간에 폭발되도록 설정된 지연폭탄이 각 중요 지점에 투하되었다. TF-77 소속 항공기는 청진과 나진간의 도로에 대하여 약 50만장의 전단을 6월 20일 공중살포를 하였다. 이 전단에는 폭발되지 않은 폭탄물이 지상에 산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야간 폭격기의 활동이 증가되어, 많은 열차와 차량이 발견되어 격파되었다. 또한 야간 정찰도 증가되어 차단작전의 결과가 계속 관찰되었다. 부산 수영비행장에서 출격하는 제513해병전투기 비행전대는 약 30일의 작전기간 중 420대의 적 차량을 야간에 격파하였다.

그러나 작전 시작 2주 후의 전반적인 결과는 실망을 주었다. B-26 정찰기들의 정찰결과에 의하면 남하하는 적 차량의 수는 그다지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주 도로 중 약간은 지연 폭탄들에 의해 봉쇄되었고, 수 개의 교량이 파괴되었으나,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보급물자를 수송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작전은 해군, 해병 및 공군의 부대들이 상호협조 하에 지속되었다.

한편 공산군 측의 저항도 거셌다. 중요 도로를 연하는 지점에는 공산군의 대공포가 급격히 증가되어 공습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었다. 원산 서부의 도로들은 대공포가 특히 집중되었는데 아군은 여기를 “죽음의 계곡”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파괴된 도로에 대한 공산군의 수리활동도 또한 증가되었으며, 조직적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었다.

8월 말까지의 작전은 교살작전이 실패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간단하였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상의 폭탄 구멍은 차량통행을 중지시킬 수 없었다. 그

런 구멍은 단순히 흙을 채워 넣어 막거나 우회로를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파괴된 교량까지도 크게 지장을 주지 못하였다. 단순히 우회로를 만들거나 하천의 도하 설비를 쉽게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였다. 철도 교통망에 비하여 도로 교통망은 융통성이 많았는데, 그것은 도로를 임시로 만들거나 다른 좁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도로망에 대한 항공차단공격은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25]

2) 나진 공습작전

나진공습작전은 항공모함 항공기들에 의하여 1951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공산군의 군수보급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작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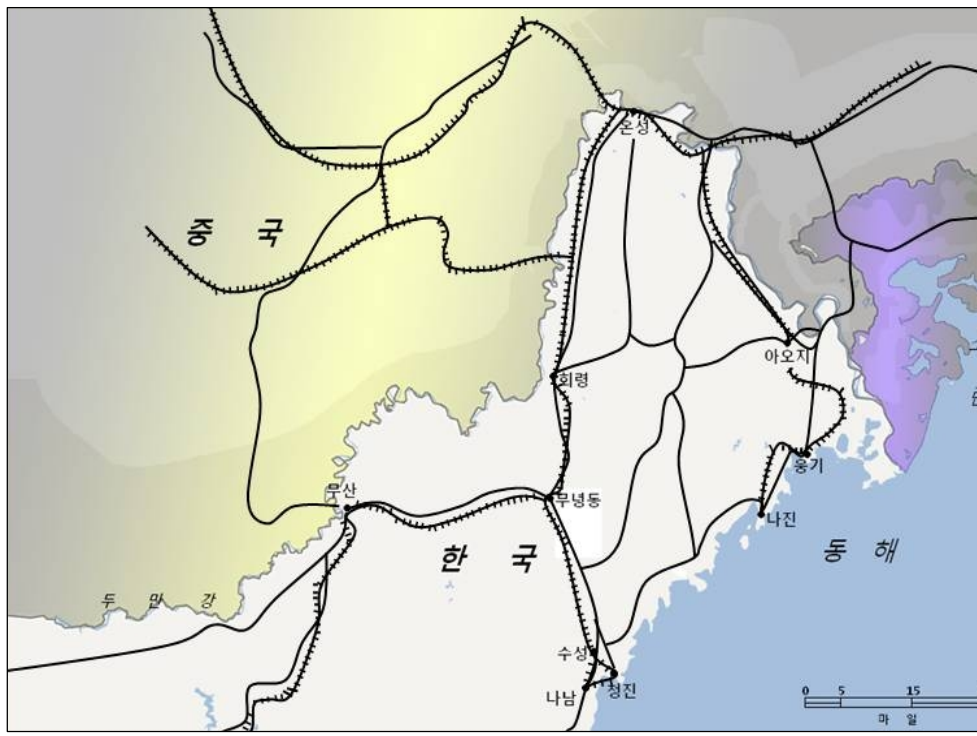
한반도는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 소련과 접하고 있다. 나진은 소련 국경에서 불과 17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항구도시로써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항에서 1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두 도시는 철도, 도로 및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진은 1950년 8월에 B-29에 의하여 한번 공습된 적이 있으며, 이 도시에 대한 재공습의 타당성 여부를 미 국무성에서 공문으로 미 국방성에 문의했던 일이 있었다. 이 도시는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국무성의 요청에 따라 1950년 9월 8일 미 합참의 지시에 의하여 공습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련 항공기와 충돌발생 위험, 유엔군 항공기의 비행 오류로 인하여 소련 영공으로의 비행 가능성 및 두만강 넘어 소련 측에 폭탄투하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 하에 나진을 폭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나진이 유엔군의 항공공격 대상에 제외된 것을 간파한 공산군 측은 나진을 보급품 이송을 위한 철도 중심부와 보급품 집결소로 사용하였다.

맥아더 사령부는 1951년 2월, 나진의 계속적인 군수품 증강과 철도교통의 증가를 주목하고, 나진에 대한 폭격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1951년 5월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나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나는 나진 폭격을 매우 원하였다. 나진은 만주에서부터 한국 동해안을 연하는 도로망이 있는 곳으로 군수품 집결소였다. 많은 보급품의 축적과 보급창의 집결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거대한 군수품 분배본부가 되었다. 소련은 블

라디보스톡에서 나진까지 보급품을 직송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나진 폭격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하였다."

<상황도 7-6> 나진항의 철도 및 도로망



나진이 공산군 측의 중요한 보급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 극동군사령부는 나진의 창고와 철도와 군수품 집결지를 강타할 것을 미 합참에 요청하였다. 극동 공군은 만주 국경선이나 소련 국경선을 범하지 않고 나진의 주요 표적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 합참에서 약간의 제한사항이 첨부된 명령으로 폭격요청이 승인되었다.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B-29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나진 상공을 통과하면서 폭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나진 폭격은 비행이나 폭탄 투하에 있어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청명한 기상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폭격기는 나진 철도역에서 불과 1마일 이내에 있는 포로 수용소를 폭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는 결코 두만강을 넘지 말아야 한다.

폭격의 방향에 관한 제한과 두만강 횡단비행을 하지 말라는 경고는 폭격임무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진에서 북서쪽의 국경까지는 단지 34마일 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과 소련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고 폭격기가 안전한 침로를 취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더구나 폭격은 남동 침로를 유지하면서 실시되어야 하는 규제 때문에 B-29는 출격 비행 시 나진의 훨씬 남쪽 해안에서 북한 상공으로 진입을 해야 하였다. 그로 인해 북한의 배치된 레이다에 충분한 경고를 주었던 것이다. 소련이나 중국 영토에 있는 MiG기들의 경고를 받을 것이고, 나진 공격에 대하여 그들이 대항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다. 그런 경우 B-29 폭격기들은 많은 전투기의 호송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투기들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남한의 최북방에서 운용하는 F-86 전투기들이 보조 유류탱크를 장치한다 해도 그와 같은 장거리에서 호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극동공군은 해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항공모함에 탑재한 제트 전투기로 나진을 공격하는 B-29의 호송용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요청은 합동작전본부(JOC)를 통하여 제7함대사령관에게 전달되었고, 다시 CTF-77 사령관인 존 페리(John Perry)소장에게 전달되었다. 페리 소장은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몇 대의 제트기를 언제, 어디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그 다음 3일 동안 상봉점, 고도, 주파수 및 엄호 방법에 관한 상세한 상황을 해군과 합동작전본부 간에 토의하였다. 해군 제트기들은 나진 남쪽 80마일 지점, 25,000피트 상공에서 B-29를 상봉하여 표적 상공까지 호송하고, 다시 적 지역 상공을 벗어날 때까지 호송하게 되었다.

항모에서 이륙한 22대의 해군 전투기는 1951년 8월 25일 출격하여 B-29의 엄호임무에 배당되었다. 함재기들은 상승비행을 실시하여 B-29 폭격기 29대를 지정

된 상봉점에서 상봉하였다. 해군기 11대는 폭격기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11대는 폭격기 하부에 위치하였다. 폭격 지역의 진입 기본 고도는 25,000피트였다. 비행구역을 엄호하였고, 또한 전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격기 편대의 전후방을 왕래 비행하면서 엄호비행을 실시하였다. 해안선을 통과한 후 함재기들은 MiG기들을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계획대로 나진을 향해 비행을 실시하였다. B-29는 3파로 나누어 폭격했으며, 각 폭격기는 1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함재기들은 MiG기의 출현에 주의를 집중시켰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공포격도 없었다. B-29는 고도 19,000피트를 유지하면서 폭격을 실시하였다. 기상이 양호하여 B-29의 폭탄 양상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복귀 비행 절차와 침로도 진입할 때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해군기들은 항모 에섹스(Essex) 함으로 비행하면서 B-29 편대를 이탈하였다. 이 임무는 성공적이었으며, 공군 측으로부터 훌륭하게 엄호임무가 수행됐다고 통보를 받았다.[26] 폭격결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 항공기가 항공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진 판독 결과는 폭탄 97퍼센트가 나진의 군수품 집결지에 투하되어 창고와 주차장과 철도교량을 파괴하여, 약 75%가 파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진 공습에서 공군의 B-29와 해군 전투기는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기간 중에 해군 전투기가 공군 폭격기를 호송한 것은 나진 공습작전이 처음이었다. 공습작전의 의의는 첫째로 공군과 해군 간의 치밀하게 협조되고 통합되어 항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전쟁에서 항모 전투기의 기동력이 공군을 지원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었다.[27]

3) 철도망 폭파작전

항공차단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모함에게 부여된 근접항공지원(CAS : Close Air Support) 임무를 1951년 9월 20일부로 해제하였다.

철도망 폭파작전 이전의 폭격대상의 중점은 교량이었다. 교량 파괴에서 철도망 파괴로의 임무 변경은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되었다. 즉, 적이 북동연안 철도

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보고되었다. 또한 미 정보에 의하면 공산군 측이 특정한 교량의 수리보다 다량의 절단된 철도망을 보수하는 것이 더 곤란할 것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전방 전선에 대한 근접항공지원과 항공차단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군은 파손된 철도망을 수리하기 시작하여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미 정찰 항공기는 여러 군수품 집결지에 300대 정도의 열차가 운행 중인 것을 촬영하였다. 해군 항공기는 1951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1,900대와 열차를 파손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제3항모분대사령관이며, 당시 CTF-77 사령관이었던 톰린슨(W. G. Tomlinson) 소장과 주한 제5공군사령관 에베레스트(Frank F. Everest) 소장은 1951년 9월 30일에 리차드(Bon Homme Richard) 함상에서 가진 회담에서 항모공격의 방법을 한 번 더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이후 항모 항공기의 공습은 가능한 광범위한 구역에서 실시되었으며,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철도망을 1마일 간격으로 강타함으로써 적들의 수리 요원을 분산시켰다.

도로와 철도의 교량 일람표를 작성하여 중요 교량수를 27개로 감소시켜 철교 10개와 도로 17개만 남게 되었다. 교량과 철도망에 대한 공습으로 동해안에서의 북한군의 군수품 수송은 엄청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28]

항공모함 3척(Bon Homme Richard[29], Essex[30], Antietam[31])은 1951년 10월 중순에는 철로 파괴에 중점을 두었다. 함재기의 공격에 의해 10월 최초 3일 동안 131개 철로가 파괴되었다.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철로는 총 490개가 절단되었다. 1개월 이내에 1,000개 이상의 철도들이 절단되었다. 1951년 11월에는 기상이 불량했음에도 불구하고 922개 철도가 절단되고 44개 교량이 파괴되었다.

해군 지휘부에서는 TF-77 항공기들이 철도 폭파작전에 효과적인 자산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군 항공기가 속도가 빨라서 북한군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항공기의 폭격 안정성으로 철도 폭격과 같은 정밀공습에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철도 폭파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로 첫째, 철도 폭은 불과 56인치(약 1.4미터)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공격이 쉽지 않았

다. 궤도에 대한 직격탄만이 효과를 발휘하였다. 둘째, 조종사들이 경험에 의한 목측으로 상쇄거리(Offset Distance)를 결정하고 수정해야 하였다. 그렇치 않으면 폭탄은 노선의 양 측면에 투하되어 적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폭파되었다.

12월 최초 9일 동안 937개 지점의 철도 노선을 절단하였다. 12월 9일과 1952년 1월 9일 간의 1개월 기간에 TF-77은 일일 평균 116개의 노선 절단을 기록하였다. CTF-77 사령관이었던 페리 제독은 이 작전으로 동부 철도 상의 적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32] 항공차단작전 12개월 간에 해군 항공기와 함정들은 2,379개의 교량과 4,519대의 차량과 7,028량의 철도 파괴 및 4,674 지점의 철로 절단을 하였다.

4) 갑산 공습작전

북한 내의 공산군 표적들에 대한 첩보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획득되었다. 귀순자들이 가끔 첩보를 제공했고, 나포된 어부나 북한 귀순 어부들이 첩보 수집에 일조했으며, 북한 영토에 침투한 한국 특공대가 또 하나의 정보원이었다. 해군 공습작전 중의 하나인 갑산 공습작전이 그러한 정보에 근거하였다. 주로 한국군으로 구성된 게릴라 부대들이 북한의 특정지역에서 작전하면서 남측에 휴대용 무전기로 적 첩보를 송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첩보는 해군 항공기에게 표적의 형태와 위치를 제공하였고, 바로 기함에 전송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표적에 대하여 항공기가 공격을 하였고, 해군 공격의 결과는 현장의 게릴라 부대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대단히 유용했으며, 이를 통하여 주요 표적들이 파괴되었다. 이런 표적들 중에는 소련 기술자들의 감독 하에 납과 은을 생산하던 금덕 광산이 포함되었다. 게릴라 보고에 의하면 금덕 광산에 대한 공격으로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소련 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116명이 폭사하였다.

아군 게릴라가 제공한 첩보에 근거하여 감행된 공습작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전은 갑산공습작전이었다. 1951년 9월 29일에 공산당 인민위원회 소집에 따라

공산당 간부들이 갑산에 있는 건물에 집결하였다. 이 공습의 결과 약 500명 이상의 공산당원들이 사망하였다.

CTF-77 사령관인 페리 제독은 1951년 10월 29일,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중공군과 북한군의 당 간부회의 장소인 북한의 갑산에 대하여 공습을 요청하는 전문을 받았다. 북한 지역에 활동하는 게릴라 부대에서 09시에 중공군과 북한군의 고위 간부들이 갑산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었다. 갑산은 성진 북서쪽 60마일 지점의 개마고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페리 제독은 전문을 접수한 후에 아군 정찰 항공기에게 명령하여 갑산에 대한 고공 항공사진을 촬영케 하였다. 갑산에 있는 표적은 약간 동쪽에 있는 부대였다. 이 부대에는 중공군과 북한군 공산당원들에 대한 기록물 보관소와 보안경찰 본부 및 병사(兵舍)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고위 간부회의는 09시에 계획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당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시 15분과 9시 20분 사이에 공습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종사들은 제1편대에 편대장인 그래이(Paul N. Gray, VF-54) 중령, 중위 1명, 소위 2명이었고, 제2편대에는 대위 1명이 지휘하고 편대원은 중위 1명, 소위 2명이었다. 항공기 수가 적을수록 최대의 기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엄호가 없었다.

갑산 공습 당일 아침에는 청명하나 날씨는 꽤 쌀쌀하였다. 원산 동쪽 약 100마일 해상에서 07시 30분에 출격하여 해안으로 이동했으며, 목표지역까지 전 비행구간을 가능한 한 저공비행을 하였다. 출격 이전에 사전 브리핑을 통하여 갑산으로 가는 계곡을 확인하였고, 이 계곡들 사이로 비행함으로써 적의 레이다 탐지를 회피할 수 있었다. 북쪽으로 점차 비행함에 따라 산들의 높이가 증가하였고, 지형은 극히 험준하였다. 갑산의 바로 동쪽에는 해발 6,000피트 이상의 산맥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항공기들은 이 산맥 바로 뒤로 접근하여 8,000피트까지 상승한 후 산맥의 정상을 넘어 공격을 개시하였다.

VT(가변신관) 신관을 가진 1,000파운드 폭탄 8발이 약 9시 13분에 갑산의 표적 상공에서 폭발하였다. 2차 공격에서는 충격신관이 달린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다. 3차 공격에서 항공기 절반은 네이팜탄을 투하했고, 나머지 항공기는 기총사격을 실시하였다. 표적의 대부분은 네이팜탄에 의하여 불붙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공격은 표적에 기총사격을 하고, 파괴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250파운드 폭탄들을 정밀 조준하여 투하하였다. 공습결과를 촬영하기 위하여 저공으로 비행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항공기들이 표적을 이탈했을 때는 다량의 연기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항공사진을 검토 결과, 폭탄 하나를 제외한 모든 폭탄이 표적에 명중되었으며, 표적 구역에는 단지 벽 하나만이 있었고 다른 것은 모두 파괴되었다.

적의 대공화기들은 제1차 VT 신관을 장착한 1,000파운드 폭탄투하 공격에 의하여 파괴되어, 항공기들의 피해는 전무하였다. 장거리 폭격과 표적 상공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으로 복귀하였다.

갑산의 폭격과정을 정찰했던 우군 게릴라 보고가 육군에 접수되었다. 보고에 의하면 509명의 공산당원들이 폭사했으며, 갑산에 있던 공산당의 기록들이 대부분 소멸되었다.

<상황도 7-7> 갑산지역과 동해안의 철도망



6. 1951년 기뢰전

1) 기뢰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전선이 전쟁 이전으로 회귀함에 따라 북한지역의 전 해안선이 다시 공산군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군세력이 취약한 공산군은 유엔해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안방어준비는 점차로 증가되고 있었다. 공산군은 자신의 항만과 연안에 기뢰를 재부설할 수 있었으며, 해안포도 설치할 수 있었다.

1951년 유엔해군의 소해문제는 기뢰원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뢰전 수행 시와는 차이가 있었다. 첫째, 1951년에는 1950년에 비하여 소해시간이 위급한 것은 아니었다. 1950년 가을 전반에 걸쳐 소해작전은 항상 촉박했었다. 수시간 이내에 인천을 소해해야 했고, 수일 이내에 원산, 진남포, 이원 및 흥남 주변의 기뢰원을 제거해야만 하였다. 병력이나 보급품을 긴급하게 육상으로 양륙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1951년에는 상륙작전이 없었기 때문에 소해함들이 긴박하게 기뢰제거 작전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었다.

둘째, 1950년 가을에는 소해 요원들이 비교적 소해 경험이 없었으나, 그동안의 동서해안에서 소해작전 수행으로 소해요원들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1950년 소해함은 수리시설과 수리 부속품이 부족하였지만, 1951년 초에 이르러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해결되었다.

마지막으로 1951년 유엔해군의 작전은 북한 해안에 근접하여 함포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소해함들은 더욱 위험을 무릅쓰고 기뢰제거 작전을 수행해야 하였다.

소해작전 결과를 살펴보면, 1951년 초 흥남에서 186개의 기뢰가 소해되었고, 2월 16일에 시작된 원산 포위작전의 준비로써 325개의 기뢰가 소해되었다. 195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83개의 적 기뢰를 소해하였다. 여기에는 소련제 육상 자기기뢰 9발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5개는 미 AMS-26(Merganser[33])에 의하여 폭파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51년 봄에 이르러 소해작전은 시간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

이 아니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해함정의 안전과 특히 승조원들이 안전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소해함에 대한 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ARG-2(Luzon[34])와 ARG-16(Kermit Roosevelt[35])이 일본의 사세보로부터 교대로 출동하여 작전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36]

2) 1951년의 소해임무

북한해역에 대한 기뢰 재부설 정보와 장거리 해안포들이 만주로부터 도입되고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1951년 3월에 제3기뢰전대장 스포포드(Spofford)대령은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다. 1951년 소해임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51년 소해의 주된 목적은 해군 함포지원함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즉 함포지원함이 북한 연안에 근접하여 병참선을 차단하고, 병력 집결을 방해하며, 포진지와 보급소를 파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둘째, 소해는 전술적 기만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소해작전은 대규모 상륙작전이나 함포지원사격의 사전 징후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산군이 이러한 해상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분산시킨다. 그러므로 유엔 지상군에 대한 공산군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해함정들이 원산, 흥남, 성진항을 연하는 해안에 소해된 항로를 제공함으로써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유엔해군의 봉쇄작전과 함포지원의 작전효과를 증진시킨다.[37]

3) 함포지원함을 위한 소해작전

원산 북방에 대하여 1951년 3월 30일 소해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다. 소해부대는 제3기뢰전대로 소해주정을 탑재한 기함 LSD-19(Comstock/함장, 대령 E. T. Goyette)와 소해함 6척[38] 및 해난구조함(ARS-21/함장, 대위 S. J. Brown) 1척으로 구성되었다. 소해세력은 항공모함 세인트 파울(CA-73 / 함장, 대령 Chester C. Smith) 함상에 있는 힐런코에터(R. H. Hillenkoetter) 소장의 전술통제 하에서 성

진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을 소해하는 임무를 받았다. 이것은 함포지원함이 연안에 더 근접하여 작전하기 위한 명령이었다.

유엔해군은 첫날 소해에서 약 15발의 계류기뢰를 성진항 입구에서 절단하였다. 아군이 소해작전을 실시함에 따라 공산군은 해안선에 출현하여 아군에 대한 위협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이 집결하는 상황을 간파한 유엔해군은 함포사격으로 이들을 무력화시켰다.

영국 해군 LSD 포트 마리온(Fort Marion)함은 성진 남방 15마일 해안에 근접하여 영국 해병을 상륙시켜 철도와 터널을 폭파하였다. 영국 특공대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었다.

소해세력이 원산해역으로 복귀한 그날 밤, 기함 LSD-19의 레이다 작동수는 여도 근방에서 이동 중인 미식별된 접촉물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접촉물은 초계하던 구축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4척의 소해함은 다음 날 아침 06시 30분까지 기뢰 15발을 소해 및 파괴시켰다. 만약 기뢰들이 소해되지 않았더라면 항모 세인트 파울함이 같은 날 아침 11시에 그 해역으로 진입했을 때 위험스러울 정도로 근접하여 항해하였을 것이다.

북한의 연안 방어를 혼란시키기 1951년 4월 중순에 고저에서 전술적 위장작전을 수행하였다. 천해용 소형 소해정들은 수심 100패덤 등심선에서 시작하여 5인치 함포의 포탄이 해안에 도달될 수 있는 해안까지 수로를 소해하였다.[39]

4) 서해안 검색소해

고저와 원산의 소해된 해역을 연결하기 위한 동해안의 소해 및 수로 확장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1951년 5월 초에 다른 소해작전의 소요가 발생하였다. 즉, 한반도 서해안에서 작전 중이던 영국 해군 세력들은 아커(S. M. Archer) 중령의 소해부대에 의해 소해되었던 진남포 해역에 대한 검색소해를 요청하였다. 검색소해는 통상 완전소해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과 장비가 필요하였다. 1951년 5월, 진남포 수로에 대한 검색소해는 소해함 4척과 구축함 이상급의 화력

지원함 3척(HMS Concord, HMCS[40] Sioux, HMS Amethyst)이 참가했으며, 또한 LST 1척, MSB 6척, LSD 1척 및 한국 해군 YMS 2척(YMS-501, 502)이 참가하였다. 소해함정들은 자기 및 계류기뢰에 대한 검색소해를 실시했으나 20마일에 이르는 이 수로에는 기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진남포 수로에 대한 검색소해에서 헬기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헬기는 소해함 전방에서 해역을 수색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향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수류탄을 투하하는 데도 유용하게 운용되었다.

소해함들이 신속하게 검색소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3기뢰전대 작전참모가 고안한 전술을 응용하였다. 즉, 소해정 2척이나 3척이 지정된 소해예정구역을 진행한 후 절단되거나 접촉되는 기뢰가 없으면 '소해된 구역'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미 소해된 구역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흐르는 해류나 조류로 인하여 기뢰가 다시 이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41]

5) 소해구역 확장

진남포에서 검색소해 실시 후에 소해작전 세력은 주로 동해안에서 활동하였다. 1951년 2/4분기 중 수원단에서 원산까지의 해안에서 약 200발의 기뢰를 소해하였다. 이 기간 중 소해세력은 AM형 소해함 2척과 AMS형 소해정 2척으로 보강되었다. 적 해안포의 증강배치는 소해함정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점점 더 많은 적 해안포들이 소해함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나타났다. 비록 적 해안포들의 사격 정확성은 미흡하였지만, 소해정은 해안포 사격을 무릅쓰고 소해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해세력은 1951년 여름 동안 흥남까지의 연안 해역을 소해하였다.

MSB들은 원산항의 소해수로를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군 함포지원함이 원산의 호도반도 및 갈마반도에 배치된 적의 해안포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MSB는 여름 동안 138발의 기뢰를 소해하였다. 이는 다른 3개 소해부대가 같은 기간 중에 소해한

기뢰 수보다 많았다. MSB는 구축함 3척과 기타 군수지원함의 지원과 통제를 받았다.

MSB는 1951년 9월 10일, 원산에서의 소해임무를 완료하였다. 남은 임무는 AMS형 소해정에 의한 검색소해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AMS 5척이 검색소해에 배당되었다. AMS에 의한 검색소해는 박명(薄明)에 시작되었으며, 신도 서단에서 폭 1,000야드의 통로를 검색하였다. 소해하는 동안 북·서 및 남으로부터 적 해안포의 해안포 사격을 받았다. 소해함 레드헤드[42](Redhead)가 침몰된 선박에 충돌하여 우현 프로펠러가 손상되었으나 다행히 소해 장비를 회수하여 원산항을 벗어났다.

피해를 입지 않은 나머지 4척의 소해정은 다른 구역을 소해하기 위하여 선회를 하였다. 적은 해안포 사격을 중단하고 소해정들이 가까이 접근하도록 기다리는 것 같았다. 소해함 4척이 소해구역의 최서단에 도착한 시기에 공산군이 사격을 개시하였다. 소해함은 적의 포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도 뒤쪽으로 피항하였다.

소해함 헤론[43](Heron)함이 적 75mm 포탄에 맞아 우현 쪽이 파손되었다. 포탄의 파편이 격벽과 천장 및 갑판에 쏟아졌다. 포탄이 몇 피트만 높게 떨어졌다면 함수 상갑판에 있는 40mm 요원들이 중상을 입었을 것이었다.

공산군은 원산에 대한 유엔해군의 강력한 소해를 상륙공격의 전조로 생각하며 포대들을 증강시켰고, 상륙예상 해안 근방의 주민들을 철수시켰으며, 상륙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였다.

소해작전은 원산에 북쪽으로 계속되었으며, 비교적 기뢰부설이 많이 되어 있는 흥남항 인근까지 실시되었다. 점점 더 많은 기뢰가 소해되었고, 폭파되었다. 적의 격렬한 해안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1951년 7월1일에서 9월 30일까지 그 이전까지의 6·25전쟁에서 소해한 기뢰의 수보다 많은 기뢰를 소해하였다.[44]

6) 소련 인근 해역에서의 소해

소해작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작전이 1951년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수행된 소련 블라디보스톡의 남방 75마일 지점에 있는 동해안 청진에서 실시된 것

이었다. 청진에서 주된 임무는 함포지원함들이 육지에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수심 50패덤 등심선 내의 기뢰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청진 인근에 대한 정보보고는 소해작전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해주었다. 해안에서 통제하는 기뢰들이 이 해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고속경비정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작전해역은 적 항공기의 작전권 내에 있으며, 소해함정은 항공기에 매우 취약하였다. 그 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거센 바람과 극심한 추위, 심한 결빙 및 높은 파도가 동반되는 것이었다.

청진 소해작전은 11월 3일에 시작되었다. 23발의 접촉기뢰가 소해되어 그중 18발이 사격에 의하여 폭파되었다. 1발은 소해하는 동안 폭발했고, 나머지 4발은 40mm 사격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헤론함의 음탐 작동수는 11월 6일, 불과 3일 전에 소해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뢰색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뢰 8발이 그전에 소해된 해역에서 다시 소해되었다. 그것은 적의 기뢰 재부설 작전이 바로 아군의 코앞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심 50패덤 등심선 이내에서 3일간 소해를 실시하고, 소해된 해역에 즉시 기뢰를 적군이 재부설하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수심 50에서 100패덤 등심선의 외해 쪽에 소해작전을 치중하였다.

청진 소해작전 시에도 LSD와 헬기가 소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헬기의 효과는 겨울로 접어들자 안개와 진눈깨비에 의하여 크게 감소되었다. MSB도 거센 파도로 인하여 작전에 곤란을 많이 받았다. DMS 2척(Doyle[45] / DMS-34, Endicott[46] / DMS-35)는 상대적으로 대형 함정이므로, 소형 함정이 기상이 지장을 받아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두 함정은 적의 기뢰 재부설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검색소해를 실시할 수 있었다.

청진에서 제반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진 연안 50패덤과 그 외해 쪽 해역은 기뢰가 제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기뢰 부설정은 유엔군의 소해작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기뢰를 재부설하고 있었다.[47]

7) 1951년 기뢰정보

흥남, 성진 해역에 대한 공산군의 기뢰부설의 증거는 소해함 Ptarmigan[48](소령 Harold Durham)함이 흥남근해에서 새로운 접촉기뢰 2발을 소해한 1951년 11월 19일에 확인되었다. 그 후 소해함 펠리칸[49](Pelican)함이 동년 12월 3일에 같은 해역에서 새로운 기뢰 1발을 발견하여 격파시켰다. 이 기뢰들은 북한에서 재부설된 것들이었다.

6·25전쟁 기간 중에 적의 기뢰부설이나 재부설 작전에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해도를 작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소해함정의 수가 너무 적었고, 해안선이 너무 넓었기 때문이었다. 미 해군 기뢰전문가들도 공산군 측의 기뢰 보유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군은 한국의 전 항구와 항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기뢰를 부설할 충분한 기뢰를 보유하며, 진남포, 청진, 성진 및 흥남에 기뢰저장소를 건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의 기뢰부설작전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첫째는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유엔해군의 함포지원사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활동 중인 우군의 게릴라들이나 피난민 또는 귀순자와 어부들로부터의 첩보는 일반적으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보고들을 종합해 볼 때는 공산군의 기뢰부설 수단은 돛단배, 어선, 소형 동력선 및 소형주정(MTB)들을 이용하여 주로 야간에 실시하고 있었다. 그전에 소련의 기뢰 부설선 1척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기뢰 부설정으로 사용되었던 배를 나포한 결과 두꺼운 송판으로 건조된 특수 선반이 갑판 위에 놓여있어 기뢰를 그곳에 싣고 인력으로 배의 측면으로 굴러 떨어뜨릴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았다. 기뢰부설 장비가 초보적인 것이었고, 기뢰탑재 능력이 제한되었지만 일단 부설된 기뢰는 유엔해군에게는 심각한 위협대상이었다. 1951년 봄에 접수한 대표적인 극동해군사령부 정보 개요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50]

<표 7-5> 기뢰정보 개요(1951년)

일 자	내 용
1월 3일	대동 수로와 진남포 인근에 광범위한 기뢰부설 작전이 수행되고 있음.
3월 1일	갈마 철도역 근방의 열차에서 소련제 기뢰를 하역하고 있음.
3월 7일	갈마역은 미 순양함 맨체스터(Manchester)함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포격, 명중되었으며 기뢰를 실은 열차 1량이 폭파되었음.
3월 28일	원산 인근에서 모타 보트가 기뢰를 부설하고 있으며, 기뢰는 남쪽으로 부설됨.
3월 31일	유엔군 해군부대들이 원산 근방에서 기뢰부설 주정을 포격하였음. 극동해군사령관은 적이 이전 소해된 해역에 기뢰를 재부설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음.
4월 10일	길이 13미터의 검은 색 MSB 1척이 진남포 인근에서 관측되었음. 이 주정은 야간에 기뢰를 부설하고 있다고 판단됨. 적 주정들이 38-45N, 125-29E 근방에서 기뢰를 부설하고 있었음.

8) 해군함정의 기뢰 피해

파트리지[51](Partrige, AMS-31)함이 1951년 2월 2일, 원산 남동쪽 영양 인근에서 소해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유기뢰에 접촉되어 10분이 채 안되어 침몰하였다. 장교 2명과 사병 6명이 사망했고, 장교 1명과 사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소해함이 6·25전쟁 중 기뢰로 침몰한 네 번째였고, 마지막 소해함이었다.

흥남 인근에서 구축함 2척이 기뢰에 충돌하였다. 워크[52](Walke, DD-723)함은 1951년 6월 12일, 스몰(Small, DD-838)함은 1951년 10월 7일에 각각 기뢰에 접촉되어, 전자는 26명의 전사자, 후자는 9명의 전사자를 냈다.

한국함정 2척이 기뢰에 손상되었다. JMS-306정은 1951년 5월 6일, 진남포 연안

에서, PC-704함은 12월 26일 야간에 원산항의 여도 인근에서 각각 기뢰에 충돌하여 침몰되었다. 여도 인근에서 PC-704함의 전사자 22구를 인양하였다.

JMS-302, YMS-502 및 PF-61함과 함께 한국해군 JMS-306정은 공산군의 기뢰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남포에 파견되었다. 1951년 5월 6일 아침 짙은 안개가 사라지고 나서 초계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분 후인 09시 20분에 기뢰에 접촉되었다. 기뢰폭발로 기관실이 물에 잠기었고, 36명의 승조원 중에서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지 않은 12명의 승조원들은 72분 동안 함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였다. 아군 함정 2척이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함은 10시 32분에 침몰했고, 구조된 승조원들은 PF-61함에 이송되어 부산으로 후송되었다.[53]

9) 기뢰전의 의의와 교훈

6·25전쟁 기간 중에 기뢰대항전을 수행하면서 기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효과적인 기뢰 대항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이 기뢰를 부설하기 이전에 기뢰 저장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소해작전은 미 해군의 소해함정과 소해장비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었다. 거의 모든 유형의 소해함정이 전쟁에서 사용되었는데, DMS형 소해함은 한국 북동해안에서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칠어서 상대적으로 대형 소해함인 DMS형이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된 선회 반경, 미흡한 통신시설 및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136피트 길이의 목제 AMS형 소해정이 가장 유용한 함정이었다. 이 소해정은 천해는 물론 심해 소해도 가능하였다. 220피트 AM형 소해함은 속력이 빠르며, 안정된 사격도 할 수 있었고, 양호한 항해장비를 보유하였다. 이 함은 선도함이나 기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용공간을 가졌다. 1951년 봄에 2척(Redstart함[54]과 Dextrous함[55]) 밖에 없었으므로 이중 1척은 항시 전투해역에서 작전해야만 하였다.

LST는 군수 지원함과 헬기 모함 및 소해작전 본부로 활용되어, 소해전대의 기동

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LST는 모함으로써 LSD 만큼 양호하지는 못하였다. LST 램프를 통한 주정의 진수와 회수가 매우 느렸고, 양호한 기상상태를 제외하고는 주정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위험하였다. 한편 LSD는 소주정 소해의 모함으로써 그리고 대형 소해함정의 군수품 제공과 지원세력으로서 적합한 함정이었다.

공산군 측의 기뢰부설 수단과 기뢰유형이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전쟁 기간 중에 유엔해군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해군작전을 방해하였다. 공산군의 기뢰부설 작전이 방어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기뢰부설로 인하여 유엔함정은 소해된 해역을 제외하고 수심 100패덤 외곽에서 작전해야 하였다. 만약 공산군 측에서 최신형 기뢰들과 현대적인 부설방법을 개발하여 대규모적으로 공격과 방어기뢰작전을 병행했더라면 6·25전쟁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1951년 이전에 약 200발의 기뢰를 소해했지만 아군은 5척의 함정이 침몰되었다. 1951년 5월에서 12월까지 700발의 기뢰를 소해했지만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이는 과거 기뢰제거작전으로 경험이 축적되었고, 새로운 소해장비의 도입으로 안전하게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의 소해작전을 통하여 앞으로도 각종 전쟁에서 기뢰위협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며, 그에 대한 완벽한 기뢰대항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지게 되었다.[56]

제 3 절 한국해군 작전

1. 제1함대 창설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한 유엔군은 재반격을 통해 만족할 만큼의 전선확보에 성공하였다. 그동안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은 전략도서 확보작전과 해안봉쇄작전, 그리고 함포지원과 함재기의 공습, 군수지원 등을 통해 지상군의 반격작전을 지원하였다.

6월 중순 경 캔자스-와이오밍(Kansas-Wyoming)선을 점령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북으로 나아가 충분한 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유엔군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국부적인 탐색공격만을 되풀이하였다. 말하자면 단시간에 결정적 승리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이 현상은 특히 휴전회담의 개막과 더불어 확고해졌는데 유엔군과 공산군은 마지막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태도를 밝히고 나섰으나 내심으로는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넣을지 모를 대규모 공세작전을 자제하면서 전투를 하였다.

적어도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을 격멸하기 위한 전면공세는 이득에 비하여 매우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협상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은 이른바 '적극방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는 소규모의 제한공격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적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여 적의 공격 기도를 없애려 하였다.

유엔군의 향후 목표는 휴전협상의 과정에서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지상전에서의 전투양상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주요 작전은 회담이 교착되었을 때나 난항을 보일 때에 적에게 압력을 가하여 양

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록 동해안에서는 북위 42도 5분 이남의 해역과 서해안에서 북위 39도 37분 이남의 해역으로 제한시켜 봉쇄하였으나, 해군 작전은 봉쇄작전, 함포지원작전, 군수지원작전 등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 1951년 6월 20일 스미스 제독의 후임으로 제95기동부대사령관으로 부임한 다이어(George. C. Dyer) 해군소장의 지휘에 따라 해군작전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해군이 육상의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힐수록 휴전회담에서의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57]

기동성 있게 적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군의 전투수단은 항모를 이용한 항모강습이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신속한 기동력을 이용하여 접근, 함재기를 이용한 공습을 전개하는 작전이었다. 휴전회담이 군사분계선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1951년 8월, 제77기동부대는 소련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 물자집결지인 나진을 강타하였고,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갑산을 기습공격하여 북한 고위간부회의에 참석해 있던 북한 수뇌부 509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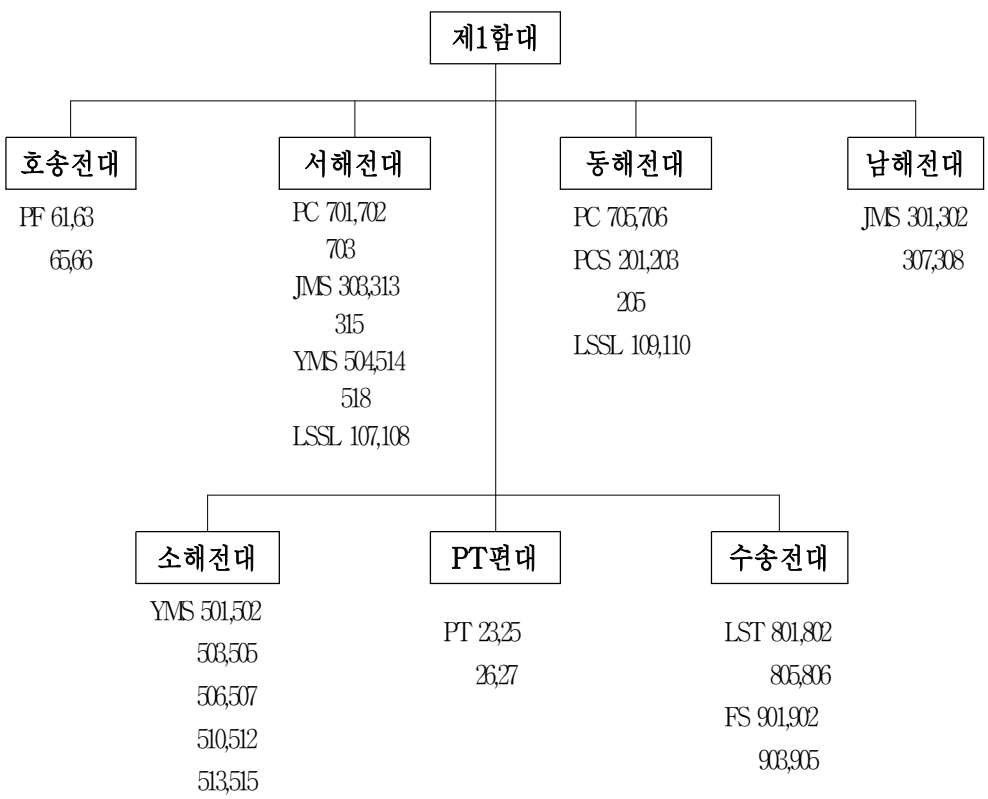
1951년 10월 말부터 다시 재개된 휴전협상은 포로교환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해군은 공산군 측에 회담재개의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전쟁능력을 박탈하기 위해 북한의 군수시설 들에 대한 무력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의 해군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유엔해군의 임무가 확대됨과 동시에 한국해군의 임무와 역할 역시 확대되면서 한국해군의 재정비 필요성과 역할의 증대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었다. 한국해군은 1950년 9월 12일 제95기동부대의 제95.7기동전단(TG 95.7)로 편성되어 동·서해상에서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해군은 적 배후의 크고 작은 여러 도서를 확보하여 적의 해안포대를 탐색 공격하고 적의 기뢰부설을 방지하며 적의 해상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작전하였다.

원래 한국해군의 작전부대는 제1·2·3정대 및 훈련정대로 편성되어 동·서·남해의 해상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 해군은 서해안의 해상봉쇄작전을 강화하고 해군본부에서 직접 작전지휘 및 지원업무를 장악하기 위하여 1950년 8월 16일 제1정대를 제1함대로 증편하였다.

그 후 제1함대는 1950년 12월 15일에 제2정대, 1951년 1월 5일에 제3정대를 각각 통합하였다. 그리고 해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작전과 종합적인 군수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1952년 1월 5일에 제1함대를 개편하여 예하에 호송·서해·동해·남해·수송·소해전대 및 PT편대 등 7개 전·편대를 편성하였다.[58]

<표 7-6> 한국해군 제1함대 기구도[59]



함대사령관으로는 해군총참모장 손원일이 초대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손원일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자 1953년 5월 24일 부로 박옥규 중장이 제2대 함대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한편 6·25전쟁 기간 동안 한국해군은 30척의 함정을 획득하면서 해군의 전투

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함정을 획득함으로써 한국해군은 상륙작전, 경비작전, 호송작전, 수송작전, 함포지원작전 등의 성분작전이 가능한 해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경비작전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후 지상전이 교착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해군은 그 해 10월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동·서·남해에서 조직적인 경비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해군은 일련의 해군작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해안선 일대에 구축한 공산군의 해안포대와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어선을 이용한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군 함정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군은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각 도서에 대한 공산군의 기습작전 기도를 사전에 탐지하여 분쇄하였으며, 해안일대의 공산군 진지에 함포사격을 가하고 아군 유격대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산군의 배후를 교란하였다. 동시에 해군은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지상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 동해안 경비작전

1951년 10월 7일 이후로 북한군은 주요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직사포, 대전차포, 야포 등으로 해안지대에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해안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주요 해안지대에는 지뢰를 매설하여 아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있었다. 특히 원산부근에서 공산군은 아군이 주둔 중인 영흥만 각 도서의 병력, 장비, 기타 함대의 이동상황 등을 탐지할 목적으로 밀정을 보내고 혹은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아군의 주둔 중인 각 도서에 잠입시켰으며 후방고지 부근 일대에 병력을 증원하였다. 한편 갈마반도에는 적의 야포 박격포진지가 구축되어 때때로 아군의 주둔

중인 황토도, 신도, 소도 등에 위협사격을 가하여 왔다. 그리고 1일 평균 4개의 기뢰를 부설시켜 바다로부터의 공세에 대비하였다.[60]

그러나 유엔해군과 공군의 연속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군사시설, 수송기관 등을 완전히 파괴당한 적은 전투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간혹 우마차나 지게 등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전쟁물자를 남방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산군의 행동에 대해 한국 해군은 동해안 일대 해상경비를 목적으로 각 함정이 수시 작전명령에 의거 출동하여 각각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작전수행 중 특히 공산군의 동태와 지상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공산군의 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으로서 해상작전의 유기적인 함정운항의 원활을 기하는 한편 지상군과 긴밀한 연락과 지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해안 경비작전은 기간별로 3개의 작전으로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1951년 10월부터 1952년 2월까지의 '28작전'과 1952년 4월부터 1952년 12월까지의 '42작전', 마지막으로 1953년 1월부터 휴전성립 때까지 실시한 '묘한작전'이다.

28작전 기간 중 주요전투는 1951년 11월 29일 원산지구에 주둔 중인 북한군 약 150명이 목선 5척에 편승하여 아군 주둔지인 황토도에 소총 및 수류탄 등으로 기습한 전투이다. 이에 아군 해병대는 약 1시간에 걸쳐 교전 끝에 공산군을 완전히 격퇴시켰으며, 이 결과 아군은 소대장을 비롯한 7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으나 공산군 사살 15명 및 목선 2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PF-65함, PC-703함, YMS-518정은 12월 22일, 동해봉쇄구역을 경비 중 원산 갈마반도의 공산군으로부터 박격포사격을 받고 즉시 적진에 대하여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공산군의 토치카 수개를 파괴하였다. 12월 23일에는 역시 PF-65, PC-703함은 전일과 같은 박격포사격을 받고 즉시 대응하여 공산군을 격멸하였다. 24일에는 PF-65함, PC-703함 및 YMS-518정은 동해안 봉쇄해역을 경비 중 여도 부근에 출몰한 적 함정 2척을 격침시켰다.

28작전 기간 중 있었던 가장 큰 사건으로서 12월 26일 원산항 봉쇄작전을 수행 중이던 PC-704함이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함으로서 승조원 57명이 전원 전사한 것이다. 함장은 해사 1기생 이태영 소령[61]이었다.

2) 서해안 경비작전

1951년 10월 이후의 서해안에서 북한군은 흥미반도와 옹진반도 등 해안일대에 진지를 설치하여 아군이 확보 중인 도서에 위협을 가했고, 아군 유격대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증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군 함정의 동태를 파악하고, 기뢰 부설을 계속하고 아군이 점령한 도서를 빼앗기 위한 상륙기습을 시도하였다.

공산군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 협력하여 경비작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고, 아군 유격대의 적진 기습을 해상포격 및 보급 등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배수톤수가 작은 한국해군 함정은 서해안과 같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서해안 경비작전도 동해안 경비작전처럼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탁수작전'과 1952년 4월부터 1952년 12월까지의 '충무작전', 마지막으로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금각작전' 등 3개의 작전으로 실시되었다.

탁수작전 기간의 주요전투는 다음과 같다. 1951년 10월 29일 북한군 약 1개 소대가 용호도 동북방 7km 지점인 인평으로부터 아군이 확보 중인 신도(薪島)에 상륙을 기도하자 이를 탐지한 JMS-303정은 포격으로 공산군을 섬멸하였다. 또한 11월 12일 아침 북한군 약 45명이 행동을 개시하여 용호도에 박격포와 중화기 등으로 위협사격을 가하여 왔으므로 JMS-303정과 임무를 교대하여 이 지역 경비작전에 임하고 있던 JMS-309정이 함포사격을 가하여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는 공산군을 격퇴시켰다.

JMS-302정은 12월 6일, 서해안 용호도 근해를 경비하던 중 신천군(信川郡) 남부면 청풍리에 중공군 사단본부(병력 약 2,500명)가 있고, 벽성군(碧城郡) 경단면 용천리 천기동에 공산군 신병훈련소가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적진에 대하여 포격을 가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서해에서의 해군작전에서 영국함대와의 작전지휘권 문제가 발생하자 1951년 12월 23일 부로 서해전대를 편성하고 초대사령에 해군중령 민영구(閔永玖)가 임명되었다.

PC-701함은 12월 26일, JMS-302, 303정 및 유격대원이 분승한 범선 2척을 대동하고 진남포 입구 석도 근해에 이르러 유격대를 청양도(靑洋島)에 기습상륙시키고 지원포격을 실시하여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다.

JMS-315정은 12월 29일, 서해안 석도 경비 중 적정을 수집하기 위하여 기습상륙한 아군 유격대에 대하여 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해병대 서해안 석도 부대는 영국함대와 연합하여 석도 서쪽 2,000야드 해점에 출현한 적선 2척을 격침시켰다.

3) 남해안 경비작전

남해안 일대에는 일본, 중국 등으로 왕래하는 밀수선이 포항, 부산, 목포, 통영, 거제도, 마산, 삼천포, 여수 등지로 빈번히 출입하며 밀수품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전시 국내경제를 교란시켰다. 뿐만 아니라 간첩의 준동과 밀수선의 간첩활동으로 군사기밀을 탐지당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이를 차단하는 한편, 어로구역확장과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선박에 대한 처치와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처리, 인접 해양주권선언선 등 경비봉쇄를 목적으로 엄중한 경비를 실시하였다.

남해의 밀수선은 4톤에서 50톤급의 발동선 혹은 범선으로 왕래가 빈번하여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고급 사치품, 포목, 양복지, 양주, 약품, 일용품 등의 밀수를 자행하였다. 특히 통영, 삼천포, 거제도, 마산 부근에 출입이 심하였다. 밀수선은 동해에서는 일본 마쯔에(松江), 남해에서는 일본 쓰시마섬(對馬島), 목포 이북 지역에서는 중국 스다오(石島)에서 왔다.

남해안의 경비작전은 시기별로 1951년 10월부터 1952년 6월까지의 '목항작전'과 195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한산작전', 끝으로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노량작전'으로 실시되었다.

위에서 설명된 1951년 10월 목항작전이 시작되면서 YMS-504정과 22정을 해군총참모장 직속 하에 두고 부산, 포항, 진해를 모항으로 JMS급 함정을 정찰정으로 1척씩 대기시켰다. 부산은 총참모장이 직접 지휘하고 진해, 포항은 통제부사령장

관이 총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지휘하였다.

해군 경비함정은 수시로 지시된 구역을 저속으로 순항하여 남해상에서 항해 중인 일반선박을 검색하고 밀수선임이 확인될 때는 나포하여 즉시 본부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반선박에 있어서도 선적증명서 혹은 출항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박과 선원의 도민증(또는 신분증명서), 병적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17세 ~ 25세 대상)를 엄중 경계하였다.

경비정은 포항에 1척, 부산에 7척, 진해에 2척으로 총 10척 중 3척이 각각 출동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3. 송화(松禾)지구 전투

1)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송화지구 전투 지휘관은 YMS-510정장 김태석 중위, YMS-513정장 유관식 대위, YMS-505정장 강기헌 중위 및 YMS-503정장 김형배 대위였다.

함 정	계급/성명	함 정	계급/성명
YMS-510정	중위 김태석(金泰錫)	YMS-505정	중위 강기헌(姜基憲)
YMS-513정	대위 유관식(劉寬植)	YMS-503정	대위 김형배(金炯培)

2) 전투 이전의 개황

1951년 9월 경, 문산-연천-철원-금화-고성을 잇는 선으로 지상전선이 거의 정착되었을 무렵,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 연합으로 동해안에서 북위 42도 5분 이남의 해역과 서해안에서 북위 39도 37분 이남의 해역을 지속적으로 봉쇄하는 가운데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아군이 이미 확보 중인 도서에서의 경비를 계속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적의 해안포화를 무릅쓰면서 적 진지를 공격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특히 황해도 초도를 거점으로 유격활동을 전개 중인 통칭 "수월부대[62]"와 협동하여 기습상륙전을 수행하는 한편 동해안에서는 원산만 일대의 적 진지와 강원도 통천지역의 북한 해군부대 본부에 대하여 포격을 실시하였다.

서부전선의 제1사단이 임진강에서 중공군 제19병단 및 북한 제1군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 무렵 황해도 해안 일대에 산재한 도서는 해군의 확보 하에 인근 육지로부터 탈출한 수많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었다. 피난한 애국청년들은 지상으로 기습적인 상륙을 실시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다.

특히 수월부대(水月部隊)의 애국청년들은 식량과 탄약의 부족을 극복하면서 서해 도서를 사수하고 있었다. 백아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8군 소속의 정보장교의 지원 하에 기습상륙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는 15~20명의 소부대가 적 지역에 깊이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이 수집한 첩보에 의하면 황해도 송화군 해안일대에는 풍해면(豊海面) 월곡리(月谷里)와 진풍면(眞風面)에 있는 199고지에 각각 대대본부를 두고 있는 제320부대와 경비대의 병력 800명이 82mm 박격포 10문과 경기관총 15정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는 정규부대와는 달리 1개 대대가 200명으로, 중대는 70명, 소대는 2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주력부대는 해안선으로부터 4~6km 후방 고지에 참호를 구축하고 잠복하고 있으며, 송화군 진풍면 내안리(內安里)-학계리(鶴溪里)-월사리(月沙里) 그리고 상리면(上里面) 와룡리(臥龍里)와 운유면(雲遊面) 사기리(沙器里)의 각 해안에 초소를 세우고, 대인 지뢰를 매설하여 경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군이 확보 중인 초도(椒島) 및 석도(席島)에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고 후방에 대한 교란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1951년 9월 2일에 백아도의 미 정보장교는 수월부대의 기습상륙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이곳 해역을 경비 중인 YMS-510정과 YMS-513정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YMS-510정(정장, 중위 김태석)과 YMS-513정(정장, 대위 유관식)은 9월 3일 01시 30분에 수월부대 300명을 태우고, 상륙용 선박 10척과 함께 초도 소사리(蘇沙里)를 출항하였다. 이날 03시에 YMS-510정은 송화군 진풍면 학계리(북위 38도 32분 39초, 동경 125도 01분 24초)에 그리고 YMS-513정은 그 인근 해상(북위 38도 32분 34초, 동경 125도 01분 42초)에 도착하여 상륙을 실시하였다. 그 뒤 YMS-513정은 백아도 해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이곳을 출항하여 이동하였다.

수월부대는 08시 해안에 상륙하였고, 적정을 살피면서 대기하던 중 YMS-510정이 199고지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하자 이것을 공격신호로 수월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부대는 10시에 내안리에 있는 적의 중대본부를 점령하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199고지에 있는 대대본부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13시 30분, 199고지에 있는 공산군은 토치카로부터 중화기로써 사격을 시작하였다. 199고지 좌측에 있는 석란리(石灘里)와 학계리 그리고 월사리로부터 증원된 병력 400명이 반격을 실시하여 아군은 점차로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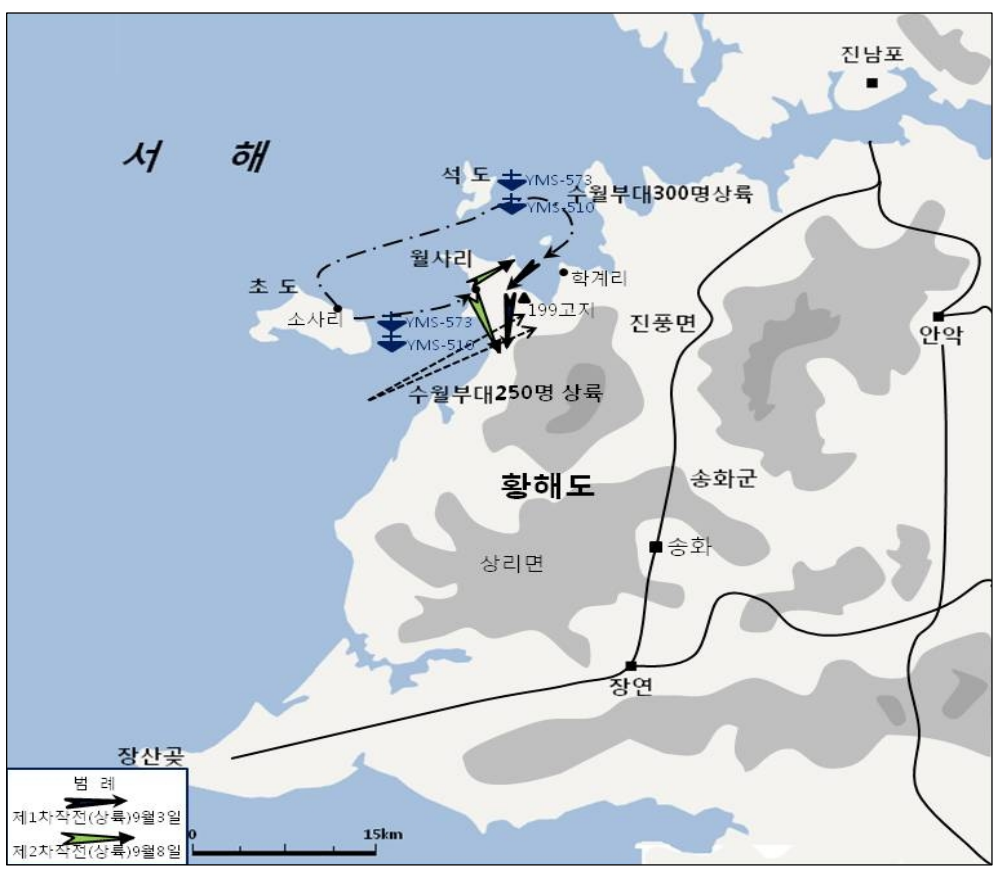
YMS-510정은 수월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함포로 199고지에 집중적인 포격을 실시하였다. 지원사격을 받은 아군은 적과 불과 70~100미터 거리를 두고 치열하게 화력을 집중하였다. 18시 30분, 함정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수월부대는 초도로 복귀하였다. YMS-510정은 차기 작전에 필요한 탄약과 기타 보급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인천으로부터 다시 초도로 복귀한 YMS-510정과 YMS-505정은 9월 8일 01시에 수월부대 250명을 태우고, 초도를 출항하였다. 02시 30분에 YMS-510정은 송화군 진풍면 내안리(북위 38도 25분 06초, 동경 124도 56분)에 그리고 YMS-505정은 그 부근의 해상(북위 38도 27분 21초, 동경 124도 57분 22초)에 정박하고, 상륙선박으로 수월부대의 상륙을 실시하였다. 06시 진풍면 내안리 해안에 상륙한 다음 전투태세에 돌입한 부대는 M1 예광탄 3발을 신호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YMS-510정과 YMS-505정 그리고 인근 해안에 있던 캐나다 구축함(215함)은 월

사리에 있는 적의 대대본부에 함포사격을 실시했으며, 이 지원포격의 엄호를 받으면서 수월부대는 적의 본부를 점령하였다.

아군은 08시 30분에 적 1개 소대를 포위하고 가능한 한 나포하려고 포위망을 압축하던 중에 캐나다 구축함의 오인사격으로 아군 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부대가 일단 100m 뒤로 후퇴하자 이때에 포위망 속에 있던 적은 탈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군은 중화기로 퇴각하는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여 대부분 사살하였다. 그러나 이날 10시에 지난 3일의 상황과 같이 다시 적 200명의 증원부대가 반격함에 따라 YMS-510정장은 상륙부대에게 철수를 명령하였다.

<상황도 7-8> 송화지구 전투



YMS-503정이 YMS-510정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현지에 도착하여 한국해군 3척의 함정과 캐나다 구축함 1척 등 총 4척이 엄호사격을 실시하면서 수월부대는 철수하였다. YMS-503정은 YMS-510정으로부터 9월 8일 17시에 임무를 인수하여 YMS-505정과 협동으로 초도 해역을 경비하였으며, 수월부대도 산발적으로 적진에 잠입하여 정보수집과 유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거둔 전과는 사살 102명, 나포 1명, 노획 경기관총 1정, 소총 11정이었으며, 손실은 전사 2명, 부상 9명이었다.

4. PF-62함 신미도 전투

1951년 4월 11일 서해에서 작전 중인 PF-62함(함장 : 이재송 해군중령)은 해군본부로부터 압록강 하류 신미도(身彌島)에 추락한 적 MIG-15기의 상태를 조사하고 가능하면 기체를 운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미 해군이 4월 10일 적 MIG-15기 1대를 격추시켰다고 통보하여 왔기 때문이다.

6·25전쟁 초기부터 유엔군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나, 1950년 11월부터 적은 새로운 기종인 소련제 제트 전투기 MIG-15기를 등장시켜 유엔군의 제공권에 도전해 왔다. MIG-15기는 몇 가지 성능에서 유엔군의 전투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엔군에서는 이 새로운 전투기의 성능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체의 입수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이다.[63]

PF-62함장은 해군본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4월 12일 06시 50분에 백령도를 출항하여 오후 12시 5분에 대청도(大靑島)에 이르러 영국 구축함 와라문가(Warramunga)함과 만나 앞으로의 행동을 협의하고 오후 4시 17분에 다시 백령도로 돌아와 예하 함정인 JMS-308(토성)정과 YMS-512(구월산) 및 515(경산)정을 지휘하여 오후 5시 25분에 신미도를 향하여 출동하였다. 13일 풍랑이 심한 상태에서 대화도(大和島)와 소화도(小和島) 근해에 도착한 아군 함정들은 악화된 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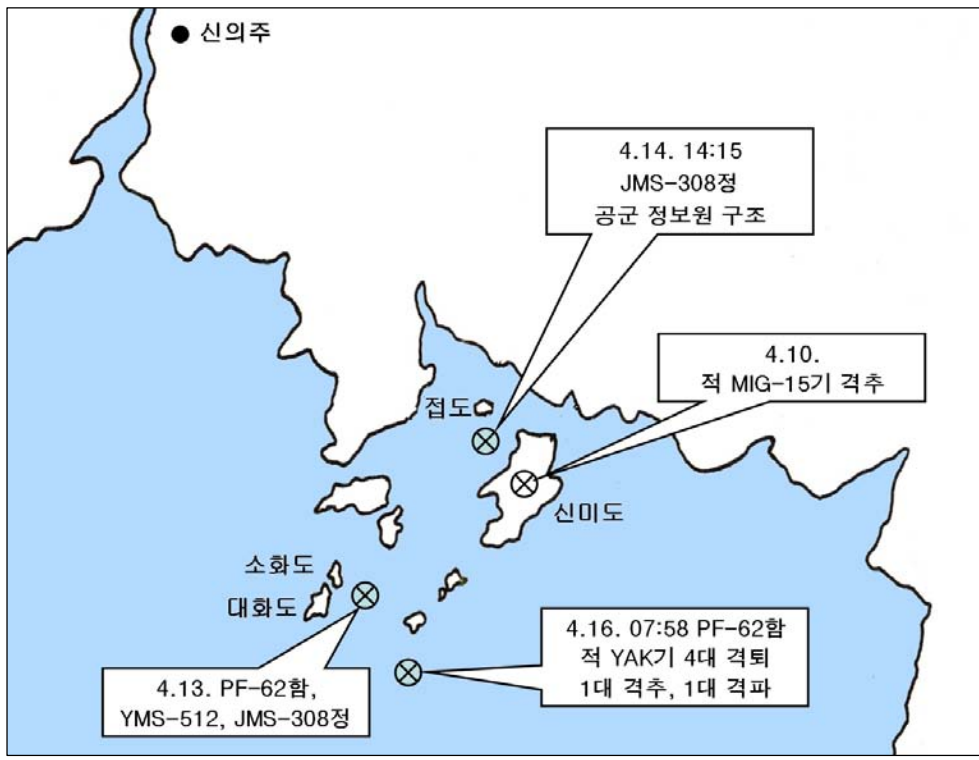
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오후 6시 25분에 62함은 갑판사관 이학홍(李學洪)의 지휘로 총 8명의 장병을 소화도에 상륙시켜 신미도에 대한 적정을 탐지하게 하였다. 14일 오전 6시 20분에 묘박지를 출발한 함정들은 신미도 근해에 도착한 후 항해 경비를 하면서 격추된 MIG기를 탐색하였다.

이날 오후 2시 15분에 308정은 신미도 서쪽에 위치한 접도(蝶島 속칭 나비섬)에서 한국 공군의 특수공작대원 16명과 이들이 동행한 정보원 5명을 구출하게 되었다.[64] 이 공작대는 10일 MiG-15기의 기체를 회수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신미도에 낙하산으로 투입되었으나, 기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의 공격을 받아 접도로 이동하여 구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65] 이들은 다음날 15일 저녁 8시에 PF-62함으로 인계하였다. 15일 신미도 근해를 경비 중이던 512정이 오후 5시 5분에 이 섬 북동쪽 해역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일대는 간조 시에 개펄이 노출될 정도로 수심이 아주 얕은 해역이었다. 62함과 308정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에 나섰는데, 512정은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에 만조 시를 이용하여 자력으로 이탈하는 데 성공하였다. 4월 16일 아침에 아군 함정들은 신미도 근해에서 탐색과 경비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항해 경비를 하고 있던 62함이 오전 7시 58분에 갑자기 적 YAK 전투기 4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압록강 하류에 가까운 이 해역은 만주에 기지를 둔 적 항공기의 활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62함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침로 224도 16노트로 항진하고 있었다. 이때 적기 편대는 저공으로 산맥을 타고 해상에 출현하여, 집요한 태세로 공격을 가해 왔다. 적기 편대는 아침 해를 등지고 동쪽에서 기습해 왔는데, 이는 아군 함정의 감시를 기만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기 편대의 1차 공격은 이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 제1번기와 제2번기는 62함의 좌현 함미 방향으로부터 고도 약 120피트까지 급강하하여 우현으로 선회하면서 함수를 목표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해 왔다. 수백발의 기총탄이 갑판상에 작렬하였고, 폭탄은 명중되지 않고 62함의 주변에서 물기둥만 올라왔을 뿐이다. 이어서 제3번기도 62함의 중앙부를 향하여 함미로부터 기총소사를 가하고 좌현으로 빠져 나갔다.

<상황도 7-9> 신미도 작전 요도



이 시간 함정에서는 한참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행인 것은 직전에 전투배치훈련을 실시했고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직교대 시간으로 다소 어수선하기는 하였으나, 62함의 전 장병은 재빨리 전투배치에 들어갔는데, 적기가 제2차 공격을 하였을 때에는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적기 편대는 62함의 좌현 함미로부터 차례로 제2차 공격을 시작하였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62함의 각 포요원들은 적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하며 상승하려는 순간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화력을 집중하였다. 이 때 제1번기가 포탄에 명중되어 62함 전방 500야드 해상에 폭음과 함께 격추되었다. 이어서 나머지 적기 3대가 기총소사를 가하고 좌회전하면서 상승하였다. 적

기 3대가 다시 3차 공격을 시도하였는데, 좌현 상공으로부터 기총소사를 가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에 적기 1대가 포탄에 명중하여 동체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북쪽방향으로 도주하였고 나머지 2대도 따라서 도주하였다.

이 전투는 13분 동안 진행되었으나, 62함은 적기 4대 가운데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파손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62함은 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상당수가 62함에서 실습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사 4기생들이었다. 당시 4기생들은 1950년 12월 14일부터 장장 7개월에 걸친 제3차 실습을 위해 4기생 총원 71명이 훈육관 해사 3기 이학홍(李學洪) 중위의 인솔로 62함에 승조했는데 실습 중 신미도 전투에 참가했던 것이다. 이들 중 특히 3인치 포요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4기생 중에서 이흥섭(李興燮) 생도가 부상을 크게 당하였다.

적기가 투하한 폭탄이 수중에서 폭발하는 충격으로 62함 함수 좌현 흘수선 아래에 상당한 파손이 생겨 침수가 심하였다. 그 결과 배가 좌현으로 10도 가량이나 기울어져 갑판에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기관실, 사관실이 파손되었으며 함정 요소요소가 고열과 파편에 의해 휘어졌다. 제1탄약고와 냉장고에 침수된 것을 보수부원의 결사적 방수작업으로 침몰의 위기를 면하였으나 중갑판 위까지 침수를 보게 되어 비상용 펌프로 배수에 전력을 다하였다.

PF-62함의 긴급 SOS를 받고 미 해군함정이 잠시 후 모습을 드러냈는데 환자들을 우선 헬리콥터 편으로 미 해군함정에 옮겨 싣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물을 퍼내며 보수작업에 매진하였고 결국 미군의 도움으로 드디어 방수작업에 완전하게 성공하였다.[66]

다행스러운 일은 그 전날 있었던 이른바 '기름통 사건'이었다. 62함이 신미도 근해를 항해하던 중 미 해군 LST가 휘발유 드럼통 수십개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원들은 뜻밖의 수확에 신이 나서 앞뒤 생각없이 약 40드럼 정도를 건져 올려 후갑판에 쌓아 두었다. 이 장면을 본 이재송 함장의 머리 속으로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휘발유를 버렸을 것인가 이대로 휘발유 드럼통을 쌓아두고 있다가 적의 공습을 받으면 어찌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다. 함장은 서둘러 회수한 석유를 다시 바다에 버리도록 명령하였다. 대원

들은 투덜대며 방금 힘들여 건져올렸던 휘발유를 마지못해 바다에 던졌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적의 기습을 받았으니 함장의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었더라면 PF-62함은 불세례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 전투에서 62함은 3인치 포탄 20발, 40밀리 80발 및 20밀리 400발을 발사하였다.[67] 그러나 이 극렬한 전투에서 기관부는 아무런 손상도 없이 전투 직후 원활한 운항을 계속하였으며, 추후 기관장 이종우(李鍾玗) 중령은 탁월한 현장통제로 인하여 미군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 후 62함은 대공전투에서 파손된 함체를 일본 요꼬스까에 있는 미 해군기지에서 수리하였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빠른 수리와 복귀가 절실했으나 두 달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당시 손원일 총참모장이 그 이유를 알아보게 했었는데 미 해군에서 PF-62함의 피격상황을 조사하느라고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쟁 중인데 배를 빨리 수리해 보내지 않고 무슨 조사를 그렇게 오래하는가' 내심 불만이었던 손원일 총참모장이었으나 몇 달 뒤 미국의 초청으로 샌디에이고(San Diego)에 있는 미 해군 교육부대를 방문해서 교육내용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6·25전쟁 중 적 항공기로부터 피격받은 우리 군함 PF-62함의 사례를 분석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PF-62함이 어떤 상황에서 항공기로부터 공격을 당했으며 함의 취약성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PF-62함은 다음해 1952년 5월 21일, 동해 울릉도 근해에서 미 유조함인 레이너(AO-3 : Rainer)함의 호송임무를 수행하던 중 짙은 안개 속에서 기동신호 해독 착오로 레이너함과 충돌하였다.

'TURN 9(턴 나이너 : 우현으로 90도 돌아라)'의 신호를 수신한 PF-62함이 '9 TURN(나이너 턴 : 좌현으로 90도 돌아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레이너함 함수에 62함의 좌현이 부딪쳐 보일러의 주 증기관이 파열돼 21명이 사망하고 2명 중상, 8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침몰을 간신히 면한 62함은 미 해군과 협력 구조작업을 하여 부산까지 가까스로 예인되었으나 수리 불가능 판정이 내려져 미국으로 반환되었고 이후 사격용 목표로 사용되며 결국 퇴역하고 말았다.

제 4 절 분석 및 교훈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지상군 전선이 대체로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기 시작한 1951년 6월을 전후하여 휴전회담이 제기되어, 쌍방이 전쟁을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의 주요 의제인 군사분계선 설정, 외국군 철수문제, 휴전실현을 위한 협정, 전쟁포로 협정 등의 의제를 토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난항을 겪게 되었다.

유엔군은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공산군에게 휴전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일부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는 등 군사력 과시를 통해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해군이 설정한 해군작전목표는 바다에서의 지속적인 함포지원사격으로 공산군 병력의 분산을 강요하고, 지상군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 제독이 이끄는 순양함과 구축함들은 동해안 해역에서 한국육군 제1군단에 적극적으로 함포지원을 하였다. “나는 백선엽 장군의 포병사령관”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버크 제독은 백 장군이 함포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68]

또한 해상봉쇄작전의 일환으로 원산항 포위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원산항내의 주요 전략도서를 거점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동해안의 최대항구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원산항을 해상에서 공략하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군의 항구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해상활동을 무력화시키며, 북측 후방을 교란시킴으로서 상

륙방어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의 배치를 강요할 수 있었다.

유엔군은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여 공산군의 보급체계를 와해시키려 했었다. 이는 1951년 5월 하순에 제안되어 6월 5일부터 11월 20일가지 실시된 작전으로 일명 “교살작전 또는 질식작전”이라고 하였다. 전선 이북 후방지역을 3곳으로 구분하여 미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 항공기들에게 각 1곳씩을 할당하여, 상대적으로 공습이 어려운 도로망을 파괴하는 작전이었다. 항공차단의 일환으로 나진 인근의 철도망과 도로망을 공습하는 작전이 미 해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유엔해군의 소해작전은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북한군이 아군의 상륙공격에 대비하여 해안방어부대와 장비를 강화시키고 있었고, 자신의 항만과 연안에 기뢰를 재부설하였기 때문이었다. 유엔해군은 원산항에서 함포지원함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뢰제거는 필수적인 임무였다. 유엔해군함정과 한국해군함정은 기뢰에 접촉되어 함정이 침몰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강 하구에서 해상시위작전을 실시하여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에서 38도선 이남과 임진강 서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상시위’라는 특수작전이 한강인근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로 가는 해상접근로의 확보는 전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공산군의 통제 하에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1951년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1월 27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작전으로 휴전회담에서 쟁점되었던 임진강 서쪽지역은 유엔군 측 점령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휴전회담에 난항을 겪고 고착상태에 빠지면서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해군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원래 한국해군은 제1·2·3정대 및 훈련정대로 편성되어 동·서·남해의 해상경비 및 봉쇄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을 해군본부에서 직접 작전지휘 및 통제하기 위해서 1950년 8월 16일 제1정대를 제1함대로 증편하였다.

한국해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작전과 종합적인 군수지원의 필

요성에 따라 1952년 1월 5일에 제1함대를 개편하여 예하에 호송·서해·동해·남해·수송·소해전대 및 PT편대 등 7개 전·편대를 편성하였다.

한국해군은 동해, 서해, 남해안에서 체계적으로 작전을 실시하여 해안선 일대에 구축한 공산군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저지하였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아군 유격대의 상륙기습 활동을 지원하여 공산군의 배후를 교란하였다. 또한 해군은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지상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동해안에서는 1951년 10월부터 1952년 2월까지 일명 '28작전'을 실시하였다. 11월 29일 원산항 앞바다에 있는 황토도에 기습한 북한군을 격파하였으며, PF-65함, PC-703함, YMS-518정은 원산 해안방어진지의 공산군의 방어시설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무력화시키는 등 강력한 제해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상작전을 실시하였다.

서해안에서는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탁수작전'을 실시하여, 황해도지역 인근연안을 해상봉쇄하고 아군의 유격대 지원작전을 수행하였다. 남해안에서는 1951년 10월부터 1952년 6월까지의 '목항작전'을 실시하여, 이 지역에 출몰하는 밀수선박을 단속하고, 나포하는 등 해상작전을 전개하였다.

주요 전투로는 초도에 주둔하고 있던 수월부대가 황해도 송화군에 상륙하여 기습공격을 실시했던 송화(松禾)지구 전투였다. 이는 송화군에 배치된 공산군의 병력이 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초도와 석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실시된 작전이었다. 이러한 유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해군 함정과 북한 공군기 사이에서 최초로 벌어진 신미도 전투이다. PF-62함은 추락한 MiG기 동체 확인을 위해 평안북도 서해안에 위치한 신미도로 출동하였으나, 공산군 YAK 4대의 공격을 받았다. 그 중 1대는 격추를 시켰고, 1대는 포탄에 맞아 북으로 도주하였다. 이 전투를 통해 함정의 대공방어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작전결과 및 교훈

유엔해군과 한군해군은 함포지원사격, 원산항 포위작전, 항공차단작전, 소해작전, 한강주변 시위작전, 한국해군의 동·서·남해 경비작전, 황해도 송화지구 전투, PF-62함의 신미도 전투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전 결과 및 교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엔해군이 수행한 작전에 대한 작전결과 및 교훈이다. 먼저 바다로부터 육상표적에 대한 함포지원사격으로 다음과 같은 작전결과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미 제1해병사단이 보유한 장비로 격파가 불가능한 표적을 함포사격으로 무력화시켰다. 한반도 동해안은 험준한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군은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후사면에 참호를 파고 병력과 장비를 엄폐할 수 있었다. 이런 장소에 있는 표적에 대해 미 제1해병사단이 보유한 전차와 야포로는 격파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해군 함정은 16인치, 11인치 등 대구경의 함포와 유능한 탄착수정요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악지형에 숨어있는 공산군 포대 진지뿐만 아니라 사단지휘소까지도 격파하여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러므로 해상에서 함포지원사격을 받은 미 제1해병사단은 지상에서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원산항 포위작전을 실시한 작전결과이다. 하나, 원산 해상 포위공격으로 공산군 병력을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둘, 원산항을 확보하여 유엔군이 원산이북으로 북진할 때 군수지원이 가능한 항구를 활용할 수 있었다. 셋, 원산에는 양호한 교통망이 있었는데 함포 및 항공강습으로 교통망을 교란하고 파괴하여 공산군이 원활하게 사용치 못하게 하였다. 넷, 북한에서 가장 좋은 항구를 장악함으로써 공산군의 어뢰활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섯, 공산군에 대한 정보획득과 아군의 게릴라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여섯, 원산항은 아군 조종사와 항공기 탐색 및 구조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곱, 북한의 주요 항구를 해상포위하여 육상 군사목표를 함포로 공격한다는 것은 공산군 측에게는 사기저하의 효과가 있었고, 아군에게는 사기를 높이는 심리적인 가치가 있었다.

셋째, 항공차단작전의 작전결과로써, 이 작전에서 해군, 해병대 및 공군항공기를 이용하여 도로망에 대한 무력화작전은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파괴된 도로망을 복구하기 위해서 파손된 도로 복구, 임시 도로 건설 및 하천 도하장비 설치 등의 노력을 강요당하였다. 특히 나진공습작전으로 군수보급시설의 75%를 파괴하였으며,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갑산공습작전으로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폭사했으며, 대부분의 기록들이 소멸됨으로써 공산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

넷째, 소해작전으로 항구 연안에서 활동 중인 함정에 안전항해를 보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다. 특히 소해작전을 수행하면서 기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효과적인 기뢰 대항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이 기뢰를 부설하기 이전에 기뢰 저장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소해작전은 미 해군의 소해함정의 유용성과 한계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였다. 다양한 소해함정이 6·25전쟁에서 활용되었는데, DMS형 소해함은 동해안에서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기 때문에 내파성이 강한 DMS형이 효과적인 소해작전이 가능하였다. 또한 제한된 선회 반경(즉 기동공간), 미흡한 통신시설 및 불안정성한 내파성에도 불구하고 136피트 길이의 목제 AMS형 소해정이 가장 유용한 함정이었다. 이 소해정은 천해는 물론 심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LST는 소해작전 본부로 활용되어, 소해전대의 기동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LST는 소해모함으로서 LSD 만큼 양호하지는 못하였다. LST 램프를 통한 주정의 진수와 회수가 매우 느렸고, 양호한 기상상태를 제외하고는 주정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위험하였다. 한편 LSD는 소주정 소해모함으로서 그리고 대형 소해함정의 군수품 제공과 지원세력으로서 적합한 함정이었다.

다섯째, 한강주변 시위작전으로 서울에 진입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었다. 이 작전은 휴전회담에 공산군 측이 임진강 서부해역(옹진반도 포함)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실시된 작전이었다.

이 지역은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르며, 기뢰가 부설된 곳으로 공산군은 유엔해군함정이 진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해역이었다. 그러나 고도의 조함술을 보유한 영국 해군 함정과 항해사들은 소형함정으로 수심을 측량하고, 발견된 기뢰를 소해하며, 이동 항로에 부표를 설치하여 일일 3마일씩 서에서 동으로 접근하였다.

교동도 북방까지 접근한 아군 함정은 북쪽에 위치한 공산군 진지를 파괴하고 예성강 입구에 있는 함선을 침몰시킴으로서 휴전회담에서 공산군 측으로부터 이 해역의 관할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해군은 유엔해군의 조직 하에 작전을 실시하였지만, 소형함정을 이용한 연안경비작전, 소해작전, 유격대 지원작전(송화지구 전투) 및 신미도 전투 등 단독으로 작전한 경우도 있었다.

먼저 동·서·남해안에서 조직적인 경비작전을 실시하였다. 동해안에서는 '28작전'을 실시하여 원산 앞바다에 있는 황토도에 침입한 북한군을 아군 해병대가 격퇴시켰으며, PF-65함은 갈마반도에 위치한 공산군의 박격포 사격을 받고 대응사격하여 적 진지를 파괴하였다. 또한 여도 인근한 출몰한 적함 2척을 수장시켰다. 이로써 원산항에 대한 봉쇄작전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으며, 동해안 전략도서에 대한 점령으로 함포사격에 대한 탄착수정 거점, 조종사 구출작전 및 적정을 파악하는 최전방의 관측소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

서해안에서는 '탁수작전'이 실시되었다. 먼저 아군이 확보 중인 신도에 공산군이 상륙을 실시하자 JMS-303정이 포격으로 저지하였고, 용호도에 대한 적군의 포격을 JMS-309정이 무력화시켰다. 또한 황해도 신천군 중공군 사단본부와 벽성군 신병훈련소에 포격을 실시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써 서해 5개 도서를 포함하여 황해도 인근 도서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적정에 대한 조기경보 진지로 활용할 수 있었고, 도서에서 활동 중인 유격대를 지원하여 기습상륙을 지원, 적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었다.

남해안에서는 '목항작전'이 수행되었다. 이는 접적지역인 동서해안에서 적과 대치하는 작전과 상이한 작전으로, 밀수선 검색 및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을 통제하는 작전이었다. 전쟁 기간 중에 남해안에서는 일본, 중국으로 왕래하는 선박이 남

해안 각 항구에 출입하여 전시 국내경제를 교란시켰다.

JMS급 함정을 중심으로 용의점이 있는 선박을 감시하고, 밀수선임으로 확인될 때는 나포하였다. 경비정은 포항, 부산, 진해 등 총 10척이 활동하여 밀수선 단속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밀수선박 단속으로 해상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남해안에 대한 영해를 보호할 수 있었다.

둘째, 황해도 송화지구에 기습상륙하여 공산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송화군 해안 인근의 199고지에 있는 대대급 공산군 부대는 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초도와 석도를 감시하고,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아군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백아도에 주둔한 미 정보장교는 1951년 9월, 초도에 있는 한국군 유격부대인 수월부대와 한국해군 함정을 이용하여 송화군에 기습상륙작전을 계획하여, YMS-510정과 YMS-513정이 참가하였다.

2회에 걸친 상륙기습작전으로 공산군 약 100여명을 사살하고 참호진지를 파괴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한국군 유격대의 기습작전으로 적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후방을 교란하였으며, 이런 작전은 차후에도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셋째, PF-62함은 평안북도 서해안에 있는 신미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공산군 YAK기와 전투를 실시하였다. 미 해군이 격추시킨 공산군 MiG기 기체를 운반지시를 받고, 한국해군 PF-62함은 백령도에서 출동하여 신미도로 이동하였다.

소련제 제트 전투기 MiG-15기는 유엔군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전투기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PF-62함은 JMS-308, YMS-512, 515등을 지휘하여 신미도로 이동하였던 것이었다.

신미도에서 MiG기 기체를 수색하던 PF-62함은 갑자기 북쪽에서 YAK기 4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에 즉각 대응한 PF-62함은 적기 4개 중에서 1대를 격추시키고, 1대를 파손시키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함정에서 실습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사4기생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YAK기에서 발사한 포탄에 의해 PF-62함

의 기관실, 사관실 등이 파손되었다. 보수요원들의 신속한 수리와 비상용 펌프를 이용한 배수조치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신미도 전투를 통하여 함정이 피격을 당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복구(Damage Control)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함정이 항공기에 대항하여 대공방어 전술향상과 장비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10일부터 하계 및 추계공세에 이어서 동계공세를 실시한 동년 12월까지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은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사격, 상륙위협작전, 항공차단작전 및 한강주변 시위작전 등을 실시하여 유엔군의 성공적인 작전수행과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다

(집필 : 최권삼)

북한해군 동서해안 무장·병력현황

1. 동해안 현황[69)]

항 목		병 력				소총·장총	자동소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대공기관총	대전차로켓포	대 포			박격포		차 량			말	선 박
		군 관	하사관	하전사	합 계							37mm 소구경대공포	45mm 대전차포	무반동포	82 mm	120 mm	경 차	화물차	특수차		
방어지역지휘부 및 참모부	편제상	214	156	405	775	41	134	2									14	82			
	실제	186	120	173	479	20	63										4	26			
해안선경비 참모부 및 부대	편제상	67	214	69	350	91	192			16		4					1	1			12
	실제	54	228	46	328	39	180										1				6
독립통신대대	편제상	53	140	281	475	309	57											18			
	실제	34	95	102	231	85	26														
독립공병대대	편제상	30	46	283	359	298	32										1	2			
	실제	18	25	64	107	36	6														
SNIZ	편제상	48	123	290	461	384	29														
	실제	35	163	61	259	121	57	7	1								1				
원산수로구역	편제상	11	10	3	24																
	실제	11	12		23																
장진수로구역	편제상	11	10	3	24																
	실제	17	3	1	21																
제24독립포병 기관총여단	편제상	719	1,630	4,510	6,859	4,561	1,219	137	118	54				36	19	12	9	49	9	438	
	실제	660	2,212	4,026	6,898	2,599	1,263	92	85	22	6		15	15	27	12	7	7	6	50	
제25독립포병 기관총여단	편제상	743	1,718	4,924	7,385	4,952	1,531	171	126	45				30	18	12	9	49	9	375	
	실제	677	1,762	3,570	6,009	3,557	769	88	50	18	14			24	25	12	6	17	3	65	
합계	편제상	1,896	4,047	10,769	16,712	10,636	3,194	310	244	115		4		66	37	24	34	201	18	873	12
	실제	1,692	4,620	8,043	14,355	6,457	2,364	187	136	40	20		23	39	52	24	19	50	9	115	6

2. 서해안 현황

항 목		병 력				소총·장총	자동소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대공기관총	대전차로켓포	대 포			박격포		차 량			말	선 박
		군 관	하사관	하전사	합 계							37mm 소구경대공포	45mm 대전차포	무반동포	82 mm	120 mm	경 차	화물차	특수차		
방어지역지휘부 및 참모부	편제상	214	157	425	796	520	133	2									14	73			
	실제	137	76	76	287	4	47										2	27			
해안선경비 참모부 및 부대	편제상	35	75	24	134	30	67			5			2					1			
	실제	30	69	10	109	7	42														
독립통신대대	편제상	53	140	282	475	359	57											18			
	실제	29	34	47	110																
독립공병대대	편제상	30	46	283	359	298	32										1	2			
	실제	23	14	67	104		8														
SNIZ	편제상	25	51	111	187	142	10														
	실제	20	44	110	174	22	12	3													
남포수로구역	편제상	11	12	1	24																
	실제	10			10		2														
제23독립포병 기관총여단	편제상	631	1,277	3,893	5,801	3,796	1,101	164	108	9				6	45	12					
	실제	560	1,532	2,929	5,021	2,138	751	58	57	5			43	3	48						
제26독립포병 기관총여단	편제상	719	1,630	4,510	6,859	4,561	1,219	137	119	54				36	9	12					
	실제	652	1,522	4,007	6,181	2,673	724	64	51	4				6	14	16					
합계	편제상	1,718	3,388	9,529	1,463	9,706	2,312	303	227	63			2	42	54	24					
	실제	1,461	3,291	7,246	1,199	4,844	1,584	125	109	9			43	9	62	16					

주(註)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서울: 국방부, 2001) 부록 「북한 해군 동서해안 무장·병력 현황」, 156쪽.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서울: 국방부, 2001) 부록 「북한 해군 동서해안 무장·병력 현황」, 164쪽.

3) 위스콘신(BB-64) : 배수톤수 57,540톤, 전장 887'3", 전폭 108'3", 흘수 28'11", 속력 33노트, 승조원 1,921명, 무장 16" 9문, 5" 20문, 40미리 20문, 종류 : Iowa 급; 위스콘신함은 1951년 10월26일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하여 12월 2일부터 한국군 제1군단과 미 제1해병사단에 대한 함포지원사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12월 6일 세인트 파울(St. Paul)함과 일시적으로 임무를 교대하였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저상륙작전 지원과 고성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을 지원하였다.
(http://www.history.navy.mil/danfs/w10/wisconsin-ii.htm)

4) 세인트 파울(CA-73) : 배수톤수 13,600톤, 전장 673'5", 전폭 70'10", 흘수 26'5", 속력 32노트, 승조원 1,700명, 무장 8" 9문, 5" 12문, 40미리 48문, 20미리 22문, 항공기 4대,
종류: Baltimore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s3/saint_paul-ii.htm)

5) 로체스터(CA-124) : 배수톤수 13,700톤, 전장 674'11", 전폭 70'10", 흘수 20'7", 속력 33노트, 승조원 1,142명, 무장 8" 9문, 5" 12문, 40미리 48문, 20미리 20문, 항공기 4대,
종류 : Oregon City 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r8/rochester-iii.htm)

6) 맨체스터(CL-83) : 배수톤수 10,000톤, 전장 610'1", 전폭 66'4", 흘수 25', 속력 33노트, 승조원 992명, 무장 6" 12문, 5" 12문, 40미리 28문, 20미리 10문, 종류 : Cleveland 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m3/manchester.htm)

7) 로스엔젤레스(CA-135) : 배수톤수 13,600톤, 전장 674'11", 전폭 70'10", 흘수 20'6",
속력 33노트, 승조원 1,142명, 무장 8" 9문, 5" 12문, 40미리 48문, 20미리 28문,
종류 : Baltimore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l8/los_angeles-ii..htm)

8)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pp. 326~328.

9) 스미스(A. E. Smith) 소장 후임으로 다이어 소장이 1951년 6월 20일 부임하여 제95기동 부대장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0) 영국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해 구역 해도는 서로 상이하여 정확한 수심을 알 수 없었고, 한강물의 시정도 불량하였으며, 암초가 많아 작전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Washington, 1962), p. 412.

11) Cagle and Manson, op. cit., pp. 388~397.

12) Ibid., pp. 398~399.

13) 동해안 해안포대 병력 및 포대 수는 부록 참조.

14) 피격된 6척의 함정(1951년 6월) : Everett(PF-8), LSMR-409, LSMR-525,
O'Brien(DD-725), LSMR-412, Helena(CA-75)

15) 피격된 2척의 함정(1951년 9월) : William Seiverling(DE-441), Heron(AMS-18)

16) Cagle and Manson, op. cit., pp. 410~413.

17) 뉴저지(BB-62) : 배수톤수 45,000톤, 전장 887'7", 전폭 108'1", 흘수 28'11", 속력 33노트, 승조원 1,921명, 무장 16" 9문, 5" 20문, 종류 : Iowa 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n4/new_jersey-ii.htm)

18) 톨레도(CA-133) : 배수톤수 13,600톤, 전장 674'11", 전폭 70'10", 흘수 20'6", 속력 33노트, 승조원 1,142명, 무장 8" 9문, 5" 12문, 40미리 40문, 20미리 28문, 항공기 4대, 종류 : Baltimore 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n4/new_jersey-ii.htm)

19) USS Toledo(F), HMS Glory, USS Parks, John R. Craig, Orleck, Samuel N. Moore

20) LSMR-409, 412, 525

21) 시드니 함은 첫 번째 날에 항공기가 89쏘티, 두 번째 날에 출격 147쏘티 출격하여 기록을 갱신하였다.

22) 순양함 ; HMS Belfast, 구축함 ; HMS Concord, USS Colahan, HMCS Cayuga, HMS Comus, USS Shields

23) Cagle and Manson, op. cit., pp. 413~414.

24) Ibid., pp. 422~423.

25) Ibid., pp. 241~243.

26) 나진공습을 종료하고 복귀하던 중에 F2H 1대가 고장을 일으켜서 에섹스 함에 착함하다가 갑판에 있던 항공기와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항공기 4대가 파괴되고, 7명이 사망, 2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Field, op. cit., p. 417.

27) Cagle and Manson, op. cit., pp. 243~247.

28) Ibid., pp. 247~248.

29) 리차드(CV-31) : 1944년 4월 29일 진수. 11월 26일 취역하였으며, 초대 함장은 룰(A. O. Rule) 대령이었음. 1951년 5월 29일부터 TF-77 기동부대에 배속되어 6·25전쟁에 참가하였음. 1952년 고저에 대한 상륙기만작전에 참가하고, 1971년 퇴역함. (http://www.history.navy.mil/dans/b8/bon-homme-richard-ii.htm)

30) 에섹스(CV-9) : 배수톤수 27,000톤, 전장 872', 전폭 93', 흘수 28'7", 속력 33노트, 승조원 3,448명, 무장 5" 12문, 종류: Essex급. (http://www.history.navy.mil/dans/e5/essex-iv.htm)

31) 앤티탐(CV-36) : 배수톤수 27,000톤, 전장 888', 전폭 93', 흘수 28'7", 속력 32.7노트, 승조원 2,448명, 항공기 80대 이상, 무장 5" 12문, 종류: Essex급. (http://www.history.navy.mil/dans/a9/antietam-ii.htm)

32) Cagle and Manson, op. cit., pp. 248~253.

33) 머캔서(AMS-26) : 배수톤수 272톤, 전장 136', 전폭 25'4", 흘수 8', 속력 15노트, 무장 3" 1문, 20미리 4문, 폭뢰 2기, 종류 : YMS-1급; 1950년 9월 16일 괌에서 출항하여 일본 사세보로 이동. 6·25전쟁에 참가하여 TF-95에 배속됨. (http://www.history.navy.mil/danfs/m9/merganser-ii.htm)

34) 루손(ARG-2) : 배수톤수 4,023톤, 전장 441'6", 전폭 56'11", 흘수 23', 속력 12노트, 승조원 521명, 무장 5" 1문, 3" 3문, 40미리 4문, 20미리 12문, 종류: Luzon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133/luzon-ii.htm)

35) 커미트 루즈벨트(ARG-16) : 배수톤수 5,159톤, 전장 441'6", 전폭 56'11", 흘수 23', 속력 12.5노트, 승조원 401명, 무장 5" 1문, 3" 3문, 40미리 4문, 20미리 12문, 종류: Luzon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k3/kermit_roosevelt.htm)

36) Cagle and Manson, op. cit., pp. 193~194.

37) Ibid., p. 194.

38) 소해함 6척은 Incredible(함장, 대위 E. F. Flinn), Osprey(함장, 중위 P. Levin), Merganser(함장, 중위 D. J. O'Neill), Chatterer(함장, 중위 J. P. McMahon), Pelican(함장, 대위 Richard Cross), Mocking Bird(함장, 중위 Stanley Gary) 였다.

39) Cagle and Manson, op. cit., pp. 197~198.

40) HMS : Her(또는 His) Majesty's Ship(영국 군함), HMCS : Her(또는 His) Majesty's Canadian Ship(캐나다 군함)

41) Cagle and Manson, op. cit., pp. 198~199.

42) 레드헤드(AMS-34) : 배수톤수 320톤, 전장 136', 전폭 24'6", 흘수 10', 속력 15노트, 승조원 32명, 무장 3" 1문, 20미리 2문, 폭뢰 2기, 종류: YMS-135 (http://www.history.navy.mil/danfs/r3/redhead-i.htm)

43) 헤론(AMS-18) : 배수톤수 215톤, 전장 136', 전폭 24'6", 속력 13노트, 무장 3" 1문, 20미리 2문, 승조원 50명 (http://www.history.navy.mil/danfs/h5/heron-ii.htm)

44) Cagle and Manson, op. cit., pp. 199~201.

45) 도일(DMS-34) : 배수톤수 1,620톤, 전장 348'4", 전폭 36'1", 흘수 11'10", 속력 35노트, 승조원 208명, 무장 5" 4문, 어뢰 5기, 종류: Benson급; 1950년 6월 30일 샌디에고 출항하여 일본 사세보로 이동함. 사세보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이동시에 병력 수송함을 호송하고, 항공모함의 경계진 세력으로 운용됨. 9월 15일 장사동에서 한국 LST 문산호가 좌초되었을 때 구조활동을 지원하였음. (http://www.history.navy.mil/danfs/d5/doyle.htm)

46) 엔디코트(DMS-35) : 배수톤수 1,630톤, 전장 348'4", 전폭 36'1", 흘수 13'5", 속력 35노트, 승조원 208명, 무장 5" 4문, 어뢰 5기, 폭뢰 6기, 종류: Bristol 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e3/endicott.htm)

47) Cagle and Manson, op. cit., pp. 201~202.

48) 패미간(AM-376) : 배수톤수 1,250톤, 전장 221'1", 전폭 32'2", 흘수 10'9", 속력 18노트, 승조원 117명, 무장 3" 1문, 40미리 2문, 종류: Auk (http://www.history.navy.mil/danfs/p13/ptarmigan.htm)

49) 펠리칸(AMS-32) : 배수톤수 350톤, 전장 136', 전폭 24'6", 흘수 6'1", 속력 12노트, 승조원 50명, 무장 3" 1문, 종류 : YMS-136 (http://www.history.navy.mil/danfs/p4/pelican-ii.htm)

50) Cagle and Manson, op. cit., pp. 202~203.

51) 파트리지(AMS-31) : 배수톤수 350톤, 전장 136', 전폭 24'6", 흘수 6'1", 속력 12노트, 승조원 50명, 무장 3" 1문, 20미리 2문, 종류 : YMS-186; 파트리지 함은 1951년 2월 2일 원산항 근해에서 소해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기뢰를 접촉하여 침몰되었다. 이 함정은 2월 27일 함정세력표에서 삭제되었다.

(http://www.history.navy.mil/danfs/p2/partrige-ii.htm)

52) 월크(DD-723) : 배수톤수 2,200톤, 전장 376'6", 전폭 41'1", 흘수 15'8", 속력 34노트, 승조원 336명, 무장 5" 6문, 20미리 11문, 21" 어뢰 10기, 폭뢰 6기, 종류 : Allen M. Sumner; 미 해군 군사연구소 자료에는 전사자 9명, 부상자 4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http://www.history.navy.mil/danfs/w2/walke-iii.htm)

53) Cagle and Manson, op. cit., pp. 208~209.

54) 레드스타트(AM-378) : 배수톤수 1,250톤, 전장 221'1", 전폭 32'2", 흘수 10'9", 속력 18노트, 승조원 117명, 무장 3" 1문, 40미리 2문, 20미리 8문, 폭뢰 4기, 종류 : Auk 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r3/redstart.htm)

55) 덱스트라우스(AM-341) : 배수톤수 890톤, 전장 221'1", 전폭 32'2", 흘수 10'9", 속력 18노트, 승조원 105명, 무장 3" 1문, 종류 : Auk 급 (http://www.history.navy.mil/danfs/d4/dextrous.htm)

56) Cagle and Manson, op. cit., pp. 218~219.

57) Ibid, p. 322.

58)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서울 : 해군본부, 1978), 48쪽.

59)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2집, (서울: 해군본부, 1954), 208쪽.

60)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서울 : 해군본부, 1958), 15 ~ 16쪽.

61) 대한민국 정부는 이태영 소령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시켜 중령으로 추서되었고,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62) 황해도 은율군에서 유격활동을 하던 부대가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1951년 1월 17일 한국해군 함정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서해안의 석도를 거쳐 초도를 철수하였다. 구월산에서 은율읍 내의 중앙을 통해서 서쪽으로 흐르는 '수다리개울(수월천)'이 은율을 상징하고 있었으므로 수월 부대(水月部隊)라고 불렀다.;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국방부, 2003), 314~315쪽.

6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서울 : 국방부, 1972), 882쪽.

64)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3·4집 (계룡 : 해군본부, 2001), 37쪽.

65)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서울 : 국방부, 1972), 883쪽.

66) MiG기 잔해를 확보하는 기체수색작전은 유엔군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신미도 근해에서 기체 확보를 하지 못한 유엔군은 1951년 7월 20일 작전을 재개하여 추락한 MiG기의 잔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 Field, op. cit., p. 409.

67)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1집 (서울 : 해군본부, 1954), 179 ~ 180쪽.

68) 백선엽, 『군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1989), 195~196쪽.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③』 (서울 : 국방부, 2001), pp.262~265.



제 8 장 공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제 1 절 작전 개요

1. 전선 개황(1951.7.10.~12.31)

1951년 7월이 되면서 6·25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Jacob Malik)의 휴전협상 제안을 계기로 공산군과 유엔군 측 간의 휴전회담이 성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7월 10일 개성에서 미 해군 중장 조이(C. Turner Joy) 제독이 이끄는 유엔군 측 협상 대표단이 북한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인 남일(南日)이 이끄는 공산 측 대표단과 첫 대면을 함으로써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협상에서의 유리한 국면조성을 위한 쌍방 간의 적대행위는 계속되었다.

1951년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국군과 유엔군은 캔자스-와이오밍 선상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개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또한 공산군 측도 이 기간 중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시키고 유엔군 측의 공중폭격 및 포격에 대비한 갱도진지와 지상 방어진지 구축에 주력하면서 공격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은 7월 말부터 군사분계선 협상이 시작되자 양측 간의 지루한 설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결국 8월 23일 공산군 측이 개성지역에 대한 유엔공군의 폭격 사실을 날조하여 회담을 중지시킴으로써 회담전망은 불투명해져 버렸다. 한편 휴전협상 개막 이후 병력을 증강시킨 공산군은 7월 20일 경에는 유엔군 전초선으로부터 1~5㎞ 떨어진 지점의 주요지역 지형지물을 횡으로 연결한 전초저항선(OPLR : Outpost Line Resistance) 을 구축하고 유엔군에 대한 공격준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공산군의 전력증강과 전투준비의 균형을 깨고 휴전협상과 전투 중지로 인한 유

엔군의 이완된 전투의지를 새롭게 전환함과 아울러, 적을 압박하여 지체를 보이고 있는 휴전협상 타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한목표 공격 전략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동부전선 중요 전술지역을 확보하고자 1951년 7월 29일, 미 제1군단과 제10군단에 적방어선을 돌파하여 적 배치를 탐색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7월 31일 부터 시작된 최근 30년 이래 가장 극심한 장마로 인해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대우산(1178m)을 탈취한 상태에서 취소되었다.

이후 장마가 종료되고 8월 14일이 되자 밴 플리트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방어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계공세를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미 제10군단장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미 제10군단장은 먼저 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 8사단과 수도사단에는 해안(亥安) 분지(펀치 볼)를 공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해안 분지와 서화계곡 동측의 '낚시바늘(J Ridge)' 형상의 종격실 능선인 884-924-1031고지를 탈취하여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해안분지 동측 전선을 남강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까지 밀어 올려 동측 방에서 해안분지를 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미 제2사단에는 피의 능선(983고지)에 대한 공격지시가 내려졌고 이를 위해 미 제2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공격에 투입되었다. 미 제10군단 좌측을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7사단은 미 제2사단의 983고지 점령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983고지 서측의 554-883고지 공격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전은 유엔군의 하계공세로서, 1951년 8월 18일 개시되어 9월 25일에 일단락되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미 제10군단이 해안분지를 점령하고 동부지역의 방어선 개선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유엔군은 하계공세 이후에도 공산군의 진지보강과 전력증강을 저지하고 장기간의 전선 교착으로 인해 훈련된 유엔군이 침체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이어 추계공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추계공세도 하계공세와 마찬가지로 제한목표공격 전략 하에 중동부전선에서 국군 제8사단, 미 제2사단 등이 하계공세의 연장선에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작전 중점은 서부전선 미 제1군단과 중부전선 제9군단의 방어선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제1군단장 오대니얼(John W. O'Daniel) 소장은 철원-김화지역의 철로(鐵路) 확보와 방어선 개선을

위한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군단의 방어선을 전방으로 10㎞ 추진하여 역곡천 남안까지 진출시켜 방어선을 개선하고, 연천-철원 간 철도 및 병참선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다. 1951년 10월 3일 시작된 '특공작전'은 10월 19일에 종료되었다.

미 제1군단의 특공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미 제9군단장 호기(William H. Hoge) 중장은 군단 방어선 개선과 철원-김화 간 철로 및 도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 제1군단의 작전을 측면 지원할 목적으로 공산군의 주요 작전기지인 금성(金城)을 통제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시작하였다. 10월 10일 작전을 개시한 미 제9군단은 금성천(金城川)을 확보하고 금성 남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작전목표를 달성한 후 10월 23일에 작전을 종료하였다.

한편 8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하계공세를 통해 해안 분지를 점령하고 방어선을 개선한 중동부 전선의 미 제10군단에서는 예하 미 제2사단이 터치다운작전(Operation Touchdown)을 통해 10월 13일에는 단장의 능선을, 10월 15일에는 1220고지(김일성 능선) 점령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은 어은산 남쪽지역의 1090고지를 점령하였으며 또한 미 제2사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5사단도 가칠봉 북방의 1211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10군단은 통선골-문등리-해안분지선으로 전선을 밀어 올려 방어선을 개선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국군 제1군단 또한 수도사단이 월비산을 점령하고 전선을 남강까지 밀어 올렸다.

이처럼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하·추계 공세를 통해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방어선을 약 10㎞ 내외로 북상시켜 취약점을 개선하였고, 공산군 측 부대 운용의 균형을 파괴하고 공세역량의 증강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작전을 종료하였다.

유엔지상군의 공세가 종료되자 공산군은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피점령 고지군 및 전선 일부 지역에 대해 중·대대급의 소규모 반격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전을 실시하는 공산군의 의도는 전력을 집중하여 공격 때 마다 유엔군 2개 중대 혹은 1개 대대를 섬멸하고 피탈된 진지를 탈환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휴전협상 진행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 공산측은 반격작전을 통

해 총 26개 유엔군진지를 공격하여 9개진지를 점령하였다.[1)]

8월 23일 공산군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중단된 휴전협상은 유엔군 측의 재개 노력으로 10월 25일 장소를 바꿔 판문점에서 재개되었고 그간 최대 난항을 보였던 군사분계선 설정문제가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남강 하구 남쪽 감호를 연하는 약 237㎞에 달하는 선으로 확정되어 11월 27일 본회담에서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이전의 지역적이고 격렬한 진지쟁탈전을 중지하였고 전선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또한 양측은 진지를 강화하고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정찰대 운용과 소규모의 공세적 전투정찰 활동을 실시하는 가운데 휴전협상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1951년 12월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듯 전선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에 준동하면서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군용무기와 보급품을 약탈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던 공비에 대한 토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국군은 1951년 11월 25일 백야전 전투사령부(사령관 : 백선엽 소장)를 설치하고 기간 중 제 1기 작전(1951.12.2~14)과 제 2기 작전(1951.12.16.~1952.1.4.)을 수행하여 약 4,000명 이상의 공비를 사살하고 약 4,00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2)]

2. 공산공군 작전

이 시기(1951.7.10.~12.31) 공산공군은 1951년 9월 말에 중국인민지원군공군(이하 '중국공군')이 MiG-15기를 보유한 2개 비행사단을 안둥기지로 전개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북한공군이 MiG-15기를 보유한 제1전투비행사단을 창설하여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이미 북한 서북부 청천강 이북 상공에서 유엔공군과 격돌하고 있던 소련공군의 3개 비행사단 및 1개 비행연대와 더불어 3개 공산국가의 연합공군세력이 형성되었다.

북한공군은 10월 중 창설된 제1전투비행사단(MiG-15 보유)을 신의주와 의주기지에 배치하여 평양 및 서북부 상공에서 유엔공군 F-86에 대한 방어제공 임무와 기타 전폭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중국 훈춘비행장에 주둔한 제2전투비행단(La-9 보유)은 북한 동북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1951년 10월부터는 공산공군 제1제대(소련공군 제303, 324전투비행사단 및 중국공군 전투비행사단)의 전력을 후속 증원하는 제2제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11혼성비행사단은 IL-10기를 이용한 유엔 지상군에 대한 공습(폭격 및 기총사격)과 La-9 전투기를 이용해 방어제공임무를 수행하였고 폭격기 사단은 PO-2기를 이용하여 야간에 유엔군의 비행장 및 병력 주둔지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소련공군은 1951년도 전반기에 배치된 3개 비행사단, 1개 야간비행연대와 지원부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9월에 들어서면서 수적 우세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청천강 이북 상공인 미그회랑은 물론 평양 이남 상공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매우 공세적인 활동을 펼쳤다.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은 새로이 참전한 중국공군과 북한공군을 작전통제하면서 공산공군의 작전전반을 지도하였고 중국 및 북한공군은 소련공군의 주도적인 작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소련공군은 유엔공군 F-86을 제외한 B-29 중폭격기와 전폭기를 주요표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으며, 9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청천강 이북 공역에서 유엔공군의 공중우세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중국공군은 1950년 10월에 지상군이 참전한 이후 소련공군의 공중엄호 부재로 인해 유엔공군의 공중타격에 의해 심각한 손실을 입자 최초 1951년 1월에 참전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중국공군의 역량부족으로 참전에 좌절을 겪은 이후에도 펑더화이를 비롯한 중공군 지휘관의 조속한 참전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공군은 내부적으로 참전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조종사 실전역량 배양을 위해 제4비행사단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소련공군 제50전투비행사단에 파견하여 소련 조종사와 함께 실제전투에 참여하게 하였고, 1951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전투비행제대가 참가하여 공중조작, 편대비행, 편대군 폭격훈련, 대지공격 등 일련의 집중화된 훈련을 수행하였다. 또한 4월 말에는

선양외곽에서 공·지 전투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공세전역에서의 항공 육군 작전기동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3개 비행사단 총 180대가 참가하여 비행장 공격, 편대군 요격,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점검하는 대규모 공중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참전 시 북한과의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작전체제 구축을 위해 1951년 3월 15일에 안둥기지에 조·중연합공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참전준비를 진행해온 중국공군은 1951년 8월 18일부터 유엔공군의 대규모 철도차단작전인 스트랭글 작전(Operation Strangle)이 개시되고 전선으로의 보급 활동이 심각한 제약을 받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가 계획한 '반 교살작전(反 絞殺作戰)'시행을 위해 1951년 9월 중순 중국공군 창설 이래 최초의 참전에 돌입하였다. 최초의 중국공군 참전부대는 제4비행사단이며, 이어서 윤번제 작전개념에 의해 제3사단이 참전하였고 12월까지 3개 비행사단이 추가로 참전하였다. 이들 중국공군 참전전력은 중국지역인 안둥과 다둥고우 비행장에 주둔하면서 소련공군 비행사단과 함께 공산공군의 제1제대로 활약하였고, 유엔공군에 대항하여 평양이북의 철도수송과 비행장 건설 엄호를 위해 공중전을 벌였다.

또한 11월에는 유엔군 관할 아래 있는 평북 철산군 전면 서해상에 위치한 도서(島嶼)들을 점령하기 위해 1개 전투비행사단과 TU-2 폭격기를 보유한 2개 폭격비행사단과 중공군 제50군단이 합동작전을 벌였다. 이 기간 중국공군은 매우 적극적이며 의욕적인 전투 활동을 벌여 유엔공군에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

<표 8-1> 공산군 측 공군 전투부대 현황(1951년 11월말 기준)

부 대		보유전력	주둔지
소련	제303전투비행사단	85/MiG-15	다둥고우
	제324전투비행사단	52/MiG-15 bis	안둥
	제151전투비행사단	52/MiG-15	선양
	제351야간폭격연대	20/La-11	안둥

중국	제4전투비행사단	55/MiG-15	안둥
	제3전투비행사단	50/MiG-15	안둥
	제2전투비행사단	50/MiG-15, La-11	다둥고우
	제6전투비행사단	50/MiG-9, 15	다둥고우
	제14전투비행사단	50/MiG-9, 15	안둥
북한	제1전투비행사단	52/MiG-15	신의주/의주
	제2전투비행사단	48/La-9	훈춘
	제11혼성비행사단	32/Yak-9, 30/IL-10	신의주
	폭격기사단	12/PO-2	신의주
계		총 638대(471대/MiG-9,15, 93대/La-9, 11, 74대/기타)	

3. 유엔공군 작전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의 군사전략적 고려가 7월 10일에 시작된 휴전협상에 집중되어 지상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공산공군의 전력증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자 유엔공군 또한 전력증강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공군에게 있어 전력증강 문제는 공산공군의 MiG-15기의 양적증가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조종사의 전투기량 향상이라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1951년 2월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국의 유럽중시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2월이 돼서야 F-86기의 추가배치가 이루어졌다.

미 극동공군은 지지부진한 신형기로의 전력증강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전력을 한국 내로 이동시켜 즉응능력(卽應能力)과 전투지역 체공시간 연장을 통한 실질적인 전력증강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51년 7월에 호주공군이 김포비행장에 제트 전투기 1개 대대(제77비행대대)를 보냈고 미 공군은 제4전투요격전대와 제67전술정찰전대를 김포비행장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의 전폭기대대(F-51 보유)와 미 공군 전폭기전대(제18전폭기전대)도 진해에 주둔하였다. 또한 김해비행장(K-1)에는 미 제1해병비행단이, 수영비행장(K-9)에는 제452폭격전대가 주둔하였다. 이외에도 미 공군은 대구비행장(K-2)에 2개 전폭기전대(제49, 136전폭기전대)를 배치하였고, 제3폭격전대는 군산(K-8)에 주둔시켰다.

미 극동공군과 제5공군은 남한의 다른 비행장들을 기본적으로 재무장과 연료보급, 비상착륙, 전선으로의 보급물자 공수를 위한 중간 체류기지로 활용하였고, B-29와 수송기들은 일본기지로부터 이륙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극동공군은 이와 함께 대공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당장 전력증강이 곤란한 적 항적의 탐지, 경보능력은 기존 체제개편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 피·아 식별장비는 기존 MARK-Ⅲ 장비를 대체하여 MARK-X를 11월에 작전화 하였으며, 대공포의 추가배치를 통해 공산공군의 침투에 대비하였다.

이 기간(1951.7.1~12.31)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113,062소티(sortie), 월 평균 약 18,844소티로 1951년 전반기(1월~6월)의 월 평균 21,720소티에 비해 약 2,876소티(13%) 감소하였고, 근접지원비행과 공수작전은 같은 기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유엔공군의 작전중점은 급속한 전력증강을 이룩한 공산공군이 이전 주요 활동지역인 북한 서북부 청천강 이북의 미그회랑지역을 넘어 평양 이남으로의 공중우세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한 제공(Counter Air)작전과, 공산 측을 압박하여 휴전협상을 촉진하고 협상에서의 우위를 획득함과 아울러 예상되는 대규모 공세를 좌절시키기 위한 보급품과 병력의 전선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항공차단작전(Air Interdiction)이었다.

제공 작전은 7월과 8월에는 불량한 기상과 교체된 조종사의 전투훈련을 위해 소련공군이 공세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9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2월까지 격렬하게 지속되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면서 공산공군의 북한 상공으로의 진입비행은 여전히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전의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공세는 점차 완화되었고 유엔공군과의 공중전을 회피하는 경향도 일부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공중전을 통한 상호 피해는 유엔공군이 41대, 공산공군이 MiG-15기 104대를 포함 총 118대의 손실을 입었다.

항공차단작전은 기간 중 전체 비행활동의 약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였는데, 작전 목표는 평양, 나진 등 군사시설 밀집지역과 비행장, 철도 및 도로 등의 수송로, 철도화차 및 차량 수송수단의 3개 표적군(標的群)으로 분류되었다. 제5공군은 1951년의 5월부터 7월초까지 3개 표적군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스트랭글 작전(Operations Strangle)과는 달리, 철도 수송로(철도궤도, 철로교량, 노반 파괴)로 표적을 한정하여 스트랭글 작전으로 명명하고 8월 18일부터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는 전력의 분산으로 인한 화력 집중도의 저하와 이에 따라 공산군의 신속한 복구로 작전성과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던 이전 스트랭글 작전의 교훈을 반영하여 가장 높은 차단효과를 가진 표적에 전력을 집중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 작전은 극동해군 함재기가 동부지역을, 제5공군이 서부지역 차단을 담당하였고 폭격사령부에는 평양 주변 주요 철도 교량의 파괴임무가 할당되었다. 평양 나진과 같은 군사시설 밀집지역 및 비행장 파괴 공격은 폭격사령부에 임무가 부여되었고, 폭격사령부는 10월 이후 신설 공사 중인 태천, 남시, 원리비행장공격에서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하였으나, 12월이 되자 신의주를 제외한 비행장을 무력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트랭글 작전으로 철도수송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공산군이 야간에 도로를 이용한 수송량을 급격히 증가시키자, 미 제5공군은 B-26 경폭격기를 보유하고 군산(K-8)에 주둔 중이던 제3폭격비행단에 서부지역을, 부산 수영기지(K-9)에 주둔 중인 제452폭격비행단에는 동부지역을 지정해 전선 이북의 주요 보급로 상 이동 차량에 대한 차단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유엔공군의 차단작전은 작전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작전효과를 발휘하였으나 11월에 접어들면서 MiG기의 공격과 대공포로 인해 B-29폭격기를 위시한 전폭기의 손실 누적이 증가되는 반면, 공산 측의 복구능력은 신장됨에 따라 작전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은 전선이 교착된 가운데 전투가 소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급감하였고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미 제10군단의 동부전선 양구지역 피의 능선(Bloody Ridge)과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 점령 및 방어 작전 시를 제외하면 소규모로 시행되었다.

공수작전 또한 전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어 대규모 공수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이전보다 감소하였고, 휴가자 및 부상병 수송, 보급물자 수송 등 대부분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기존 수송기보다 4~5배 적재능력을 가진 C-124수송기가 취역시험비행((Pelican Operation) 차 9월 27일 최초로 일본에서 항공기 부품 약 14톤을 싣고 김포기지에 도착하였고 10월 31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기지 등을 대상으로 시험비행을 수행하고 미 본토로 귀환하였다. 또한 C-46 공수작전대대는 서해 초도에 주둔한 유엔군 레이더 탐지부대, 구조부대, 정보부대 등에 대한 공수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년 6월 30일에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들을 사천기지(K-4)로 이동집결 시켜 체제를 개편하고 단독출격능력 배양에 주력했던 한국공군은 1951년 8월 1일 공군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정찰비행전대는 제2정찰비행전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제1전투비행단은 예하에 비행임무부대로 제10전투비행전대를 두었고 지리산지구와 지리산 서남부 지구에서 2차례의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제1전투비행단은 지리산지구 토벌작전기간 중인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비토벌작전과 해주지역 후방차단 작전을 겸해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작전준비태세검열을 받아 단독출격능력을 검증받고 단독출격을 승인 받았다. 미 공군으로부터 단독출격을 승인 받은 제1전투비행단은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1951년 9월 28일 비행단 일부전력을 강릉기지로 전개하여 1차(10.11~11.28)와 2차(12.10~12.30)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표 8-2>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1월 12월 기준)

부 대		주둔기지	주력 기종	지 휘 관
한 국	공군본부	대 구		총참모장 : 소장 김정렬
	제1전투비행단	사 천(K-4)	F-51, T-6	대령 장덕창
	강릉전진부대	강 릉(K-18)	F-51, T-6	대령 김영환
	제2정찰비행전대	사 천(K-4)	L-4, L-5	중령 오점석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도쿄(東京)		중장 Otto P. Weyland
	제5공군사령부	이다쯔게(板付)		소장 Frank F. Everest
	제8전폭비행단	수 원(K-13)	F-80	대령 James B. Tipton
	제18전폭비행단	진 해(K-10)	F-51	준장 Turner C. Rogers
	제49전폭비행단	대 구(K-2)	F-51, F-80	대령 Joe L. Mason
	제136전폭비행단		F-84E	대령 James B. Buck
	제51전투요격비행단	수 원(K-13)	F-80	대령 Francis S. Gabreski
	제4전투요격비행단	김 포(K-14)	F-86A	대령 Charles E. King
	제3폭격비행단	군 산(K-8)	B-26	대령 Nils O. Ohman
	제452폭격비행단	부산 수영(K-9)	B-26	대령 Reginald J. Clizbe
	폭격사령부	요꼬타(横田)		준장 Joe W. Kelly
	제19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Adam K. Breckenridge
	제98폭격비행단	요코타(横田)	B-29	대령 Lewis A. Curtis
	제307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William H. Hanson
	제315전투공수작전사단	히가시후주(東府中)		준장 John P. Henebry
	제314공수작전전대	아시야(蘆屋)	C-119	대령 David E. Daniel
	제374공수작전전대	아시야(蘆屋)	C-46/47/54	대령 Edward H. Nigro
	제437공수작전단	일본 브래디(Brady)	C-46/54	대령 John R. Roche
	제61공수작전전대	아시야(蘆屋)	C-54	대령 Frank Norwood
호 주	제77전투비행대대	김 포(K-14)	Meteor-8	중령 B. A. A. Wigget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진 해(K-10)	F-51	중령 R. Clifton
그리스	제13공수작전대	다치카와(立川)	C-47	소령 Pliornis Georgios
태 국	공수작전대	다치카와(立川)	3/C-47	소령 Peramoth Puthipan
캐나다	제426공수작전대대	캐나다 도발(Dorval)	6/North Star	중령 J.K.F Macdonald

제 2 절 공산공군 작전

1951년 후반기 공산공군의 참전부대는 이전의 소련과 북한에 더하여 중국공군이 참전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3개국(소련, 중국, 북한)연합전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공군은 1951년 9월 12일 제4전투비행사단이 안둥에 전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가하게 되었고 1951년 12월말까지 총 5개 전투비행사단이 참전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공군은 10월 경 MiG-15기를 운영할 제1전투비행사단을 창설하여 신의주와 의주비행장에 각각 1개 연대씩을 주둔시키고 미그회랑을 포함한 북한 북서부 지역에서 유엔공군 F-86과 교전을 할 정도로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소련공군은 제1제대로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을, 제2제대로 제151전투비행사단과 제351야간폭격연대를 두고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의 공중우세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3개국 공군전력의 전투통제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이 담당하였고 중국과 북한공군은 소련공군의 전투통제 하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공군은 상호 작전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중연합공군사령부를 창설, 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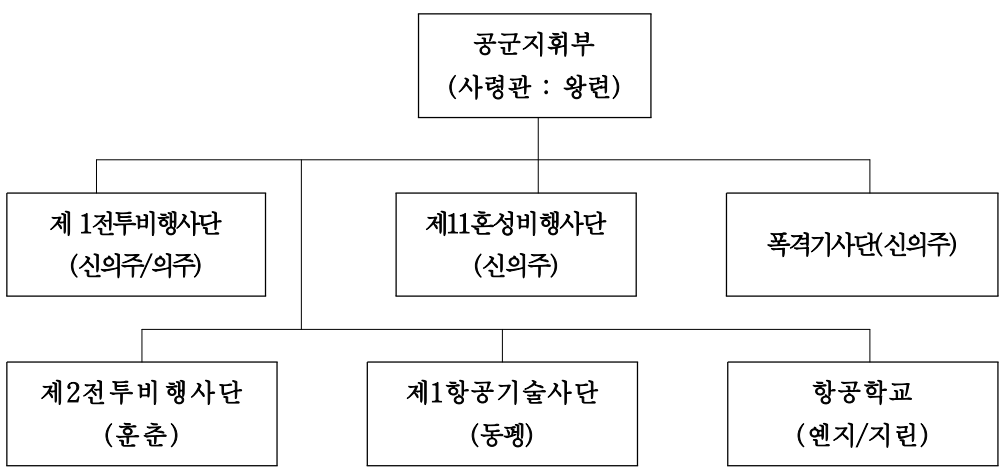
공산공군 작전가능 비행장(1951년 11월)

1. 북한 공군

1) 편성 및 임무

1951년도 전반기(4월 기준)에 이르러 북한 공군은 그 규모와 실전능력 면에서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1951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공군은 보다 공격적인 전투임무가 가능한 전투 및 지원부대 간의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먼저 1951년 10월 기준 북한 공군은 공군지휘부 예하에 전투비행부대로 4개비행사단(제 1, 2전투비행사단, 제11혼성비행사단, 폭격기사단)을 보유하게 되었고 지원부대로는 제1항공기술사단, 항공수리창, 비행장건설독립연대, 독립수송대대, 레이더탐지소대, 공중관측 및 경보전파부대 등을 두었다.

<표 8-3> 1951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조직도



신의주기지에 배치된 제1전투비행사단은 예하 2개 연대에 MiG-15 52대(편제 상 66대)의 전력을 보유하고 소련, 중국공군과 함께 북한 서북부 상공에서의 방어제공 임무를 부여받았고, 훈춘에 위치한 제2전투비행사단은 La-9 48대(편제상 66대)로 편성되어 중고도 요격 및 지상표적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 받았다. 제11혼성비행

사단은 IL-10 습격기(폭격기) 1개 연대와 Yak-9 요격기 1개 연대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임무는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공습(폭격 및 기총사격)과 유엔공군기에 대응하여 공중전을 수행하는 방어제공이었다. 신의주에 배치된 폭격기사단은 PO-2 12대(편제상 16대)를 보유하고 주로 야간 중고도 폭격임무를 담당하였다.

<표 8-4> 1951년 10월 기준 북한공군 전력 현황[3)]

부 대	인 원	보유항공기	주둔지
공군사령부	441		평양
제1전투비행사단	1,689	52대/MiG-15	신의주 / 의주비행장
제2전투비행사단	756	48대/La-9	훈춘
제11혼성비행사단	1,003	32대/Yak-9, 30대/IL-10	신의주비행장
폭격사단	858	12대/PO-2	신의주비행장
제1항공기술사단	2,789		동펑(東豊)
항공학교	2,946	141대/전투기 및 훈련기	옌지(延吉)/ 지린(吉林)
항공수리창	198		
비행장건설연대	4,112		
기 타	946		
합 계	14,792		

옌지에 소재한 항공학교는 1개 습격기 연대, 1개 요격기 연대 및 2개 항공기술대대로 편성되어 1951년 4월 기준 조종사 570명, 초급 항공지원요원(기술전문가) 964명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들 교육생중 La-9 조종사 32명과 관련 지원요원 122명, IL-10 조종사 32명과 관련 지원요원 161명은 1951년 7월 1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었고, 1951년 12월 15일까지는 La-9 조종사와 관련 지원요원 244명, IL-10 조종사 64명과 TU-2 사격수 및 무선통신사(항법사) 322명의 양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북한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MiG-15기 전환교육책임은 1950년 12월 25일 중국 둥펑(東豊)에 전개한 소련 제324전투비행사단에게 부여되었고 교육은 1951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4] 이러한 목적 하에 설립된 제1항공기술사단은 MiG-15기 조종사 양성을 위해 조종사 65명과 2개 연대, 2개 항공기술대대로 편성되어 MiG-15기 운영을 위한 조종사 및 기술요원 양성임무를 수행하였다.[5] 따라서 북한의 제1항공기술사단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나 훈련기를 보유하지 않은 채 동펑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전투비행사단의 MiG-15를 임차하여 소련공군의 지도 아래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북한공군의 눈에 띄는 전력증강은 MiG-15기를 운영할 제1전투비행사단의 창설이다. 제1전투비행사단의 창설 시기는 1951년 10월경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1개 사단(2개 연대) 규모였다. 1953년 9월에 귀순한 북한공군 조종사 노금석의 진술을 토대로 MiG-15 조종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제1전투비행사단의 창설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청진 근처 갱도에 피난해 있던 해군군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노금석이 불시에 방문한 12명의 의사들이 실시한 약식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조종후보생으로 선발된 것이 1950년 9월이었고, 이날 선발된 조종후보생은 약 80명으로 소위로 현지 임관되어 며칠 후 옌지(延吉) 도심 동부 약 10마일에 있는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에는 Yak-18과 Yak-11 훈련기 30대가 있었다.[6] 이곳에서의 훈련은 도착 후 2일 후부터 시작되어 군기훈련(행진, 군가 등)과 지상학습(항공역학, 항공기 내연기관, 항법, 계기, 무선이론, 무장, 항공법) 종료 후 Yak-18기 비행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Yak-18 단독비행(Solo Flight)을 마친 조종후보생들은 지린(吉林)비행장으로 이동하여 Yak-11 훈련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을 1951년 3월까지 종료하였는데, 옌지와 지린비행장에서의 전 훈련과정은 북한공군 조종사의 지도 아래 실시되었다. 이 과정을 이수한 며칠 후인 1951년 3월 중 이들 북한조종후보생들은 철도편으로 안산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이들과 전투경험과 비행시간이 더 많은 또 다른 북한인 프로펠러전투기 조종사들 중에서 70명의 제트 조종후보생이 선발되

었고, 이들에 대한 비행훈련 교관으로는 소련공군 제324전투비행사단 조종 장교들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안산비행장에서 약 1달간 Yak-11을 이용한 비행훈련을 마친 후 동펭(東鳳)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동펭 비행장에서 이들은 MiG-15에 대한 이론교육만 받았을 뿐 실제 비행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동펭 비행장에 주둔한 북한공군은 MiG-15를 비롯한 항공기를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러시아 MiG-15 교범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7] 동펭비행장에서 교범만을 보며 1달여를 보낸 이들 북한 조종후보생들은 1951년 5월에 철도편으로 다시 텐진(天津) 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소련공군 조종사들에 의해 Yak-17 제트훈련기를 이용한 비행훈련과 MiG-15를 이용한 단독비행훈련을 마치고 1951년 6월에 안산(鞍山)으로 이동하였다. 안산으로 이동한 북한공군 조종후보생들은 소련공군의 지도하에 MiG-15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공중조작, 공중전투기동 등 전투훈련을 받았고 이들의 훈련은 1951년 9월초에 종료되었다. 이들은 안산비행장에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다가 북한 지도부가 북한공군 최초의 MiG-15 전투비행부대의 북한 지역 내 배치를 결심하자 제1전투비행사단 제1연대는 신의주 비행장으로, 제2연대는 11월 7일에 의주비행장으로 전개하였다.

이로써 북한공군 최초의 MiG-15기 보유부대인 제1전투비행사단이 완편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공군과의 공중전에 임하게 되었다. 제1전투비행사단 제2연대가 의주비행장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은 11월에 김일성은 당시 채 10살도 안된 김정일을 대동하고 공군사령관 왕련의 안내를 받아 의주비행장을 방문하여 MiG-15를 사열하고 조종사를 격려하였다.[8] 제1전투비행사단에 부여된 주된 임무는 평양 방어로서, 평양 및 서북부 상공에서의 유엔공군 F-86기에 대한 방어제공임무와 기타 전폭기에 대한 요격임무였으며 소련공군 고문관이 주둔하면서 비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였다. 그러나 제1전투비행사단 제2연대는 유엔공군의 공습으로 활주로가 심각하게 파괴되자 1951년 12월 15일 의주비행장에서의 작전을 포기하고 며칠 후 단둥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9]

1951년도 4월 이전에 창설되어 La-9 요격기를 보유한 북한공군의 제2전투비행사단은 창설 초기에는 중국 훈춘비행장에 주둔하면서 북한 동북지역으로 접근하

는 유엔공군에 대한 방공임무와 유엔 지상군의 시설 및 이동병력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1951년 10월 이후에는 소련공군 제151전투비행사단과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와 함께, 공산공군 제2제대 전력으로 편성되어 제1제대(소련공군 제303, 324전투비행사단 및 중국공군 전투비행사단)의 증원 및 제1제대의 착륙과 재 출격을 엄호하는 임무로 전환되었다.

2) 작전 활동

이 시기 북한공군의 작전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는 자료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나 단편적인 사료들을 통해 나타난 북한공군의 작전활동은 매우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추론 가능하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소련· 중국공군과 마찬가지로 비행기지활용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공군이 사용할 수 있었던 북한지역 내 기지는 신의주와 의주비행장이었고 중국지역에서는 훈춘과 안둥비행장이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였다. 그러나 북한 제2전투비행사단이 주둔한 훈춘비행장의 경우에는 두만강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미그회랑을 포함하는 북한 북서부 상공의 전술작전지역으로부터 550킬로미터 이상 이격되어 실질적인 작전활동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북한 북동부 상공에서의 유엔공군에 대한 요격임무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또한 안둥비행장의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중국 및 소련공군의 전투비행사단이 동시에 주둔한 것만으로도 기지가 복잡하여 작전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공군까지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북한공군의 제한적 작전을 강요하는 두 번째 문제는 조종사의 부족한 전투기량과 공중전에서 상대해야할 유엔공군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이었다. 노금석의 증언에 따르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의주기지 전개 후에 공중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식욕을 상실했으며, 이전에 사격훈련을 해보지 않아 처음 유엔공군과 조우하여 기총사격을 하였을 때 기수로부터 전해오는 느리나 지속적인 폭발음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정도로 실전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10]

이러한 제한사항 때문에 북한공군의 작전은 소련공군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MiG-15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F-86을 직접 상대하여 교전을 벌이는 등 이전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보였다. 신의주와 의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사단의 예하 연대는 안둥에 위치한 소련공군의 비행통제와 관제 하에 유엔공군과의 교전에 참여했고, 소련 전술통제관의 관제 미숙에 따라 F-86과 조우 시 피격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자 이에 대한 북한공군 조종사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11] 유엔군의 하계공세 기간 중 북한공군은 유엔공군의 교살작전에 대응하여 추격기(전투기)들은 신의주-안주사이에서 6~8대의 전투편대를 구성하여 철도, 도로망 등 수송로(輸送路)을 공격하는 유엔공군기들과 교전하였고, 야간폭격비행대(PO-2)는 수원, 김포비행장과 인천항, 용산역의 주요표적들과 의정부, 문산, 포천, 연천 등에 집결한 유엔군 병력 및 부대와 문산-연천 간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유엔군 병력을 공격하기도 하였다.[12] 유엔군의 추계공세 기간 중에도 북한공군은 유엔공군의 교살작전에 대응하여 전력을 집중, 전선으로의 수송로와 후방의 중요 대상물을 엄호하고 청천강 이남으로 제공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13]

2. 소련 공군

1) 편성 및 임무

1951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소련 제64비행군단의 전투편성 및 참전부대는 1951년 전반기와 동일한 상태였다. 따라서 군단 예하 제1제대인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은 각각 다둥고우와 안둥기지에, 제2제대인 151전투비행사단은 선양기지에 배치하였고, 방공전력으로 제87, 92고사포사단 및 제10공중탐조연대와 함께 후방지원부대인 제18항공기술사단이 배속되어 있었다.

예하 전투비행부대 가용전력 현황은 1951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151전투비행

사단은 MiG-15 52대(엔진 내구연한 잔여량 : 48%)와 조종사 61명(건강문제, 전투준비 부족으로 12명이 비행에서 제외되어 49명)이 전투에 참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제303전투비행사단은 MiG-15 85대(엔진 내구연한 잔여량 : 48%)와 조종사 100명(이중 비행제외자 21명), 제324전투비행사단은 MiG-15bis 52대(엔진 내구연한 잔여량 : 49%)와 조종사 54명(이중 질환과 과로로 22명 비행 제외), 제351야간비행연대는 La-11 20대(이중 4대 수리불가, 엔진 내구연한 잔여량 : 35.8%)와 조종사 3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제64전투비행군단은 MiG-15 189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항공기 가동율은 98%이었으며 편제 대비 항공기 부족분은 MiG-15 10대, MiG-15bis 17대, La-11 1대였다. 또한 인원 충원률은 93%를 상회하여 전투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고 있었다.[14]

<표 8-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1년 7월~12월)

구 분	보유 장비 ('51.9.15 기준)	주둔 기지	활동 기간	지 휘 관
제64전투비행군단		선 양		근위중장 벨로프
제151전투비행사단	52/MiG-15	선 양	'50.11~'51.9	중좌 사포즈니코프 A. Y.
제303전투비행사단	85/MiG-15	다둥고우	'51.5~'52.2	소장 로보프 (Georgiy A. Lobov)
제324전투비행사단	52/MiG-15 bis	안 둥	'51.4~'52.1	대좌 코체두브 (Ivan N. Kozhedub)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20/La-11	안 둥	'51.6~'53.1	
제18비행기술사단		안 둥	'51.6~'53.8	
제87고사포병사단	37/85밀리 고사포	박 천	'51.6~'53.1	
제92고사포병사단		안 둥	'51.6~'53.1	
제10탐조연대		안 둥	'51.6~'53.1	

1951년 7월 31일 벨로프 제64전투비행군단장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1951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부대별 임무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15] 이 지시에 따르면 제64전투비행군단의 임무는 유엔공군의 공중폭격과 공중정찰로부터 압록강 교량과 도하시설, 발전소, 비행장과 함께 안둥, 신의주, 창성지역의 다른 후방목표물, 북한 영토 내 교통로를 방호하고 북한해안을 경계하는 것이며 임무지역은 평양-원산 이북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 동북지역의 안둥, 선양을 공습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행군단의 임무를 바탕으로 각 전투비행사단의 임무도 적시하였다.

먼저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에는 주둔기지에서 주간에 1~3호 요격출동준비태세[16]를 유지(제324전투비행사단의 경우는 1, 2호 준비태세)하면서 영유(순안 북방 20㎞)-순천을 연결하는 선의 북한지역과 안둥-선양 방면의 중국 동북지역의 목표물에 대한 유엔공군 폭격기와 전폭기의 습격을 방어·격퇴할 것과 대대급 편대군은 '자유사냥' 출동으로 평양 상공 저고도에서 활동하는 유엔공군 전폭기를 격멸할 것이 명시되었다. 또한 사단별 전투강도에 대해서는 제303전투비행사단은 1일 160소티, 월간 1,600소티, 제324전투비행사단은 1일 80소티, 월 600소티로 제한하였다.

군단 제2제대인 제151전투비행사단은 주간에 1~2호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1개 연대로 선천-창성 계선 내 북한지역의 목표물과 안둥-선양 방면 중국 지역 목표물에 대한 방호를 준비하고 나머지 1개 연대는 제1제대인 제303, 324전투비행사단의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것과, 1일 60소티, 월 300회의 임무수행을 지시 받았다. 또한 야간요격부대인 제351비행연대에게는 야간에 안둥기지에서 La-11 요격기로 단독 출격하여 고사포 사정거리 밖에 있는 안둥, 신의주지역 목표물 근처 탐조지역 내를 정찰하며 접근하는 유엔공군기를 요격하고 작전 후에는 선양기지로 복귀할 것과 작전은 1일 야간 8소티, 월간 240소티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시되었다.

또한 제87고사포병사단은 안둥과 다둥고우 비행장 방어임무가, 제92고사포병사단은 안둥 지역 압록강 교량과 도하시설, 신의주 비행장 방호 및 유엔공군기의 안둥과 다둥고우 비행장으로 접근 차단임무가 부여되었다. 제10탐조연대는 제351야간비행연대의 요격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안둥, 용암포, 차련관, 의주 경계지역

탐조구역을 설정하여 유엔공군기 접근 시 탐지임무가 주어졌다.

1951년 10월 1일 제64전투비행군단은 각 제대의 임무를 재차 수립하여 하달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중국공군과 완편 된 북한공군 전투비행사단을 통괄하는 지침을 내릴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군단의 임무에 대해서는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과 북한공군 제2전투비행사단, 중국 고사포 모든 단위부대들과 협조 하에 유엔공군의 공중정찰과 공격으로부터 압록강 교량, 비행장, 발전소 및 안둥, 신의주, 창성 지역의 목표물 및 남시, 태천, 개천에 건설 중인 비행장, 북한의 안주, 희천 선까지의 보급로 보호, 심양방면의 중국 동북지역 목표물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로 규정하고, 조·중 전투비행부대에 대한 지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편입된 조·중 공군부대들의 연합부대 편성은 제1제대에 소련 제303, 324전투비행사단과 함께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을 편성하여, 유엔공군 전투기 '엄호부대'와 폭격부대와의 전투를 통해 이들이 압록강에 도달하기 전에 섬멸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제2제대에는 제151전투비행사단과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북한공군 제2전투비행사단을 두고 제1제대의 증원 및 제1제대의 착륙과 재 출격을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소련제64전투비행군단은 중국, 북한공군을 지휘·통제하여 북한 서북부 지역에서 유엔공군의 공격을 차단하고 방호하는 소련, 중국, 북한 3국의 연합공군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작전활동

1951년 후반기 제64전투비행군단의 본격적인 작전활동은 9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다둥고우(일명 : 묘고우) 비행장이 1951년 6월 1일 건설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소련공군의 참전 전력을 수용 가능한 비행기지는 안둥(일명 : 랭토우)기지로 제한되었고, 안둥기지의 수용능력이 최대 3개 연대(1개 사단 MiG-15 80대)임에 따라 작전능력은 크게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다둥고우 비행장의 완공으로 전력수용에 숨통이 트였지만 6월부터 7월초까지는 제324전투비행사단의 엄호 아래

1951월 5월에 군단에 편입된 제303전투비행사단의 연대편대군 및 사단편대군 출격 및 공중전 수행에 대한 훈련과 전투준비로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7월 중순에 이르러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전투수행준비를 마치고 출격대기에 들어갔으나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례적인 폭우와 장마로 인해 9월 초까지 군단 규모의 전투와 출동을 수행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기상이 호전된 날에는 1개 전투비행사단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한 수차례 출격을 통해 군단규모의 출동태세를 확인 점검하였고 기상불량 시에는 전투비행사단, 연대의 비행전술회의와 이를 총괄하는 군단전술회의를 개최하여 전술토의를 시행함으로서 유엔공군과의 대규모 공중전을 준비하였다.

9월 9일 처음으로 제64전투비행군단의 2개 사단의 전 전투역량이 출동하여 유엔공군과 공중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날 유엔공군은 11시 25분~12시 35분 동안 F-80, F-51 전폭기 50대를 4~8기 편대로 구성하여 안주, 선천, 구성, 태천 지역의 이동부대와 도시 목표물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었고 F-86기 60대로 이들을 엄호하고 있었다. 11시 25분, 이들 전력이 황주, 진남포 상공에 도착하자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제303전투비행사단 예하 2개 연대 전력(MiG-14 54대)을 F-80, F-51 전폭기 요격을 위해 11시 21분~28분 사이에 출격시켰고 이들을 엄호하고 F-86에 대항하기 위해서 11시 23분~27분간에 제324전투비행사단 예하 MiG-15 34대를 출격시켰으며, 이어서 11시 45분에 예비전력으로 MiG-15 22대를 추가로 출격시켜 총 110대의 MiG-15가 출격하였다. 이들 중 예비출격전력 22대를 제외한 요격 및 엄호전력 4개 연대전력(MiG-15 88대)이 정주, 안주, 태천, 박천 상공 9,000~12,000m 에서 유엔공군전력과 공중전을 벌였고 전투결과 F-86 9대를 격추(제303전투비행사단 4대, 제324전투비행사단 5대)하였고 제324전투비행사단 소속 MiG-15 1대가 격추되어 조종사가 사망하였다.[17] 유엔 측 보고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303전투비행사단장 로보프는 9월 12일 안주와 평양사이에 다양한 표적을 공격하려는 150대 이상의 F-80기를 요격하기 위하여 MiG-15 80대를 출격시켰고 이들 MiG기는 F-80기를 급습하여 채 몇 분도 안 되어 15대를 격추시켰다고 회상하였다.[18]

다둥고우 비행장 완성 및 제303전투비행사단의 전투준비태세 종료로 2차 세계대전 시의 풍부한 전투경험과 많은 MiG-15 비행시간을 축적한 조종사를 보유한 이들 2개 전투비행사단이 동시에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자 소련공군은 유엔공군과의 전투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소련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소련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유엔공군의 지배를 역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성취"[19]하였다고 평가하는 단계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1951년 9월~1952년 1월)까지 소련공군은 대규모(100대 이상) 편대군을 형성하여 유엔군의 공격에 대응하였고 유엔공군 조종사들도 소련공군의 조종사들이 전술비행능력과 전투의지 면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였다.

1951년 8월 18일부터 유엔공군은 평양과 중국 국경 간 철도연결지역에 대한 차단작전인 작전암호명 교살작전(Strangle Operation)을 시작하였고, 소련공군은 이에 대응하여 중국, 북한공군과 연합하여 유엔공군 전폭기에 대해 공격작전을 증가시켰다. 제303 전투비행사단은 최근에 건설된 다둥고우 비행장에서, 안둥비행장에 주둔한 제324전투비행사단과 합동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였고 10월부터는 중국 제4전투비행사단 및 북한공군 제2전투비행사단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이러한 공산공군의 급증한 전력에 대해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90대에 이르는 MiG기가 한 번에 지금 북한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대형태를 구성하고 있다."[20]고 보고하였다. 소련공군이 공중전 운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은 유엔공군에 대한 수적우세 유지였다. 이러한 수적 우세 전투개념은 1951년 내내 지속되었다. 10월 23일은 미 공군에게는 "검은 화요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련공군은 이날 남시(南市 : 현재 구성시) 상공에서 25대의 B-29기와 200여대의 전투기와 조우하여 손실 없이 B-29 12대와 F-84 4대를 격추하였다.[21] 이날 전투에 대한 미국 측 기록을 보면 09:40분 경 건설 중인 남시비행장(현 방현비행장, N39°55′36″ E125°12′28″)을 공격하기 위해 출동한 8대의 B-29가 20분간 2차례에 걸쳐 약 50대의 MiG-15기의 공격을 받았고 당시 인근 상공엔 MiG-15기 140여대가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를 엄호하기 위해 F-84 55대, F-86 34대가 이들을 차단하면서 엄호작전을 펼쳤으나 유엔공군 B-29 3대가 격추되고 나머지 5대가 대파되어 기지에 불시착하였고 F-84 1대가 격추되는 손실을 입었고, 소련 측은 MiG-15 9대가 격추되고 8대가 손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2] 남시 상공의 공중전은 극동공군 사령부의 주간 폭격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공중전의 과정을 변화시켰다. 다음날인 10월 24일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순천지역의 철도 교량을 공격하기 위해 8대의 B-29를 출격시켰고 이를 엄호하기 위해 F-86, F-84, 호주공군의 Meteor-8기를 동시 출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소련공군 제303전투비행사단 예하 제18, 523전투비행연대 MiG-15가 출격하였고 제523연대 전력이 유엔공군의 엄호전력을 차단하고 있는 동안, 제18연대 MiG기들이 23㎜, 37㎜ 기관포를 B-29를 향해 발사하였다. 유엔공군 엄호기와의 격렬한 공중전을 끝낸 후 제523연대 소속 조종사들은 F-86 4대와 Meteor-8 3대를 격추시켰고 자신의 손실로는 MiG-15 1대가 격추되었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18전투비행연대는 원산 인근 상공까지 B-29를 추격하여 B-29 및 Meteor-8 각 1대씩을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극동공군사령부는 B-29 1대의 격추사실과 Meteor-8 1대가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였고 이날 오후의 임무결과 요약보고서를 통해 F-86 3대가 격추되었음을 상부로 보고하였다. 조종사의 임무 후 브리핑(debriefing)과 기총 카메라(Gun Camera) 영상분석, 포로로 잡힌 미군 조종사 2명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제64전투비행군단은 후에 이날 결과를 제523연대에 의해 F-86 2대가 격추되었고 3번째 격추된 F-86의 조종사는 비상 탈출하여 구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Meteor-8 전투기를 보유한 호주공군의 제77대대는 유엔공군 중 미 공군을 제외하면 미그회랑 전투에 참가한 유일한 공군이다. 그러나 소련공군은 영국이 만든 쌍발제트 엔진 전투기인 Meteor-8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1951년 8월 말 북한상공에 처음 등장 한 이후 저속에 직선익을 가진 Meteor-8은 빠르게 MiG기의 희생양이 되어갔다. 유엔 참전국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획책하고 미국과 유엔 참전국을 이간하기 위한 술책으로 소련공군은 의도적으로 호주 전투기를 제물로 삼았다고 로보프는 회상하였다.[23] 1951년 12월 1일 비신야코프(Vishnyakov) 중좌가

이끄는 제176연대 소속 MiG-15 24대로 이뤄진 편대군은 안주 상공 10,000m에서 기계획 임무로 초계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의 표적은 Meteor-8기였다. 이들은 미 공군 전폭기와 이들을 엄호하는 F-86 편대를 통과시킨 후, 미 공군기를 뒤따르고 있던 16대의 Meteor-8기를 향해 강하하여 공격을 가했고 소련 조종사 7명은 각 1대씩을 격추하고 편대장인 크라마렌코 대위(S. M. Kramarenko)는 2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측 자료는 Meteor-8 3대가 격추되고 다른 3대가 손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소련 MiG기에 의한 Meteor-8의 희생은 극동공군사령부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 전투기를 미그회랑 이외지역에서의 대지공격임무로 전환하게 하였다.

소련공군참전 제2단계작전은 1952년 초에 종료되었다. 소련 자료들은 이 시기 한국에서의 미국의 제공권이 소련공군 MiG기에 의해 역전되었으며 1951년 후반부 기간 동안 압록강 상공의 공중우세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4] 제303, 324 전투비행사단의 보고서는 소련공군과 유엔공군의 상호 공중전 격추 비율을 10 : 1이며, 제324전투비행사단은 1951년 4월부터 1952년 2월까지 총 215대, 제303 전투비행사단은 1951년 6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총 302대의 유엔공군기를 격추시킨 반면 소련공군의 손실은 조종사 27명이 전사하고 50여대의 MiG-15기가 격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과장된 것이고 1951년 4월부터 1952년 2월까지 유엔공군의 공대공 전투를 통한 손실은 61대에 지나지 않는다.[25] 그러나 이 기간의 공산공군의 도전은 공격적이고 과감했으며 유엔공군은 이 기간 동안 항공전사에 남을 몇 번의 패배를 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퍼트렐(Robert Futrell)은 1951년 10월 23일에 남시비행장 공격 시 입은 피해에 대해 “피의 공중전(Bloody Air Battle)”, “전번제(全燔祭 : Holocaust)”, ”피의 공중 목욕(Bloody Air Bath)”으로 표현하였다.[26]

1951년 11월 일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반데버그(Hoyt Vandenberg) 공군참모총장은 하룻밤 사이에 ”중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항공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27] 당시 미 공군의 지휘부는 1951년 후반기의 유엔 폭격기에 대한 공산 측의 승리가 소련공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iG기의 저항을 중국공군의 소행으로 돌렸다.

이러한 격렬한 소련 공군의 활동을 계기로 극동공군은 F-86의 추가 파견 등 전력증강을 본토에 요청하게 하였고. 미그회랑에 대한 폭격임무 시 조종사들의 MiG-15에 대한 경계와 주의는 그 이전보다 배가되었다.

3. 중국 공군

1) 중국공군 참전 계획과 좌절

중공군이 지상전에 참전한 1950년 10월 당시 중국 지도자들은 미 공군의 한국 전역에서의 공중우세확보와 위력적인 공군력에 대해 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공군력에 대해 14개 비행단(2개 전투요격비행단, 3개 전폭비행단, 2개 경폭격비행단, 2개중폭격비행단, 1개 해병비행단, 3개 해군 항모전단)에 약 1,10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가한 경력이 있으며 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28] 그러나 이에 반해 중공 공군은 단지 2개의 전투비행사단과 각각 1개씩의 폭격사단 및 공격기사단과 총 200여대의 전투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종사들의 경우 100시간 미만의 비행시간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MiG-15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이제 막 단독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시 중국공군에는 실전을 경험한 중국인 조종사나 지휘관이 없었다는 점이었다.[29]

중국공군은 1950년 10월 30일 한국전 참전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중국지원군이 유엔공군의 공중우세 확보로 인해 심각한 열세에 처해있다는데 대해 동의하면서도 중국공군이 참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으나, 일부 참석자는 중국공군이 공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은 전투 환경 하에서 실질적인 전투를 통해 얻어

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결국 여기에서 중국공군 지도자들은 미국 및 유엔공군에 중국공군이 전투기 수량과 조종사의 기량 면에서 비견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롭게 창설된 중국공군이 전쟁에 직접 참전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100~150대의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하고 동원된 전투기들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중국공군의 지원을 유보하는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단계별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30]

① 1단계(1951년 1월~2월) : 소련공군의 2개 비행연대의 협조 하에 중국공군 4개 MiG-15기 연대(120대)를 동원하여 지상 수송선 방어
② 2단계(~1951년 4월 중순) : 6개 전투비행연대(MiG-15기 5개 연대, LA-11 1개 연대), 2개 공격기 연대, 4개 폭격기 연대 총 360대의 항공기 전력으로 증강, 전 전력 활용 참전
③ 제3단계(~1951년 말) : 총 1,300대 항공기 보유, 29개 전투비행연대(MiG-15기 25개 연대, La-9 및 LA-11 4개 연대), 4개 공격기 연대, 7개 폭격기 연대, 4개 수송기 연대 규모로 증강

중국공군의 이러한 참전계획은 북한 지역 내에 이들 전력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비행장의 확보가 전제되는 것이었고 중국공군은 참전 방안에 있어서도 두 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하였다. 이는 북한지역으로 중국공군이 전개하여 주둔하는 방안과 중국 영토에 주둔하며 지원하는 방안이었는데, 첫 번째 안은 북한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 작전반경의 축소로 중국 지상군에 대한 대규모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반면, 병참선 연장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였다. 중국 지도부와 공군 지휘관들이 전쟁계획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인 1950년 11월 25일, 유엔공군 공격에 의해 중국 지도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날 11:00경 평북 동창군 대유동(大楡洞) 위치한 중국지원군 사령부가 미 공군의 공습을 받아 펑더화이 사령관의 비서이자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잉(毛岸英)과 작전참모인 가오루이신(高瑞欣)이 폭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31]



중국공군사령관 류야러우(劉亞樓)

이로 인해 1950년 12월 초 중국공군지도부는 공군참전이 매우 긴요한 사항임과 아울러 지상군 공세에 공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임을 절감하게 되었고, 적시적인 공격을 위해 군사력 집중을 강조하는 항공작전계획을 입안하였다. 마오쩌둥은 점진적인 접근을 주장했지만 전선에서 공중엄호 없는 전투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근접항공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펑더화이와 같은 전선지휘관의 압력을 피해 갈 수 없었고 1950년 12월 4일 마오쩌둥은 중국 지상군에 대한 직접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작전계획을 승인하였다.[32]

미 공군의 공중우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중국 지도자들은 지상에서조차 처음에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에서의 방어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초기전투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유엔군과 선전을 벌이자 희망을 발견했고 맥아더가 중국군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인식한 그들은 기동전에 있어 중국군의 우세를 과신하게 되었다. 중공군이 화력이나 공중지원 면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중국군이 한국에서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참전 후 4개월에 걸쳐 미군과 유엔군에 대해 파상적인 4차례의 공세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1951년 2월 중순에 이르자 중국인민지원군 전선 지휘관들은 빈약한 보급을 받고 있는 중공군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 계속되는 미 공군의 맹 공습을 받으면서 기동화 된 유엔군을 격퇴시킬 수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중공군의 사기는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공중엄호의 부재는 공중엄호를 약속

받았으나 아직도 한 대의 자국의 비행기를 볼 수 없었던 중공군 병사들 사이에 공포로 확산되었다. 제4차 공세 중간시기인 1951년 2월 20일 펑더화이는 마오쩌둥과 다른 지도자들과 전쟁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급히 돌아갔다.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의 처음 지시와는 반대로 전선에서 모든 공세적 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가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날인 2월 21일 즉시 마오쩌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직설적으로 중공군의 재앙과도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말했던 것으로 보이며 중공군의 전투능력이 지난 몇 개월간의 공세기간동안 유엔군의 공중과 지상 화력에 의한 손실과 부적절한 보급으로 인해 심각히 약화되었다고 불평하였다.[33]

펑더화이가 판단한 전세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공중엄호의 부재와 통신선을 방어할 적절한 방어수단인 대공포 부재였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최전선 중공군 병력에 도달하는 보급품은 그들이 필요한 양의 60-70%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잠시 숙고한 끝에 전쟁전략의 지속수행을 승인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차기 공세를 수행하기 전에 2달 동안 재편성의 시간을 갖는 것을 승인하였다.[34]

펑더화이는 마오쩌둥과의 회담을 마친 후 만족하였지만 그는 이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병력이 적절한 공중엄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2월 24일 그는 38도선 이남의 중공군의 모든 병참선에 대해 소련 2개 전투비행사단으로 하여금 공중엄호를 해줄 것을 베이징 주재 소련 군사고문단장인 자하로프(Semyon Zakharov) 대장에게 직접 호소했으나 자하로프는 이러한 제안에 별로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35] 2월 25일 이어진 또 다른 군사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본토에서의 지원체제가 전선에 있는 중군인민지원군이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불평하였다. 공군사령관 류야러우가 당장 중국공군의 참전이 불가능 함을 언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펑더화이는 이 자리에서 책상을 치고 “이도 저도 다 문제야.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당신은 중국인민지원군은 아니

야. 당신은 전선으로 가서 병사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 거기에는 상당한 손실이 있어. 그들이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 당장 우리가 전투기와 대공포를 갖지 못하고 , 그리고 후방 수송수단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면 병사들에게 옷과 음식이 도달하지 못하여 그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것이다. 본토 국민들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라며 소리를 치는 등 대단히 화가 났다.[36] 회의는 결론을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펑더화이는 류야러우가 주장했던 중국공군의 제한된 자원을 소모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소련이 중공군의 지상 작전에서 공중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다. 2월 26일[37]과 28일 펑더화이는 두 차례 마오쩌둥을 만나 그의 지상 작전에 대한 공중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소련을 설득할 또 다른 노력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3월 1일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소련 공군력으로 평양-원산 선 이북까지 공중엄호를 확대해 줄 것과 북한 지역 내 비행장으로 소련 공군부대를 이동 배치 해 달라는 펑더화이의 강력한 요구를 주지시켰다. 마오쩌둥은 만약 소련이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 중국 인민지원군은 북한 내 비행장 건설을 완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군의 전쟁 불참은 중국 지상군의 기동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오쩌둥은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스탈린에게 이러한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국제환경을 인식에 기인되었음을 유연하게 상기시켰다.[38]

이에 대해 스탈린은 3월 3일 즉각 마오쩌둥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소속 제151전투비행사단과 제324전투비행사단을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의 병참선 보호를 위해 북한 영토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에 상응한 중국의 조치로서 안둥지역의 방공임무는 중국공군 2개 전투비행사단이 담당해야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39] 그러나 3월 15일 스탈린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마오쩌둥에게 중국공군 2개 전투비행사단이 중공군의 공세 지원을 위해 전선으로 파견되고 대신에 안둥지역 방호는 기존의 2개 소련전투비행사단과 함께 추가로 파견되는 1개 전투비행사단이 담당할 것과 마오쩌둥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다.[40]

이러한 입장변화에 대해 스탈린은 앞으로 있을 중국과 북한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비하여 전선에 가능한 많은 전투비행대의 확보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해 소련은 추가적인 1개 전투비행사단의 파견을 결정하였고 이는 안둥지방 엄호를 담당하기로 했던 중국공군의 2개 전투비행사단을 전선으로 이동시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설명을 달았다. 그러나 이는 스탈린이 소련 공군부대의 북한 배치가 갖는 군사적, 정치적 위험성과 함께 중국 주둔 소련공군력이 유엔공군력에 비해 열세임을 인식하고 취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결국 스탈린은 이러한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 위험을 회피하고자 전선에 대한 지원은 중국공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압록강 연안의 소련 전력을 강화하기로 한 스탈린의 결정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그들이 만족할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3월 7일부터 유엔군은 한강을 건너 공산군 주력을 격파하고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리퍼(Ripper) 작전을 개시하였고 극동공군사령부는 지상군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한 전력을 총동원하여 지상근접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의 병참선 차단 공격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유엔군의 공세로 인해 중국인민지원군은 병력보충과 보급의 단절로 참전 이후 처음으로 전선에서 심각한 열세로 고전하였다. 3월 11일 근심에 쌓인 펑더화이는 병참선에 대한 공중방호가 없다면 그의 군대는 식량부족에 고통 받을 것이며 이 문제는 차기 공세를 재개하는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중국 지도부에 호소하였다.[41]

1951년 3월 말 미군과 유엔공군은 만포진, 청성진 철교뿐만 아니라 안둥 부교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러한 전세의 변화는 중국의 전선지휘관들을 좌절시켰고 급기야 4월 5일 저우언라이는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병참선 방호를 위해 소련 제트기를 대체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펠러 전투기인 La-9과 Yak-9을 동원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하였다.[42] 그러나 당시 북한공군이 중국의 요청을 수락하기에는 능력이 너무도 부족했고, 베이징의 중국 지도자들을 더욱 비관적으로 만든 것은 중국공군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련공군을 중국의 입장으로 선회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점이었다.

1951년 4월말에 홍쉐즈(洪學知)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이 펑더화이의 지시로 저우언라이에게 전선 상황, 특히 군수지원상황의 어려움과 후방근무사령부 창설에 관한 문제 등을 보고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귀환하였다. 저우언라이를 만난 홍쉐즈는 "여러 차례 전역에서 뼈저리게 느낀 점은 우리에게 제공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공습은 아군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43]라고 유엔공군의 공습에 의한 피해를 설명하고 "전선의 장병들은 모두 아군전투기의 출동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44]라고 중국공군의 출동의 시급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우언라이는 "중국엔 전투기가 있고 우리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국가에도 전투기가 있소. 그러나 전투기의 참전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소. 이 문제는 부사령관으로 있는 당신도 잘 알 것으로 믿소."[45]라고 답했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4월 22일 중국인민지원군은 유엔군의 39도선의 안주-원산 선 진출을 저지하고 38도선 이북에서 유엔군 수개 사단을 섬멸하고 전쟁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5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중국 지상군은 공세 시 공중엄호를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중국공군은 계획대로 지원할 수 없었다. 공중엄호 없이 중국지원군의 지상 작전이 감행되었고 일부 성공을 거두었지만 대신에 그들은 대규모 인력 손실과 물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의 공중지원에 대한 열망은 급증하였다. 1959년 펑더화이는 "공세 초기 중국이 공중을 통제하였다면 미국과 영국의 침략자들은 이미 한반도로부터 제거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공중엄호 없이 감행된 제5차공세가 그의 혁명이력에서 몇 안 되는 군사적 실수 중에 하나였음을 회상하였다.[46]

1951년 전반기 중국공군의 참전은 스탈린과 중국 참전 전선지휘관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공군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려는 중국지도부의 이해에 떠밀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저우언라이는 주중 소련 군사고문단장인 자하로프에게 중국은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중국군 병사의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공군을 북한에서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47] 저우언라이는 전쟁으로 인해 중국공군의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된다면 중국공군은 소규모로 남게 될 것이며 대군으로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중국공군지휘관들은 중국공군의 참전은 시기상조이며, 조종사들은 참전 전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결국 류야러우는 신중하게 행동했고 1951년 6월의 중국지원군 공군의 참전계획을 번복하였다.

2) 전투조종사 양성 훈련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전을 회피하고자 했던 스탈린은 북한으로의 소련 공군의 직접파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북한 내 공군전력 파견은 건설 중인 중국공군을 신속히 양성하여 중국공군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그의 확고한 구상이었다. 따라서 중국공군의 조속한 건설과 중국공군의 6·25전쟁 참전은 스탈린에게 있어서는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도 소련공군이 북한에 진입한 중공군에 대한 공중엄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엔공군에 의한 병력손실과 후방병참선 파괴가 심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공군의 참전은 시급을 다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48] 그러나 중국공군은 당시 소련의 지원 하에 공군력을 건설할 시기였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조종사와 지상요원의 훈련이 미흡한 상태로 지상군 참전에 이어 즉시 공군을 투입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소련공군의 엄호 없이 중공군의 참전이 결정된 이후 중국공군이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50년 10월 18일 마오쩌둥이 주재한 고위급 회의에서 펑더화이(彭德會)는 공군사령관 류야러우(劉亞樓)에게 북한에 진입한 중공군의 지원을 위해 공군부대를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자리에서 류야러우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고 중국공군 조종사들을 가능한 빨리 전쟁에 참여시킬 것을 약속하였다.[49] 그러나 그의 약속은 결국 해를 넘겨 지켜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공군 조종사에 대한 교육은 전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소련공군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교육임무를 부여받은 소련 공군부대는 이미 참전하여 전투임무를 수행 중에 있어 교육 임무는 부가임무가 되었고,

중국공군 내에는 공군체계나 비행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지상군 경험자들만 존재했기 때문에 교육은 정해진 계획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공군의 참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되었는데 이들 참전을 위한 조종사 교육을 담당한 부대는 소련 제 28, 151전투비행사단이었다. 120대의 MiG-15기를 보유한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은 퉁화(通化), 테링(鐵嶺), 랴오위안(遼原), 단둥지역에 집결된 중공군 제13병단을 엄호하고, 중국군 조종사를 양성한 후 물자와 장비를 중국군에게 인도하여 중국공군 전투비행대로 전환하는 것이 파견 목적이었다. 이후 중국에 파견된 소련 공군 제 28전투비행사단에게도 같은 임무가 주어졌으며 제 28, 151전투비행사단은 전투임무 외에 중국 조종사 및 항공기술 전문가 양성이라는 부가업무가 부여 되어 각 사단은 사단 내에서 비행교관 및 유능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1개 대대를 편성하여 임무를 담당시켰다. 제28전투비행사단은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단에 대한 재교육을 1950년 12월 12일까지 완료하고, 제151전투비행사단은 1951년 1월 10일까지 중국공군 제3전투비행사단의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26일 소련 제50전투비행사단에 1950년 1월 10일까지 중국 제4전투비행사단 소속 조종사들을 전투대열에 편성하여 2~3차례 전투비행을 실시하도록 하라는 특별명령이 하달되었다.[50] 이 훈련은 1950년 12월 하순부터 1951년 3월 초까지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 예하 제10, 12비행연대가 안둥(安東)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제50전투비행사단에 파견되어 소련조종사와 함께 전투임무에 참여하였다. 최초 12월 21일 제10비행연대 예하 28비행대대가, 1951년 1월 17일에는 제10비행연대 소속 제29, 30비행대대가 파견되었으며, 1951년 2월 2일에는 제12비행연대가 제10비행연대를 교체하여 안동으로 파견되었고 제10연대는 모기지인 랴오량(遼陽)으로 귀환하였다.[51]

소련 공군 제50전투비행사단에서 실시한 중국공군 조종사에 대한 훈련단계는 2단계로 편성되었는데 첫 단계는 지상 학습 및 훈련 단계로 3일 동안 유엔공군의 공중전술을 학습 받고 중국 조종사 자체로 지상에서 전투비행기술을 연습하였다. 다음 단계는 전투상황과 조건을 숙지하고 적응하기 위해 3~4일간 유엔공군의 활동이 없

을 때 북한 상공에 진입하여 비행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는 유엔공군이 수적 열세일 때 소련 공군의 엄호 하에 실제 전투임무를 실시하였고 작전의 밀접한 협조를 위해 중국 제4전투비행사단과 소련 제50전투비행사단은 연합지휘소를 설치하였다.

1951년 초 유엔공군이 김포와 수원기지에서 철수하면서 청천강 이북 상공에서의 유엔공군전투기들의 활동이 감소하자 중국공군은 조종사 전투기량을 습득할 수 있는 호기라고 여기고 중국공군 지휘부는 1951년 1월 17일 제4전투비행사단 제10비행연대 소속 제29, 30비행대대를 제28비행대대가 있는 안둥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약 한 달간의 전투임무기간 중에 제28비행대대는 7번의 전투임무를 위해 출격하였으나 유엔공군기와 조우하지는 않았다.



MiG-15기 앞에선 중국 조종사 리한(李漢)

1월 21일 중국공군 6대, 소련 공군 8대의 MiG-15기는 청천강 상의 교량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한 4대의 미 공군 F-84기를 요격하기 위해 안주 상공으로 출격하여 공중전을 전개하였는데, 제28비행대대장인 리한(李漢)은 F-84기 한 대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고, 소련 조종사들이 그의 주장을 확인하였다.[52] 또한 1월 29일에는 F-84기 1대를 리한이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였다.[53] 이러한 결과는 중국공군 지휘부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했고 창군 초기 중국공군의 공중전 능력이 괄목할 만큼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이는 중국 조종사들에게는 공중전이 더 이상 그들에게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님을 느끼게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중공군이 지상에서 거둔 승리와 같이 공중에서도 유엔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사기를 진

작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에 고무된 중국공군지휘부는 보다 많은 중국 조종사들에게 실전을 경험시키기 위해 2월 2일 제10비행연대 후속으로 제12비행연대를 안둥에 파견하였는데 제12비행연대조종사들의 MiG-15기 비행시간은 15시간에 불과했고 이제 갓 전투를 위한 기초훈련과정을 이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중국공군 지휘부의 희망과는 달리 중국공군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의 미숙함은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과 함께 안둥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입증되었다. 2월 10일 아침, 러시아 레이더 운영자가 귀환 중인 중국 전투기를 유엔공군 전투기로 오인했고 8대의 소련 MiG-15기가 비상이륙을 할 때 중국 측의 혼선으로 인해 제12비행연대 소속 MiG-15기 2대가 이륙 중 충돌하여 추락하였고 1대는 연료 고갈로 착륙 중 추락하였다. 전투 없이 제12비행연대는 안둥기지에 주둔한지 며칠 사이에 1개 비행중대 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비록 중국공군지휘부가 중국 조종사들이 전선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전투경험 획득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중국 조종사가 보여준 능력수준에 그들은 실망하고 말았다. 팡지이(方子翼,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장)은 악 기상과 유엔공군의 활동 감소가 중국 조종사들의 전투기량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한하는 주된 요소였다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제12비행연대는 3월초 모기지인 랴오량(遼陽)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시기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은 소련 기록이 불완전 하기는 하지만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유엔공군의 F-80기와 F-84기 6대, B-29기 6대를 격추하였다고 보고하였다.[54]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제4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은 약 2달여 동안 145회 전투임무비행을 실시하였으나 그중 24회만 적기와 조우하여 유엔공군기 1대를 격추하고 2대에 대해 손상을 입혔으나 중국공군 또한 2대의 MiG-15기를 격추당하고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대가를 지불하였다.[55] 중국공군 지휘부가 처음에는 그들 조종사들이 북한상공에서 실제전투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공중전의 가혹한 현실은 그들을 중국 조종사들에게는 보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중국공군 제 4전투비행사단이 정식으로 참전하는 1951년 9월까지 미그회랑에서의 작전책임은 전적으로 소련 공군에 맡겨졌다.

3) 참전을 위한 공군 조직 편성과 훈련

1951년 초, 중국공군에게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전투부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즉시 제4혼성비행여단은 1950년 10월말 조종학생들을 조기에 졸업시켜 3개의 전투비행사단(제 2, 3, 4전투비행사단)으로 재편성 하였다. 대규모의 소련 공군 병력이 도착하자 중국공군의 확장은 시작되었다. 1950년 12월에는 3개의 전투비행사단(제6,7,9전투비행사단), 1개 폭격전투비행사단(제8항공폭격사단), 1개 공격기사단(제5항공사단)이 추가로 건설되었다. 1951년 전반기동안 추가로 10개 전투비행사단(제10항공폭격사단, 제11공격전투비행사단, 제13공수전투비행사단, 제 12, 14~18 전투비행사단)이 구성되었다. 소련 공군체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국공군 전투비행사단은 각기 2개의 비행연대를 두었고, 각 연대는 단지 20~25대의 MiG-15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걸친 창설로 인해 그들의 능력은 일정하지 않았다. 조종사 대다수가 전투비행훈련을 받지 않았고 전투에 임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촉박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지도부는 유엔군을 한국에서 구축(驅逐)하고자 1951년 춘계기간에 대규모 공세를 계획했고 이때 중국공군은 12개 전투비행연대가 참가하기로 계획되었다. 1951년 1월 16일 중국공군지휘부는 이들 부대가 2개월 반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작전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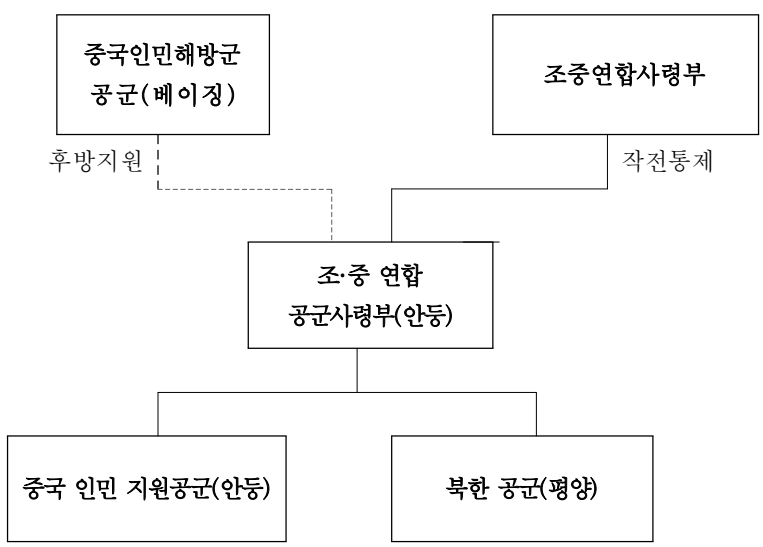
1월 중순과 4월 초 중국공군 전투기부대는 일련의 집중화된 훈련을 수행하였는데 공중조작, 편대비행, 순항비행, 작전부대훈련이 강조되었고, 폭격기 조종사들은 연대군편대비행과 폭격훈련에, 공격비행대대는 다양한 편대비행과 대지공격훈련에 집중하였다. 4월 8일 전투비행사단장 회의에서 중국공군 지휘부는 한국 전장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임무와 항공기 대수를 분석한 후에 어떤 부대를 전장에 투입할 것인가와 신속한 이륙과 집결, 분산, 착륙, 전투대형을 포함한 전술기동 협조에 관련되어 그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제28비행연대 조종사들은 그들이 접한 전투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중국지원군 공군 부대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들이 보인 특별한 시범은 기총 사격 조준경 사용

법인데 정확한 선도각(lead angle)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국공군의 참전을 위한 준비는 1951년이 시작되면서 중국 지휘부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1월 3일 저우언라이(周恩來), 네룽전(聶榮臻), 류야러우는 주중 소련군사총고문과 협의하여 1월 10일부터 MiG-15기 전투기 2개 사단(124대)를 동원하여 지안(輯安)에서 강계(江界), 안둥(安東)에서 안주(安州)까지의 2개 철로에 대한 수송엄호를 하기로 소련 측과 합의하였다.[56] 또한 중국 자체적인 참전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1951년 1월 12일 가오강(高岡) 동북군구 당위원회에서 확정한 준비업무 계획을 마오쩌둥과 중앙군사위원회, 펑더화이에게 보고하고 총후방기지의 각종 준비사항을 지시하면서 "공군은 3월말 이전에 4개 사단 훈련을 완료한다. 기존 비행장 외에 4월말 이전에 동북에 5개의 새로운 비행장을 다시 건설."[57] 할 것을 지시하였다.

1951년 1월 7일 저우언라이는 김일성에게 조중연합사령부 설립 취지에 근거하여 조·중 연합공군사령부 설치를 제의하였고 이런 준비과정을 거친 후 3월 15일에 조·중 연합공군사령부가 안둥기지에 창설되었다.[58]

<표 8-6> 조·중 연합공군사령부 지휘관계



사령관에는 리우전(劉震)이 임명되었고 중국 측 부사령관에는 창첸쿤(常乾坤)이, 북한 측 부사령관에는 왕련(王 璉 : 북한공군사령관)을 임명하여 양국 공군간의 작전 협조를 도모하였다. 조·중 연합공군사령부는 예하에 지휘본부(참모장 : 선치젠 ; 沈啓賢), 정치부, 공병부, 군수부를 두었고 예하 전력으로 4월초 까지 중국공군 5개 공군전투비행사단(추격기사단 2개, 폭격기 사단 2개, 공격기 사단 1개)과 북한 공군 3개 전투비행사단을 편입 하였다.[59] 조·중 공군연합사령부는 조중 연합사령부에 지휘를 받았으나 북한 공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공군은 공·지 전투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선양 외곽에서 '공세전역에서의 항공 육군 작전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훈련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중국공군지도부는 또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둥, 랴오량, 선양기지의 전투기, 폭격기, 대지공격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협동훈련을 계획하였다. 이 훈련은 제4전투비행사단, 제5공격비행사단, 제8폭격비행사단 소속 총 180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공중기동훈련으로 적 비행장에 대한 기습공격, 적 폭격기 편대 요격, 지상군에 대한 직접지원(근접항공지원)을 훈련하였다. 이 훈련은 조종사, 지상지원요원, 지상과 공중지휘관들에게 공군이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였다. 이 때 중국공군부대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조종사의 사격과 폭격기술은 물론 지상통제와 공중전투 통신 분야에서 미흡한 상태를 보였다. 1951년 전반기의 제4전투비행사단의 전투경험과 기타 문제들은 결국 중국공군지도부로 하여금 한국 전장에 공군을 보내는 것을 9월까지 연기하게 만들었다.

4) 중국공군 참전과 반 교살작전(反 絞殺作戰)

중국공군의 참전은 1951년 8~9월로 계획된 중공군 제6차 전역(戰役) 준비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 1951년 5월 30일 중공군의 5월 공세가 끝난 후 차후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한 덩화(鄧華) 일행을 맞이하여 김일성은 차기 총공세시기를 6월 말 혹은 7월 중순으로 제안하면서 공중엄호가 필수적이며

마오쩌뚱에게 중국 공군을 동원해 수송로를 엄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제안은 1951년 6월 3일 김일성이 북경에 도착해 마오쩌뚱과 회담을 진행하여 지구전에 대한 준비와 휴전협상투쟁의 성공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총공세 시기는 8월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7월 10일에 시작된 휴전협상이 7월 하순이 되어서도 의사일정합의 조차 이루지 못하고 진전이 없자 7월 24일 펑더화이(彭德懷)는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반격(전역)문제와 관련한 전문에서 "나는 8월 중으로 반격 준비를 완료하고 만약 적이 공격하지 않으면 9월까지 기다려 진행할 것이다."[60]라고 제6차전역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7월 26일 마오쩌뚱은 답신을 통해 펑더화이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모든 중국군은 9월 전역을 대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7월 30일 펑더화이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공군사령부에 전문을 보내 공군의 참전 준비 상황과 9월 전역(제6차 전역)에 공군의 참전 가능한 부대규모를 문의하였다. 8월 1일 공군사령관 류야러우(劉亞樓)는 저우언라이의 검토를 받은 공군의 참전 준비 상황을 전문을 통해 펑더화이에게 보고하였다. 전문에 기록된 1951년 9월초까지의 공군의 가능한 준비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61]

① 참전가능 부대 및 훈련정도 : 각기 25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22개 연대

단위 : 연대

구 분	MiG-15	프로펠러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숙 련	4	1	2	1(6대 : 야간작전가능)
부 족	8(참전 가능)	2	2	2
계	12	3	4	3

※ 숙련은 참전하여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것이며 부족은 훈련량이 부족하여 참전 시 전투력 발휘가 곤란하여 참전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

② 소련으로부터 구매한 항공기 운영부품의 미도착으로 9월 중 상기 전력 중 1/3 가량이 작전운영 불가

③ 북한 지역 내 비행장 확보 시 제트전투기와 공격기 행동반경은 서울까지 이르게 되고 폭격기는 대구와 부산까지 도달

④ 작전이 개시될 경우 중국공군 사령부는 평양에, 전방지휘소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에 위치할 것이며 각급 제대 지휘소는 전역 시작 20일전에 출동 가능

이어 8월 8일 펑더화이는 제6차 전역의 작전의도와 기본적 구상에 대해 마오쩌뚱에게 전문으로 보고하고 이를 가오강에게 통보하였는데,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사령부는 8월 20일 평양으로 이전하며, 작전에 참가하는 숙련도가 높은 공군의 10개 연대는 9월 8일 평양공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9월 10일 오후 전역공격을 개시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8월 9일 펑더화이는 류야러우 공군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내 "8월 1일 전문에서 모두 22개 연대의 공군이 9월 초 참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매우 큰 기쁨과 위안이 됐다. 중국인민지원군 공군사령부는 8월 20일 정도에 평양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고, 당신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평양에 와서 지휘하는 것이 어떻겠소?"[62]라고 묻는 등 공군의 참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전과 같이 참전 연기가 발생할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8월 10일 마오쩌뚱은 8월 8일의 펑더화이의 전문에 대해 저우언라이와 네룽전(聶榮臻)에게 회의를 소집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날 저녁 저우언라이는 총참모장 대리 네룽전, 공군사령관 류야러우, 포병사령관 첸시롄(陳錫聯), 총보급부 부장 양리산(楊立三), 군사위원회 작전부장 리타오(李濤) 등을 소집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장마로 인한 전선으로의 식량조달의 어려움과 공군의 참전불가 확정,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월 회담이 결렬될 경우 10월에 공격준비를 마치고 11월에 대규모 공세를 가하게 된다면 공군도 11월에는 참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63] 이로써 결국 펑더화이가 의욕적으로 구상했던 제6차 전역계획의 공격시점은 9월에서 11월로 연기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엔군의 하·추계 공세기간 동안 방어작전을 경험하며 펑더화이는 전술적 반격작전이 유엔군의 섬멸과 전선의 안정, 그리고 지구전 전개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10월 말 그는 공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대전역(大戰役)은 11월 혹은 금년 말까지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게 되

었다. 이로써 1951년도의 제6차 전역 계획은 철회되게 되었고 중국공군의 참전 또한 다시 연기되는 것으로 보였다.[64]

그러나 상황은 중국공군의 참전이 연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중국공군의 참전은 당시 소련과 중국 당국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특히 중공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급하고도 긴요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중공군이 1950년 10월 지상전에 참전하여 공중엄호 없이 작전을 수행하며 막대한 출혈과 희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참전하고 있던 소련공군은 중공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중엄호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국 공군의 참전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1년 8월 18일 시작된 유엔공군의 제2차 교살작전(Strangle Operation)은 중공군의 보급로를 철저히 파괴하였고 이로 인해 전선에서는 식량이 도착하지 않아 9월초가 되자 중공군은 들판의 야채로 허기를 메우고 있었고 동계 피복을 지급받지 못한 중공군 지휘부는 지난 겨울의 혹한을 떠올리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65]

이러한 전선의 긴박성을 타개하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반 교살작전(反 絞殺作戰)'의 시행을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66]

① 철도수리능력 증강 조치 : 중국군 철도병단에 신규병력 9,000명 보충, 추가로 5개 병단 배속 및 고사포부대 추가 동원을 통한 대공방어능력 증가, 철도보수자재 긴급 지원
② 수송물자 우선순위 변경 : 탄약, 장비 등 전투장비에 우선하여 양식, 피복, 유류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 수송물자로 규정 최우선 수송
③ 수송시설 공중엄호를 위한 중국 공군 참전 : 1951년 9월 20일 이후 리우전(劉震) 조·중연합공군사령관의 지휘로 안둥을 기지로 평양 이북의 철도수송, 비행장 건설 엄호를 위한 참전을 결정하고 윤번작전개념 하에 출격작전 시행

이로써 중국공군은 창설 이래 최초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고 중국인민지원군과 중국공군 역사상 최초의 합동작전과 중국과 북한, 소련 공군 간의 대규모 공군연합작전이 시행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 부대는 중국공군 제

4전투비행사단이었다.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은 1950년 6월 19일 난징(南京)에서 중국공군 최초로 창설된 전투부대인 공군 제4혼성여단의 후신이다. 창설 당시 제4혼성여단은 2개 전투기연대(제10연대 : MiG-15 38대, 제11연대 : La-11 39대)와 각 1개씩의 폭격기(제12연대 : Tu-2 39대) 및 공격기 연대(제12연대 : IL-10 25대)로 구성되었고 Yak-17UTI 등 훈련기 14대를 보유하여 기종별로 항공학교 학생조종사들을 훈련시켜 임무조종사로 전환 가능한 체제를 갖추었다. 1950년 8월 8일 상하이(上海)이로 여단 주둔지를 옮긴 후 1950년 10월 28일 제4섬격(殲擊)여단으로 변경되었다가 10월 31일 11월 제4전투비행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은 1950년 12월 하순부터 1951년 3월 초까지 당시 안둥(安東)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제50전투비행사단에 파견되어 소련조종사와 함께 실전을 경험했던 예하 제10, 12비행연대 소속 조종사 56명과 MiG-15기 55대를 안둥〔랭토우(浪頭)〕비행장으로 1951년 9월 12일 전개시키고 작전준비에 돌입하였다.

중국 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에게 주어진 임무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지휘하에 유엔공군의 공격으로부터 평양이북의 철도수송을 보장(반 교살작전)하고 비행장 건설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이 안둥기지 주둔 후 최초로 공중전에 참가한 것은 9월 20일이며 9월 25일에는 중·소 공군과 유엔공군 쌍방이 도합 전투기 250대가 참가한 공중전이 전개되었다. 이날 최초로 중국공군 조종사 리우용신(劉湧新)은 미 공군의 F-86을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9월 26~27일 간에도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졌고 중·소공군은 모두 26대의 유엔기를 격추시키고 8대에 손상을 입혔다.[67] 10월 2일 제4전투비행사단의 전과를 보고받은 마오쩌뚱은 "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이 용감하게 작전에 임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크게 위로한다."[68]라는 전문을 보내 격려하였다. 이후 제4전투비행사단은 10월 19일까지 작전활동을 지속하여 총508쏘티의 출격을 통해 유엔공군과 10여 차례의 공중전을 벌였고 유엔공군기 17대를 격추하고 7대에 손상을 입혔으며 14대의 MiG-15를 손실 당하였다.[69]

<표 8-7> 중국공군 제3, 4전투비행사단의 전투 활동[70]

구 분		제4전투비행사단	제3전투비행사단
활동 기간		1951.9.20.~10.19	1951.11.2~1952.1.14
비행 소티		508	2,391
공중전		10회	23회
전과	격 추	17대	55대
	손 상	7대	8대
피해	손 실	14대	16대
	손 상	1대	7대

윤번작전개념에 의거 제4전투비행사단의 뒤를 이어 10월 20일부터 제3전투비행사단이 안둥에 전개하였다. 제3사단 또한 2개 비행연대(제7, 9비행연대)에 MiG-15 50대와 조종사 5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공군 제3전투비행사단은 1950년 10월 1일 제3비행여단으로 창설되어 10월 31일 제4전투비행사단과 함께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제3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 대부분은 동북항공학교 출신으로 사단 전입 후 매일 밀집대형 비행, 항법, 공중조작 및 모의공중전투가 포함된 사단 자체의 혹독한 과정을 통해 훈련되었고 중국공군이 실시한 공·지간 전투협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4차례 참가하였으며 참전하기 전까지 평균 70시간 이상의 MiG-15 비행시간을 축적하고 있었다.[71]

이들이 안둥기지에 전개 후 작전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일 미그회랑(MiG Alley)에 관숙 차 첫 비행을 실시하던 중 유엔공군기와 조우함으로서 첫 공중전을 치렀고 1952년 1월 14일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 제3전투비행사단은 1951년 10월 21일부터 1952년 1월 14일까지 86일간에 걸쳐 연 2,391대가 출동하였고 공중전 23회를 실시하여 유엔공군기 55대를 격추하고 8대에 손상을 입혔으며 MiG-15 16대가 격추되고 7대에 손상을 입었다.[72]

중단되었던 휴전협상이 1951년 10월 25일 재개되어 11월에는 활발히 진행되고 군사분계선 설정에 진전이 이루어져 휴전협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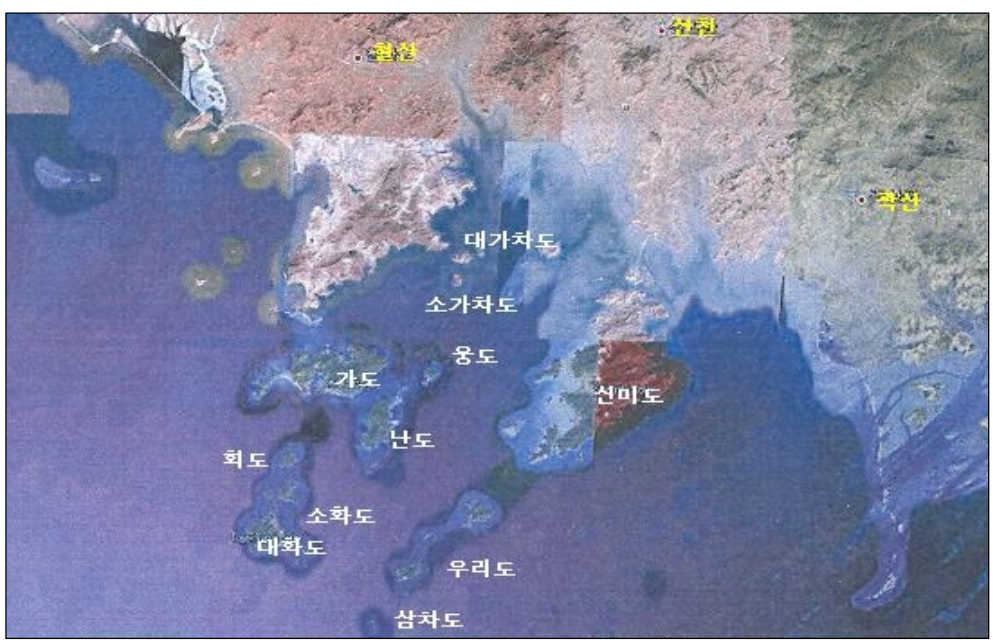
는 전망이 보이자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는 11월 중순 이 시기를 활용해 더욱 많은 공군부대가 실전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미 참전한 제3, 4전투비행사단이 새로운 부대를 지휘하여 참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제 2, 14전투비행사단이 11월에 다둥고우(大同溝) 비행장으로 전개하여 12월부터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12월에는 제6전투비행사단이 참전하였다. 이로써 중국공군은 1951년 12월말까지 5개 전투비행사단이 참전하게 되었고 총 5,287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고 45차례의 공중전을 통해 유엔 측 항공기 72대를 격추시키고 25대에 손상을 입혔으며 중국공군 또한 44대가 격추되고 16대가 손상을 입었다.[73] 중국 공군은 한편 공중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공중전 지휘 및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51년 12월 박천 북부 및 평양 서북부에 두 개의 전방보조지휘소를 설치하고 영유, 숙천, 신안주, 정주 일대에 대공탐지소를 편성하여 대공감시를 강화하였다.

중국 측 자료는 1951년 9월 25일 대규모 공중전투에서 제4전투비행사단 제12비행연대 제1대대장 리영태(李永泰)의 활약상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그를 '공중탱크'로 호칭하였는데, 리영태는 9월 25일 3기 편대 편대장으로 출격하여 최초 발견한 F-80 13대를 요격하기 위해 기동 중 이를 엄호하고 있던 8대의 F-86과 조우하여 공중전을 벌이던 중 F-86 기관포에 약 30발이 피탄 되어 기체 52곳에 손상을 입었으나 무사히 기지로 귀환하였고 이를 본 동료들이 "이것은 비행기가 아닌 공중탱크다."라고 그의 용기를 칭송하였다.[74] 이 전투에서 리영태의 요기(僚機) 조종사인 리우용신(劉湧新)이 F-86 1대를 격추하여 중국공군 최초로 F-86을 격추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리우용신은 F-86 편대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하였다.

제4전투비행사단에 이어 참전한 제3전투비행사단은 이전 제4전투비행사단의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참전 초기에는 유엔군의 소규모편대를 위주로 공격을 가하다가 차츰 대규모 공중전에 참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11월 16일부터 대규모 공중전에 참여하였다. 제3전투비행사단 제9연대 제1대대장 왕하이(王海)의 지휘 아래 11월 18일 유엔공군기 5대를 격추하였고 6·25전쟁 중 80여 차례의 공중전에 참가해 모두 29대를 격추하거나 손상을 입혀 영웅의 '왕하이 대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75] 또한 이 중국 측 자료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나 1951년 10월 21~1952년 1월

14일까지의 제3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의 개인의 전과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제7연대 제1대대장 리우위띠(劉玉堤)는 11월 23일 공중전에 미군기 4대를 격추하는 등 총 5대를 격추하고 2대에 손상을 입혔고 제7연대 제3대대 자오바오통(趙寶桐)이 6대를 격추하고 2대에 손상을 입혔으며, 판완장(范萬章)이 4대 격추, 1대 손상, 쟈오징원(焦景文)이 3대를 격추하고 1대를 손상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76]

중국지도부는 휴전협상에서 "도서부대 철수문제"에 관한 협의에 쐐기를 박고 동시에 잔존하는 서해안 도서지역의 유엔군 특수부대를 제거하여 측후방의 위험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차 먼 곳으로 도서를 공략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77] 이에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군 제2전투비행사단(La-11), 3전투비행사단(MiG-15), 제8, 10폭격사단(TU-2)과 중공군 제50군단이 합동으로, 4차례(정찰 1회, 폭격 및 엄호작전 3회)에 걸친 작전을 통해 서해상의 가도(假島), 난도(蘭島), 애도(艾島), 회도(灰島), 대화도(大和島), 소화도(小和島), 대·소가차도(大·小加次島), 우리도(牛里導), 운무도(雲霧島) 등 10여개 섬을 점령하였다.



중국군의 서해도서 점령 작전 주요 도서

이러한 중국공군의 참전과 선전(善戰)에 대해 마오쩌뚱은 1951년 10월 2일과 1952년 2월 1일 각각 제4전투비행사단과 제3전투비행사단에게 전문을 보내 격려하였다. 소련공군에 이어 중국공군이 참전하고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유엔공군의 교살작전(Operation Strangle)에 대응한 반-교살작전이 벌어짐에 따라 유엔공군의 작전기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MiG-15 편대에 대응하기 위한 F-86의 증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8-8> 중국공군의 서해북부 도서 점령 지원작전

구 분	일 시	참가 전력	비 고
1차 작전 (정찰)	'51.11.1 (오전)	4/MiG-15(제3비행사단) 4/La-11(제2비행사단)	·공중전 없음
2차 작전 (폭격, 엄호)	'51.11.5 (오후)	9/TU-2(제8폭격사단) 16/La-11(제2비행사단) 24/MiG-15(제3비행사단)	·공중전 없음, ·중공군 제50군단 가도 상륙
3차 작전 (폭격, 엄호)	'51.11.29 (야간)	10/TU-2(제10폭격사단)	·공중전 없음 ·중국공군 최초의 야간 폭격작전 (23:15분 이륙)
4차 작전 (폭격, 엄호)	'51.11.30 (16:00~)	9/TU-2(제8폭격사단) 16/La-11(제2비행사단) 16/MiG-15(제3비행사단)	·미 제4전투비행단 31대/F-86과 교전 ·중국손실 : 3대/TU-2 격추, 5대/TU-2 손상, 3대/La-11, 1대/MiG-15 격추 ·미국손실 : F-86 1대 손상

제 3 절 유엔 및 한국공군 작전

1. 유엔공군 작전

1) 전력증강 및 부대 재배치

전쟁이 장기화하고 전선이 고착함에 따라 미 극동공군 및 제5공군은 새로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그간의 전투로 인한 항공기 손실을 보충하고 공산 측 MiG-15의 전력증강으로 인한 대등한 전력 구성을 위한 추가전력 확보와 구형 전투기의 신형전투기로의 전환을 포함한 전투력 증강이었고, 일본기지에서의 출격으로 인한 작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조종사의 전투피로도 감소를 위한 한국 내 전력배치문제가 두 번째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의 유럽중시정책,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미 공군의 신형전투기 우선 배치정책으로 인한 항공기 부족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았다.

1951년 초가 되자 극동공군사령관과 제5공군사령관 모두는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공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F-51, F-80과 같은 구형기 위주의 편성과 비행기지 건설을 위한 시설인력의 부족이라고 인식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자 열악한 활주로와 지원시설을 갖춘 한국 내 비행장에서 작전을 지속해 온 F-51, F-80 전투기는 재고가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본토에서는 생산 중단된 상태였다.[78] 이러한 구형전투기의 소모와 한국 내 비행장의 열악한 작전환경, 그리고 공산공군 MiG-15기의 전력 증강은 극동공군 지휘부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공중우세확보에 의구심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51년 3월 초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반덴버그 참모총장에게 F-51과 F-80전투기 전량을 F-84기로 전환해 줄 것과 5개 시설대대와 기타 비행장 건설에 필요한 지원부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고, 4월

초에는 F-51기를 F-47기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9] 이러던 차인 1951년 4월 6일 미 전략공군사령관인 르메이(Curtis E. Le May) 장군은 예하 전력인 제27전투엄호비행단(Fighter-Escort Wing)의 F-84기가 본래 기능인 공중전 보다는 폭격기로 활용되어 조종사들의 전투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에서의 철수를 결심했고 미 공군당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반덴버그 총장은 제27전투엄호비행단의 본토로의 철수는 승인하였으나 극동전력에서 F-84기의 전력손실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그는 제49, 136전투비행단에게 장비를 넘겨주도록 결정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제136전폭비행단은 1951년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장비수령과 임무전환에 따른 훈련을 종료하였고 제49전투비행단 예하 3개 대대는 8월말에 F-84기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5공군은 예하에 F-84기로 무장한 비행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B-26 경폭격기 증강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1년 5월까지 제5공군 예하 B-26폭격기 운용부대는 제3, 452폭격비행단이었다. 제3폭격비행단은 2개 비행대대(제8, 13폭격비행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452폭격비행단은 4개 비행대대(제728~731비행대대)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 이들 비행단에 인가된 B-26기는 제3폭격비행단 예하 대대별로 24대, 제452폭격비행단 예하 대대별 16대였다. 또한 폭격승무원 양성을 위해 미 전술공군사령부는 버지니아주 랭래이(Langley)공군기지에 B-26 승무원훈련소를 설치하여 매월 12명의 B-26기 승무원을 배출하다가 1951년 5월부터는 월 45명씩 배출하였다.

1951년 2월 3일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제452폭격비행단의 대대별 B-26 보유기준을 24대로 상향시킬 것을 미 공군본부에 요청하였으나. 미 공군당국은 랭래이 기지에서 배출되는 B-26기 승무원으로는 충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1951년 4월 들어 제452폭격비행단에게 야간 폭격임무가 부여되자 4월 14일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2개 폭격비행단 6개 대대에 B-26기 인가기준을 대대별 24대로 상향시킬 것과 여기에 전시 예비보유량 50%를 더하여 총 216대로 인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미 공군당국은 야간장비 부족과 항공기 개조 비용의 과다를 들어 2개 비행단의 인가기준을 96대로

하향시켰다. 이후 웨이랜드 극동사령관의 추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1951년 전반기 내내 지속된 극동공군의 B-26 증강노력은 실패로 귀착되었다.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심장발작으로 1951년 5월 21일 극동공군사령관에 임시로 부임했던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장군은 당시 제5공군이 한국에서의 항공작전운영을 위한 기지시설 및 항공전력 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내년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80]라고 강조하면서 참모들에게 향후 1년간 전투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제반 측면의 소요량을 산출하도록 지시하였고, 6월 1일 제5공군사령관에 임명된 에버레스트(Frank F. Everest) 소장에게 "한국에서 계속 주둔한다는 가정 하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설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81] 이에 대해 에버레스트 소장은 취임 직후 1951년 9월까지 5개 전술비행장 건설을 포함한 한국 전구에서 약 2년 정도의 작전을 감당할 수 있는 영구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 7월초에는 대구, 군산, 수원비행장의 활주로를 9,000ft로 확장할 것을 제930, 931시설전대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931시설전대에게는 김포비행장의 보수, 수원비행장의 활주로 확장 및 항공기 격납고와 유도로 건설, 군산 서남부 해안에 신규 비행장 건설 임무가 주어졌고, 제930시설전대는 대구비행장의 보수 및 확장이라는 주 업무와 함께 춘천, 횡성, 서울, 평택기지에 대한 중대규모 이하 공사 수행을 지시받았다.

극동공군 작전참모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6·25전쟁 개전과 1950년 말까지의 전쟁 상황을 목도하고, 공군역할의 중요성과 미 항공 전력 운용의 제한사항을 절감했던 웨이랜드(Otto P. Weyland) 중장이 1951년 6월 10일 극동공군사령관으로 부임하였고, 그 또한 극동 공군이 인가수준이하 전력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증강시켜 줄 것을 공군본부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항공기의 신형화와 양적 증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2일에 서한을 보내, 일본 주둔전력의 한국 내 배치를 위한 기지 확장과 추가 건설에 필요한 5개의 시설대대를 본토로부터 추가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반덴버그 총장은 병력이 증강된 2개 시설대대와 1개 공병정비중대의

파견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1951년 9월에는 제622 시설정비중대와 제809시설대대가, 11월에는 제1903시설대대가 한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극동공군에는 기존에 파견된 5개 시설대대를 포함 총 7개 시설대대가 한국 내 기지 확장과 추가건설을 위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내에서의 비행장 확장 및 건설 공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된 장마는 물론 활주로 기반토질이 진흙이라는 자연·지역적 특성 외에도 기존 비행장의 경우에는 현행작전과 시설확충이 병행되어야 했고 급파된 인력들은 숙련도가 떨어졌으며 미국으로부터 급조되어 조달된 건설장비와 부품들은 서로 호환성이 없거나 기준 성능에 미달하여 장비가동률을 낮추었다. 그러나 1951년 8월이 되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느 정도 결실이 맺기 시작했고 한국 내 기지로 영구주둔을 위한 전투전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82]

일본 존슨(Johnson) 기지에 1개 요격기 대대와 파견대만을 남긴 채 모든 전력을 1951년 5월 7일 수원기지로 전개하여 작전을 벌이던 제4요격비행단(邀擊飛行團, F-86 보유)은 8월 23일 김포기지로 이동하였고, 이와 동시에 Meteor-8기로 무장한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제77대대는 제8전폭비행단으로부터 배속되어 주둔지를 김포로 옮겨 미그회랑지역에서의 공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8전폭비행단(戰爆飛行團, F-80 보유)은 일본 이다즈케(板付) 기지로부터 1951년 6월 25일 김포비행장으로 전개하였다가 8월 23일 수원기지로 이동하였다. 일본 고마키(小牧)비행장에서 1951년 3월 21일 대구비행장으로 전개하여 임무 중이던 제67전술정찰비행단(戰術偵察飛行團, RF-86, RB-26, RF-51, RF-80 보유)은 8월 20일 김포기지로 전개하여 유엔공군 및 지상군에게 전술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제51전투요격비행단(F-80, 1951년 11월 이후 F-86으로 기종 전환)은 일본 쓰이키(築城)기지에서 7월 31일 수원기지로 전개하였다. 1951년 8월 일본 이다즈케 기지에서 제27전투엄호비행단의 임무와 장비를 인수받은 제136전폭비행단은 9월에 예하 전투대대와 지원부대를 대구로 이동시켰으며, 8월 중순 5,000ft 아스팔트 활주로 및 부대시설이 신축된 군산비행장(K-8)에는 8월 22일 제3폭격비행단이 둥지를 틀었다. 제18전폭비행단과 이에 배속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비행대대는 진해비행장(K-10)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서울 여의도기지(K-16) 기지로의 이동계획을 접고 횡성기지(K-46)로의 이동준비를 9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인 1952년 6월 횡성기지로 전개하였고, 제6147전술통제비행단은 이동 없이 평택비행장에 주둔한 채로 T-6(Mosquito)기의 이착륙을 위한 단거리활주로를 건설하였다. 한편 제452폭격비행단은 5월 23일 부산 수영비행장(K-9) 전개하여 이동 없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전력의 이동배치는 정전 시 까지 본토 주 방위군에서 동원된 부대이거나, 중간에 해체되는 전력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이 시기 미 극동공군은 한국에 대한 대공방어체계 구축에 관심을 두었다. 방공체계는 기본적으로 적기를 탐지, 식별, 경보, 요격에 이르는 과정으로, 극동공군은 과거 전쟁발발 이후 1년간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 또는 공산 측의 항공기가 남한지역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1951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공산 공군전력이 신예기인 MiG-15를 중심을 전력이 증가되고 있었고, 1951년 가을까지 한국 내 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영구 주둔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에버레스트 제5공군사령관은 기지가 적은 상태에서 수개 비행단이 공동으로 한 개 비행장을 사용할 경우 공산공군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높을 것을 우려하여 방공체계의 구축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이 많고 폭이 좁은 한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운용 가능한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장비, 대공포, 전천후 전투기 등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다.

제5공군에게 한국에서의 대공방어체계구축 명령이 하달된 것은 1951년 7월 25일이었고 이에 따라 에버레스트 제5공군사령관은 항적 탐지, 식별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체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한국에서의 극동공군의 방공체계는 적항적의 탐지나 식별, 경보에 치중한 체계가 아니라 아군 항공기의 유도에 치중한 체계였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이 없었던 제5공군은 기존 체계인 제502전술통제전대의 자산을 전력 증원 없이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502전술통제전대 예하 제605전술통제대대(주둔지 : 서울)는 기존운영방침에 따라 남한지역의 전반적인 방공책임을 가진 전술항공통제본부

(Tactical Air Control Center)와 육군과의 작전 협조를 위한 합동작전본부(Joint Operation Center)를 운영하였고, 4개로 방공지역을 분할하여 각 지역에 대한 전술항공지시본부(Tactical Air-Direction Center) 운영은 김포에 주둔한 제606 항공기 통제 및 경보대대(Aircraft Control & Warning Squadron)와 여주에 위치한 제607 항공기 통제 및 경보대대, 대구의 제6132항공기 통제 및 경보대대, 부산의 제1해병비행단 예하 지상관제요격대대(Ground Control Intercept Squadron)가 담당하였다. 또한 이들 전술항공지시본부는 담당지역에서 야간에 전투기와 대공포대의 유도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초기방공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탐지범위와 피아식별이었다. 먼저 당시 이들 전술항공지시본부가 보유한 지상관제요격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75마일로 새롭게 건설 중인 군산비행장 등 서남부는 물론, 지상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북동부, 북서부지역의 탐지가 불가능하였다. 두 번째 피아식별(Identification Friend & Foe)문제는 당시 피아식별장비로 사용된 MARK-Ⅲ 상당량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MARK-Ⅲ로 식별된 항적이더라도 우군기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탐지범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지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장소로 기존 전술항공지시본부를 이동하거나 추가 건설하는 것이 요구되었는데, 제5공군은 제607 항공기 통제 및 경보대대의 전술항공지시본부를 서울 북부 국사봉으로 이동시켰으며 제6132대대(1951년 11월 제608대대로 개칭됨)의 전술항공지시본부는 북동부 감시를 위해 태백산맥 준령의 황병산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1해병비행단 예하 제2전술항공통제대대와 제3지상관제요격대대는 각각 포항 근처에 전술항공통제본부와 전술항공지시본부를 설치하였고 제1지상관제요격대대는 군산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전술항공지시본부를 개소하였다. 이러한 탐색 및 감시레이더의 재배치를 통해 남한 북서부와 북동부, 서남부 사각지역에 대한 적 항적에 대한 감시 및 탐지가 가능케 되었다. 피아항적 식별문제는 미 합동통신-전자 위원회가 기존 MARK-Ⅲ 대체하여 한국에서 MARK-X의 사용을 승인하자 극동공군은 서둘러 MARK-X를 레이더기지에 설치하고 항공기에는 수신 장치를 장착하여 1951년 11월 15일부터 방공체계로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방공체계의 문제점을 완화시킨 미 극동공군은 공산측 공군전력의 증가와 극동공군의 한국 내 기지로의 밀집화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야간 전천후 요격기의 배치와 대공포전력의 증가로 관심을 전환하였다. 극동공군은 지난 1년 동안 남한지역에 침투한 적 전력은 기껏해야 PO-2기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야간전천후 방공전력으로 일본 이다즈케 기지에 주둔한 제68전투요격대대의 F-82기 몇 대를 서울 주변 비행장에 대기시키거나 미 해병비행단의 F-4U, F-7F 일부전력을 활용하거나 T-6훈련기 4대에 30밀리 기관포를 장착하여 대비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951년 12월 3일과 8일에 MiG-15가 서울 상공에서 탐지되자 제5공군사령관은 한국 내 주요비행장에 새벽에는 평균 전투기 45대, 야간에는 전투기 30대를 비상대기 하도록 지시하였고, 미 공군 지휘부는 극동공군 야간요격임무부대인 제68전투요격대대의 구형전력인 F-82전투기를 F-94B기로 교체할 것을 서둘러 F-94B 1개 대대를 한국으로의 추가 파견을 승인하였다. 제68전투요격대대는 F-94B 요격기를 수령하자 이들 중 2대를 1951년 12월부터 수원비행장에 비상대기 시켰다.

당시 미국의 대공포부대는 육군 소속으로, 인원과 장비의 충원은 미 육군본부 소관이었고 1951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전개한 대공포부대는 미 8군 예하 사단이 보유한 방공포부대를 제외하면 40밀리 고사기관총 10개 중대와 90밀리 고사포 2개 대대가 전부였다. 또한 고공방어를 담당하는 90밀리 고사포중대는 서울, 인천 및 부산에, 저공방어임무를 맡은 40밀리 대공자동기관총 중대는 남한 내 주요 비행장과 항만에 배치되었다. 제5공군이 판단한 한국 내 방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공포 전력은 1951년 6월과 10월 기준으로 각각 대공포 3개 대대, 20개 대공자동기관총 중대와 대공포 5개 대대, 36개 대공자동기관총 중대였다. 대공 포병의 인력과 장비를 충원을 맡고 있는 미 육군은 제5공군의 이러한 증원요청에 대해 제공할 능력이 없음을 밝히자, 극동공군사령관 웨일랜드 장군은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대공자동기관총 5개 중대를 한국으로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51년 9월 미 해병대의 90밀리 대공포 1개 대대(3개 중대)가 부산에 도착하였고 인천-김포지역에 배치되어 방공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미 육군 1개 고사포 대대가 증원되어 인천과

부산에 배치되었고, 1개 대공자동기관총 중대가 현지에서 전시 편성됨으로서 1951년 12월 말 기준으로 90밀리 대공포 4개 대대, 40밀리 대공자동기관총 4개 대대(16개 중대)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고속항공기에 대한 방공체계 강화가 저속기인 북한 공군 PO-2기 공습에 대해 완벽한 방어망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요격 효율성이 증가되었음이 증명되었다.

1951년 9월 23일 김포비행장에 침투한 PO-2기 1대가 2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F-84기 2대에 경미한 손상을 주고 도주하였으나 40밀리 대공자동기관총이 격추에 실패하자 서울에 배치된 제607대대 전술항공지시본부에서 추적을 계속하여 미 해병 비행단의 F-7F를 긴급발진 시켜 서울북방에서 이를 격추하였다. 10월 2일 야간에도 전술항공지시본부의 경보를 받고 비상대기 중이던 40밀리 대공자동기관총 중대는 인천 상공에서 PO-2기 1대를 격추하였다. 그러나 북한공군의 PO-2기는 수차례 제5공군의 대공방어망을 침투하여 폭탄을 투하하고 성공적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2)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표 8-9> 1951년 7월~12월 간 비행활동[83]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비행활동(소티)	15,914	17,456	19,311	21,887	19,166	19,328	113,062

1951년 7월부터 12월간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113,062소티(sortie), 월 평균 약 18,844소티로 1951년 전반기(1월~6월)의 월 평균 21,720소티에 비해 약 2,876소티(13%)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이는 중공군의 제1, 2차 공세시기인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비행 17,640소티 대비 약 1,200소티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휴전협상기간과 이로 인해 대규모 지상전이 진행되지 않았고 전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공군의 제1, 2차 공세기간보다 비행운영

이 활발하였다는 점은 이 기간 중 공군의 작전속도(Operation Tempo)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점이 없이 매우 치열했던 것을 반증하고 있다.

<표 8-10> 1951년 7~12월 중 주·야 비행활동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주간 비행	13,287	13,979	15,891	18,342	15,373	15,716	92,588
야간 비행	2,627	3,477	3,420	3,545	3,793	3,612	20,474
계	15,914	17,456	19,311	21,887	19,166	19,328	113,062

이 기간 중 주간비행은 92,588소티이고 야간 비행은 20,474소티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전 기간 중 야간 활동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51년 전반기(1~6월)의 12,936소티(약 9.9%) 대비 비행활동은 7,538소티 증가하였고 전체비행활동에서 야간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야간에 이동하는 적의 주 보급수송수단인 차량과 철도 화차의 공격을 위한 전폭기의 야간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이 증가하였고 1951년 10월 23일의 대규모 피해에 따른 B-29 중폭격기의 주간임무 중지 및 야간임무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표 8-11> 1951년 7~12월 중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항공기 형태별	중폭격기	499	477	520	509	430	424	2,859
	경폭격기	1,499	1,710	1,962	1,956	1,868	1,698	10,693
	제트전투기	4,351	4,836	6,704	8,082	7,030	7,481	38,484
	프롭 전투기	2,445	2,358	2,946	3,320	2,157	1,593	14,819
	정찰기	851	965	1,152	1,356	1,383	1,730	7,437
	수송기	5,072	5,546	4,790	5,156	5,058	5,218	30,840
	기타	1,197	1,564	1,237	1,508	1,240	1,184	7,930
계		15,914	17,456	19,311	21,897	19,166	19,328	113,062

항공기 형태별로는 제트 전투기 38,484소티, 프롭 전투기 14,819소티, 폭격기(B-29/26) 13,552소티, 수송기 30,840소티, 정찰기 7,437소티, 전술통제, 구조 등 기타 비행활동 7,9302소티를 각각 운영하여 제트전투기(34%), 수송기(27%), 프롭 전투기(13%) 순으로 활동비중이 높았다.

<표 8-12> 1951년 7월~12월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근접지원		1,084	818	862	1,000	1,136	302	5,202
무장정찰/후방차단		5,939	6,565	8,686	9,753	8,735	8,347	48,025
제공	공세	799	855	1,263	1,814	1,019	2,126	7,876
	방어	212	293	298	167	99	165	1,234
정 찰		1,469	1,673	2,947	3,219	2,689	2,701	14,698
구 조		394	393	358	694	347	328	2,514
공 수		4,904	5,255	4,445	4,813	4,655	4,846	28,918
전술통제		851	969	22				1,842
기 타		262	635	430	427	486	513	2,753
총 계		15,914	17,456	19,311	21,887	19,166	19,328	113,062

또한 작전 형태별 비행 운영은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48,025소티(42.47%), 수송작전 28,918소티(25.5%), 정찰 14,698소티(12.9%), 제공(요격)작전 9,110소티(8%), 근접항공지원작전 5,202쏘티(4.6%) 순으로 비중 높게 실시하였다.

기간 중 비행운영상의 주목할 만 한 점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근접항공지원 작전의 급격한 감소이다. 이 기간 동안 실시된 근접지원작전은 총 5,202소티로 1951년 전반기의 근접항공지원작전 총 18,530소티 대비 13,328(79%)소티 감소되었고, 6개월 총 활동이 개전 초기의 1개월간의 근접항공지원작전(1950년 8월 :

6,774소티, 9월 : 6,250소티)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는 이 시기의 유엔공군의 전략중점이 정전협상으로 인해 공산군의 전시수행 역량 말살과 증원차단을 목표로 후방차단작전으로 옮겨가고, 대규모 지상전투가 없는 가운데, 공산 측 지상군 병력이 5명 이하 단위로 지하 벙커에 분산 은신함에 따라 공중공격의 효과가 제한됨에 따른 현상이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정찰비행의 급격한 증가인데, 1951년 전반기 10,020소티 대비 4,678소티(46.6%)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스트랭글 작전에 따른 표적탐색 및 식별을 위한 정찰비행 소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목할 점은 공수작전의 현저한 감소이다. 공수작전은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한 이후 38°선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진격 시점인 1950년 10월 이후 1951년 6월까지 월간 최소 5,310소티(1950년 12월)에서 최대 7,183소티(1951년 5월)를 실시하여 전체 작전형태별 비행순위 상위 1,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공수작전은 월 평균 약 4,820소티로 1951년도 전반기 월 평균 비행 6,665소티 대비 1,845소티(27.6%) 감소하였다. 이러한 공수작전의 감소는 전선의 고착으로 인한 유엔군의 이동감소에 따른 장거리 수송 및 장비·인원의 이동 감소에 기인된 것이다.

<표 8-13> 1951년 7월～12월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 현황[84]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작전손실	적 활동	공대공	1	3	6	14	8	9	41
		대공포	16	23	21	23	11	21	115
		원인불명	4	2		1	4	1	12
	비(non) 적 활동		17	13	11	16	9	4	70
	불명/실종		11	9	8	4	2	5	39
비작전손실	비행사고		9	9	6	10	5	6	45
	기 타		1		1				2
총 계			59	59	53	68	39	46	324

이 시기 극동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총 324대로 이중 작전 중 손실은 277대이며 적 활동에 의한 손실은 168대이다. 적 활동 중 공대공전투에서는 41대를 잃은 반면 대공포에 의한 손실은 115대로 적 활동에 의한 손실 중 68%를 차지하여 유엔공군 조종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지상에 배치된 대공화기로 드러났다.

(1) 제공(Counter Air : 요격)작전

1951년 6월이 되면서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과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은 한반도 북서부 상공, 소위 미그회랑지역에서의 공중우세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 등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 이유는 유엔공군과 소련공군의 신형전투기 전력보유에서의 유엔공군의 심각한 열세였다. 당시 소련공군은 MiG-15기 470여대를 보유한 반면 이에 대적할 수 있는 전력인 F-86기는 한국에 주둔한 제4요격전투비행단 2개 대대가 보유한 44대를 포함 주일(駐日) 전력까지 포함해도 총 89대에 불과하였다.[85]

<표 8-14> 공대공 비행활동 및 공대공 전투 간 피·아 항공기 손실[86]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비행(소티)	공세	799	855	1,263	1,814	1,019	2,126	7,876
	방어	212	293	298	167	99	165	1,234
항공기 손실	유엔군	1	3	6	14	8	9	41
	공산군	12(9)	4(4)	14(14)	32(32)	27(16)	29(29)	118(104)

* 공산군 항공기 손실 중 ( )안 숫자는 MiG-15 파괴 대수임.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소련공군 조종사의 공중전 기량 향상과 더불어 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6월에 이르러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보조연료탱크를 달고 평양까지 남하하는가 하면 F-86기가 고고도 기

동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 35,000ft 이상에서 교전을 유도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7월 후반에 들어서자 그들이 가진 수적우세와 고고도 기동성능의 이점을 살려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고 있음이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소련공군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전술은 안둥, 다둥고우 기지를 이륙한 후 곧 바로 35,000ft로 비행 고도를 높여 F-86기의 압록강 주변 초계망을 돌파하여 평양까지 남하하였다가 기수를 되돌려 기지로 귀환하는 도중, 임무종료 후 기지로 귀환하는 유엔 전폭기에 대해 급강하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 전술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임무를 종료한 유엔공군기들은 연료 재고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동이나 전투가 제한되었고 고고도에서 급강하하는 소련공군기들을 식별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폭격기나 전폭기들은 F-86기의 엄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그 피해는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 또한 소련조종사들은 아군 엄호를 받지 않는 제트 정찰기나 폭격기(B-29기, B-26기), 그리고 F-51, F-80과 같은 구형전폭기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1951년 7월과 8월은 기상불량과 새로운 전술을 익히기 위한 소련공군의 소극적인 출격으로 인해 대체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기상 호전일(好轉日)에는 편대군 규모의 공중전이 벌어졌다. 7월 들어 첫 번째 공중전은 7월 7일에 벌어졌는데 이날 신의주 상공에서 F-86 23대와 약 50대의 MiG-15가 격돌하여 유엔공군의 손실 없이 MiG-15 2대가 손상을 입었다. 다음날인 7월 8일에는 폭격임무 차 출격한 B-29를 엄호하던 19대의 F-86기와 MiG-15 1개 편대와 평양 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여 MiG-15기 2대가 격추되었고, 11시경에는 강동비행장을 폭격하고 대형을 재편성하던 F-51기 32대를 MiG-15 12대가 공격하였으나 피해 없이 귀환하였다. 7월 9일에도 F-86 36대가 신안주 상공에서 MiG-15기 4~8대와 조우하여 공중전을 벌여 MiG-15기 1대를 격추하였다. 7월 11일에도 신의주 남쪽 지역 표적에 대해 네이팜탄 공격을 하고 있던 F-80기 21대에 대해 MiG-15기 30대가 공격을 가해오자 F-80기가 임무를 전환하여 이에 대응하여 교전함과 동시에 F-86기 34대가 합세하여 공중전이 벌어졌다. 결국 이 전투에서 유엔공군은 MiG-15기 3대를 격추하였는데 1대는 공중폭발 하였고 2대는 격추되자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는 장

면이 목격되었다.

8월에 유엔공군과 공산공군 양측이 공중전을 벌인 것은 5일간에 불과하였다. 9일에는 압록강을 따라 초계비행 중이던 F-86 4개 편대(24대)는 구성 북서방 12마일 상에서 24대의 MiG-15기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B-29기를 엄호할 것을 지시받고 목표지역으로 기동하였으나 적기와 조우하지 못했고, 또한 F-80 1개 편대가 MiG-15 8대와 조우하여 공중전을 벌였으나 상호 피해 없이 종료되었고 17:35경 남시 부근에서 RF-80 1대가 MiG-15 4대의 공격을 받아 연료탱크와 우익에 손상을 입었으나 기지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18일에는 신의주, 태천, 신의주 남서부 30마일 상공에서 3차례에 걸쳐 F-86과 MiG-15의 교전이 있었고 신의주와 신의주 남서부 30마일 상공에서 각각 MiG-15 1대가 손상을 입었다.[87] 19일에는 신의주 상공에서 F-86(총 29대)과 MiG-15(총 46대)가 일련의 5차례 공중전을 펼쳐 MiG-15 2대가 격추 당하고 5대가 손상을 입었다. 25일에는 F-86 1개 편대가 신의주 북동부 상공에서 MiG-15 1대를 공격하여 손상을 입혔고, RF-80 정찰기를 엄호하던 호주공군 Meteor-8 전투기 16대가 수 미상의 MiG-15를 만나 최초의 교전을 실시하였으나 상호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 29일 마지막으로 실시된 공중전에는 호주공군의 손실이 있었는데, 11:20경 희천 북서부 20마일 상공에서 호주공군 Meteor-8 전투기 8대가 14대의 MiG-15와 교전하였으나 상호 피해가 없었고 이어 정주 남동부 13마일 상공에서 MiG-15 4대가 Meteor-8 편대를 공격하여 Meteor-8 1대를 격추하였다. 11시09분경에는 F-86 19대와 MiG-15 42대가 불명지역 상공에서 교전하였으나 양측의 피해는 없었다.

9월부터 시작된 공산공군의 공격적인 공세는 12월까지 지속되었다. 유엔공군이 관측한 공산공군의 북한 지역 진입항적은 9월 1,177소티, 10월 2,573소티, 11월 2,326소티로 증가하였다가 12월에는 3,997소티로 급증하였다.[88] 이것은 9월 12일 안둥으로 전개한 중국공군 제4비행사단을 선두로 중국공군의 본격적인 참전이 이루어져 공산공군의 전력이 상승한데 기인한 것이다.

9월 1일, 선천 동방 7마일 상공에서 F-86 15대가 MiG-15 8대와의 교전에서 MiG-15 1대를 격추하였고 2일에도 12시15분~12시50분 사이에 신의주와 신안주

상공을 초계 비행하던 F-86 15~22대가 MiG-15 40대를 조우하여 교전을 벌여 MiG-15 3대가 격추되고 1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F-86 1대도 손실 당하였다. 8일에는 F-86 24대가 영변 북서부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신안주 지역 상공으로 이동하여 40대의 MiG-15와 약 25분간 교전하여 양측의 피해 없이 종료되었으나 공산 측 조종사들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9일에도 F-86 28대와 MiG-15 70대가 신의주 상공에서 약 25분간 격돌하여 MiG-15 2대가 격추되고 1대가 손상을 입었고 F-86 2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나 기지로 귀환하였다.[89] 10일에는 30대의 F-86과 MiG-15 80대가 안주 상공에서 12시40분~13시10분 간 교전을 벌여 MiG-15 2대와 F-86 1대가 손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평양 북동부 10마일 상공에서 F-84 1개 편대와 수 미상의 MiG-15가 교전을 펼쳤고 미 조종사들은 MiG-15 3대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11일에는 F-84 10대와 MiG-15 16대가 정주 상공에서 교전하여 MiG-15 1대가 격추되었고, 무장정찰 중이던 수 미상의 F-80이 MiG-15 11대의 공격을 받아 F-80 1대가 격추되고 MiG-15 1대가 손상을 입었다. 12일에도 소련공군의 적극적인 공세는 계속되어 평양 북부 20마일 상공에서 무장정찰 중이던 F-84 전투기에 대해 MiG-15 4대가 공격을 가했고, 동일 상공에서 전투초계 중이던 F-84에 대해 수 미상의 MiG-15의 공격이 있었고 이 교전에서 F-84 1대가 격추되고 MiG-15 1대가 손상을 입었다. 또한 신안주 북부 50마일 상공에서 F-86 53대와 MiG-15 30대가 격돌하였으나 양측 피해는 없었다. 13일에는 선천 북동부 상공에서 F-51전투기 4대가 MiG-15 3대의 공격을 받아 F-51 1대가 격추되고 조종사는 전사하였고, 정주 상공에서 F-86 35대가 수 미상의 MiG-15와 교전하였으나 양측의 피해 상황은 없었다. 19일에 공산공군은 항공차단, 정찰, 엄호 등 체공중인 유엔항공기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항공차단 임무 중인 F-84기에 대해 5개 지역 상공에서 공격을 가했으며 이중 사인장(선천 남부) 상공에서 F-84기를 공격하던 6대의 MiG-15 중 1대가 교전 중 격추되었다. 또한 이날 정주 북동부 상공에서 사진정찰중인 아군기를 엄호하던 F-84 7대에 대해 MiG-15 16대가 공격을 가했으며 교전 중 MiG-15 1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정주 지역 상공에서 F-86 37대와 MiG-15 49대가 수차례 교전을 벌

여 MiG-15 4대가 손상을 입었다. 20일에는 평양 부근 상공에서 4차례의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10시36분 경 평양 남부 20마일 상공에서 20대의 MiG-15와 4대의 F-84가 교전하였고 10시35분 경에는 평양 인근 상공에서 16대의 MiG-15와 F-84 편대가 교전하였다. 또한 평양 남부 10마일 상공에서 F-84 편대가 MiG-15 8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양측 피해는 없었고 평양 도심 상공에서 F-86 34대와 MiG-15 32대가 교전하여 MiG-15 2대가 손상을 입었다. 또한 신안주 상공에서 정찰임무 중이던 RF-80과 숙천 상공에서 항공차단 임무를 수행하던 16대의 F-80 편대에 대해 각각 12대와 20대의 MiG-15가 공격을 가했고 숙천 상공에서 각각 1대의 F-80과 MiG-15가 손상을 입었다. 9월 25일에는 약 100대로 추산되는 MiG-15가 신안주 상공에서 F-86 36대를 공격하였고 F-86기 조종사는 5대의 MiG기를 격추하였는데, 이것은 9월 중에 유엔공군이 일일 최대 격추 성과를 거둔 것이다. 9월 중 유엔공군은 공산 측과의 공중전에서 F-86 3대를 비롯하여 6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9월 하순에 참전하게 된 중국공군에 힘입어 공산 측은 10월이 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공세적인 활동을 벌였고 유엔공군과의 공중전은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9월 유엔공군의 관측한 MiG-15기의 북한 지역 진입횟수가 1,177회(소티)였던데 비해 10월에는 2,573회로 약 1.5배 증가하였다.[90] 또한 이 시기 공산측은 남시(현 방현비행장 N 39°55'36" E 125°12'28"), 태천(N 39°54'09" E 125°29'21"), 사암참(N 39°44'54" E 125°53'48"; 원리, 현 개천비행장)에 비행장 건설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엔공군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공산공군과의 북한 북서부 상공에서 공중전이 10월 초부터 약 3주간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측의 치열한 교전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도 증가하여 공산측은 32대의 MiG-15가 격추되었고 유엔공군 또한 전폭기 14대가 격추되었다.[91]

10월 중 유엔공군이 공중전에서 거둔 최대 성과는 10월 16일에 신의주 및 신안주 상공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이날 유엔공군 F-86 67대와 MiG-15 100여대가 수차례 공중전을 펼쳐 MiG-15 10대가 격추되고 5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F-86 1대가 격추되고 1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10월 23일 유엔공군으로서는 굴욕적이

고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날 오전 남시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 출격한 제307폭격비행단 소속 3기 3개 편대 B-29(이중 1대는 임무포기 후 기지로 귀환)가 제49, 136전폭비행단 소속 F-84 55대의 호위를 받으며 남시비행장으로 기수를 돌릴 무렵 50대의 MiG-15기가 이들을 둘러싸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들 MiG-15기들은 F-84기의 엄호망을 뚫고 들어와 B-29기에 대한 공격을 가하였고 20분간(09:35~09:55)의 교전이 끝났을 때 B-29 3대가 격추되었고 5대가 대파되어 불시착하였고 1대를 제외한 7대에 탑승한 승무원 대부분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F-84기 1대도 교전 중 격추되었고 공산측 손실은 MiG-15 4대가 격추되었다. 이날 공산공군의 공격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유엔공군의 공격상황을 파악하고 약 MiG-15 100대가 F-86 34대의 진로를 미리 차단한 상태에서 MiG-1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투성능이 떨어져 엄호에 취약한 F-84와 저속기인 B-29기를 노린 매우 고도로 계산된 것이었다.

'전번제(全燔祭 : Holocaust)' 또는 '피의 공중 목욕(Bloody Air Bath)'이라 후세 사가들에 의해 평가되는 이날의 유엔공군이 손실이 있었음에도 폭격사령관 켈리(Joe W. Kelly) 준장은 다음날인 10월 24일 미그회랑 남쪽 순천 철교의 우회로를 파괴하기 위해 제98폭격비행단 소속 B-29 8대를 출격하였고, 이들은 엄호하기 위해 호주 공군의 Meteor-8 16대와 F-84 10대가 출격하였다. 이때도 어김없이 MiG-15 40~70대가 조직적인 공격을 가해왔고 일부 MiG기들은 원산까지 B-29기를 추격하는 집요함을 보였고, 교전결과 B-29와 MiG-15가 각 1대씩 격추되었다. 10월 중 대규모의 공중전은 대부분 유엔공군의 B-29 폭격기의 엄호기인 F-86, F-84와 MiG-15 간에 이루어졌으며, 격추된 MiG-15 32대는 F-86에 의해 24대, B-29폭격기의 기관포에 의해 7대, F-84에 의해 1대가 격추되었다. 10월의 공산공군의 공세적이고 대규모적인 저항은 북한 서북부 상공에서의 유엔공군의 공중우세를 심각한 지경까지 위협하였다.

11월 중 탐지된 공산공군의 북한 상공 진입비행은 2,326회(소티)였으며, 12월에는 3,997회였다. 11월 2일 제5공군사령관 에버레스트 장군은 일본 존슨기지에 주둔해 있던 제4전투요격전대 예하 F-86 보유 제335대대를 김포기지로 전개함으로

써 F-86 3개 대대의 배치를 완료하였다. 다잉(Harrison R. Thyng) 대령이 지휘하는 제4전투요격비행단은 거의 매일 북한 상공으로 진입하는 공산공군 MiG-15기들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11월 중에도 공산공군은 10월의 공세적인 대응과는 달리 유엔공군과의 교전은 소극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공산공군의 조종사의 기량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11월 중 북한상공 출격횟수 중 유엔공군과 교전을 실시한 것은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았다.[92] 그러나 수적우세를 앞세운 공산공군은 평양 이북 상공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공산공군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전술을 선택하였다. 공산공군은 수적우세를 앞세워 F-86과의 교전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폭격기, 정찰기에 대한 공격을 강하하였다. 11월 들어 RF-80 정찰기는 통상 F-86 12~16대의 엄호를 받았지만 11회나 MiG기의 공격을 받았다. 또한 공산공군 조종사들은 MiG-15에 비해 전투성능이 떨어지는 F-80기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였는데 11월 9일에는 F-80기와 MiG-15기가 3차례에 걸쳐 군우리 남부 상공에서 격돌하여 미군조종사의 분전으로 MiG기 2대를 격추하였으나, 공산공군과의 교전으로 11월 중에 F-80기 1대, F-84기 3대가 격추되었다. 11월 27일 13시30분경 신의주 상공에서 F-86 19대가 80대 이상의 MiG기를 관측하고 추격하여 이중 6대와 공중전을 벌여 4대를 격추하였고 그중 1대를 크레이튼(Richard D. Creighton) 소령이 격추하였고 이로써 그는 4번째 제트격추영웅(Jet Ace)이 되었다.

유엔공군은 11월 30일 중국공군이 지상군과 합동으로 벌인 서해북부 도서 점령작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 이날 F-86 31대는 16시15분경 대화도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 중인 중국공군 소속 TU-2 12대와 이를 엄호하는 La-9, MiG-15 각 16대와 조우하여 TU-2 8대, La-9 3대, MiG-15 1대를 격추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 전투에 참가했던 데이비스(Gorge A. Davis) 소령은 TU-2 3대, MiG-15 1대를 격추하여 5번째 제트격추영웅(Jet Ace)이 되었고, 마샬(Winton W. Marshall)소령은 TU-2, La-9 각 1대씩을 격추하여 6번째 제트격추영웅이 되었다.

12월이 되자 유엔공군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F-86의 증가배치가 이루어지고 전력화된 것이다. 제4전투요격비행단이 적은 숫자의 F-86기로

다수의 공산공군 MiG-15와 분전하고 있을 때, 제51전투요격비행단은 보유한 F-80기를 F-86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11월 19일에 예하 2개 대대의 F-80기를 제8전폭비행단에 인계하고 F-86을 인수받아 단기간에 작전화를 거쳐 드디어 12월 1일 첫 출전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극동공군은 165대의 F-86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엔공군의 전력상승은 실제전투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12월 1일, 공산공군의 40대 이상의 MiG기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호주공군의 Meteor-8 14대를 공격하였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호주공군 조종사들은 MiG기 2대를 격추하였으나, Meteor-8 3대가 손실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12월 2일과 4일에는 미 공군의 F-86이 각각 5대의 MiG기를 격추하였고 13일에는 제4전투비행단 소속 F-86은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신안주 비행장 소탕작전에서 MiG기 약 145대와 조우하여 그중 13대를 격추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또한 14일에도 공중전을 통해 MiG 1대를 격추하였다. 12월 후반이 되자 공산공군의 기세는 위축되었고 이전과 같이 많은 수의 MiG기가 북한상공에 진입하였지만 공산공군 조종사들은 유엔공군과의 교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12월 15일과 28일 제51비행단 소속 F-86이 MiG기 2대씩을 격추하였는데 이것이 12월 후반부에 거둔 마지막 성과였다.

1951년 후반기(7~12월)의 유엔공군과 공산공군 공대공 활동을 종합하면 7~8월은 소련공군 참전부대교체로 인한 작전준비와 기상불량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전이 실시되었고, 9월 들어 소련공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어 중국공군의 참전이 시작된 9월 하순부터는 수적우세를 앞세운 공산공군의 북한 북서부지역에서의 공중우세 달성을 위한 과감하고 저돌적인 공세가 12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2월로 접어들면서 공산공군의 공세는 유엔공군의 F-86 2개 대대의 증원과 적극적인 공세로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2)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Air Interdiction) 작전

휴전협상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인 1951년 7월 13일 리지웨이 장군은 공산 측의 휴전협상 태도가 매우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공군력을 모두 동원

하여 "협상기간 중 적을 타격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라."[93]는 적극적인 항공작전 시행을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은 극동해군에 동일한 지시를 전달함과 아울러 제5공군에게는 이미 파악되어 있는 적의 부대, 보급소, 시설 등의 목표와 차량을 중점목표로 전폭기와 경폭격기의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8-15>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94]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항공차단/ 무장정찰 비행	5,939	6,565	8,686	9,753	8,735	8,347	48,025

이 시기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은 48,025소티로, 유엔공군의 총 비행활동의 42.47%로 가장 비중 높게 실시되었는데, 이렇듯 중요성이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휴전협상 성사로 인한 지상전선의 고착이었다. 지상전선이 고착됨에 따라 지상군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공산측은 차기 공세를 위한 전력증강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력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작전은 3가지 범주의 표적에 집중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공산 측의 전쟁의지를 감퇴시켜 휴전협상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핵심시설 파괴로 목표로는 평양, 나진 등의 주요도시와 남시, 태천, 원리 등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비행장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전선으로 이동되는 병력과 보급물자의 이동을 차단하여 전선과 후방기지의 연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대상표적은 철도 및 도로망으로 구성된 수송선(輸送線)으로 선정되었다. 세 번째는 공격표적은 물자와 인원의 이동수단으로 철도화차 및 자동차가 주목표가 되었다.

1951년 후반기 극동공군의 항공차단작전은 초기에는 그 성과가 높았으나 11월 이후에는 공산 측의 대규모 MiG기와 지상 대공포 전력을 동원한 저항에 부딪혀 그 성과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의 철도망을 붕괴시키고 수

송트럭 40,000대를 파손시켰으며, 이를 통해 적의 보급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함으로서 전선으로의 병참물자 수송을 지연하고, 병참선 보호에 적의 대규모 병력을 집중하게 하여 병력의 전투동원에 장애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항공차단작전의 최초 입안단계에서 계획한 공산군 방어거점의 후퇴, 새로운 증원군의 북한 진입차단과 같은 궁극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가) 주요도시 및 신설비행장 공격

1951년 7월 13일 리지웨이 유엔군총사령관이 극동공군에 '전 항공력을 이용한 공격명령'이 하달하자, 극동공군사령부는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군의 병력과 보급물자의 증원을 차단하고 북한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평양에 대한 대량폭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극동공군은 병기창과 군사시설이 밀집한 평양, 진남포, 강계, 원산의 주민에게 폭격에 앞서 대피 경고령을 내릴 것도 함께 기획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평양을 집중 공격할 경우 세계 여론으로부터 유엔군 측이 협상을 깨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미 합참의 반대가 있었으나 리지웨이 장군이 평양에 밀집해 있는 다수의 군사표적들은 대량 공중공격으로 공격해야만 한다고 미 합참을 설득하였고, 결국 미 합참은 평양에 대량폭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무를 승인하였다.

미 합참의 승인이 있자 극동공군은 7월 30일 평양지역의 대공포 파괴를 위해 F-80기 91대와 선정된 표적 공격을 위해 제5공군 및 극동해군 전폭기 354대를 투입하여 평양폭격을 단행하였다. 물론 극동공군은 북한 지역에 대한 보급 및 수송시설파괴 자체는 공표했지만 평양폭격 사실을 외부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극동공군은 또한 1950년 9월 1일 이후 소련과의 국경이 가까워(17마일 이남) 월선 및 오폭가능성 때문에 공중폭격이 금지된 나진항에 대해 주목하였다. 유엔공군의 정찰기 관측에 의하면 1951년 7월 이후 공산측은 나진항에 엄청난 양의 물자를 비축하고 있었고, 이에 8월 1일 리지웨이 장군은 미 합참에 나진항은 물론 대규모의 물자가 집하되고 있는 나진철도조차장 및 철도, 병참 물자집적소에 대한 공중

폭격을 요청하였고 미 합참은 8월 10일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육안폭격을 조건을 승인하였다. B-29 중폭격기의 작전에 적합한 기상조건을 기다리다 2주간을 소비하고 8월 25일에야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다.



1951년 8월 25일 B-29의 나진철도조차장 폭격

이날 폭격사령부 예하 제19, 98, 307폭격비행단 소속 B-29 중폭격기 35대가 공격 전력으로 동원되었고, 이를 엄호하기 위해 극동 해군 항공모함 에섹스(Essex)호 함재기 F-9F기와 F-2H기 23대가 나진 상공까지 동행하였다. 약 1시간 30분간 시행된 작전 간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산 측 전투기의 출현은 없었고 B-29폭격기는 약 300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여 이중 97%를 보급품 집적소에 집중하였다. 이날 작전을 지휘한 폭격사령부 부사령관인 로그너(Harris E. Rogner) 대령은 "표적상공의 기상은 매우 좋았고 완벽한 공격대형유지와 폭격수행으로 공격표적을 파괴"[95] 하였다고 이날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도시에

대한 대량폭격은 휴전협상 결렬의 책임문제가 유엔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한 미 합참의 우려로 더 이상 실시되지는 않았다.

한편 1951년 4월 중순 이후 7월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유엔공군의 북한비행장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집중적인 공격으로 신의주 비행장을 제외하고는 작전 가능한 비행장은 없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비밀리에 비행장 복구 및 건설작업을 계속하였고, 9월 25일 제67전술정찰비행단 소속 RF-80 정찰기가 개천 부근 원리(原里)부근에서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활주로 7,000피트 완공 상태) 하고 있는 것을 식별하였고, 10월 14일에 이 일대에 대한 정밀 정찰 결과 이곳 외에도 20마일 반경 내에 태천(泰川)과 남시(南市) 지역에 비행장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들 비행장에는 이미 방어를 위한 대공포와 자동화기를 배치하고 있었고 활주로 외에도 항공기 격납고 등 지원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었다.

유엔공군은 이들 3개 비행장이 완공되어 MiG기들이 전개될 경우 안둥-신의주-평양을 연결하는 항공방어선 구축으로 미그회랑이 평양지역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즉시 파괴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 비행장 파괴임무는 폭격사령부에 일임되었고, 9월 30일 사령관으로 취임한 켈리(Joe W. Kelly) 준장은 10월 13일 B-29기 2대를 출격시켜 원리 비행장을 공격하여 폭격사령부 조종사들에게는 생소한 야간 쇼란(Shoran) 유도 공격[96]을 시험한 후 이후 단기의 야간 쇼란 유도로 원리비행장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야간 쇼란 유도폭격 방식은 명중률이 매우 낮았는데 10월 13일의 경우 폭탄 278발을 투하하여 24발만이 활주로 북단에 명중하여 구멍을 내는데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리비행장의 조속한 무력화를 위해 켈리 사령관은 육안폭격을 보조수단으로 하여 3기 3개편대로 주간에 쇼란 유도폭격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주간 작전에는 MiG기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F-86의 엄호가 필수적 요소였고 이로 인해 F-86의 엄호가 가능한 시간대인 여명부터 정오(12시), 정오~ 15시까지로 작전시간이 제한되었다.

폭격사령부는 10월 18일 원리비행장 폭격에 제19폭격전대 B-29 9대, 태천 비행장 폭격에 제98폭격비행단의 B-29 9대를 할당하여 출격하였으나 제98폭격비행단

소속 B-29기가 엄호기와 합류하지 못해 임무를 전환하였고, 제19폭격전대 B-29기는 원리비행장으로 진입하여 활주로에 100파운드 폭탄 306발을 투하하였고 MiG기의 공격은 없었다. 10월 21일에는 제98폭격비행단 B-29기가 태천공격에 나섰으나 엄호기와의 합류 불발로 임무를 포기하였고 10월 22일에 제19폭격전대 B-29기 9대는 엄호기인 F-84 24대와 합류하여 태천비행장 공격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귀환 중 MiG기 40대의 공격을 받아 교전하였는데, 폭격 시 대공포를 맞았던 B-29 1대가 MiG기의 추가 공격을 받아 추락하였으나 서해안에 불시착하여 승무원들을 구조하였다.

10월 23일 B-29의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는데 남시 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 출격한 제307폭격비행단의 B-29 8대가 사전에 준비된 공격을 가한 MiG기 100여대에 의해 3대가 격추되고 4대가 대파되어 불시착하고 승무원 대부분이 사망하는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날 피해로 B-29의 주간 비행장 폭격은 10월 25일부로 중단되었고 이후 철도교량폭격 임무로 전환되었다. 또한 MiG-15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공산공군이 해상비행을 꺼리는 점을 고려하여 침투경로도 서해 해상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었다. 폭격사령부는 10월 마지막 주에도 MiG기와 대공포에 의해 B-29 5대가 손실되고 8대가 대파되고, 승무원 5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전력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당시 구형 폭격기인 B-29기가 6·25전쟁에서 그 생명이 끝났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B-29기의 작전을 위해서는 다수 전투기의 엄호가 필수적이었는데 10월 28일 일본 이다즈케 기지에서 열린 극동공군 공군지휘관회의에서 전투기의 엄호를 통해 MiG기로부터 B-29기의 완벽한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폭격사령관 케리 준장은 B-29의 주간작전은 배제하고 쇼란 유도를 이용한 야간작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웨이랜드 극동사령관의 승인아래 B-29의 쇼란 유도 폭격능력 강화가 시행되어, 제 5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쇼란 장비를 폭격사령부로 인계하였고 모든 B-29 폭격기에 쇼란 장비를 장착하기로 결정하고 그 작업을 서둘렀다.

B-29의 비행장 공격이 주춤해진 10월 말 이후 공산측은 신의주 비행장에 구형 전투기 64대를 배치하고 의주 비행장에는 MiG-15 26대를 신규 배치하는 한편 원리, 태천, 남시 비행장에 대한 건설작업을 강도 높게 시행하였다.

폭격사령부의 비행장 폭격이 재개된 것은 11월 4일이었고, 이날 원리, 태천, 남시, 의주 비행장에 대한 야간 쇼란 유도 폭격이 시작되었다. 11월 중 B-29기는 남시 비행장에 26회(소티) 출격하여 17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고, 태천 비행장에는 23회 출격에 160톤을, 원리 비행장에는 12회 출격에 85톤을, 의주에는 12회 출격하여 80톤은 각각 투하하였다. 어려운 작전환경[97]에서도 폭격사령부 노력으로 11월 말이 되자 신설 비행장인 남시, 태천, 원리 비행장이 무력화되었고 공산측이 북한지역 내에서 운용 가능한 비행장은 신의주와 의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B-29 폭격기의 공격 외에도 11월 18일 압록강 상공을 무장초계 중이던 F-86기 4기 편대가 우연히 의주 비행장 활주로 남단에 주기 중인 12대의 MiG-15기를 발견하였고 챈들러(Kenneth D. Chandler) 대위와 래그랜드(Dayton W. Ragland) 중위는 동료기(同僚機) 2대의 엄호를 받으며 저고도로 강하하여 MiG기 4대를 파괴하고 다른 몇 대에 손상을 입히고 공산 측의 저항 없이 무사히 귀환하였다.[98]

이러한 B-29기의 야간 폭격에 대해 공산 측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공산측의 대응은 비행장 주변에 대한 대공화력증가와 모의시설 설치를 통한 기만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대공방어능력 강화 측면에서는 의주 비행장을 예로 들면 레이다 유도 대공포를 신설 배치하고 50대 이상의 탐조등을 설치하였으며, 쇼란 유도폭격체계의 무선신호를 탐지하여 폭격 접근로 상에 중화기를 배치하였다. 두 번째 기만방법은 이미 공격을 받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활주로 상에 원형의 흙더미를 만드는 등 유엔공군 조종사의 오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해 11월 압록강 변을 따라 전단 살포비행을 하던 B-29기 1대가 대공포화에 피격되었으며, 남시, 원리, 개천 비행장 공격 중에도 5대가 대공포에 손상을 입기도 하였다. 또한 12월 4일 야간공격 시 탐조등에 의해 B-29기가 식별

되자 MiG-15 2대가 공격을 가하여 1대가 손상을 입었고, 12월 23일에는 B-29기가 의주 비행장 폭격을 위해 출격하자, B-26 경폭격기가 먼저 도착하여 탐조등 8개를 파괴하였으나 다른 탐조등에 의해 탐지된 B-29기 1대가 MiG기의 공격을 받아 손상을 입었고 다른 1대 또한 대공포에 피격되었으나 부대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나) 철도차단 작전(Operation Strangle)

7월 10일 시작된 휴전협상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고, 전선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산 측의 전력증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미 제8군은 공산측이 전선배후에 매일 최소 800톤 이상의 보급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정보판단은 공산군이 휴전협상을 또 다른 공세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유엔군 지휘부로 하여금 공군력을 이용하여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자지원을 단절하기 위해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과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도 이견이 없었으나, 휴전협상으로 지상군이 전선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항공력만으로 이루어진 수송로차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작전명(Operation Strangle)으로 1951년도 5월 31일부터 7월 초까지 실시된 철도차단작전이 유엔 지상군이 압박과 함께 실시되었던 6월 초까지는 성공적이었던 반면 지상군이 압박을 완화했던 6월 중순 이후 효과가 감소되었던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반데버그 총장은 수송로차단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의 공세와 연계되어야 하고 당시 한국 상황을 볼 때 지상군이 고착된 상황에서의 수송로 차단은 적의 병력과 물자가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지연할 수 있을 뿐, 중공군의 전투력을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공산 측의 수송망에 대한 놀라운 응급 보수능력은 유엔공군 지휘부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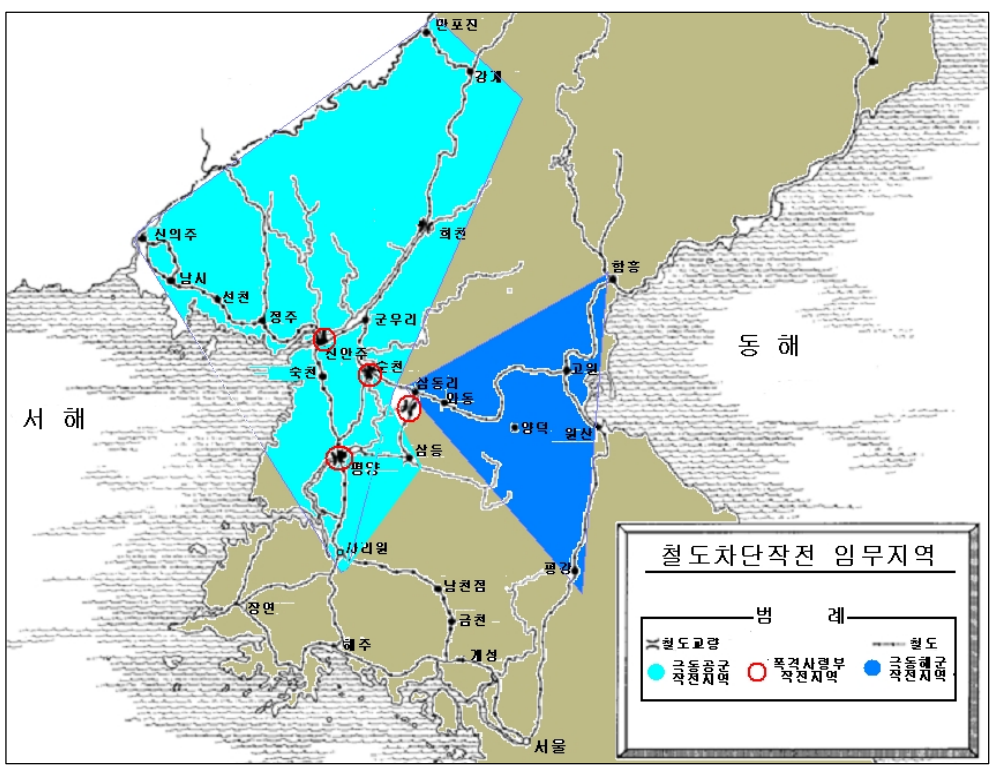
당시 미 제8군의 정보판단에 의하면 공산측은 사리원 이남지역에 각종 병종의 60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1일 보급품 소요는, 각 사단별 소요를 40톤으로 판단하여 1일 총 2,4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2톤의 적재량을 가진 트럭의 경우에는 1일 약 1,200대, 20톤을 적재할 수 있는 철도화차의 경우 120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산측은 화물수송에 철도편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적재량이 많고,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보다는 연료(석탄)를 북한 내에서 구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철도수송은 노출이 크고 차량처럼 우회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운용상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약점에 착안하여 공군 작전계획관들은 철도를 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철로를 통한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량, 열차(화차), 궤도 및 노반을 파괴하는 방안이 있었고, 극동공군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열차와 교량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철도 궤도와 노반을 파괴하는 것이 공격효과를 가장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주 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본격적인 작전에 앞서 7월말에 실시된 궤도 및 노반에 대한 시험 공격이 실시되었고, 제8, 49전폭기전대는 철로에 대한 도약, 강하, 활공 폭격에서 매우 훌륭한 결과를 얻었고, 특히 100파운드 폭탄을 이용한 활공폭격은 명중률이 높아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시험공격 기간 동안 교량과 같이 대공포가 밀집된 지역을 회피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어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공군은 철도차단작전의 주목표를 궤도와 노반으로 선정하고, 철궤(鐵軌)보수를 위한 이동을 지연하기 위해 교량파괴를 보조목표로 선정하였다.

8월 초 철도차단 작전을 전담하게 된 제5공군은 철도궤도 파괴에 제5공군 자체 보유전력만으로는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약 90일정도로 단축하기 위해 극동해군에게는 한반도를 횡단하는 삼동리-고원의 철도지선과 길주-함흥-원산-평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였다. 또한 폭격사령부에는 평양, 선천, 순천, 신안주, 희천지역의 중요 철도교량 폭파를 요청했고, 폭격사령부는 MiG기의 공격이 예상되는 희천지역의 교량을 제외하고 요청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제5공군은 북한 서북부 있는 가장 중요한 복선철도의 파괴임무를 맡았다.

계획수립을 마친 제5공군은 작전 수행과 성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는데, 8월 14일 공식평가에서 제5공군 전투작전부장 맥브라이드(William P. Mcbride) 대령은 “제5공군, 미 해군항모항공부대, 폭격사령부는 북한 지역의 철도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철로 통행량이 ‘0’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철도체계를 파괴할 것이다. 이 작전은 어렵지 않은 것이며 이 작전으로 인해 적은 압록강으로부터 100마일 떨어진 평양-고원선으로 철수 압력을 받을 것이다”[99]라고 보고하였다.



스트랭글(철도차단)작전 임무지역

작전 명칭인 교살작전(Operation Strangle)은 1951년 전반기에 사용했던 수송로 차단작전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친 스트랭글 작전

은 8월 18일 전격적으로 개시되었고 작전환경에 문제가 없는 한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미 해군 제77기동함대 항공모함 탑재기에 의해 파괴된 북한 수송열차

제5공군은 동서를 연결하는 지선철로는 남북으로 연결된 간선철도가 파괴되면 무용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순천-사리원간의 복선철도의 파괴에 주력하는 한편 희천-군우리-순천을 잇는 철도파괴에 관심을 가졌다. 제5공군은 일일 작전명령을 통해 각 전폭비행단에 15~30마일의 철도구간을 할당하고, F-86기의 엄호 하에 매일 두 차례씩 지정구간을 공격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전폭비행단은 각기 32~64대의 전폭기로 공격편대군을 구성하여 출격시켰으며, 적의 저항과 기상 상황에 따라 활공, 급강하폭격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였다. 활공폭격은 명중률은 높일 수 있었고 급강하폭격은 적의 대공포 위협을 감소할 수 있었다. 또한 8월 중

에는 1,0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500파운드 폭탄 2발을 표준무장으로 변경하였다.

폭 56인치의 철도궤도를 명중시켜 파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지만 8월과 9월간의 폭격성과를 보면 투하된 폭탄의 12.9%가 철로 궤도에 명중해 절단에 성공했고 출격횟수의 25% 가량이 철도차단에 성공하였다. 폭격사령부의 B-29기 또한 평양, 신안주, 순천, 선천지역의 주요 철도교량에 차단에 주력하여 , 정찰결과 교량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공격을 실시하였다. 폭격사령부는 B-29 4기 2개편대로 임무편대를 구성하여 이들 편대에 2개 교량에 대한 파괴임무를 부여하였고, 구름이 많은 날에는 쇼란 유도폭격을 실시하였다. 극동해군 제77기동함대 소속 항모 3대(Bon Homme Richard호, Essex호, Antietam호)로부터 이륙한 함재기들은 동부지역 철도교량 10개, 육로 교량 17개소를 파괴하여 운용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8~9월간의 철도차단작전으로 9월 중순의 구간별 소통률은 신의주-신안주 구간은 70%, 신의주-평양 구간은 90%, 평양-사리원 구간은 40%로 감소하였다. 공산측은 단선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안둥-사리원 간의 117마일 복선철도를 단선만을 남긴 채 철거 하였고, 보수자재 확보를 위해 이제껏 공격을 받지 않은 사리원 이남 13마일 구간의 철로와 침목을 철거하는 다급함을 보였다.

10월과 11월의 유엔공군의 철도차단작전은 더욱 거세게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산 측의 저항도 강도를 높여갔다. 공산 측의 대응은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는 MiG기를 대거 투입하여 유엔공군이 전폭기를 요격하려 하였고, 청천강 이남에서는 대공포와 자동화기를 집중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제5공군은 MiG기의 공격에 노출되는 선천-신안주 간 철도에 폭격을 중단시켰고, 전폭비행단 임무전력을 동시에 출격시키던 것을 5분간의 시차를 두고 대대별 전력을 출격시켜, 선발 편대가 적이 대공화기를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공산측의 조직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단작전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10월 3일 이래 평양-사리원 간 철도가, 10월 25부터는 숙천-신안주 구간의 철도가 불통상태가 되었고, 공산측은 이에 대해 신안주-평양 간의

단선철도와 희천-군우리-순천-양덕에 이르는 철도의 복구에 전력(全力)을 다하였다. 11월에 접어들면서 극동공군은 철도차단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때 공산측은 조직적인 저항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 북서부지역의 철도는 신의주-신안주, 신안주-군우리-순천을 잇는 우회철도가 살아있었고, 순천-삼등-양덕선도 운행이 가능하였다. 동부지역은 길주에서 원산까지의 통행은 불가능했으나 파괴된 구간을 제외한 연결된 철도를 이용한 수송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10월 23일 남시비행장 폭격에서 B-29 대량손실을 입은 폭격사령부는 11월말까지 철도차단작전에 전력을 할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공산측은 11월초에 순천의 보조교량에 이동식 경간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었고, 11월 15일에는 신안주의 인도교를 완전 복구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평양의 보조철교를 완공함으로서 1950년 8월 이후 막혔던 삼등까지의 운행을 복구시켰다. 또한 11월이 되면서 공산측의 철도복구 능력은 더욱 신장되어 차단된 철도를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였고, 12월이 되면서 땅이 얼어붙자 지연신관폭탄은 지면에 충격 후 튀어나가고, 폭파되더라도 폭파구 형성이 작아지는 등 폭격의 효과가 감소되자 복구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에 반해 극동공군의 작전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우선 MiG기와 대공포의 공격으로 전력손실이 심대해졌다. 대공포로 인해 제5공군이 8월부터 11월까지 입은 피해는 항공기 손실 115대, 파손 750대였다.[100] 대공포로 인해 손상을 입은 항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정비소요가 증가하고 전폭기의 작전 가동률도 급감하였다. 이러한 대공포 위협은 폭격 정확도도 감소시켰는데 일례로 11월 중 철도차단에 참가한 F-84기의 표적 적중률은 7%에 지나지 않았다.

<표 8-16> 1951년 8월~11월간 적 대공포로 인한 제5공군 항공기손실 현황

피해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계
손실	26	32	33	24	115
손상	24	233	238	255	750

12월이 되면서 유엔공군의 차단능력이 감소하는 반면 공산군의 복구능력은 강화되었는데 주간에 피폭된 철도시설에 대해 야간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8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었고, 이는 유엔공군의 정찰사진판독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대공포의 방호로 군우리-순천간의 철도가 더 이상의 보수가 필요 없게 되자 공산측은 다른 철도 복구에 노력을 배가하였다. 신안주-평양 간 철도 중 파괴된 숙천 남부 철로를 우회할 수 있는 보조철도를 건설하였고, 군우리-순천 간에는 보조철도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평양-사리원간 파손이 심각한 지점에 대한 보수에 나서는 등 파괴된 철도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2월 23일 제5공군사령부 정보부는 "공산 측 철로 보수요원과 교량 건설인원이 우리의 평양과 간선철도 핵심지역에 대한 철도봉쇄를 해제시켰다."고 공산 측의 철도 복구 작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결국 작전계획단계에서 반덴버그와 웨이랜트 장군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났으나, 항공차단작전이 축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공산군이 단기간 내에 대공세를 전개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물자비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제5공군은 스트랭글 작전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야간 수송차량(트럭) 공격

철도차단 작전인 스트랭글 작전이 8월 18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자, 제5공군은 적의 야간 수송차량의 전선이동 차단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차단작전의 효과가 완벽해 질것으로 판단하고, B-26 경폭격기를 보유한 제3, 452폭격비행단에게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여 수송차량 파괴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군산(K-8)에 주둔 중이던 제3폭격비행단은 서부지역을, 부산 수영기지(K-9)에 주둔 중인 제452폭격비행단은 동부지역을 지정받아 전선 이북의 주요보급로상의 이동차량에 대한 파괴임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해병 VMF-513 비행대대는 공산측 주저항선의 후방 부근 보급로 상의 이동차량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제5공군사령부는 공산측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주보급로에 고유번호와 색을 지정하고 일일명령으로 임무부대가 감시·공격해야할 특정보급로를 할당하였다. 임

무를 할당받은 각 비행단은 하계에는 15분 간격으로 임무편대를 발진시켜 4시간 동안 임무지역에 체공하게 하였으며, 동계에는 30분 간격으로 발진하여 길어진 야간 시간에 대비하였다. 제5공군사령관 에버레스트 장군은 1951년 4월에 조명지원을 받은 해병비행대대가 3배에 달하는 차량파괴 실적을 거울삼아 제67전술정찰비행단에 조명지원대대에 C-46 20대를 증원시켜 줄 것을 1951년 9월에 극동공군에 요청하였으나, 극동공군은 조명탄 부족으로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스트랭글 작전에 의해 북한 지역의 철도 차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8월 말이 되자 공산측은 야간에 도로를 이용한 보급품수송에 열을 올렸다. 제3, 452폭격비행단 야간 임무 승무원들은 전에 없이 많은 수송차량이 식별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공산군 차량수송행렬이 도로에 증가하자 B-26폭격기의 차량 파괴 성과는 급증하게 되었다.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800대를 파괴 혹은 파손 시킨 것을 포함하여 B-26 승무원들은 8월 중에 1,935대를 파괴하고 다른 3,633대를 파손시켰다고 주장하였다. 8월말 제5공군이 예하 조종사들에게 차량이 불타거나 폭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경우에만 파괴 대수에 포함시키라는 전과확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하달한 이후인 9월에는 공산 측 차량 5,318대, 10월에는 6,761대가 파괴된 것으로 제5공군이 집계하였다.[101]

스트랭글 작전의 성과가 탁월하게 나타나고, 작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인 9월 15일 웨이랜드 장군은 B-26의 추가확보를 위해 공군참모차장인 트위닝(Nathan F. Twinning) 장군에게 보고를 올렸다. 웨이랜드 장군은 보고서에서 지난 23일 동안에 어림잡아 적 차량 2,559대를 파괴하고 5,621대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적고,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새로운 전술이나 폭격 기법 개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B-26 경폭격기 모두가 전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설명하면서, 공산측의 보급물자수송을 저지시킬 확실한 방안으로 B-26기를 추가 배치하여 야간차단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미 공군참모총장인 반덴버그 대장은 더 이상의 B-26을 극동공군에 배치할 수 없음을 거듭 통보하였다. 그러나 제5공군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 자극 받은 미 공군본부는 극동공군의 B-26기 증강요청을 받아들여 10월 초에 웨이랜드에게 대대별 24대를 보유한 6개

대대의 인가 장비 144대와 전시 예비율 50%를 더한 216대의 사용인가를 승인했으며 10월 27일에는 B-26 장비인가 기준을 기존 대대별 16대에서 24대로 승인하고 1952년 5월 1일까지 증가배치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1951년 11월이 되면서 철도봉쇄가 느슨해지면서, 공산 측의 야간에 도로를 이용한 수송차량 이동도 급격히 줄었다. 또한 이동차량규모가 이전에 비해 소규모화 되어 차량파괴 숫자도 11월에는 4,571대, 12월에는 4,290대로 감소하였다.

(3)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작전

1951년 6월 이후 전선이 고착되자 7월부터 근접항공지원작전 소요는 이전보다 급감하였다. 이는 지상전이 소규모·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선에 위치한 공산군이 항공공격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로 광범위하게 은거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모스키토기 및 육군부대에 파견 나가있던 공군 연락장교들의 정찰결과도 이러한 사실들은 뒷받침하고 있었는데, 모스키토기 항공통제기 조종사들은 공산군이 지하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광범위한 분산으로 항공공격목표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하였고 미 제1기병사단에 파견되어있던 커리(Roswell E. Currie) 소령은 공산군의 벙커는 병력 5명 이하가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이며 전선지역 공산군은 최소단위로 최대한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어 항공표적으로는 너무 빈약하다고 보고하였다.

<표 8-17> 근접항공지원 비행 현황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비행활동(소티)	1,084	818	862	1,000	1,136	302	5,202

이러한 상황은 밴플리트 제8군사령관과 에버레스트 제5공군사령관으로 하여금 지상 포병화기로는 사격이 불가한 고지후사면의 적 진지공격에 유용할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근접지원비행규모의 감소에 합의하게 하여, 스트랭글 작전이 시

작되는 8월에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 규모를 1일 96회(사단별 8회)로 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제5공군사령관은 근접항공지원임무를 미 제1해병비행단과 공군 제18전폭비행단에 전담시켰다.

근접항공지원 임무가 축소되자 미 제8군과 제5공군은 근접항공지원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우선 미 제8군은 이전에 공군과 함께 운영해오던 합동작전본부(JOC)의 하부체제를 강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여, 밴플리트는 예하 각 군단과 사단의 정보(G-2), 작전(G-3) 항공장교 및 구성요원을 임명하고 정보, 작전항공장교들은 화력지원본부(Fire Support Coordination Center)에 상근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연대와 대대의 작전(S-3)보좌관은 항공장교를 겸임하게 하여 근접항공지원 요청임무를 담당시켰다. 합동작전본부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기 계획 근접항공지원요청의 반영에 대한 최종 권한은 화력지원본부에 상근하는 사단 작전(G-3)항공장교에게 있었고, 긴급지원요청 권한은 군단 작전(G-3)항공장교에게 주었다.

이에 호응하여 미 제5공군 또한 1951년 4월 25일에 평택기지에서 창설된 제6147전술통제전대의 임무능력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먼저 전술통제기인 T-6 모스키토기가 저속과 비무장으로 인해 적 대공포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제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먼저 T-6기를 대체하여 F-51과 L-19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F-51은 별도의 통신장비 탑재가 어렵다는 점이, L-19기는 적의 대공화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추진이 중단되었고, 결국 T-6기에 근접지원 임무항공기에 표적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2.25인치 소구경 로켓을 장착하여 전술통제기로 계속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육군 각 사단에 파견되어 근접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전방항공통제관(Forward Air Controller)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전방항공통제관은 각 전술비행단에서 20회 이상의 전투비행을 경험한 조종사를 차출하여, 시행초기에는 21일 동안 파견근무를 실시하였고, 1951년 2월 이후에는 60일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파견 조종사들은 파견기간 동안 비행숙련도가 떨어지고, 원대복귀 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10월 1일부터는 제6150모스키토 전술통제대대 보직 조종

사들로 전방항공통제관 전원을 충원하는 방침이 시달되었다. 또한 6월 5일에는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기존 4개 채널 무선 통신기(AN/VRC-1)를 12개 채널을 가진 고주파무선 통신기로 대체되어 통신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였다.

1951년 전반기에 B-29폭격기의 야간 근접지원임무 수행에 현저한 성과를 올린 제3903레이더폭격기록전대의 AN/MPQ-2레이더 파견대의 본토 복귀문제가 대두되자 제502전술항공통제전대는 9월에 자체 병력을 투입하여 항공기유도경보대대에 속해 있던 3개 전술항공지시소의 운영지휘권을 인수하였고 이들 각 전방항공지시소는 전선 약 10마일 후방에 주둔하면서 미 제8군 예하 3개 군단을 지원하게 되었다. 10월이 되자 제5공군은 기존 AN/MPQ-2를 대체하여 AN/MSQ-1 폭격유도 레이더를 확보하였으나 원활한 작전운용에는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근접항공지원은 유엔군의 하계공세와 추계공세기간에 집중되었고 지원우선순위는 미 제10군단이 가장 높았고 미 제9군단과 제1군단, 국군 1군단 순으로 지원되었다. 또한 일련의 작전에 계획적으로 지원되기 보다는 지상군 부대의 요청과 정찰기의 관측에 의해 소규모,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미군 자료에 기록된 근접지원작전의 성과는, 11월에 모스키토기 조종사인 월터 블록(Walter Bullock) 대위는 후평 부근에서 아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는 적 전차 6대와 자주포 1대를 포착하고, 제18전폭비행단의 F-51기를 유도하여 적 전차 4대와 자주포 1대를 파괴한 것이 유일하다.

1951년 10월 내내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미 제8군의 지상탐색전은 리지웨이 극동군사령관의 11월 12일자 명령으로 중단되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협상으로 평화회복이 기대되고 쌍방 간의 대공세가 자제될 것이며, 전선의 적을 공격하더라도 얻게 될 대가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고, 전선에서 적극방어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상상황의 변동으로 12월이 되자 근접지원 소요는 더욱 감소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근접항공지원 소요의 감소는 12월말까지 지속 되었다.

(4) 공수작전

전선이 고착되자 유엔군의 이동감소에 따른 장거리 수송 및 장비·인원의 이동감소로 인해 공수작전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공수작전은 1950년 10월 이후 1951년 6월까지 월간 최소 5,310소티(1950년 12월)에서 최대 7,183소티(1951년 5월)를 실시하여 전체 작전형태별 비행순위 상위 1,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공수작전은 월 평균 약 4,820소티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월간 최소 4,445소티에서 최대 5,225소티로 이전 대비 가장 적은 편차를 보였다. 이는 공수 비행활동이 비상 혹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가운데 계획적이고 일상적인 임무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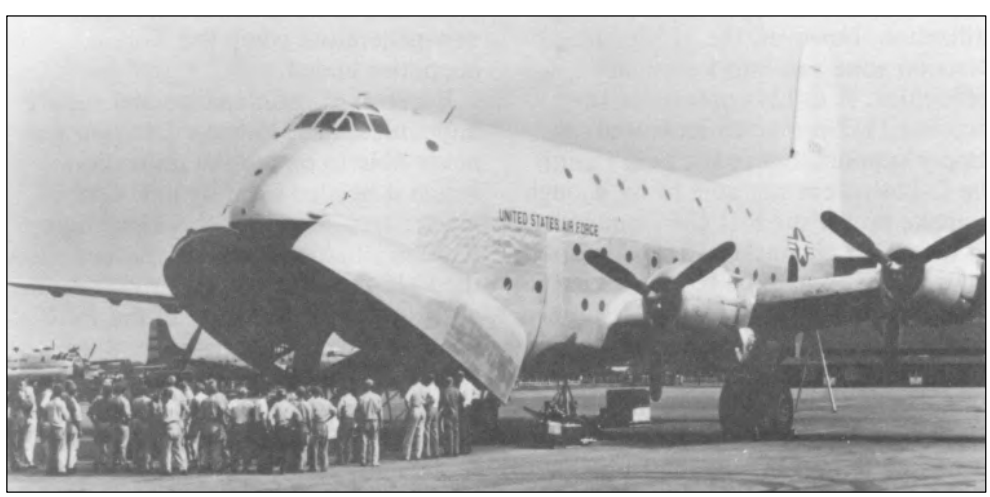
<표 8-18> 공수작전 현황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비행활동(소티)	4,904	5,225	4,445	4,813	4,665	4,846	28,898

이에 대해 공수분야 역사연구가인 워렌(John Warren)은 “1951년 6월 이후 전투공수작전사단이 얻은 새로운 중요한 전술적 경험은 없었다.”[102]라고 언급하였다. 이 시기 특이할 만한 사항은 기존 주력 수송기인 C-46, C-54, C-119에 비해 4~5배의 적재능력을 가진 C-124(Global Master) 수송기가 취역 시험 비행 차 한국전에 참가하여 공수작전을 벌인 것이다. 약 7,000피트의 견고한 표면을 가진 활주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운용에는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315전투공수작전사단은 일본과 한국 경로 간 공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해 시험비행을 원하였다. 이를 공군시험지상사령부(Air Proving Ground Command)가 승인하였고, 9월 27일 C-124A의 작전화 시험비행((Pelican Operation)의 일환으로 C-124A가 최초로 일본에서 항공기 부품 약 14톤을 싣고 한국 김포기지에 도착하였다. C-124 수송기의 한국에서의 시험비행은 10월 31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기

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활주로 손상 없이 이착륙이 가능하였다. 시험비행 기간 중에 부상병 167명을 부산에서 일본 이타미(伊丹)로 공수하였고 10월 21일에는 일본 아시야기지에서 수류탄 약 23톤을 춘천비행장으로 공수하였다. 이러한 시험비행과정을 거친 후 제374공수작전단은 1952년 5월부터 기존 C-46/47/54 수송기를 C-124 수송기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8월 9일에 종료하고 일본과 한국 간의 공수작전에 본격적으로 참가하였다.

이 기간 제21공수작전대대(21st Carrier Troop Squadron) C-47수송기는 1951년 10월부터 북한 서북부 해상에 위치한 초도(焦島)에 주둔한 유엔군의 레이더와 무선 기지, 공군 헬기 및 선박 구조파견대, 정보작전부대들에 대한 공수작전을 실시하였다. 초도는 북한 해안에서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굽어진 이·착륙해안 양쪽 끝에 절벽이 있어 조종사들에게는 매우 모험적인 비행이었지만, 초도에 대한 최초 공수작전 시 C-47수송기 1대가 절벽의 상태를 오판하여 바다로 돌진하여 승무원 8명 모두가 사망한 사례를 제외하고 정전 시까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950년 12월부터 시작된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 유엔군 장병들의 공수작전을 실시하였고, 공수 누적 인원은 1951년 4월에는 25,000명에 이르렀고 1951년 9월에는 100,000명, 1952년 3월에는 200,000명에 이르렀다.



병력을 탑승시키고 있는 C-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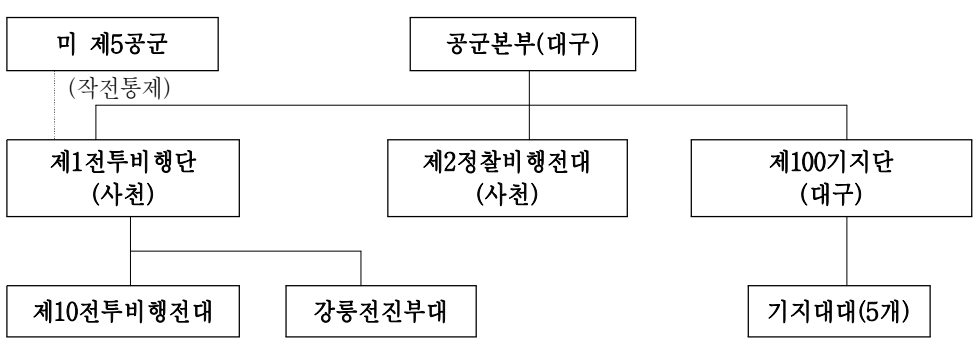
이 기간 제315전투공수작전사단은 이전에 실시했던 고립된 아군을 위한 적진에서의 물자의 공중투하, 후방 지역에 아군 병력의 투하 등 직접적인 전투임무 수행 없이, 이전보다 감소한 물자, 인원 공수 등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2. 한국공군 작전

1) 편성 및 지휘관계

이전까지의 미 제6146기지부대의 자문과 합동출격을 통해 작전을 운영해왔던 한국공군은 단독출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제 개편을 위해 공군작전명령 31호(1951.6.12.)에 의해 1951년 6월 30일까지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들은 사천기지(K-4)로 이동 집결시켰다. 이후 1951년 8월 1일에는 공군본부 일반명령 제52호(1951.7.29.)에 의거 공군비행단이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 창설되었고, 정찰비행전대는 제2정찰비행전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제1전투비행단은 예하에 비행부대로서 제10전투비행전대를, 지원부대로서 제30정비보급전대, 제101기지전대, 제201의무전대를 두었고, 1951년 9월 28일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전력(F-51D 12대, T-6 정찰기 1대, 항공지원 장비 14대, 병력 275명)으로 강릉전진부대를 편성하여 이들의 강릉기지로의 이동을 완료하였다.

<표 8-19> 한국공군 지휘관계(1951년 12월 말 기준)



이러한 전투부대의 개편에 이어 공군의 전반적인 기구와 부대개편이 후속되어, 8월 5일에는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35호(1951.8.3.)에 의거 항공기지사령부를 제100 공군기지단(대구)으로 개편하고 예하에 공중작전 지원을 위해 5개 기지대대(제주, 대구, 대전, 여의도, 사천)를 두었다.[103] 또한 미 공군 제6146부대로부터 물자지원을 책임지고 수령하기 위해 1951년 6월 23일 사천기지에 창설된 제1보급분창이 1951년 9월 9일 미 제5공군으로부터 조직 및 장비 기준표(Table of Organization & Equipment) 및 장비인가표(Table of Allowance)에 대한 정식인가를 받음으로서 1951년 6월 30일까지 인가된 F-51D 20대와 관련된 부품 및 지원 장비, 연료, 정비지원 공구 등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11월부터는 L형 및 T-6 항공기에 대한 장비인가표가 승인되어 이들 항공기에 대해서도 미 공군으로부터 정상적인 보급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F-51D 20대를 포함 총 48대로, 기지별 항공기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20> 공군의 기지별 항공기 운영 현황(1951년 10월 20일 기준)

기 종	사천(K-4)	강릉(K-18)	동명(K-37)	속초(K-50)	총계(대)
F-51D	8	12			20
T-6	4	1	1		6
C-47	1				1
L-4	12		1		13
L-5	2		2	1	5
L-17	1				1
L-19			1	1	2
계	28	13	5	2	48

195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공군의 조직과 편성은 공군본부(총참모장 : 김정렬 소장) 예하에 비행부대로는 제1전투비행단(단장 : 장덕창 준장)과 제2정찰비행전대(전대장 : 오점석 중령)를 두고 있었고, 대구에 본부를 둔 제100기지단은 제주(제102기지대대), 대구(제103기지대대), 대전(제104기지대대), 여의도(제105기지대대, 사천(제108기지대대)에 기지대대를 설치하여 공군부대에 대한 지원임무를 실시하였다.

공군본부는 7월 6일 단일 참모부장제를 작전참모부장 및 행정참모부장제로 전환하여 작전참모부장에는 최용덕 준장을, 행정참모부장에는 김창규 준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9월 10일에는 공군본부에 대한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본부사령실과 제106기지전대로 개편 강화하였고 10월 20일에는 본부 기상대를 제50기상대로, 10월 30일에는 공군헌병대를 제70헌병대로, 통신대를 제60통신전대로 개편하였다. 또한 11월 5일에는 공군본부 서울분실을 설치하였고 11월 15일에는 보급창을 해체하여 대구기지에 제80항공창을 설치하였고 11월 18일에는 공군본부 청사를 대구시 계산동 소재 효성여자중학교에서 비산동 소재 대구서부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2) 조종사 양성 및 전투비행훈련

1951년 7월 30일에 이르러 한국 공군은 F-51D 전투기 17대와 조종사 37명을 보유하게 되었다.[104] 당시 조종사는 비행훈련과정 이수시기를 기준으로 특별, A, B, C 4개 클래스(Class)로 분류하였는데 특별 조종사는 김정렬 소장, 최용덕, 장덕창 준장, 김영환, 장성환 대령 등 총 10명으로 공군창군 이전부터 활동하던 조종사로 당시 공군의 주요보직자들이었다. A 클래스 조종사는 F-51D 평균 비행시간이 90시간 이상을 보유하고 수차례의 실전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9명이였고, B 클래스 조종사는 총 11명으로 1951년 6월까지 제주기지에서 F-51D 전투기에 대한 기종 전환훈련을 완료한 자원이며, C 클래스 조종사는 T-6탑승 조종사로서 T-6 비행시간이 평균 25시간으로 F-51D 기종 전환훈련과정에 입과 한 7명이었다. 이들 C 클래스 조종사들은 총 35시간의 T-6기 훈련비행 종료 후 F-51D 기

종 전환비행훈련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전에 미군 조종사들로부터 비행훈련을 받지 않고 한국공군 조종사들에 의해 양성이 시작된 D 클래스 조종사 10명도 7월부터 사천기지에서 T-6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에 돌입한 상태였다.

F-51D 전투기는 1951년 6월말부로 미 공군으로부터 20대가 인가되었으나 7월 30일 당시에는 17대 만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중 10대가 야전정비 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작전투입 가능한 전력은 7대뿐이었다. 또한 T-6기의 경우에는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2대는 대구기지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4대만이 사천기지에 전개한 상태였다.

사천기지에서의 비행훈련의 목표는 우선 미 공군조종사의 지도(指導) 없이 전투를 준비하고 근접지원 및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추는데 주안을 두고 A급 조종사들로 하여금 항법, 공대지사격, 항공기 집결훈련, 독도법 등에 대해 30시간에 걸친 비행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미군 조종사의 지휘 하에 출격을 통해 한국군 조종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항법과 표적상공 집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항법비행훈련을 과목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제주기지에서 6~8회 실시했던 공대지사격은 사천기지에서는 사격장이 확보되지 않아 상당기간 실시하지 못하다가 진주 남강 변에 사격장을 만들어 한국군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3) 공비토벌작전

1951년 후반기 한국공군의 공비토벌작전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는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가 요청하여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실시한 지리산지구토벌작전이었고 두 번째 작전은 그해 12월에 백야전전투사령부와 합동으로 벌인 지리산 서남지구 공비토벌작전이었다. 이들 작전에는 제1전투비행단의 F-51D 전투기와 제2정찰전대의 T-6 정찰기가 참가하여 작전성과를 높였다. 한국공군은 첫 번째 공비토벌작전인 지리산지구토벌작전기간 중인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비토벌작전과 해주지역 후방차단 작전을 겸해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작전준비태세검열을 받아 단독출격능력을 검증받고 승인받았으며, 이는 강릉전진부대의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1)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작전 및 작전준비태세 검열(1951.8.17.~9.18)

1950년 9월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도주로가 차단되어 남한 내 산악지대로 잠입한 북한군 패잔병은 약 9,500여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영·호남 지역의 지방공비들과 합류함으로서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아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시설을 공격하는 등 그 위협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에 걸친 국군 3개 사단(제 2, 8, 11사단)의 토벌 작전으로 대부분 격멸되었으나 분산 도주한 일부 공비 잔당들은 세력을 재정비하여 개기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약 4,000여명이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속리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 약탈, 경찰지서 습격, 차량 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 납치 등 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7월이 되자 산청경찰서 관내의 지서와 마산, 진주 등지의 공공건물은 습격하였고 일부는 수차례에 걸쳐 사천기지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105]

이러던 차에 영·호남지역의 공비토벌을 담당하고 있던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남원 소재)의 지원요청을 받게 되었고 7월 23일 개최된 군·경 정보관계관회의 당시 공군비행단(1951.8.1.일부로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 참모장 김영환 대령과 작전정보처장 장지량 중령이 참석하여 공비활동에 관한 사항과 공비토벌작전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하였다. 7월 24일 미 공군 제6146부대장 윌슨(Harold H. Wilson) 소령을 통해 작전권을 관할하고 있던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전달된 서신에서 한국 공군은 북위 34° 30'~ 35° 30'과 동경 126° 30'~ 128° 30'지역에 대해 미 공군의 지원 없이 한국공군 단독으로 전투훈련을 겸한 공비토벌작전을 벌이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미 제5공군사령부는 이를 승인함과 아울러 적극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8월 2일 공본 작전명령 제34호를 통해 제1전투비행단과 제2정찰비행전대에 전투경찰부대의 공비소탕작전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본 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1전투비행단은 비행단 작전명령 제8호(1951.8.18.)를 통해 제10전투비행전대로 하여금 경찰전투부대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비에 대한 섬멸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2정찰전대 소속 T-6 및 L형 정찰기는 적정정찰 및 전과확인 등의 F-51D 지원임무가 부여되었다.

공비토벌작전은 8월 17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10시 30분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영환 대령이 지휘하는 F-51D 4기 1개 편대는 사천기지를 이륙하여 산청 남방 6㎞ 지점의 지리산 웅석봉(熊石峰)에 위치한 공비 방어진지 3개소를 로켓과 기총으로 공격하여 완파하고 공비 57명(사살 : 21명, 부상 :36명)을 살상하고 12시에 기지로 귀환하였다. 이날 13시30분에는 정영진 대위가 이끄는 F-51D 4기 편대가 지리산 덕동리 남방 4㎞ 지점의 공비집결지를 공격하여 전소시켰고 16시에는 김영환 대령이 F-51D 2기 편대로 달궁 지역에서 공비들을 공격하여 95명(폭사 : 49명, 부상 : 46명)을 살상하고 방어진지 및 포진지, 엄체호 등을 파괴하였다. 8월 18일에도 김영환 대령과 미 공군 제6146부대 라그로(Lewis Lagro) 중위[106] 편대가 웅석봉 서남쪽 4㎞ 지점인 평촌리 지역의 공비를 공격하였고 정영진, 김두만 대위 편대는 반야봉 지구에서 공비를 타격하여 45명(폭사 : 30명, 부상 : 15명)을 살상하였다.

<표 8-21>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비행운영

일자	시간	편대장	참가 전력	작전 지역	전 과
8.17	10:30~12:00	김영환 대령	4/F-51	웅석봉	공비 57명 살상, 진지 3개 파괴
	13:30~15:00	정영진 대위	4/F-51	덕동리	건물 8개소 파괴
	16:00~17:30	김영환 대령	2/F-51	달궁	공비 95명 살상, 진지 3개소, 은거지 12개소, 화약창고 5개소 파괴
8.18	09:00~09:40	김영환 대령	2/F-51	평촌리	미확인
	09:30~11:00	정영진 대위	2/F-51	반야봉	공비 45명 살상

8.25	09:15~10:15	김영환 대령	2/F-51	덕동리	공비 21명 사살, 은거지 25개 파괴
	09:45~11:00	김성룡 대위	2/F-51	응석봉	공비 40명 살상, 은거지 3개소, 건물 3동 파괴
	11:15~12:25	정영진 대위	2/F-51	해인사	공비 41명 살상, 은거지 8개소 파괴
8.26	10:30~12:00	김영환 대령	4/F-51	회문산 가마골	공비사살 50명, 차량 2대, 은거지 및 건물 40~50개소 파괴
8.27	15:00~16:40	김영환 대령	4/F-51		공비 80명 살상, 은거지 8개, 건물 40동 파괴
9.18			20/F-51	노고단, 마천지구	공비 67명 살상, 은거지 10개, 건물 12동 파괴
총 비행 운영			48/F-51D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공비소탕작전은 태풍 마지(Marge)가 사천기지로 접근하자 미 제5공군사령부로는 항공기 대피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F-51D가 대구(K-2)와 평택기지(K-6)로 분산 대피하였다가 8월 24일 오후에 사천기지로 귀환함으로써 공비토벌작전 출격은 8월 25일부터 재개하였다. 8월 26일 김영환 대령을 편대장으로 회문산(回文山)지구 가마골 삼림지역 공비 은신처에 대한 공격은 공비토벌 작전 시 처음으로 5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하였고, 폭탄(8발)과 로켓(24발), 기총(7,200발)을 퍼부어 공비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나 적의 지상 포화에 의해 김영환 대령이 조종하는 F-51D의 엔진이 관통, 파손되어 곡성지역 섬진강변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같은 편조의 김두만 대위가 공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고지역 상공에서 체공하며 엄호비행을 실시하며 사천기지로 구조요청을 하였다. 경찰이 출동한 차량으로 김영환 대령을 구조하여 남원비행장으로 수송하였고, 사천비행장에서 급히 남원비행장으로 출동한 권성근 중위의 T-6기가 김영환 대령과 동승하여 사천비행장으로 귀환함으로서 구조 활동이 종료되었다.[107]

8월 25일 재개된 토벌작전은 9월 1일까지 계속되었고, 미 제5공군사령부의 작전준비태세검열 결과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차기작전 준비를 위한 일시 휴지기

(1951.9.2.~9.17)를 가지고 9월 18일 노고단, 마천지구에 대한 작전을 끝으로 작전은 종료되었다.

이 기간 중에 한국공군은 작전운영에 커다란 전환기가 된 사건을 맞게 되는데 한국공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제5공군사령부의 제1전투비행단에 대한 작전준비태세검열(Operational Readiness Inspection)이다. 미 제5공군의 작전준비태세검열은 한국공군의 요청에 의해 1951년 8월 27일 사천기지에 도착한 아이잭슨(Clayton M. Issacson) 중령 등 12명의 미 제5공군사령부 검열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검열은 8월 28일부터 시작되었고 조종사들의 비행훈련 상태와 공중작전 능력, 후방지원 능력(정보, 인사, 정비, 무장, 보급, 통신 분야) 등 제1전투비행단에 대한 전반적인 비행작전능력 및 준비상태를 검열하였다.

8월 28일 아이잭슨 중령이 한국 공군조종사와 함께 검열을 겸한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출격하였다. 08시에 강호륜, 박희동 소령을 편대장으로 F-51D 4기 2개 편대가 사천비행장을 이륙하였고 이들의 뒤를 이어 아이잭슨 중령이 탑승한 F-51D 1대가 이륙하였다. 한국공군 F-51D 2개 편대는 지리산 동쪽 4㎞ 지점의 적의 은신처를 공격하여 공비 35명을 살상하고 귀환하였다. 8월 29일에는 총 6개편대가 출격하였는데, 첫 번째 편대는 김영환 대령과 아이잭슨 중령이 조종하는 2기 편대가 14시10분 무장정찰임무로 출격하여 섬진강 중류 화개장(花開場) 지역의 공비집결지를 공격하여 은신처 9개소와 건물 27동을 파괴하였다. 이어 15시50분에 이륙한 강호륜 소령이 지휘하는 4기 편대는 화개장 지역의 공비은신처 4개소와 건물 3동을 파괴하였고, 16시15분에 출격한 정영진 대위가 지휘하는 4기 편대는 죽정리(竹亭里), 노고단(老考壇), 천마산(天馬山) 사이의 계곡에 있는 공비은신처를 공격하여 건물 4동, 은신처 2개소를 파괴하고 공비 130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17시45분에 출격한 전봉희 대위가 이끄는 4기 편대는 노고단 지역의 공비은신처를 공격하여 은신처 5개소와 탄약저장소 1개소를 파괴하였고, 18시 35분에는 강호륜 소령이 편대장으로 4기 편대가 출격하여 노고단 서남부 4㎞ 지점의 방광리 지역 공비은신처를 공격하여 건물 6동을 파괴하고 공비 10명을 사살하였다. 이날 검열의 마지막 비행으로 김영환 대령이 이끄는 4기 편대는 19시 20분에 출격하여 노고단 동남부 1㎞

지점의 밤재골 지역의 공비 은신처 4개소를 파괴하고 귀환하였다. 이로써 한국공군은 개전 이래 최초로 1일 6개편대(23소티)가 출격하는 기록을 수립하였고 탄약 소모도 최대량(500파운드 폭탄 6발, 로켓 112발, Cal-50 37,200발)을 기록하였다.[108]

8월 30일에도 검열을 겸한 공비토벌작전이 시행되었는데 07시50분에 박희동 소령이 편대장으로 이륙한 4기 편대는 화개장 지역으로 출격하여 T-6 항공기의 유도에 따라 공격을 가하여 공비은신처 4개소와 건물 3동 야포 1문을 파괴하였고 공비 86명을 사살하였다. 이어 07시55분에 이륙한 강호륜 소령이 지휘하는 5기 편대(김성룡, 전봉희, 주영복 대위, Lagro 중위)는 화개장 지역의 공비집결지를 공격하여 은신처 3개소, 건물 5동을 파괴하고 공비 37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09시40분에 이륙한 장지량 중령이 이끄는 4기 편대는 노고단 동남쪽 목동마을을 공격하여 공비은신처 4개소, 건물 3동을 파괴하였다.

이날 오후 제1전투비행단은 새로운 검열과제를 부여받았는데 이전까지의 출격임무와는 달리 후방차단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해주 북방 10㎞ 지점 신원리(新院里) 지역의 적 교통망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3시에 강호륜 소령을 편대장으로 8대(검열을 위한 라그로 중위 탑승 1기 포함)가 사천기지를 이륙하여 해주 북방 철도중심의 요충지인 신창리(新昌里)와 염탄리(鹽灘里)를 연결하는 보급로를 목표로 공격하여 철도 역사 1동, 건물 2동, 철교 경간 3개와 도로 1개소를 파괴하고 15시30분에 기지로 귀환하였다. 9월 1일에도 해주 북쪽의 신원리 방면 보급로를 목표로 하여 김영환 대령을 편대장으로 F-51D 12대(미국 조종사 아이잭슨 중령 및 라그로 중위 포함)가 08시에 출격하여 해주-사리원간 철도선 중간에 위치한 염탄리 철교 및 보행교를 폭탄과 로켓탄으로 공격하여 철도경간 6개를 파괴하였고, 오후 들어 13시25분에 김영환 대령을 편대장으로 F-51D 10대(미국 조종사 아이잭슨 중령 및 라그로 중위 포함)가 재차 동일지역에 출격하여 철교경간 7개를 절단하였다. 8월 30일 오후부터 9월 1일에 걸쳐 시행된 해주 북서부 교통망 차단작전은 A, B 클래스 조종사에 의해 수행되었고 검열과정은 종료되었다.

이러한 검열을 통해 한국공군은 미 공군에게 단독출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전을 통해 보여주었고, 미 공군은 한국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유엔공군의 전투제대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 공군의 장비와 각종 물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는 9월말부터 강릉비행장을 전초기지로 단독출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지리산 공비토벌 기간 중 공군의 작전지역인 해인사 경내 및 인근지역에는 약 1개 대대 규모의 공비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고, 공비의 완전한 소탕을 위해서는 해인사를 공중 공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109] 이에 대해 공비토벌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며 거의 매일 임무편대장으로 직접 제1선에서 공격임무를 담당했던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영환 대령은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의 소실을 염려하여 임무조종사들에게도 편대장의 지시 없이는 사찰을 공격하지 말고 사찰 주변의 적들만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110] 이러한 한국공군의 노력으로 해인사와 이곳에 소장된 고려대장경판(팔만대장경)은 6·25의 참화를 면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표 8-22> 작전태세검열 기간 중 비행운영

일자	시간	편대장	참가 전력	작전 지역	전 과
8.28	08:00~08:35	강호륜 소령	4/F-51	지리산 동부 4㎞	공비 25명 사살, 2명 부상
		박희동 소령	4/F-51		
8.29	14:10~15:10	김영환 대령	1/F-51	화개장	공비 30명 사살, 은거지 9개소, 건물 27동, 소단정 2척 파괴
	15:50~16:50	강호륜 소령	4/F-51	화개장	은거지 4개소, 건물 3동 파괴
	16:15~17:15	정영진 대위	4/F-51	이평리	공비 130명 사살, 은거지 2개소, 건물 4동 파괴
	17:45~18:35	전봉희 대위	3/F-51	천마산	공비 10명 사살, 은거지 5개소, 화약창고 1개소 파괴
	18:35~19:35	강호륜 소령	3/F-51	방광리	공비 10명 살상, 건물 6동 파괴

	19:20~20:20	김영환 대령	4/F-51	밤재골	은거지 4개소 파괴
8.30	07:50~?	박희동 소령	4/F-51	화개장	공비사살 86명 사살, 은거지 4개소, 건물 3동, 야포 1문 파괴
	07:55~?	강호륜 소령	4/F-51		공비 37명 폭사, 은거지 3개, 건물 5동 파괴
	09:40~10:40	장지량 중령	4/F-51	목동마을	은거지 4개소, 건물 3동 파괴
	13:00~15:30	강호륜 소령	7/F-51	해주지역 신원리	철도 역사 1동, 건물 2동, 철도 경간 3개, 도로 1개소 파괴
9. 1	08:00~11:15	김영환 대령	11/F-51	해주지역 염탄리 철교	철도 경간 6개 파괴
	13:25~16:00	김영환 대령	8/F-51		철도 경간 7개 파괴
총 비행 운영 (* 미 공군 검열관의 비행은 제외)			65/F-51D		

(2) 지리산 서남지구 공비토벌 작전(1951.12. 3~6, 12.19~25)

6·25전쟁 발발 이후 국군과 경찰의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한 1950년 10월 이후부터 국군 제5사단의 영남지구 작전(1950.10. 4~11.22), 제9사단의 대둔산 및 경북 서부지역 작전(1950. 11.23~12.17), 제11사단의 지리산지구 작전(1950.10.4.~1951.3.30.), 제8사단의 호남지구 작전(1951.4.15.~5.11)을 거쳤지만 공비들의 준동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약 9,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잔존 세력은 1951년 8월 세력을 규합하고 각 도당 유격사령부를 사단으로 승격한 후 남부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지휘체제를 일원화하였다.[111]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인근 소도시와 경찰관서 습격은 물론 일정기간 촌락을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남원-구례-순천에 이르는 전라선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열차를 습격하는 등 이들의 폐해가 줄지 않았다. 이러한 공비의 폐해를 막고자 한국 육군은 1951년 11월에 백야전 전투사령부(이하 '백야사')를 창

설하였고 12월 1일부로 남한 서남부지역에 대한 계엄을 선포하고 백야사는 공비 소탕을 위한 4단계(기) 작전을 계획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때 공군은 제 1기 작전(1951.12.3.~12.15, 지리산 포위 섬멸작전)과 제2기 작전(1951.12.19.~12.25)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1기 작전은 지리산(智異山, 1,915m)을 포위하여 공비주력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제2기 작전은 전라남·북도의 성수산(聖壽山, 1,059m)-장안산(長安山, 1,239m)-운장산(雲長山, 1,126m) 일대의 잔적 소탕을 위한 작전이었다.

당시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는 9월 28일 강릉전진부대로 전력의 대부분을 이동시켜 동해안지역의 적 보급로 차단작전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조종사의 피로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해소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김정렬 총참모장은 강릉전진부대의 동해안 차단작전을 중단하고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1.12.8.)를 하달하여 1951년 11월 28일까지 강릉전진부대장(김신 대령) 지휘 하에 F-51D 전투기 12대를 사천기지로 전개시켰다. 12월 1일까지 작전준비를 완료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12월 3일부터 서남부지구 공비토벌 제1기 작전 지원을 개시하였다. 12월 3일 옥만호 중위가 이끄는 4기 편대에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작전훈련장교 아담스(Michael Adams) 소령이 가세한 총 5대의 F-51D 13:40에 사천기지를 이륙하여 지리산 서남방 6㎞지역의 암산(岩山, 923m) 적진지에 폭탄 10발, 로켓 20발을 투하하였고 산개하는 공비에 대해 기총 5,000발을 소사하였다. 다음날인 12월 4일에는 김두만 대위를 편대장으로 4기 편대가 09:45에 이륙하여 공비와 접전을 벌이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던 아 군경병력을 엄호하면서 지리산 남서쪽 5㎞ 지점의 1,668고지에 위치한 적진지를 포착하고 폭탄과 로켓을 발사하여 건물 1동을 파괴하고 기총사격을 통해 공비 10명을 사살하였다. 12월 5일에는 이기협(李基浹)대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4기편대가 지리산 서남방 3㎞ 지점의 공비진지를 폭격하였고 12월 6일 오전에는 신철수(辛鐵洙) 중위가 이끄는 4기 편대가, 오후에는 정주량(鄭周良) 중위가 이끄는 4기 편대와 김두만(金斗萬) 대위가 이끄는 8기편대가 작전에 참여하였고 이로써 공비토벌 제1기작전이 종료되었다. 공군의 제1기 작전 종료는, 강릉기지로 복귀하여 12월 10~18일간에 걸쳐 원산

지역의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라는 공군본부 구두작전명령에 의한 것이었으며 공식문서(공본 작전명령 제39호)는 12월 12일에 하달되었다.[112]

<표 8-23> 서남지구 공비토벌 제1기 작전 비행운영

일자	시간	편대장	참가 전력	작전 지역	전 과
12. 3	13:40~14:30	옥만호 중위	4/F-51	암산	전과 미확인
12. 4	09:45~11:15	김두만 대위	4/F-51	1,688고지	공비 10명 사살, 건물 1동 파괴
12. 5	09:40~11:10	이기협 대위	4/F-51	지리산 서남방 3㎞	전과 미확인
12. 6	11:10~12:30	신철수 중위	4/F-51	반야봉	전과 미확인
	15:25~17:25	정주량 중위	4/F-51	백운산	공비 20명 사살, 건물 2동 파괴
총 비행 운영 (미 공군비행 제외)			20/F-51D		

공비소탕작전을 일단락하고 강릉기지로 복귀했던 제10전투비행전대에게 12월 19일까지 진해기지(K-10)로 F-51D 전투기 12대와 작전요원 및 장비를 전개하여 공비토벌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113] 이로써 공군의 제2기 공비토벌작전은 진해기지에서 공군 제2정찰전대와 함께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운장산, 삼도봉, 신선봉, 덕태산, 천성산, 희수산, 장안산, 백암산, 덕유산 일대에서 전개되어 F-51D 전투기 총 51소티를 지원하였다.[114]

<표 8-24> 서남지구 공비토벌 제2기 작전 비행운영

일자	시 간	편대장	참가 전력	작전 지역	전 과
12. 19	15:25~17:05	김두만 소령	4/F-51	운장산	공비45명 사살, 건물7동 파괴

	15:40~17:05	옥만호 대위	4/F-51	회문산	은거지 1개소 파괴
12. 20	09:40~11:30	김두만 소령	4/F-51	회문산	건물6동 파괴
	13:15~15:35	옥만호 대위	4/F-51	백운산	공비17명 사살, 건물8동 파괴
	13:20~15:00	김두만 소령	3/F-51	회문산	공비25명 사살, 건물3동 파괴
12. 21	09:50~11:10	이기협 대위	4/F-51	회문산	전과 미확인
12. 22	14:30~15:55	김두만 소령	4/F-51	회문산	전과 미확인
12. 23	13:15~14:50	옥만호 대위	4/F-51	백운산	공비20명 사살
12. 24	10:00~12:15	이기협 대위	4/F-51	계관산	공비10명 사살
	12:35~14:20	김두만 소령	4/F-51	운장산	전과 미확인
	13:10~15:10	옥만호 대위	3/F-51	운장산	전과 미확인
	15:30~17:10	이기협 대위	4/F-51	운장산	전과 미확인
12. 25	09:55~11:05	김두만 소령	4/F-51	운장산	전과 미확인
총 비행 운영			51/F-51D		

4) 강릉전진부대와 단독출격작전

개전과 함께 불비한 여건 하에서 한국공군으로는 유일하게 전투 활동을 벌였던 공군비행단은 1951년 8월 1일 제1전투비행단으로 승격되었고 8월 17일부터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투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비토벌과 작전과 병행하여 미 제5공군사령부에 작전준비태세검열을 요청하여 8월 28부터 9월 1

일까지 공비토벌 및 차단작전능력과 함께 후방지원능력 전반에 대한 작전준비태세검열을 받아 단독출격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단독출격을 위한 제반준비가 완료되었고 9월 28일에 비행단 일부병력을 강릉기지로 이동 완료하여 10월 11일부터 단독출격작전을 개시하였다.

(1) 강릉전진부대 창설과정과 강릉기지 전개

한반도 전체 공역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이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1950. 7.14)한 이후 미 제5공군이 행사하고 있었다. 1951년 7월 초 김정렬 공군총참모장은 동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1군단을 근접지원하기 위한 주둔지로 강릉기지(K-18)로 선정하고 한국공군의 단독출격작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 작전국은 7월 20일 '강릉기지 전투출격준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안을 8월 1일 미 제6146기지부대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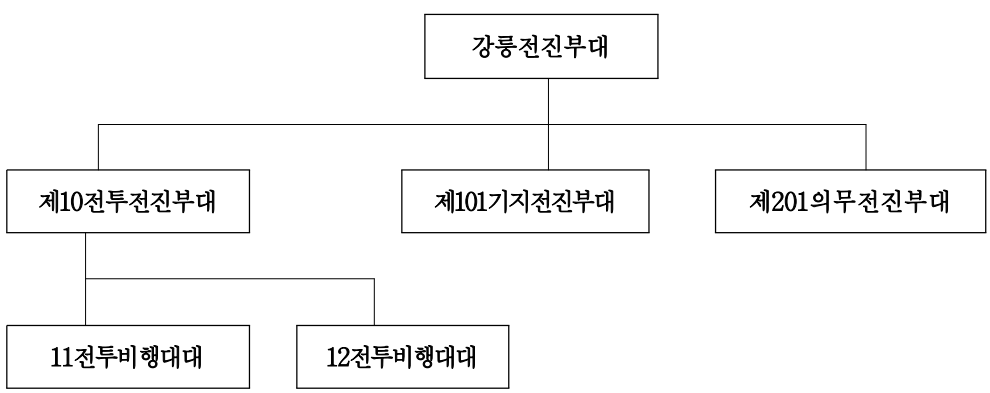
공군본부가 작성한 강릉기지전개 계획안은 '원산작전 기본계획안'으로 명명되었고, 이동과정은 4단계(제1단계 : 작전기지확보, 제2단계 : 전투준비, 제3단계 : 기지 이동, 제4단계 : 작전)로 입안되었다. 제1단계 작전기지확보는 1951년 8월 15일까지 국군공병단의 협조 하에 기존활주로를 길이 1,400m, 폭 100m로 확장하고 숙영시설과 부속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제2단계인 전투준비를 위하여 8월 20일까지 미 제5공군의 협조를 얻어 작전지도, 통신장비, 사진기, 전술항공통제장비 등을 구비하고, 첩보대를 편성하여 훈련하는 등 제반준비를 갖추는 것이었다. 제3단계 부대이동은 8월 10일~20일 중에 선발대를 선박과 차량, C-47 수송기 등 항공기편으로 이동시키고, 주력전투부대는 9월 1일~ 7일 기간 중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으며 제4단계인 작전단계에서 항공작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집행과정에서 관련부대간의 협조가 원만하지 못하여 활주로 확장공사가 계획보다 10여일 늦어진 8월 26일에야 길이 1,640m, 폭 80m로 확장 완성되었고, 제2단계 사업인 기지 내·외간 유무선 통신망 구축도 한 달여가 지연된 9월 30일에야 설치되었다. 또한 강릉기지로의 부대이동도 지연되어 9월 16일

에야 시작되어 9월 28일에 이동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동 부대는 3개 제단(梯團)로 구분하여 이동하였는데 강릉전진부대의 제101기지전대(전대장 대령 김신)와 지상 장비로 구성된 제1제단이 차량 15대를 이용하여 9월 18일에 강릉기지에 도착하였고, 제2제단인 비행단 병력 139명과 제11정비중대가 중대장 백춘득(白春得) 대위 지휘 아래 육상과 해상을 통해 9월 27일 강릉기지에 도착하였고, 제3제단인 F-51D 12대를 포함한 비행단 주력부대는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영환 대령의 인솔 하에 9월 28일 07시30분에 사천기지를 이륙하여 08시30분에 강릉기지에 도착하였고 잔여 정비부대는 C-54 수송기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F-51D 전투기 12대, T-6정찰기 1대, 항공지원 장비 14대, 병력 275명으로 구성된 '제1전투비행단 강릉전진부대사령부'가 이동을 완료하고 차기 임무수행 준비를 하게 되었다. 9월 28일부로 강릉전진부대장에는 김영환 대령이, 기지부대장에는 김신 대령이 각각 임명되었고 예하 부대 구성은 다음(표 8-11.)과 같다.

<표 8-25> 강릉전진부대 주요 제대 편성(1951. 9. 28)



(2) 강릉기지 단독출격 작전(후방차단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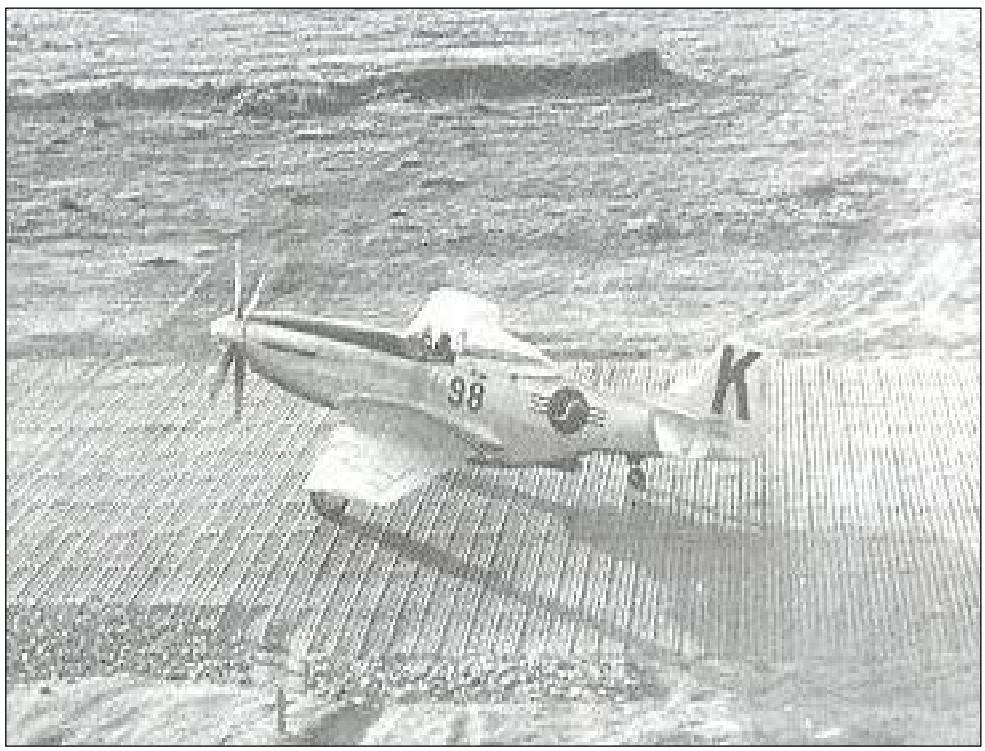
강릉기지(K-18)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건설하여 일본 패전으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방치되었다가 1950년 7월부터 남침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공군이 1개 항공대를 주둔시켰다. 그후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이 이루어지자 1950년

10월부터 우리공군이 확보운영하기 위해 김진형(金振衡) 소위 이하 13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부대경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51년 6월부터는 동부전선의 유엔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제1해병비행단 제12비행대대(기종 : F4U)가 주둔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강릉전진부대의 이동과 함께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인원도 강릉기지로 이동하여 한국공군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로서 강릉기지는 미 공군과 해병대, 한국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한국공군조종사들은 10월 1일부터 미 해병조종사들로부터 강릉기지에서의 이착륙 기본절차를 교육받았고 미 해병 제12비행대대 정보반에서 실시하는 일일브리핑에 참석하여 전선 상황과 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 해병 제12비행대대는 한국공군이 사용할 항공유와 탄약을 미 공군 제6405 KAMU(한국주둔 공군군수부대)가 주문진항에 하역되면 강릉기지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해주었다. 또한 강릉지지 내·외곽에 대한 경비는 육군 제7경비대대(2개 중대)가 담당하였다.

강릉기지의 작전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먼저 기상조건을 보면 동계에는 극심한 해무와 주위의 높은 산봉우리에 의해 발생하는 돌풍, 기온 급강하, 많은 강설로 작전에 제한을 받았고 춘계에는 잦은 해무와 해빙기에 활주로 상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인해 이착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기상상태가 양호한 5월부터 10월간에도 종종 발생하는 해무로 작전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작전에 불리한 조건은 활주로 상태였다. F-51D 전투기가 정상적인 이착륙을 위해서는 최소한 길이 2,000m, 폭 50m정도는 되어야 했으나 당시 활주로는 길이 1,640m, 폭 80m 였고, 노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PSP(Pierced Steel Plank)로 조립된 비상활주로였다. PSP조립 활주로는 이착륙 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결이 불완전할 경우 착륙장치에 큰 충격을 주고 타이어의 찢김 현상을 야기하여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지속적인 보수작업이 소요되는 등 유지 및 관리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집중되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종사를 괴롭힌 것은 활주로 동쪽 끝 200m 지점에 위치한 높이 100~150ft 모래언덕으로서 중무장 후 이륙 시

해당위치의 항공기 고도가 200~300ft로 조종사 시각 상 매우 위협적이었고 기지 서쪽 대관령으로부터 불어오는 하강난기류와 해안으로부터 불어오는 난류(暖流)가 합쳐져 만들어내는 난기류는 항공기를 추락 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어서 '마(魔)의 계곡'이라 불렸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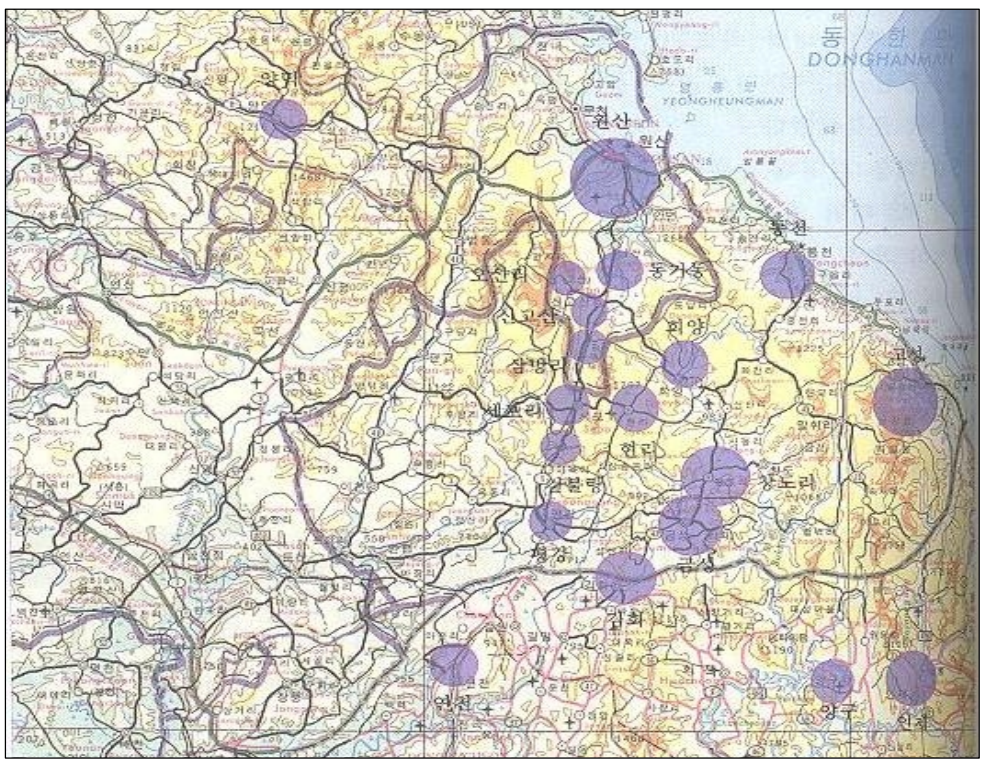


강릉기지에서 이륙하는 한국공군 F-51D (출처 : 공군본부, 공군역사기록관리단)

1951년 10월, 유엔지상군은 추계공세를 통해 중동부전선에의 방어선 개선을 이룩한 가운데 유엔공군은 8월 18일 시작된 적 후방에 보급로와 수송선에 대한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교살작전(Operations Strangle)을 진행 중에 있었다. 이에 따라 강릉전진부대는 유엔공군의 교살작전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원산-신고산(新高山)-세포리-평강을 잇는 중동부 전선에 이르는 경원선 철도와 그와 연결되는 지선철도 및 신고산-회양-금성의 중동부 전선에 이르는 적의 수송로를 비롯

하여 회양-통천 간의 이동로 등 북한군의 주요 보급수송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117]

< 강릉전진부대 단독 후방차단작전 출격지역>



* 출처: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강릉전진부대의 10월 11일 역사적인 단독출격작전은 김영환 대령의 지휘 하의 F-51D 4기 편대에 의해 개시되었다. 08:55분 임무편대는 각 항공기 당 500파운드 폭탄 2발과 로켓 2발, Cal-50 기관총 1,850발의 무장을 장착하고 편대장기를 선두로 강릉기지를 이륙하여 표적인 중공군 제68군단과 북한군 제2군단후방의 고저(庫底)-통천-화천리-말휘리-마봉-양구에 이르는 주보급로에 대한 무장정찰과 공격을 통해 도로 2개소를 차단하고 말휘리 도로상에서 차량 2대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고 10시10분에 기지로 귀환하였다.

이어 09시20분에 이륙한 김두만 대위의 4기 편대와 13시05분에 출격한 강호륜 소령이 지휘하는 4기 편대는 동일지역에 출격하여 각각 가옥 1개소 및 마차 1대와 보급로 4개소를 각각 파괴하였다. 또한 13시35분에 정영진 대위가 이끄는 4기 편대가 인제 북방 계곡으로 출격하여 도로 2개소와 철도 1개소를 차단하고 고사포 진지 등을 파괴하였다.

이후 10월 12일부터 3일간 중지되었던 공격은 10월 15일부터 재개되어 F-51D 8기와 7기 편대 15대가 출격하여 인제 북방 매봉산 남쪽 삼림지역의 적진지를 폭격하였으며 16일에는 연천북방 대광리 지역에 2개 편대 15대가 출격하여 중공군 보급로를 공격하여 고사포 진지 4개소를 파괴하였다. 10월 17일에는 통천과 회양지역에 4개 편대 18대가 출격하여 보급로 및 교량 등을 파괴하였다. 이러한 원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전선에 대한 후방차단 작전은 11월 중에도 지속되었고, 12월 중에는 지리산 서남지구 공비토벌작전 기간(1951.12. 3~6 / 12.19~25)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동부전선으로 이동하는 적 보급물자와 장비, 인원 등의 후방지원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서 공산군의 전력운용에 곤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작전초기 강릉전진부대 조종사들은 할당받은 후방차단 표적을 공격하고 귀환 중에는 창도리(昌道里)지역에 이르는 중부전선의 도로를 따라 비행하다가 군용차량, 탄약 및 보급품 집적소, 야포진지 등이 식별되면 잔여무장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형태의 비행 운영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1951.10.11.~12.30) 동안 동해안지역 후방차단작전의 총 출격일은 48일로 작전운용 현황은 <표8-26>와 같다.

<표 8-26> 강릉전진부대 단독 후방차단작전

기 간	실제 작전일	비행 운영	무장소모량			비 고
			폭탄	로켓	Cal-50	
'51.10.11 ~ 11.28	38일	494소티	943발	1,614발	307,200발	
'51.12.10 ~ 12..30	10일	151소티	288발	532발	114,300발	공비토벌 작전 제외
계	48일	645소티	1,231발	2,146발	421,500발	

제 4 절 분석 및 교훈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협상이 개시된 1951.7.10.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에 양측이 전개한 공군작전이 갖는 특징과 의미는 첫째 공산권 3개국의 연합공군세력 형성, 둘째 양측의 제한전쟁전략으로 인한 공군작전의 한계 노출 , 셋째 유엔공군이 전개한 스트랭글작전과 공산공군의 반 교살작전에 대한 평가, 넷째 한국공군의 개편과 단독출격작전이 갖는 의미 등이다.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산 3개국의 연합공군세력 형성

공산공군은 1951년 9월 말에 중국인민지원군공군(이하 '중국공군')이 MiG-15기를 보유한 2개 비행사단을 안둥기지로 전개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북한공군이 MiG-15기를 보유한 제1전투비행사단을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유엔공군기에 대한 요격작전에 참가함으로써, 이미 북한 서북부 청천강 이북 상공에서 유엔공군과 격돌하고 있던 소련공군의 3개 비행사단 및 1개 비행연대와 더불어 3개 공산국가의 연합공군세력이 형성되었다.

연합공군의 지휘체계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이 새로이 참전한 중국공군과 북한공군을 작전통제하면서 공산공군의 작전전반을 지도하였고 중국 및 북한공군은 소련공군의 주도적인 작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북한공군의 전력회복과 중국공군의 새로운 참전 그리고 소련공군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공산권의 연합공군작전세력 형성 및 작전활동은 그동안 유엔공군이 장악해 왔던 공중우세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유엔공군이 가용전력의 대

부분을 투입하여 전개한 스트랭글 작전에 대해 반 교살작전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엔공군의 작전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중국공군은 서해상에 위치한 도서를 점령하기 위해 2개 폭격비행사단과 중공군 제50군단이 합동작전을 벌이는 등 매우 적극적이며 의욕적인 전투 활동을 벌여 유엔공군에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

2. 양측 공군작전의 전술적 한계

이 시기(1951.7.10~12.31)에 유엔공군은 물론이고 공산공군도 전쟁지도부가 추구한 제한전쟁전략으로 인해 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명확한 전술적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제한전쟁전략이 공산공군을 대표하는 소련과 유엔공군을 대표하는 미국이 참전 이후 정전 시까지 변함없이 견지한 전쟁수행전략이었지만, 휴전협상이 시작된 이 시기에는 보다 명확하게 양측의 제한전쟁전략이 전장을 지배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공군의 전술적 한계 역시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물론 작전제한의 강도와 범위는 공산공군이 유엔공군에 비해 강력하고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유엔공군은 이보다는 선택적 범위가 넓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공군작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은 같은 입장이었다.

1). 공산공군의 전술적 한계

공산공군은 이 시기에 중국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유엔공군에 대한 이전의 전력열세를 대부분 만회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요격(공중전)능력 면에서는 유엔공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요격전력인 MiG-15전투기 보유 면에서 보면 소련공군은 참전 이후 줄곧 2개 사단 규모를 유지하다가 1951년 4월 이후 총 3개 사단으로 1개 사단을 추가 배치하였고, 중국도 1951년 9월에 참전한 이후 2~4개 사단 전력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북한 또한 10월에 1개

사단을 창설하여 이에 합세하였다. 이로써 공산공군이 보유한 MiG-15는 약 470여대에 이르렀고, 이에 비해 유엔공군은 MiG-15에 필적할 수 있는 기종인 F-86의 경우, 1951년 6월에는 한국주둔 전력 44대와 일본에 주둔한 전력을 합쳐 총 89대에 불과했으며 12월이 되어서야 165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공군은 이러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가용전력을 6·25 전역(戰役)에서의 제공권 확보라는 공군의 최상위 전술적 목표 달성에 활용하지 않고 미그회랑(MiG Alley)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완벽한 방어제공 임무달성에 모든 전력을 투사하였다. 이는 1950년 10월 10일 중국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에서 스탈린이 명시한 소련공군의 참전임무는 '방어임무에 국한'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일뿐만 아니라, 소련군의 참전 및 미국과의 접전(接戰)이 공식화 되는 것도 회피한다는 스탈린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런 원칙에서 스탈린은 소련공군의 북한 주둔에도 반대했으며, 이에 따라 제64전투비행군단장 역시 중국공군이 참전한 이후인 1951년 10월에 예하부대(작전통제를 받는 중국 및 북한공군 부대 포함)에 내린 지시를 통해 군단의 임무를 유엔공군의 공중정찰과 공격으로부터 북한 주요시설과 중국 동북지역 주요 목표물 방호로 한정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처럼 공세적 전술이 완벽히 배제된 소련공군의 일관된 방어 전략은 소련공군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중국 및 북한공군에게도 적용되어, 공산공군은 요격 성능과 수량 면에서 유엔공군보다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였다. 만약 1951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극동공군 지휘부의 우려대로 공산공군이 한국 또는 일본주둔 공군기지를 폭격하거나 전선에 인접한 유엔지상군에 대한 폭격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면,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탈린의 방어전략 구상은 소련공군과 이의 통제를 받는 중국, 북한공군에 의해 완벽히 구현되었고, 공중전투는 유엔과 공산공군이 상호 암묵적 동의를 한 것처럼 제한구역(미그 회랑)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공산공군의 작전·전술적 제한은 북한 내 비행장건설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는 MiG-15의 작전성능과 당시 공중엄호 부재로 인해 중국

지상군이 처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설명력이 부족하다. “50만에서 100만 명의 중국군병사의 희생은 감내할 수 있지만 신생 중국공군을 북한에서 희생시킬 수 없다.”는 저우언라이의 언급에 반영된 공군의 참전에 대한 중국 수뇌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함께 그들이 ‘유엔공군의 교살작전 타개(반 교살작전)’로 공군 참전 임무를 한정하였음을 감안하면, 중국 또한 입장은 다르지만 스탈린이 제시한 공군의 전술적 제한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산공군에게는 미그회랑 지역 내에서 공격해 오는 유엔군을 맞이하여 전투를 벌이는 방어제공이라는 단일한 전술과 전투 목표만이 허용 되었고, 따라서 공산공군은 전술 공간과 목표, 전술운용의 선택범위가 심각히 제한 당한 상태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공산공군의 이러한 제한적 전술 구사가 유엔공군에게는 여러 가지 작전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유엔공군 또한 이를 적극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2). 유엔공군의 전술적 한계

휴전협상의 시작과 함께 지상에서의 전선이 고착됨으로 인해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작전운용의 융통성을 가진 항공 전력이 공산군 측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되었다. 즉 전선의 제한이 없는 항공 전력은 전선 배후의 공산군 전력을 쉽게 타격할 수 있었고, 대규모의 파괴가 가능한 유일한 군사적 대안이었다. 이에 휴전회담 기간 동안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공군의 가능한 전력을 총 동원하여 적을 타격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것”을 미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군수물자의 집결지인 북한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대량폭격을 통해 공산군 지도부의 전쟁의지를 말살하고, 비행장 건설을 원천 봉쇄하여 항공전력 운용의 근거지를 제거하는데 작전의 목표를 지향하였다. 아울러 공산군의 인원과 물자가 전선지역으로 이동되는 수송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산군이 공세 역량 결집을 저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엔공군의 이러한 작전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유엔공군은

'전쟁이전의 상태 회복'이라는 참전 초기 미국의 제한전쟁전략 하에서 심각한 작전의 제한을 받아왔고, 더욱이 휴전협상이 개시되자 유엔공군의 작전목표는 전쟁의 궁극적 목표인 '적 무력의 소멸을 통한 승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유엔군에게는 '휴전협상의 침체국면 타개' 또는 '적의 공세준비 차단'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한적 범위의 군사작전만이 허용되었고, 이는 유엔공군뿐만 아니라 지상군, 해군의 작전범위를 축소·제한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을 위시한 대도시 폭격은 국제적인 비난 여론으로 인해 비공개적으로 일회성 시위 공격으로 끝났다. 그리고 전선으로의 물자와 인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스트랭글작전은 공산공군의 대응능력 강화 등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효과가 감소되었다. 그나마 비행장 파괴 작전만이 유일하게 작전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공산공군 전력의 북한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유엔공군이 지속적으로 제공권을 확보한 가운데 작전의 융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과 공산공군의 반 교살작전

스트랭글작전은 유엔공군이 1951년 5월말부터 1952년 3월까지 공산 측의 수송망 차단을 위해 유엔공군 전력의 40% 이상을 투입하여 실시한 일련의 항공차단 작전이다. 총 10개월의 작전기간 중 1951년 후반기(7월~12월)의 작전경과는 이 작전이 가진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성과측면에서는 작전초기에 보여준 실질적인 보급물자와 인원의 차단효과였다. 최소한 1951년 10월 이전까지 공산군은 유엔공군의 차단작전으로 전선으로의 보급물자 이동에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이에 중공군 전선지휘관들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겪었던 것과 유사한 극심한 보급품 부족상태를 겪게 되었고, 베이징에 이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국은 철도복구병력 9,0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송 우선순위에서도 탄약·유류·무기 등 장비에 우선하여 피복·식량을 먼저 수송하

였고, 대공포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급기야 전력손실을 우려해 이제껏 참전을 미루어 왔던 중국공군을 동원해 반 교살작전(反 絞殺作戰)수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이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에 대응하여 반 교살작전 수행에 전력을 투입하자, 스트랭글작전은 점차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되었다. 공산공군 MiG기들은 스트랭글작전에 투입된 전폭기들을 집중적으로 요격목표로 삼았고, 이에 따라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 전폭기를 엄호하기 위한 F-86의 증강은 유엔군 측의 매우 긴급한 현안이 되었다. 또한 공산측 수송망 복구 인원들은 반복되는 유엔공군의 공격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내성(耐性)을 키워 신속한 복구능력을 과시하게 되었고, 결국 12월이 되자 제5공군사령부는 공산군 측의 '평양과 간선철도 핵심지역에 대한 봉쇄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스트랭글작전의 실효(失效)를 인정하였다.

스트랭글작전을 전개하면서 유엔공군이 가장 높은 전력할당을 통해 파상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계획단계에서 설정한 '공산측 방어선의 평양-고원선으로의 후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산측의 전면적인 반 교살작전 시행, 공산군 측의 스트랭글작전에 대한 내성 증가 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원인은 유엔공군의 작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공격 목표 설정, 즉 제한된 공격목표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유엔공군의 차단목표는 공산군 수송로상의 철도와 노반, 철교에 집중되었고 차단작전 초기 효과에 의해 수송이 집중된 야간 이동차량에 추가적인 공격이 취해졌다. 이로 인해 차단목표의 근원적인 표적인 대도시의 보급품 생산공장, 병력 대량 집결지 등 물자와 인원의 공급 원천(源泉)에 대한 차단이 이루지지 않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인원과 물자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진입하는 압록강 상의 교량 등 차단목이 공격표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표적만을 공격하는 항공차단작전은 '수원(水源)을 놓아둔 채 물길을 막는 차선의 선택'이었고, 결국 그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4. 한국공군의 개편과 단독출격작전

6·25전쟁이 시작된 당시에 비 전술기 22대로 출발한 한국공군은 1년 정도가 경과한 1951년 10월을 기준으로 F51D 전술기 20대를 비롯한 총 4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공군은 1951년 6월 30일에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들을 사천기지(K-4)로 이동, 집결시킨 다음 8월 1일을 기해 공군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고 있었던 제1전투비행단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비토벌작전과 해주지역 후방차단 작전을 겸해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작전준비태세검열을 받은 결과 단독출격을 승인 받았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1951년 9월 28일 비행단 일부전력을 강릉기지로 전개하여 1차(10.11~11.28)와 2차(12.10~12.30)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한국공군 최초의 단독출격 성공은 한국공군발전사에 한 획을 그은 매우 의미 있는 쾌거로서 이는 그 이후 계속된 전쟁기간 중의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을 비롯한 한국공군이 이룬 빛나는 전투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 유엔과 공산공군 양측은 동원 가능한 전력을 모두 투입하여 유엔공군은 스트랭글작전 등을 통한 공산군 방어선의 후퇴를, 공산공군은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 타파를 위한 반 교살작전이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제한전쟁전략이라는 범주 내에서 작전 및 전술적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집필 : 이근석)

주(註)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3,(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09쪽

2) 국방군사연구소, 『6·25전쟁』(下),(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7), 272쪽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3,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62, 164, 194, 260쪽

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4쪽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36쪽

6) No Kum-Sok &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1996), p. 68~71

7) ibid., p 88

8) ibid., p 97

9) ibid., p. 106

10) ibid., pp 98~100

11) ibid., p..101

12)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 전사 27』,(평양 : 북한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45쪽

13) 앞의 책, 68쪽

14) 국사편찬위원회,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6), 332쪽

15) 위의 책, 317쪽

16) 준비태세는 발진명령하달부터 비행기 출동(이륙)소요시간으로 1호 준비태세는 2-4분, 2호 준비태세는 6~8분, 3호 준비태세는 12~14분임.

17) 앞의 책, 339~340쪽에서 발췌 요약, 이날 전투와 관련 미국 측 사료는 F-86 28대가 70여대로 추정되는 MiG-15기와 신의주 상공에서 교전을 벌여 MiG-15 2대를 격추하고 1대를 손상시켰고 F-86 2대가 대파 되었으나 기지로 귀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10 September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18)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p.130

19) ibid., p. 123

2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 Air Force in Korea1950-1953』, (Washington D.C. :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 Air Force, 1983), p. 403~404

21) Xiaoming Zhang, op.cit., p.131

22) 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24~25 October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23) Xiaoming Zhang, op.cit., p.132

24) ibid., p. 133

25)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 afhra. af. mil/ shared/ media/document/ AFD-090611-098.pdf)

26) Robert F. Futrell, op. cit, p. 410, 411, 413

27) Xiaoming Zhang, op. cit, 133

28) ibid., p. 100

29) 이는 중국공군의 창군과정을 살피면 명확하게 밝혀진다.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 항공국이 설치된 것이 1949.3.17.이며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하 중국공군)이 창설된 것이 1949.11.11이었다. 이때 공군으로 소속이 변경된 인원은 우한(武漢)에 주둔하고 있다가 베이징으로 이동한 류야러우의 중국해방군 부대 인원 2,515명이었고 이들이 중국공군의 근간이 되었다.

30) ibid., p.101

31) 마오안잉의 사망소식은 이날 오후 마오쩌둥과 공산당 중앙위에 보고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마오쩌둥은 아들의 시체를 중국으로 옮겨오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전선지휘의 영속성과 지휘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전선지휘부를 분리 운영하라는 지시를 하였다.(홍인표 譯, 『중국이 본 6·25전쟁』,(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8), p. 154)

32) ibid., p.101

33) ibid., p.114

34) ibid., p.114

35) 이에 대해서 중국 측 자료에는 2월 23일에 저우언라이, 니에룽쩐, 펑더화이가 자하로프에게 요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 제안을 자하로프가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화가 난 펑더화이가 2월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마오쩌둥을 만나 직접 스탈란에게 이 문제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최만원 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서울 : 선인, 2010), 314쪽>

36) Xiaoming Zhang,, op.cit., p.114

37) 이에 대해 중국 측 자료는 2월 25일로 적고 있다.(최만원 역, 앞의 책, 314쪽)

38) 최만원 역, 앞의 책, 314쪽

39)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48쪽

40) 위의 책, 248~249쪽

41) Xiaoming Zhang, op.cit., p.116

42) ibid., p.116, 당시 북한 공군은 신의주에 Yak-9, 30대를 보유한 1개 전투비행연대와 중국 훈춘에 La-9 30대를 보유한 1개 비행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43) 홍인표 역, 『중국이 본 6·25전쟁-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경기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08), 294쪽

44) 위의 책, 295쪽

45) 위의 책, 295쪽

46) Xiaoming Zhang, op.cit., p.117

47) Xiaoming Zhang, op.cit., p.116

48) 1951년 11월 참전 이후 당시 소련공군의 작전 최우선순위는 중국 동북지방의 중국의 주요 군사 및 산업시설과 압록강 연안의 북한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임무였고, 북한 지역에 진입한 중공군의 근접지원문제는 작전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49) Xiaoming Zhang, op.cit., p. 99

5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4쪽

51) Xiaoming Zhang, op.cit., pp. 105~107

52) ibid., p.107, 미 공군 측 자료에 의하면 1951년 1월 21일에는 4차례의 공중전이 전개되었는데 ① 08:51분에 안주 상공에서 적 탱크를 공격하고 있던 F-86기 4대와 8~12대의 MiG-15기와 교전, ② 아침시간대 안주 상공에서 2대의 기종 불명 전투기와 F-80기 4대와의 교전, ③ 아침시간대 신의주 근처 상공에서 RF-80기 한 대를 엄호하고 있던 4대의 F-80기와 12대의 MiG-15기와의 교전, ④ 아침시간대 신의주와 신안주 간 상공에서 16대의 MiG-15기와 12대의 F-84기와의 교전이다. 이중에서 항공기 손실이 발생한 것은 교전 ③과 ④로 교전 ③ 에서는 미군 RF-80기 조종사가 F-80기 한 대가 추락(파손)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교전 ④에서는 MiG-15기 1대가 격추되고 2대가 파손되었고 F-84기한대가 격추되고 1대가 심하게 파손되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22 January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5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2],』,(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313쪽. 이에 관한 미 공군 측 자료에 의하면 1951년 1월 21~27일간 피·아간 공중전은 정주, 신의주, 신안주, 곽산 등 안둥비행장 부근 북한 북서부 상공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전투에서 입은 양측 피해는 공산측이 MiG-15기 6대가 격추되고 6대가 파손되었고 유엔공군은 F -84 1대가 파괴되고 5대가 파손되었으며 F-80기한대가 파손되었다. 1월 28일에는 공중전이 없었고 1월 29일에 곽산 부근에서 F-84기 12대와 MiG-15기 6~8대 간 교전이 있었으나 이날 교전에서의 양측 피해는 없었다. 이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피아간 공중전은 없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21 January~3 February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54) ibid., p.107

55) ibid., p.109

56) 이러한 상호합의는 즉시 이행되지는 않았고 1951년 2/4분기가 되어서야 실행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앞의 책, 313쪽)

57) 앞의 책, 309쪽

58) Xiaoming Zhang, op.cit., p.102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앞의 책, 313쪽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 [3],,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29~130쪽

61) 위의 책, 131쪽

62) 위의 책, 133쪽

63) 중국공군의 9월 제6차 공세 참전 불가 방침은 8월 4일과 5일 저우언라이, 네룽전, 류야러우, 북한 공군사령관 왕련이 주중 소련 군사고문 클라소프스키와 함께 중국, 북한, 소련 공군의 한반도 진입시간과 진입 전 비행장 건설문제를 토의하여 내린 결론으로 비행장 건설이 11월에 가능함으로 중국 공군의 출동과 작전은 11월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마

오쩌뚱에게 보고되었고 이들은 이에 동의하였다.(위의 책, 139쪽)

64) 이와 관련하여 펑더화이는 1951년 10월 24일과 29일에 전문을 중국인민지원군 제대 지휘관들에게 보내 제6차전역의 철회입장을 설명하고 방침을 통보하였다.(위의 책, 142쪽)

65) 펑더화이는 1951년 9월 7일 네룽전에게 보낸 전문에서 "아침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차가운데 병사들은 홑겹의 옷만 입고 있어 최근 환자가 크게 늘고 …<중략>… 물자도 거의 바닥났고 식량도 부족하다. 겨울옷이 어떻게 하면 적시에 보급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 고 전선의 보급부족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3,, 227쪽

66)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의 6·25전쟁』(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4), 57~58쪽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 3,, 233쪽, 이 기간 전투경과에 대한 미군 측 자료는 이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9월 25일에는 F-86 38대와 MiG-15 약 100대가 2차례의 공중전을 벌여 MiiG-15 5대가 격추되고 5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F-86 1대가 대파되었고, 9월 26일에는 F-86 36대, F-84 51대, F-80 16대, Meteor-8 27대가 MiiG -15 총 178대와 5차례의 공중전을 벌여 MiG-15 2대가 격추되고 7대가 손상을 입었고 F-86 1대가 격추되고 Meteor-8 1대가 손상을 입었다. 9월 27일에는 F-86 34대, F-84 24대, F-80 4대가 각기 MiG-15 50대, 20대, 12대와 조우하여 공중전을 펼쳐 MiG-15 2대와 F-86 1대가 손상을 입었다..(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26~28 September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68) 위의 책, 233쪽

69) 위의 책, 233쪽

70) 위의 책, 233~235쪽

71) Xiaoming Zhang, op.cit., p. 149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수 역. 앞의 채. 235쪽

73) 위의 책, 236쪽

74) 中國社會科學出版社,『當代中國空軍』, (북경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145쪽. 리영태는 1928년 길림성 통화현에서 출생한 조선족 출신으로 이후 공중전에 참가하여 F-86 4대를 격추하였고 1982년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부사령관까지 진급하였다.

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앞의 책, 234쪽

76) 위의 책, 235

77)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47쪽

78) 1950년 10월 1일부터 대구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미 제49전폭비행단 소속 F-80기 10대가 전투시작 4개월 만에 일본 다찌가와(立川)기지로 철수하였는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7,500(시간/인)이 필요하였다. 또한 1951년 4월에 이르면 F-80기의 월간 소모량은 18.3대에 이르렀다.

79) F-47(Thunderbolt)기는 F-51과 마찬가지로 프로펠러전투기이나 무장과 추력 등 작전성능 면에서 F-51을 능가하였고 2차대전시 미국의 주력전폭기로 활동하였다. 당시 반덴버그 총장은 F-47이 이미 단종된 구식전투기를 전투에 투입하는 것을 꺼려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80) Robert F. Futrell, op.cit., p. 387

81) ibid., p. 394

82) 이에 대해 미 공군 공사고문은 1951년 8월 "한국에서 이루어진 비행장 공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질과 양적인 면에서 놀랄만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ibid., p.394)

83) 여기에 인용된 유엔공군 비행관련 통계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 afhra. af. mil/ shared/ media/document/ AFD-090611-098.pdf)를 인용한 것이며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주(註)로 처리하였음.

84)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 afhra. af. mil/ shared/ media/document/ AFD-090611-098.pdf)

85) Robert F. Futrell, op. cit, p.402

86)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 afhra. af. mil/ shared/ media/document/ AFD-090611-098.pdf) 여기에 기록된 적기 손실은 유엔공군 조종사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며 완전파괴(destroyed)된 것만 인용하였고 손상(damaged) 된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87) Headquarter US Air Force, "Summary of The Situation in Korea 19 August 1951", RG341 Record of The Headquarter US Air Force, 국립중앙도서관

88) Robert F. Futrell, op. cit, pp. 404~412

89) 이날 공중전에서 미 공군 베커(Richard S. Becker)대위와 깁슨(Ralph D. Gibson)대위가 MiG-15 1대씩을 격추하여 자바라(James Jabara)대위에 이어 각각 2번째, 3번째 제트기 격추 영웅(Jet Air Ace)이 되었다.

90) ibid., p.404, 411

91) 유엔공군 손실은 F-86 7대, B-29 5대, F-84 2대가 공중전 중 격추(총 14대) 되었고 RF-80 1대가 MiG-15 공격에 의해 격추되었으나 정찰기는 교전능력이 없어 공중전 피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92) ibid., p.414

93) ibid., p.433

94)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 afhra. af. mil/ shared/ media/document/ AFD-090611-098.pdf)

95) Robert F. Futrell, op. cit, p. 434

96) 쇼란(Shot-Range Navigation) 유도방식은 미 제5공군에서 B-26 경폭격기의 야간유도를 위해 도입한 항법체계로 AN/APN-3 송수신기를 장착한 폭격기가 지상에 위치한 AN/APN-2 레이더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체계임.

97) 당시 B-29폭격기의 비행장 쇼란 유도공격은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쇼란 유도체계에 대한 B-29 승무원들의 운용능력이 미숙하였다는 점인데, 쇼란 운영체계 자체가 제5공군이 B-26경폭격기와 RB-26 정찰기의 야간유도를 위해 채택했던 장비인데다, 능숙한 폭격을 위해서는 최소 35회의 투하훈련이 필요했으나 B-29기 승무원은 실전 임무 전에 단 8회의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2번째 문제는 북한 비행장의 부정확한 좌표 표시(이들 비행장이 지도에 등재되지 않음)로 인해 탄착 오차범위가 1,220피트나 되어 필요 이상의 폭탄이 소모되었다.

98) 당시 북한 제1비행사단 제2연대 조종사로 근무했던 노금석 상위의 진술에 의하면, 그를 포함한 동료 조종사 8명이 비상대기 1호 임무를 마치고 조종석에서 내려오던 중(10:00경) 2대의 F-86이 갑자기 공격을 가했고 피해는 MiG-15기 1대가 전소되고 2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조종사(정영태 상위) 1명이 전소된 MiG-15기 조종석에서 기총을 맞고 사망하였다.(No Kum-Sok,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 』, (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1996), p.103)

99) Robert F. Futrell, op. cit, p. 440

100) ibid., p.446. 이 현황의 1차 사료는 1951년 12월 28일자 제5공군 정보보고서(FAF INSUM 28 Dec. 1951)이나, 2002년 최신화 된 미공군역사연구소(AFRHA)의 자료에는 적 대공포에 의해 손실된 항공기는 극동공군 전체적으로 8월 23대, 9월 21대, 10월 23대, 11월 11대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1) ibid., pp. 455~456

102)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31

103) 제100공군기지단은 1951년 10월 1일자로 공군 제100기지단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104) 구체적인 조종사 명단은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창군과 6·25전쟁』, (계룡 : 공군본부, 2010) 226쪽을 참고할 것.

105)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창군과 6·25전쟁』, 231쪽

106) 라그로(Lewis Lagro) 중위는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조종사로서 1951년 7월 30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국공군 조종사 비행훈련계획의 책임자로서 한국공군조종사의 각종 임무 출격 시 동반 출격하였다.(공군본부, 『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 1집』, (계룡 : 공군본부, 2010), 52쪽

107)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창군과 6·25전쟁 』, 2010, 239쪽

108) 위의 책, 242쪽

109) 위의 책, 237쪽

1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6권』, (서울 : 국방부, 1973), 726쪽

1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183~185쪽

112) 공군본부, 앞의 책, 283~284쪽. 이 시기 공식문서로 하달되는 작전명령은 전장의 급박성으로 인해 구두로 지시 이후 하달되는 사례가 많았음.

113) 이 명령은 공군본부 작명 제40호(1951.12.26.)로 정식으로 문서로 하달되었고, 이 또한 공본 작명 제39호와 마찬가지로 지연 하달되었다.(위의 책, 284쪽)

114) 위의 책, 284쪽

115) 위의 책, 256쪽

116) 위의 책, 266

117) 위의 책, 268쪽



제 9 장 총 평

제 1 절	전쟁지도
제 2 절	작전 및 전술
제 3 절	휴전회담
제 4 절	결론

제 1 절 전쟁지도

1. 북한과 소련 · 중국의 전쟁지도

휴전회담 기간 중 공산군의 전쟁목표는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휴전'이었고 전략목표는 휴전회담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휴전회담을 이용하여 '그들의 손실된 공세역량회복을 통한 군사력우위의 확보'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부는 이에 중점을 두고 전쟁지도를 실시하였다.

공산군 측의 전쟁지도부는 소련의 스탈린을 정점으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이 그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전쟁지도부의 전략지침을 받아 1950년 12월 초에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가 한반도에서의 작전전반을 통제하며 지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전반적인 지도는 전쟁기간 내내 소련의 스탈린이 마오쩌둥 및 김일성과 협의를 한 후 상황에 따른 전략지침을 내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휴전회담 기간 중에도 이러한 전쟁지도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전쟁의 주요 국면별 사안에 따라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에게 직접 전문을 보내 전쟁을 직접 지도하거나, 북한과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대사 및 소련고문단장 편으로 전쟁수행에 대한 전략지침을 하달하는 간접지도 방식도 사용하였다. 이때 스탈린은 그들에게 전문을 발송할 때 그의 실명(實名) 대신 필리포프라는 암호명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마오쩌둥도 휴전회담 기간 중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한 리커눙(李克農)을 북한으로 파견하여 휴전회담을 현지에서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휴전회담을 전후한 공산군의 전쟁수행체계를 보면 소련의 스탈린이 전쟁의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면서도 겉으로는 자문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스탈린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가며 이를 실질적으

로 관장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특히 휴전회담 기간 중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정기적으로 회담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주요 문제에 관해서는 스탈린의 조언과 충고를 구하였다. 이때 스탈린은 통상 마오쩌둥의 견해에 찬동하였다.

휴전협상 진행과정에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뿐이었고 마오쩌둥은 휴전협상에 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스탈린에게 전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보고 이외에도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예프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전협상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시를 내리곤 하였다. 또한 마오쩌둥도 주요 사안마다 스탈린에게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스탈린은 해당 사안에 대한 답을 직접 또는 해당국 주재 소련대사 및 소련군사고문단장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김일성은 주로 마오쩌둥과 휴전회담 관련 상황을 협의하였고 마오쩌둥은 이를 다시 원문 그대로 스탈린에게 보고하면, 스탈린은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을 통해 발송하였다.

2. 미국과 유엔의 전쟁지도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 및 미국의 전쟁목표는 '명예로운 휴전'이었다. 휴전회담 기간 중에도 유엔과 미국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전쟁목표는 미국의 NSC 48/5 문서에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있었다. 하나는 당장 처리해야 될 현실적인 '당면목표(a current objective)'로서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먼저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유엔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최종목표(an ultimate objective)'로서 '통일·독립·민주 한국(a unit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의 건설이었다. 이는 1947년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미국과 유엔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달성

해야 할 최종목표이었다.

하지만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과 미국은 장기목표 보다는 당장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킬 당면목표, 즉 휴전정책의 실현에 주력하였다. 미국은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엔의 수락과 유엔 기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미국이 수립한 휴전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둘째, 38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 통치권을 수립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군을 단계별로 철수하게 한다. 넷째,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건설을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거나, 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미국은 침략자에 대한 징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휴전회담에서 토의 주제는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영토적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문제를 해결할 당면목표로서 휴전협정 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휴전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휴전정책이 담고 있는 원칙과 조건에 따라 공산군 측과 휴전회담을 추진하였다.

유엔군측이 설정한 이들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 및 미국의 전쟁지도부의 정점에는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와 미국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있었다. 특히 미국 전쟁지도부의 정점에 위치한 트루먼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자문하는 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였다. NSC는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최고의 안보자문기구이다. 이러한 NSC는 의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통령(부의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가안보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정식위원으로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보국장과 합동참모의장은 고문 겸 옵서버로 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을 하였다. 또한 육·해·공군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도 전쟁의 주요 국면별 사안에 따라 옵서버로 참가하여 자군(自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미국을 포함

한 범세계적 안보에 관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책을 건의하여 결심을 받아 이를 미국의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국가정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을 마련하며 전쟁을 지도해 나갔다. 이에 따라 그는 6·25전쟁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3.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의 전쟁 및 군사지도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부통령 김성수, 국방부장관 이기붕, 국방부차관 김일환, 육군총참모장 이종찬 소장,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소장,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소장으로 구성되었다.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의 전쟁목표는 '북진통일에 의한 통일한국'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초기부터 38도선 폐지와 압록강·두만강으로의 진격을 외치며 통일한국을 추구하였다. 이는 다시는 국토가 분단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의 전쟁지도부는 일관되게 위와 같은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정부는 북진에 의한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며 휴전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한국국회는 중공군의 침략행위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의 완전한 자주통일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휴전에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38도선 휴전반대 국민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국민들은 "공산침략자들에게 재침의 시간과 기회를 주려는 휴전에 결사반대한다."며 절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6월 8일 38도선에서의 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휴전반대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휴전회담은 한국정부 및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시화되어 가고 있었다.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가 휴전제의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주시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휴전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휴전안 반대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성명서에서 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한국 국민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게 되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향후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통일 없는 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나아가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자유진영의 국가와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책략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국회도 6월 29일에 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국회도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도 '중공군 철수'와 '북한군 무장해제' 등을 휴전조건으로 내걸며 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트루먼 대통령에게 휴전회담을 반대하는 전문을 발송하며 '휴전불가'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하지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간의 휴전회담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엔군은 휴전반대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설득하려고 찾아 온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 국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38도선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한국이 원치 않는 휴전회담 개시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 2 절 작전 및 전술

1. 공산군의 작전지도

휴전회담 기간 중 공산군 측의 작전지도 및 책임은 조중연합사령부에 있었다.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서 한국전에서 중국 마오쩌둥의 전략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부사령관에는 중공인민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와 북한군 전선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김웅(金雄)이 있었다.

또한 중공군 수뇌부로는 부사령관 겸 후방근무사령관 홍쉐즈(洪學智), 부사령관 겸 제9병단사령관 쑹스룬(宋時輪), 부사령관 겸 제3병단사령관 천경(陳慶), 부사령관 한셴추(韓先楚), 공군사령관 류전(劉震), 철도운수사령관 하진넌(賀晋年), 참모장 셰팡(解方), 제19병단사령관 양더즈(楊得志), 제20병단사령관 양성무(楊成武), 제23병단사령관 동기무(董其武) 등이 있었다. 북한군 수뇌부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 총참모장 남일(南日)이 있었다. 이때 김일성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계선 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산군 측의 작전지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휴전회담 준비 및 진행 기간 중 공산군 측의 전략지침은 세 가지이다. 첫째,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전선을 강화하여 유엔군의 공세를 차단한다. 둘째, 유엔군의 북한지역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에 대비한다. 셋째, 유엔군에 비해 낙후된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군전력을 증강하고 지상군 전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휴전회담을 전후한 공산군 측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를 통한 지구전과 춘계공세에서 입은 전력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공세역량만회에 전략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서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 임하였고 작전을 지도하여 나

갔다. 마오쩌둥은 6월 중순에 향후 작전과 관련하여 “지구작전(持久作戰)과 평화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쟁지도방침을 결정하면서 이를 수행할 군사전략으로 지구작전과 적극방어를 확정지었다.

공산군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휴전회담으로 인한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방어선을 3중으로 편성하고, 유엔군의 항공폭격이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유개화(有蓋化) 또는 엄체화(掩體化) 진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산군은 야포와 고사포 등의 화기와 장비를 전방으로 추진하는데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항공기가 2개월 내에 지원될 것을 고려하여 9월에 공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전력의 정비와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공산군은 부대를 전·후방 및 전략예비로 편성하면서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서부 및 중부지역에는 주로 중공군을 배치하였고,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중동부 및 동해안 전선의 산악지역에는 북한군을 배치하여 전력의 대칭화(對稱化)를 이루게 하였다.

특히 공산군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북한지역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회담이 열리는 개성지역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에서 각각 1개 사단씩을 차출하여 총 2개 사단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상 전력의 강화를 위해 소련에 60개 사단 분의 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중공군의 군급 이상 지휘부에 소련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공산군은 개전이후부터 지속된 공군전력의 열세를 소련으로부터의 전투기 도입과 조종사 훈련을 통해 만회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공산군 측은 처음부터 휴전회담의 조기 타결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숨은 의도는 휴전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춘계공세에서 입은 전력의 손실을 신속히 보충하고 나아가 공세역량을 축적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공산군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군사적 대공세를 취하거나, 휴전회담장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휴전회담은 공산군 측에게 전력의 복구와 지구전을 통해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방편일 뿐 협상의 조

기타결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휴전회담은 시작부터 지연된 반면 공산군의 전력은 점차 강화되었다.

2.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지도

한국에서의 한국군 및 유엔군의 작전은 유엔군사령부가 지도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쟁정책에 기초한 전략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전구사령부 역할을 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지상 작전은 미 제8군사령관을 통해, 해군작전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을 통해, 그리고 공군작전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을 통해 작전을 지도하였다.

1951년 7월 휴전회담 개시부터 12월 말까지 유엔군사령관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이었고, 미 제8군사령관은 밴플리트 대장(James A. Van Fleet, 1951. 8. 1. 육군대장 진급)이었다.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전쟁초기부터 있었던 조이(Charles Turner Joy) 중장으로 그는 휴전회담 때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로 활약하였다.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1951년 6월 10일 취임한 웨이랜드(Otto P. Weyland) 중장이었다. 또한 한국 육군총참모장은 이종찬 소장, 해군총참모장은 손원일 소장, 공군총참모장은 김정렬 소장이었다.

한편 미 제8군사령부와 한국 육군의 지휘체계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육군본부는 1951년 중공군 5월 공세 이전까지는 미 제8군사령부를 통해 한국군 군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직접 행사하였으나, 제3군단의 현리전투 실패로 인해 한국의 육군본부는 미 제8군의 작전지휘 계선 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현리전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51년 5월 25일을 기해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하고 배속된 국군 사단들을 국군 제1군단 및 미군 군단에 배속시켰다. 또한 전방의 국군 군단 및 사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육군본부의 전방지휘소도 폐지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의 육군본부는 작전에서 완전히 배

제된 채 인사·군수·훈련 임무만 수행하게 되었고, 미 제8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직접행사하게 되었다.

휴전회담을 전후하여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이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전략지시는 휴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이 통치하게 될 38도선 이남지역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캔자스-와이오밍 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제한하였다. 아울러 휴전 이후를 고려하여 북한군의 침략에 맞설 한국군의 건설을 지시하였다. 특히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군의 작전목표도 휴전회담의 타결을 지원하고, 유엔군의 방어선을 개선하며, 공산군의 공세역량을 저지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군의 군사작전도 이러한 제한전쟁에 따라 제한된 목표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전선에서 유엔군의 지상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도 이러한 제한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밴플리트 장군도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플리트 장군은 보다 야심찬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9월 1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된 '제압작전계획(Plan Overwhelming)'이었다. 이 계획은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을 섬멸하고, 평양-원산선까지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리지웨이 장군이 "휴전회담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대규모 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유엔군의 지상에서의 대규모 공격작전은 휴전회담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캔자스-와이오밍 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중동부 전선에서 남쪽으로 쳐진 전선의 만곡부를 없애 전선을 정리하고, 서부전선의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중공격을 달랐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미 제8군의 지상에서의

제한목표에 대한 공격작전과 달리 유엔공군을 이용하여 적 후방지역에 대한 차단작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휴전회담이 개시된 직후 공산군이 휴전회담의 개최로 전선이 소강된 틈을 이용하여 보급품과 장비를 전선지역으로 추진,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유엔군 측이 내린 조치였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전선으로 연결된 북한 내의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여 휴전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 후방차단작전은 스트랭글(Strangle) 작전으로 명명되어 1951년 8월 18일에 개시되었다. 후방차단작전은 미 제5공군이 미 극동해군과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작전은 유엔군이 어느 정도 공산군의 보급수송을 차단 또는 지연시켰으나 공산군 측을 휴전협정에 끌어들이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한국군 간부의 질적 향상과 부대훈련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유엔군의 지상 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이를 위해 7월 16일 육군총참모장 이종찬 소장을 만나 국군의 교육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때 그는 한국군 장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50명의 장교를 미국 보병학교(Fort Benning)와 포병학교(Fort Sill)에 유학보내기로 이종찬 총참모장과 합의하였다. 또한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군 훈련소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훈련소를 방문하는 등 신병 훈련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신병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1주간의 야영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밴플리트 장군은 전방사단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집중강화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7월 하순에 미 제9군단에 야전훈련소(Field Training Center)를 설치한데 이어 각 군단에도 야전훈련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미 제9군단 부군단장인 그로스(Thomas J. Gross) 준장을 야전훈련소(FTC) 소장에 임명하고 한국군 부대훈련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방의 한국군 사단은 군단예비로 전환될 때 야전훈련소에 전 장병이 입소하여 9주간에 걸쳐 집중훈련을 받았다. 이때 한국군

은 개인훈련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대훈련까지 실시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의 이러한 한국군 강화 및 간부 능력 향상 노력은 유엔군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특히 야전훈련소(FTC)에서 사단별 집중강화훈련을 마친 한국군 부대들은 휴전회담 기간 중 제한목표 공격작전에 투입되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3. 전선지역의 고지쟁탈전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쌍방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유엔군은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공산군 측에게 휴전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진지를 공격하는 등의 군사력 과시를 통해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회담 개최를 위한 성의표시로 1951년 7월 1일에 유엔군 각 부대에게 현 지점에서 더 이상의 공격을 중지하고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국군은 공산군이 전력을 상실한 이때에 북으로 진격할 수 있었음에도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군은 휴전회담 중에도 재정비를 하면서 공격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또한 공산군은 아군의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어 전황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함으로써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공산군이 각 전선에서 고지탈환을 위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진출을 저지하는 수준의 방어전투만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양측 간에 전선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전선에서는 포성과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휴전회담 기간인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엔군이 실시한 지상 작

전은 하계작전·추계작전·동계작전으로 구분된다. 하계작전은 미 제10군단이 해안분지(펀치볼) 북동쪽 노전평으로부터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을 연하는 선에서 실시한 작전으로 공산군이 이 공세에 굴복함으로 인해 10월 25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추계작전은 1951년 10월 초순에 시작되어 10월 하순까지 실시된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동해안의 한국군 제1군단은 북한 제6군단을 공략하여 남강 이남의 전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미 제10군단은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을 탈취하였으며, 미 제9군단은 금성분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도 코만도 작전을 전개하여 제임스타운(Jamestown) 선까지 도약하게 되었다. 동계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11월 초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실시한 작전이다. 이 기간 중에 전개된 월비산 전투와 949고지 전투는 유엔군 측의 공격이 공산군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친 전투였으며, 281·395고지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및 두메리 부근 전투는 모두 고지를 확보하려는 쌍방간의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이처럼 휴전회담 기간 중의 전투는 주로 전선의 만곡부(彎曲部)를 없애는 전선정리와 휴전이후 방어에 유리한 지형 확보, 그리고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1951년 말까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에 치열한 고지쟁탈전과 진지전이 계속되었으나 전 전선에 걸친 대규모 공세는 전개되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휴전을 염두고 두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될 무모한 공격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만 휴전회담에서 상대방을 위압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편 공산군은 전선이 교착되자 중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동굴로 연결시킨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들 동굴방어진지는 유엔군의 항공폭격과 지상포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구축되었고, 휴전 시까지 진행된 쌍방 간의 전투에서 공산군 측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휴전회담이 개시된 1951년 7월 10일 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에는 한편에서 휴전을 논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휴전회담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양측이 혈투(血鬪)를 벌이는 양상이 매일같이 전개되었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정전협정 조인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양측이 군사적으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술적으로 유리한 하나의 고지 때문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모두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초래되었다.

4.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

1951년 말을 전후로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는 무장공비들이 유엔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 시설 등을 위협하며 아군의 작전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국회에서 공비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후방치안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에게 공비토벌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는 대규모 공비토벌작전이 군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호남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4,000여 명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들 공비들이 소속된 핵심부대는 제81사단·제92사단, 경남도당 사단인 제57사단, 그리고 전북도당 사단이었다. 이들은 주로 여순반란 사건을 주도한 국군 제14연대 반란군 출신의 생존자와 인천상륙작전 이후 38도선 이북으로 탈출하지 못한 북한 정규군의 낙오병들로 이루어졌다.

이들 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무장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인근 소도시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촌락을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거나 주민을 납치하는 등의 만행을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군 작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도파괴, 군용

열차 습격과 함께 무기 및 보급품 등을 약탈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육군본부는 이들 공비들을 섬멸하기 위해 전방에서 2개 사단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위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정부는 사전에 이와 관련한 상황판단과 합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동계기간 아군이 공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전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선에서 2개 사단의 차출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산속에 거점을 둔 공비토벌에 가장 유리한 시기는 낙엽이 진 기간이다. 셋째, 국군의 재편성과 함께 이들이 후방지역작전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게 하는 것은 유엔군 측의 차후 작전 수행에 바람직할 것이다.

그 결과 1951년 11월 25일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게 될 백야전전투사령부(白野戰戰鬪司令部, 이하 백야사로 통일)가 설치되었고, 사령관에 백선엽 육군소장이 임명되었다. 백야사에는 수도사단, 제8사단, 서남지구전투사령부, 경찰부대가 배속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12월 1일부로 서남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또한 적과의 내통을 막기 위해 작전지역 내의 민간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마을 간의 전화교신을 차단하였다.

백야사의 공비토벌작전은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이때부터 다음해인 1952년 4월 14일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제1단계 작전은 12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작전기간 중 백야사는 지리산을 봉쇄하여 공비 1,612명을 사살하고, 1,842명을 포로로 잡았다. 백야사는 계속해서 12월 14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제2단계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2월 말까지 공비 4천여 명을 사살하고, 4천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작전을 통해 정부는 후방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군은 병참선에 대한 안전을 기하게 되었다. 이후 후방지역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는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1952년 4월까지 계속된 제3, 4단계 작전으로 대부분의 무장공비가 소탕되었다. 이는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정부가 거둔 최대의 성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5. 해군 작전

휴전회담 기간 중 유엔해군이 설정한 작전목표는 바다에서의 지속적인 함포지원 사격으로 공산군 병력의 분산을 강요하고, 지상군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엔해군은 함포지원사격을 비롯하여 원산항 포위작전, 항공차단작전, 소해작전, 한강주변 시위 작전 등을 실시하였다. 이때 한국해군은 동·서·남해 경비작전, 황해도 송화지구 전투, PF-62함의 신미도 전투 등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유엔해군은 해상봉쇄작전의 일환으로 원산항 포위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원산항내의 주요 전략도서를 거점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동해안의 최대항구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원산항을 해상에서 공략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유엔해군은 북한군의 원산항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해상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후방지역을 교란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의 병력과 장비를 비롯한 주요 전력을 분산 배치하도록 강요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엔해군은 공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엔군이 실시한 항공차단작전의 목적은 공산군의 보급체계를 와해시키는데 있었다. 이는 1951년 5월 하순에 제안되어 6월 5일부터 11월 20일가지 실시된 작전으로 일명 “교살작전 또는 질식작전”으로 불렀다. 유엔군은 공산군과의 접촉선 이북의 후방지역을 3곳으로 구분하여 미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병대 항공대에 지역을 할당, 각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작전기간 중 미 해군과 공군은 합동으로 나진 인근의 철도망과 도로망을 공습하는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셋째, 휴전회담 기간 중에도 공산군은 유엔군의 상륙공격에 대비하여 해안방어부대와 장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항만과 연안에 기뢰를 재 부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엔해군은 해상에서의 기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뢰제거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공산군의 기뢰부설로 유엔 및 한국해군 함정이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해군은 새로운

관점에서 적극적인 소해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해상작전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넷째, 유엔해군은 한강 하구에서 해상시위 작전을 실시하여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유엔해군은 공산군 측이 휴전회담에서 서부전선의 38도선 이남과 임진강 서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상시위'라는 특수작전을 한강 인접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서울로 가는 해상접근로의 확보가 전후 수도권 방어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유엔군이 이곳을 결코 공산군에게 넘기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전개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1951년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1월 27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작전으로 휴전회담에서 임진강 서쪽지역은 유엔군 측 점령 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었다.

다섯째, 휴전회담 기간 중 한국해군은 부대증편을 단행하면서 공세적인 해군작전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대의 증편 및 개편으로 한국해군은 1950년 8월 16일 제1정대를 제1함대로 개편하였다. 이후 제1함대는 보다 체계적인 작전과 종합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1952년 1월 5일에 부대를 증편하여 예하에 호송·서해·동해·남해·수송·소해대 및 PT편대 등 7개 전·편대를 두게되었다. 한편 한국해군은 동해·서해·남해안에서 체계적인 작전을 실시하여 북한지역의 해안선 일대에 구축된 공산군의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공산군의 기뢰부설을 저지하였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아군 유격대의 상륙기습 활동을 지원하여 공산군의 배후를 교란하였다. 또한 한국해군은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지상전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해군은 동·서·남해에서의 경비작전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승리 및 휴전회담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다. 먼저 동해안에서 1951년 10월부터 1952년 2월까지 일명 '28작전'을 실시하였다. 한국해군은 강력한 제해권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된 이 작전을 통해 11월 29일 원산항 앞바다에 있는 황토도에 기습한 북한군을 격파하였으며, PF-65함, PC-703함, YMS-518정이 북한군이 구축한 원산 해안방어진지의 각종 방어시설을 대상으로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무력화시키는

등의 전과를 획득하였다. 서해안에서는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 '탁수작전'을 실시하여, 황해도지역 인근연안을 봉쇄하고 유엔군 측 유격대에 대한 지원작전을 수행하였다. 남해안에서도 1951년 10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실시된 '목항작전'을 통해 이 지역에 출몰하는 밀수선박을 단속하고, 나포하는 등 적극적인 해상작전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한국해군은 초도에 주둔하고 있던 수월부대가 황해도 송화군에 상륙하여 기습공격을 실시했던 송화(松禾)지구 전투를 통해 적의 후방을 교란할 수 있었다. 이 전투는 송화군에 배치된 공산군의 병력이 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초도와 석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해군 통제하에 있던 유격부대가 실시한 작전이었다. 이 외에도 한국해군은 추락한 MIG기 동체 확인을 위해 평안북도 서해안에 위치한 신미도로 출동하였던 PF-62함이 공산군 YAK기 4대와 교전을 벌인 결과 이 중에서 1대를 격추하고 1대에 손상을 입히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휴전회담이 개시된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 그들의 우세한 전력을 이용한 강력한 해상봉쇄작전과 항공차단, 한강주변 시위 작전, 후방시설에 대한 함포지원사격 등을 통해 유엔군 측이 목표로 설정한 지상작전 및 휴전회담장에서의 유리한 국면 조성에 기여하였다.

6. 공군 작전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협상이 개시된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에 양측이 전개한 공군작전이 갖는 특징과 의미는 크게 공산권 3개국의 연합공군세력 형성 및 작전활동, 유엔군과 공산군의 한정된 전쟁목표로 인한 공군작전의 한계 노출, 유엔공군이 전개한 스트랭글작전과 공산공군의 반 교살작전에 대한 평가, 한국공군의 전력 증강 및 단독 출격작전이 갖는 의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공군은 1951년 9월 말에 중국인민지원군공군(이하 '중국공군')이 MiG-15기를 보유한 2개 비행사단을 안둥기지로 전개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북한공군이 MiG-15기를 보유한 제1전투비행사단을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유엔공군기에 대한 요격작전에 참가함으로써 이미 북한 서북부 청천강 이북 상공에서 유엔공군과 격돌하고 있던 소련공군의 3개 비행사단 및 1개 비행연대와 더불어 3개 공산국가의 연합공군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때 연합공군의 지휘체계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이 새로이 참전한 중국공군과 북한공군을 작전통제하면서 공산공군의 작전전반을 지도하였고 중국 및 북한공군은 소련공군의 주도적인 작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북한공군의 전력회복과 중국공군의 새로운 참전 그리고 소련공군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공산권의 연합공군작전세력 형성 및 작전활동은 그동안 유엔공군이 장악해 왔던 공중우세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유엔공군이 가용전력의 대부분을 투입하여 전개한 스트랭글작전에 대해 반 교살작전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엔공군의 작전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양측의 제한전쟁전략에 따른 공군작전의 전술적한계이다. 이 시기(1951.7.10~12.31)에 유엔공군은 물론이고 공산공군도 전쟁지도부가 추구한 제한전쟁전략으로 인해 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명확한 전술적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제한전쟁전략이 공산공군을 대표하는 소련과 유엔공군을 대표하는 미국이 참전 이후 정전 시까지 변함없이 견지한 전쟁수행전략이었지만, 휴전협상이 시작된 이 시기에는 보다 명확하게 양측의 제한전쟁전략이 전장을 지배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공군의 전술적 한계 역시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물론 작전제한의 강도와 범위는 공산공군이 유엔공군에 비해 강력하고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유엔공군은 이보다는 선택적 범위가 넓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공군작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은 같은 입장이었다.

셋째, 이 기간 중 양측은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과 이에 대응한 공산공군의 반 교살작전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스트랭글작전은 유엔공군이 1951년 5월말부터 1952년 3월까지 공산군의 수송망 차단을 위해 유엔공군 전력의 40% 이상을

투입하여 실시한 일련의 항공차단작전이다. 총 10개월의 작전기간 중 1951년 후반기(7월~12월)의 작전경과는 이 작전이 가진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성과측면에서는 작전초기에 보여준 실질적인 보급과 인원의 차단효과였다. 최소한 1951년 10월 이전까지 공산군은 유엔공군의 차단작전으로 전선으로의 보급물자 이동에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이에 중공군 전선지휘관들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겪었던 것과 유사한 극심한 보급품 부족상태를 겪게 되었고, 베이징에 이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철도복구병력 9,0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송 우선순위에서도 탄약·유류·무기 등 장비에 우선하여 피복·식량을 먼저 수송하였고, 대공포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급기야 전력손실을 우려해 이제껏 참전을 미루어 왔던 중국공군을 동원해 반 교살작전(反 絞殺作戰)수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중국이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에 대응하여 반 교살작전 수행에 전력을 투입하자, 스트랭글작전은 점차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되었다. 공산공군 MIG기들은 스트랭글작전에 투입된 전폭기들을 집중적으로 요격목표로 삼았고, 이에 따라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이들 전폭기를 엄호하기 위한 F-86의 증강은 유엔군 측의 매우 긴급한 현안이 되었다. 또한 공산측 수송망 복구 인원들은 반복되는 유엔공군의 공격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내성(耐性)을 키워 신속한 복구능력을 과시하게 되었고, 결국 12월이 되자 제5공군사령부는 공산군 측의 '평양과 간선철도 핵심지역에 대한 봉쇄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스트랭글작전의 실효(失效)를 인정하였다. 스트랭글작전을 전개하면서 유엔공군이 가장 높은 전력할당을 통해 파상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계획단계에서 설정한 '공산측 방어선의 평양-고원선으로의 후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산군측의 전면적인 반 교살작전 시행과 스트랭글 작전에 대한 내성 증가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원인은 유엔공군의 작전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항공목표 설정, 즉 제한된 항공목표 공격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유엔공군의 차단목표는 공산군 수송로상의 철도와 노반, 철교에 집중되었고 차단작전 초기 효과에 의해 수송이 집중된 야간 이동차량에 추가적인 공격이 취해졌

다. 이로 인해 차단목표의 근원적인 표적인 대도시의 보급품 생산공장, 병력 대량 집결지 등 물자와 인원의 공급 원천(源泉)에 대한 차단이 이루지지 않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인원과 물자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진입하는 압록강 상의 교량 등 차단목이 공격표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표적만을 공격하는 항공차단 작전은 '수원(水源)을 놓아둔 채 물길을 막는 차선의 선택'이었고, 결국 그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한국공군의 개편과 단독출격이 갖는 의미이다. 한국공군은 1951년 6월 30일에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들을 사천기지(K-4)로 이동, 집결시킨 다음 8월 1일을 기해 공군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작전준비태세검열을 받은 결과 단독출격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1951년 9월 28일 비행단 일부전력을 강릉기지로 전개하여 1차(10.11~11.28)와 2차(12.10~12.30)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한국공군 최초의 단독출격 성공은 한국공군발전사에 한 획을 그은 매우 의미 있는 쾌거로서 이는 그 이후 계속된 전쟁기간 중의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을 비롯한 한국공군이 이룬 빛나는 전투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 유엔과 공산공군 양측은 동원 가능한 전력을 모두 투입하여 유엔공군은 스트랭글작전 등을 통한 공산군 방어선의 후퇴를, 공산공군은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 타파를 위한 반 교살작전이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제한전쟁전략이라는 범주 내에서 작전 및 전술적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제 3 절 휴전회담

1. 양측의 휴전회담 전략

1)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전략

공산군 측은 스탈린이 휴전회담 전반을 조정·통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마오쩌둥이 회담을 주도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스탈린은 남침전쟁 계획을 주도하고 전쟁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전회담 전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나갔다. 스탈린은 휴전회담에 임하면서도 휴전회담장소로부터 회담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 전략방침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공산군 측이 전략방침으로 내세운 것으로는 전투행위와 사격중지 시간, 양측 군대의 38도선을 중심으로 5-10km이상 철수, 사격중지와 38도선에서의 항공기 비행중지, 해군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2개월에 걸친 외국군 철수, 전쟁포로 교환 및 피랍된 시민 귀환 등이었다. 이것을 뒤에서 조종·통합한 것은 역시 스탈린이었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 임하는 전략방침을 결정한 후에는 서두르지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여기에는 휴전회담 장소를 비롯하여 군사분계선 설정에서 유엔군에게 유리한 제공권과 제해권을 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산군은 전략적 이익을 챙기면서 전술적으로는 양보하는 휴전회담 전략을 채택하였다.

2)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 전략

휴전에 대한 유엔의 입장은 유엔사무총장의 1951년 6월 1일 발언에서 읽을 수

있다.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6월 1일 성명에서 “대략 38도선에 연한 휴전은 만일 그것이 그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과 7월의 결의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한 유엔대사들도 모두 휴전회담에 찬성하였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유엔의 분위기와 소련의 의도를 고려하여 군사적 수준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에 대한 일반지침으로 “휴전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관심은 한국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 확보에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 장군에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은 대단히 어려움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 마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담을 파기해서는 안 되며, 유엔군사령부의 신의를 의문시하게 되는 국제적 여론을 유발할 어떤 속임수를 쓰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아울러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관철해야 할 기본입장(최저 양보선)과 주장해야 할 세부지침을 하달하였다. 이것은 유엔군 측이 따라야 할 협상 기본방침이자 휴전회담 전략이었다. 기본 요지는 이 회담은 순수하게 한국과 한국내의 군사문제로 제한하고 정치나 영토적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옹진반도와 연안지역이 휴전목적이라면 공산군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전쟁 이전 현상에서 평화를 회복할 경우, 군사상 이 지역이 방어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취약하여 방어선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군 측은 서부전선에서의 영토의 손실을 동부전선에서 보상할 만큼 북상해 있었고, 휴전 시 경계선은 38도선이 아니라 양측의 접촉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2. 양측의 휴전협상 지도체계와 특징

1) 공산군 측 휴전회담 지도체계와 대표단 구성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지도체계의 최상층부에는 스탈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스탈린은 휴전회담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공산권의 이익을 고려하며 휴전회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스탈린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철저히 마오쩌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의견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개진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받는 정도였다. 따라서 공산군 측 휴전회담의 지도체계는 스탈린-마오쩌둥(때때로 김일성 의견 반영)-리커눙(李克農)-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여기서 중국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제외되었다. 그는 필요시 휴전회담에 대한 의견만을 개진하였다.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위해 휴전회담장이 있는 개성에 전방지휘부를 설치하여 휴전회담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나갔다. 이를 위해 마오쩌둥은 자신의 휴전회담 전략을 충실히 수행할 협상전문가를 전방지휘부로 파견하여 운용하였다. 마오쩌둥은 협상전문가인 외교부 부부장 리커눙(李克農)과 그의 보좌관인 치관화(喬冠華)를 북한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실무진도 함께 파견하였는데, 이들로는 하버드(Harvard)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푸산(浦山),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사의 딩밍(丁明)과 선지앤투(沈建圖)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선 상황과 휴전회담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급장교가 이들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1951년 7월 6일 북한으로 들어왔다.

휴전회담 기간 중 마오쩌둥은 공산군 측의 협상원칙이나 기준, 상위의 전략문제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탈린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고 시행

하였다. 휴전회담 진행 과정에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그 내용을 스탈린에게 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마오쩌둥에게 있었다.

이처럼 공산군 측 휴전회담 지도체계는 스탈린-마오쩌둥-리커눙-휴전회담 대표로 연결되었으나 마오쩌둥이 마련한 지도체계의 상층부에는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있었고, 스탈린과 펑더화이는 자문역이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김일성과 협의는 하였지만 휴전회담의 지도체계의 중요한 연결 고리는 마오쩌둥과 리커눙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었다. 따라서 공산군 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북한의 남일(南日)이나 김일성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2) 유엔군 측 휴전회담 지도체계와 대표단 구성

유엔군 측의 휴전협상 지도체계는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 즉, 미국 대통령-국무부 및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관-휴전회담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는 단일 지도체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미 제8군사령관은 완전히 제외되었다. 특히 지도체계에 포함된 유엔군사령관도 비록 휴전회담의 '지도라인(directive line)'에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휴전회담 전략 및 정책 수립단계에서 제외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은 워싱턴의 대변자 또는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자 또는 자문 역할이었다.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회담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군사문제에 관하여 미 합동참모본부로 보낼 건의사항과 유엔군 측 대표단에 대한 지시와 훈령의 전달을 위하여 실제적 준비와 지원을 책임지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 중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이것이 전부였다. 이를 위해 그는 문산(汶山)에 유엔군 측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이곳을 방문하거나 도쿄(東京)의 유엔군사령부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조이(C. Turner Joy) 제독과 무전으로 휴전회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엔군 측 문산 기지에는 유엔군사령부 및 워싱턴의 휴전회담을 위한

전방지휘소장 격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운용단(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단장인 라이트(Edwin K. Wright) 육군준장이 상주하며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엔군 측 휴전회담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워싱턴의 중앙통제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워싱턴에서는 휴전회담의 기본방침부터 세부적인 지침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고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 휴전회담은 미국 주도하에 한국과 유엔 참전 16개국을 배제시킨 채 워싱턴에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직접 휴전회담을 통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회담 대표단 구성과 임명도 미국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

3) 양측 휴전회담 대표단 구성의 특징

휴전회담에 임하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지도체계와 대표단 구성을 볼 때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측이 모두 전쟁당사국인 남북한을 제쳐두고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공산군을 대표하는 중국이 휴전회담을 주도하였고, 이를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그들이 내세운 지도체계를 지켜나갔다는 점이다.

또한 휴전회담 대표 구성에 있어서 유엔군 측은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구성된데 비해, 공산군 측은 북한을 배려하는 흔적을 남겼다. 즉, 공산군 측은 수석대표를 북한 측에서 임명하고 전체 대표 수도 북한이 1명 더 많이 배정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선전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었고, 휴전회담장에서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미리 짜여 진 각본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최초 김일성은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를 추천했으나 중공군 수뇌부에서 사령관이 회담장에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제1부사령관인 덩화(鄧華)가 나가게 되었다.

3. 휴전회담 평가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휴전회담은 몇 개 수준의 다른 협상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측 휴전회담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담대표회의(Conference on Armistice Proposal)를 비롯하여 합동분과위원회 회의(Sub-Delegation Meeting), 연락장교회의(Liaison Officers Meeting), 참모장교회의(Staff Officers Meeting)가 그것이다.

본회담은 휴전회담에서 최고 결정기관이다. 예하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본회담에 상정되어 양측의 합의를 보아 결정되었다. 본회담은 개성에서 1951년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렸고, 판문점에서 1951년 10월 25일부터 1953년 7월 19일까지 개최되었다. 합동분과위원회는 군사분계선 협상이 진행 중이던 8월 15일 본회담에서 조이 제독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의제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양측 대표가 미리 합의하여 회담의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참모장교회의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되거나 합의보지 못한 것을 연구하여 본회담 및 분과위원회 대표들의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잠정 군사분계선을 지도에 도식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다.

1951년 7월 10일 개막된 휴전회담은 중단과 휴회 그리고 회담 재개 등을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엔군 측 보도진 출입문제, 휴전회담장에 대한 중립협정위반사건, 공산군 측의 중립협정위반 날조사건, 휴전회담 장소의 이전(개성에서 판문점)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휴전회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회담 대신 유엔군 측 수석대표의 제의로 합동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부의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되었다. 그 첫 성과가 잠정분계선에 대한 합의였다.

하지만 양측은 휴전회담 의제로 5개 항에 대한 토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양측은 겨우 의제 제2항(잠정 군사분계선 설치)에 대한 합의만 하였을 뿐 제3항(정전 및 휴전실현을 위한 구체적 합의)과 제4항(전쟁포로에

관한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다가 간신히 타결을 본 제2항마저도 한 달 간의 유효기간이 지남으로써 무위로 만들었다. 이처럼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휴전회담은 공산군 측의 무성의와 억지 주장으로 상대방의 입장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다.

제4절 결 론

6·25전쟁사 제9권(『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은 휴전회담 개시와 더불어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전후의 군사적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벌였던 고지쟁탈전을 다루고 있다. 양측은 전쟁 발발 1주년에 즈음하여 상호 간의 정치적·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시작하였지만, 이의 결과로 체결될 정전협정 이후의 전략적·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1951년 12월 31일까지 치열한 전투를 병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쟁은 미국·유엔과 소련·중국의 대결 구도로 구축되었고, 전쟁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특히 한국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휴전회담도 미국과 소련·중국의 향후 정치적·전략적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전쟁의 성격도 캔자스-와이오밍 선 이북의 작전이 통제되는 제한전(制限戰)으로 전개되었다. 모든 것이 휴전협정 체결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에 반하는 작전이나 군사적 행동 그리고 언행은 제재를 받았다. 미 제8군사령부가 계획한 대규모 상륙작전이 계획 및 실행 이전단계에서 취소되거나 한국의 휴전반대가 환영을 받지 못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이 책에서는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측의 휴전회담과 관련한 전쟁지도 및 지도체계, 휴전회담 진행과정, 전선지역에서의 고지쟁탈전과 후방지역에서의 공비토벌작전, 그리고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수행한 해·공군작전을 망라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휴전정책 및 전쟁지도측면이다. 미국의 휴전정책은 세계전략을 추구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 선택적 여지가 없었다하더라도 계획단계에서 한국정부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였다. 이 단계에서 미국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전후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휴전

회담에 임하는 것이 한국전에서의 공동의 이익 달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미국은 휴전협정 체결이 거의 성사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이후 한국에 대한 전후 보장책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음을 볼 때 미국의 휴전정책 및 지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배제는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휴전전략은 치밀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휴전회담 전략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하였다. 하나는 계획단계에서 서부지역의 연안 및 옹진반도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휴전협상 과정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개성지역을 휴전회담장으로 승인하면서 수도 서울에 근접한 개성을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유엔군은 군사분계선 설치협상 시 현 접촉선과 이의 연장선에 의한 해상분계선만을 주장함으로써 당시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지역의 도서(島嶼)들을 포기하였다. 미국은 지상에서는 현 접촉선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북한지역 도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만일 이때 미국이 북한지역의 도서들을 전후 유엔군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면, 공산군 측은 타협안으로 지상에서의 분계선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유엔군의 휴전회담 전략이 공산군 측 보다 한 수 밑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전후 북방한계선 및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에 대한 적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은 '대한민국 안보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되고 있다.

셋째, 제한전은 전쟁에도 휴전회담에도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공산군을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제한된 지상작전 및 전술목표에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전략적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하였다. 만일 유엔군이 원산상륙작전 등 대규모 공세를 통해 공산군을 군사적 수단에 의해 압박하면서 이를 휴전회담과 연계시켰더라면 전선에서와 휴전회담장 모두에서 유엔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다. 유엔군은 지상에서의 소극적인 작전과 제한된 군사행동으로 인해 작전목적과 휴전회담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병력의 손실만 가져오는 소모전으로 일관하였다.

넷째,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 기간을 이용하여 전력을 정비하고 전투력을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산군 측은 '일면 협상, 일면 전투'라는 특수한 전장 환경 조건하에서 춘계공세 이후 그들의 손실된 전투력을 회복하고 38도선 일대의 접촉선에서 진지를 요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공산군은 동굴진지 등 견고한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즉, 결과적으로 공산군은 휴전회담을 그들의 전력을 정비 및 개선하고 차후 공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국군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후방지역의 공비들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은 적절한 조치였다. 후방지역 공비들에 대한 한국정부 및 국회의 인식 그리고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미 제8군사령부의 조치가 한국내의 시한폭탄 및 암적인 요소와 같은 공산게릴라를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이 기간 내의 최대의 군사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의 휴전회담 기간 중에 유엔군 측이 채택한 휴전정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쟁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또한 유엔군 측의 휴전회담 전략과 제한전에 따른 소극적·제한적 군사작전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한 기대를 걸고 시작된 휴전회담 역시 공산군 측의 무성의로 중단, 휴회 그리고 재개 등으로 인해 큰 성과 없이 1951년을 보내게 되었고, 전선에서는 소모전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유엔군의 제공권·제해권을 살리지 못한 것이나, 서부지역의 연안 및 옹진반도 그리고 개성지역을 조기에 포기한 조치는 오늘날 수도 서울을 적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NLL)과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적의 끊임없는 해상도발 및 위협의 단초가 되게 하였다.

(집필 : 남정옥)

부 록

1. 영문약어
2. 연 표

1. 영문약어

ADCOM —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전방 사령부
AGC — Amphibious Force Flagship 상륙전 기함
AKA — Attack Cargo Ship 공격 화물 수송함
AMS — Motor Minesweeper(YMS의 신형) 소해정
ANGLICO — 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항공·함포 연락 중대
APA — Attack Transport 공격 인원 수송함
APD — High Speed Transport 고속수송함
ASCOM — Army Service Command 육군 기지창
ATF — Fleet Tug 예인함
BB — Battleship 전함
BLT — Battalion Landing Team 대대 상륙단
CA — Heavy Cruiser 중(重) 순양함
CP — Command Post 지휘소
CL — Light Cruiser 경(輕) 순양함
CV —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CVE — Escort Aircraft Carrier 호위 항공모함
CVL — Light Aircraft Carrier 경항공모함
DD — Destroyer 구축함
DE - Escort Destroyer 호위 구축함
DUKW — Amphibious Truck(Dual Utility Cargo Waterborne) 수륙양용트럭
FBHL — Force Beach Head Line 해안두보선
FMF — Fleet Marine Force 함대해병대
GQ — General Quarters 전투 배치
JCS — Joint Chiefs of Staff 합동참모본부
JSPOG —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합동전략 계획단
JTF — Joint Task Force 합동기동부대
KLO — Korean Liaison Office 한국연락사무소

LCM — Landing Craft, Medium	중형 상륙정
LCVP — 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	상륙 주정
LD — Line of Departure	공격개시선
LF — Landing Force	상륙군
LSD — Landing Ship Dock	상륙 선거함
LSMR — Landing Ship Medium-Rocket	로켓 포함
LST — Landing Ship Tank	대형 상륙함
LSU — Landing Ship Utility	대형 상륙정
LVT — Tracked Landing Vehicle	수륙 양용차
LVT(A) — Armored Tracked Landing Vehicle	장갑 수륙 양용차
MAG — Marine Aircraft Group	해병 비행 전대
MAW — Marine Air Wing	해병 항공 사단
MTT — Mobile Training Team	이동 교육반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OP — Observation Post	관측소
PC — Submarine Chaser	구잠함
PF — Frigate	호위함
PPS — Policy Planning Staff	정책기획실
RCT — Regimental Combat Team	연대전투단
RLT — Regimental Landing Team	연대상륙단
SFCP — Shore Fire Control Party	해안 사격 통제반
TAC — Tactical Air Command	전술 항공 본부
TF — Task Force	기동부대, 특수임무부대
TG — Task Group	기동전단
TTU — Troop Training Unit	부대훈련대
USAFIK — U. S. Army Forces in Korea	주한 미 지상군
VMF — Marine Fighter Squadron	해병 전투기 대대
VMF(N) — Marine Night(All-weather) Fighter Squadron	해병 전천후 전투기 대대
YAK — Russian Fighter Aircraft	소련제 전투기
YMS — Motor Minesweeper(AMS의 구형)	소해정

2. 연 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7월 1일	• 공산군, 휴전제안 수락, 7. 10~15일 개성 개최 제의
	7월 2일	• 국회, 휴전반대 결의안 결의
	7월 8일	• 휴전회담 예비회담
	7월 10일	• 휴전회담 개성에서 개막 • 한국측 대표, 백선엽 소장 부임
	7월 15일	• 개성 휴전회담장 중립화 협정
	7월 26일	• 휴전회담 의사결정 5개 항목 협의 • 의제2항 군사분계선 설정문제 토의 시작
	8월 1일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창설
	8월 18일	• 국군제1군단·미제10군단, 제한 공격작전 ; 포복(크리퍼)작전 전개
	8월 23일	• 수도사단, 924고지 탈취
	8월 24일	• 공산측, 유엔기의 중립지대 침범사건 날조 및 회담 거부
	8월 25일	• 유엔군 김화, 금성 지역 목표고지 재탈환
	8월 27일	• 제11사단 88고지 탈취
	8월 31일	• 산청지구 공비 궤멸
	9월 3일	• 국군 해병제1현대 해안분지(펀치볼) 점령
	9월 3일~ 10월 14일	• 제5사단, 가칠봉 부근 전투(1211고지 공격)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9월 5일	• 미제2사단, 피의 능선 점령
	9월 20일	• 미 해병제1사단, 812고지 점령
	9월 26일	• 유엔 공군 101대, 미그기 155대와 공중전, 한국전 최대의 공중전 • 제7사단, 백석산 탈환
	10월 1일	• 제8사단, 백석산 확보 • 미합창참의장 브래들리 한국전선 시찰
	10월 2일	• 이대통령, 브래들리 회담
	10월 3일~ 10월9일	• 미 제1·제9군단, 코맨도우(Commando) 작전 실시
	10월 13일	• 미제2사단, 단장의 능선 탈환
	10월 18일	• 제2사단, 금성 서남지구 점령
	10월 19일	• 수도사단 남강 완전 확보 및 고성 남쪽까지 진출
	10월 21일	• 제6사단, 교암산 점령
	10월 23일	• 미공군, 소련공군의 참전 사실을 언명
	10월 24일	• 한국측 대표 교체, 이형근 소장 부임
	10월 25일	• 휴전회담 판문점에서 재개
	10월 28일	• 제8사단 1090고지 탈환 • 육군대학 창설 • 콜린스 미 육군참모총장 내한
	11월 16일	• 이탈리아 의료지원부대 도착
	11월 17일	• 제6사단, 949고지 점령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11월 27일	• 휴전회담, 잠정군사분계선 협정·의제3항 정전과 휴전 세부사항 협상 시작
	12월 2일	• 휴전회담, 비행장 증강문제로 대립 • 백(白)야전전투사령부, 서남지역 공비토벌작전 개시
	12월 11일	• 의제4항 포로송환 협상 착수
	12월 17일	• 터키부대, 평강남쪽 전초전에서 적 공격 격퇴
	12월 25일~ 12월 28일	• 제7사단, 크리스마스고지 전투
	12월 30일	• 미 제45사단 한국에 파견

참 고 문 헌

Ⅰ. 국문 문헌

명령, 지시, 작전보고서 등 문서, 자료집

국방부, 「일반명령」 제47호(1951. 6. 20).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95호」(1951. 9. 29).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97호」(1951. 10. 3).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98호」(1951. 10. 7).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99호」(1951. 10. 12).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0호」(1951. 10. 12).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1호」(1951. 10. 13).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2호」(1951. 10. 14).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3호」(1951. 10. 17).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4호」(1951. 10. 23).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5호」(1951. 10. 24).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6호」(1951. 11. 11).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7호」(1951. 11. 15).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08호」(1951. 11. 16).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0호」(1951. 11. 20).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1호」(1951. 11. 21).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2호」(1951. 11. 23).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3호」(1951. 11. 25).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4호」(1951. 11. 28).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5호」(1951. 11. 30).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18호」(1951. 12. 28).
육군본부, 「작전계획 제26호」(1951. 11. 16).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197호」(1951. 9. 2).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198호」(1951. 9. 11).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199호」(1951. 9. 16).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200호」(1951. 10. 7).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201호」(1951. 10. 13).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202호」(1951. 11. 11).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203호」(1951. 11. 25).
육군본부, 「육본훈령 제202호」(1951. 11. 11).
육본작전교육국, 「정기작전보고 제169호」(4283. 7. 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26),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42),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45),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49),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1), (대전 : 육군본부,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2),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4),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5),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6),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8),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대전 : 육군본부,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60), (대전 : 육군본부, 1987).

국군 제1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154호」(1951. 11. 14).
미 제10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216호」(1951. 8. 14).
미 제10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246호」(1951. 10. 16).

국군 수도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41호」(1951. 8. 16).
국군 수도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46호」(1951. 10. 9).
국군 제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73호」(1951. 12. 29).
국군 제1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128호」(1951. 12. 31).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본부,「작전지시 제75호」(1951. 12. 31).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본부,「작전지시 제72호」(1951. 12. 28).
국군 제3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3호」(1951. 10. 24).
국군 제3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4호」(1951. 10. 27).
국군 제3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5호」(1951. 10. 31).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45호」(1951. 8.).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47호」(1951. 9. 5).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48(1951. 9. 9).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0」(1951. 9. 14).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1」(1951. 9. 16).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2호」(1951. 9. 18).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3호」(1951. 9. 19).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6호」(1951. 9. 22).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58호」(1951. 9. 26).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본부,「작전명령 제72호」(1951. 9. 28).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1호」(1951. 10. 1).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3호」(1951. 10. 3).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5호」(1951. 10. 5).

국군 제5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66호」(1951. 10. 9).
국군 제6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70호」(1951. 11.).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본부,「작전명령 제57호」(1951. 11. 17).
국군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19호」(1951. 9. 23).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본부,「작전지시 제45호」(1951. 9. 22).
국군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49호」(1951. 8. 15).
국군 제8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47호」(1951. 9. 29).
국군 제8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37호」(1951. 10. 3).
국군 제8사단사령부,「작전지시 제98호」(1951. 12.).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본부,「작전명령 제35호」(1951. 10. 5).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본부,「작전명령 제36호」(1951. 10. 12).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본부,「작전명령 제28호」(1951. 10. 11).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본부,「작전명령 제29호」(1951. 10. 13).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본부,「작전명령 제19호」(1951. 10. 11).
국군 제11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81호」(1951. 11.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2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3권,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2권, 200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3권, 200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연세대학교이승만연구원, 『사진으로 보는 6』25전쟁과 이승만대통령』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 편역자 출판, 2006년).
國史編纂委員會,『大韓民國史資料集』제29집(과천 : 편자출판,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 『6·25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6년).
대검찰청 공안부,『좌익사건실록』제11권, (서울 : 대검찰청, 1975).
대한민국 외무부(편역),『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서울 : 미발간, 1994년).
大韓民國公報處,『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서울 : 편자출판, 1953년).
대한민국 공보처,『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공보처, 1953년).
사회부,「피란민구호상황주보」제4호(1951. 2. 3).
외무부,『한국전쟁관련 소련비밀외교문서』제3권, 1994(미간행).

신문, 방송, 사전, 연감, 일지

New York Times, 2 Jun 1951.
『동아일보』1951년 8월 13일자.
『대구매일』1951년 3월 25일자 ; 1951년 1월 9일자.
『동아일보』1951년 2월 9일자.

『민주신보』1951년 1월 24일자 ; 1951년 1월 6일자.
『부산일보』1951년 4월 19일자 ; 1951년 1월 17일자.
『서울신문』1950년 12월 14일자.
『朝鮮日報』1950년 12월 18일자.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군통계년감』(서울 : 통계국, 1952년).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一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2년).
동아일보사, 『비화 제1공화국』제2집(서울 : 홍우출판사, 1975년).
사회과학출판사,『조선지명편람(함경남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연합뉴스,『2009 북한연감』(서울 : 편자 출판, 2009년).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 연구소, 2004년), 제11권(강원도).
朝鮮中央通信社,『朝鮮中央年鑑』(平壤 : 편자출판, 1952년), 國內篇(1951～1952年).
崔鍾泰 編著,『韓國戰爭日誌』(서울 : 軍事問題硏究所, 1991년).
韓國言論資料刊行會, 『한국전쟁 종군기자』2(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87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인물대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9).

부대사, 증언집, 회고록, 전기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창군과 6·25전쟁』(계룡 : 공군본부, 2010).
공군본부,『6·25전쟁 증언록』,(계룡 : 공군본부, 2002년).
공군본부,『전투요보』,(계룡 : 공군본부, 2000년).
공군역사기록단 역,『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제1집,(계룡 : 역자 출판, 2010년).
국방군사연구소,『국방사 연표, 1945-1990』(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제2집(서울 : 국방부. 198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1989년.
국방부,『국내 군수 지원 능력 및 현황』(서울 : 국방부, 1969년).
국방부,『한국전란 1년지』(서울 : 국방부, 1951년).
국방부,『한국전란 2년지』(서울 : 국방부, 1953년.)
육군본부, 『판문점』상, 1972.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서울 : 정우사, 1984년).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서울 :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1989년).
병무청,『병무행정사, 상권』(서울 : 병무청, 1985년).
보병 제1사단, 『전진역사』,(서울 : 인쇄창, 1966).
보병 제8사단사령부, 『오뚜기 약사』(서울 : 인쇄창, 1969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Ⅰ(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3년).
서울특별시, 『시세일람』(서울 : 서울시, 1957).
劉載興,『激動의 歲月』(서울 : 乙酉文化社, 1994년).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서울 : 그루터기, 1996년).
장도영,『望鄕 :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 숲속의 꿈, 2001년).
장성환,『나의 항공생활』,(서울 :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4년).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년).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서울 : 광명출판사, 1996년).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서울 : 동아일보사, 1986년).
제7보병사단, 『상승칠성부대-전사를 중심으로(1946, 1, 29~2007. 8. 31)』, 2007.
조병옥,『나의 회고록』(서울 : 해동, 1986년).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 고려원, 1991년), 제1권.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제3집, 제4집(서울 : 중앙일보사, 1985년).
韓徹永,『自由世界의 巨星 : 李承晩大統領』(서울 : 文化春秋社, 1953년).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년).
해군본부,『해군편제사』제1권(서울 : 해군본부, 1970년).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서울 : 해병대사령부, 1961년).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1958.

연구 저서 및 논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권(서을 : 국방부, 197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국방부, 1972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1973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7권(서울 : 국방부, 1974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0권(서울 : 국방부, 1980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11권(서울 : 국방부, 1981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 편)』(서울 : 국방부, 1985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백마고지전투』(서울 : 국방부, 1984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양구전투』(서울 : 국방부, 1989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월비산·351고지전투』(서울 : 국방부, 1990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 1988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상)(서울 : 국방부, 19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6권(서울 : 국방부, 2009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7권(서울 : 국방부, 2010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의 정보보고 체계(1945~1953년 미 정보보고서 중심으로)』(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7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중)(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하)(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7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지원사』(서울 : 신오성, 1995년).
공군본부,『항공 전사 : 한국전쟁』, (계룡 : 공군본부, 1989년).
공군본부,『6·25전쟁 항공전사』, (계룡 : 공군본부, 2002년).
소련군 총참모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열림, 1998년).
김종국 역, 러시아 국방부편『러시아가 본 한국전쟁』(서울 : 오비기획, 2002년).
남정옥,『한미군사관계사』(서울 : 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남정옥,『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경기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년).
남정옥,『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경기 파주 : 이담 북스, 2010년).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서울 : 국회, 1972년).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 오비기획, 2002년).
로버트 T. 올리버 저, 박일영 역,『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 이승만과 한미관계』(서울 : 계명사, 1990).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 『밀물과 썰물』(서울 :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서울 : 이매진, 2004년).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상·하) (부산 : 부산일보사, 1984).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 전사 27』(평양 : 북한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박명훈,『조선지명편람(평안북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백선일 譯,『밀물과 썰물』(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95년).
보훈처, 『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 (서울 : 국가보훈처, 2006).
빌 길버트 원저, 안재철 편역,『마리너스의 기적의 배』(서울 : 2004년).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한국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년).
서용선 외,『한국전쟁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서을 : 국방군사연구소, 1995년).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서상문,『6·25전쟁과 베트남전쟁 : 동아시아전쟁사 최근연구 논문선집』(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년).
서울신문사 편저,『주한미군 30年』(서울 : 행림출판사, 1979년).
시성문, 『판문점 담판』(북경: 해방군출판사, 1989).
신형식 역,『한국전쟁 해전사』, (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3년).
안재철,『생명의 항해』(자운각, 2008년).
양영조,『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서울 : 선인, 2007년).
오진근, 임성채 공저,『손원일 제독』(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년).
온창일,『한민족전쟁사』(서울 : 집문당, 2007년).
이상호·박영실,『6·25전쟁 소년병 연구』(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년).
이충환,『미국비밀 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서울 : 삼인, 2003년).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 인사편』(서울 : 육군본부, 1953년).
육군본부,『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하)(서울 : 육군본부, 2009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공비연혁』, 1971년.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서울 : 일신사, 1996년 수정판).
육본정보참모부,『북괴 6.25남침분석』(서울 : 보진재, 1970년).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 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서울 : 다섯수레, 1991년).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제5권(서울 : 명성출판사, 1991년).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 『한국전쟁 : 진지전으로의 전환』제8권, (서울 : 명성출판사, 1991년).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6권(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조성훈,『한국전쟁과 포로』(서울 : 선인, 2010년).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서울 : 신명문화사, 1961).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제5권(서울 : 저자 출판, 1992년).
데이비드 햅버스탬 지음, 정윤미, 이은진 옮김,『The Condest Winter :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서울 : 살림출판사, 2009년).
최만원 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서울 : 선인, 2010).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서울 : 에디터, 2003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 세경사,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서울 : 편자 출판, 1991년), 제2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 선인, 2001년).
해군본부,『6·25전쟁과 해군작전』(충남 계룡 :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2년).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해군본부, 2001년), 제3편.
해군본부,『해군편제사』(서울 : 해군본부, 1954년).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제1집(해군본부, 1954년).
해군본부,『해군 30년사 1945~1975』(해군본부, 1978년).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제3·4집(해군본부, 2001년).
한표욱, 『한미외교 요람기』(서을 : 중앙일보사, 1984년).
홍학지 지음, 홍인표 옮김,『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고려원, 1992년).
홍학지 저, 홍인표 역,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 회고록 :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김계동,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박두복 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 백산서당, 2001년).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영호,「6·25전쟁과 유엔의 역할」『軍史』, 제59호.
남정옥,「6·25전쟁 초기 미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전쟁지도」『軍史』, 제59호.
남정옥,「국민방위군」『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서상문,「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모택동의 6.25전쟁 개입동기」, 해양전략연구소『STRATEGY 21』, Summer 2007, Vol.10 No.1.
沙江,「항미원조전쟁의 군사목표와 전쟁지휘」,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
신범식,「소련의 북한 군사 지원」『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제1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牛軍, 「중국 참전과 국제정치」,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제2권(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원태재,「6·25전쟁과 영국의 역할」『軍史』, 제59호.
이종석,「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軍史』, 제44호.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한국전쟁 : 유엔군의 재반격』7, (서울 : 명성출판사, 1986).
전종순, 「중공군 정월공세 시 리지웨이와 펑더화이의 작전지도」, 『軍史』제45호.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제1권,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 2001년).
조창래, 「한국전시 릿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고찰」, 『군사평론』 제350호 부록, (대전 : 육군본부, 2001).
解方,『關于朝鮮開城停戰談判的回憶』, 정부기록보존소,『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Ⅱ(대전 : 신진기획, 200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기 전쟁수행과 그 영향 학술회의』(서울 : 한역연, 2010년 6월).
황순필, 「국군 제8사단의 횡성지구 재평가」 『군사평론』 제385호, (대전 : 육군본부, 2006)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광주전남현대사』2, (서울 : 실천문학사, 1991).
김남식,『남로당연구』1, (서울 : 돌베개, 1984).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겨울호, (서울 : 역사비평사, 1988).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전라남도지』 제9권, (광주 : 광주광역시, 19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휴전사』, (서울 : 국방부, 19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1945~1960)』, (서울 : 국방부, 1988).
중앙일보사 편,『민족의 증언』3, (서울 : 을유문화사, 1975).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대전 : 육군본부, 19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Ⅱ. 외국어 문헌

영문 자료

국방군사연구소,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ⅩⅤ,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53집(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년).
AFHRA, http://www.afhra.af.mil/shared/media/ document/AFD-090611-098.pdf.
Eighth Army G4 SS Rpts, 20 Dec 50; Eighth Army Trans SS Rpts, 10 July 51.
FEC GHQ,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Unpublished :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1951).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1951. 7. 15).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 1 October 1951.
GHQ, EUSAK, Command Report, October 1951.
JCS 1776/249, 7 September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July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September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August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October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November 1951.
Hqs. EUSAK, Command Report, .December 1951.

Hqs. X Corps, Command Report, 1 Jun to 30 July 195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Qs of R.O.K., *Units Short History ROKA*(Seoul, Headquarters ROKA, 1955).
Memo for General Bradley, General Vandenberg, and Admiral Sherman by General Collins, sub.
Military Effectiveness and Desirability of Employing Atomic Weapons Tactically in Korea, July 2, 1951, RG218, CCS 383.21 Korea(3-19-45), sec., 51, NA.
Message to Commander-in-Chief, the Far East Command, and Commanding General, Strategic Air Command, Commander-in-Chief, the Pacific, Selected Records Relating to the Korean War, DoD, Truman Papers, truman Library.
Memorandum of Conversation in Development of State by D. Rusk, Feb. 6, 1951.
(TS) Dept of State, WTM T-10-1, "Washington Foreign Ministers' Meeting…UN Action in Korea in Case of an Armistice," 18 Aug 1951, Encl B to JCS 1776/246, 247, 27 Aug 1951, CCS 383.21 Korea(3-19-45) sec 60.
(TS) Dept of State, WTM T-10, "Washington Foreign Ministers' Meeting, Tripartite and British Talks, UN Action in Korea in Case of an Armistice," 18 Aug 1951, Encl B to JCS 1776/247, 29 Aug 1951, CCS 383.21 Korea(3-19-45) Sec 61.

Transcript of Proceedings, Third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3,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6, Enclosure (1) Meeting of Staff Officers to Determine Contact Line, Held at Pan Mun Jom, 6 December 1951.
Transcript of Proceedings, Ninth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3,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12,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3 Summary Proceedings Pan Mun Jom Meetings Session 1 (4 December 1951) through Session 71 (19 April 1952).
Transcript of Proceedings, First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4,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11,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4 Summary Proceedings Pan Mun Jom Meetings Session 1 (11 December 1951) through Session 71 (15 March 1952).
Transcript of Proceedings, Second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4,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1. 12. 12.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c 1950.
U.S. Air Force/Air Staff, 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Jan 1951 - July 1951.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Ⅶ(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Ⅶ Part 1(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US Message, JCS 95977 to CINCFE, 10 Jul 1951.
US Message JCS 95174 to CINCEF, 28 Jun 1951.
US Message JCS 95354 to CINCUNC(personal for Ridgway), 30 Jun 1951.
US Message, CINCFE 65529 to JCS, 22 Jun 1951.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9).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www.afhra.af.mil, USAF Organizations in Korea 1950-1953.
Alexader, Joseph H., "Fleet Operations in a Mobile War, September 1950-June 1951", Ed. by Marolda, Edward J., *The U. 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Press, 2007).
Appleman, Roy E.,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9).
Appleman, Roy E.,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 (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8).
Barros, James, *Trygve Lie and the Cold War*(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9).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Clausewitz, Carl Von, *On Wa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Michael and Paret, Peter.
Cowart, Glenn C., *Miracle in Korea*(Columbia, 1992).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of U. 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Crane, Conrad C.,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Field, James 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Washington, 1962).
Finley, James P.,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altions*(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Futrell, Robert 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Hermes,Walter G.,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f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Hammel, Eric M., *Chosin : Heroic Ordeal of Korean War*(CA Novato : Presidio Press, 1990).
Kennan, George F., *Memoirs, Ⅱ, 1950-63*(Boston, T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2).
K. Spate O. H.,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D., Jackson W. A., ed.,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and Geography(Prentice Hall : Englewood Cliffs, 1964).

Hermes, Walter G.,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Kesaris, Paul, ed., *Record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t II : 1946-1953 The Far East, Washington*, A Microfilm Project of University Pub. of America, Inc., 1979, No.9.

Kissinger, Henry, *Diplomacy*(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Leary, William M.,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Mossman, Billy C., *United States Army in Korea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No Kum-Sok &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1996).

Panikkar, K. M., *In two Chinas : Memoirs of Diplomat*(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55).

Paterson, Thomas G., Clifford Gary, and Hagan Kenneth J., *American Foreign Policy : A History 1990 to Present*(Lexington, Massachusetts Toronto : D. C. Heath and Company, 198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Univ. Press of the Pacific Honolulu, 1988).

Schnabel, James F., and Watson Robert J.,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One(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Schnabel, James F., and Watson Robert J.,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Ⅲ 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Washington, D. C. :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Shrader, Chares 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London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5).

Stratemeyer, George E.,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Washington :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9), Edited by Blood, William T. Y.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New Jerse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The Air University of USAF,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 1955.

Truman, Harry S., *Memoirs :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 & Co., Inc., 1956).

중문 자료

中國社會科學出版社,『當代中國空軍』(북경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北京 :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年).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5年).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中冊). (臺北 : 中央研究所近代史研究所, 2003年).
王焰主編,『彭德懷年譜』(北京 : 人民出版社, 1998年).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平壤 : 編者出版, 1981年), 第6卷.
中共中央文獻研究室,『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冊., (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毛澤東文集』第6卷., (北京 : 人民出版社, 1999年).
中國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第2卷,(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偉大的抗美援朝運動』(北京 : 人民出版社, 1954年).
陳章華、榮肇隆主編,『中國軍事史辭典』(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1993年).
彭德懷自述編輯組,『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年).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年).

일문 자료

宋榮福松,『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東京 : コリア評論社, 1979年).
陸戰史研究普及會,『中共軍の攻勢』(東京 : 原書房, 1971年).
佐佐木春隆, 『朝鮮戰爭』(中)(東京 : 原書房, 1979年).
A. V. トルクノフ著, 下斗米伸夫, 金成浩譯,『朝鮮戰爭の謎と眞實』(東京 : 草思社, 2001年).

찾아보기

1

1026고지 375
1031고지 358
1052고지 490
1090고지 444, 517
1124고지 400
1211고지 490
1220고지 517

2

272고지 526
281고지 444, 561

3

339고지 488
350고지 484
351고지 293
38도선 3
395고지 444, 561

6

6·25전쟁 3

9

924고지 375
949고지 550

ㄱ

가오강(高崗) 31
가칠봉 292, 373
간무봉 383, 491
간성 12
강릉전진부대 786
강석한 37
개성 11, 161
거창사건 38
게르하르트 특수임무부대 251
고대산 561
고왕산 520
고지쟁탈전 19
공군작전 22
공비토벌작전 45

공산군 3
공세역량만회 전략 50
공화민정회(共和民政會) 38
교암산 292
국가안전보장회의 57, 809
국군 10
국군 제1군단 10, 443, 478
국군 제1해병연대 375
국군 제2사단 531
국군 제3사단 444
국군 제5사단 376
국군 제6사단 5, 475, 550
국군 제8사단 477
국민방위군 37
국민방위군 사건 34
국제적십자사 184
국제전쟁 4
군사분계선 20, 148
군사전략 15, 49
군사정전위원회 145, 178
그로미코(Andrei A. Gromyko) 33, 111
그로스(Thomas J. Gross) 77
극동군사령부 6
금성천 292
김 희 37
김동석(金東石) 89
김동성(金東成) 39
김성수(金性洙) 38, 78
김웅(金雄) 47, 225, 227
김윤근 37
김일성 4, 31, 117
김일성고지 375
김일파(金一波) 132
김일환(金一煥) 79
김정렬(金貞烈) 79
김종면 88
김형일(金炯一) 38
김화 12

ㄴ

낙동강 3
낚시바늘 능선 360
남강 293
남북통일 36
남일 227
남일(南日) 47, 129
남침전쟁 4
내봉장(來鳳莊) 133
네덜란드대대 477
노르웨이 26
노매드(Nomad)선 501
노용식 37
노전평(蘆田坪) 348
뉴 미네소타선(New Minnesota Line) 500
뉴질랜드 26

ㄷ

단장의 능선 400
대일평화조약 26
대타격 작전계획(Plan Wrangler) 74
대한민국 4
덩화(鄧華) 47, 129, 136, 224, 303
데이비스(Arthur C. Davis) 112
데토네이트 작전(Operation Detonate) 231

덴마크 177
도유호(都宥浩) 133
돌빈 특수임무부대(T. F. Dolvin) 246
동계공세 21
동치우(董其武) 47
동해안방어사령부 454
두매리 40, 444
두핑 225
딘(William F. Dean) 190
딩밍(丁明) 128

ㄹ

라이트(Edwin K. Wright) 123
라주바예프 46
러베트(Robert A. Lovett) 58
류야러우 714
류전(劉震) 47
리비(Ruthven E. Libby) 126, 186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17, 28, 112, 113, 232, 316
리차드(Richard C. Underwood) 133
리커눙(李克農) 47, 128, 807
리한 721

ㅁ

마량산 520
마셜(George C. Marshall) 58, 113, 230
마오쩌둥 4, 15, 31, 118, 128
만대리 376
말리크(Yakob Malik) 31, 32, 111
매튜(Francis P. Matthew) 59
맥아더 라인 34
맥아더(Douglas MacArthur) 6, 28
맹금(猛禽)발톱작전(operation Talons) 73
머레이(James C. Murrey) 132
명예로운 휴전 808
모리슨(Herbert Morrison) 64
모택동고지 375
무장공비 35
문등리 292
문산 12
미 제10군단 10
미 제1군단 444
미 제1해병사단 9, 376
미 제24사단 6, 444
미 제25보병사단 475
미 제7보병사단 475
미 제7사단 9
미 제8군사령부 6
미 제9군단 475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 26
미국 25
미그회랑 691
민주국민당 38
밀번(Frank W. Milburn) 234, 320

ㅂ

바이어스(Clovis E. Byers) 325
박 철 37
박기환 37
박일우 225
박창원 37

박헌영(朴憲永) 47
반데버그(Hoyt S. Vandenberg) 60
방어기뢰 611
방호산 227
백석산 292, 444
백선엽(白善燁) 79, 88, 125, 327
백야전전투사령부(白野戰戰鬪司令部) 35, 544
백학산(白鶴山) 576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18, 43, 68, 232, 316
버크(Arleigh A. Burke) 125, 136
벨기에대대 526
벨로프(Belov) 54
보개산 561
부산 10, 35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26
북진통일 35
북한 3
북한군 3
북한군 제13사단 389
북한군 제27사단 385, 490
북한군 제2군단 5
북한군 제32사단 400
북한군 제5군단 401
북한해군 610
브래들리(Omar N. Bradley) 59, 113
브리스코(Robert C. Briscoe) 233, 319
비무장지대 148
비아리 373
비엔창우(邊昌武) 129
삐즈랑(畢致浪) 133

ㅅ

사미천(沙尾川) 576
사미촌 520
사태리 292, 384
산머리곡산 348
삼척 3
상륙양동작전 612
샌프란시스코 26
샤오잉탕 226
서남지구전투사령부 590
서울 5
서해안방어사령부 454
서희동 376
서희령 373
선지앤투(沈建圖) 128
설정식(薛貞植) 133
셔먼(Forrest F. Sherman) 60
셰팡(解方) 47, 129, 136, 225
소련 5
소련공군 691, 704
소타격 작전계획(Plan Cudgel) 74
소해작전 613
손원일(孫元一) 79
송필수 37
송현리(松峴里) 161
송화지구 전투 615
수도사단 443, 478
슈망(Robert Schuman) 64
스웨덴 177
스탈린 4, 46, 128
스트랭글(Strangle) 작전 69, 692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233

스트루먼 특수임무부대(Struman TF) 425
스티코프 46
시군무(柴軍武) 132
신미도 전투 615
신성모(申性模) 37, 78
심언봉(沈彦俸) 38
쑹스룬(宋時輪) 47, 225, 303

ㅇ

아파치(Apache)작전 73
안춘생(安椿生) 38
알몬드(Edward M. Almond) 325
애치슨(Dean G. Acheson) 31, 58, 113
앤저스(ANZUS) 26
야월산 523
야전훈련소(Field Training Center) 77
양구 11
양더즈(楊得志) 47, 226
양청우(楊成武) 47
어민(Ermine) 선 289
어은산 292, 501
언더우드(Horace C. Underwood) 133
에티오피아대대 475
역곡천 292
영국 25, 33
오다니엘(John W. O'Daniel) 74, 320
오산 6
오성산 292
와이오밍 선(Wyoming line) 28, 289
우(Kenneth Wu) 133
우신촨 225
원내자유당(院內自由黨) 39
원산항 포위작전 612
원외자유당(院外自由黨) 39
월비산 293, 444
월산령 376
월운리 372
웨이랜드(Otto P. Weyland) 80, 233, 319
웨이제 225
유경수 227
유엔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
유엔공군 7
유엔군 3, 8
유엔군사령부 56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6
유엔해군 7, 612
윤익헌 37
의정부 5
이갑성(李甲成) 39
이권무 227
이기붕(李起鵬) 37, 78
이범석(李範奭) 39
이상조(李相朝) 129
이수영(李壽榮) 132
이승만 34
이시영(李始榮) 38, 78
이용문(李龍文) 38
이익흥(李益興) 88
이종찬(李鍾贊) 37, 78
이탈리아 26
이형근(李亨根) 126, 172
인제 11
인천상륙작전 8, 43
임병언 37
임진강 11, 291

ㅈ

장경근(張暻根) 79
장성환(張盛煥) 88
장의두 37
장이샹 225
장진호 9
장춘산(張春山) 132
장평산(張平山) 129, 136
저우언라이(周恩來) 46
적극방어 297
적벽산 485
전경(陳慶) 47, 225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 SAC) 27
전략지침 49
전선사령부 300
전시내각(wartime cabinet) 78
전쟁목표 807
전쟁지도 15
전쟁지도부 49, 807
전투공수사령부 697
제13병단 455
제19병단 455
제1해병사단 613
제20병단 455
제23병단 455
제3병단 455
제5공군사령부 697
제7사단장 페렌버그 소장 235
제9병단 455
제네바협약(the Geneva Convention) 184
제압작전(Plan Overwhelming) 68, 316
제임스타운(Jamestown) 40, 444
제한목표공격작전 316
조이(Charles Turner Joy) 80, 123, 136, 233
조중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 46, 300, 807
존슨(U. Alexis Johnson) 112
주더(朱德) 47
중공군 3
중공군 제13병단 10
중공군 제9병단 10
중국 5
중국공군 690
중립협정 155
지구작전 297
지구전 50
지리산 35, 44
찡사오산 225
찡쓰위 226

ㅊ

차이청원(柴成文) 129, 132
찰리 특수임무부대(T. F. Charlie) 252
채병덕 5
천덕산 523
천안 6
철원 12
최고사령부 300
최용건(崔庸健) 47, 227
최현 227
춘계공세 12
춘천 5
치관화(喬冠華) 128

친지웨이 225

ㅋ

캔자스 선 11, 289
캔자스-와이오밍 선 289
커크(Alan G. Kirk) 33, 111
케난(George F. Kennan) 31
코만도(Commando)작전 444, 527
콜롬비아대대 475
콜린스(J. Lawton Collins) 59
크라소프스키 46, 118
크레이기(Laurence C. Craigie) 125, 136
크리스마스 고지 40, 571
클라크(Mark W. Clark) 92
키니(Andrew J. Kinney) 132, 156

ㅌ

터너(Howard M. Turner) 126
터키여단 475
토페카(Topeka) 231
트루먼(Harry S. Truman) 6, 27, 56, 112
트리그브 리(Trygve Lie) 56, 112, 809
특공작전(Operation Commando) 74, 520

ㅍ

파일드라이버(Pile Driver Operation) 작전 250, 254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233, 348, 428, 598, 736
펑더칭 225
펑더화이(彭德懷) 47, 121, 128, 224, 300, 812
페렌버그(Claude B. Ferenbaugh) 126, 236
페이스(Frank Pace, Jr.) 58
페치텔러(William M. Fetcher) 60
펠러(Abraham Feller) 122
평양 9
평택 3
평화의 가치 32
포로명부 190
포로수용소 144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 72, 318
폭격기사령부 697
폴라선(Polar Line) 75
푸산(浦山) 128
푸충비 226
프랑스 33
프랑스대대 412, 477
피의 능선 348
핀레터(Thomas K. Finletter) 59
필리포프 46, 807
필리핀 26

ㅎ

하계공세 21
하계작전 290
하버드(Harvard) 128
하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Hazel) 247

하진부리 11
한강방어선 5
한강주변 시위작전 612
한국공군 비행단 67, 297, 451, 698
한국전구(戰區) 56
한국해군 612
한반도 3
한셴추(韓先楚) 47, 225, 303
합동분과위원회 154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 JCS) 17, 27
항공차단작전 614
해군작전 21
해시계작전(Operation Sundial) 75
해안분지(펀치볼) 14, 289
향로봉(香爐峯) 481
허드슨 하버(Hudson Harbor) 27
허진넨(賀晋年) 47
헤이스선(Hays Line) 375
혜산진 9
호데스(Henry I. Hodes) 125, 136
호주 26
호지(William H. Hoge) 75, 323
홍쉐즈(洪學智) 47, 225
화천 11
화천저수지 11, 348
휴전 3
휴전반대 34
휴전반대 운동 810
휴전선 148
휴전정책 17
휴전협정 17
휴전회담 15, 25, 49, 297
히크맨(G. W. Hickman) 186

집 필 자

김 상 원 전쟁사부장
손 규 석 선임연구원
이 근 석 연구원
남 정 옥 책임연구원
최 권 삼 연구원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문위원
정 용 근 자문위원

감 수

한 용 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허 남 성(국방대학교 교수)
오 규 열(한국디지털대학 교수)
온 창 일(육군사관학교 교수)
정 토 웅(육군사관학교 교수)

상황도 CG : 안 상 은

6·25전쟁사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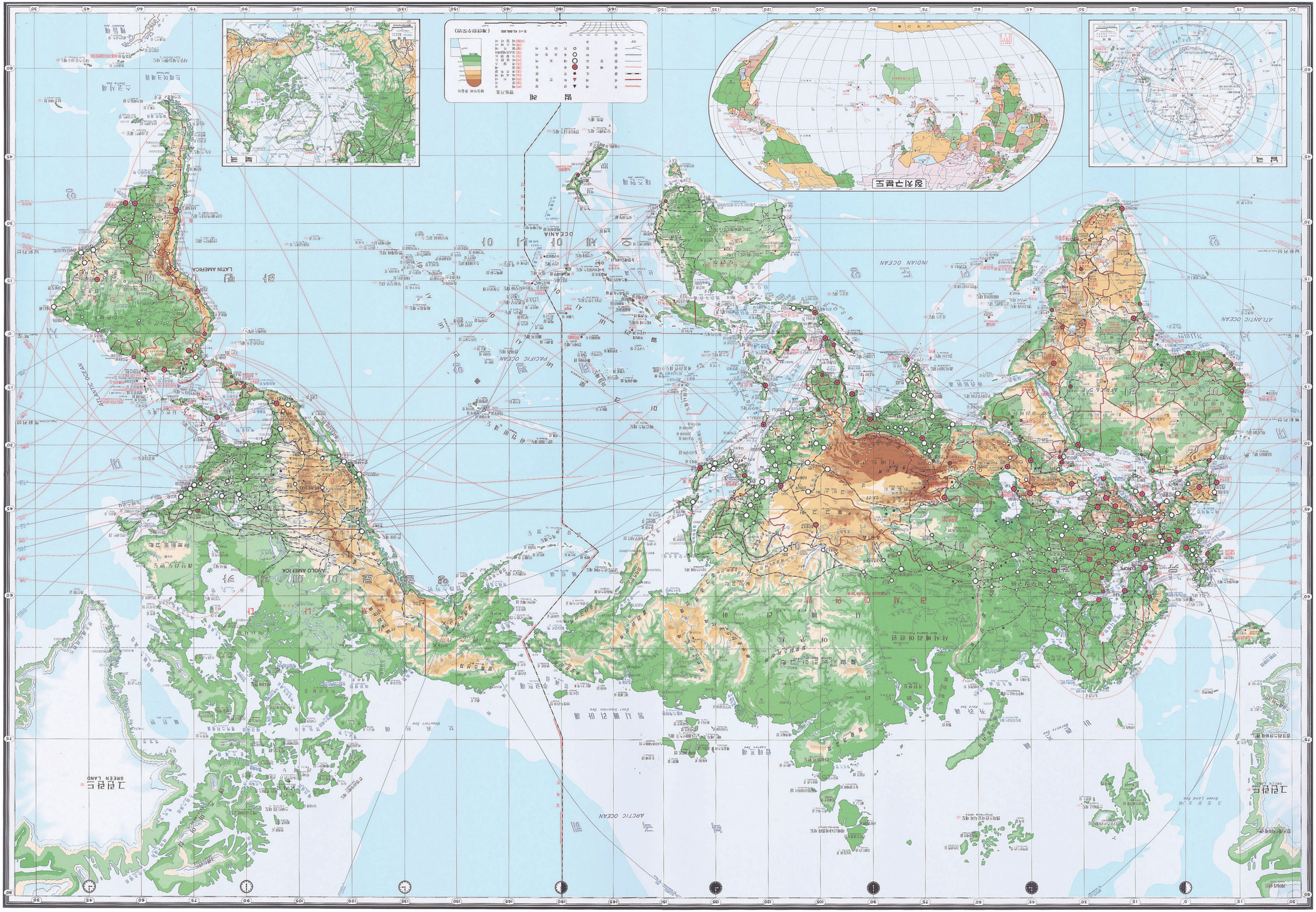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2012년 6월 25일 인쇄
2012년 6월 30일 발행

발 행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 국군인쇄창(12069448)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안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홈페이지 www.dsc.mil.kr)

이 책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집필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북극
남극
정치구분도
범례
ATLANTIC OCEAN
PACIFIC OCEAN
INDIAN OCEAN
ARCTIC OCEAN
OCEANIA
LATIN AMERICA
ANGLO AMERICA
GREEN LAND
EUROPE
AFRICA
ASI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